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한국과 프랑스, 함께해서 더욱 빛날 미래

19세기 후반, 조선 최초의 근대여성이라 불리는 리진(李眞)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녀에게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의 산실이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였습니다.

60년 후 주한 프랑스 초대 대사 로제 상바르(Roger Chambard)는 한국의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의 유해를 해인사가 잘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6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먹고 프랑스의 문학과 예술을 즐깁니다. 드라마에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시가 인용되고, 어느 프랑스 작가의 소설은 출간되지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와 K-pop, 한식과 참선(參禪) 등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30년간 양국이 정치와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의 이해, 협력을 증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불 양국은 지난 2013년 11월의 정산 간 합의에 따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개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공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백서>는 바로 이러한 양국의 여정을 정리하고, 양국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며 소통하고 나누었던 3년의 열정과 우정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참여 예술인과 관계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백서를 만드는 것은 ‘복기(復棋)’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 백서가 양국이 함께 지나온 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양국이 더욱 아름답고 굳건한 교류를 이어가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Voltaire)는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30년이 현재의 양국 관계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양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두 문화강국인 한국과 프랑스, 함께해서 더욱 빛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송수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자
결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2016년 12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약 1년 반의 최장 기간, 최다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1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유대감이 바탕이 되어 양국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과학, 경제, 스포츠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교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5년 가을 파리에서 시작된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종묘제례악>과 <에펠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국립장식미술박물관에서 열린 <코리아 나우!(KOREA NOW!)> 한국공예전 등의 예술 전시, 한류, 식문화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행사들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을 이해하고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봄 서울에서 시작된 ‘한국 내 프랑스의 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창조와 혁신, 문화 강국으로서의 프랑스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개막작인 한-불 합작 <시간의 나이>와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전과 같은 예술 전시는 물론, 첨단과학, 항공우주산업을 소개한 <한-불 우주 포럼>,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등의 스포츠 행사 또한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더욱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를 지닌 두 나라의 노력으로 개최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자 결실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기록한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부디 이 백서가 앞으로 개최될 국가 간 교류 협력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과 함께 백서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장 조양호



미래를 향한 특별한 한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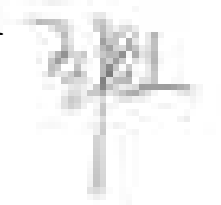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지난 30년간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가 주최해 온 모든 문화의 해와 시즌 프로그램들 중
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2015년 9월에서 2016년 12월에 이르는 기간,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언론과 대중의 관심과 열정, 이 모든 것
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를 통해 프랑스인들은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 년의 유산과 식문화, 현대예술의 다채로움을 두루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의 시작을 알린 샤이오국립극장 <종묘제례악>개막식 이후 한국 예술가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를 부단히 오가며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살
아있는 천 년의 문화를 실로 다채롭게 펼쳐보였습니다.

창조, 창조성, 혁신을 테마로 한 ‘한국 내 프랑스의 해(2016년 3월-12월)’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뿐 아니라 프랑스의 혁신적 실천과 노하우
를 선보이는 경제, 스포츠, 교육, 과학, 관광 관련 행사 또한 펼쳐졌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전과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프랑스문화유산을 재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예술 또한 큰 부
분을 차지하여,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프랑소와즈 위기에(Françoise Huguier) 사진전>, <
오를랑 테크노바디(ORLAN TechnoBody) 1966-2016>, <에코시스템 : 질 바비에(Gilles Barbier)> 전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
니다. 전문가와 대중 모두를 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양국 관계 발전과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양국
예술가, 기관, 지자체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기관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구축, 모든 형태의 공동 협력을 강화시
킬 수 있는 계획들과 상호 의사소통을 최우선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2016년 이후에도 계속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약속의 일
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비준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시행에 있어 문화협력의 역할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 올랑드 대통령 방한 및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2016년 6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방불 등 최고위급 정치회담
에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관련해 문화 이외의 영역을 아우르는 중요 양해각서 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양국 유학생 교류 촉진을 위한
학위 상호인정, 프랑스와 한국의 혁신적 스타트업 지원,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 관광 분야 협력, 경제 분야 대화 및 스포츠 분야 협력 등이
그 예입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양국 정부 유관부처, 양국 지자체와 프랑스기업 후원위원회, 언론파트너기관들
모두의 공동작업이 이룬 성과입니다.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대함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데 모았던 우정, ‘마음’이라
는 의미의 프랑스어 코르(Coeur, 심장)가 뜻하는 것처럼 심장과 영혼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의 우정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최준호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아녜스 베나예(Agnès Benayer)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발행일 2017. 2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편집·디자인 플러스81스튜디오스
전화 02-542-0810

ISBN 9788998604431 93600

필진(가나다 순)

공연
김은정 연극칼럼니스트, 극단 (라보라뚜아)이음 대표
김진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전문위원
송현민 월간〈객석〉기획실장
연승 〈서울경제신문〉문화레저부 기자
이의신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지현 춤비평가

시각
손영옥 〈국민일보〉미술담당 선임기자
이화행 파리에술경영대학 EAC 교수, 문화칼럼니스트
호경윤 아트저널리스트, 〈아트인컬처〉전 편집장
황석권 〈월간미술〉수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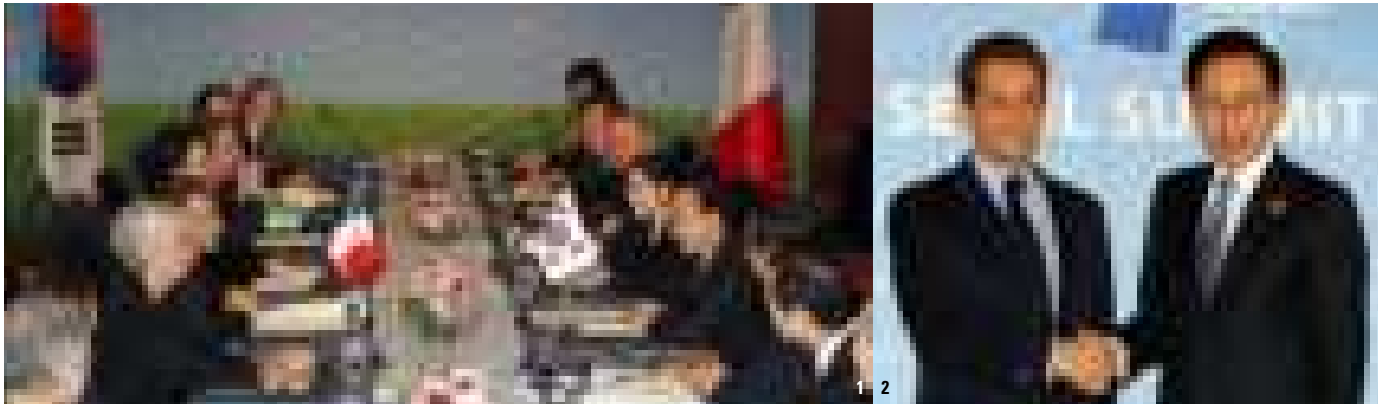
영화
김선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원정 영화주간지 〈매거진M〉기자
박선영 한국영상자료원 전문위원
민용준 영화저널리스트, 〈에스콰이어 코리아〉디지털 디렉터
송순진 영화저널리스트
전종혁 영화저널리스트
최재욱 영화저널리스트

문학/스포츠
최진희 칼럼니스트

일반
엄혜원 새움예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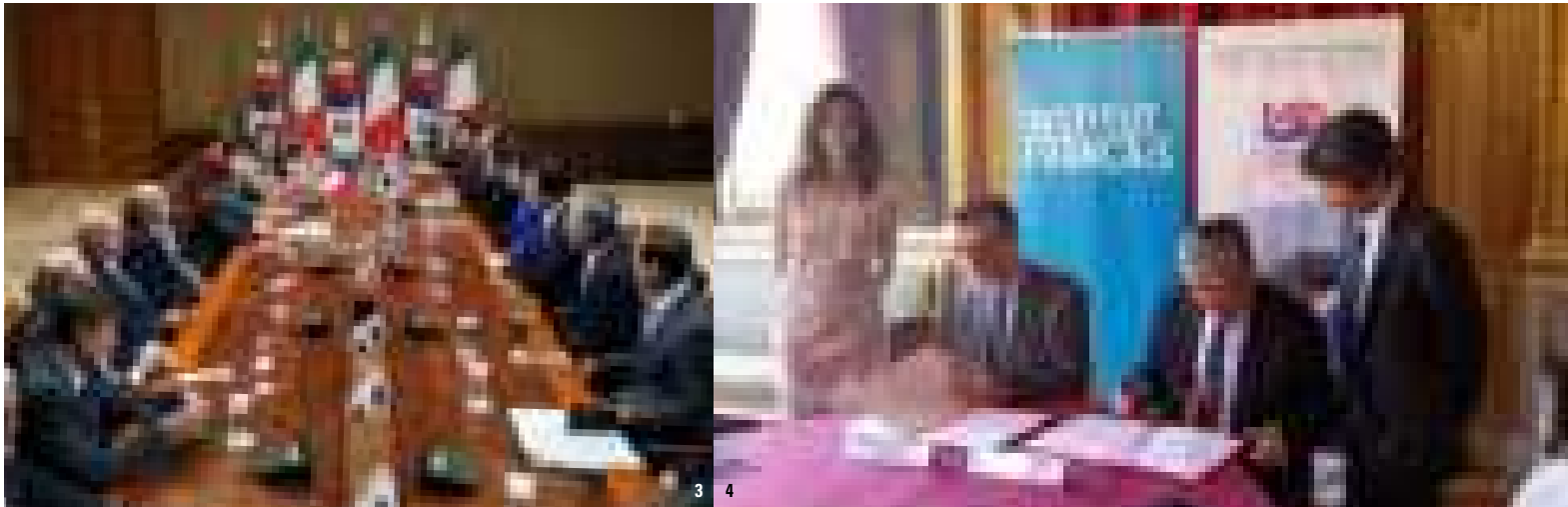
contents

발간사		3장. 소통	
002	한국과 프랑스, 함께해서 더욱 빛날 미래	388	한눈에 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004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자 결실	39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이루어 낸 결실
006	미래를 향한 특별한 한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404	타국의 우수 국제 문화교류 사례
화보		424	좌담 - 한국 국제 문화교류의 오늘과 내일
010	사진으로 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부록	
1장. 가교		438	홍보물 제작
042		441	온라인 홍보
한국과 프랑스, 그 오랜 인연		444	전체 사업목록
056		455	사진저작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성사되기까지		45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06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폭넓고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2장. 조우 분야별 사례			
078	공연		
224	시각		
338	영화		
366	기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성사되기까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1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서 시작되었다.



- 1.2. 2010.11.12 / 한-불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합의
- 3. 2013. 11.4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최 선언
- 4. 2014.1 /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구성
- 5. 2014. 4.14-16 / 제1차 한-불 공동회의, 파리
2015.2.11-13 / 제2차 공동회의, 서울
2015.6.16-19 / 제3차 공동회의, 파리
2015.12.8-11 / 제4차 공동회의, 서울
2016.5.11-13 / 제5차 공동회의, 파리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 2015.9.18

“한국 전통예술인 <종묘제례악>과 태극기 색을 입은 에펠탑은 강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양국이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외무장관

-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 기념 에펠탑 점등식
- 2.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 <종묘제례악>
- 3.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 리셉션



“종묘제례악,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느낌을 말할 수 있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 공연이었다.”

디디에 데샹(Didier Deschamps) 샤이오극장장





“샤면에서 춤추는 할머니까지, 프랑스 무대에 오른 한국”

르 몽드(LE MONDE) 2015.9.20



2015 파리가을축제

- 1. 안은미 댄스 3부작
- 2. 오늘의 음악, 진은숙
- 3. 김금화 <만수대택곳>
- 4. 안숙선 <수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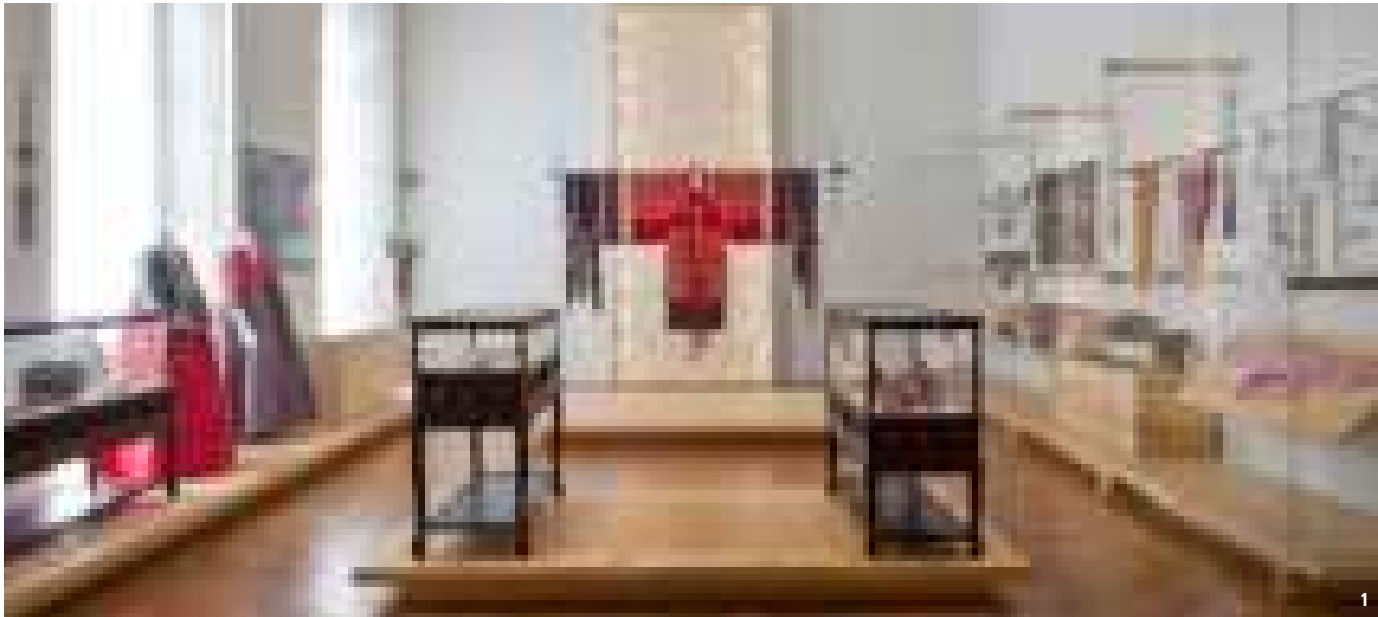
- 1. 케이콘(KCON) 2016
- 2. 테크노퍼레이드(Techno Parade): 한국주빈국-서울 밤! 투어



사이오국립극장 코리아 포커스

- 3. 김판선 <오운메가헤르츠(Own MHz)>
- 4. 안성수픽업그룹 <혼합>





1

“한국예술은 섬세하면서도 해학적 요소가 부족함이 없고,
색채가 화려하면서도 시적이다.”

소피 마카리우(Sophie Macariou)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

- 1. 여인의 장신구
- 2. 배병우〈숲 속으로〉
- 3. 4. 코리아나우(KOREA NOW)! 한국공예전



2



3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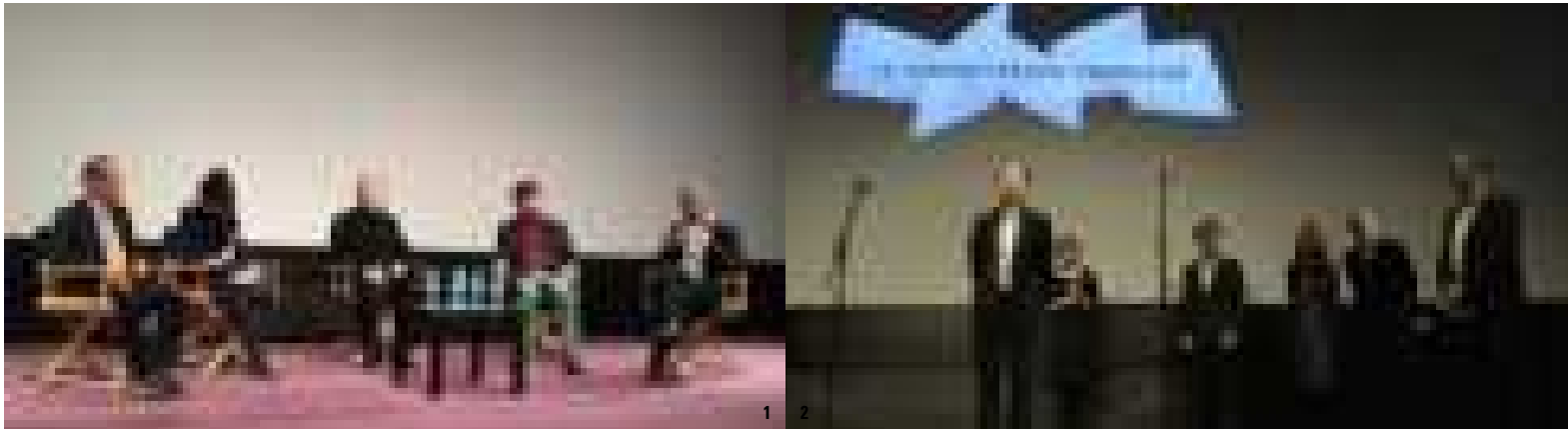


2

1.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Nous)>
2. 미래는 지금이다!
3. 김수자 <투 브리스(To Brea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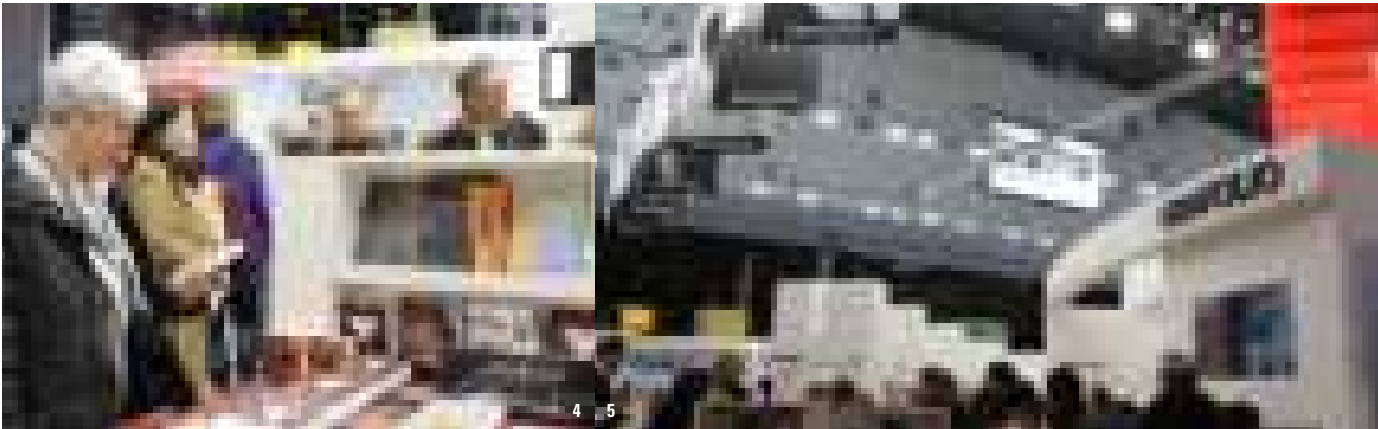


3



“프랑스 내 한국의 해’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책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한국 영화까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 경험할 수 있었다.”

앙리 루와레트(Henri Loyrette) 조직위원장



- 1.2. 임권택 회고전
- 3. 제2회 거리음식축제 : 한국주빈국
- 4.5. 파리국제도서전
- 6. 매혹의 서울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 2016.8.30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은 한국과 프랑스가 이어온
130년의 우정을 넘어 10년, 100년 뒤에도 지속될 양국 간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이다.”

김종덕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1.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 2.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공로자 감사패
- 3.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공로자 감사패 수여
- 4.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공연 <잠비나이>
- 5.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폐막식 기념촬영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2016.3.23

“프랑스 내 한국의 해’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알렸다면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문화에 창조와 혁신을 어떻게 입혀야 산업화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준호 한국 측 예술감독



1.2.3.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리셉션
4.5.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공연 <시간의 나이>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 1. 안 뢰뤼 무용단
(Compagnie Yann L'heureux)
〈붉은 원〉
- 2. 콜렉티브 드 라 바스쿨
(Collective de la Bascule)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 3. 카라보스(Carabosse)
〈흐르는 불, 일렁이는 밤〉



- 4.5. 로베르토 주코(Roberto Zucco)
- 6. 필립 드쿠플레(Philippe Decoufle) 〈콘택트(Contact)〉

서울에서 만나는 프랑스 거리예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교류 사업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과 거리예술 및 서커스 분야의 국제교류의 기반이 견고해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해외 활동 기회가 적은 국내 예술가에게 새로운 발판이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철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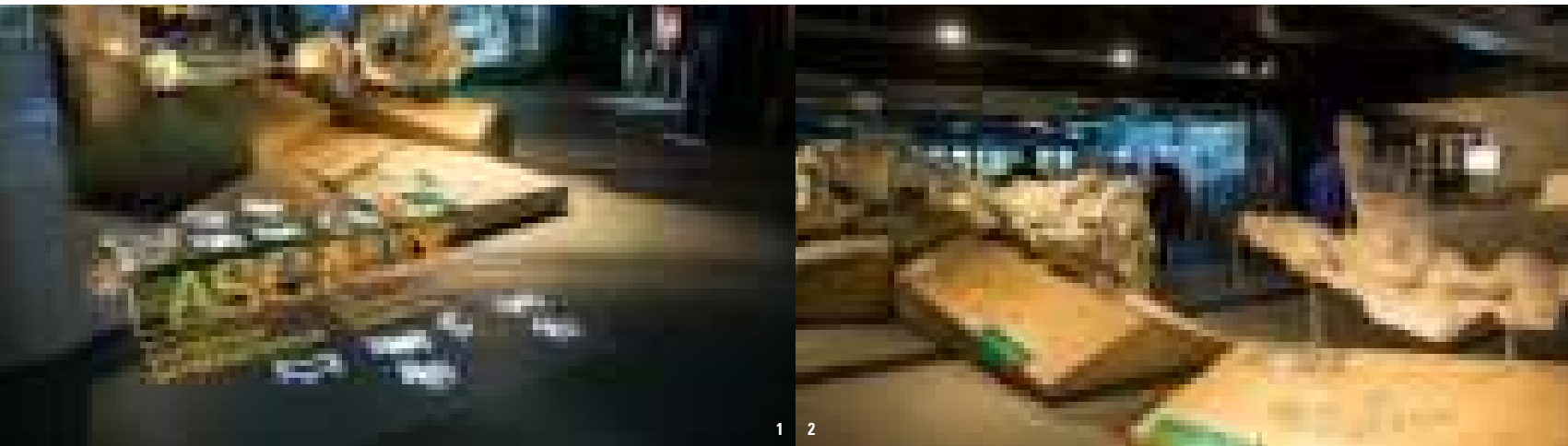




1.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프랑스 포커스
2. 통영국제음악제
3. 빛의 제국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
4. 콜렉티브 퍼포먼스(Collective Performance)
5. 김호연·한아름·임정하〈인 더 멜팅 팻(In the Melting 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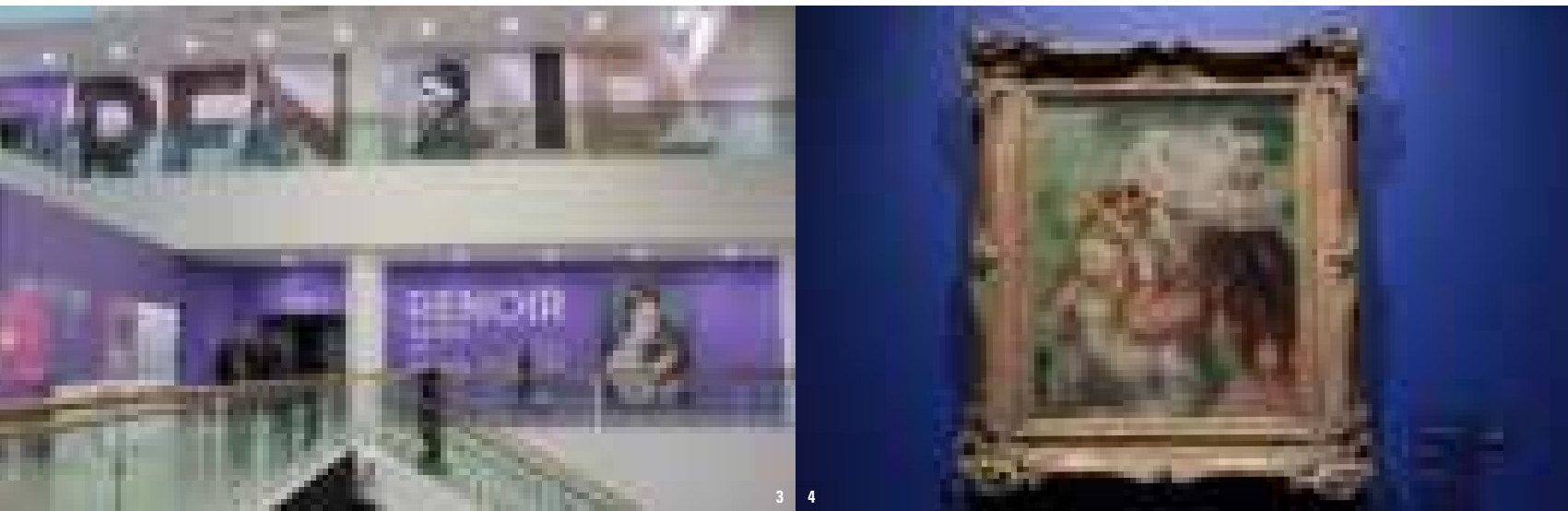




“한국과 프랑스, 미술로 만나다, 교류하다, 나아가다.”

월간미술 2016. 7

- 1.2.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 3.4. 르누아르(Renoir)의 여인 전
- 5.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전
- 6. 에코 시스템(Eco System) : 질 바비에(Gilles Barb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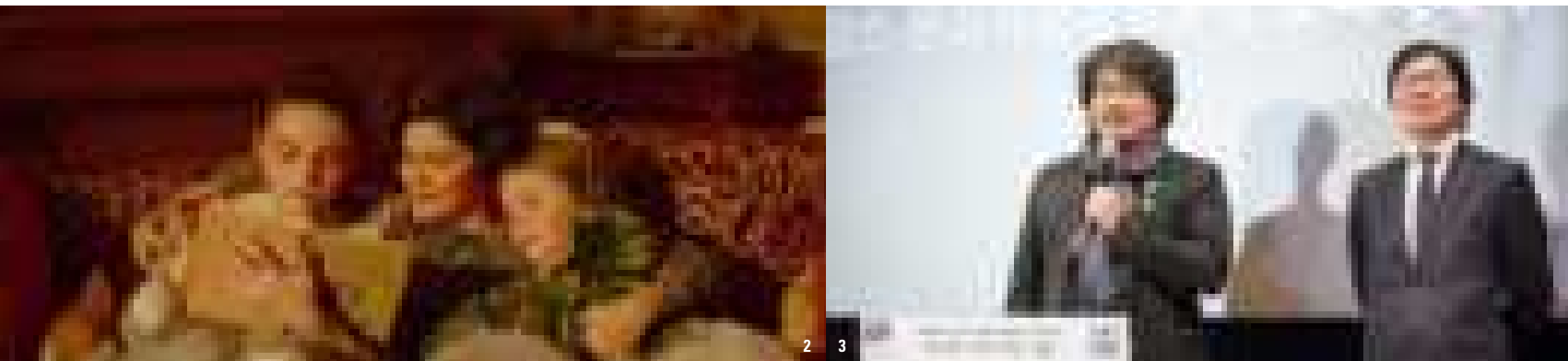
- 1. 매그넘 콘택트 시트(Magnum Contact Sheets)
- 2. 오를랑 테크노바디(ORLAN TechnoBody) 1966-2016
- 3. 보이지 않는 가족
- 4. 도시괴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프랑스를 발견할 기회”

아녜스 베나예(Agnès Benayer) 프랑스 측 예술감독



- 1. 롤랑가로스 인 더 시티(Roland-Garros in the City)
- 2.3.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
- 4. 투르 드 프랑스 레탑 코리아(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 5.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 2016.8.3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행사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지만 이후 새로운 130년 동안 또 다른 우정과 더욱 많은 교류가 계속될 것이다.”
조윤선 前 문화체육부장관



-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감사의 밤
- 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식
- 3. 창작그룹노니 퍼포먼스
- 4.5. 카스텔 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 퍼포먼스



I 제 1장 가교



한국과 프랑스, 그 오랜 인연

한국과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한 지 벌써 130년이다. 그간 양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 발전을 거듭하며 서로 우의를 지켜왔다.

전통과 문화, 역사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두 나라가 100년 넘게 우정을 다지는 일은 그 시간만큼이나 의미가 크다.

한-불 교류 역사를 정리하고 굵직한 사건과 주인공들을 되짚어봄으로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조명해봤다.

1836



최초로 한국땅을 밟은 프랑스인 피에르 모방(Pierre-Philibert Maubant, 1803~1839) 신부

1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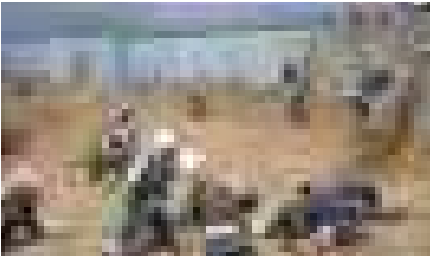
가톨릭 박해. 피에르 모방 외 2명의 프랑스 신부와 신자 80명 순교

1866~1870

가톨릭 대박해. 한국에 입국한 파리외방전교회 신부 12명 중 9명이 순교하고 조선인 신자 1만여 명 처형당하거나 도망 중 사망

1866

당시 주재 프랑스 공사 앙리 드 벨로네(Henri de Bellonet)가 가톨릭 대박해 소식을 듣고 이를 구실로 조선에 전쟁 선포 서한을 전달하였으며, 이어 프랑스 해군이 무력 침입하고 강화도 외규장각을 약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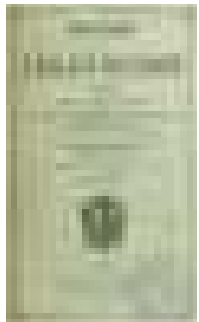
최초의 접촉, 선교사들

1836년, 프랑스인 신부 피에르 모방(Pierre-Philibert Maubant)이 최초로 조선 땅을 밟는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모방 신부는 1831년 바티칸 교황청이 내린 조선 전교(傳敎)를 위임받아 홀로 삿갓에 상복 차림으로 압록강 얼음을 건너 입국했다. 그는 당시 6000명이었던 한국의 가톨릭 신자 수를 9000여 명으로 증가시켰다. 이듬해 모방과 같은 교회 소속인 조제프 앵베르(Laurent Joseph Marie Imbert)와 자크 오노레 샤스탕(Jacques Honoré Chastan) 신부가 조선에 잠입한 후 교세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지만 1939년 왕실의 박해로 세 명의 신부는 모두 순교했다. 그럼에도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 조선을 찾았고,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으로 포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모두 9명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더 희생된다.

한국과 프랑스가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가톨릭 포교와 동시에, 조선에 프랑스 문물을 소개하고 반대로 프랑스에 19세기 한국을 알리는 문화 전도사로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는 모방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비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양 학문을 접한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클로드 샤를르 달레(Claude-Charles Dallet) 신부와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들에 의해 한국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저서들이 출판된다. 1874년에 발간된 <한국 천주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에는 한국 천주 교회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192쪽에 달하는 서문에 한국의 지리, 역사, 사회, 정치 제도, 종교, 이웃 국가와의 관계, 언어와 문자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천주교 박해 당시 한국을 탈출했던 선교단 주교인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Clair Ridel)은 한-불 관계에 있어 결정적 물꼬를 트

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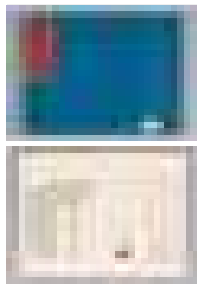
〈한국천주교회사〉출간

한국 천주교회 정보와 함께 한국의 지리, 역사, 사회, 정치, 언어와 문자 등도 함께 수록

1880

〈한불자전(Dictionnaire Coréen-Français)〉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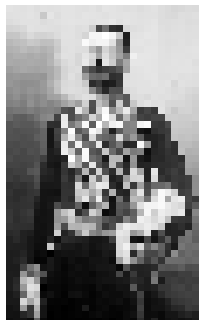
1886



조불수호통상조약

1888

최초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 임명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는 1888년 4월부터 1891년 2월까지 조선 주재 초대 프랑스 대표로, 1896년 4월부터 1906년 1월까지 전권 공사 겸 총영사로 재임했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조선인 몇 명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한불자전>, <한국어 문법> 편찬에 힘을 쏟는다. 두 책은 188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이는 최초의 한국어-외국어 사전으로, 보다 많은 조선인이 프랑스인 없이도 불어를 배울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프랑스인 신부들은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전까지 언어, 교육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명동에 최고의 고아원과 양로원을 열고, 민주주의, 자유, 남녀평등 사상 등의 현대적 가치관과 벽돌 굽는 기술, 의술, 건축 등 문물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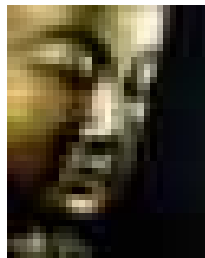
교류의 문을 열다, 콜랭 드 플랑시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조선은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의 여행을 허용한다. 1888년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최초로 주한 프랑스 공사로 임명되는데 이로써 한-불 외교 관계의 막이 올랐다. 그는 한-불 문화 교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공사로써 외교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조선의 고서와 예술품을 수집해 조선의 문화를 서양에 알렸기 때문이다. 플랑시는 조선에 부임해 종교 문제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한편 조선의 근대화에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플랑시는 1891년 도쿄로 전임되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의 재임 기간(1896~1906)에는 교사, 고문, 기술자 등 무려 15명의 프랑스인이 조선 정부에서 일했는데 20세기 초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수가 80여 명에 이르게 된다. 또한 그의 주선으로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에펠탑 부근에 한국관이 독립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인사 서류에는 독신으로 되어 있지만 그는 조선의 관기(官妓)였던 이심(리진)과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플랑시는 외국인 최초의 조선 고서 및 골동품 수집가였다. 그는 공사관의 통역관으로 임명된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에게 1890년대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책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

1889~1890

민속학자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 조선에서 문화재 수집원으로 근무하며 서양인 최초로 한반도 남반부 종단



국립기메중앙 박물관에 전시된 샤를르 바라 수집품

1890~1892

모리스 쿠랑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로 임명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프랑스의 동양학자이다. 공사 재직 당시 한국 도서를 연구했고 프랑스로 돌아가 <한국 서지>를 출간했다.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한국 고서에 대한 서지학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한국 서지>

다. 많은 양의 책과 도자기, 예술품이 그를 통해 프랑스로 건너갔다. 수집품의 목록 중에는 시조집 <가곡원류>와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성경보다 75년 앞서 인쇄된 <직지>도 포함되어 있다.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이 한 개인의 노력과 비전을 통해 프랑스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국학의 아버지, 모리스 쿠랑

플랑시가 한-불 교류의 문을 열어준 인물이라면 모리스 쿠랑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에 한국을 알리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다. 모리스가 플랑시를 보좌하며 통역관으로 조선에 근무한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리로 돌아가 한국학에 있어 기념비적인 책을 저술하는데 그 책이 바로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이다. 이 책은 지금도 한국 고서에 대한 서지학적 참고 자료로 이용될 만큼 한국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모리스 쿠랑은 플랑시가 수집한 장서들을 검토하다 한국 서지에 취미를 붙였다고 한다. 한국의 선비들, 뮈텔(Mutel) 주교의 도움은 물론 노상 서점, 대본소, 사원의 서고, 개인 소장처 등지를 모두 돌아다니며 목록 카드를 작성하고 파리로 돌아가선 파리국립도서관과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에 소장된 문고도 조사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한국 서지>는 병인양요 때 로즈(Pirre Gustave Rose) 제독이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를 포함해 1899년까지 조선에서 출판된 서적 3821종을 체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역사, 정치뿐 아니라 문자, 판소리, 음악 등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단순한 서명 목록이 아니라 내용을 분석하고 간행 상황, 저자와 관계된 사건을 파악해 한국 문학 및 문화의 특징을 서술했다. 그는 <한국 서지> 외에도 50여 편의 글을 썼는데 대부분 한국에 관한 것이었으며 평생을 한국 연구에 바쳤다. 조선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헌 편찬에 대한 모리스 쿠랑의 호기심과 열정은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초의 프랑스어 번역가, 홍종우

1889	 <div>최초의 불어판 동양문학 <춘향전, 불어명: 향기로운 봄(Le Printemps Parfumé)> 프랑스 출판</div>
1890~1894	 <div>홍종우(1854~?) 한국인 최초 프랑스 파리 체류</div>
1895	콜랭 드 플랑시 주한 프랑스 총영사 임명
1900	대한제국 파리만국박람회 참가
	
1903	프랑스 영화 한국 진출

프랑스 현지에서 조선 문화를 알리는 첫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다. 최초의 한국인 파리지앵, 홍종우에 의해서였다. 근대화 개혁과 관련한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1890년 12월 프랑스를 방문한 홍종우는 파리 지역 언론사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그의 파리 생활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할 만큼 어려웠다. 홍종우는 프랑스에 간 목적과 달리 생계 유지를 위해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채용 제안을 받아들여 1892년 하반기부터 박물관에서 일하게 된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1889년 한국 문화재 수집원으로 근무했던,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의 수집품들을 상설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 일을 위해 누구보다 홍종우가 필요했던 것이다. 홍종우는 2년 동안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근무하며 한국관 개관에 일조한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한국관 개관 프로젝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에 거의 알려진 바 없었기에 민속학적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일뿐더러 세계화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의 문화 정책을 세계에 알릴 완벽한 기획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관점과 시선으로 서양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한편 홍종우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 근무하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조선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고민 끝에 번역을 시도한다.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소설가 로즈니(J.H. Rosny)의 기획 하에 먼저 고전 소설 <춘향전>을 불역해 1892년 <향기로운 봄(Le Printemps Parfumé)>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후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제안으로 <심청전>을 <메마른 몸으로 꽃을 피운 나무(Le Bois Sec Refleuri)>라는 제목으로 불역해 출판할 기회를 얻는다. 이 두 작품은 한국 소설이 프랑스 독자들에게 소개된 최초의 동양 문학 작품이다.

1905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프랑스 외교관들이 한국에서 추방됨. 이후 1906~1945년까지 한-불 간 교류 단절
1907	 <div>첫 한국어판 프랑스 소설 쥘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만리> 출판</div>
1924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파 불어불문학도들이 해외문학연구회 창립
1946	우리나라 최초의 불어불문학과 설립(서울대학교)
1947	주한 프랑스 공사관 재개방
1949	주한 프랑스 공사급 대표를 공관장으로 교환
	Li Jin-Mieung, 한국어본 <한불 관계의 전개 과정-기원에서 현재까지>, Les moments forts des relations franco-coréennes, des origines à nos jours,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학술회에서 발표한 논문.

교류의 핵심, 한국어 보급¹⁾과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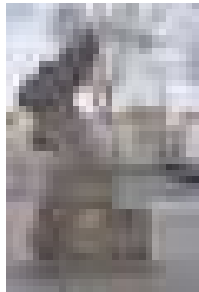
언어는 문화교류의 핵심 수단으로서 이를 실현할 프랑스 내 한국어 보급과 번역 사업은 중요하다.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된다. 1956년 1월 소르본대학에서 이육(1928~2001)의 첫 한국어 강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지방 대도시 대학교로의 확산을 거쳐 2009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프랑스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한국 문화 아틀리에 및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되었다. 한국 문화 아틀리에는 서예, 태권도, 사물놀이, 다도 등 활동과 예술, 문학에 관한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정규 과목 개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한국어 보급 사업이다. 2009년 2월 카미유 생-상스 고등학교(Lycée Camille st-Saëns)가 아틀리에를 설치한 이래 2015년에는 파리, 보르도, 디종 등지의 28개 학교, 2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중등교육기관의 한국어 제3외국어 강의는 보르도 교육청이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프랑수아 마장디 고등학교(Lycée Francois Magendie)에 개설한 데 이어 파리 빅토르 뒤뤼 고등학교(Lycée Victor Duruy)에 고등학교 연합 바칼로레아 한국어 준비반이 3개 개설되었다. 고등학교 정식교과과정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총 수는 2014-2015년에 284명이다.

중학교 또한 한국어 보급 사업 흐름에 합류했다. 프랑스 중학교로는 처음으로 파리의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Collège Gustave Flaubert)는 2015-2016 학년도에 한국어 교육을 개설했다. 이로써 제2외국어(LV2) 강의로까지 한국어가 편입되었다.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서 또 하나의 사업이 번역이다. 1981년 단편 모음집 <환상을 찾는 여인(Une femme à la recherche d'une illusion)>이 파리 현지 출판사 에벨 광락(EIBEL

1950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프랑스, 한국전쟁에
군사 지원

1956



이육, 소르본에서 첫 한국어 강의 시작

김환기
한국인 최초로 파리의
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1958

양국 내 각국 대표를 공사급에서 대사급으로 승격

1959

한국불어불문학회 창립, 소르본 대학에 한국어
정식과목 선정 및 한국학연구소 설립

/ FANLAC)을 통해 불역 출판되었고, 1983년에는 한국문학진흥재단에서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와 안수길의 <벼>가 불역되었지만 한국 문학의 해외 보급을 위한 실행으로선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고 문자나 언어의 번역을 넘어 문화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후 외국어 번역 타이틀 수가 급증했는데 다양한 외국어 번역물 중 프랑스어 번역서는 영어 번역서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듯 한국문학번역원은 교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 사업(번역 전문 인력 육성과 발굴, 번역 연구 및 정책 수립)은 물론 출판 지원, 해외 교류,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등 한국 문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이 세계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 국제 도서전, 해외 문학 축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해외 문예지 지원 등 사업을 다변화했다. 그간 이어진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중 문학 분야가 두드러질 수 있었다.

양국 간 다리, 문화원

양국 간 공식적 문화 교류는 문화원의 설립과 함께 다양화되었다. 1968년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한불문화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같은 해 서울에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12년 후 파리에는 주불 한국문화원이 설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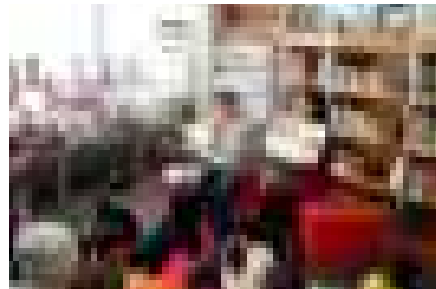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가히 혁신적이었다. 해외 문화, 특히 유럽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당시, 프랑스 문화원은 영화, 음악, 서적 등을 소개함으로써 프랑스는 물론 유럽 문화 전반과 세계 사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최초의,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 ‘프랑스 문학’이 유행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문학은 지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1966

디자이너 앙드레 김,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해외
패션쇼 개최

1968

한불문화협정체결, 주한 프랑스문화원 설립

재불 한인회 결성, 한국 무역진흥공사 파리 사무소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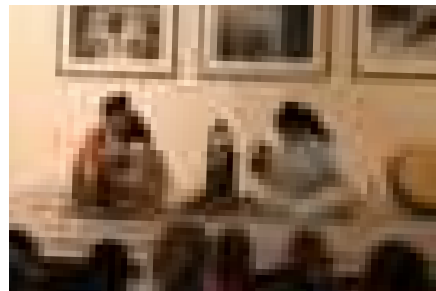
1969

1975

서울-파리 간 최초 여객운송

1980

주불 한국문화원 설립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문화원은 프랑스 영화 상영, 도서관 확장, 각종 강좌와 클럽 운영 등 문화원의 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양국 문화 협력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초기 문화원이 한국 내 프랑스 문화 보급에 역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양국 예술가들을 연결해주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후원하는 등 문화 분야에 있어 지속 가능한 관계 확장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서도 상당수의 프로그램들이 문화원의 이러한 역할로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었다.

한편 1980년 설립된 주불 한국문화원 또한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진초 기지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애썼다. 특히 주불 한국문화원은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증진하고자 전시, 콘서트, 연극, 문학 행사, 한국 문화 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프랑스 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해 진행하는 데 힘썼다. 이는 문화, 교육, 체육, 예술 등 광범위한 현장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했다. 현재 주당 28회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며 한국 매듭, 한국화, 도자기, 한국 음식, 한글 서예, 한지 공예 및 택견 등을 배울 수 있는 아틀리에 수업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2만여 권의 도서와 다양한 대중매체 콘텐츠를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과 연 2회 발간되는 잡지, <한국 문화>도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주불 한국문화원은 높아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활발한 문화 홍보 및 교류 활동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예정이다. 엘리제궁, 샹젤리제 거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파리 중심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공간도 현

1984



한국 영화 프랑스
첫 진출. 이두용 감독의
〈몰레야 몰레야〉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에서 비경쟁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

재의 4배 규모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파리 한국
교육원,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파리 지사가 입주해
관광과 한류 콘텐츠 홍보, 유학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기관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 문학 그리고 영화

한국과 프랑스와의 문화 교류는 양국 관계 초기, 프랑스에서 한국
으로의 문화 전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중국
과 일본에 불기 시작한 서양 문학의 열풍은 다소 늦게 중국과 일
본의 번역서를 통해 한국에도 전해졌다.

우선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계는 낭만주의 사조를 출발점으로 소
통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한 세기나 늦게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했지만 낭만주의의 전통과 권위주의에 맞선 저항 정신은 식민
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907년 한
국어로 번역된 첫 프랑스 소설은 쥘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
만리>였다.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뒤마(Alexandre
Dumas), 모파상(Guy de Maupassant) 등 한국에서 사랑받는 프
랑스 작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들 20세기 작가들은 지금까지도
소설이나 사상서뿐 아니라 뮤지컬이나 영화로도 한국 대중에게
문학적·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 또한 계층적으로 한국 사회에 파고들었다. 1903년 프
랑스 영화가 한국 땅에 처음 소개된 이후 식민지 시절, 1930년대에
는 프랑스 영화 수용이 절정에 달했는데 주 관객층은 전문학교 학
생, 교사, 전문직 종사자 등 상당한 지식을 갖춘 젊은 계층이었다
고 한다. 그 당시부터 ‘프랑스 영화 예술 영화’라는 인식이 형성되
었다. 향유 계층과 인식은 지금까지도 대체로 유효하나 국내 개봉
프랑스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액션이나 스릴러물의 상업적인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제7회 낭트 3대륙영화제 <한국 영화 파노라마>
퐁피두센터 <한국 영화 파노라마>
낭트시상공회연구소 <한국 영화자료전>
주불한국문화원 <한국 영화의 밤>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 내 <파리공원> 건설
명동성당 <월레교회사연구발표회>

영화 또한 적지 않다.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확실한 장르 영화로
관객을 불러 모으는 프랑스 영화는 문화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문
화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데 문학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수단이 되
었다.

프랑스 영화는 한국 영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일제 강
점기 영화의 모델이 되어 그 시작을 도왔다. 1920년 우리 영화의
출발 당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제작 시스템은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프랑스가 할리우드와 같은 제작 환경을 가지지 못하면
서도 우수한 영화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조선 영화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또한 1970년대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모여
영화에 대한 열정을 키웠던 당시 젊은이들은 이후 영화인으로 성
장해 지금은 영화감독, 평론가, 교수, 각종 영화제 조직위원 등으
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계는 이들에 의해 유
지, 발전하는 중이다.

프랑스에서 주목 받는 한국 문화, 영화

한국은 휴대 전화, TV 모니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고도의 기
술 제품과 만화, 영화, K-pop 등의 문화 상품 그리고 문학을 통해
프랑스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는 프랑스에
서도 주목 받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 요소이다. 한국 영화는 서구
여느 영화들과 다른 독특한 주제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리듬 그
리고 독자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국제 주요 영화제뿐
아니라 일반 관객의 관심이 크다.

한국 영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프랑스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두용 감독의 <몰레야 몰레야>가 1984년 칸영화제에서 비
경쟁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면서부터였다. 198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7회 낭트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 파노라마>가 따로 마련
되었고 1993년에는 파리의 퐁피두센터에서 100여 편의 한국 영화

1985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수상, 프랑스 정부
수반 최초 한국 방문

1986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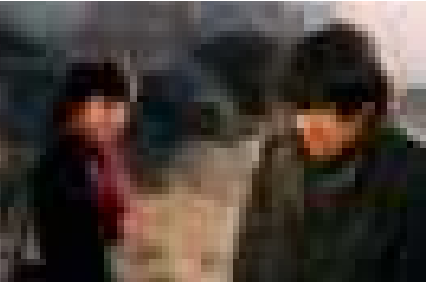
100주년 기념메달

1989



정명훈, 바스티유
오케스트라(Orchestre
de la Bastille) 지휘자
임명

낭트 3대륙 영화제(Festival des 3 Continerts
Nantes) <한국 영화 파노라마> 특별전 개최



아를 소재 악츠 슈드(Actes Sugd) 출판사 불역 한국
작품 출판 시작

1990

1993

파리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
100여 편의 한국 영화 회고전 개최



를 소개하는 회고전이 열렸다. 이후로도 프랑스에서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한국 영화전이 열렸고 한국 영화에 대한 프랑스 비평계의 주목할 만한 시선이 늘 따라다녔다. 2006년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한국영화축제’도 한국 영화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영화잡지로 손꼽히는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가 뽑은 2000년대 10년 동안의 세계 영화 Top 10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The Host)>이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프랑스에서 개봉한 <설국열차(Snowpiercer, le Transperceneige)>는 무려 67만8000여 명의 관객수를 자랑하며 대기록을 세웠다. 이밖에도 이창동 감독의 <시(Poetry)>, 김기덕 감독의 <빈 집(Locataires)>,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Le Bon, la brute et le cinglé)>이 10만을 넘기며 선전했다. 전체 관객 수로만 따진다면 한국 영화는 프랑스 내에서 여전히 비주류 영화일지 모르나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화의 저변은 영화로 인해 더욱 대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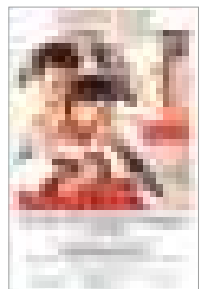
프랑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한류, K-pop

1993년龐피두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영화 회고전을 계기로 일기 시작한 프랑스 내 한류는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정착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가요 등으로 장르가 확대되는데, 특히 K-pop의 경우 2011년 SM 콘서트를 분수령으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잠재되어 있던 팬들의 수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2년 말 트로카데로 광장(Place du Trocadéro)에서 개최된 가수 싸이의 이벤트에는 2만여 명의 군중이 운집했고, 다음 해 개최된 아이돌 그룹, 틴탑의 트리아농 극장(Le Trianon)에서의 공연과 재즈 가수, 나운선의 샤토레(Théâtre du Châtelet) 단독 공연 또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류의 위상을 높여갔다.

1995

아름다운 외국 문학(Les Belles Etrangères)
프로그램에 한국 문학 특집을 프랑스와 불어권 유럽 국가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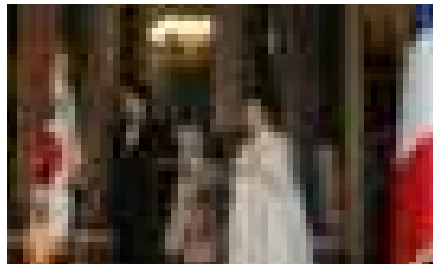
2005



2005 시네마테크 프랑스
(Cinémathèque Française)
<한국 영화 50년>
특별전 개최

2006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사업 진행,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주요사업

오페라 코미크 국립극장 &
프랑스국립연극센터 공동제작 <귀족놀이>

과천 한마당 축제 극단 호모루덴스&극단 일로토피 공동제작
<요리의 출구>

예술의전당 <김매자 & 카롤린 칼송 공동 안무 합작공연>

알베르 칸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모리스 쿠랑 사진전 <서울의 추억, 1886-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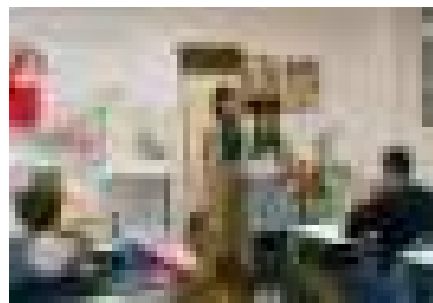
시네마테크 프랑스즈 <김기영 회고전>

앙굴렘국제만화축제 <한국만화 특별전>

세계문학의 집 <황병기 가아금 연주회>

2009

프랑스 초,중,고서 '한국문화 아틀리에' 정규과목
편성



한류 중에서도 특히 K-pop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은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터치가 가미된 K-pop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단편적이면서 중독성 있는 리듬의 반복에 매력을 느낀다. 더구나 수려한 외모에 뛰어난 가창력과 춤 실력을 지닌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크다. K-pop을 접한 프랑스 젊은이들은 순차적으로 한국 영화나 한식,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K-pop은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화 저변 확대를 꾀하는 대표적인 한류라 할 수 있다.

한-불 수교 기념사업

한-불 수교 기념사업은 대대적인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1886년 한국과 프랑스는 조불통상조약으로 공식적 수교를 맺은 후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기념사업을 벌였다.

1986년 한-불 수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해외 공보관이 민속예술단 파견, 한국 음악가의 밤, 한국 영화 주간, 한국 문화 소개 종합전, 한국 현대미술전, 현대작가전, 도서전시회, 수교기념 학술 심포지엄, 연구 발표회, 한국학 관련 논문집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프랑스는 19세기 명화전, 프랑스 현대미술 100년사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자 사진전, 몽골피에(프랑스의 열기구 발명가) 전시회 개최, 기타 음악회, 프랑스 영화 소개 행사, 프랑스 연극 공연, 전시회, 시 낭송회 등의 사업을 개최했다.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한 행사는 그 규모가 이례적이었다. ‘한국을 가슴 속으로(Corée au Cœur)’라는 모토 아래, 1년 동안 파리 및 프랑스 전역 36개 도시에서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전시, 공연, 영화제 등 80여 개 행사가 진행됐다. 당시 수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을 뿐더러 일방적 행사 진행이 아닌 양국의 ‘쌍방향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2010

한-불 정상회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협의)

이 중 호모 루덴스 극단,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 양성원, 서울국제무용축제(SIDANCE),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도 참여했다. 120주년 기념사업이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이 된 것이다.

2011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기념-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 개최



다시 10년 뒤, 2016년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과 프랑스는 각국 내에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개최했다. 특히 한-불 수교 130주년 행사는 준비 기간 5년, 사업 진행 기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최장·최대의 사업이었다. 그야말로 양국이 상대의 문화에 흠뻑 젖어드는 문화 교류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2016-2015 한-불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기간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재조명 받았다.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꿨음은 물론 332개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문화 교류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글. 최진희)

2012

싸이 파리 트로카데로(Place du Trocadéro) 광장 공연



2015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성사되기까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2010년 11월 12일 한-불 정상회담에서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기로 합의한 국제교류 사업이다.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체육·관광·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영역,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다. 이어,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난 2013년 11월 14일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관한 서로의 입장과 지지를 확인하는 선언이 있고 난 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가 뒤따랐다.

2014년 1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양국에 각각 조직위원장과 예술감독 등이 선임되었고, 이어 양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매개로 공동회의체(CMO)에 의한 공동회의가 진행되었다. 공동회의는 사업 전반의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 홍보 등 실무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다섯 차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 구성〉




진행되었다.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언어로 작성한 공동회의록에 기술하였다.

공동회의의 개최 배경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동등한 입장 반영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공생적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¹⁾ 또한, 단편적인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양국 문화 발전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토대를 끌어내는 교두보 격인 사업 발굴과 화두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이 병행되었다. 아울러 사업의 위상과 양국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프로그램의 공식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협의를 위한 공동규칙을 마련하며, 공동홍보기금을 조성한다는 등 교류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벌이는 대규모 문화교류라는 점에서 공동회의라는 공식적 창구를 통해 대내외적 명분에 적합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다. 동시에 양국 간의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회의는 향후 민간 영역에서 전개되는 국제 문화교류의 발판을 제공해 다양한 경로의 후속 조치와 미래지향적인 가치 확산을 염두에 두었다. 즉, 목적성을 띤 정부 주도 형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 영역의 원활한 문화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지

1)


한국 측 조직위원회 최준호 예술감독은 이번 사업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상호보완적이며 균형 잡힌 ‘공동규약’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초청 프로그램의 경우, 초청국에서 항공료, 체재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는 양국 간의 합의된 원칙을 통해 파견국이나 접수국 간의 자부담 항목과 범위 등을 정해 진행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기관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 아녜스 베나에 예술감독 역시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이 교류에 초점을 둔 “협업의 가능성”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에 앞서 한국 문화에 관한 프랑스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사업의 성공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의 해외 홍보와 국제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해외문화홍보원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CIS)은 1971년 당시 문화공보부 소속의 해외공보관으로 발족했으며,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으로 개편되었다. 한국 정부의 정책과 정상외교, 국제협력 등 대외업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비롯하여, 국가 간 수교 및 국제 문화교류 사업의 지원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무국 운영 지원, 해외 인사의 방한 지원, 관련 마케팅과 홍보 등을 지원했다.



2006년 설립된 예술경영지원센터(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AMS)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이며, 예술기관 단체들을 위한 경영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 정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유통 활성화, 해외네트워크 구축, 서울아트마켓 개최, 국제 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전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 등과 함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주최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등 다양한 사업의 공식 인증과 홍보 및 마케팅, 사무국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프랑스 측 전담 사무국은 앵스티튀 프랑세(STITUT FRANÇAIS,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였다. 앵스티튀 프랑세 설립 이전의 프랑스 대외 문화 활동은 외교부와 문화부 및 기타 산하기관들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외 문화 활동 수행의 필요성을 느낀 프랑스 정부는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외교부 소속의 앵스티튀 프랑세를 설립했으며, 해당 기관은 2011년 1월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속적인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일정 경로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동회의를 통해 실무를 맡은 양국 사무국은 프로젝트별 지원 범위와 기준, 운영 등을 명기한 공동 규칙에 의해 실무와 공동추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회의 주요 내용

이번 사업을 통해 진행된 다섯 차례 공동회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공동회의(2014년 4월 14~16일, 파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접근 방향과 주제를 논의하고, 합의 도출이 필요한 과제와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공동회의는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정보 교류, 지원 내용, 협력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사실, 제1차 공동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양국 조직위원회에서는 영역별 전문가와 커미셔너,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 관련 리서치와 기관 협의를 일정 부분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촉받은 11명의 분야별 전문위원²⁾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으

며, 이보다 앞서 민간 영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과 단체 등의 일정 조율과 사전 협의가 진행되었다. 프랑스 측은 사업 전담기관인 앵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의 영역별 담당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프로그램 논의와 함께 제1차 공동회의에서는 프랑스 측에서 제시한 운영 및 재정규칙을 토대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예산 분담 규칙, 홍보 등의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이를 근거로 2014년 6월 이전까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이하 공동규칙)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양국 문화교류의 합리적인 운영 원칙과 사례 적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2차 공동회의(2015년 2월 11~13일, 서울)는 11~12일은 실무회의, 13일은 실무회의 때의 논의사항을 정리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제 및 1차 공식인증사업을 확인했다.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홍보활동 시 ‘한-불 상호교류의 해’ 로고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관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했다. 제2차 공동회의의 주요 안건은 재정 확보였으며, 공식 프로그램 외에 추가 부대행사 추진에 관한 별도 예산 산정 및 적용,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 준비를 위한 세부 담당 논의와 체크리스트 공유에 합의했고, 주요 기관별 홍보 방안과 공동 홍보 매뉴얼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16년 1월 개막 예정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프로그램 구성도 논의되었다.

기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 측은 프랑스 내 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딩 현황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프랑스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를 위한 메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의 후원위원회장 스테판 이즈라엘(Stephane

Israel, 프랑스 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이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기업의 메세나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렸다.³⁾

제3차 공동회의(2015년 6월 16~19일, 파리)는 2015년 9월로 다가온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서 진행되는 거점 지역에 관한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개막행사의 일정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동로고를 적용한 초창장 제작에 합의했고, 초청자 명단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상자의 참석 확인 일정 등을 협의했다. 개막행사 리셉션 비용의 경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행사 비용은 한국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행사 비용은 프랑스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2차 공식인증사업 목록을 확인하고 공동규칙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유형별 구분에 따라 재정적 지원 범위와 내용을 재확인했다. 또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홍보대행사 선정과 업무 내용, 공동 홈페이지 구축과 SNS 운영 방안을 비롯해 주요 홍보 일정과 내용 등을 공유했다. 기타 논의로 양국 지자체의 상호교류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내용을 교환해 교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2) 분야별 전문위원은 최준호 예술감독을 비롯해 김규원(문화정책), 김선국(전통음악), 김애령(현대미술), 김용걸(무용), 박인하(만화), 손원익(문화정책), 양성원(클래식), 이수원(영화), 인재진(현대음악), 정진권(문학) 등 11명이다.

3) 이번 사업을 위해 양국에서 진행한 예산 출처를 살펴보면, 한국 측은 대부분 정부 예산이었으며, 프랑스 측은 정부 예산과 프랑스 메세나협의회를 통한 기업 후원금이었다.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메세나협의회 회장이 후원위원회장 직을 맡아 참여하고 있다.

4) 프랑스 측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을 통해 프랑스의 다양성, ‘창조성’, ‘혁신’을 알리고자 하며 이러한 내용이 양측의 모든 홍보 활동에 반영되기를 비란다고 한국 측에 요청했다.

제4차 공동회의(2015년 12월 8~11일, 서울)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행사의 성공적인 현지 호응에 따른 성과와 후속 내용 등을 공유한 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프랑스 측은 2016년 3월에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식 및 개막 주간 행사를 제안하였으며 양국은 추후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준비기로 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측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홍보 콘셉트와 홍보 전략⁴⁾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제5차 공동회의(2016년 5월 11~13일, 파리)는 양측의 공식인증 절차를 점검하고 공동규칙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국 측은 2016년 6월 4일 ‘한-불 외교관계수립 13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특별주간(6월 1일~7일)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고, 프랑스 측은 이에 동의해 상기 특별주간에 개최되는 공식인증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폐막행사 개최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당일 기준으로 양국에서 실행한 홍보 활동의 성과와 자료 등을 공유했다. 프랑스 측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공동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과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홍보 실행에 관한 긴밀한 협조와 결과 공유에 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에 관한 주요 내용

제1차 공동회의 때 양국이 제시한 공동규칙은 조직위원회 구성과 사업 기간을 명문화하고 양측의 주무기관, 준비기획단, 사무국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규칙에서는 공동회의체를 통한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과 홍보 계획, 재정원칙 등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식과 이행조건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파견국과 접수국의 부담 내용을 상세히 명기하고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조달원칙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의 계약 체결은 한-불 양측의 국공립기관 또는 민간기관 간에서 직접 이루어지도록 명기하고 있다.

한편,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과 협의 내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행사 등록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회의체 개최 이전에 사업을 파악할 수 있게끔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양측이 공동 수립한 자격 기준에 의한 공식행사를 인증하거나 인증 사업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공동회의체의 협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식행사로 인증되면 양측 또는 일방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공식인증이 자동으로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규칙에는 홍보에 관한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양측이 공동으로 수립한 합의를 바탕으로 홍보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공동규칙의 추가 조항을 통해 집행되는 홍보 예산을 동일하게 책정,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시 별도의 추가적인 홍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양측의 홍보를 위한 협력 창구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운영

2014년 3월, 한국 측 조직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이하 한-불 사무국)을 구성해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맡았고, 일반 분야는 2015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로 나누어 진행했다.

한-불 사무국은 1차 공동회의 때 협의한 내용과 공동규칙을 토대로 사업에 참여할 공식인증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공식인증사업은 양국 조직위원회의 공동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동회의에 앞서 한국 측은 공식인증사업 공모를 진행해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통해 신청 서류와 지원 예산 범위 등을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했고, 이것을 공동회의 때 양측 조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식인증사업 공모와 사전 절차가 진행되었고, 제2차 공동회의 때부터 공식인증사업이 선정되었다.

프랑스 측은 외교국제개발부 산하의 프랑스 대외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앵스티튀 프랑세가 주무기관이었는데, 이들은 별도의 공모 과정 없이 기관의 분야별 담당자가 이러한 사전 절차에 준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사실, 앵스티튀 프랑세의 국제교류 접수창구는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해당 사업과 유사한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분야별 담당자가 프로그래머나 큐레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관에 장기근무하면서 국제 문화교류 업무를 전담해왔다. 즉, 국제 문화교류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담 인력이 사업을 위해 상시로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⁵⁾

한국 측은 앵스티튀 프랑세와 같은 운영 기관이나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국제 문화교류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예술경영지원센터 내에 한-불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해 유사 관련 실무와 행정을 지원했으며, 한-불 사무국이 운영되기 전에는 주로 예술감독과 전문위원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진행했다. 한-불 사무국은 앵스티튀 프랑세의 대응 기관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분야별 프로그래머와 홍보 담당자를 구성해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⁵⁾

앵스티튀 프랑세의 조직 및 기관 운영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책서 3장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공동규칙에 의하여 양측 조직위원회가 균등하게 재원을 출자해 마련한 공동홍보기금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에 각각 20만 유로를 홍보예산으로 배정하고 양측 주무기관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공동 홍보기금은 사업의 홍보물(포스터, 통합 프로그램, 광고 전단 등), 공동 운영 웹사이트, 미디어 홍보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양측 홍보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끔 주무기관의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를 진행했다. 공동 홍보기금에 관한 계약서에는 비용 지출에 관한 세부 항목과 증빙 목록을 명기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2014년 1월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한-불 사무국은 사업 성과 정리,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하고 2017년 3월에 운영이 종료된다.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 기간에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 ‘한국 내 프랑스의 해’(2016년 3월-12월)는 양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3년 3개월이라는 공식적인 사업 기간에 앞서 이러한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사전 리서치와 비공식 협의 일정을 포함하면 사업 준비 기간은 훨씬 늘어나고, 전체 예산의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한 인적 구성이 참여하게 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과정별 절차와 주요 진행 사항을 통해 향후 관련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과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글. 엄혜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폭넓고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방향성은 양측 모두 일회성 행사보다는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서울, 파리뿐만 아니라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통해 문화예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발굴하는 데 있다. 또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및 재정’에 관한 공동규칙¹⁾(이하 공동규칙) 서문에도 명기하였듯,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현대적인 창의성과 젊은 세대의 참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자국의 역량과 자산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에도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영감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 연계된 공식인증사업과 특별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고 국제교류로서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주된 요건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 사업의 방향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내용, 주요 관심 대상과 영역 등은 상이하다. 이는 양국의 문화적 배경과 소비 구조가 다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양측이 얻으려는 성과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전통에서 현대예술까지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소개하고, 프랑스 국민이 일상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다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프랑스는 창조와 혁신을 주제로 정해 특정 장르에 중점을 두고 주로 현대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분야별 공식인증사업 현황

구분	계	문화/예술 분야						일반 분야					
		시각	공연	영화	문학	기타	소계	교육/학술	과학	경제	미식	기타	소계
총계	492	143	178	45	11	22	399	41	10	15	13	14	93
한국의 해	247	74	108	24	9	12	227	8	2	1	1	8	20
프랑스의 해	245	69	70	21	2	10	172	33	8	14	12	6	73

한편, 사업의 양국별 개최 시기가 다르게 이뤄졌는데 프랑스는 행정 절차상 연도별 회계 기준이 우리와 달라 동일한 사업이지만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공식인증 사업은 492건으로 문화예술 분야 399건, 일반 분야 93건이다. 또한, 양국의 사업추진 장소는 파리 외 75개 도시, 서울 외 33개 도시에서 이뤄졌으며, 참여한 예술가와 관계자는 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일반적인 수교행사와 비교한다면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시각 분야의 경우, 프랑스의 주요 거점 공간이 되는 국·공립 전시 기관 대부분이 앞서 5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정한 곳이 많았다. 그런데도 4차, 5차 공동회의 때의 회의록을 보면, 양측 모두 개막식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을 축하하며, 이후 사업 진행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 또한, 양측에서 집계한 관람자 수와 객석 점유율, 참여 기관 및 매체보도 현황 등 사업의 성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해외 초청이나 대관 행사가 아닌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사업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 여느 사업 때보다 의미 있을 뿐 아니라 교류 형태별로도 긴밀한 인적 교류와 협력 체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대국의 호응 정도에 따라 주요 후속 조치가 따랐고,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창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사업의 성과로 삼는 주요한 요소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진행된 프로그램별 교류 형태와 협력 방식은 참여한 예술가나 관계자에게 다분히 도전적인 과제였던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상대 파트너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아 ‘상호이해’라는 문화교류의 본원적 의미와 경험적 가치를 획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이루

1) 제4차 공동회의 회의록을 보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식 이후 사업에 관한 프랑스인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론 홍보가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온라인 홍보가 다소 아쉬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5차 공동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양측 모두 ‘한국 내 프랑스의 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약 1044만 명의 한국과 프랑스 국민이 양국의 문화를 경험했으며, 양국의 200여 개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개별 프로그램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관람한 프로그램은 25건, 1만 명 이상은 62건이다. 전석 매진을 기록한 공연은 <종묘제례악>, <안은미 댄스 3부작>을 비롯해 다수에 이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 백서 3장에 수록된 ‘한눈에 보는 성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진 몇 가지 교류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 문화교류 영역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²⁾

공동기획이 가능했던 배경 요인

이번 사업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다수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거나 전시를 기획하는 데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책임져야 하고, 기관의 위상이나 경쟁 기관과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했다.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눈높이와 만족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관의 명성과 공간 운영의 방향성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하기 위한 관련 실무자, 이를테면 기획자, 프로그래머, 큐레이터, 프리젠터, 극장장, 창작자 등은 긴밀하게 협의해야 했다.

그런데 프로그램 공동기획에 있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느냐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양국의 참여 주체들 간의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이하

한-불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한국 측은 최준호 예술감독과 분야별 전문위원, 프랑스 측은 앙스티튀 프랑세(IF)의 분야별 담당자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교류나 네트워크는 현장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필요했다. 사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아트마켓(PAMS)이나 다양한 해외 협력기관과 진행해온 커넥션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당 장르의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창구를 활용해 프랑스 측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한국으로 출장을 와 각종 리서치와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술가나 작품을 만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서울아트마켓 때는 이 시기에 걸쳐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등 국내 유수의 축제와 단체, 공연장 등과 연계해 프랑스 공연예술 전문가의 방한 리서치 행사(2014년 10월 6일~12일)³⁾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앙스티튀 프랑세가 진행하기도 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위한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문화기관장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리서치 활동이나 공동기획에 대한 높은 관심 표명은 이번 사업만을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준호 예술감독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2007~2011년 재임)으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정부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면 프랑스 측 기관이나 실무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이들이 평소 한국 문화예술에 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었기에 이번 사업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⁴⁾ 또한, 이번 사업

이 넓게는 한류를 통해 프랑스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문화 수요층이 생기고 있는 시기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었기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었다.

³⁾ 샤이오국립극장 프로그램 디렉터 자르모 팅틸라(Jarmo Penttila), 파리시립극장 프로그래머 클레르 베를레(Claire Verlet), 파리여름 축제 공동대표 카롤 피에르(Carole Fierz), 메츠 아르세날 예술감독 미셸 파라동(Michèle Paradon) 등 프랑스 측 주요 기관의 전문가가 방문했고, 전통음악 사업인 ‘Journey to Korea Music’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기도 방한했다. 한편, 최준호 예술감독은 이러한 공식 행사 외에도 5년의 사업 준비 기간에 개별적으로 방한한 프랑스 측 실무자와 관계자가 최소 200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⁴⁾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의 아네스 베나에 예술감독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프랑스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⁵⁾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보도자료집〉에 따르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과 관련한 프랑스 언론 매체의 기획기사는 모두 506건(프랑스 전체 보도량의 43.9%로 단순 보도를 제외한 특집이나 인터뷰 등을 다루는 기사를 기준으로 함)으로 작품과 참여 예술가를 소개하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독특하고 다양한 한국문화의 특색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소개된 사업은 <케이콘(KCON) 2016>, <코리아 나우(Korea Now) !>, <테크노 퍼레이드(Techno Parade)>, <종묘제례악> 순으로 집계되었다.

⁶⁾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접촉하는 오프라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80명 수준이었던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은 2010년 280명, 2011년 4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한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 내 한국 문화 소비 유통현황’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정책홍보 전략 연구』 (주)커뮤니케이션웍스, 2015)

물론 한류가 특정 연령과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문화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프로그램을 다룬 프랑스 언론의 보도 현황을 보면,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조명과 함께 K-pop을 통한 한류의 문화적 영향력에 의한 한국 문화의 부상을 다루고 있다.⁵⁾ 또한, 여러 각도에서 프랑스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은 확인할 수 있다.⁶⁾

그리고 이번 사업이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수교 120주년을 맞이해 2006년에 진행된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시의 경험과 성과가 이번 사업의 밑거름이 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수교 120주년 사업은 사전 준비 기간도 짧고 사업의 규모도 훨씬 작았지만,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공동제작과 공동기획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한 단계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문 기관 간의 매칭을 주력했다.

2004년 국립극장과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CDNB, 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Bretagne) 간의 공동제작이 이뤄진 것은 이보다 앞서 해외 연출가와의 초청을 통해 인적 교류서부터 그 토대를 쌓았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공동제작된 <귀족놀이>는 2006년 프랑스 전역에서 투어공연을 진행했는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몰리에르의 작품을 한국의 국악기와 춤, 한국 배우에 의해 독창적인 창작으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았다.

거리예술 분야에서도 과천한마당축제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간의 첫 번째 거리극 공동제작 작품인 <요리의 출구(Sortie de cuisine)>(호모루덴스 컴퍼니, 극단 일로토피)가 소개되었고 이 작품도 한국과 프랑스의 여러 축제에 초청되었다.

이번 사업에서 공동제작과 교차 프로그램, 인적 교류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 교류 사업을 진행한 거리극 분야의 사업 내용도 2006년에 진행한 협력 사업을 토대로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 셈이 된다. 따라서 공동제작은 양국의 예술가나 기관, 축제, 예술단체 등이 만나 지속가능한 예술교류의 토대를 조성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사업 확장성(투어공연 연계나 후속 프로젝트 발굴 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교류형태라고 본다.

공동제작 외에도 영화 분야에서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와 한국영화위원회의 공동기획으로 2006년에 다양한 회고전이 개최되어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주요 창구를 마련했고,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정가와 판소리 등이 공연되는 등 이때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 기관이 이번 사업에서도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공연의 사례

‘프랑스 내 한국의 해’를 알리는 개막공연으로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장 빌라르 홀(1250석)에서 이틀간 공연된 <종묘제례악>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불 조직위원회는 개막공연에 대한 집중적인 매체 보도와 세간의 주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이슈를 제공해야 했으며, 한국 측 조직위원회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역사성, 중국과 일본 문화와는 차별화된 예술적 특성과 미학을 지니고 있음을 알리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배경을 놓고 한-불 조직위원회가 선택한 <종묘제례악>은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국의 세계무형유산으로 가장 먼저 등재된 만큼 여러 방면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따라서 한국국립국악원과 사이오국립극장이 함께 주관한 <종묘 제례악>은 현지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사이오국립극장은 프랑스 5대 국립공연장 중의 하나로 에펠탑과 마주하는 전경으로도 유명한 무용전용극장이다. 이 극장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프로그램을 가을 시즌 개막작으로 기획하고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해 포커스나 공동제작 형태로도 소개했다.

한편,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의 개막 프로그램은 국립중앙극장과 사이오국립극장이 공동제작한 <시간의 나이>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2016년 3월에 한국에서 초연(국립중앙극장 해오름 극장, 3월 23일~27일)한 후, 다시 6월에 프랑스(사이오국립극장 장 빌라르홀, 6월 16일~24일)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국립중앙극장에 소속된 국립무용단의 무용수와 함께 사이오국립극장 상임안무가 조세 몽탈보(José Montalvo), 사진작가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이 영상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

이번 사업의 프로그램은 양국 참여 주체들 간의 공동기획에 의해 국제 문화교류의 다양한 교류 방식과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⁷⁾을 보여주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은 공동제작⁸⁾으로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시각예술 분야는 레지던시를 통한 과정 중심의 작업, 영화 분야는 영화제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의 기획, 문학 분야는 작가들의 창작 아틀리에 운영 등을 통해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유형은 창작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작품 또는 과정물이 만들어지거나 참여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동제작

2015년 개막시즌작으로 공연된 <종묘제례악>에 이어 2016년 사이오국립극장의 시즌 프로그램의 피날레를 장식한 <시간의 나이>는 공동제작으로 진행된 작품이다. 이렇게 양국의 두 기관이 하나의 작품을 공동제작하고 양국에서 번갈아 공연한 작품은 <시간의 나이>를 비롯해 <빛의 제국>(명동예술극장 2016년 3월 4~27일,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CDN Orléans) 2016년 5월 17~21일), 민간 극단인 호모루덴스 컴퍼니와 라 불가의 <2K, 김치-까망베르(Kimchi Kamembert)>(코르니옹시립극장(Théâtre municipal Cornillon) 2016년 4월 29일, 아르코예술극장 2016년 5월 20~22일) 등이 있다.

한편,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LG아트센터 2016년 6월 11~12일, 파리시립극장 2016년 6월 18~19일)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제작 방식은 아니지만 무용 경연을 매개로 서울과 파리 2개 도시에서 경연을 개최했다. 파리의 유명 공연장인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과 렌느의 뮤제 드 라 당스(Musée de la Danse)의 공동기획으로 2010년 파리에서 처음 시작돼 2년에 한차례씩 열리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도 열리게 되었다. 다양한 실험무대와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도시별 대회마다 에르메스 재단의 후원으로 입상자에게 상금이 주어졌다.⁹⁾

주요 공동제작 사업

사업명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시간의 나이	국립무용단	사이오국립극장
빛의 제국	국립극단	오를레앙국립연극센터
2K, 김치-까망베르	호모루덴스 컴퍼니	라 불가
라이트 버드	LG아트센터	르 게튀르-뤽 페통 무용단
댄스 엘라지	LG아트센터	파리시립극장
안티포드	댄스씨어터 창	파리시립극장
콩페티	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 시
필립 드쿠플레 <콘텍트>	LG아트센터	콩파니 데세아-필립 드쿠플레
로베르토 주코	국립극단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종이달	경계없는 예술센터	콩파니 안-센소

7) 「국제공동제작 매뉴얼」(예술경영지원센터,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발행)에 따르면, 그간 현대공연예술 분야에서 진행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을 ①과정 중심의 작업 ②장기 계획의 공동 구상 ③프로젝트의 발전 ④컨소시엄 구축 ⑤축제 간/극장 간의 공동 프로그래밍 ⑥오디션 ⑦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국제 공동제작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협력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조사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공동제작은 작품 또는 과정 지향적 프로젝트의 창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둘 이상의 제작파트너가 관계된 공연예술제작을 뜻한다.(국제공동제작 매뉴얼, p.130)

9) <댄스 엘라지> 한국 경연에서는 정세영, 서재영, 이신실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가 1등을 차지했으며, 일주일 뒤에 치러진 파리 경연에서는 권령은의 <글로리(Glory)>가 3등을 수상했다. <댄스 엘라지>의 한국과 파리 경연에서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했으며 두 도시에서의 경연 모두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한편, 에르메스 재단의 후원으로 1등 15,000유로, 2등 11,000유로, 3등 7500유로의 상금이 수여됐다.

레지던시

프랑스 고성 중의 하나인 상보르 성(Château de Chambord)에서 열린 배병우 작가의 사진전 <배병우, 숲속으로(D’une forêt l’autre)>(상보르성, 2015년 9월 26일~2016년 6월 12일)는 기관과 개별 작가가 만나 레지던스를 매개로 전시를 기획한 프로젝트 단위의 교류 형태이다. 상보르성재단은 상보르 성과 숲의 사계절을 촬영해 줄 것을 작가에게 의뢰했는데 촬영에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전시에는 상보르성과 한국의 경주 소나무숲이 함께 소개되었다.

또 다른 유형의 레지던스 프로젝트 <난지X파비용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서울시립미술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2016년 6월 23~2016년 6월 30일)는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유형이다.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와 더불어 프랑스 현대예술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인 팔레 드 도쿄는 2001년부터 국제 레지던스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매년 5~6명의 작가를 초청해 8개월 동안 레지던스를 운영하면서 해외워크숍, 전시회, 개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다양한 실험무대와 작가들을 지원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팔레 드 도쿄가 운영하는 르 파빌롱의 레지던시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가운데 김아영을 선발해 다른 초청 작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이들 작가가 해외 워크숍 형태로 난지창작스튜디오에 방문해 리서치와 창작 활동을 전개해 서울과 파리에서 전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레지던시 진행 사업

사업명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배병우 사진전	배병우 스튜디오	상보르 성
난지 x 파비용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팔레 드 도쿄
천경우, 정연두 x MAC/VAL 레지던시 및 전시	천경우, 정연두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
김익영, 김윤경 레지던시 및 전시	김익영, 김윤경	세브르 시테 드 라 세라믹
파라다이스 x 홀타이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

종합 교류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LA CITÉ, La cité des arts de la rue) 간에 이뤄진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사업>은 하나의 장르를 놓고 다양한 교류 방식과 협력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물론 이에 앞서 ‘거리예술’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양국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과정¹⁰⁾이 있었기에 이번 사업을 매개로 두 기관이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기관은 양국을 대표하는 거리예술 축제를 통해 양국의 작품을 소개하고, 양국 예술가/예술단체 간의 공동창작이나 합작공연, 창작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와 MOU를 체결해 전문교육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적 교류를 추진했으며, 해외 연수 과정을 통해 예술가 교육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한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봄>¹¹⁾(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2015년 10월 19일~2016년 5월 6일), <프랑스의 가을>¹²⁾(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6년 9월 28일~10월 2일)이 진행되었다. 이들 간의 교류 방식은 공동제작, 창작 워크숍, 해외 연수, 레지던스, 축제 교류 등의 형태가 서로 동시에 연계되어 이뤄졌다. 또한, 영상과 전시 등의 방식을 통해 이들 간의 교류 과정과 협력 프로젝트, 순회 공연에 관한 여러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거리예술 분야에 관한 포럼 등을 진행해 관련 분야의 이슈,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적 교류 플랫폼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제작이나 레지던스 등에 의한 창작자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과의 만남을 통한 인적 교류 플랫폼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교류 플랫폼은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리서치, 교육 과정 등이 연계되어 지역 커뮤니티, 관련 기관,

주요 종합 교류 프로그램

사업명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공공공간 예술창작 - 한국의 봄, 프랑스의 가을	서울문화재단	FAI-AR
서커스전문기양성과정 : 점핑 업	서울문화재단	국립서커스예술센터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 사업	서울문화재단	스트라스부르그, 오리악 예술라협회
화랑-카르나비르 예술공연 협업 <갈-PASSAGE>	예술불꽃화랑	카르나비르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서울문화재단	
내 땅의 땅으로부터	올웨이즈 어웨이크	극단 오스모시스

10) 거리예술 분야에 관한 양국 간의 교류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과천한미당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을 통해 초청 형식으로 작품이 소개되었다. 본격적인 교류 시점을 놓고 여기서는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이 되던 해 양국 간의 첫 번째 공동창작으로 진행된 <요리의 출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11)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진행된 <한국의 봄>에서는 창작그룹 노니의 주도로 프랑스 서커스 예술가 3명이 참여한 공동창작 <역:스테이션 : 驛>, 프랑스 거리예술 전문교육기관인 페아(FAI-AR)가 주관하고, 거리예술 창작단체 제네릭 바피(Générik Vapeur), 페아 정규과정 학생 16명과 한국예술가 7명이 참여한 <Lost in translation>, 그 외 다양한 협력 사업의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과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2) 한국의 올웨이즈 어웨이크와 프랑스 거리예술단체 오스모시스(Osmosis)의 공동창작한 <내 땅의 땅으로부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의 서커스예술 협업 프로젝트로 프랑스 서커스 연출가 뱅상 고메즈(Vincent Gomez)와 한국 예술가들의 창작 워크숍을 기반으로 만든 <깃털병정> 등과 함께 <한국의 봄>에서 소개된 전시와 네트워크 파티가 진행되었다.

13)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1.59프로젝트>는 2016년 한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위한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프랑스 아를 문학번역가협회(Collège International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Arles)가 공동 기획한 <2015 한-불 젊은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국제문학번역가협회 2015년 9월 1일~11월 11일)은 양국의 젊은 문학 번역가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번역가 6명이 10주 동안 국제문학번역학교의 레지던스 시설에 머물면서 번역 관련 세미나, 토론회, 낭독회 등과 함께 번역 실습을 위한 전문 교수진이 참여한 아틀리에에 참여했다. 두 기관은 번역 교육 기관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공유하고 번역을 매개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유럽의 녹색수도 낭트에서 열린 축제 <한국의 봄 축제>(한국 빌리지 등 2016년 6월 1일~5일)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이 참여해 ‘자전거 기반 뮤직 머신 퍼포먼스’를 공연했으며, 이를 소재로 지역 커뮤니티와 교육 기관을 비롯한 낭트 시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주요 인적 교류 플랫폼 사업

사업명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세계문학축제 MEETING n13	한국문학번역원	작가/문학번역가의 집
2015 한-불 젊은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한국문학번역원	국제문학번역가협회
한국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 루이뤼미에르 고등영상원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프랑스국립시청각연구소
한국 독립운동과 프랑스	국민대학교	파리 디드로대학교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	한국문학번역원	마르세유 국제시센터
파리 이미지시네마	-	꿈의 산업페스티벌

한편, 안은미컴퍼니는 파리 여름축제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안무가 안은미와 프랑스 예술가들이 100명의 프랑스 일반 참여자와 함께 3개월 동안 한국 요리 체험, 한국 독립영화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 공동창작 방식으로 1분 59분 길이의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1.59 프로젝트>(부제: 위 아 코리안, 허니! We are Korean, Honey!)(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 2016년 7월 20~24일)를 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공동창작이라는 교류 협력 프로젝트인 동시에 일반 참여자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워크숍이자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을 통한 리서치 형태로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교류 프로그램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 과정은 춤을 매개로 한 인적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한다.¹³⁾

주요 거점 대상별 유형



파리의 주요 거점 공간 지역별 거점 도시 주빈국/ 포커스 프로그램 교차 프로그램

이번 사업은 양국의 수도뿐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여러 거점 대상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어떤 전시장, 어떤 극장과 축제에서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나는 것만으로도 그 질적 수준을 보장받아 작품이나 단체의 순회공연, 전시 연장 등의 후속조치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양측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었고, 한국 측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각도를 통한 전략적 프로그래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주요 대상별 유형으로는 지역별 거점 도시와 축제별 대상에 맞는 프로그래밍, 주빈국 또는 포커스 사업을 통한 장르 진출, 프랑스 내 주요 거점 공간/기관과의 연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리 주요 거점에서 소개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파리의 주요 거점 공간 활용

기본적으로 파리의 주요 거점 공간 간의 교류 프로그램은 사업의 상징성이나 위상을 드러내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도시로서 유동인구가 많고 유럽 진출이나 네트워크 형성의 교두보 격인 기관이 파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파리 지역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은 89개에 이른다.

파리의 주요 전시 공간인 그랑팔레(Grand Palais)는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장으로 개관한 곳으로 대규모 전시관(77,000㎡)을 갖춘 곳이다. 이 공간에서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삼은 <레벨라시옹(Révélation) 비엔날레>(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틀리에 디르 드 프랑스, 2015년 9월 10~13일),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특별 전시로 진행한 <흙, 불, 혼>한국도자명품전>(국립중앙박물관, 그랑팔레, 2016년 4월 27일~6월 20일) 등 대규모 한국 전통문화를 전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연결되었다. 또한 <2016 아트파리 아트페어(Art Paris Art Fair)>(한국화랑협회, 그랑팔레, 2016년 3월 31일~4월 3일) 역시 그랑팔레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을 주빈국 플랫폼으로 선정해 한국 작품과 작가를 비롯해 갤러리 10여 곳을 초청해 프랑스 미술 시장에 소개했다.

그랑팔레 외에도 파리의 거점 공간으로 주목한 곳은 프랑스 장식미술관으로 이곳에서는 특별 전시 형태로 <코리아 나우(Korea Now)! 한국공예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장식미술관, 2015년 9월 19일~2016년 1월 3일)을 진행했다. 루브르박물관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프랑스 디자인 예술의 중심지로 한국공예를 비롯해 패션, 그래픽, 시각디자인 등을 총망라한 전시였다. 이외에도 <이매전(Carte Blanche à Lee Bae)>(갤러리현대,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2015년 9월 18일~2016년 1월 25일), <서울-파리-서울>(아웅노미술관, 세르누치 박물관 2015년 10월 16일~2016년 2월 7일) 등의 프로그램은 파리의 주요 거점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진행사업

2015 시즌 개막작
〈종묘제례〉

포커스 코레
〈시간의 나이〉
〈이미아직〉,
이안수의 〈모던 필링〉
김판선의 〈OWN MHz〉
안성수의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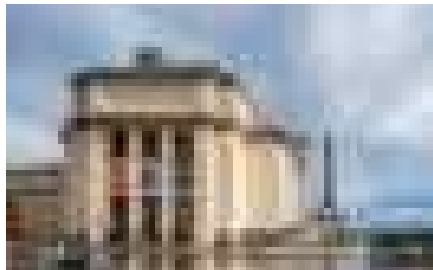
2015 파리가을축제
김금화 〈만수대택락〉
안은미 댄스 3부작

2015-2016 시립극장
정규프로그램
〈변강쇠 점찍고 용녀〉
〈달래이야기〉
〈나무와 소년〉
〈댄스 엘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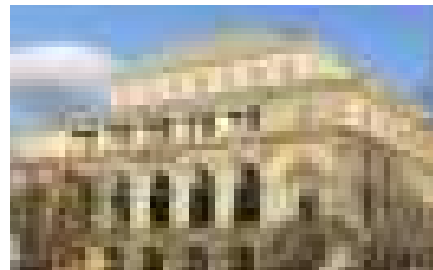
-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Nous)〉
- 프로젝트프 시네마
임흥순, 조혜준, 김성환
- 마니페스트 2016
IRCAM 아카데미 한국전문가
초청

거점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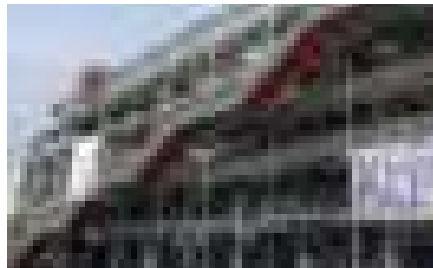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개관한 건물로 트로카데로 언덕에 위치하여 에펠탑과 마주보는 전경으로 유명. 5개의 프랑스 국립극장 중 무용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극장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프랑스 3대 공연장이자 현대 공연예술의 메카. 프랑스는 물론 세계 각국 공연을 선보이는 현대 공연예술의 최전선.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동시에 문제작을 제작하는 극장으로 유명. 파리시립극장 프로그래밍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는 것



(국립)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유럽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디자인/건축/사진/뉴 미디어 등 7만여 점에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회 이상의 전시회 및 공연/퍼포먼스/영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고 있음



진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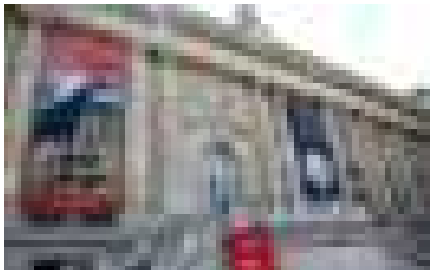
- 〈흙, 불, 혼〉한국도자명품전
- 아트파리 아트페어
한국주빈국 참가
-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한국주빈국 참가

- 이불 〈새벽의 노래 III〉
- 김아영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난지X파비웅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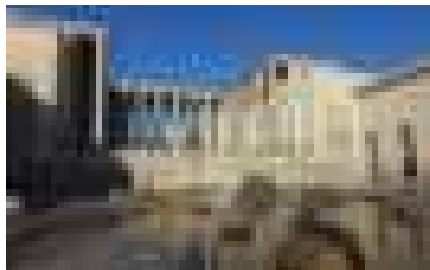
- 서울을 테마로 76편의
한국영화를 상영한
〈매혹의 서울〉특별전

거점별 특징

(국립)그랑팔레(Grand Palais)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장으로 개관, 77,000㎡ 규모의 전시관에서 세계의 정상급 문화예술전시 개최



(시립)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1937년 개관한 현대예술박물관, 재능이 뛰어난 신인 예술가 작품을 전시, 영화 시사회 음악회, 강연회, 세미나, 패션 쇼등 다양한 행사 개최. 퐁피두센터와 더불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2대 현대예술 메카
*박물관이 위치한 거리명 도쿄街(1918~1945)에서 명칭을 따옴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
1988년 설립된 파리의 영화영상기관. 파리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파리의 영화 국제교류 및 독립영화 지원 담당 기관. 해마다 전 세계 주요도시를 테마로 한 영화 프로그램 특별전을 선보임



진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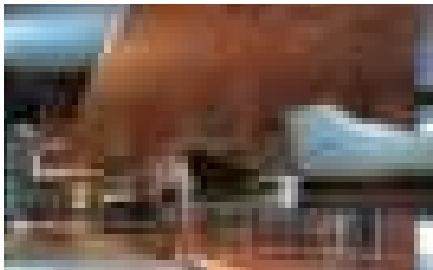
- 한국 전통악기 기증식
- 오늘의 음악, 진은숙
- 한국과 프랑스의
창작음악을 바라보는 시선

- 임권택 회고전

- 〈코리아 나우!〉한국공예전

거점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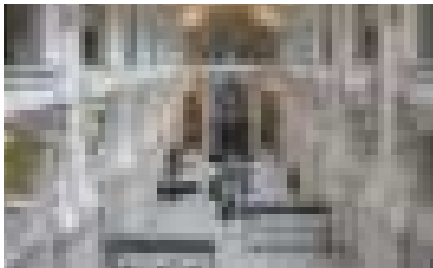
시테 드 라 뮤지크(Cité de la Musique)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필하모니 드 파리, 제니트 콘서트홀, 국립음악박물관 등이 모인 음악 복합단지
*국립음악박물관 : 세계의 악기 70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악기 전문박물관



(국립)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영화 관련 자료와 영상물 소장한 곳으로 상영관(3개), 영화도서관(2만여권의 책과 1만여 편의 필름 소장), 박물관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음.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회고전을 벌인다는 것은 세계 영화사 속에 획을 긋는 것과도 같음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루브르박물관의 서쪽에 위치, 연간 6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 프랑스 장식예술(공예, 디자인, 패션)을 총망라하는 유일한 국립 미술관, 15만 점 이상 소장품 보유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소개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한편, 파리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 진행한 <케이콘(KCON) 2016>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 계열사인 엠넷이 주관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K-pop의 ‘K’와 컨벤션의 ‘CON’의 합쳐 케이콘(KCON), 즉, 종합 한류문화 체험장을 의미한다. 컨벤션장 내 한식 디저트와 정찬, 도기와 유기 등의 미식 문화를 체험하고 K-pop 콘서트 등을 제공해 그야말로 한류 팬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닉 음악 시장이 확장세를 보이는 추세와 맞물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축제인 ‘테크노 퍼레이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한국 디제잉을 소개한 <서울 밤! 투어>(카로 뒤 탕플 2015년 9월 17일~10월 4일)가 파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지역별 거점 도시 활용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와 아트페어 등은 주로 파리에서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은 프랑스 주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 거점 도시는 리옹, 니스, 칸느, 아비뇽, 마르세유, 낭트, 모비앙, 바뇰레, 릴, 메즈 등이며 이곳에서는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요 거점 도시 간의 교류는 지역별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 때론 실험적이며 개성이 강한 공동기획이 이뤄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북부 도시 릴은 유럽 내 주요 도시와 연결된 교통 요충지이자 독특한 건축물과 문화를 지닌 곳이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릴 3000’은 세계 유명 건축가 초청과 미술관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대규모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트선재센터와 릴 3000이 공동기획한 전시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트리포스탈 2015년 9월 26일~2016년 1월 17일)는 한국의 현대미술과 예술가를 소개했다. 한국어인 “빨리빨리”를 모티브로 삼아 서울의 역동성, 한국의 급속

진행사업

김수자, <투 브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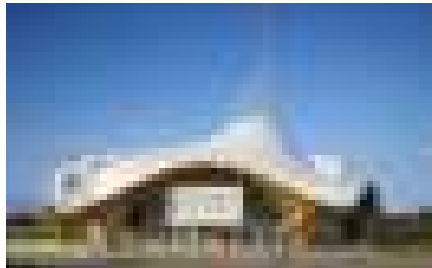
종합문화예술축제 릴

3000의 서울특집 프로그램
<서울, 빨리빨리!>

거점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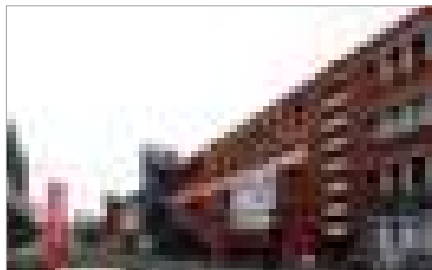
(국립)메조 폰피두센터(Centre Pompidou-Metz)

현대미술센터인 폰피두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킨 최초의 사례로 프랑스 동북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림,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시게루 반이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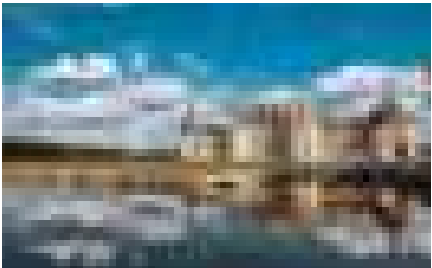
릴 트리포스탈(Lille Tripostal)

북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릴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옛 우편집중국을 개조하여 새로운 문화허브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



(국립)샹보르성(Château de Chambord)

프랑스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고성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매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



한 현대화를 짚어보기도 했으며 전시 주제와 관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릴 3000은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안은 미کم퍼니와 무브먼트 당당의 공연도 진행했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문화센터인 폰피두센터의 최초 지역 분관인 폰피두-메즈 센터(Centre Pompidou-Metz)는 동북부 메즈 시에 자리한다. 지방 분산화 정책으로 인하여 2010년 폰피두-메즈 센터가 이곳에 개관한 후 다양한 공공예술축제와 전시를 개최해 메즈시의 문화적 자부심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 국제 갤러리와 폰피두-메즈센터가 공동기획한 <김수자, 투 브리스(To Breathe)>(퐁티두-메즈 센터 2015년 10월 26일~2016년 1월 4일)은 메즈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천과 바늘을 매개로 한 ‘보따리’ 작업을 통해 여행과 유랑 등의 이미지와 겹쳐놓는 설치미술가 김수자의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외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거리예술 교류 협력 프로젝트, 동부에는 유럽의 녹색수도 낭트에서 열린 축제 <한국의 봄>, 모비앙에서는 한국 단색화를 주제로 <KM9,328:한국-모비앙 >(경기도미술관, 케르케넥 미술관 2016년 3월 6일~6월 5일) 등이 진행되었다.

주빈국/ 포커스 프로그램

이번 사업을 통해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등에서 주빈국 초청 방식에 의해 한국 작가의 단체전이나 개별 작가전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한 주요 프로그램은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 <제5회 세계사진비엔날레-포토케(Photoguai)>, <거리음식 축제>, <아트페어 아트파리>,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발로리스 국제 비엔날레>, <2016 마르세유 동시대 예술축제> 등이 있다.

영화 분야에서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세계를 망라하는 <임권택 회고전>(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 낭트 3대륙 영화제)이 포커스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파리 12구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2015년 12

주요 축제, 비엔날레 주빈국/포커스
프로그램

진행사업

- 김금화 <만수대택>
- 안숙선 <수궁가>
- 안은미 댄스 3부작
- 오늘의 음악, 진은숙

거점별 특징

파리가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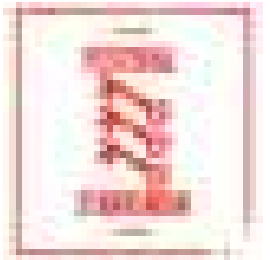
연극, 음악, 무용, 시각예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현대예술축제. 매년 9-12월 개최되며, 40여개의 행사를 기획,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 모음. 프랑스 문화통신부, 파리 시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구



-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 아방인의 노래
- 모파상 단편선
- 목이 마르다
- 꼭두

아비뇽 페스티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에서 매년 여름 열리는 세계 최고 연극 축제. 프랑스 연극계의 거장 장 빌라르(연출가 겸 배우)가 1947년 ‘연극의 지방화’라는 취지로 창시. 쿠르 도뇌르를 비롯한 유서 깊은 공연장에서 선보이는 공식(In) 페스티벌과 일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비공식(Off) 페스티벌로 구성. 전체 공연 관람객은 약 10만 명이며 축제기간동안 아비뇽 방문객은 약 50만 명에 달함



-2016 파리도서전 : 한국주빈국

파리도서전

프랑스 출판협회의 후원으로 약 55개국 1천500개사가 참여하고 전시장 규모가 4만㎡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전. 파리도서전은 전문가에게는 출판 시장이자 일반인에게는 강연회,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임



주요 축제, 비엔날레 주빈국/포커스 프로그램

거점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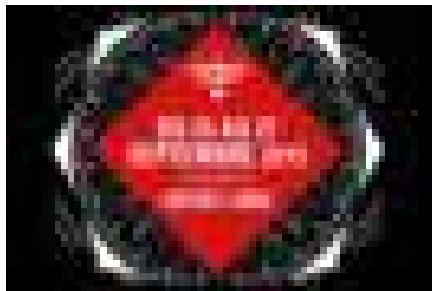
낭트 3대륙 영화제

1979년 낭트에서 창시된 영화페스티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대륙의 영화를 소개하며, 특히 프랑스에 개봉되지 않은 영화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1987년 <씨받이>와 함께 한국영화를 유럽에 최초로 선보인 영화제



거리음식축제

파리 시내에서 세계 각국의 거리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가볍고 접근성이 높은 거리 음식과 락 음악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융합하여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거리 문화를 제시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 한국 주빈국

불어로 “새로운 발견”을 뜻하는 레벨라시옹 비엔날레는 프랑스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예술공예작품 전문 페어어로 2년마다 그랑팔레에서 개최됨. 2015년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해 22명 의 한국 작가들의 180여 작품을 전시



진행사업

- 임권택 회고전

- 제2회 거리음식축제

-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월 2일~2016년 2월 29일)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그의 7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앞서 3대륙 영화제(2015년 11월 24일~12월 1일)에서는 대표작 25편이 프랑스 영화 관객과 만났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포럼 데 이마쥬가 공동기획한 <매혹의 서울>은 서울을 주요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포커스 사업을 진행했다. 포럼 데 이마쥬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도시를 조명하는 영화제를 기획해 접근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엄선된 76편의 영화는 한국 영화의 변천사를 전하며 이중 프랑스에 처음으로 소개된 작품이 약 60여 편에 이른다.

이외에도 무용 분야의 주요 거점 공간인 사이오국립극장과 더불어 파리 3대 공연장이자 프랑스 현대공연예술을 소개하는 파리스립극장에서 공연된 안은미컴퍼니의 ‘댄스 3부작’(안은미컴퍼니, 파리 가을축제)은 포커스 사업에 의해 소개되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순회 일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안은미컴퍼니 외에도 파리가을축제 포커스 사업으로 김금화 <만수대탁구>, 안숙선의 <수궁가>, 진은숙의 <오늘의 음악, 진은숙>이 공연되었다. 또한 아비뇽페스티벌의 데알극장에서는 오프 프로그램으로 ‘한국연극 특집’을 진행해 극단 돌곶이의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양손프로젝트의 <모파상 단편산-낮과 밤의 콩트>, 판소리만들기-자의 <이방인의 노래>가 공연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한국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와 프랑스 재즈수레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 간의 포커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운영하는 축제(재즈수레포미에페스티벌 2016년 4월 30일~5월 7일,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2016년 10월 1~3일)에서 양국의 예술가를 각각 소개했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제는 ‘프랑스 포커스’를 통해 7개월 남짓 프랑스 음악을 다양하게 소개했으며 ‘프렌치 위크’(2016년 6월 2~5일)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차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과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Friche de la Belle de Mai)는 각각의 전시 프로그램을 양측 공간에서 교차 형식으로 진행했다.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일종의 문화예술 공간이다. 1990년대 초반 폐업을 맞은 담배공장을 예술가의 작업공간으로 전환하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도시재생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아오는 곳이다. 먼저 이곳에서 열린 <미래는 지금이다!(The future is now!)>는 한국의 미디어 아트의 변화를 망라하는 전시였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에코시스템: 질 바비에(Gilles Barbier)>는 마르세유를 대표하는 작가로 프랑스 팝아트를 대표하는 현대 작가이다.

또한, 통의동 보안여관과 프랑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메이막아트센터는 2015년 6월 전시협약을 맺고 ‘한불 현대미술 교류전’을 교차 진행했다. <메이드인 서울(Made in Seoul) >(메이막아트센터 2016년 3월 20일~6월 19일)에서는 한국 작가 23인이 참가해 서울을 주제로 도시적 범주 내에서의 인식과 서사를 다뤘고, <프렌치 터치>(통의동 보안여관 2016년 12월 7일~2017년 1월 8일)에는 프랑스 작가 27명이 참가해 전시 제목이 내포하는 프랑스와 프랑스인을 규정짓는 요소를 현대미술로 표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5년 9월에 시작해 2016년 12월 종료되었다. 하지만 국제 문화교류의 특성상 이번 사업을 통한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파트너십을 공유한 양국의 참여 주체들 간에는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타진하고 있다. (글. 엄혜원)

주요 교차 프로그램

한국 주관기관	프랑스 주관기관	사업명
국립현대미술관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	 미래는 지금이다!  에코시스템
서울시립미술관	팔레 드 도쿄	 김아영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도시과담
통의동보안여관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메이드 인 서울  프렌치 터치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등음악무용원	파리국립	 K-arts 무용단 초청 공연  파리 콩세르바투아르 무용단 초청 공연
고은사진미술관	탕당스 플루	 코리아 온/오프
라보라 예술기획	로렌국립오케스트라	 제50회 라 세즈디유 페스티벌 - 비바 베르디!  프랑스 로렌 국립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콜론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나-콜론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지휘: 임한정)  코리안심포나-콜론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불란서의 아름다운 시절 (지휘: 로랑 프티지라르 (Laurent Petitgirard)>
ACC 프로젝트	라 빌 아 데 아르	 하늘의 마법사

II 제2장 조우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열렸다. 2015년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개막작으로 국립국악원이 <종묘제례악> (9월 18~19일,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을 선보였고, 2016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작으로 샤이오국립극장과 국립극장이 공동제작한 <시간의 나이> (3월 23~27일, 국립극장)를 공연했다. 이를 포함하여 ‘프랑스 내 한국의 해’에는 99개의 공연이, ‘한국 내 프랑스의 해’에는 64개의 공연이 양국의 무대에 올랐다.

공연

전통
84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 <종묘제례악> Jongmyo Jeryeak
86 한국 전통악기 기증식 및 공연 Traditions de Corée
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계문화의 집 교류 사업 <제20회 파리상상축제> 20e Festival de L’imaginaire
92 코레디씨 페스티벌 Corée d’Ici Festival
94 변강쇠 점 찍고 응녀 Madame Ong

다원
96 2015 파리가을축제 Festival d’Automne à Paris 2015
100 (무용) 안은미컴퍼니댄스 3부작
104 콩페티 Confettis
106 서울문화재단 &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가 양성기관 교류 사업
108 서커스전문가양성과정 : 점핑 업 Jumping Up
110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Seoul Street Arts Festival : French Focus 2016
112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 사업
114 화랑-카르나비르(KaRNaViReS) 예술공연 협업 <길-PASSAGE>
116 벗어난 원리들 A Forbidden Act
118 쇼 힙합 <모닝오브아울> Mornig of Owl
120 이은결 <디렉션> Here is <Direction>
122 2016 메이드 인 아시아 : 한국주빈국 Made in Asia 2016: La Corée á l’honneur
126 2K, 김차-까망베르 2K, Kimchi-Kamembert
128 낭트 한국의 봄 Printemps Coréen Nantes

무용
130 국립극장-샤이오국립극장 공동제작 <시간의 나이> Siganè Nai
132 샤이오국립극장 : 코리아포커스 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 Focus Corée
136 라이트 버드 Light Bird
138 댄스 엘라지 Danse Élargie
142 한국예술종합학교 &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교류 사업
144 2015 칸느 댄스페스티벌 <회오리> Vortex
146 안티포드 Antipode
148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엠마뉘엘 그리베 무용단 Compagnie Emmanuel Grivet
150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 : 코리아 포커스 Rencontres Chorégraphiques de Seine-Saint Denis : Focus Corée
152 레 뉘 드 푸비에르 축제 <묵향> Scent of Ink
154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프랑스 포커스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 French Focus

연극
158 빛의 제국 L’Empire des Lumières
160 비나리 워크숍 및 투어 공연 BINARI
162 내 땅의 땀으로부터 À la Sœur de ma Terre
164 아동청소년 연극
168 2016 아비뇽 페스티벌 Festival d’Avignon 2016
172 극단 맥 & 극단 세르주 바르뷔시아 협업 공연
174 제 13회 부산국제연극제: 프랑스 포커스 The 13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French Focus
176 로베르토 줌코 Roberto Zucco
178 코벨소 Rhinocéros

음악
180 테크노퍼레이드 : 한국주빈국 <서울 밤!> 투어 Seoul BAM!
182 이디오테입 투어 IDIOTAPE
184 엠-더 엑스트라오디너리 라이브 쇼 M-The Extraordinary Live Show
186 리퀴드 사운드 LIQUID SOUND
188 그람 : 코리아포커스 <통로> GRAME:FOCUS Corée <Passerelles>
190 크리마 CREAMA
192 2016 통영국제음악제 : 프랑스포커스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6: French Focus
196 차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재즈 수 레 포미에 교류 사업
198 뉘 소노르 Nuits Sonores
200 잠비나이 투어 JAMBINAI
20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콜론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204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투어 Korean Symphony Orchestra
206 페스티벌 오원 Festival OWON
210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Seoul Spring Festival 2016
212 케이콘 2016 KCON 2016
214 2016 미템 페스티벌 : 한국 특집 <케이팝 나이트 아웃> K-Pop Night Out
216 롯데콘서트홀 개관페스티벌 Lotte Concert Hall’s Opening Ceremony Festival
218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 프랑스 포커스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6 : French Focus
220 2016 잔다리 페스타 : 프랑스 포커스 <에스프리 프랑세> Esprit Français
222 다니엘 하딩 & 파리 오케스트라 Daniel Harding & Orchestre de Paris

다양한 예술가와 프로그램, 국경을 넘나들다.

이번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간 문화예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었던 만큼 프랑스 내 주요 공연장의 개·폐막작으로 공식초청된 점, 각국의 문화예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수많은 페스티벌이 ‘한국 포커스’, ‘프랑스 포커스’를 통해 두 국가의 예술을 클래식부터 연극·무용·전통예술·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소개한 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는 한국·프랑스의 유명 극장을 중심으로 교류가 진행되었다면, 인터넷과 SNS 문화가 발달한 21세기에 진행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20세기에 진행된 교류와 성과 위에 폭넓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로 진행되었다.

1년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예술가(단체)와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나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21세기 예술의 중요한 화두인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적 방법론을 응용한 작업으로 서로의 문화를 체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주로 단독 작업으로 진행되는 문학이나 미술과 달리 클래식·연극·무용·전통예술·대중음악 등의 공연은 상대적으로 컬래버레이션 작업이 활발한 분야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작업한다는 것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차치하고, 물리적으로 장애가 많고 진행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공동작품을 빚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교류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상대방에 대한 탐구와 탐색을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컬래버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완제품’을 포장하여 ‘이동’만 하던 과거와 달리, 만남의 각도를 틀어 현지인들과의 워크숍과 교류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만남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고 현지의 문화적 온도를 더욱 더 체감할 수 있었다.

이번 교류의 큰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프랑스 간 공동제작 및 교류를 손꼽을 수 있다. 무용은 국립무용단과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의 <시간의 나이>, LG아트센터와 파리시립극장의 <댄스 엘라지>, 댄스씨어터 창과 파리시립극장의 <안티포드>, 연극은 국립극단과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의 <빛의 제국>, 국립극단과 리무쟁 국립연극센터-류니옹 극장의 <로베르토 주코>, 극단 맥과 발콩극장(Théâtre du Balcon)의 <목이 마르다> 등이 있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닌 예술가와 단체들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두 문화를 혼합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두 개의 세계가 충돌, 이해, 혼합 내지는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로 나가는 일이다. 한국 유일의 불꽃 전문 공연단체 예술불꽃화랑과 프랑스 불꽃 극예술 단체인 시카르나비르가 공동 제작한 <길-Passage>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이 미약한 국내에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초반 작업은 우선 거리예술축제에 대한 인식과 저변확대에 큰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목이 마르다>의 경우는 프랑스 공연의 국내소개라는 일차원적인 재정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문화(부산)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공연팀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긍정적 비전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로 대변되는 불어권의 발달된 현대무용을 빨리 받아들였던 한국의 무용계와 다르게, 현대음악계는 그동안 프랑스의 수준 높은 현대음악계와 그 문화를 수용하는 데 느리고 교류의 폭도 좁았다. 하지만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 음악 대학 부설 연구소가 프로그램을 교류·진행하였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음악단체인 앵테르콩탱포랭(Intercontemporain),이 내한하여 서울과 통영에서 프랑스 현대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국내 현대음악계에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축제를 통한 소통도 이번 교류의 큰 특징이다. 한국의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수원연극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울산월드뮤직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등과 프랑스의 파리가을축제, 상상축제,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 등에 양국의 공연을 초대하고 소개하는 ‘축제 내의 축제’장이 펼쳐졌다. 1972년 조르주 Pompidu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파리가을축제(2015)에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가 진행되어 김금화(ㄸ)와 안은미(무용), 안숙선(판소리), 진은숙(작곡)이 초청받아 한국의 전통예술부터 현대예술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2008년부터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Toulouse)에서 진행하며 매년 아시아의 한 국가를 주빈국으로 정한 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있는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 2016)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소리꾼 배일동과 타악 연주자 김동원, 전통타악그룹 노름마치, 무용가 이재영과 김설진이 무대를 선보였다.

프랑스의 남부 지방 아비뇽에서 매년 7월 3주 동안 열리는 세계 최고의 연극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은 2016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극단이 1400여 편의 공연을 선보이는 장이 되었다. 특히 2016년의 축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연극 특집’이 마련되었고, 양손프로젝트의 <모파상 단편>, 판소리만들기 자의 <이방인의 노래>, 알랭 티마르(Alain Timar)의 연출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극단 돌곶이 단원들이 함께 한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등이 프랑스의 관객들과 만났다.

2002년부터 매년 5-6월에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여러 극장에서 다양한 나라의 현대무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Rencontres Chorégraphique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에는 프로젝트 보라의 6명의 군무와 4명의 라이브 연주자를 포함한 <소무>를 초청하였고, 그 외 3개 무용 작품과 2개 음악 작품을 초청해 ‘코리아 포커스’를 기획하였다.

또한 축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16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프랑스의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에서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추천한 6개의 한국 단체가 ‘한국 포커스(Focus Corée du Sud)’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현지 무대에 올랐으며, 같은 해 가을에는 ‘포미에 재즈’로부터 추천 받은 6개 단체의 프랑스 재즈 뮤지션들 무대로 꾸민 ‘프랑스 포커스(French Focus)’가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이처럼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향유할 수 있는 장은 축제 외에도 극장, 공연장 등의 기획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주간’과 ‘프랑스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인수의 <모던 필링>, 김판선의 <오운 메가헤르츠(Own MHz)>, 안성수의 <혼합(Immixture)>,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Already Not Yet)>이 소개되었던 샤이오국립극장의 ‘포커스 코레(Focus Corée)’(2016년 6월 8~18일)를 비롯하여, 한국작곡가(임종우)와 전통음악(가객 박민희)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던 국립음악창작센터(GRAME)와 리옹 고등국립음악원(CNSMDL)의 ‘그람 한국의 날’(2016년 11월 6~20일), 음악그룹 잠비나이가 참가한 뉘 소노르(Nuits Sonores) 페스티벌의 ‘쿨 코리아(COOL KOREA)’ 등이 한국을 주빈으로 했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도 프랑스를 주빈으로 하여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랑스 주간’을 선보였다. 인디음악 중심의 잔다리 페스타(2016년 9월 30일~10월 2일)의 ‘프랑스의 밤:에스프리 프랑세’, 통영국제음악제의 ‘프랑스 포커스’(2016년)를 통해 베르사유 바로크음악센터(5월 13~14일), 반더러 트리오(6월 2일), 상젤리제 오케스트라(6월 3~4일), 에릭 르 사주(6월 4일)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프랑스의 예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레퍼토리과 예술가를 중심으로 하여 페스티벌을 이끌어간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꼽을 수 있겠다. 2016년 5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주요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프랑스의 향기’라는 주제를 내걸어 16개의 음악회에서 프랑스의 주요 작곡가들의 곡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국립.시립의 극장 외에 프랑스 전역에 위치한 작고 다양한 극장과 그 주위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각 도시에 위치한 극장공간에 대한 자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샤이오국립극장¹⁾, 상젤리제극장(Théâtre des Champs-Élysées)²⁾, 부프 뒤 노르 극장(Théâtre des Bouffes du Nord)³⁾,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⁴⁾, 시테드 라 뮤지크(Cité de la Musique)⁵⁾ 등을 한국인 예술가들에게 내주어 공연이 꽃필 수 있었고, 현지의 언론으로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의 공연장이 아닌 고성(古城), 아틀리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공간도 국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이 프랑스의 예술가와 단체들에게 내줄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진행되는 동안 들뜨고 기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로 인해 파리 시민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프랑스를 방문하는 공연예술가들은 그들의 위로에 동참했다. 특히 제의성(祭儀性)이 강한 한국의 전통예술은 공연장에 찾아온 파리 관객들과 함께 애도하고 죽은 영

혼의 뉘를 달래는 제의를 너나 나나 선보였고 산 자의 무사를 기원했다. 이를 통해 이심전심의 교류가 될 수 있었고, 프랑스의 관객들은 한국의 전통예술에 담겨 있는 사상과 동시대적 감수성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공연이 오가는 교류의 길목이 확장되고, 교류의 방식 역시 다양화되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 예술가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글. 송현민)

1)

샤이오국립극장은 국립파리오페라발레단, 국립안무센터와 함께 프랑스 3대 무용관련 공공기관이다. 파리 샤이오국립극장은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린 1937년 개관했다. 2008년 정책적으로 ‘무용 중심 극장’으로 지정됐다. 프랑스 중앙정부가 전체 재정을 부담하는 5개 국립극장 중 유일하게 무용을 중심에 둔다. 1250석 규모의 대극장인 장 빌라르 극장(Théâtre Jean Vilar)을 비롯해 420석 규모의 피르맹 제미에 극장(Théâtre Firmin Gemier), 80석 규모의 스튜디오인 모리스 베자르 극장(Maurice Bjart) 등 3개 공연장을 갖췄다. 마기 마랭(Maguy Marin), 모리스 베자르,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얀 파브르(Jan Fabre)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안무가와 무용단체를 초청해왔다.

2)

1913년에 개관한 상젤리제 극장은 그 해에 있었던 디아길레프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초연 스캔들이 있었던 곳으로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은 곳이다. 파리의 상징인 상젤리제 광장으로 가는 한편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 수준의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연극 등이 연중 오르고 있는 곳이다.

3)

부프 뒤 노르 극장은 1876년 개관 이래 대중음악과 순수예술을 아우르는 여러 장르를 다루던 극장이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없이 폐관을 거듭했던 곳이다. 그러던 중 1974년 연극연출가 피터 브룩이 인수해 수많은 작품과 명작을 발표했고, 2008년 <가디언(Guardian)>지로부터 “지난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공연장”으로 선정되었다.

4)

파리시립극장은 19세기 사틀레 광장에 지어진 극장이다. 그 옆에는 사틀레 극장(Théâtre du Châtelet)이 위치한다. 두 극장은 성격도 비슷하여 연극·뮤지컬·월드뮤직·현대무용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뮤지컬은 사틀레 극장에서, 실험적인 현대무용은 파리시립극장이 주로 선보이고 있다. 덕분에 파리시립극장은 현대무용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발레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통을 쌓아가고 있다. 칸템파라리와 아방가르드 예술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무용에 대해 이처럼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하고, 또한 타국의 예술에도 개방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다.

5)

프랑스 파리 19구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관이다. 1995년에 개장했으며 교육관과 극장, 콘서트홀, 박물관, 실습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리츠커 상(Pritzker Prize)을 받은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Christian de Portzamparc, 1944-)에 의해 설계되었다. 포르장파르크의 ‘음악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

종묘제례악

JONGMYO JERYEAK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18-2015.09.19.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주관기관

한국: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프랑스: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이 2015년 9월 18~19일 프랑스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내 장 빌라르(Jean Vilar) 극장 무대에 올랐다. 종묘제례는 조선왕조의 역대 제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그들을 기리는 제사이고, <종묘제례악>은 제례에 쓰였던 기악·노래·춤을 뜻한다. 2015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개막작으로, 한국 측 조직위원회는 전통예술의 품격과 위용을 담고 있는 <종묘제례악>을 개막작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 2월, 한국 해외문화홍보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 회의는 개·폐막식에 관한 것으로, 최준호 예술감독이 “개·폐막식의 웅장하고 파급력이 큰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선국 전문위원(저스트 뮤직 대표)이 <종묘제례악>을 선보이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국립국악원으로 종묘제례악과 관련된 회의 내용과 개막식에 종묘제례악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를 제출했다. 국립국악원은 이를 위해 2월 20일에 추진단을 구성했고, 정기적인 추진회의를 가지며 준비했다.

김선국은 프랑스로 출국한 후, 종묘제례악 공연제안서 초안을 현지에서 작성하고 월드뮤직 프로그래머 알랭 베베르(Alain Veber)와 사이오국립극장과 미팅을 가졌다. 김선국은 국립국악원과 정식으로 사이오국립극장 <종묘제례악> 공연 담당 프로듀서로 계약을 맺었고, 현지 극장답사, 4차례에 걸친 테크니컬 라이더 작성, 프랑스 내 행정작업 총괄, 통역팀 구성 및 운영, 현지 홍보(사진촬영 콘티 구성, 홍보영상 촬영팀 구성, 편집책임, 보도자료 작성), 프랑스 조직위원회 및 사이오국립극장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총괄했다(김선국은 벨에르(Bel Air) 미디어가 제작한 <종묘제례악> 영상에는 ‘프로덕션 책임자’로, 사이오국립극장 프로그램북에는 ‘연출가(Mise en Scène)’로, 국립국악원 프로그램북에는 ‘프로듀서’로 기재되었다).

<종묘제례악>이 프랑스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1년 라디오 프랑스의 월드뮤직 레이블인 오크라(Ocora)를 통해 음반으로 출시되면서부터였다. 오크라에서 발매된 <종묘제례악> 음반에는 국립국악원이 2003년 녹음한 종묘제례악의 음원 전곡(27곡)과 영어·불어로 번역한 해설이 수록되었고, 프랑스의 메이저 음반사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를 통해 세계음악시장에 유통되었다(김선국은 김해숙(국립국악원 원장)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등 오크라 레이블에서 5장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경력이 있다).

2014년 5월 개막식 장소로 김선국은 국립국악원 측에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 사이오국립극장, 샤틀레극장(Théâtre du Châtelet)을 추천했고, 결국 사이오국립극장이 확정되었다. 이유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트로카데로(Trocadero) 광장에 위치한 사이오국립극장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한국 전통의 <종묘제례악>과 현대식 구조를 지닌 사이오국립극장이 ‘전통과 현대’라는 키워드로 어울린다는 점, 국립국악원과 사이오국립극장 모두 지니고 있는 ‘국립’이라는 공통성,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이오국립극장 장빌라르 홀의 로비가 개막행사 후 리셉션 장소로 적합하다는 점 등이 이유였고, 개막공연이 끝난 후 에펠탑에선 태극기 문양과 프랑스 국기의 3색(흰색, 붉은색, 파란색) 문양의 조명을 수놓는 쇼가 진행되기도 했다.

<종묘제례악>에는 무용수들이 여러 줄로 서서 추는 정재(춤) ‘일무(佾舞)’가 포함된다. 이번 공연에서 국립국악원 측은 이러한 일무를 전면에 배치했다. 원래 고정된 위치에서 춤을 추는 것이 기본으로, 의상과 동작은 원형 그대로 선보였으나 인원을 축소하고 대형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사이오국립극장은 관객석에서 무대가 경사지게 내려다보이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잘 살려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듯한 일무의 도형에 변화를 준 것이었다. 선대왕들의 무공(武功)을 기리는 무용 ‘무무(武舞)’는 고증을 거쳐 의상의 절반을 적색과 청색으로 나누기도 했다. 김해숙 원장은 “양국 국기에 나타나 있는 색이기도 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를 상징하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뉴시스> 2015년 6월 11일자]고 설명했다.

종묘제례악은 일본(2000년), 이탈리아·독일(2007년)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대부분 40여 명으로 축소한 형태였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50명, 무용단 35명 등 총 85명의 예술단원과 전문 제작진을 포함해 총 120명이 참여했다. 무대디자인 박동우, 조명디자이너 이상봉, 영상감독 우종덕, 음향감독 오영훈 등이 함께했다.

공연 도입부에는 종묘제례악의 해설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초까지 종묘에서 매주 화요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한 사진을 이어붙인 영상(약 3분 분량)이 함께 했고, 제례 절차에 따른 음악과 춤에는 불어자막을 넣었다. 종묘제례악은 노래(歌)·무용(舞)·음악(樂)과 전통제례가 더해진 종합예술이다. 이번 공연은 세종대왕(1397~1450)의 악제개편 이후 6세기만에 처음으로 노래·무용 음악이 온전하게 어우러져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음악사적 의의가 있다.

이번 개막공연은 프랑스의 공연예술 전문영상 제작업체인 벨에르 미디어에서 영상물로 제작돼 유럽에 유통될 예정이었다. 김선국이 벨에르 미디어 프로듀서 자비에 뤼부아와 공연 1주일 전에 미팅을 가져 영상계약서(한국·프랑스어 작성)를 작성했고,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김선국은 영상물의 연출을 맡은 토미 파스칼과 리허설을 관람하며 카메라 워킹과 위치를 최종 확인했고, 일곱 대의 카메라로 드레스 리허설과 첫 공연을 촬영하여 총 14대의 효과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 영상은 프랑스 TV5몽드(TV5MONDE)와 아르테(ARTE)에서 방송된 바 있으며, 국내에선 ‘문화가중계’(SBS)에서 방송되었다.

정·관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대한 18일 공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외교부 장관, 플뢰르 펠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 및 양국 귀빈을 비롯해 관객들이 참여했다. 사이오국립극장의 2015/16 시즌 개막작이기도 했던 19일 공연은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했고, 전날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종묘제례악>의 홍보를 위해 김선국을 비롯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측은 사이오국립극장 개막작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가했다. 시즌 개막작으로 확정되면서 극장 외벽에 대형 배너가 게재되어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노출되었고, 사이오국립극장 측에서도 매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종묘제례악> 공연 티켓은 공연 3개월 전인 6월에 이미 매진되었다. 김선국은 “현지 교민들은 공연 일자를 늘리거나 프랑스 내 투어를 진행하지는 않느냐는 문의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상당수 받았다”며, “한국공연예술의 역사에 있어서 해외 유력극장의 시즌 개막작으로 전통예술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에(Bernard Faivre d’Arcier) 아비뇽 페스티벌 前 집행위원장은 “품위 있고 화려한 종묘제례악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쁘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개막작다운 가치와 무게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무용전문지 <당세 카날 이스토리크(Danser Canal Historique)>의 아녜스 이즈린(Agnès Izrine) 편집장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음악과 무용이 하나로 우아하게 어우러진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국민일보> 2015년 9월 21일).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국립국악원)



한국 전통악기 기증식 및 공연 TRADITIONS DE COR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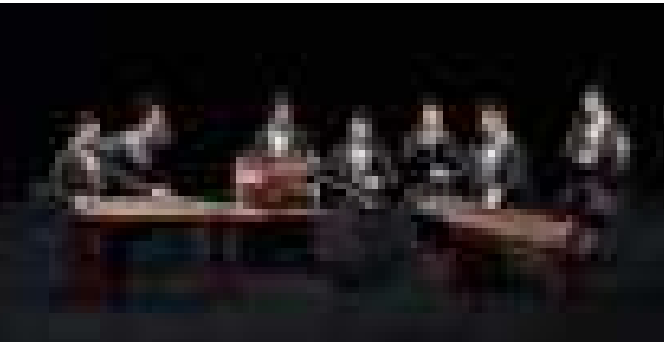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1.26. 필하모니 드 파리-음악박물관(Musée de la Musique - Philharmonie de Paris)

주관기관

한국: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프랑스: 필하모니 드 파리 - 음악박물관(Musée de la Musique - Philharmonie de Paris)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2015년 12월 26일 파리 음악박물관(Musée de la Musique)에 국악기 5점을 기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내부에 위치한 공연장에서 정악·민속악·창작국악 등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였다.

국립국악원이 기증한 악기는 악기장 고흥곤 명인이 제작한 산조가야금, 피리, 산조 대금, 장구, 해금, 이상 5점의 국악기 등이다. 기증 당시 이 악기들은 2016년부터 파리음악박물관 내 아시아관에 상설 전시되기로 예정됐으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에 전시된 국악기들도 함께 전시될 것을 약속받았다.

음악박물관은 르네상스기의 악기들이 전시된 1층부터, 20세기 초의 전자악기가 전시된 5층까지 총 5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7000점의 악기를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한국 전통악기 15점도 포함되어 있다.

악기 기증과 함께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단원들은 <천년만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류형선 작곡의 <용서하고픈 기억>, 백대웅 작곡의 <다섯 악기를 위한 몽금포 타령>, 여러 민요들로 구성된 <민요연곡>, <사나워> 등을 연주했다. 공연을 앞둔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와 그 피해 탓에 공황 및 인구 밀집 지역은 늘 한산했다. 하지만 본 공연은 유료 좌석 250석 전석 매진을 보이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본 공연 후 5번의 커튼콜이 이어졌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진도 아리랑> 등 앙코르 무대를 통해 테러로 어수선한 파리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기증식과 공연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아녜스 베나예(Agnès Benayer)와 파리 음악박물관 관장 에릭 드 비셰(Eric De Visscher), 파리국립대학 최정우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 공연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통예술분야 전문위원 김선국(저스트뮤직 대표)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성사되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공연이자 샤이오국립극장의 2015/16 시즌 오픈 공연인 <종묘제례악> 준비로 인해 프랑스에 체류하던 김선국이 파리 음악박물관에 재직 중인 전통음악 및 월드뮤직 프로그래머 안나 베버와 1차 회의를 가졌고, 해외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클라라 바그너와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김선국은 국악기 기증과 공연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악기박물관에 전통악기 2~3점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기간 중 전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더불어 지하 전시장에 설치된 멀티미디어 전시 시설을 활용해도 좋다고 허락받기도 했다.

국립국악원은 2012년 8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국악박물관 재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을 선보인 적이 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되었던 물품 가운데 해금, 대금, 단소, 거문고, 정악가야금, 양금, 향피리, 세피리, 방울, 용고, 북 등 국악기 11점을 파리 음악박물관의 도움으로 전시를 치른 것이다. 이 같은 전례가 이번 기증 및 공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은 본 기증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부설 악기연구소로부터 악기를 기증하는 문제와 공연내용 확정, 전통음악이 멀티미디어와 함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초반의 진행은 장악과가 많았고, 이후 진행은 연구와 박물관 전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연구실로 사업이 이관됐다.

이번 기증 및 공연에 대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아녜스 베나예 예술감독은 "최근 보여준 한국의 국악 공연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이라고 했고, 에릭 드 비셰 관장은 "내년 국악기 상설 전시를 통해 한국의 음악이 프랑스에 보다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립국악원은 파리 음악박물관 전시와 공연 전인 9월 18-19일 <종묘제례악>을 샤이오국립극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개막공연의 성공이 이번 기증식과 공연에 큰 영향을 주었고, 파리에서의 여러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립국악원 연주단원들의 개별 초청 공연, 음반 발표 등에 대한 계획을 예정할 수 있었다.

이번 기증공연은 악기박물관이라는 특성상 순수기악곡이 주를 이루었기에 한국음악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웠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계문화의 집 교류 사업

제20회 파리상상축제

20E FESTIVAL DE L'IMAGINAIR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전통음악명인들의 산조 & 시나위>¹

2015.10.23-2015.10.24.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최승희 트리뷰트(Hommage à Choi Seung-Hee)>²

2015.11.22-2015.11.29. 케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

<2015 파리 난장 - 김덕수, 김리혜 그리고 사물놀이 한울림>³

2015.12.07-2015.12.20. 태양극장(Théâtre du Soleil)

<씻김, 상여소리>⁴

2016.04.08-2016.04.10.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외

주관기관

한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¹², 사물놀이 한울림⁹,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저스트뮤직(2016)⁴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¹²⁴, 태양극장(Théâtre du Soleil),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아르타(ARTA)⁹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5년과 2016년에 개최된 상상축제에 한국 전통예술 공연이 올라 현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상상축제는 매년 봄마다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축제로,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이 1997년 창설한 이후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행사를 기획공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목을 꾸준히 소개하는 세계문화의 집은 현재 아와드 에스베르(Arwad Esber) 관장이 재직 중이며, 상상축제 예술감독으로 유네스코 전문위원과 루브르 오디토리움 예술자문을 겸임하는 피에르 부아(Pierre Bois)가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세계문화의 집 MOU 체결과 함께 2015-2016년에 두 기관 간 8개의 교류 공연 사업이 진행되었다. 파리 상상축제의 일환으로 2015년에 <최승희 트리뷰트>, <전통음악명인들의 산조&시나위>, <파리난장> 공연과 2016년에 <씻김, 상여소리>, <이명국의 판소리> 공연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명인들이 중심이 되어 <명인들의 시나위>와 <유경희의 철현금 산조> 음반을 레이블 이네디(INEDIT)를 통하여 발매했고, 유지숙은 프랑스 국영방송국 산하 월드뮤직 전문 음반사 오코라(Ocora)에서 국내에서도 조명하기 힘든 북한 전통민요를 새롭게 복원하여 음반을 발매했다. 특히, 국악의 음반 시장이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유럽 메이저급 제작사를 통하여 한국음악이 유통·보급된 것은 이번 상호교류에서 대단히 주목할 일이라 볼 수 있겠다.

<전통음악명인들의 산조&시나위>

2015년 10월 23~24일에는 파리에 위치한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내의 공연장에서 '전통음악 명인들의 산조&시나위' 공연이 있었다. 공연에는 이재화(거문고), 김영길(아쟁), 안성우(대금), 박현숙(가야금), 유경

사물놀이한울림, <2015 파리난장>



<씻김, 상여소리>



화(장구·철현금), 조영제(장구·북) 등 명인들이 함께 하여 산조와 시나위를 선보였다. 모든 연주자들은 세계문화의 집 산하 음반사인 이네디를 통해 산조 음반을 발매한 경력이 있으며, 이재화, 박현숙, 김영길은 프랑스의 유서 깊은 음반상 '아카데미 샤를크로의 월드뮤직상(Musique du Monde)'을 2013년 3월에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김선국 대표(저스트뮤직)가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2014년 2월부터 준비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14년에 2종의 음반을 녹음했고, 2015년 4월에 사진·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6월에 상상축제를 담당하는 세계문화의 집 실무진과 최종점검을 위한 미팅을 가졌고, 8월에 공연 참가자들이 전체 회의를 가졌다.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공연을 통해 프랑스 및 유럽을 향한 한국음악의 홍보에 중요한 계기를 확보했고, 공연 이후 '명인들의 시나위'와 '유경화의 철현금산조' 앨범을 레이블 이네디를 통해서 발매했다.

<2015 파리 난장 - 김덕수, 김리혜 그리고 사물놀이 한울림>

2015년 12월 7~11일에는 김덕수가 이끄는 사물놀이패가 프랑스 태양극단의 태양극장에서 사물놀이 마스터클래스를, 12월 14~18일에 무용가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의 작업실에서 한국무용가 김리혜가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또한 12월 18·20일에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태양극장에서 '파리난장 2015' 공연을 선보였다. '파리난장 2015'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한국 전통예술에 입문한 각국 예술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었고, 공연에선 김덕수의 장고 산조와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이 진행되기 약 한달 전 즈음, 파리 테러가 일어났는데 김덕수는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슬픔과 애도의 뜻을 담은 비나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사물놀이 한울림, <2015 파리 난장>



이번 공연은 김덕수와 프랑스 연출가 아리안느 므뉴스킨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두 예술가는 1996년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서 처음 조우했고, 이후 므뉴스킨이 연출한 태양극단의 <제방의 북소리>의 일부분으로 등장하는 사물놀이 기법을 위해 김덕수가 단원들에게 사물놀이를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이를 인연으로 외국 단원들이 경북 칠곡에서 개최하는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김덕수는 파리에서 '파리난장' 시리즈를 세 차례 진행해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의 최준호 예술감독은 유럽에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김덕수와 사물놀이를 프랑스에 적극 추천했고, 1차 사업으로 공인되어 진행되었다.

<씻김, 상여소리>

2016년 4월 8~10일, 세계문화의집과 알자스의 도미니켄느 극장(Théâtre Dominicaine) <씻김, 상여소리> 공연이 있었다(이후 이 공연은 헝가리 부다페스트국립극장에서 한국공연단으로는 처음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진도 상장례는 진도의 전통 장례의식으로 망자의 원한을 풀고 편안한 저승길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원래 4시간이 넘는 의식이나 90분으로 요약하여 예술적 측면을 부각시켰고, 상여소리와 진도북춤, 남도잡가 등을 아울러 종합적인 예술로서의 진도 상장례 문화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을 위해 박병원(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예능보유자), 김오현(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조교, 진도군립예술단 예술감독), 박미옥(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조교) 등을 비롯하여 20명의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이 함께 참가했다. 상상축제에 참가하기 전에는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3월 25~26일)에서 시연회를 가지며 국내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

사물놀이 한울림, <2015 파리 난장>

<최승희 트리뷰트>



은 1985년 처음으로 유럽에 진도씻김굿을 소개했던 세계문화의 집이 다시 상여소리, 남도잡가, 진도북춤 등 원형성이 더욱더 풍부하고 종합성을 갖춘 진도 상장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번 교류를 위해 세계문화의 집 아와드 에스베르 관장은 2014년 10월 진도를 직접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프로그램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며 진행되었다.

<전통음악명인들의 산조&시나위>와 <최승희 트리뷰트>를 진행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지로부터 "정상급 연주자들의 밀도 높은 공연이었다", "섬세하고 세련된 안무, 1930년대가 아닌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미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성이 강한 무용공연"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씻김, 상여소리>는 프랑스의 국영채널 France3 뉴스에 소개되었고, 유로뉴스(EuroNews)를 통해 유럽전역에 다양한 언어로 알려지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글. 송현민)

<최승희 트리뷰트>

상상축제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22~29일까지 사르조(Sarzeau), 쉘부르(Cherbourg), 파리(Paris) 등 세 군데의 극장에서 4회에 걸쳐 <최승희 트리뷰트> 무용공연이 올랐다.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인 최승희(1911~1969)는 1938년 12월 프랑스에 도착해 이듬해 1월 살 프레이엘(Salle playel)에서 공연했으며, 1938년 6월 파리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다시 한 번 공연 'Farewell'을 선보인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양성옥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최승희의 춤 가운데 '장구춤', '검무', '세 가지 전통리듬' 등을 김정 대표(한누리무용단)를 비롯하여 김영길, 유경화, 나영선 등 3명 악사의 생음악 반주에 맞춰 선보였다. 양성옥은 자신이 안무한 '비나리'를 특별히 포함시켰는데,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로 희생된 영혼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히 프로그램에 넣었다고 한다.

이 공연의 성사에는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 기관이 2013년 MOU를 맺은 것이 교류의 좋은 기반으로 작용하였고, 민간에서의 오랜 인연과 2011년부터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2011년 페스티발 드 일 드 프랑스(Festival d'Île de France) 축제에 양성옥의 '태평무'가 초청받았는데, 300여 개가 넘는 축제 프로그램 중 Top 10 안에 드는 등 열렬한 관심과 호응을 받고 같은 해 12월 앙코르 공연까지 초청을 받았다. 축제 기간 중 아와드 에스베르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관장이 '태평무'를 보고 이번 공연의 기획자였던 김선국 대표에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성옥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2년 아와드 관장이 직접 방한하여 2015년까지 한국과 프랑스 문화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었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사물놀이 한울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레디씨 페스티벌 CORÉE D'ICI FESTIVAL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1.12-2015.11.27. 장 빌라르 극장(Théâtre Jean Vilar) 외

주관기관

한국: 난장컬쳐스

프랑스: 코레디씨 페스티벌(Corée d'Ici Festival) 조직위원회



K-pop 커버댄스

2015년 가을, 프랑스 남부 작은 도시 몽펠리에(Montpellier)의 하늘 아래 상모가 돌아가고 뿔소리(뿔)가 울려 퍼졌다. 이어 고운 빛의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달 향아리를 이고 나오고, 매콤한 김치가 몽펠리에 주민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내 한국문화주간'이 펼쳐진 것이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국은 프랑스인들에게 먼 동양의 나라다. 물론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가 유럽을 흔든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K팝의 열기가 이를 한층 고조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자칫 한국문화는 전통이 부재한 채, 현대 대중문화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파리 같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는 이마저 인식도 없다. 이에 몽펠리에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무용수 남영호와 난장컬쳐스 주재연 대표가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 한국을'이라는 뜻의 축제, 코레디씨 페스티벌(Corée d'Ici Festival)은 그렇게 두 사람의 조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해져 축제가 성사될 수 있었다.

2015년 11월 12-27일까지 3개의 전시, 5편의 콘서트, 4편의 퍼포먼스와 한국전통무용 공연, 영화 상영, 컨퍼런스, 한국문화 체험 등이 몽펠리에 전역에서 펼쳐졌다. 이는 비단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라는 양국 간의 공인된 지원은 프랑스 지방단체와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구하는 데 다분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30여 명의 한국 예술인이 프랑스 현지에서 나갈 수 있는 동력과 더불어 현지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구하는데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번 축제를 주관·주최한 난장컬쳐스의 주재연 대표는 국제 문화교류에 있어, 일회성 대규모 공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생각하는 국제문화교류란 단순히 전시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자국 문

화의 '정신'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전통문화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 공연의 경우 현지 관객들의 감성을 고려해 퓨전버전으로 재창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재연 대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 한다. 특히 유럽 지방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코레디씨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한국 전통문화를 총체적으로 구성된 복합 페스티벌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컨퍼런스와 문화체험 등 부대행사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 한국문화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그 결과는 가히 성공적이었다. 전 공연 티켓 판매율이 90%를 육박했고 대다수 관객이 한국문화를 처음 접했음에도 이질감 없이 우리 문화를 받아들였다. 또한, 우리 공연단의 프랑스 현지 관객을 위한 배려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소한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윤택유 작용을 했다. 2015년 공연 당시, 불행하게도 프랑스 파리에 테러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에 우리 공연단은 준비해간 <태평무> 대신 <살풀이>를, 테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씻김굿>을 진행했다. 이는 현지인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단순히 프랑스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대단히 고무적인 행사였다.

프랑스 남부 작은 도시 몽펠리에, 그곳에서 이리량의 울림은 강렬했다. 몽펠리에 국립 오페라 하우스의 초청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물놀이>와 '몽·아리랑'(몽펠리에 현대 음악팀과 한국 전통음악의 협동공연)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공연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이 아닌, 몽펠리에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 집중현상의 한계를 넘고자 시작된 '코레디씨 페스티벌'이 순항중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난장컬쳐스)



오! 소리(OH! SORI)의 전통음악공연

변강쇠 점 찍고 웡녀 MADAME 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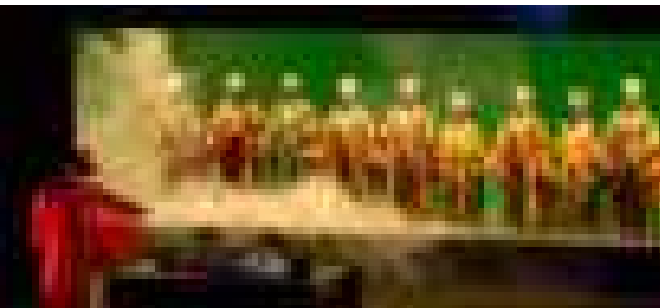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4.14-2016.04.17.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주관기관

한국: 국립창극단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웡녀(Madame Ong)>는 ‘최초’로 프랑스 무대에 진출한 ‘창극’이다. 그동안 판소리는 안숙선, 이자람, 정은혜 등의 소리꾼들을 통해 프랑스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창극이 프랑스에 소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과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2016년 4월 14-17일까지 이루어진 4회 공연 중 첫날은 전석 매진의 기록을 남겼고, 나머지 공연도 80%가 넘는 객석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공연의 현황과 성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극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공연 장르임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근대사와 함께 태동한 창극은 음악적인 면에서는 전통의 ‘판소리’와 맥을 같이 하고, 공연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근대극’의 형태를 차용한다. 즉, 전통의 판소리에 근대극의 형식이 가미된 우리만의 독창적인 공연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아마도 창극만의 정확한 장르적 독립성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완전한 전통극도, 그렇다고 현대극도 아닌, 진퇴양반의 시점에서 <변강쇠 점 찍고 웡녀>는 창극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새롭게 각색해 선보인 본 작품은 창극단 역사상 최초로 미성년자 관람을 제한하는 ‘18금 창극’으로, 또한 창극 역사상 최초로 평균 객석점유율 90%(2014년 국내 초연 당시)의 기염을 토해내며 2014년 국내 공연계의 이슈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중의 호응은 2015년 5월 재공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객석점유율 97%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은 창극이 오랜 시간 좁어지고 있던 ‘근대’의 무게가 비로소 ‘동시대성’으로 재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근대극의 형식을 표방하지만 전통이라는 틀에 매여 진퇴양반에 처해 있던, 독립적이되 독립적이지 못했던 창극이 완연하게 ‘독립된 장르’로 확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치인 것이다.

파리 시립극장의 엠마누엘 드마르시모타(Emmanuel Demarcy-Mota)극장장은 “유서 깊은 프랑스 문학과 극 장르에서도 이렇게 코믹함과 섹슈얼리티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은 드물다. 또한 한국어의 발성이 갖는 고유성, 판소리만의 발성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고자 하는 프랑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며 작품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섹슈얼리티를 한국 특유의 해학으로 풀어 낸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웡녀>는 극작가 겸 연극 연출가 고선웅과 전통음악가 한승선에 의해 재탄생한 작품이다.

고선웅은 특유의 예리함과 재치로 고전을 재해석하는 데 정평이 난 연출가다. 그의 대표작 <칼로막베스(Killbeth)>, <리어외전>은 제목에서부터 그의 번뜩이는 재치가 돋보인다. 각각 셰익스피어의 원작 <맥베스>와 <리어왕>을 각색한 작품들로 <칼로막베스>는 비극<맥베스>를 끊이지 않는 웃음으로 풀어냈고, <리어외전>은 ‘외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원작을 비틀어 해체해 신명나는 ‘오락비극’으로 재탄생시켰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웡녀>에서도 고선웅 특유의 장점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색골남 변강쇠에만 고정되어있던 시선에 ‘점’을 찍고, 박복하지만 당찬 여인 ‘웡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성(性)’을 속악한 것이 아닌, 삶의 원초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킨다. 여기에 소리꾼이자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인 한승석의 음악이 만나 시너지를 냈다. 판소리, 굿 음악, 타악까지 전통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섭렵한 한승석의 작창과 작곡은 작품의 적재적소에 다양한 음악을 배치시킴으로써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웡녀>의 완성도를 높였다.



‘18금 창극’을 표방하지만 결코 선정적이지 않은, 유쾌한 웃음과 해학이 넘쳐나지만 묵직한 주제의식이 살아있는 <변강쇠 점 찍고 웡녀>는 100년 창극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 근대문화의 산물이자 고유한 공연양식인 창극의 가치가 재정립되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1962년 창단한 국립창극단의 창단 목표인 ‘창극의 정형화와 국제화’가 비로소 실현되었다. ‘창극의 국제화’는 단순히 세계 진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독보적인 근대공연 양식이 세계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노고를 간과할 수 없다. 창극 역사상 첫 프랑스 진출을 현대 공연계의 최전선인 파리 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공식초청작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경극이 있듯 이제 우리 창극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악극으로서 자리 잡을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안호상 국립극장장의 소감처럼, 창극의 세계화를 향한 항해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기획과 지원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국립창극단)

2015 파리가을축제 FESTIVAL D’AUTOMNE À PARIS 2015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김금화 <만수대탁구>¹

2015.09.20.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안숙선 <수궁가>²

2015.09.21. 부프 뒤 노르극장(Bouffes du Nord)

<판소리 입문과정>³

2015.09.22-2015.10.16.

<안은미 댄스 3부작>⁴

2015.09.23-2015.09.29.

진은숙 <오늘의 음악, 진은숙>⁵

2015.10.09-2015.11.27. 시테 드 라 뮤지크(Cité de la Musique) 외

주관기관

한국: 서해안 배연신극 및 대동극 보존회¹, 랑크뮤니케이션², 최하늘³, 안은미컴퍼니⁴, 박정규⁵

프랑스: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¹²⁴,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³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는 1972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축제로, 파리 시내에서 4개월간(9~12월) 무용·음악·조형예술·영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험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들의 국제 문화교류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15년에는 축제 속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가 진행되어 김금화(국)와 안은미(무용, 100페이지 참조), 안숙선(판소리), 진은숙(작곡)이 초청 받았다. 최하늘 판소리 입문과정 또한 파리가을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김금화 <만수대탁구>

2015년에 44회를 맞은 파리가을축제(9월 9일~12월 31일)의 일환으로 9월 20일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에 김금화의 만수대탁구가 올랐다. 김금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극과 대동극 보유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만신(萬神)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전통극이 자닌 미학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1차 공식인증사업이었다. 김금화의 극은 이전에도 여러 번 초청받아 프랑스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2002년 파리가을 축제에서 대동극을 선보이며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로부터 “올 가을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될 것”이라는 호평을, <리베라시옹(Liberation)>으로부터 “영혼을 춤추게 하는 김금화 여사”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파리가을축제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인 조세핀 마르코비츠(Joséphine Markovits)가 김금화를 초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2년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당시 한국의 언론과 나눈 인터뷰에서 “작년(2001년) 가을 서울에 갔을 때 세계무용축제(SIDance)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김금화의 사진을 보고 강력한 눈빛에 사로잡혀 출연을 섭외했다. 그녀가 무당이라는 사실에 앞서 한 여자로서 위대한 면모를 엿봤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극은 ‘종교’가 아닌 ‘예술’로 인정받았고, 김금화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2005년 12월 2~3일 파리 국립 해양박물관에서 서해안 풍어제와 배연신극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초청에도 조세핀 마르코비츠가 중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만수대탁구를 선보인 파리시립극장은 19세기 샤틀레 광장에 지어진 극장이다. 그 옆에는 샤틀레 극장(Théâtre du Châtelet)이 위치한다. 두 극장은 성격도 비슷하여 연극·뮤지컬·윌드뮤직·현대무용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뮤지컬은 샤틀레 극장에서, 실험적인 현대무용은 파리시립극장이 주로 선보이고 있다. 덕분에 파리시립극장은 현대무용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발레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통을 쌓아가고 있다. 컨템퍼러리와 아방가르드 예술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무용에 대해 이처럼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양하고, 또한 타국의 예술에도 개방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다. 그래서 연극, 음악, 무용 등이 어우러진 한국의 대표적 인 총체예술로 손꼽히는 곳이 오르는 데 적합했다.



김금화, <만수대탁구>

안숙선, <수궁가>



이번 김금화의 공연은 2015년 파리가을축제를 준비하던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의 참가 권유에 의한 것이다. 2015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2015-1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의미와 규모를 알게 된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이 2014년 본 사업의 1차 공모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은 2015년 2월에 내한하여 김금화와 일정과 장소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해 3월 1차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됐다. 김금화를 포함하여 총 25명이 대규모로 참가했다.

만수대탁구는 집안의 번창과 가족들의 건강, 수명장수 등 산 사람의 길복을 비는 동시에 죽은 사람이 저승에 편히 들기를 기원하고자 치르는 곳이다. 500석을 가득 메운 파리시립극장에서 김금화는 프랑스의 안보, 경제성장, 난민 구조, 청년 취업 및 평화를 기원하는 극을 올렸고, 관객과 함께 하는 극을 진행했다. 8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무대에 섰으며, 만수대탁구의 일부인 ‘장군거리’에서 무당이 작두를 탈 때는 관객들이 놀라기도 했다.

김금화는 인터뷰(<매일경제> 2015년 8월 27일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을 미신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외국 관객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화끈하게 극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날의 공연은 미신과 악습의 하나로 간주되는 곳이 그 편견을 깨고, 파리의 하늘 밑에서 그 미학과 신명남을 마음껏 펼친 날이었다.

안숙선 <수궁가>

안숙선은 2015년 9월 21일, 연극계의 거장 피터 브룩(Peter Brook)이 이끌었던 극장인 부프 뒤 노르(Bouffes du Nord)에서 소리꾼 남상일과 함께 판소리 <수궁가>를 입체창(역할을 나눠 부르는 형식)으로 선보였다.

파리가을축제는 판소리와 인연이 깊다. 2002년 판소리 다섯 마당(춘향가·심청가·홍보가·수궁가·적벽가)을 각각 2회씩 공연을 했고, 이는 판소리 다섯 마당이 2003년 미국 뉴욕 링컨센터(Lincoln Center)와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2003년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페스티벌과 음악시장에서 판소리가 알려지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이가 현재 파리가을축제 감독 조세핀 마르코비츠이다. 2002년 파리가을축제 당시 제작을 맡았던 주재연은 이후에도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자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수궁가>는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속여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육지로 살아 나온다는 내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안숙선(국가무형문화재



김금화, 〈만수대택곳〉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과 남상일(전 국립창극단 단원)이 분창형식으로 진행했고, 북장단은 조용수(국립창극단 단원)이 맡았다.

이 공연이 오른 부프 뒤 노르의 1876년 개관 이래 대중음악과 순수예술을 아우르는 여러 장르를 다루던 극장이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없이 폐관을 거듭했던 곳이다. 그러던 중 1974년 연극연출가 피터 브룩이 인수해 수많은 작품과 명작을 발표했고, 2008년 <가디언(Guardian)>지로부터 “지난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공연장”으로 선정되었다. 2002년 판소리 공연을 계기로, 판소리에 큰 호감을 갖게 된 조세핀 마르코피츠 감독이 판소리의 성격과 잘 맞는다며 직접 선정해주었다. 주재연에 의하면 “파리의 문화예술계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극장이다. 극장 선택이 매우 잘 됐다. 연극 전용극장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판소리가 지닌 성음이 잘 전달됐다. 원래 2층의 객석을 오픈하지 않기로 했는데, 매진되는 바람에 오픈했다”라고 했다.

이번 공연은 2015년 파리가을축제를 준비하던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의 참가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주재연에게 2002년 축제에서 현지의 반응이 좋았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의미를 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한다. 파리가을 축제 축에선 기획단계부터 안숙선을 섭외 1순위로 염두에 두었고, 두 개의 공연을 제안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판소리와 기악이 함께 하는 공연, 두 명의 소리꾼과 고수(북)가 함께 하는 2인극 형태의 공연 두 가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파리가을축제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전자는 취소됐고, 안숙선과 남상일이 함께 한 수궁가만 올랐다.

503석의 공연장은 매진이었고,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거나 “브라보!”를 외쳤다. 안숙선과 남상일, 조용수는 다섯 번이나 무대로 다시 나와야 했고, 이례적으로 앙코르 곡까지 불렀다. 안숙선이 <진도 아리랑>에 맞춰 어깨춤을 추자 프랑스 관객들도 따라 댄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공에는 자막이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는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Hervé

Péjaudier) 부부가 만든 자막은 언어의 국경을 넘어 수궁가의 해학과 풍자를 제대로 전달했다. 덕분에 한국 관객보다 프랑스 관객이 더 먼저, 더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1차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파리가을축제로부터의 초청 요청이 있었고, 안숙선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관의 협조가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재연은 “이번 공연의 성사는 13년 전에 있었던 파리가을축제 판소리 다섯마당 공연의 성공과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조세핀 마르코비츠 감독과 이어온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주재연은 조세핀 감독의 도움에 대해 “프랑스 현지의 네트워크에서 유력인사의 소개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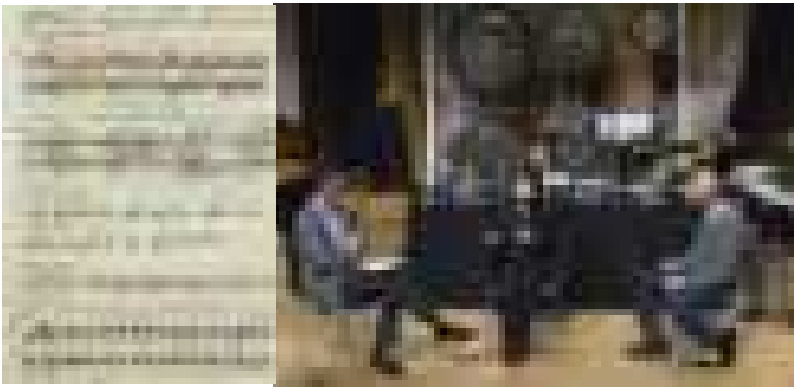
〈오늘의 음악, 진은숙〉

‘오늘의 음악, 진은숙’ 공연은 10월 9일과 10일, 11월 27일 세 차례 열렸다. 작곡가 진은숙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곡의 노벨상 격인 그라메마이어상을 2004년에 수상했고, 2006년부터 지휘자 정명훈의 초청으로 서울시향의 상임 작곡가로 활동하며,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 ‘아르스 노바’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박정규, 신동훈, 박선영, 서지훈 등 젊은 작곡가들에게 폭넓은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공연들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1차 공식인증사업이었다. 이번 공연의 큰 성과는 진은숙의 주요 레퍼토리가 프랑스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고 소개된 것 외에,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 젊은 작곡가들의 곡이 소개되었다는 점에 있다.

10월 9일, 메종 드 라 라디오(Maison de la Radio)에서 크와메 라이언(Kwamé Ryan)의 지휘와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은숙의 첼로 협주곡(협연 이상 앤더스)과 피아노 협주곡(협연 김선욱),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카나’가 연주됐다. 10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오른 공연에서는 진은숙의 피아노 연습곡 1번,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소프라노와 앙상블에 맞게 축소 편곡한 곡이 연주됐다. 이 음악회 역시 김선욱(피아노), 이상 앤더스(첼로), 서예리(소프라노)가 함께 했다. 지휘는 마젠타 디아쿰, 연주는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았다. 그리고 박정규의 생황협주곡이 연주되었다.

11월 27일, 시테 드 라 뮤직 공연에는 진은숙의 타악기 주자와 테이프를 위한 <알레그로 마 논 트로포>, 피아노 연습곡 1·4·5·6번이 올랐다.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연주자들인, 디미트리 바실



〈오늘의 음악, 진은숙〉

라키스(Dimitri Vassilakis, 피아노), 빅토르 한나(Victor Hanna, 타악기)가 연주를 맡았다. 진은숙은 5인의 주자를 위한 <기계적 환상곡>을 1997년 같은 장소에서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의 연주로 선보인 적도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은숙의 피아노·타악기와 앙상블을 위한 이중 협주곡과 실내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래피타> 그리고 신동훈, 박선영의 작품도 함께 올랐다.

파리가을축제는 현대음악계에 권위를 지닌 페스티벌로 매해 상주작곡가를 초청하고 그의 작품을 집중조명한다. 파리가을축제의 예술감독 조세핀 마르코비츠는 몇 년 전부터 진은숙의 작품과 활동을 유심히 살펴왔다. 2012년 즈음에 진은숙은 조세핀 마르코비츠로부터 파리가을축제 참여를 제안 받았다. 참가를 준비하는 동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프랑스의 문화계에서 이슈로 떠올랐고, 조세핀 마르코비츠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의 메인 공연으로 이슈화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진은숙도 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에 조세핀 마르코비츠가 내한하여 4월 20일 세종체임버홀과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선보인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공연을 직접 참관했다. 조세핀 마르코비츠는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한국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파리가을축제 공연에서는 김선욱(피아노)과 이상 앤더스(첼로)도 함께 하기를 제안했다. 진은숙은 서울시향의 마스터클래스를 함께 한 젊은 작곡가들(박정규, 신동훈, 서지훈, 박선영)도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10월 9-10일 연주를 맡은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37년에 창단되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정명훈 지휘자가 이끌었던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 여타 프랑스 오케스트라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악단이다. 11월 27일 시테 드 라 뮤직에서 연주를 맡은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은 1976년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지원을 받아 작곡가 지휘자 피에르 볼레즈(Pierre Boulez)가 창단한 단체이다. 콩피두센터에 위치한 현대음악연구소 이르캉(IRCAM)의 소속 단체로서 20-21세기 음악의 연구와 창작, 공연,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작곡가의 곡이 발표될 때 연주 단체의 역량과 유명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공연을 위해 조세핀 마르코비츠가 섭외와 조율을 적극적으로 도맡아 진행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서해안 배연신궁 및 대동궁 보존회, 최하늘, 박정규)

안은미컴퍼니 댄스 3부작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 파리가을축제 - 안은미 댄스 3부작

〈사심없는 댄스(Dancing Teen Teen)〉,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Dancing Grandmothers)〉,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Dancing Middle-Aged Men)〉¹

2015.09.23-2015.09.29.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Dancing Grandmothers)〉투어²

2015.11.15-2016.03.26. 리옹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외

2016 파리여름축제 〈위 아 코리아, 하니!(We are Korean, Honey!)〉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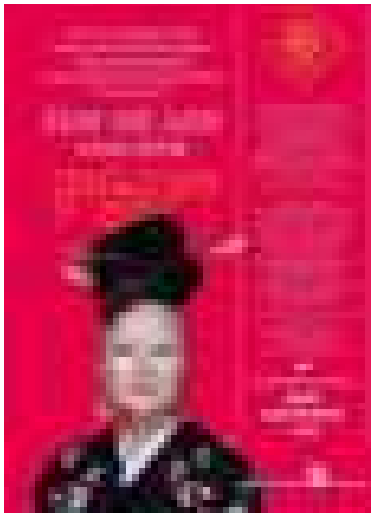
2016.07.20-2016.07.24. 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

주관기관

한국: 안은미컴퍼니¹²³

프랑스: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¹, 리옹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미스터 단테(Mister Dante)², 파리여름축제(Festival Paris Quartier d'Été)³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이자 컨템포러리 예술의 심장부인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de Paris)과 유럽 최고의 권위 있는 무용 전문 극장인 리옹의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de Lyon)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공식 초청받은 '안은미 컴퍼니'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내 20개 극장에서 50여 회 초청 공연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연들은 관습을 깨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안무로 크게 호평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현대무용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연된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성과로 이어졌고, 명실공히 안무가 안은미 개인뿐 아니라 우리 무용계, 나아가 한국 예술계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Dancing Grandmothers)〉, 〈사심 없는 댄스(Dancing Teen Teen)〉,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Dancing Middle-Aged Men)〉로 이어지는 '댄스 3부작'은 파리시립극장과 리옹의 메종 드 라 당스에서의 주요 공연이었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평범한 시골 노인들과 함께 추는 춤으로, 평생 제대로 리듬 한 번 배워본 적 없는 그들의 소박한 몸짓을 무대 위에서 풀어낸다. 10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사심 없는 댄스〉는 미래를 위해 막막한 현재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춤을 통한 해방감과 서로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사회와 가정의 기동으로서 막중한 역할에 눌러 사는 '아저씨'들의 생활을 '춤'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재조명하였다. 이 작품들은 안무가 안은미가 세대별로 한국인의 몸짓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무대화한 작품으로, 춤을 독자적인 예술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로 바라보는 안은미의 시선과 태도를 보여준다.

〈사심없는 댄스(Dancing Teen Teen)〉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Dancing Middle-Aged Men)〉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Dancing Grandmothers)〉



프랑스의 아마추어 예술가 100명과 3달간 워크숍을 진행하며 1분 59초 길이의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린 대규모 프로젝트 〈1분59초〉는 19세기 철골 구조의 건축미를 고스란히 간직한 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무대에서 펼쳐졌다. 또한 현지 관객을 무대에 끌어들이며 함께 춤추며 한국적 몸짓과 흥이 살아나는 생생한 현장을 교감함으로써 무대 전체가 무용가들이 쏟아내는 에너지의 향연일 뿐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함께 만들어간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2015 파리가을축제〉

안은미 컴퍼니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에 초청되어 깊은 파리시립극장을 비롯하여 파리의 여러 공연장 무대에 '댄스 3부작'을 차례로 올리며 프랑스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가장 먼저 시작된 무대는 꾸밈없는 남녀 청소년들이 춤추는 〈사심 없는 댄스〉였다. 이 공연은 객석의 다수를 점유한 노년층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한 현재를 가벼운 불어 대사와 불어 번역이 딸린 한국어 대사로 소화하였다. 무대에서는 전혀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고, 약속되지 않은 자발적 안무와 그들의 분출된 에너지로 기존의 정형화된 무대를 완벽하게 깨버리는 해방감이 연출되었다. 또한 공연이 끝난 후, 이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객석과 통로, 로비 공간, 심지어 극장 앞거리까지 가득 메운 채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1시간 가량 열린 토론을 벌일 정도로 그 반응은 뜨거웠다. 이어서 프랑스의 유력 신문과 잡지가 잇따라 호평을 쏟아내었다. 프랑스 관객들에게 “무용은 낯선 문화의 이방인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법”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2015 파리가을축제에 이어 2016년 1월 15일 ~2016년 3월 26일까지 리옹(Lyon)의 세계적인 무용 극장 메종 드 라 당스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서 안은미 컴퍼니는 또 한 번 자신들의 대표 레퍼토리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를 무대에 올렸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을 대표하는 메종 드 라 당스는 무용 전문 극장으로 상설 무용 프로그램의 기획과 공연은 물론 격년으로 대규모 무용제를 개최함으로써 프랑스 무용계의 중심지이자 유럽 무용계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공연은 2014년 8월, 메종 드 라 당스의 예술감독이 안은미 컴퍼니의 파리 공연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공연을 섭외하면서부터 추진되었다. 무대 위의 예술로써만이 아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용이란 “삶을 바라보는 자세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그녀의 메시지가 담긴 '댄스 시리즈'가 세계 무용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 공연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곡절 속에서 여성의 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표현한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로 세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순간을 선사하며 안은미 공연만의 특별한 에너지를 뽐

어네었다. 또한 이 작품으로 릴(Lille), 생메다르앙잘르(Saint-Medard-en-Jalles), 랭스(Reims), 그르노블(Grenoble), 리옹, 알비(Albi), 몽벨리אר르(Montbéliard), 발랑스(Valence) 프랑스 여러 지역을 투어 함으로써 그동안 파리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한국 춤의 프랑스 진출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한국 춤의 멋과 흥을 더욱 광범위하게 프랑스 관객에게 선보였다.

〈2016 파리여름축제 - 위 아 코리안, 허니!(We are Korean, Honey!)〉

2016년으로 27주년을 맞은 파리여름축제(Festival Paris Quartier d'Été)에서는 <위 아 코리안, 허니!(We are Korean, Honey!)>라는 제목 아래 5일간(2016년 7월 20일~7월 24일까지) 한국문화주간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콘서트, 무용, 퍼포먼스 뿐 아니라 한국식 예술과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종합적인 한국-프랑스 문화교류 프로젝트이다. 안은미 컴퍼니는 7월 20일, 21일 <1분59초>와 7월 22일, 7월 24일에 <렛미 체인지 유어 네임(Let Me Change Your Name)>을 카로 뒤 탕 플 무대에 올리며 한국 현대무용의 생명력과 힘을 보여주었다. 전문 무용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추는 '막춤'으로 호평 받아온 <1분59초> 프로젝트는 2016 파리여름축제에 처음 마련된 한국문화주간에 소개되며 파리 시민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2015년 9월에 100명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10대부터 80대까지, 무직자부터 철학 교수까지 다양한 파리지앵이 순식간에 몰려 신청 2주일 만에 마감됐다. 미리 정해놓은 안무 없이 1분59초 동안 몸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0명의 참가자들은 몇 달간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까지 무대로 뛰어올라 밤늦도록 춤판이 벌어졌다.

'안은미 컴퍼니'는 매회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였고 프랑스 현지 평단과 관객들에게 한국 현대예술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안은미 컴퍼니의 성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축적되어온 한-불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퀀텀 점프(Quantum Jump)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양국 문화예술 교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글. 이의신 / 사진 제공. 고흥균, 이태석)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사심없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콩페티 CONFETTI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18-2015.09.19. 앙드레말로 홀(Salle André-Malraux)

2016.10.14. 장피에르 파브레그 문화원(Centre Culturel Jean-Pierre Fabri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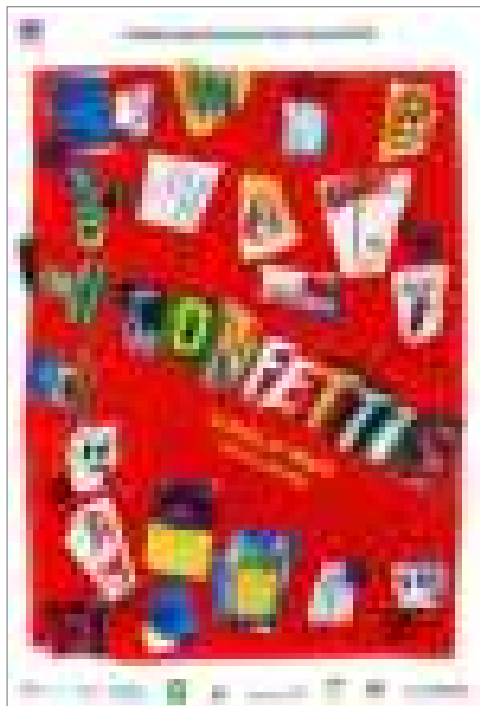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14. 이천아트홀 대공연장

주관기관

한국: (주)코리아나메니지먼트

프랑스: 사르셀(Sarcelles)



<콩페티(Confettis)>의 기획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8월 15일~31일까지 보름간 라 보리 영 리무쟁(La Borie en Limousin)에서는 <한국-프랑스의 아름다운 만남(Rencontres franco-coréennes à La Borie en Limousin)>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프랑스 연주자들의 협연이 소개된 바 있다. 본 행사는 '라 보리 영 리무쟁 재단' 및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서울-파리협회의 공동협력으로 한국과 프랑스 연주자들의 예술적 만남을 통해 판소리, 한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어우러짐을 선보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양국의 음악가들이 워크숍과 공연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음악가 안무가 연출가 등으로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며 아크로노트예술단(Cie Acronote)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정도 참가했는데, 이 행사를 관람한 프랑스 사르셀(Sarcelles)시 문화감독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양국 예술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작품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한불 합작품인 <콩페티>가 기획되었다.

<콩페티> 공연은 프랑스에서 두 차례, 한국에서 한 차례 공연되었다. 프랑스 공연에서는 프랑스 국회의원, 사르셀 시장, 리모주(Limoges)시 관계자, 프랑스 외무부, 라로셀 국립극장(Center Choreographique National de La Rochelle) 극장장 등이, 한국 공연에서는 주한 프랑스 문화공보관, 이천시장 등이 이번 공연에 도움을 주었으며, 주관은 한국의 (주)코리아나메니지먼트가 맡았다.

사르셀시 살 앙드레-말로(Salle André-Malraux)극장에서 2015년 9월 19일 <콩페티>가 초연되었다. 사르셀 시는 파리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랑스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방의 발두아즈(Val-d'Oise) 주에 속한 도시다. 사르셀시와 아크로노트예술단의 공동제작으로 초연된 이 작품은 2015년 9월 13일~15일 프랑스 현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뛰어난 재능과 프랑스 예술가들의 상상력들을 조화시켜 종합예술 형태인 음악, 무용, 가극, 연극 등 장르를 통합한 융·복합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초연 전 진행되었던 워크숍에서 예술감독 김세정이 작업한 한국 아리랑을 주제로 한 k-pop 형식 노래, 프랑스 샹송(Chanson) 형식의 노래들과 춤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알려 준 후 공연 중에 출연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의 전통 가극과 타악기로 구성된 한국 전통 음악인들과 서양악기와 아크로바틱, 마임극이 융합된 프랑스 다원 예술가들이 어우러진 한-불 합작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창조성과 상상력을 배가시키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프랑스 국가 유형문화재 제1회 도자기부분 창작가로 선정된 쉴비 코케(Sylvie Coquet)의 특별 창작품인 도자기로 만든 악기들은 무대 위에서 오브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이 직접 이 도자기를 연주함으로써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선사했다.

한국에서의 초연은 제30회 이천도자기축제 기념공연으로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리모주시는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오토비엔느(Haute-Vienne) 주



의 주도로 1736년부터 시작된 도자기 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도자기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천시와 리모주시가 2015년 5월 6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이번 공연이 기획되었다. 이천시가 주최한 이천도자기축제에서 선보인 <콩페티>는 2016년 5월 14일에 열린 본 공연에 앞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문래예술공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오픈 리허설을 거쳐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에서 진행된 오픈리허설에는 5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였으며, 본 공연인 이천아트홀에서의 공연에서는 100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한국에서 진행된 6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작품은 한층 더 심도 있는 완성도를 보였으며, 도자기로 만든 악기들의 몽환적인 사운드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며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공연의 파날레에서는 공연의 주제에 부합하게 색조가 조각을 뿌리고, 전 출연진들이 프랑스 과자를 관객에게 나누어 주며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올해 10월 프랑스에서 재연된 콩페티는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리모주시에서 남쪽으로 40km 거리에 위치한 생이리외라페르슈(Saint-Yrieix-la-Perche)라는 조그만 도시다. 이날 공연에도 이전 공연에서 출연했던 아크로노트의 대표 김세정, 판소리와 한국 전통악기를 구사하는 박수범과 신유진, 아크로바틱과 클래식 기타를 구사하는 파스칼 네롱(Pascal Nayron), 현대 서커스와 아크로바틱 예술가 마티유 앙타장(Mathieu Antajan) 등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공동 출연했다. 이곳에서의 공연은 원래 2016년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최측의 사정으로 10월 14일 생티리예시 장피에르파브레그(Centre culturel Jean-Pierre-Fabrigue)극장에서 열렸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총 세 차례 진행된 이번 작품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한-불 예술가들의 합작 공연이라는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사업으로서의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양국 예술가들 간의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공연 속에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방통행이 아닌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주)코리아나메니지먼트)

서울문화재단 &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가양성기관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공공공간 예술창작 -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 à Marseille)

2015.10.19-2016.05.06.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Cité des Arts de la Rue Marseill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프랑스의 가을 - 공공공간 예술창작 및 공연예술분야 구조물 제작 기획/전시

2016.10.04-2016.11.0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주관기관

한국: 서울문화재단

프랑스: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가양성기관(FAI-AR, Formation Avancée et Itinérante des Arts de la Rue)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서울문화재단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국과 프랑스에서 '공공공간 예술창작 -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 à Marseille)'과 '공연예술 구조물 기획/제작 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하였다. 2015년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한국의 봄> 페스티벌에 이어, 2016년 서울 광진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프랑스의 가을>을 통해 공공예술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 공간 예술창작 - 한국의 봄'은 프랑스 거리예술 단체 '제네릭바페(Générik Vapeur)'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내 전문교육기관인 '페아르(FAI-AR)' 정규과정 학생, 한국 예술가들을 포함해 모두 30여 명이 참여한 대형 거리예술작품 워크숍이다. 총 2년간의 긴 워크숍 결과물로 탄생한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Lost in Translation)>은 2015년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서 3주간에 걸친 1차 연수 후, 5월 <한국의 봄>을 통해 쇼케이스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2주간의 연수 과정을 거쳐 2016년 11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작품으로 선보였다.

음악, 무용, 연기, 퍼레이드, 영상, 불꽃을 사용한 5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이동형 공연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진행한 대형작품과 공공예술에 관한 공동 리서치를 통해 제작되어 평단에서는 국제협업 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연으로, 일반 관객들에게는 완성도 높은 작품성으로 거리예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공연예술분야 구조물 제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거리극 무대 제작 커리큘럼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중 유일하게 스텝

분야에 관련된 사업이다. 거리예술의 역사가 짧은 국내 창작자들에게 프랑스의 대표적 무대구조물 제작단체 쉬드 사이드(Sud Side)의 강사진과 함께한 본 프로그램은 전문 지식 습득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가와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쉬드 사이드의 강사진의 조력 하에 국내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 제작한 구조물들은 2016년 서울거리예술축제 <프랑스의 가을>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공공공간 예술창작- 한국의 봄'과 '공연예술분야 구조물 제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모두 서울문화재단 산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부진 포부의 서울문화재단은 크게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예술교육, 그리고 시민문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을 통해 공공문화 활성화를 지향한다.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었던 '거리'가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순간,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예술이 재미있고 친근한 활동으로 변화된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부터 예술의 대중화를 선포하며 공연물이 극장에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공공문화사업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대중화를 지원하면서 거리예술을 활성화시켰다. 우리의 경우는 1989년 춘천마임축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를 지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난 2년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비단 국내 예술가들에게 해외 활동의 새로운 발판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시대 예술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에 지난 11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이루어진 <프랑스의 가을> 축제는 거리예술 관련 양국 교류의 성과들을 돌아 볼 수 있는 영상전시와 거리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역사, 현재의 모습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컨테이너형 '거리예술 이동형전시', 그리고 '거리예술 및 서커스 예술가의 삶(가제)'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국립서커스에 술센터(CNAC, 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 대표 제라르 파솔리(Gérard Fasoli), '페아르' 대표 장-세바스티앙 스테일(Jean-Sébastien Steil) 등 한국과 프랑스의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 주요 인사들이 모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양국 상호교류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공연예술분야 구조물 제작 전문가양성 워크숍
거리예술작품 워크숍



서커스전문가양성과정

점핑 업
JUMPING UP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5.10.26-2016.06.04. 국립서커스예술센터(CANC, 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

주관기관

한국: 서울문화재단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ANC, 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

‘서커스전문가양성과정 : 점핑 업(Jumping UP)’은 2015년 10월 26일~11월 13일, 그리고 2016년 5월 7일~6월 4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대략 1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2015년은 2016년 본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서울문화재단이 프랑스 국립서커스 예술센터(CANC, Centre National des Arts Du Cirque)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서커스 이론교육 및 기예 워크숍, 서커스 축제 탐방 및 서커스 유관기관, 서커스 관련 유사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공간조성, 운영방식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와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후엔 곧바로 ‘서커스전문가양성과정’ 참가자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였다. 총 16명 중 최종 합격한 8인은 국내에서 1차 서커스 기초 과정 연수를 마치고, 프랑스 샬롱앙상파뉴(Châlons-en-Champagne) 지역에서 약 한 달간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워크숍 결과물을 관계자 및 관객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긴 여정을 마감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해외연수 과정으로, 국내 서커스 예술교육 분야의 가능성 확인 및 발전방안 모색, 더 나아가 국제교류 파트너 발굴과 협력 방안에 관한 모색을 통해 향후 서커스 관련 프로젝트의 내실화 및 다각화에 대한 기대를 낳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6년도는 전년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전년도와의 큰 차이점은 워크숍의 결과물을 한국과 프랑스 축제에서 발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2015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이 짧은 워크숍 결과 발표를 공유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총



9주간의 창작워크숍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공연으로 제작하여 양국에서 각각 발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진일보를 보인 것이다. 물론 프랑스 퓨리 페스티벌(Furies Festival) 참가는 공연자의 부상으로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워크숍 결과물인, 작품 <깃털병정>이 서울거리예술축제(2회)와 고양호수예술축제(2회)에서 관객을 만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의 선발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의 서류 심사 및 동영상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과 ‘2015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프랑스 해외연수)’ 이수자 중 6명이 참여하였다.

서커스는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한 공연분야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우수한 프랑스의 서커스 공연물을 국내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이 아닌, 국제교류 파트너 발굴과 이를 통한 국내 예술인의 자변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서커스’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들이 국내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향후 국내 공연계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분

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의 평가 역시 단순히 ‘서커스’의 기교 연마를 넘어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인식의 저변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예술영역에 대한 닫힌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창작물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열망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중요하다. 즉, 이번 사업은 향후 우리 공연계의 나아갈 방향을 예술인 스스로 탐지하고 재고할 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중 귀추를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6 : FRENCH FOCU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28-2016.10.02. 서울시청광장 외

주관기관

한국: 서울문화재단

깊어가는 가을, 서울은 '거리 예술'로 가득 찼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를 도심 곳곳에서 선보였다. 폐막일인 10월 2일에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폐막 공연이 전면 취소됐지만 행사 기간 동안 총 75만 3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 세종대로, 덕수궁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은 지난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4화째를 맞이하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새로운 명칭이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서울, 거리, 예술이 모두 살아 있어야 한다"며 "유명무실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숨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유럽 거리극 축제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은 현대 서커스 작품, 해외 공동제작 세계초연 작품, 국내 최고 수준의 공식초청작,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도전을 소개하는 자유참가작 등 9개국 47개 작품이 총 126회의 거리예술 공연을 펼쳤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개·폐막 공연 등 국내의 공식초청작 30편, 자유참가작 17편, 시민·예술가 공연, 시민 1000명이 만드는 폐막프로그램 등이다.

창작그룹 노니, <역 : STATION : 驛>



씨르크 루아주(Cirque Rouage) <소다드, 그리움>

콜렉티브 드 라 바스큐(Collective de la Bascule) <그릴 가능성은 화박하다>
카라보스, <흐르는 불, 일렁이는 밤>



개막작품은 프랑스 극단 카라보스(Carabosse)의 설치형 퍼포먼스 <흐르는 불, 일렁이는 밤(Fire Installation)>이 선정됐다. 도깨비 설화의 진원지인 청계광장에서 광고 약 400m 물 위에 수놓인 1700여 개의 화(火)분이 음악과 어우러져 화려하고 거대한 불꽃정원을 만들었다. 또 사전 신청을 받은 7명의 시민이 '시민예술공작단'으로 참여해 화분을 지키는 배우로 변신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기존 일회성 공연이 아닌 축제기간 내내 밤마다 청계천에 불을 밝혀 몽환적인 풍경을 선사했다.

청계광장에 불을 밝힌 높이 3m의 대형 원구를 시작으로 광릉교까지 약 500m 구간의 청계천에는 물과 불이 어우러지는 환상적 공간이 이어졌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은 <흐르는 불, 일렁이는 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청계천을 찾은 한 시민은 "불빛이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야경을 보고 걷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소다드 그리움(Sodade...)>, <그릴 가능성은 화박하다>, <붉은 원(Red Circle)>, <너와나의 연결고리>, <깃털 병정> 등 프랑스 관련 행사가 마련되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거리예술 관련 양국 교류의 성과들을 돌아 볼 수 있는 영상 전시와 시민들에게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하기 위해 거리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역사, 현재의 모습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컨테이너형 '거리예술 이동형전시'가 설치됐다.

아쉽게도 폐막일인 10월 2일 공연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세종대로 한복판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폐막프로그램 <끝.장.대.로>는 '노는 대로(체험)', '움직이는 대로(퍼레이드)', '그 대로(거리공연)'로 이루어졌다. 또한 폐막작 <길-Passage>은 국내 불꽃연출단체 '예술불꽃 화(花, 火)랑'과 프랑스 거리예술단체 '카르나비르(Cie Karnavires)'의 공동작품이었다. 이는 2016년 12월에 열린 '리옹 빛축제(Fête des Lumières de Lyon)'에도 초청될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으로,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며 불꽃을 따라 떠나는 삶과 죽음의 찬란한 여정을 그릴 예정이었다.

이번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연계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거리예술 및 서커스 분야의 국제 교류의 기반을 견고히 했으며, 해외 활동 기회가 적은 국내 예술가에게 새로운 발판과,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작품들을 만나는 자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8.12-2016.08.20. 오리악 시내(Centre ville d'Aurillac)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28-2016.10.02. 서울 광장 및 도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주관기관

한국: 서울문화재단¹²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Festival des arts dans la rue de Strasbourg),

오리악 에클라협회(Association ECLAT)¹,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가양성기관(FAI-AR ,Formation Avancée

et Itinérante des Arts de la Rue)²



〈유희노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서울문화재단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 예술 거점 도시인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LA CITÉ, La cité des arts de la rue)와 함께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양국의 거리 예술 창작 기지라 할 수 있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쳤다. 양국의 거리 예술 작품을 각국 축제에서 교차로 선보이는 교류 사업으로, 프랑스의 대표적 거리 축제인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Festival des Arts dans la Rue de Strasbourg)’와 ‘오리악 국제거리극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âtre de Rue d'Aurillac)’에 한국의 두 단체가 참가했으며, 한국의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6)’에는 프랑스 거리 예술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참가했다.

먼저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국 거리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산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두 젊은 거리예술단체인 ‘모다트’와 ‘연희컴퍼니 유희’의 거리 예술 작품이 프랑스 관객들을 만났다. 이들이 참가한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는 스트라스부르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2016년 17회를 맞아 다수의 거리 예술가와 시민 자원 활동가가 참여했다. 또한 오리악 국제거리극축제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랑스 대표 거리 예술 축제인데, 에클라협회(Association ECLAT)에서 주관하여 2016년에는 20여 편의 공식 참가작과 400여 편의 비공식 참가작을 선보였다. 모다트는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와 오리악 국제거리극축제 두 곳에 모두 참가해 한국과 인도의 전통 악기 연주 위에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 <감정공간>을 공연했으며, 젊은 전통 연희꾼들이 모인 연희컴퍼니 유희는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에서 ‘연희’라는 장르를 현대적 방식으로 창작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유희노리>를 선보였다.

한국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예술 단체들이 참가했다. 서울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

심 곳곳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2016년이면 14회를 맞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로 개편해 열렸다. 2016년 공식 개막작인 프랑스 극단, 카라보스(Carabosse)의 설치형 퍼포먼스 <흐르는 불, 일렁이는 밤(Fire Installation)>은 청계 광장과 청계천 일원에서 9월 30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집중호우 예보로 전격 취소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거리 예술 단체들의 공동 제작과 협력 프로젝트 등의 협업이 돋보였는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 증 작품으로는 프랑스의 ‘오스모시스 극단(Osmosis Cie)’의 안무가인 알리 살미(Ali Salmi)의 지휘 아래 김연정이 이끄는 한국의 ‘올웨이즈 어웨이크’ 소속 예술가들의 춤으로 <내 땅의 땀으로부터>를 9월 30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서울 광장에서 선보였다. 프랑스 안 퇴뢰 무용단(Compagnie Yann Lheureux)의 안 퇴뢰의 안무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의 무용수들의 거리 무용 공연인 <붉은 원(Red Circle)>이 10월 1일 서울 광장에서 초연되었다. 창작그룹 노니(Creative NONI)의 거리극 <역:STATION:驛>은 한국의 예술가들과 3명의 프랑스 서커스 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으로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10월 1일 한 차례 열렸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 간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는 한국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프랑스의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의 협업으로 프랑스 연출가 뱅상 고메즈(Vincent Gomez)가 연출한 <깃털 병정(Soldats de Plume)>이라는 제목의 서커스가 한국

의 서커스 예술가들에 의해 두 차례 공연되었다. 프랑스의 카르나비르 극단(Cie karnavires)과 국내 극단 예술불꽃화(花,火)랑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며 인류 공통의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해 그려내는 폐막작 <길-Passage>은 집중호우 예보로 전격 취소되었다.

양국의 대표적인 거리 예술 축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거리 예술이 대중과 관객들을 만나고 양국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거리 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향후 창작 단체와 축제 간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참가팀 외에도 창작자, 비평가 등 거리 예술 전문가들이 동행해 축제 탐방 및 해외 거리 예술 관련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2016년 말 ‘페스티벌 데 루미에르(Festival des Lumières)’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진행하는 ‘프랑스의 가을’ 프로그램 등에 초청되었다.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공연은 돌발 변수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축제 마지막 날 계획된 공연들이 우천으로 인해 취소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지 않고 시민들과 출연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 점은 주최 측의 성숙한 진행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붉은 원〉



〈깃털병정〉



화랑-카르나비르 예술공연 협업
길-PASS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6.19-2016.06.30. 비바시테페스티벌 2016 (Festival Viva Cité 2016)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06-2016.05.07.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외

주관기관

한국: 예술불꽃 화랑

프랑스: 카르나비르(KaRNaViReS)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길-PASSAGE>은 국내 유일의 불꽃 전문 공연단체 예술불꽃 화랑과 프랑스 불꽃 극예술 단체인 카르나비르(Cie Karnavires)와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이동식 불꽃 거리극’이다. 말 그대로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장소를 이동해가며, 음악·무용·연극 등의 예술적 요소와 더불어 불꽃이란 소재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융복합 공연이다.

작품의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삶의 여정을 여행하는 <길>은 공연 진행 경로에 총 4군데의 스톱 포지션(Stop position)을 배치해 두고 각각의 포지션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포지션에는 ‘인생의 회로애락이 담긴 사람의 얼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상징하는 상승 구조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x’자형 구조물’, ‘우주적 질서와 세계의 진리를 표현한 원형 구조물’을 각각 배치해 인생의 긴 여정을 통과하며 겪는 삶의 여러 양태를 다양한 구조물들을 통해 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길놀이’, ‘해체(사자)춤’, ‘가면’, ‘탈춤’, ‘마당놀이’ 등 한국 전통 연희놀이와 유럽형 퍼레이드를 결합시켜 거리 예술의 진미를 선보였다.

불꽃 공연은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공연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로, 본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거나 마감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공연처럼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관객을 만나는 기회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갖기 드문 기회다. 이는 역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창작 단체의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이처럼 미개척 분야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와 미메(Mimet)시를 중심으로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불꽃극단체 카르나비르와 국내 유일의 불꽃 공연 단체(예술불꽃 화랑)와의 연대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제의와 연희 양식이 서양의 불꽃 퍼레이드와 융합해 동시대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양식으로 탄생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더불어, 거리극의 역사가 짧은 국내 거리공연단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은 공연의 작품성을 인증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마크다. 세계적인 겨울 축제 중 하나인 프랑스 리옹의 ‘2016 리옹 빛 축제(Festival des Lumières)’에 초연 창작 작품인 <길>이 당당히 선정되는 데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를 배경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제작한 공연단의 노고 역시 빼놓을 수는 없다. 예술불꽃화랑은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해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 단숨에 거리예술계의 최대 화제작으로 주목받으며, 2016년 수원 연극축제, 2016 서

울거리예술축제, 그리고 2016 프랑스 소트빌, 페스티벌 비바 시티(Festival Viva Cité), 2016 리옹 빛 축제(Festival des Lumières) 등 국내외 굵직한 거리예술축제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였고, 국내 거리예술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미개척분야에 대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과감한 지원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내 거리극예술제에 다각도의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새로운 공연 장르 개발의 성공 사례를 남김으로서 거리예술창작단체의 활성화와 저변확대, 그리고 해외 진출에있어 국제 교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겨주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예술불꽃 화랑)

벗어난 원리들 A FORBIDDEN ACT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1.26-2015.12.04. 가론느 극장(Théâtre Garonne) 외

주관기관

한국: 무브먼트 당당

프랑스: 넥스트 페스티벌(Next Festival)

무브먼트 당당의 <벗어난 원리들(A Forbidden Act)>은 릴(Lille)의 넥스트 페스티벌(라 로즈 데 벵(La Rose des Vents), 2015. 11. 26-2015. 11. 28)과 툴루즈(Toulouse)의 가론느 극장(Théâtre Garonne, 2015. 12. 02-2015. 12. 04)에 초청되었다. 무용을 기반으로 연극과 영상을 느슨한 경계로 통합시키고 디아스포라(Diaspora), 노동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작업해온 연출가 김민정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혁명에 몸을 던진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인생>을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공연한다. 팜스(PAMS)에 초청되어 내한한 프랑스문화원 직원이 이 작품을 봤고, 릴의 넥스트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에게 추천하면서 프랑스에서의 공연이 준비되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자리를 10년이 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민정은 “자살은 사회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명제로 바라본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사건까지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죽음이란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죽음 앞에 선 이들을 모아 놓는다면 그것이 많은 부분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한 무대를 만들고 2014년 10월 <벗어난 원리들>을 서울역 RTO에서 초연 한다.

이 작품은 전면에 각 개인의 방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정사각 구조물을 2단으로 설치하고, 자살하기 1시간 전의 시간으로부터 카운트 다운되면서 12개의 방을 보여주

는 ‘설치 퍼포먼스’의 형식을 띤다. 관객은 마치 벌집에 나눠 들어가 있는 애벌레들을 보는 것처럼 방에 수많은 생활 도구와 소품들과 더불어 그들의 행태를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된다.

젊은 프랑스문화원 직원에게 ‘무브먼트 당당’의 작품을 소개받은 넥스트 페스티벌 감독과 가론느 극장 측은 2014년 팜스에서 <벗어난 원리들> 초연을 관람했다. 넥스트 페스티벌 감독은 공연 직후 현장에서 구두로 초청 약속을 했고, 가론느 극장 측은 <인생>과 <벗어난 원리들> 중 어떤 작품을 초청할 것인지를 선택의 문제로 남겨 놓고 돌아갔다.

팜스 참석차 내한한 프랑스문화원 직원이 SPAF를 통해 본 작품을 추천하고, 다음 해에 초청 주체들이 직접 와서 공식 플랫폼에 속하지 않았던 단체의 작품을 확인한 후 작품을 초청한 과정은 다른 경우와 달리 유독 초청 주체측의 열의가 돋보인다. 좀 더 특색있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들의 뚜렷한 의지로 2년 여의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공연으로 이끌어 간 것이다. 게다가 툴루즈와 릴, 두 주체 간의 협조로 2주간의 투어가 연결되어 적지 않은 규모인 21명의 공연단이 2주간 6회의 공연을 갖는 행운을 얻었다.

시각성이 강한 설치 퍼포먼스 형식의 작품 특성 상 축제와 극장 측에서는 각자의 방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현지에서 구하지 말고 모두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기를 원했다고 한다. 때문에 화물운송료를 치르고 가져간 생활 소품들로 무대를 가득 메웠으며, 그 결과 ‘제작한 소도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실제 물건들이 한국적인 분위기 강하게 뵘으며 현실감있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벗어난 원리들>을 보았으며, 진지한 관람은 관객과의 대화로 이어져 열띤 분위기로 토론을 이어갔다고 한다. 안무가 김민정은 “극장과 축제 측의 급하지 않은 안정된 공연 준비과정이 돋보였으며 공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행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치부라 할 수도 있는 자살 현황을 다룬 이 작품은 서로에게 그리 즐거운 공연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여러 나라가 처한 또 다른 현실일 수 있기에 프랑스 관객의 진지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출을 맡은 김민정 역시 “매우 높은 예술적 식견으로 이 작품을 수용하는 축제측과 관객의 수준에 놀랐고 그런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프랑스 공연에서의 경험을 전했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무브먼트 당당)



©Myungjib Kim



©Popcon



©Popcon



쇼 힙합

모닝오브아울 MORNIG OF OWL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1.28-2016.01.31. 쉬렌 장 빌라르 극장(Théâtre de Suresnes Jean Vilar)

2016.02.03-2016.02.06.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주관기관

한국: 모닝오브아울

프랑스: 쉬렌 장 빌라르 극장(Théâtre de Suresnes Jean Vilar),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국악 비보이팀인 모닝오브아울(Morning of Owl)이 프랑스 쉬렌 장 빌라르 극장(Théâtre de Suresnes Jean Vilar)과 리옹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de Lyon)에서 초청 공연을 펼쳤다. 박광석, 김기주, 문승환, 한상곤, 주효성, 안규민, 이정석 등의 무용수가 출연했으며 안무 및 감독은 이승주가 맡았다. 모닝오브아울은 비보잉과 국악, 무용, 무술, 체조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에너지로 유명하다. 2014년 비보이 챔피언십 브레이크 더 플로어(Break The Floor)에서 우승한 데 이어 시사이드 킹즈(SEASIDE KINGZ)에서도 우승했으며,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 열린 유니버설 댄서 월드 파이널(Universal Dancers World Final)에서도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번 프랑스 순회공연에서는 <Harmonize>라는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작품은 ‘도시’, ‘팬텀’, ‘숨’, ‘한 남자의 금지’, ‘먼지로부터’라는 5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표출하는 기존의 비보이 공연에 더해, 정적인 선의 동작들과 클래식 음악의 결합으로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공연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도시’에서는 현대적인 도시의 공간과 반복되는 도시인의 일상을 댄서들의 몸과 춤으로 표현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인 ‘팬텀’에서는 획일화되어가는 사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이의 갈등을 솔로 댄스로 표현하고, 많은 고민 후 얻게 된 자유와 감정의 해방을 댄서들의 파워풀한 에너지로 표출했다. 세 번째 파트인 ‘숨’에서는 비보이 이슈(박광석)가 자신에게 침잠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솔로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이어 ‘한 남자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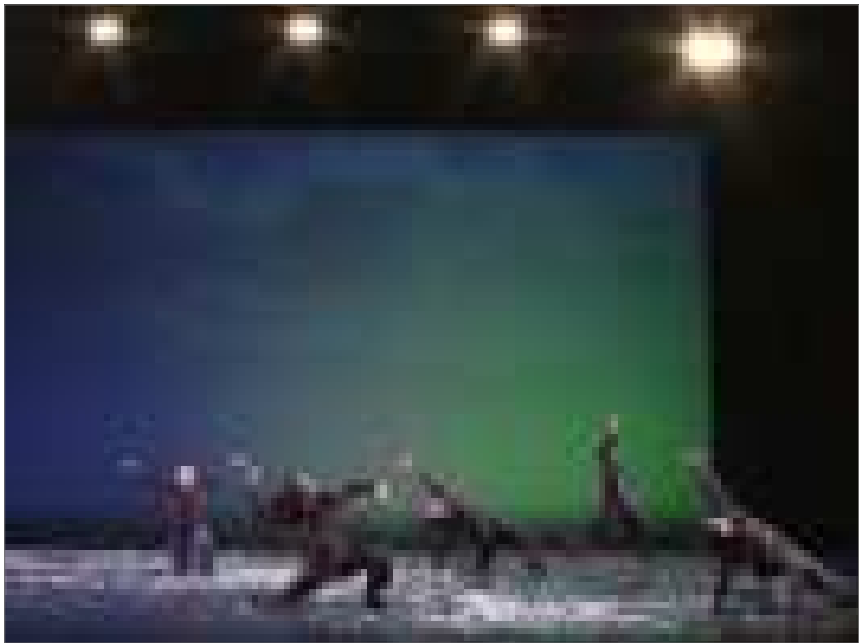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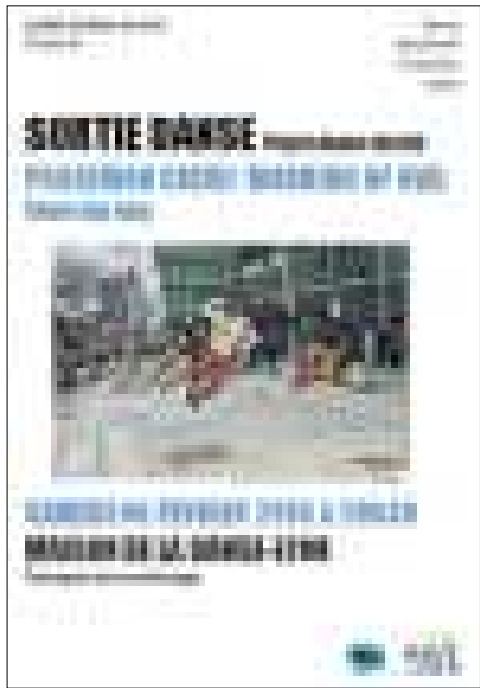
에서는 같은 이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의 조화를 유기적이지만 기계적이지 않은 몸의 움직임으로 그려냈다. 마지막으로 ‘먼지로부터’는 자연으로부터 삶의 기원을 찾아가는 의식을 그렸다. 아주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된 유기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생명체를 이뤄가는 과정을 댄서의 몸과 춤을 통해 펼쳐 보여줬다.

모닝오브아울이 공연한 쉬렌 장 빌라르 극장은 파리 근교 쉬렌의 문화예술 중심지이다. 현재 올리비에 메예(Olivier Meyer)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상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또 메종 드 라 당스는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을 대표하는 무용 전문 극장이다. 이곳은 상설 무용 프로그램의 기획과 공연은 물론이고, 격년으로 대규모 무용제를 개최함으로써 프랑스 무용계의 중심지이자 세계 무용계를 이끄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K팝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K힙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비보잉 그룹 모닝오브아울의 공연이 이들에게 낯설 수 있었지만 공중제비, 제자리 스핀, 파워 무빙 등 고난도의 퍼포

먼스를 완벽하게 선보여 관객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의 비보잉 그룹과는 다른 특이한 복장으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 때문에 K팝에 이어 K힙합의 유럽 진출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다소 이른 기대감마저 고조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웹매거진 <Corée Magazine>을 운영하고 있는 나탈리는 “K팝의 칼 군무와는 비슷한 듯 다르기도 하지만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미국 비보잉, 힙합 그룹과는 달리 몸 놀림이 가볍지만 파워풀한 것이 매우 놀랍다”고 감탄했다. 그는 이어 “K팝의 군무에서 보던 팀 간의 화합이나 조화로운 모습을 비보잉 공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한국의 춤이나 음악의 특징도 바로 이런 것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모닝오브아울)



이은결 <디렉션> HERE IS <DIRECTION>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1.11-2016.01.15. 아베스 극장(Théâtre des Abbesses)

주관기관

한국: (사)페스티벌 봄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한국의 ‘페스티벌 봄’은 매년 봄, 서울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간에서 연극, 무용,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 예술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다원예술축제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페스티벌 봄은 국제적인 거장들과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해 세계 예술계의 흐름과 동향을 한국에 실시간으로 전해준 바 있다. 국제적인 협업과 교류에도 앞장서온 페스티벌 봄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젊고 도전적인 미술가 이은결의 <디렉션(Direction)>을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의 세컨드 극장인 아베스 극장(Théâtre des Abbesses)에 올렸다. 이는 페스티벌 봄과 파리시립극장의 첫 번째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파리시립극장은 세계 현대 용계의 성지로 꼽히며, 전 세계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반드시 오르고 싶어하는 공연장이다. 파리시립극장은 나폴레옹 3세 때 1000석 규모의 시립극장으로 만들어져 연간 4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매년 250만 명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결은 지난 1996년 데뷔한 이래 20년간 정형화된 미술에서 벗어나,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그는 또 각종 세계미술대회를 석권하며 한국 미술계의 총아로 등장했으며, 총 800회 이상의 단독 공연, 누적 관객 8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공연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특히 영상, 소리, 공간 등 독창적인 무대 표현과 예술적 상상력, 기술이 절묘하게 조합된 새로운 퍼포먼스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단순한 ‘미술’이 아닌 ‘일루션(환상)’을 표현하는 국내 최고의 ‘일루셔니스트(Illusionist)’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

다. 2009년에는 작가 정연두의 <시네매지션(CineMagician)>에 퍼포머로 출연해 미술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은결은 이후 서울시립미술관과 대림미술관 등에서 공연하면서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 파리시립극장에서 선보인 <디렉션>은 ‘2014 페스티벌 봄’ 기간 중 대림미술관에서 상연되어 호평받았던 <로베르트 후댕(Robert Houdin)의 디렉션(Illusionary Direction)>을 일부 재구성해 재연했다. 이 작품은 같은 해인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초연되어 새로운 형식의 다원예술 공연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디렉션>은 세계적인 마술사이자 학자인 로베르트 후댕(Robert Houdin)의 ‘마술의 역사’를 강연하고, 이은결이 마술 연구가인 에릭 디미슨(Eric Dimitson)의 통역사이자 퍼포머로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은결이 이 작품의 연출이고 에릭 디미슨은 가상의 인물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페이크 렉처(Fake lecture) 퍼포먼스의 양식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진실과 허구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 마술사 로베르트 후댕의 작품과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이은결의 <디렉션>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 전통적인 마술과 현대적인 기술,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공연과 영상 등이 작품이 건드리고 있는 다양한 지점들이 한국과 프랑스 관객, 나아가 양국의 다원예술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또 마술에서 관객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끄는 트릭을 의미하는 ‘미스디렉션(Misdirection)’이라는 주제

를 다루는 에릭 디미슨의 렉처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술의 역사를 마치 현대미술의 사조를 다루듯이 짚어나갔다. 작품은 의외의 구성과 렉처 형식으로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워 현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마술이라는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와 철학을 담아내는 이은결.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자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한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 부터 마술의 정의를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환상’으로 바꿔놓았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이은결프로젝트)

2016 메이드 인 아시아 : 한국주빈국 MADE IN ASIA 2016 : LA CORÉE À L'HONNEUR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배일동 <심청가>¹

2016.04.05-2016.04.09. 샤펔 데 카르멜리트(Chapelle des Carmélites) 외

노름마치 콘서트 <The K-wind>²

2016.04.07-2016.04.10. 라 포즈 뮤지칼(La Pause Musicale) 외

<경연의 밤(Soirée Battle or Not Battle)>³

2016.04.14. 에스파스 본느포이(Espace Bonnefoy)

주관기관

한국: 배일동 & 김동원¹, (사)노름마치예술단², 사나브로 가슴에³

프랑스: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 페스티벌¹²³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는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페스티벌로,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Toulouse)에서 2008년 시작되었다. 매년 아시아의 한 국가를 주빈국으로 정한 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이 되어 소리꾼 배일동과 타악 연주자 김동원, 전통타악그룹 노름마치, 무용가 이재영과 김설진이 무대를 선보였다.

배일동 & 김동원의 판소리 특강 및 <심청가> 공연

소리꾼 배일동과 타악 연주자 김동원은 4월 5일 툴루즈대학교, 7일 샤펔 데 카르멜리트(Chapelle des Carmélites), 9일 벨페르쉬 수도원(Abbaye de Belleperche)에서 <판소리 심청가> 공연과 강연을 가졌다. 3회의 공연과 강연에서 배일동이 소리를, 김동원이 소리북 반주를 맡았다.

판소리 이수자인 배일동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김동원은 현재 원광대 디지털대학교 전통연희과 교수이자, 첼리스트 요요 마(Yo-Yo MA)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민속음악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실크로드 프로젝트(Silk Road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어에 능숙한 그는 오래전부터 국외에서 활동해온 국악인으로 유명하며 프랑스와의 인연도 깊다. 2003년에 프랑스에 머물며 연출가 아리안느 므누슈킨(Ariane Mnouchkine)과 그녀가 이끄는 ‘태양극단(Théâtre du Soleil)’의 <제방의 북소리>에서 프랑스 단원들에게 한국의 사물놀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프랑스와 인연을 맺은 김동원은 고 박병천(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유자)의 마지막 해외 공연을 기획해 태양극단의 공연장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이 공연을 진행할 당시 재불 번역가 한유미와 맺은 인연이 2016년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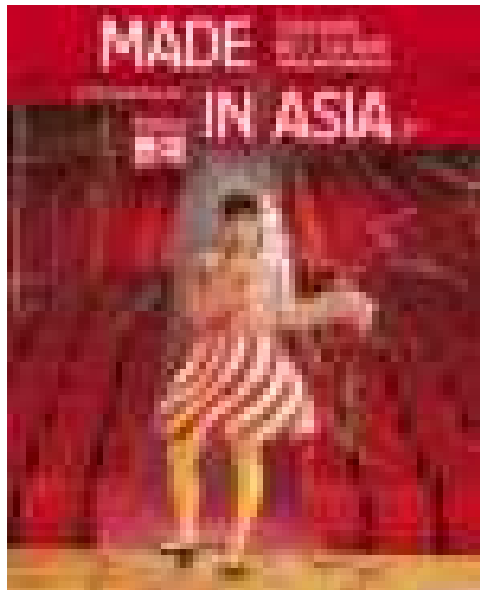
한유미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한국어 강사 및 공연 자막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흔히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결정적인 계기로 2002년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 공연을 꼽는다. 이후 판소리 다섯 바탕은 미국 뉴욕 링컨센터(Lincoln Center)와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에도 초청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파리가을축제 공연 당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번역 및 자막 담당자가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Hervé Péjaudier) 부부였다. 이 프랑스어 자막이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 영국과 미국 공연에도 사용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2015년 9월 21일 파리 부프 뒤 노르(Bouffes du Nord) 극장에 오른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수궁가> 공연, 2016년 4월 14-17일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에 오른 국립극창극단의 <변강쇠 짝꿍고 웡녀>의 자막 역시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맡았다.



노름마치, <K-Wind>

김동원은 한유미가 내한하거나, 프랑스에 갈 때마다 자주 만났다. 김동원과 배일동 그리고 고 김석출(중요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이 출연해 한국의 전통예술을 담은 영화 <앵무 마스터 김(Intangible Asset No. 82)>(2008)이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초대 받는 데도 한유미의 공이 컸다. 이 자막 역시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자원봉사 하듯 도맡았고, 프랑스문화원은 김동원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 영화를 통해 한유미와 프랑스 현지 관객들이 배일동과 판소리를 알게 됐다. 한유미-에르베 페조디에 부부는 2007년부터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2013년부터 파리에서 유러피언 아마추어 판소리 콘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K-Vox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쌓아온 공연 관계자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의 주최 측에 배일동과 김동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했고 덕분에 이번 공연이 성사되었다.

3일 간의 공연과 강연에서 배일동과 김동원은 <심청가> 전바탕을 부르는 완창과 1시간 20분 분량으로 압축한 반창을 선보였다. 김동원은 “판소리의 사실은 직역이 아니라,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의역이어야 한다. 소리만큼 현지인들을 위한 자막이 중요하다. 이번 공연을 본 현지인들이 번역된 자막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했다. 글을 읽는 맛과 판소리에 내재된 감정 표현이 다 전달되어, 프랑스인들이 판소리를 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 이번 공연에 있어 ‘자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유미는 배일동과 김동원의 이번 공연에 직접 참가해, 영상에 투사되는 자막을 직접 넘겨주기도 했다.



노름마치 콘서트 <The K-wind>

노름마치는 4월 7일 라 포즈 뮤지칼 살 뒤 세네샬(La Pause Musicale Salle du Sénéchal), 9일 툴루즈 시청(Mairie de Toulouse), 10일 아베이 드 벨페르슈(Abbaye de Belleperche)에서 공연을 가졌다. 1993년에 창단된 노름마치는 한국 전통타악에 기반을 둔 그룹이다. 창단 멤버이자 예술감독인 김주홍을 중심으로 이호원, 오현주, 김용준, 김태호 등이 활동하고 있다.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 장단에 기반을 둔 이들은 <높새바람>, <소낙바>, <K-트랩> 등의 자체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개국 170여 개 도시를 투어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만난 음악가들과 협업하는 SSBD(Same Same But Different)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디디에 키문 감독의 초청 덕분이었다. 노름마치는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에서 디디에 키문 감독과 처음 만났다. 그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이종수 원장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를 토대로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한국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다. 특히 그는 한국 무용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2014년 음악마켓인 위멕스(WOMEX)에서 공식 쇼케이스를 갖기도 했던 노름마치를 눈여겨보았던 키문 감독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한국 포커스' 주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름마치 초청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 노름마치의 해외 페스티벌과 공연 참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던 예술경영지원센터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관련해 다양한 행사가 있음을 예고해주었고, 이 사업에 공모를 권유했다. 이후 키문 감독으로부터 다시 한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지원 권유를 받아 노름마치의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 참가가 성사될 수 있었다.

노름마치는 프랑스 전문공연장에서 2회의 공연을 가지며 한국 전통 타악기의 매력을 현지 관객에게 선사했다. 특히 3만 명의 관객이 함께 한 툴루즈 카니발(Carnaval de Toulouse) 행진은 노름마치의 신명나는 공연을 통해 축제에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며, 이를 이번 프랑스 투어의 큰 성과로 꼽았다.

<경연의 밤(Soirée Battle or Not Battle)>

14일에는 무용가 이재영과 김설진이 에스파스 본느포이(Espace Bonnefoy) 극장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들의 참가를 중간에서 도운 이는 시댄스(Sidance)에 재직 중인 곽아람 팀장이다. 곽아람 팀장은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아트마켓에서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의 디디에 키문 감독과 처음 조우했다. 키문 감독은 서울아트마켓 쇼케이스인 '팸스초이스'에 소개된 이재영 안무의 <휴식>을 접했다. 2014년 시댄스의 <합합의 진화>에 참가했던 이재영은 시댄스에 방문했던 프랑스 관계자로부터 리옹 공연의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초청이 취소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안 키문 감독이 2016년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초청했다. 이재영 초청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싶었던 키문 감독은 벨기에 무용단 피핑톰(Peeping Tom)에서 활동해 유럽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김설진을 함께 초청했다.

이재영은 힙합과 현대무용을 접목시킨 작품 <이퀄리브리엄(i)Equilibrium>을, 김설진은 <소나타(Sonata)>를 선보였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이재영, 김설진처럼 과거 힙합 댄서였다가 현대무용 안무가로 활동 중인 타이브 베나마라(Tayeb Benamara)와의 안무 배틀 프로그램 <Battle or not Battle>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세 무용가들이 모여 이른바 칸템퍼러리 힙합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 것이다. 두 무용가의 참가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사업 3차 공모에 지원해 결정되었다. 이들의 참가를 도운 곽아람 팀장은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에 대해 "알찬 축제였다"며, "한국의 무용수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싶은 축제이다. 참가 예술가에 대한 감독의 배려가 느껴졌다"고 호평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배일동&김동원, (사)노름마치예술단, 시나브로 가슴에)



노름마치



노름마치 © Jacob Crawford

2K, 김치-까망베르

2K, KIMCHI-KAMEMBERT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4.29. 코르니옹 시립극장(Théâtre Municipal Cornillon)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20-2016.05.22. 아르크예술극장 외

주관기관

한국: 호모루덴스컴퍼니

프랑스: 극단 라 볼가(La Volga)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대표하는 두 중견 마임이스트가 만났다. 한국의 남궁호와 프랑스의 로랑 클레레(Laurent Claret), 이들의 관계는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교류만큼이나 흥미롭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마르셀 마르소 국제마임학교 (École Internationale de Mimodrame de Paris Marcel Marceau) 동기동창생으로, 청년 시절부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예술적 동지다. 특히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들은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비언어적 신체극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작업은 신체극이되, 전통적인 팬터마임 기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적 팬터마임에서 신체는 언어를 대신하는 표현수단이다. 남궁호와 로랑 클레레에게 신체 표현은 언어를 대신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인식의 차원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인간 심연을 향한 소통의 도구다.

3년의 학업 과정이 끝나고 남궁호가 프랑스에서 국내로 귀국함에 따라, 이들의 협업 작업도 막을 내리는 듯싶었다. 그러나 예술적 동지의 조우는 쉬 끝나지 않았다. 2009년, 남궁호가 이끄는 ‘호모루덴스 마임 컴퍼니(Homo Ludens Mime Company)’와 로랑 클레레가 대표로 있는 라 볼가(La Volga)팀은 작품 <블릭(BLIK)>을 통해 그들의 견제함을 보여줬다. <블릭>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별 작업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두 팀이 만나 만들어 낸 공식적인 첫 공동 창작품이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두 동지의 작품인 만큼 한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등 전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작품성 역시 인정받았다. 이에, 같은 해인 2009년,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Mimos Festival) 공식 초청과 2010년 서울 연극올림픽 공모선정작 등으로 <블릭>은 다시 한 번 공연 성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호모루덴스 마임 컴퍼니와 라 볼가의 두 번째 협업작품 <2K>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및 2016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작으로 양국의 무대에 올랐다.

작품제목 <2K>는 다양한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는 그들의 작품 세계를 대변한다. <2K>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K와 이탈리아 극작가 티노 부차티(Dino Buzzati)의 소설에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피조물 K에서 영감을 받은 제목이다. 또한 김치(Kimchi)와 치즈(Kamembert)로 각각 대변되는 한국과 프랑스, 이 양국 예술가의 합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명의 K, 이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마치 남궁호와 로랑 클레레처럼 말이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과 시스템에 의해 관습화된 행동을 반복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왜’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순간, 자각의 질문은 설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두 퍼포머(Performer)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14개의 독립된 혹은 연관된 장면들을 말없이 신체적 움직임만으로 표현해낸다. 상상력 넘치는 14개의 장면을 마주하는



관객은 두 퍼포머에게 그리고 관객 자신에게 삶에서 잃어버렸던 질문을 던진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왜’ 멈추지 못하는가, ‘왜’ 다른 길을 돌아보지 않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었는가. 무대 위 두 명의 K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일그러진 자화상인 것이다.

프랑스 제르자(Gerzat) 지역의 코르니옹시립극장(Théâtre municipal Cornillon)(2016, 4월)과 한국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2016, 5월)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2K>는 협업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에 ‘과연 무엇이 협업인지’에 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해주는 작품이다. 남궁호와 로랑 클레레가 구현하는 신체극, 그것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엮여 하나의 공통된 몸짓으로 재탄생한 작품은 객석에 ‘소리 없는 파장’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이는 일회성 교류가 아닌, 두 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작품 <2K>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에 선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 교류란 다름을 수용하고 차이 속에서 융합의 재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호모루덴스컴퍼니)



낭트 한국의 봄 PRINTEMPS CORÉEN NANT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 한국의 봄 축제¹⁾

2016.06.01-2016.06.05. 한국 빌리지(Village Coréen)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실크로드 몽타주 -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콘서트²⁾

2016.09.30-2016.10.08. 현대카드언더스테이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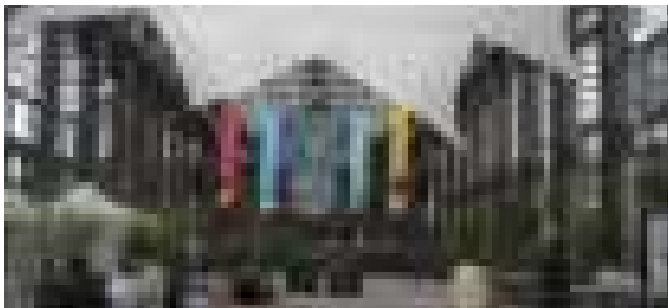
주관기관

한국: 노리단¹²⁾

프랑스: 낭트(Nante), 레 마신 드 릴(Les Machines de l'île), 스테레오룩스(Stereolux),

그라슬린오페라극장(Grasline Opéra Théâtre), 엘라펀트클럽(Elephant Club)¹⁾,

한국의 봄 협회(Association Printemps Coréen)²⁾



2013년부터 매년 프랑스 낭트(Nante)와 낭트 메트로폴(métropole)을 거점으로 개최되는 <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 Nantes 이하, '낭트 한국의 봄')>은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시작된 축제다. 사회적기업 노리단과 낭트 한국의 봄 협회(Association Printemps Coréen), 그리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본 페스티벌은 '한복 포토 스튜디오', '한국 빌리지', '한글 아틀리에', '한국영화제', '실크로드 몽타주'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교두보가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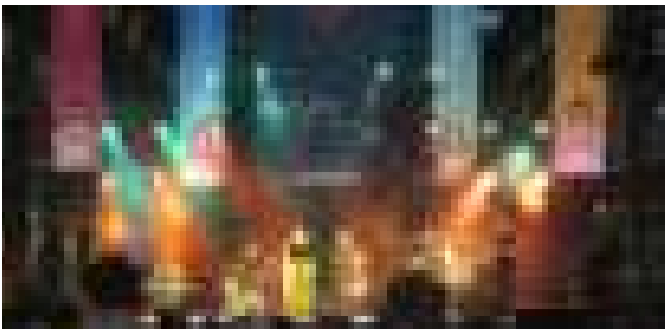
이 중 '실크로드 몽타주'는 지난 3년간 축제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고 성장해 온 양국 음악가들의 컬레버레이션 프로젝트다. 낭코 그룹(GROUPE de NANT/CO')의 공연을 선두로, '진쇠 & 라 시르쿨레르(JINSOE & LA CIRCULAIRE)', '문고고(MOON GOGO)' 등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 2016년 제4회 '실크로드 몽타주'는 당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낭트 한국의 봄> 페스티벌의 성격을 재확인시켰다.

우선, '낭코 그룹'은 <낭트 한국의 봄> 페스티벌 출범과 함께 시작된 그룹이다. 한국 전통 판소리꾼 조주선과 낭트에 거주하며 프랑스 및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 낭트 메트로폴 거점의 프랑스 재즈 연주자들 다니엘 지본(Daniel Givone/기타), 장마리 니베뉴(Jean-Marie Nivaigne/퍼커션), 프레데릭 시폴로(Frédéric Chiffolleau/콘트라베이스), 피에르이브 메렐(Pierre-Yves Merel/색소폰), 그리고 작곡가 서순정이 함께 하는 그룹으로 우리 소리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대 관객들과 호응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현대화 작업을 시도했다. 문화의 다양성을 새로운 음악의 모티브로 삼는 '낭코 그룹'의 음악 세계는 사랑스러운 연인 같다가 돌연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띠는가 하면, 가을날의 우수에서 활기찬 여름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묘한 매력을 지닌 팀이다.

'진쇠 & 라 서쿨레르'는 '낭코 그룹'에 이어 <낭트 한국의 봄> 에서 만든 두 번째 음악 협업 프로젝트팀이다. 김복만(팽과리), 길가옥(징), 김경수(장구), 이윤규(북) 등 최고의 기량을 갖춘 사물놀이꾼들로 구성된 '진쇠'와 프랑스 브르타뉴(Bretagne) 지역 전통 음악가 그룹, '라 서쿨레르'의 만남은 양국의 전통 음악을 베이스로 독창적이고 강렬한 화음과 리듬을 만들어냈다. 2015년 5월 누보 파비옹 극장(Nouveau Pavillon)에서 첫

선을 보인 '진쇠 & 라 서쿨레르'팀은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브르타뉴 지방 전통 음색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공연에는 보컬리스트 실뱅 지로(Sylvain Girault)가 합류하여 더욱 성숙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국, 내외 관객들을 만났다.

'실크로드 몽타주'는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페데리코 펠레그리니(Federico Pellegrini)와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가 만나 이루어진 듀오 문고고를 초청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5년 9월 프랑스에서 첫 앨범 발매 이후 낭트의 국제컨벤션센터 '시테 데 콩그레'(Cité des Congrès), '레 네프'(Les Nefs), 파리의 도로시 갤러리(Dorothys Gallery) 등 프랑스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트랜스뮤지칼(Trans Musicales)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저력 있는 듀오다. 여기에 사운드 디렉터 올리비에 메나르(Olivier Menard)와 라이팅 디렉터 크리스토프 올리비에(Christophe Olivier)가 가세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손색없는 모습을 보였다.



<낭트 한국의 봄> 축제는 앞서 이야기 했듯 프랑스 7대 도시인 낭트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축제를 통해 양성된 '실크로드 몽타주'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초청작으로 4년 만에 처음 국내 관객을 만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9월 30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시작으로, 순천만국가정원(10월 1일), 전주세계소리축제(10월 3일), 홍대 스트레인지프룻(10월 5일), 서울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10월 6일), 광명시 광명동굴(10월 8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10월 8일), 그리고 깜짝 공연까지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양국 음악가가 만들어낸 앙상블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낭트 한국의 봄> 축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국제 문화 교류의 양성과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의미한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노리단)



국립극장-사이오국립극장 공동제작

시간의 나이

SIGANÈ NAÏ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6.16-2016.06.24.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3.23-2016.03.27.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주관기관

한국: 국립무용단

프랑스: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조세 몽탈보(José Montalvo)와 국립무용단의 <시간의 나이(Siganè naï)>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공연으로 선보였다. 프랑스의 안무가와 한국의 국립무용단의 예술적 협력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안무가 몽탈보의 명성까지 한 몫 하여 양국 문화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이 공연이 한국(3월)과 프랑스(6월)의 관객에게 보여 진다는 것은 이 작품이 어떻게 양국의 문화를 자극할지 기대하게 만들었다.

2014년 여름 안호상 국립극장장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사이오국립극장장 디디에 데샹(Didier Deschamps)를 만나 국립무용단과의 공동작품 제작을 타진했다. 이후 디디에가 이 극장의 상주안무가인 조세 몽탈보에게 작업을 강하게 권유했고, 2014년 11월 몽탈보와 조안무 조엘르 이프리그(Joëlle Iffrig)가 입국하여 1주일 체류하면서 국립무용단의 여러 가지 작품과 연습장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도시문화를 둘러 본 후 흥미를 느끼고 작업을 결정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8주간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 3월에 한국초연(5회)과 6월 샤요극장에서 한국특집주간(2주 동안 7회)의 공연이 확정되었다.

조세 몽탈보는 16년째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의 상임안무가로 파리시민의 사랑을 받는 안무가이다. 그는 애니메이션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을 무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영상의 무용수와 무대의 무용수가 함께 춤추도록 하는 등 재치있는 연출을 통해 현대무용의 무거움을 벗어나 관객에게 쉽고 경쾌한 감각으로 다가가는 것을 즐긴다. 장면이나 동물(특히 새)과 아이가 자주 등장하는 그의 영상은 관객에게 환상과 순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여 동심을 기억하게 한다. <시간의 나이> 작업에서도 영상이 한국의 현재 풍경을 보여주었고, 역시 동물들

이 등장했으며, 무용수들의 많은 움직임 담아내어 무대 위의 춤과 호흡을 맞췄다. 초화연 PD에 의하면 “이를 위해 프랑스 영상팀이 한국에 들어와 풍경과 무용수들을 촬영하고 돌아가 긴 완성기간을 가졌고 연습과정에서는 영상과 춤을 맞추기 위해서 무려 13차의 무대리허설을 가졌다”고 한다.

<시간의 나이>는 시간의 나이, 여행의 추억, 볼레로 3장으로 구성되어 2016년 3월 초연에서 한국의 관객을 먼저 만났다. 항상 무겁게 숙제처럼 다가왔던 전통춤과 그 현대화가 이 공연에서는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한국의 지금을 표현하기 위해 펼쳐졌고, 세계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는 것처럼 적절한 주제의식과 적절한 춤의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2장에서는 세계가 봉착한 기아, 난민 등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곳에서 추출된 표현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3장에서 한국인과 한국춤의 열정이 동시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미래의 모습으로 ‘볼레로’ 음악에 맞춰 점진적으로 폭발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비록 한국 초연의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프랑스의 감각으로 우리의 전통춤을 다루고, 그것을 동시대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경쾌함과 함께 낯설음으로 한국의 관객을 자극했다. 그 낯설음은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대한 것일 것이다. 우리의 감각과는 다른 문화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 느껴야 하는 ‘다름’과 ‘낯설음’은 당연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같은 작품을 사이오국립극장에서의 공연을 위해 6월초 몽탈보가 한번 더 한국에 입국하여 큰 변화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국립무용단원들은 1주

연습과 2주 공연을 위해 3주간 파리에 체류하였는데, 사전의 우려와는 달리 몽탈보가 상주안무가로 있는 극장이기에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연습을 일정을 잡고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파리에서의 공연은 큰 구조에서 변화는 없었으나 다른 감흥을 줄 정도로 디테일과 장면의 마무리 등이 잘 조절되어 있었다. 무용수들 역시 정돈된 장면과 분위기 설정으로 보다 안정감 있고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혔다.

파리의 관객에게 낯설기 만한 한국의 전통춤 역시 몽탈보의 손을 거치니 낯선 복식과 전통 북, 그리고 춤동작이 양산과 비커니, 펠리칸과 펡곤, 콩나물 시루와 같은 수영장의 파도타기와 섞여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것으로 탄생하였다. 프랑스 주간지 텔레라마(Télérama)의 엠마뉘엘 부셰(Emmanuelle Bouchez)는 “어쨌든 ‘만남’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무용수 한 명이 무용수들 사이에서 나와 독무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열린다. 매력적인 미지의 세계다”면서 한국 춤의 매력에 흥미를 표하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난 파리의 관객 역시 열광하였다. 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 역시 쓰레기 더미를 헤매는 작은 소녀를 위해 통곡하고 울어주는 휴머니즘의 감성과 결합하여 ‘동감’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찾았고 그것은 ‘박애’를 중요시 하는 프랑스인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졌다. <시간의 나이>의 탁월한 장면이었다. 이 의미 있는 작업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호기심을 한껏 높였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가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국립무용단)



샤이오국립극장 : 코리아 포커스 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 FOCUS CORÉ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국제무용협회 <모던필링(Modern Feeling)>, <오운메가헤르츠(Own MHz)>¹

2016.06.08-2016.06.10.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²

2016.06.09-2016.06.11.

국제무용협회 <혼합(Immixture)>³

2016.06.15-2016.06.17.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⁴

2016.06.16-2016.06.24.

국제무용협회 <한국 아티스트의 날(Journée avec des artistes coréens)>⁵

2016.06.18.

주관기관

한국: 국제무용협회^{1,3,5}, 국립현대무용단², 국립무용단⁴

프랑스: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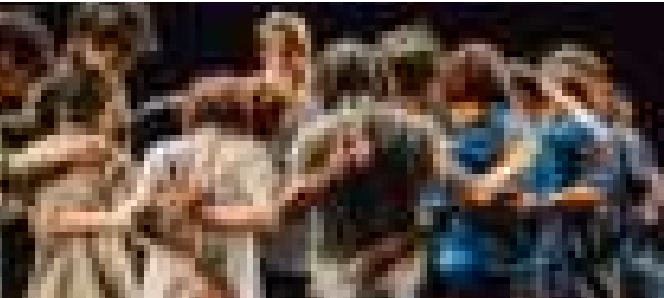
6월 8일부터 18일까지 <포커스 코레(Focus Corée)> 공연이 있었던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의 로비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30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연이 겹치지 않도록 고려했음에도 미리 와서 줄을 서며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모습으로 로비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1948년 세계인 권선언의 정신을 담아낸 ‘국민극장(People’s National Théâtre)’으로서, 2007년부터는 무용 중심극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샤이오국립극장에서 한국춤이 공연된 것은 1939년 최승희 이후 77년만의 일이다. 샤이오국립극장 상임안무가 조세 몽탈보(José Montalvo)와 국립무용단이 공동 제작한 <시간의 나이> 자세한 내용은 130페이지 참조를 비롯, 3주간 국립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등과 민간 무용단을 합쳐 5개의 작품과 한국춤 워크숍, 포럼까지 마련해 그야말로 한국춤 주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온 샤이오국립극장의 프로그래머인 아르모(Jarmo Penttilä)는 이번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국립과 민간, 3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안무가, 1시간 이상의 대극장 대작부터 20분 정도의 섬세한 소극장 작품까지, 또 한국 전통을 현대화 한 작품과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현대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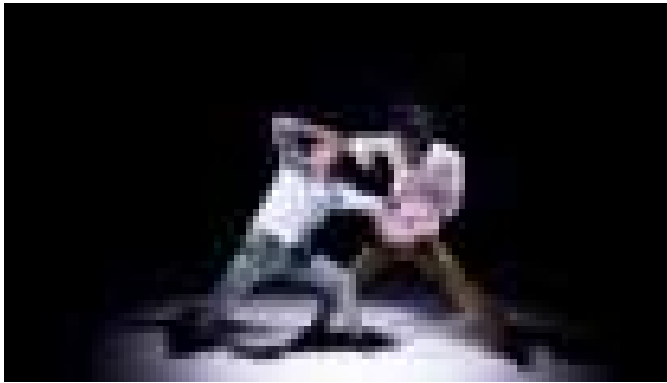
아르모는 <포커스 코레>의 작품을 고르기 위해 2013년 서울아트마켓(팜스,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때부터 내한하여 한국의 작품을 눈여겨 보았으며 2014년에 두 차례 방한하여 구체적인 작품선정을 시작하였다. 첫 방문 때 이인수의 <모던 필링(Modern Feeling)>이 흔쾌히 결정되었고, 안성수의 신작과 더불어 국립현대무용단의 <불쌍>과 <이미아직(Already Not Yet)>을 물망에 올리고 돌아갔다. 그 후 2014년 말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판선의 <오운 메가헤르츠(Own MHz)>와 국립현대무용단의 <이미아직>, 새로 제작될 안성수의 <혼합(Immixture)>를 포함, 4 작품이 확정되었다.

프로그램의 외형이 드러나게 된 것이 약 2년 전부터인 것을 보면 서울-파리 간의 거리와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연들이 매우 높은 완성도와 안정감으로 몰입력을 높힐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충분하고 신중한 준비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 © Laurent Philippe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 © Laurent Philippe



이인수, 〈모던 필링〉© 황승택, 르부아스튜디오

이인수의 〈모던 필링〉과 김판선의 〈오운 메가헤르츠〉가 사이오국립극장 모리스 베자르(Maurice Bejart) 홀에서 '포커스 코레'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3일간 지속된 공연은 100석 정도의 극장을 현자인으로 가득 채웠다.

2008년 창작된 이래 수많은 해외초청공연(약 150회)을 한 〈모던 필링〉은 제일 먼저 선택된 작품이다. 아르모는 “인간 사이의 내밀한 교류에 강한 휴머니즘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테러와 홍수에 지친 파리지만 그럴수록 더욱 사이오국립극장에서는 그 모든 걸 위로할 인간적인 이야기가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에 이 작품이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인무로 아주 예민한 느낌의 주고받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이 작품을 위해 이강현과 많은 연습으로 공을 들인 이인수는 칼로 공기를 가르는 듯한 동작의 타이밍과 조화를 통해 원작과 절반 다르지 않은 작품의 맛을 무대에 올리는 것에 성공했다.

김판선의 〈Own MHz〉는 LDP 정기공연에서 선보인 〈12MHz〉의 솔로 버전으로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독을 주제로 현실의 공간을 이그러 뜨리거나 변형시킨 흰색 톤의 영상과 김판선의 노련한 동작으로 테라민(Theremin)이라는 진공관 악기와 공간속에서의 대화를 통해 독특한 음향과 분위기를 만들어 낸 작품이었다. 중앙 천정에서 내려온 테라민은 김판선의 몸이 거리와 강도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파열음(극장 입장시 관객에게 귀마개를 나눠주었다)에서부터 무르익을수록 묘한 아름다움의 소리가 마치 대화할 수 없는 것과 성사되지 못했던 대화가 점차 살아나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음향적으로는 고래가 우는 듯한 음파성 소리가 외로움을 더욱 증폭된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데 성공하였다. 〈포커스 코레〉에 김판선이 초대된 것은 현재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엠마뉴엘 가트(Emanuel Gat) 무용단의 무용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로서는 자부심을, 프랑스인들에게는 한국 무용가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로 좋은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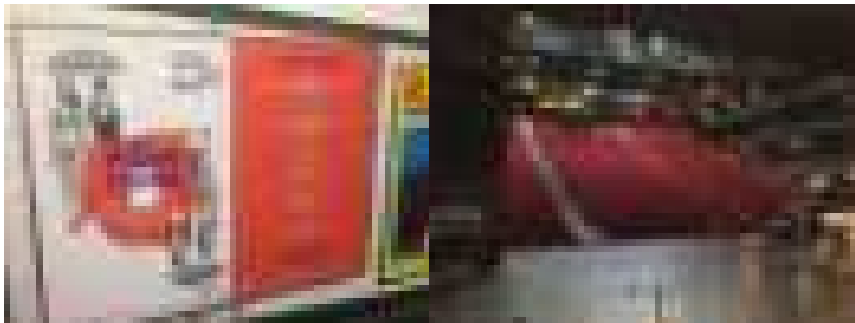
안성수의 〈Immixture〉은 사이오에서 초연되는 작품으로, 4명의 여자 무용수(이주희, 김지연, 김현, 김민지)와 1명의 남자 무용수(장경민)를 출연시켜 전통춤과 힙합춤

의 이질성을 대조시키거나 그것을 점차로 혼합시키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첫 장면에서 조명으로 만든 스퀘어 공간 안에서 춘앵무가 원형에 가깝게 일부가 재연된다. 안성수가 과거까지 한국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형적인 움직임의 가져와 거기서 현대적인 감성으로 걸러서 현대화된 동작으로 뽑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혼합〉에서 하려는 실험은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다가가 만나는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춘앵무와 칼춤(신무용)은 그가 과거로부터 불러낸 춤들이고, 자신 스타일의 움직임과 힙합춤이 현재에서 가져간 춤들이다. 헤드폰을 쓴 장경민은 혼자 흥얼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관객의 귀에 지배적으로 들리는 것은 산조와 장고의 타악음과 들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한국춤 동작 사이를 뚫고 다니는 힙합의 춤이다. 두 춤은 묘하게 박자가 맞고 공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춤은 점차 변형되어 자연스럽게 현대춤화 되어 가고 어느새 두 춤은 하나로 섞여 더 이상 구분이 되어 지지 않는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한 번도 퇴장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스피드와 힘 조절, 솔로와 군무로의 자유로운 전이를 통해 팽팽한 긴장을 보여준 무용수들에 대한, 안무자의 새롭고 흥미로운 혼합 시도에 대한 열렬한 박수였다. 프랑스 관객에게도 안무의 새로운 초점을 정하고 그 원칙을 풀어나가는 창의성과 그것을 더욱 빛나게 밝혀주는 안내심은 그 자체로 감동스럽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무용전공자인 노숙한 프랑스 관객은 “안무 구성은 평면적이었지만 칼이 상당히 인상적인 소재였고, 마지막에 노래가 매우 매력적이어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과 더불어 한국적인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고 느낌을 전했다.

그간 춤 공연에서의 프랑스와의 교류는 이외로 많지 않았다. 1998년 아비뇽 페스티벌(Avignon Festival)의 한국특집에 이매방 선생의 전통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 홍승엽의 〈달 보는 개〉, 〈데자 뷔〉, 김매자의 〈하늘의 눈〉, 〈춤 그 신명〉, 강미리의 〈활〉 등이 리옹 댄스 비엔날레(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에 초청되었다. 그 후 2006년 한불 120주년 교류 사업으로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과 창무회가 〈느린 달(Full Moon)〉을 공동제작할 정도로 개인적 관계 속에서 소박하게 진행된 정도였다.



© 국립무용단



안성수픽업그룹, 〈혼합〉© 황승택, 르부아스튜디오

그런 환경에서 이번에 초청받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 안해순은 공식적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프랑스의 대표적 안무 콩쿠르인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생생드느(Le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de Seine-Saint-Denis)를 통해 프랑스와 인연이 깊다. 1992년 〈씻김〉, 1994년 〈엠티 스페이스(Empty Space)〉(최고 무용수상), 1998년 〈11번째 그림자〉(대상수상) 으로 비록 경연이긴 하지만 프랑스 무대에 대한 경험이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2014년 〈이미아작〉의 국내 초연 때 프로그래머 아르모를 초청하여 선보였으며, 이 작품과 〈불쌍〉을 놓고 사이오국립극장 측의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아르모에 의하면 “〈이미아작〉이 죽음을 금기시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신비와 호기심을 새롭게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있는 작품으로 판단”되어 선택했다고 한다.

‘이미’이며 ‘아직’이라는 반어적인 단어의 충돌로 순차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의 시공간을 벗어나는 것으로 한국적 죽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되는 현대음악의 라이브 연주자와 정가 가수가 무대에서 14명의 무용수와 함께 보이스와 더불어 퍼포먼스에도 적극적 개입을 하는 등 이전까지의 규정된 틀을 벗어나 비정형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무용수들이 죽음으로 와해된 몸의 세계를 동작으로 구현하여 현대적 병신춤 같은 익살스러움이 있는가하면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오묘한 감정세계를 풀어 놓는다.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놀이와 슬픔 등이 구분되지 않는 통합적 생사관과 장례의 중요한 장식이었던 꼭두와 종이로 만든 각양각색의 넋전, 지게, 신문과 종이 잡동사니들이 무대를 가득 채운 후 이 모든 혼돈이 무대 중앙의 한 빛을 향해 빨려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리의 관객은 죽음과 관련된 한국적 코드와 행위들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과 집중을 놓치지 않았다. <르 몽드(Le monde)〉의 호지타 부아조(Rosita Boisseau)는 “한국에서 전통과 현대, 이 둘 사이에서 심장은 균형을 잡고, 기이한 하이브리드의 열매를 수확한다. 돌연변이 징후 같은 의식들,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팝 공연, 프리스타일도 자리 잡는다. 이는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인가, 유행상의 경솔한 결정인가. 정체성의 자극인가, 사회 집단적 현상인가?” 하면서 한국특집의 공연들에서 보이는 전통적 요소에 대해 호기심을 표하였다.

3년 전 프로그램 준비, 1년 전 홍보와 티켓팅, 완벽한 무대를 위한 철저한 기술적 점검 등 사이오국립극장의 간간한 노력이 받침이 되어 국립현대무용단과 이인수, 김판선, 안성수 등 우리의 안무가들과 무용수들의 공연들을 통해 ‘한국의 느낌’으로 오래도록 파리 관객의 뇌리에 남을 것이다. (글. 이지현)

라이트 버드 LIGHT BIRD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02.-2016.03.06.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

메종 드 라 당스(Maison de la Danse),

아미앵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 d'Amiens) 외

주관기관

한국: LG아트센터

프랑스: 르 게퇴르-뤽 페통 무용단(Le Guetteur-Luc Petton & Cie)

살아있는 생물체인 학과 인간이 꾸미는 무대로 주목을 받은 <라이트 버드(Light Bird)>는 한국의 LG아트센터와 프랑스의 안무가 뤽 페통(Luc Petton)이 이끄는 르 게퇴르-뤽 페통 무용단(Le Guetteur-Luc Petton & Cie)이 함께 만든 무용작품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한국 측 주관을 맡은 LG아트센터는 2000년 개관한 이후 파나 바우쉬(Pina Bausch), 레프 도진(Lev Abramovich Dodin), 피터 브룩(Peter Brook) 등 해외 거장들의 수준 높은 공연들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 온 전문 공연장이다. 프랑스 측 주관을 맡은 '르 게퇴르-뤽 페통 무용단'은 프랑스 안무가 뤽 페통과 그의 아내인 발레리나 마를린 이글레시아스-브루커(Marilen Iglesias-Breuker)가 함께 창립한 프랑스 현대무용단이다.

'새와 인간의 무용' 연작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는 안무가 뤽 페통은 2005년 <새들의 비밀(Les Confidences des Oiseaux)>의 찌르레기와 까마귀, 2012년에는 연극 <햄릿(Hamlet)>에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오페리아 이야기를 백조들과 함께 풀어낸 <백조(Swan)>의 백조에 이어, 그의 신작 <라이트 버드>에서는 한국의 '동래학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이상향에서 늘 빠지지 않는 불멸의 상징인 '학'의 우아함을 춤사위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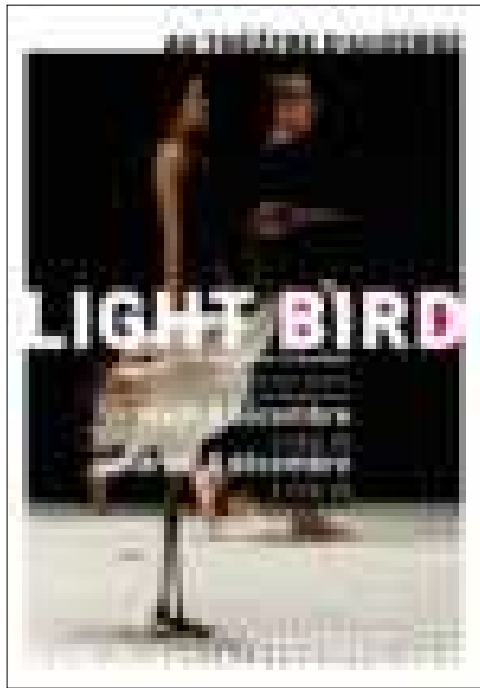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2014년 2월 안무가 뤽 페통이 내한해 주한 프랑스문화원 관계자들과 LG아트센터를 직접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안무가의 전작(前作)들에 대해 알고 있던 LG아트센터 측은 안무가의 이번 신작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한·불 합작에 합의를 가지고, 2015년 프랑스 공연과 2016년 한국 공연을 계획하게 된다. 이 당시 방문한 안무가는 한국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해 한국의 무용가 이선아와 박유라를 선발했으며, 한국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LG아트센터 무대를 점검하였다. 또한 한국의 학춤에 대한 리서치의 일환으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들과 함께 학춤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했다. 아마추어 조류학자이기도 한 뤽 페통은 이번 신작을 위해 프랑스 아미앵 및 리옹 동물원의 협조를 받아 학의 부화 단계부터 시작하여 이후 어린 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들의 습성, 몸짓을 연구했다. 이렇듯 알의 부화에서부터 모든 성장을 함께 한 이 프로젝트는 준비 과정만 2년 이상 걸렸다. 한국에서 선발된 무용수들과 또 다른 무용수인 벨기에 출신의 현대무용가 질 노엘(Gilles Noël)은 프랑스 현지에서 오전엔 춤을 추고, 오후에는 학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새들과 친해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2015년 5월 5일~13일 파리의 사이오국립극장에서 공식 초연된 <라이트 버드>는 뤽 페통의 안무, 4명의 무용수, 1명의 색소폰 연주자, 그리고 6마리의 학이 출연했다. 사각형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를 중심으로 3면의 검은 막과 객석을 향해 미세한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막이 열리면, 10년차 현대무용가인 이선아 씨의 가녀린 팔에서 나오는 섬세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학의 예민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무용수가 무대 위를 걸을 때는 염소 가죽 소재를 이어 만든 흰 바닥이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듯 너울거렸다. 이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한국 무용을 전

공한 박유라가 출연해 한국적인 호흡의 춤사위를 선보이고, 벨기에 출신의 현대무용가 질 노엘과 안무가 뤽 페통이 나와 네 사람의 앙상블이 시작된다. 네 명의 무용수가 무대에 나와 춤을 추고 있을 작품 전반의 중간쯤 무대 옆의 막이 열리면 어느새 날아 들어온 네 마리의 학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데, 조명을 받아 더욱 고고하게 보이는 학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아름답고 우아한 학의 자태에 놀라움과 경탄의 감탄사가 객석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학 네 마리가 다시 무대 밖으로 나간 뒤 무용수들만의 시간에 이어 후반부에 또 다른 학 두 마리가 나오는데, 전반부의 학들이 당시 태어난 지 1년생이라 호기심과 생기에 가득 차 움직이는데 비해 후반부의 학들은 태어난 지 2년 되어서인지 움직임이 부산스럽지 않고 고고했다. 무대 위에는 4명의 무용수와 여섯 마리의 학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번 작품의 전체 음악을 담당했던 자비에 로셀(Xavier Rosselle)이 무대 위에서 직접 색소폰 연주를 한다. 안무가와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 해온 자비에가 직접 작곡한 음악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신비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중간에 국악도 잠깐 들리는데, 한국의 국악 작곡가 원일이 이번 공연을 위해 제공한 음원이었다. 자비에의 음악과 함께 필립 베르토메(Philippe Berthomé)의 은은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조명은 작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날의 초연에는 LG아트센터 관계자들과 음악가 원일 씨가 직접 프랑스 현지를 방문해 공연을 관람하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작품에 대한 프랑스 현지의 반응도 좋았는데,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는 “학을 기르는 등 2년간의 준비 작업에서 나온 춤은 우아하다”고 평가했고, <레 제코>는 “무용수와 학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눈부시다”고 격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불 합작의 의의를 살려 프랑스와 한국의 안무가, 무용가, 음악가들이 '한국의 학춤'이라는 원형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의 초연을 포함해 아미앵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 d'Amiens)을 시작으로 프랑스 내 10개 도시에서 총 24회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만6000명이 넘는 관객이 이 작품을 관람했다. 아쉬움 점이 있다면 당초 계획에는 파리 초연 후 프랑스 투어와 한국 공연에서 작곡가 원일을 비롯한 한국의 연주자들이 출연해 라이브 음악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한정된 준비 기간 동안 새들과 교감하기가 쉽지 않고 공연의 원활함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이들의 출연이 무산되었다. 대신 원일이 프랑스 현지에서 안무가 및 프랑스 작곡가 등과 워크숍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 산조와 타악기 리듬 등 원일이 제공한 한국적 소재의 음원을 공연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또한 프랑스 투어 공연을 마친 후에는 2016년 4월 LG아트센터에서 한국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조류독감의 여파로 학의 국내 반입이 힘들어지면서 내한 공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LG아트센터, 촬영. Alain Julien)



댄스 엘라지 DANSE ÉLARGI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 06.18-2016.06.19.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 06.11-2016.06.12. LG아트센터

주관기관

한국: LG아트센터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우리에게 일반화된 ‘콩쿠르(Concour)’의 개념과는 그야말로 완전히 반대항에 위치하는 국제 콩쿠르인 <댄스 엘라지(Danse Élargie)>는 파리 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렌에 있는 무용박물관(Musée de la Danse) 공동주최로 ‘춤 기반’으로 ‘3인 이상, 10분 이내’ 작품이라는 규칙 이외에는 나이, 국적, 학력, 분야에 제한 없이 출전할 수 있는 프랑스 내에서도 파격적인 무용 경연 대회이다.

2014년부터 파리시립극장이 아시아와의 공동주최를 구상하던 중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게 한국 측 파트너 추천을 요청하면서 제4회 <댄스 엘라지>의 양국 주최가 진행되었다. 이 콩쿠르는 에르메스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았는데, 이와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 한국 내에서 해외 춤공연예술과의 교류, 기획, 제작, 초청에 두루 경험이 많은 LG아트센터가 물망에 올랐다. 이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LG아트센터에 제안하였고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양국의 공동주최가 합의되었다.

댄스 엘라지 입장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삼으면서 지리적으로 참여 국가의 반경을 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는 것에 기뻐했고, LG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극장으로서 유일하게 춤 공연예술을 선도해오던 입지 속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의욕을 보였다. 특히 한국의 젊은 안무가 지망생들은 새로운 포맷의 콩쿠르를 통해 국제 감각을 익히고 유럽 진출의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2016년 <댄스 엘라지>가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며 작은 흥분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국의 공동주최는 서울과 파리에서 17팀씩 나누어 경연을 진행하고 수상자도 각각 뽑는 형태가 되었다. 다만 심사위원 전원이 서울에서 경연을 치른 후 파리로 이동해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댄스 엘라지>의 중심을 유지했다. 50개국에서 약 500개 팀이 서류접수하는 성황을 이뤘으며, 양측의 실무 대표를 포함한 심사위원이 매우 신중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양국에서 나눠 경연할 34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17개 팀이 11일 예선을, 예선에서 선발된 9개 팀이 다음날 본선 경연을 벌였다.

한국팀은 김기홍, 임지민 <볼 알라이브(Ball Alive)>, 강경민 <파인딩 마이셀프(Finding Myself)>, 한아름, 김호연, 임정하 <인더 멜팅 팻(In the Melting Pot)>, 정혜영, 주혜영, 김승록, 이세승 <랜딩(Landing)>, 정세영, 서재영, 이신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김보람 <링귀스틱스(Linguistics)>, 호기성, 김형민, 임샛별, 윤나라 <링크 인 아우어 카인드 오브 센스(Link in Our Kind of Sense)>, 이선태 <노 원 오아 에브리원(No one or Everyone)>, 허성임, 이소망 <유 아 오케이!(You are Okay!)> 등 9팀이 참가했으며 그 중 <유 아 오케이!>, <인더 멜팅 팻>은 본선까지 올랐으나 입상은 하지 못했다.



권령은, <글로리>



정세영, 서재영, 이산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리스 비극에서 극중 풀지 못한 사건을 절대적 힘으로 해결하는 극적 장치를 뜻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제목으로 하여, 기성의 춤 개념과 다른 접근으로 탄탄한 개념적 구조와 공간과 소품에 대한 새로운 맥락화가 돋보였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1등을, 모리셔스의 사무엘 요셉, 마티유 요셉, 제프 아르망의 <리브르 상투와 -Libre Sans Toi->가 2등을, 3등은 프랑스 혼합팀인 게탕 블루드, 크리스토프 알베르타니, 김효진이 만든 ‘봄의 제전’을 주제로 한 <스포일드 스프링: 데어 아 노 모어 시즌(Spoiled Spring: There are no more seasons)> 이 받았다.

한국 공연 다음주에 치러진 파리 공연은 6월 18일(17팀 예선-10팀 선정), 19일(10팀 본선-3팀 수상) 양일에 걸쳐 파리의 중심부 시립극장에서 치러졌다. 파리 시립극장은 1000석을 가덕 메운 관객의 뜨거운 흥분으로 출렁였다. 시민의 극장으로 소탈함과 당당함을 갖춘 이 극장은 고대 원형극장의 객석처럼 급경사로 쏟아지는 객석이 무대를 향한 집중력을 높여, 많은 인원이 관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리감을 최소화하였다. 춤 관객에게 열린 극장이 되고자 하는 이 행사의 취지와 극장이 잘 맞아 떨어져 관람의 감흥을 한층 높혀 주었다.

파리 공연 대다수의 참가팀은 프랑스 팀이 주축이 된 유럽연합 팀들로 구성되었고, 한국 예술가가 포함된 팀은 3팀이었다. 첫날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17개 팀이 공연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 주에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경연 실황과 춤 관련 영상물이 상영되어 파리의 관객과 공유되었다. 심사결과 10개팀이 통과하여 이튿날인 19일 다시 한 번 경합을 벌여 등위를 가렸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참가한 모든 팀이 무대에 한꺼번에 나와 자신의 작품을 공연하는 크래시 테스트(Crash-Test)라는 코너로 <댄스 엘라자>의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었는데, 콩쿠르의 경쟁심을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로 바꾸어 관객에게 새로운 융합 작품을 보는 듯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연령과 학력에 제한은 없었지만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각국에서 무용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작품 이력도 화려한 편인 젊은 안무가들인 점은 다른 무용경연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물론 음악가, 시각예술가들과 연합팀을 이뤄 장르 확장을 꾀한 팀들이 많았으나 생각보다는 시각예술이나 음악에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상금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현재 상금 1등 15,000 유로, 2등 11,000 유로, 3등 7500 유로) 저비로 제작비와 여행경비를 마련해 참가해야 하는 부담때문인 듯 보였다.

프랑스까지 와서 경연에 참가한 한국팀 3팀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장구잡이(고기혁)와 배우(한강우)로 참가한 작품 <몰록 (Moloch)>, 달 프로젝트(이정호, 곽소민, 유태금, 정재원, 곽소진의 <이레이즈 더 문 (Erase the Moon)>, 그리고 3등의 영예를 안



게탕 블루드, 크리스토프 알베르타니, 김효진, <스포일드 스프링: 데어 아 노 모어 시즌>

은 권령은의 <글로리(Glory)>였는데 한국적 특성을 장구와 의상에서 강하게 보여준 <몰록>은 한국적 색채로 눈길을 끌었으나 탈락하였고, 한예중 출신의 이정호와 영상 기반의 곽소진이 함께 만든 <이레이즈 더 문>는 현대사회의 무감해져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사각각 흐르는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결선까지 올랐으나 3등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권령은 안무의 <글로리>는 한국 무용계의 병역면제 현실을 김성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화법으로 다루어 콩쿠르 속의 콩쿠르를 다루는 중복 설정에 성공해 흥미를 주었다. 2년간 10번의 콩쿠르에 참가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또 해보겠냐는 질문에 김성현은 “어게인. 어게인”을 굳은 표정으로 강하게 외쳤다. 군대 제식훈련과 콩쿠르의 묘한 동거를 동작적으로 잘 조합해낸 안무는 이 작품에 3등의 영예를 안겼다.

잘 숙련되지 않아도 젊은이들의 감성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신선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했던 이번 무대에 대해, 무용박물관(Musée de la Danse)의 젊은 예술감독이자 자신 역시 새로운 개념의 컨템포러리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보리스 샤마츠(Boris Charmatz)는 “현대의 안무가들이 도용 (Appropriation), 참조 (Reference), 인용 (Quotation) 등을 만드는 데는 많은 비중을 두는데 반해 작품을



사무엘 요셉,마티유 요셉, 제프 아르망, <리브레 산스 토아티>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소나 조건에는 관심이 적다. 그런 이유에서 1980년대에 성행했던 무용 경연 형식을 부흥시키고자 했다”는 의도를 밝혔다. 올해의 참가작들은 관습적 미학에 대한 반미학적 시도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안무력이나 과감한 형식적 시도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 경연의 혁신적 의미는 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무료 공연을 통해 새로운 무용 관객을 창출하겠다는 LG아트센터의 새로운 개념의 무용에 대한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창조와 교류의 장으로써 ‘축제같은 콩쿠르’ 역시 경쟁하게 성공했다.

한국과 공동주최한 올해의 행사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우리는 <댄스 엘라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콩쿠르들을 테크닉 경연이 아니라 춤예술의 창의성을 위해 변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체험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경험한 LG아트센터의 확인된 역량이 꼭 공동주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콩쿠르를 시도한다면 무용공연예술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LG아트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K-Arts 무용단 초청공연

2015.11.12-2015.11.13.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Conservatoire de Pari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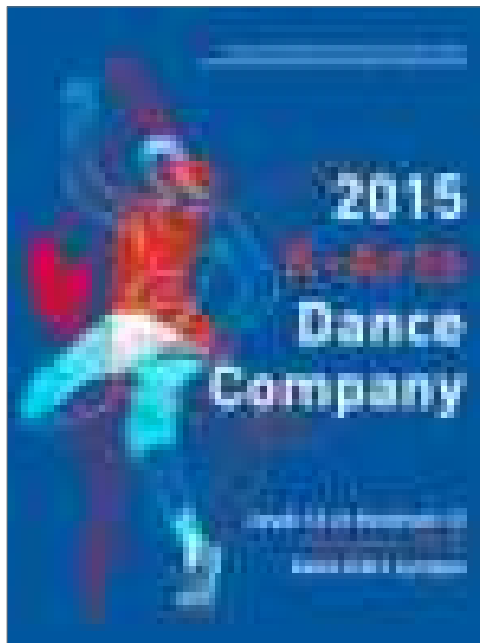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Conservatoire de Paris) 무용단 초청공연

2016.05.26-2016.05.27. 한국예술종합학교

주관기관

한국: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CNSMDP, Le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원장 김선희)과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Conservatoire de Paris)(총괄 디렉터 Bruno Montovani, 안무 디렉터 Jean Christoph Pare)는 2003년부터 교류해 왔다. 2011년 두 학교는 MOU를 맺고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했으며, 2011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가 파리에서, 2012년 파리 측이 한예중 석관동 캠퍼스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한 바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그간의 시범 교류를, 대규모 학생 공연단이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교류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교류 워크숍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2~13일에는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 내 살 다르 리릭(Salle d'Art Lyrique)에서 무용원의 파리 공연이, 2016년 5월 26~27일 한예중 석관동 극장에서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의 상호 초청공연과 각 2회와 3회의 워크숍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두 학교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공연준비를 시작했다. 2년 간 교류를 진행했던 한국 측 담당자 김다은 조교에 의하면 프랑스 측 담당자 크리스티앙 랑토앵(Christian L'Anthoën)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심사위원 등으로 여러 차례 방한해 한국문화에 익숙한 편이어서 서로에 대해 깊은 배려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예중의 공연단은 각 전공을 포함, 25명으로 구성되어 7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발레 작품으로는 짧은 클래식 레퍼토리 <고팍(Gopak)>, <라 바야데르(La Bayadère) 중 죽음의 춤>과 컨템포러리 발레로 김선희 원장 안무의 <What about Classical Movements?>와 김보라 안무의 <시나위>가 있었으며, 현대무용으로는 안성수 교수의 <전통의 재구성(방아타령편)>과 남정호 교수의 <빨래>, 전미숙 교수의

K-Arts 무용단, <Nothing to say>



<Nothing to Say>가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을 위해 프랑스 측은 유럽 무용계의 저널, 무용단 안무가, 국립파리오페라발레단(Paris L'Opéra Ballet) 등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으며, 콘서바토리 내의 극장이 파리지역 18-19구에 위치해 시내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각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300여 석의 소극장이 프랑스 관객으로 만석을 이뤘다.

공연 후 우리 안무가와 공연진에게 인터뷰가 쇄도하고 로비에서 관객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사벨 시아라볼라(Isabelle Ciaravola)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 객원교수는 "한국의 무용수들은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 나는 오늘 공연을 정말 즐겁게 봤다. 이들의 공연과 연습을 우리 학생들이 꼭 보고 배웠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Arts 무용단, <빨래>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 무용단



을 밝혔고, 전 뉴욕시티발레(New York City Ballet) 수석무용수이자 현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 재단 레페티퇴르(Repetiteur:연습코치)인 다이아나 화이트(Diana White)는 "금요일 밤 K-Arts 무용단의 공연을 본 후 무용예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공연 내내 흥분할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이런 최고의 공연을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공연단은 마지막 2회차 공연이 끝나고 나서 파리 테러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으나 다행히 프랑스 측의 지원과 관심으로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2016년 5월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의 내한은 서초동 캠퍼스 내에서 워크숍(한국 무용 1회 및 발레클래스 2회) 3회 및 2회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의 발레마스터이자 전 국립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쉬제(Sujet)로 활동하던 셀린 탈롱(Celine Talon)의 워크숍이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프랑스 학생들은 한예중 수업을 위해 한국춤 수업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다섯 작품으로 칼 니프(Carl Knif) 안무 <Lifelike>와 티에리 말랑당(Thierry Malandain) 안무의 <La mort du cygne>, 로이 아사프(Roy Assaf) 안무의 <The Hill, short version>, 지리 킬리안(Jiri Kylian) 안무의 1982년 작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그리고 니콜 모수와 파트릭 봉테(Nicole Mossoux et Patrick Bonte) 안무의 <Petite imposture>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석관동 극장 450여 석의 1, 2층 객석을 모두 채우고도 현장에서 티켓을 받으려는 관객이 있어 계단에서 앉아 관람하는 등 매우 성황리에 올려졌다.

본 사업은 유럽의 전통 깊은 명문 예술학교와 한예중 무용원의 교류를 통해 발레의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훌륭한 무용수를 배출하고 있는 한예중 무용원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해외 공연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 무용인들이 한예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큼 우리 무용 교육의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매우 고무적인 기회였다. 학생들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기에 일주일이라는 체류 시간은 짧은 편이었지만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틈틈이 서로의 수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은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들이 펼칠 교류를 기대하게 하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프랑스에서 우리측 공연에 대한 홍보 지원이 미비했던 점, 한국 공연에서 극장 스태프들이 언어 문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으로 남는다. 공연단 규모가 큰 편으로, 비용이 많이 든 것에 비하면 양국 모두 극장의 객석 수가 너무 적어 좋은 공연을 많은 관객이 볼 수 없었던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워크숍에 그치지 말고 교육 내용에 대한 포럼 등을 시도하여 교육 프로그램 교류로 확장시킨다면 두 학교 간의 보다 입체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

2015 칸느댄스페스티벌

회오리

VOR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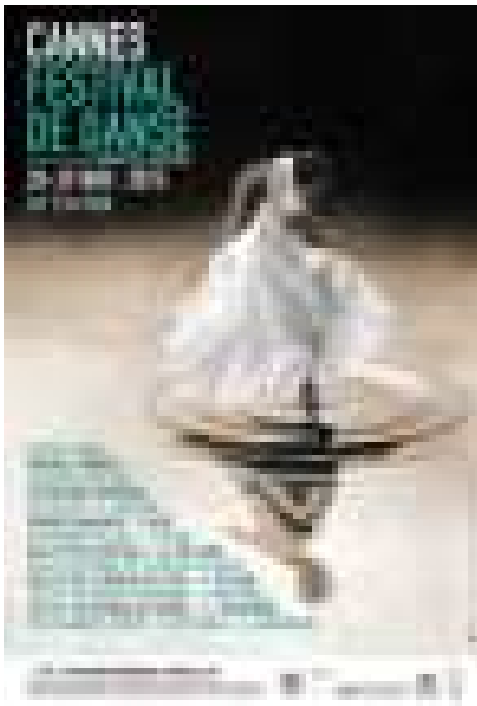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1.20. 칸느 팔레 데 페스티발 에 데 콩그레(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 de Cannes)

주관기관

한국: 국립중앙극장진흥재단(국립무용단)

프랑스: 칸느 댄스 페스티벌(Festival de Danse - Cannes)



국립무용단의 <회오리(Vortex)>는 핀란드 안무가이자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의 댄서로 활동하는 등 프랑스에서 많은 활동 이력을 갖고 있는 테로 사리넨(Tero Saarinen)과 국립무용단의 협력 작품이다. 국립무용단의 첫 번째 해외 안무가 초빙 작업으로, 2014년 10월 초연 때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무대에 올랐고 국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 그룹 ‘비빙’의 라이브 연주와 더불어 한국 전통 미학과 원리에 대한 해외 안무가의 재해석을 기대하게 하는 공연이었다. 매우 조심스러운 감이 있으나 한국춤의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한 안무가 사리넨의 역량을 인정할 수 있었으며, 작품 구성에서 공간 내에서 원형 에너지의 점층적 변형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 한국춤의 질감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 안호상 국립극장장의 파리 출장 시 <회오리>의 프랑스 공연 가능성을 여러 극장 및 축제와 타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마침 칸느댄스페스티벌(Festival de Danse de Cannes)이 프로그래밍 중이었고, 예술감독인 브리짓 르페브르(Brigitte Lefèvre)가 서양 안무가와 한국 국립무용단의 협업 형식에 관심을 표현해 2014년 10월 작품 초청이 흔쾌히 결정되었다. 국립무용단에 따르면, 이는 한국의 무용단이 칸느댄스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경우로, 2015년 11월 초청공연까지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우려해 2015년 10월 한국에서의 재공연을 준비하는 등 칸느 공연을 위해 충분하고 신중한 연습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칸느댄스페스티벌은 영화제의 유명세에 가려진 부분은 있으나 프랑스 내에서 가을 시즌 현대무용에서 현재 메이저급의 단체와 세계의 주요 대작의 흐름을 담아내는 무대로 그 명성과 규모가 상당히 큰 축제이다. 축제의 관객에게 새로움과 신선함을 주고자 하는 브리짓 르페브르는 “국립무용단이 외국안무가와 협업한 <회오리>의 창작 과정 자체가 용감하고 예술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다”며 집중력과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안무를 특히 마음에 들어한다고 한다.

칸느에서 공연은 단 1회로 결정되었고, 38명의 공연단이 이동하는 것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횟수였지만, 2015년 8월과 9월 무대 스텝진은 두 차례 사전답사를 통해 현장을 꼼꼼히 체크했다. 칸느댄스페스티벌의 주공연장인 루미에르 오디토리움(Auditorium Louis Lumière)이 영화전용극장이다 보니 무용 무대로서는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진이 긴장을 했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 루미에르 무대 조건에 맞도록 무대 장치를 프랑스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조명 플랜도 다시 수정하는 등 현지 상황에 맞도록 작품을 준비했다.

불행하게도 공연 1주일 전인 11월 13일에 일어난 파리 테러로 공연이 취소될 위기가 있었으나 기자간담회 등 부대행사는 취소하고 본 공연과 마스터클래스는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공연이 오픈되자 테러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충격



에 빠진 상황에서도 객석 점유율은 80%에 달했으며, 공연이 끝나고는 자연스러운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자연스럽고 원형적인 한국춤 동작의 아름다움이 무대를 채우고, 무용수 19명과 악사 5명이 춤과 음악을 조화롭게 상승시키는 구조로 쌓아 올린 춤의 역동에 프랑스 관객의 역시 힘을 느낀 듯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38명의 공연단이 만든 국립무용단의 <회오리>가 칸느 관객의 마음에 간강한 회오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안무가인 제프 비지오는 “동양의 춤과 서양 안무가의 만남이 흥미로웠고 독특한 악기와 음악도 멋졌다. 인간성이 가득한 이 작품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했으며, 이리스 아우티오(Iris Autio) 테로 사리넨 컴퍼니의 행정감독은 “칸의 무대조건이 한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공연과 같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무대를 보여줬다. 국립무용단의 무용수의 높은 집중력과 스태프들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된 것 같다. 유럽 무대에서 국립무용단과 테로 사리넨의 협업을 잘 보여준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프랑스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의 아르모 펜틸라(Jarmo Penttilä) 역시 “테로 사리넨의 안무를 자주 봐왔

지만 이번 <회오리>의 안무는 유럽에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이었고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했다. 한국 전통악기의 선율은 낯설었지만 신선하고 아름다웠다”고 평했다.

공연 후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조재혁과 박해진이 맞춤(2인무)으로 <동래학춤>을 시연했으며 수석무용수 김미애가 <태평무>를 선보이고 클래스를 이끌었다. 40여 명의 수업 참가자들은 한국춤의 세계에 깊이 몰입했으며 매우 흥미로워했다.

국립무용단이 한국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해외 안무가와 협력하는 실험에 대한 평가는 이번 칸느 공연에서의 관객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해 인지도가 있는 젊은 안무가를 선택한 것도 국립무용단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현대적 단체라는 인식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립무용단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불만한 현대적 작품을 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국립극장)

안티포드 ANTIPOD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1.19-2016.01.23. 아베스 극장(Théâtre des Abbesses)

주관기관

한국: 댄스씨어터 창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진은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불 커넥션에 참가해 프랑스 현지에서 많은 프랑스 안무가들을 만났다. 그들과 공동작업을 모색하던 중 파리에서 무용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같은 무용수로 알고 지내던 파브리스 람베르(Fabrice Lambert)를 만나 공동작업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순간을 파브리스는 이렇게 기억한다. “김남진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솔로 안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안티포드(Antipode, 지구 표면에서 중심을 관통하는 정반대의 지점)’가 연상되었고 나는 그 연상의 흐름에 빠져버렸다. 그와 나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모험과도 같은 이 작업은 필수적으로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위치의 차이만큼 이동(변화)을 요구할 것이다”

그 후 김남진은 2년간 파리에 두 차례 체류하면서 파브리스와 <안티포드>를 만들 어갔다. 파브리스는 이 작품을 위해 레옹 푸코(Leon Foucault)의 진자(Pendulum)를 무대 위에 설치했다. 지구의 자전을 최초로 물리적으로 실현하여 증명한 진자를 실 제보다는 작게 지름 약 20cm의 쇠공을 무대 바닥에서 70cm 정도 떨어지도록 매달 아 규칙적 진자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 진자는 안티포드 사이를 왕복하며 마치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진자의 무게감과 지속적인 왕복 운동은 무대공간에 색다른 ‘사-공간’을 부여한다. 파브리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론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응시(Gaze)’를 두 개의 거울을 마주보게 놓음으로써 무한하게 서로를 비춰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하는 ‘미장아빔(Mise en abyme)’과 연결시켰고, 이는 이질적이고 정반대에 있는 두 개의 존재는 마치 대립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무한하게 되비추는 존재일 뿐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된다.

얼굴을 가면과 같은 밀착된 흰 천으로 가리고 두툼한 점퍼에 두 개의 바지를 겹쳐 입고 운동화를 신은 김남진은 몸을 숙여 진자를 안고 있다. 마치 옷 때문에 우주인처

럼 둔탁한 움직임을 하는 그는 진자를 몸에서 내려놓고 이내 진자의 운동의 범위에 갇히게 된다. 점차 걸음을 벗고 독백도 하는 이 작품은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관객의 뇌리에서 은은한 사유가 영원한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올림이 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파브리스의 무용단인 렉스페리앙스 아르마(L'Expérience Harnaat)가 제작 했고, 아베스 극장(Théâtre des Abbesses)에서 5회 공연을 했다. 공연시간 30분의 이 작품은 프랑스 안무가와 한국 무용수의 일 대 일 협업의 형태를 띠지만 안무가가 프랑스인이기에 프랑스 감성이 지배적인 작품으로 탄생했고, 한국주간에 열린 공연에서 오히려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는 관객에게 한국적인 것으로 호기심을 다가가진 못했다. 특히 이번 작업은 한국팀과 안무 경험이 있는 프랑스 안무가와 프랑스에서 10년 정도를 활동해 프랑스를 잘 아는 한국 안무가가 댄서로 참여한 작품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는 높은 편이었으나 파브리스가 예측했듯 서로의 관점과 감각의 차이는 상당했다고 한다. 솔로 무용수였던 김남진은 “정말 제멋처럼 서로 관계가 심각해질 정도로 견해가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고 파브리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고 한다.

두 나라의 춤 전문가들이 안무와 댄서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두 문화를 혼합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두 개의 세계가 충돌, 이해, 혼합 내지는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로 나가는 일. 그리고 서로의 이질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안티포드>에서 파브리스의 관점은 앞으로 교류의 좋은 기준점을 제시한다. 공연 이후 파브리스의 무용단이 이 작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김남진의 시간이 가능한 여름과 겨울 시즌 동안 투어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댄스씨어터 창)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엠마뉴엘 그리베 무용단

COMPAGNIE EMMANUEL GRIVET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4.04-2016.04.18. 아코예예술극장 외

주관기관

한국: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IPAP

프랑스: 엠마뉴엘 그리베 무용단(Compagnie Emmanuel Grivet)



올해 제16회를 맞은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엠마뉴엘 그리베(Emmanuel Grivet)와 그의 무용단을 초청해 다양한 공연을 프로그래밍하였다. 4월 13일 <Voici> 공연을 위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무용수를 오디션을 2차에 걸쳐 진행하고 약 2주간 연습 기간 동안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한-불 국제 협업즉흥 프로젝트 공연 <Voici>를 공연하였다. 한국 무용수로는 강수빈, 공영선, 김경민, 김영란, 손은교 등 5명과 엠마뉴엘 무용단원 마리피에르 제나르(Marie-Pierre Genard), 클로에 카이아(Chloe Caillat), 마리안느 마쑈(Marianne Masson) 등 총 10명이 출연하는 한국판 <Voici>는 서울국제즉흥춤축제의 꽃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장광렬 예술감독이 엠마뉴엘 그리베를 초청하게 된 배경에는 2013년부터 문래예술 공장에서 레지던시를 하는 등 즉흥 안무가로써의 그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2013년, 2015년 서울국제즉흥춤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쌓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인 무용수로 참여 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관계를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그의 무용단의 4명의 단원과 연주자 1명까지 초청하여 '즉흥을 활용한 공연'의 작업과정을 한국 무용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교류관계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좋은 기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Voici>는 '여기이 있다' 또는 '이것은....이다'의 의미로 이번 한국무용수와 프랑스 무용가가 거의 반반씩 섞여 1시간 동안 공연되었는데, 고정관념이 되어 굳어진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에 대해 반문이 공연의 주제였다. 엠마뉴엘에 의하면 그는 즉흥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무용수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 영감에 따라 작품을 각색해 왔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에서의 <Voici> 역시 그런 이유로 보다 집중적으로 남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무용수와 프랑스 무용수들은 작품을 보다 더 다양성있게 보이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엠마뉴



엘의 즉흥 스타일로 조화롭게 섞였다. 급하지 않은 호흡으로 움직임과 움직임의 사이에 여운의 순간을 만들어 내고, 무용수들의 시선 변화와 교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유로 이끄는 안무의 특징이 남녀 고정관념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맛깔스럽게 다가왔다.

이 공연뿐 아니라 9시간 개막 축제와 컨택 즉흥에도 엠마뉴엘 무용단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느 때 보다 즉흥춤의 언어와 스타일을 풍부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춤을 즉흥 연주와 분리시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들과 동행한 트럼펫 연주자 장레미 귀에동(Jean-Rémy Guédon) 역시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한국에서 들리는 소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들을 수집하여 라이브 연주에 활용하거나 음악 구성에 중요한 샘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에 이어 대구와 제주로 이동하여 열린 축제에도 함께 동행하였는데, 특히 제주도 돌문화공원 내 하늘연못을 포함한 3곳에서 진행된 야외 즉흥춤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에서 솔로·듀엣·군무 등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 공연은 즉흥춤의 볼모지와 다름없는 제주의 관객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보다 전문적인 즉흥으로 많은 자극과 활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서울에서 <Voici> 공연을 마친 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하여 엠마뉴엘 단원들이 즉흥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문적인 즉흥수업이 모자라는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마리피에르 제나르는 '무용수를 위한 즉흥-살아있는 풍경'을 통해 고유한 표현으로서의 솔로, 관계의 증거로서 만나는 듀엣, 대화가 뒷받침하게 되는 트리오 등의 구조 속에서 근접성과 특이성을 탐구하는 수준 높은 수업을 하였고, 마리안느 마쑈는 '나는 나를, 너는 너를, 우리는 서로를 즉흥으로 연주한다'는 제목으로 움직임을 통해 개인과 공동의 차이를 탐구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클로에 카이아는 '놀이시간'으로 즉흥에 이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자유분방한 놀이의 상상으로 체험하는 워크숍을, 올리비에 느브장(Olivier Nevejs)은 '즉흥을 위한 서포트로서의 해부학'으로 뼈, 근육, 관절을 중심으로 한 해부학의 구조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생리학 시스템까지 지각을 확장함으로써 즉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엠마뉴엘 무용단이 즉흥공연뿐 아니라 협업개념의 공연을 올리게 하여 한국무용수들과 더 깊은 교류를 경험한 것과 다양한 내용의 워크숍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내용들을 현지의 무용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번 교류의 큰 성과로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IPAP)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 : 코리아 포커스 RENCONTRES CHORÉGRAPHIQUES DE SEINE-SAINT DENIS : FOCUS CORÉ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김요셉 <곰뱅이 뽔다>¹

2016.05.28-2016.05.29. 라 코뮌느-오베르빌리에(La Commune-Aubervilliers)

리케이댄스 <마음 도깨비>²

2016.05.28-2016.05.29. 라 코뮌느-오베르빌리에(La Commune-Aubervilliers)

아트프로젝트 보라 <소무>

박상미 <인 마이 룸(In my room)>³

2016.05.28-2016.05.29. 라 코뮌느-오베르빌리에(La Commune-Aubervilliers)

이희문컴퍼니 <걸립프로젝트(Gullip Project)>⁴

2016.06.04-2016.06.06. 라 파롤르 에랑트(La Parole Errante)

박박 <가곡실격(No Longer Gagok)>⁵

2016.06.04-2016.06.06. 라 파롤르 에랑트(La Parole Errante)

주관기관

한국: 김요셉¹, 리케이댄스², 아트프로젝트 보라³, 이희문컴퍼니⁴, 박박⁵

프랑스: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Rencontres Chorégraphiques de Seine-Saint Denis)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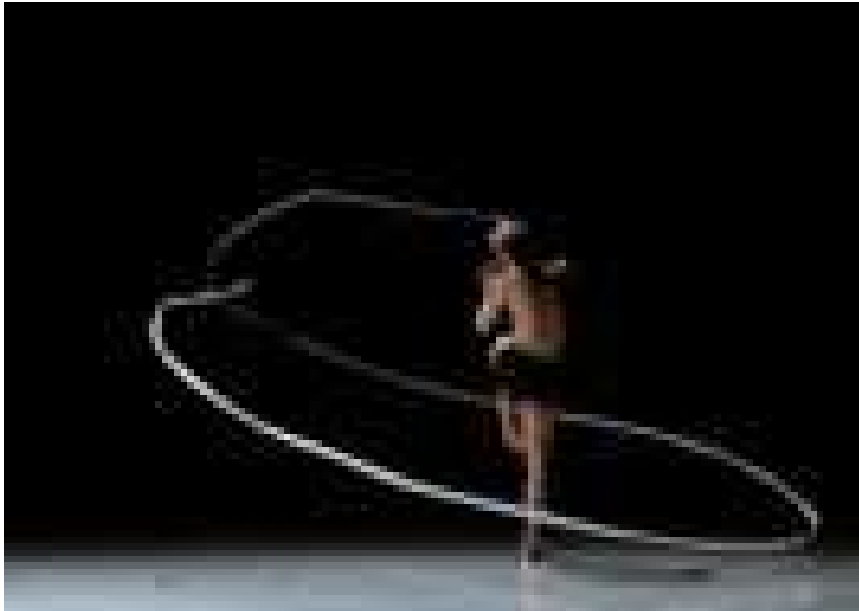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는 2002년부터 아니타 마티유(Anita Mathieu)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여 매년 5, 6월에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여러 극장에서 다양한 나라의 현대무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축제이다. 아니타 마티유는 개인적으로 한국 현대무용계와 30년 넘게 교류와 우정을 쌓아 가고 있다. 매년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SCF(서울 안무 페스티벌)에 참석해 한국 현대무용계의 분위기와 젊은 안무가들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예술감독이다.

2014년 김보라의 솔로 <흔잣말>을 센-생드니에 초청해 좋은 반응을 받은 것에 힘입어 2016년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6명의 군무와 4명의 라이브 연주자를 포함한 <소무>를 초청하였고, 그 외 3개 무용 작품과 박박, 이희문컴퍼니 등 2개 음악 작품을 초청해 ‘코리아 포커스’를 기획하였다. 본 고에서는 무용 작품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라 코뮌느-오베르빌리에(La Commune-Aubervilliers) 극장에서 5월 28, 29일 양일에 걸쳐 4작품을 올린 ‘코리아 포커스’는 총 공연 시간이 2시간에 육박해 관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 박상미의 차분한 솔로 <인 마이 룸(In my room)>으로 시작해 김요셉이 상모를 쓰고 남사당패의 애환을 신명으로 바꾸는 <곰뱅이 뽔다>에서 열두발 상모를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신선함으로 관심을 모아나갔다.

리케이댄스(LEE K. DANCE)의 <마음 도깨비>는 아니타 마티유에게도 새로운 시도로 한국 축(시댄스 콰아람 팀장)과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테크놀로지에

<곰뱅이 뽔다>© 김요셉



<소무>© 김근우

<인 마이 룸>© 아트프로젝트 보라

<마음 도깨비>© 옥상훈



대한 맹신과 쓴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신체와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자화상을 실력 있는 중진 댄서 이경은의 집중력 있는 솔로로 보여주었는데, 현대인 내면의 건조함을 그리는 전반부에서 치유의 과정인 ‘도깨비굿’으로 밀도와 강도를 높혀 중국에는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는 숨씨가 돋보인 작품으로 현지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 공연인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소무>는 여성의 신체에서 출발된 원초적 몸의 언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실험적으로 보여주어 환호를 받았다.

아니타 마티유는 “양국은 당연히 문화적 거리감이 크다. 바로 그 지점이 교류를 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프랑스의 기관이나 공연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 나라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에 많은 위험부담을 느낀다. 한국의 현대무용의 경우도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신 선택하는 것뿐이지 한국의 현대무용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속적으로 많이 보여주어 낯섬을 없애야 한다” 고 설명한다. 경험에서 나온 매우 정확한 현실 파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무용가들에 대해서 그녀는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매 순간 성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해외 무대 경험이 중요하며 많이 보여지고 칭찬받아야 한다. 이번 한국 특집을 통해 프랑스 관객은 한국의 현대춤이 매우 시적이라고 느꼈으며 매우 정신적인 춤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다. 그들의 춤은 매우 특출한 반면 음악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거칠었다. 음악이나 조명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룬다면 작품이 한층 더 훌륭해 질 것이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교류의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은 훌륭했지만 안무가나 단체의 기획력은 상대적으로 약해 진행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매우 잠재력 있는 기획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래되고 진정한 친구를 가진 것은 정말 행운이다. 자신의 페스티벌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아니타 마티유는 앞으로 한국의 프랑스 진출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 이지현)

레 뉘 드 푸비에르 축제

묵향
SCENT OF INK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6.08-2016.06.09. 리옹 대극장(Grand Théâtre Lyon)

주관기관

한국: 국립무용단

프랑스: 레 뉘 드 푸비에르(Les Nuits de Fourvièr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국립무용단의 <묵향(Scent of Ink)>이 프랑스 동남부 리옹(Lyon)에서 열리는 ‘레 뉘 드 푸비에르(Les Nuits de Fourvière) 축제’에 초청되었다. 한국 예술단체가 이 행사에 초청받은 것은 전 장르를 통틀어 처음이다. 1946년 시작되어 올해 70년을 맞은 ‘레 뉘 드 푸비에르 축제’는 매년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4천여 석의 로마식 원형 야외극장에서 연극·무용·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2003년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도미니크 델로름(Dominique Delorme)이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대형 무용 공연 초청이 많아졌으며, 이번 <묵향>의 초청도 아시아 무용 작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온 델로름 예술감독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또한 파리 오페라발레, 스페인 국립발레단, 이스라엘 바체바 무용단 등 대형 무용 공연의 세계 투어를 기획하는 파리 기반 전문 기획사 DLB(DLB Spectacles Performing Arts)도 협력했다.

이번 공연은 국립무용단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부담이 큰 공연이었다. 프랑스 출국 전날까지 계속되었던 무용단 정기 공연과 레 뉘 드 푸비에르 축제에 최초로 올라가는 한국 춤에 대한 현지 반응, 그리고 4천석 규모의 야외극장 무대에 간결하고 정제된 <묵향>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긴장을 동시에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공연은 현지 관객의 호평 속에 그야말로 한국 춤의 신드롬을 이끌어냈다. 공연 중 30분간 비가 내렸지만, 몰입한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고, 막이 내리자 앉았던 자리의 방식을 무대 쪽으로 힐끗 던지며 무용단을 축하하는 환호 속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이곳에서는 공연 전 관객에게 가벼운 방식을 나눠주는데, 공연단에 감사를 표하며 커피쿵과 양코르 때 무대로 방식을 날리는 전통이 있다). 리옹의 푸비에르 언덕 정상에 자리한 2000년 역사의 야외극장 무대 위로 흐르는 산조와 우아한 정가의 선율 속에 선보인 한국 전통춤의 아름다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무용단의 역사를 새로 쓰는 또 한 번의 사건이었다.



델로름 예술감독은 공연 직후 “한국의 테크놀로지는 익히 알고 있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낯설다. <묵향>은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섞여있고 섬세함과 유연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랑스의 저명한 무용평론가 엠마뉘엘 부셰(Emmanuel Boucher)는 주간지 <텔레라마(Télérama)>를 통해 <묵향>을 “우아함과 기술적 기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춤”이라 평했다. 양일간 공연을 찾은 5000여 명의 관객 역시 <묵향>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최고 수준의 한국 전통무용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공연”, “영상과 안무, 의상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는 등의 관객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연출과 디자인을 맡은 디자이너 정구호의 섬세함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작품 콘셉트가 프랑스인의 정서와 맞아떨어졌다. 무용과 의상, 음악 등 작품을 이루는 요소들은 모두 최대한 전통양식 그대로를 따랐지만, 간결해진 전통은 관객에게 동시대적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제시하며 한국무용의 무한한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검증해 보였다. 이 시대를 사는 전 세계 예술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전통의 현대화’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 무대였다.

DLB의 기획자 디디에 르베스큐(Didier Le Besque)는 또 다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인 ‘2015 칸느댄스페스티벌’의 개막공연이었던 국립무용단의 <회오

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이번 공연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해외에서 선보인 국립무용단 공연은 국가 교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교포들을 초청해 객석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 내 한국의 해’에 소개된 국립무용단의 공연들은 단순히 양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초청과 함께 심도 있는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을 비롯, 프랑스 유수 극장과 축제로부터 작품료와 체재비를 받는 조건으로 공식 초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해외 공연시장에서 한국 작품의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세계 무용계의 판도에 한국무용의 위상을 증명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교두보가 되어 한국 국립무용단이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도약을 꾀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글: 이익신 / 사진 제공: 국립무용단)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프랑스 포커스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 FRENCH FOCU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2016.09.24-2016.10.15. 예술의전당 외

프렐조카주 발레단/프랑스 국립 엑상프로방스 무용센터

<갈라 프렐조카주(Gala Preljocaj)>¹

2016.09.24~2016.09.25. 예술의전당

카롤린 칼송 무용단 <단편들-바람 여인, 블랙 오버 레드(BLACK OVER RED, 로스코와 나의 대화), 불타는>²

2016.09.28. 예술의전당

맨 드레이크 X 토메오 베르제스 <공공 해부학(Anatomia publica)>³

2016.10.01. 예술의전당

안 뢰뢰 무용단 <붉은 원(Red circle)>⁴

2016.10.08. 디큐브시티 디큐브광장

고무신 무용단 <한 감정 메모리>⁵

2016.10.09.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세실리아 벵골레아, 프랑스와 세노, 트라잘 하렐, 마를레느 몬테이루 프레이타스 <(ㅁ) | 모사, 스무 가지 모습 또는 파리는 저드슨 교회에서 불타고 있다 (M)>

2016.10.13.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주관기관

한국: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프랑스: 프렐조카주 발레단(Ballet Preljocaj-Pavillon Noir)¹,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², 맨 드레이크 X 토메오 베르제스(Man Drake X Toméo Vergès)³, 안 뢰뢰 무용단(Compagnie Yann L'heureux)⁴브로 바잡 프루(Vlovajob Pru), 고무신 무용단(Compagnie Komusin)⁵,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주최의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이하 시댄스)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인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와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을 초청하고, 프랑스 무용가가 포함된 작품 2개, 프랑스 안무가와 국내 무용전공생들과의 협업작품 1개 그리고 재발 무용가의 작품 1개를 초청해 총 6개의 작품으로 '프랑스 포커스'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올해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초연했던 안성수 안무의 <Immixture(혼합)>과 센 생드니(Seine-Saint Denis)와 시댄스(SiDance)가 공동 제작한 이경은 안무, 출연의 <마음 도깨비(Mind Goblin)>의 프랑스 진출을 도와주었던 인연으로 '후즈 넥스트(Who's Next)' 무대에 초청했으니 어느 행사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프랑스 현대무용을 볼 수 있는 행사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시댄스가 프랑스 작품 다수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획력을 보여준 것은 이종호 예술감독과 프랑스와의 오래된 인연 덕분이다. 그는 프랑스와 공식적인 교류가 있기 전부터, 1999년 리옹 댄스 비엔날레(La Biennale de la danse de Lyon) 예술감독의 방한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용단들을 소개하고, 2000년에는 홍승엽 무용단을 진출시키는 데 일조했다. 시댄스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전체 초청작 중 프랑스 작품이 70~80%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누벨당스(Nouvelle Danse) 경향의 작품들을 발빠르게 소개했고, 이후 프랑스의 중요한 축제에 한국작품을 추천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간의 활동이 올해 공식적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면서 무용단을 추천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제작까지 이끌어 내 교류의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시댄스 개막작은 프랑스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무용센터에 상주하는 발레리노 프렐조카주의 <베라탐으로의 귀환>, <전투가 지나간 풍경>, <스펙트럴 에버던스>, <라 스트라바간자>, <로미오와 줄리엣>, <정원>, <밤>, <수태고지> 등 8작품의 군무와 이인무, 독무로 꾸며진 <프렐조카주 갈라>를 올렸다. 본래 프렐조카주의 명성을 쌓게 한 대표작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초청하려 했으나 무용단의 신작 발표 일정이 초청 일정과 겹쳐 무용단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갈라 공연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이미 프렐조카주를 알고 있는 한국의 관객에게는 조금은 함량 미달의 개막작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카롤린 칼송의 <단편들> 역시 로스코(Mark Rothko)의 그림에 대한 카롤린의 응답격인 명작 <블랙 오버 레드(BLACK OVER RED, 로스코와 나의 대화)>를 초청해 73세 카롤린의 귀한 솔로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출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그녀는 영상 편지를 보내 관객에게 진심어린 사과 메시지를 전했고, <블랙 오버 레드> 공연은 축약 공연의 영상을 잠시 틀고 힙합 안무가 브라임 부슐라겜(Brahim Bouchelaghem)과 함께 작업한 <What did you say?(뭐라고 말했죠?)>로 대체되었다. 그 외의 소품 <바람여인(Wind Woman)>과



발레 프렐조카주(Ballet Preljocaj), <베라탐으로의 귀환>

<(ㅁ) | 모사, 스무 가지 모습 또는 파리는 저드슨 교회에서 불타고 있다(M)>

카롤린 칼송 발레단(Atelier de Paris-Carolyn Carlson), <불타는(Burning)>





고무신 무용단, 〈한 감정 메모리〉



맨 드레이크X토메오 베르제스, 〈공공 해부학〉

오랜 시간 카롤린 칼송 무용단에서 활동해온 한국 무용수 원원명을 위해 안무한 <불타는(Burning)>은 순조롭게 공연되었다.

프랑스 안무가가 포함된 협업작품은 카탈루냐 출생으로 1980년 프랑스에 정착, 1992년 무용단을 창단해 활동하고 있는 토메오 베르제스(Tomeo Vergés)와 맨 드레이크(Man Drake)가 안무한 <공공해부학(Anatomia pública)>이 연극과 춤의 경계에서 연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피지컬을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로 안무한 신선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세노(François Chaigneau)와 아르헨티나, 미국, 카보베르데의 4명의 무용가가 함께 만든 <◁▷ | 모사, 스무 가지 모습 또는 파리는 저드슨 교회에서 불타고 있다(M), ((M))MOSA, Twenty Looks or Paris Is Burning at The Judson Church (M)>는 안무, 음악, 노래, 역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작품으로, 렌스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활동 중인 역사가이자 무용가인 프랑수아 세노의 보수사회의 배제와 규율로 인해 정체성을 억압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심이 된 작품으로 주제성과 공연형식에서 프랑스 젊은 안무가의 실험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대담한 작품이었다.

<붉은 원(Red Circle)>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로 국내 체류중인 안 뢰뢰(Yann Lheureux)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 학생 13명과 함께 한 작품이다. 힙합 댄서로 출발해 2003년 몽펠리에 아틀리에 상주 안무가가된 안 뢰뢰는 장소와 정체성의 문제를 들뢰즈(Gilles Deleuze)의 탈영토화 개념에 기반해 무대 위에 붉은 로프로 큰 원을 만들어 놓고 그 원의 안과 밖의 공간을 무용수들과 함께 사유해 나갔다. 특히 이 작품은 야외용 공연으로 제작되었고, 사전에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 서울거리예술축제에 공동제작자로 참여해 많은 거리예술 관계자들의 초청과 관심이 이어지는 좋은 결과를 나갔다. 거리무용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프랑스 안무가들과의 협업이 극장무용 중심의 시댄스에서 거리무용이 이질감 없이 보여질 수 있었던 것도 올해 ‘프랑스 포커스’의 성과로 볼 수 있겠다.

2016년 4월 오리악 극장(Théâtre d'Aurillac)에서 초연한 고무신 무용단의 <한 감정 메모리>는 불문학과 출신인 안무가 이은영이 댄스시어터 온에서 2년간 활동한 후 1997년 프랑스로 건너가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L'école supérieure du CNDC D'Angers) 단원으로 활동하고, 2009년 이 무용단을 창단하여 춤을 통한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면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프랑스에 정착한 지 18년째인 그녀는 자신이 한국을 떠났던 당시 자신을 조여오던 한국의 가족문화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녀는 음악감독과 연출자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한국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포착했다. 한국인 안무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으로 한국문화의 주요 아이콘인 아리랑과 K팝, 그리고 전통 무술뿐 아니라 한국의 일상 문화와 거리 풍경을 주제성의 안과 밖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바라보고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또 무대 위에서는 여러 성격의 자아를 희화화시켜 자신과 세계가 때론 갈등하고 때론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라이브 기타리스트 1명과 솔로가 추어지는 단출한 소극장임에도 4개의 가로, 세로 스크린을 배치하여 극장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 시노그래피의 탁월함과 더불어 한국어와 불어를 넘나들며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프랑스식의 천진함과 발랄한 터치로 생동감 넘치게 다룬 것은 안무가 이은영의 그간의 생활에 충분히 녹아 있는 값진 것이었다.

이종호 예술감독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경험에 대해 “그간의 활동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 진출한 작품들은 명성이 한 단계 높아졌으며 이는 앞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할 경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교류 형태에 대해 고민 중이다. 프랑스 지역 축전용 극장 연하이나 중요한 공연예술 축제들과 연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무대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프랑스에 한국의 현대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시댄스는 명성을 갖춘 프랑스 대표 안무작들을 경제적 부담없이 프로그램할 수 있었으며, 그간 시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젊은 안무가의 다소 과감한 프랑스 작품들로 인해 젊은 관객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간 주변부에 있었던 거리무용 분야에서 꽤 단정한 신작이 나온 것과 <한 감정 메모리>와 같은 두 문화의 충돌지점을 품어낸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가 접촉되는 지점에서 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단순한 초청에서 한 발 나아가 프랑스와 한국의 안무가와 안무가, 안무가와 무용수의 두 국가 간 다양한 협업 모델을 시도하고, 다양한 규모의 공동제작을 추진하여 생산적인 교류를 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글: 이지현 / 사진 제공: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빛의 제국 L'EMPIRE DES LUMIÈR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5.17-2016.05.21.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CDN Orléan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3.04-2016.03.27. 명동예술극장

주관기관

한국: (재)국립극단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CDN Orléans)



<빛의 제국(L'Empire des Lumières)>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중 특별히 주목할 작품들 중 하나다. 명동예술극장과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CDN Orléans)에서 각각 한 차례씩 상연된 <빛의 제국>은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김영하 작가의 동명소설을 극화한 작품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1996)>, <아랑은 왜(2001)>, <검은 꽃(2003)> 등 10편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작가는 이미 프랑스 내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빛의 제국>은 <르몽드(Le Monde)>에서 "평범한 인생과 그 내면의 욕망에 대한 과감한 찬가이자 저항할 수 없는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은 대표작으로 프랑스 내 평단과 관객층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에 덧붙여, 수준 높은 연극을 제작해온 한국의 명동예술극장과 프랑스 오를레앙 지역의 문화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가 함께 하는 작업이라는 점, 한국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인이 연출한다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원작 <빛의 제국>은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 남한 대학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가담하고 그 세력을 키우라는 지령을 받고 납파된 간첩의 이야기다. 소설의 주인공은 북측 담당자의 실각과 함께 잊혀진 간첩으로 남한에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20년을 남한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아침, 북으로 귀환하라는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온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북으로 귀환해야한다. 소설은 남북 분단의 한국현대사를 배경으로 시작하지만 역사적 조건 속에 놓인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묵직한 주제의식과 전복적인 상상력을 그려낸 언어는 연출가 아르튀르 노지시엘(Arthur Nauzyciel)에 의해 언어가 아닌 시각적 미장센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빛의 제국>을 공연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온 아르튀르 노지시엘은 2015년 객석 점유율 95%라는 위업을 과시한, 작품 <스플렌디즈(Splendids)>의 연출가이다. 연극과 영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환상적인 미장센으로 호평 받는 그의 연출력에 브로드웨이에서 손꼽히는 무대 디자이너 리카르도 헤르난데스(Riccardo Hernandez)와 영상 디자이너 피에르알랭 지로(Pierre-Alain Giraud)가 합세하여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감각적인 무대로 만들었다. 원작의 주제의



식을 극화시킨 각본자, 발레리 므레장(Valérie Mréjen)의 공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너 자신조차도 너를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공연의 각색본은 소설의 주인공 김기영과 그의 아내 마리를 주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연출이자 공동 각색자로 참여한 아르튀르 노지시엘은 남녀의 관계성으로 작품이 축소되기를 원치 않는다. 남편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부인과 정체성을 숨기고 또한 이제 지워내야 하는 남편 간의 관계를 넘어 실존적 인간 간의 문제를 추적하려고 한다.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위해 발레리 므레장은 실제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 개인의 기억을 원작에 덧붙였다.

2016년 3월,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내 관객을 먼저 맞이한 본 작품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 역사를 묵묵히 지켜내고 새롭게 써가는 우리의 삶을 외국연출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면, 프랑스 오를레앙 국립극장을 찾은 프랑스 관객들에게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구도를 넘어 '인간실존'의 주제의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나눔의 장이 되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재)국립극단)

비나리 워크숍 및 투어 공연 BIN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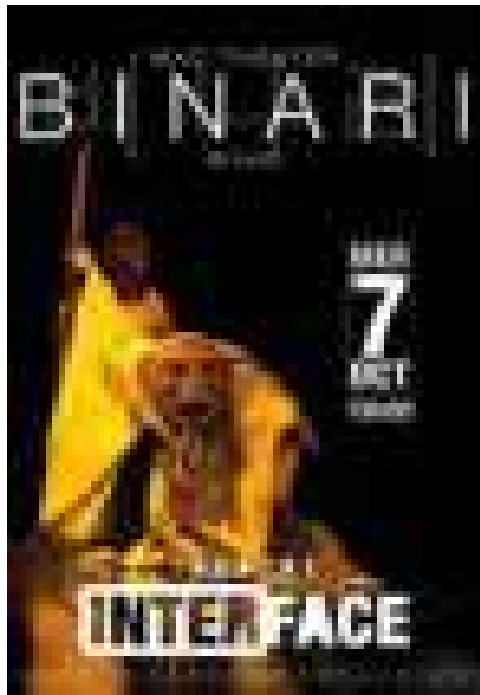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03-2016.10.22. 아스포델르 극장(Théâtre des Asphodèles),
테아트르 포퓔레르 베로놀리앙(Théâtre Populaire Vernolien) 외

주관기관

한국: 극단 맥

프랑스: 극단 에스파스 호조(Espace Roseau), 아스포델르 극장(Théâtre des Asphodèles),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극단 맥의 <비나리>가 2015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베르누이 쉬르 아브르(Verneuil-sur-Avre)의 테아트르 포퓔레르 베르놀리앙(Théâtre Populaire Vernolien) 극장에서 시작, 리옹의 테아트르 데 아스포델르(Théâtre des Asphodèles), 파리의 테아트르 드 알리앙스 프랑세즈(Théâtre de l'Alliance française), 그리고 스위스 시온시의 테아트르 앵테르파스(Théâtre Interface)까지 해외 공연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국내 관객과도 조우했다.

프랑스의 일간지 <라 데페슈(La Dépêche)>는 <비나리>를 공연 전, 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했다. “비나리는 아름답고, 강한, 그리고 감성적인 한 어머니를 기리는 공연이다. 또한 우리에게서 매우 이국적인 형식의 공연이기도 하다”며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한국 전통 제의형식의 공연”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소개 그대로 <비나리>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기초로, 극단 맥의 연출이자 대표인 이정남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창작극이다. <동래야류 영감할미 과장>을 해외 시장에 맞춰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하늘(천계/죽음)’과 ‘땅(속계/삶)’을 잇는 동서고금의 보편적 원리를 굿의 형식을 빌어서 완성했다.

이정남 연출의 판단은 정확했다. ‘한국의 전통적 어머니(동래야류 영감할미)’를 ‘보편적 어머니’로 확장시킴으로써 다른 문화권의 관객들을 이질감 없이 포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망자를 위로하는 ‘오구굿’을 공연에 접목시킴으로써, 한국이라는 지역단위 속의 특수한 어머니를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 주제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 어미의 몸부림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한 근원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떠나는 망자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한국전통의 제례형식은 의미적 차원 못지않게 이국적인 형식미로 프랑스 관객을 사로잡았다.

부산 동래구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의 저변 확대를 꾸준히 시도해 온 극단 맥의 이와 같은 성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10년 ‘사라예보 겨울축제(Sarajavo Winter Festival)’와 ‘이스탄불 아트센터’에 <비나리>를 들고 처음 해외시장으로 나설 때만 해도 한 지방극단의 외로운 고군분투였다. 그러나 차츰 그 노력에 작은 답이 오기 시작했다. 2013년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Festival Avignon Off)’ 참가는 해외무대의 초석을 다져주었다. 바로 테아트르 발콩(Le Théâtre Balcon)과의 국제 교류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물론 <비나리>의 완성도 높은 작품성이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큰 근거임은 말할 나위 없다.

2013년과 2014년 프랑스의 각종 언론 매체의 평은 <비나리>가 프랑스에서 어떤 위엄을 과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르 피가로(Le Figaro)>는 “한국의 작은 보석 같은 작품, 몰리에르(Molière)와 견줄만한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으며, <라 프로방스(La Provence)>와 <레 투아 쿠(Les Trois Coups)>는 “아비뇽에서 꼭 보아야 할 작품”으로 본 공연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한국 전통을 화려하게 표현한 신들의 세계로 초대”,

“절제된 색채감·신비스러우면서도 흥겨운 분위기” 등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고, 마침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이자,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센터스테이지 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다시 한 번 프랑스 관객을 찾아간 것이다. 총 4회의 공연에 700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으며, 베르누이 쉬르 아브르시는 질 높은 공연에 대한 답사로 예술단체나 예술가에는 최초로 기념메달을 증정했고, 이 소식이 지역 일간지 1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극단 맥의 개별적 성과만은 아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 연계해 국제 교류의 새로운 양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앙스 프랑세즈 한국위원회, 알리앙스 프랑세즈 파리, 그리고 부산 프랑스문화원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부산 지역 출신 문화인사들로만 구성해

양국 간의 상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알리앙스 프랑세즈(파리 소재)가 개최하는 최초의 한국문화 소개 행사로서 지역 문화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유산을 프랑스에 전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였다. 이는 더 이상 수도 중심, 주류 중심의 문화 소개가 아닌,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의 새로운 국제 교류의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극단 맥)



내 땅의 땀으로부터 À LA SUEUR DE MA TERR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8.28-2016.09.23. 라 무송 데테(La Mousson d'Été), 푸앵 오(Point H^{UT})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01-2016.10.04. 서울광장 외

주관기관

한국: 올웨이즈 어웨이크

프랑스: 극단 오스모시스(Osmosis Cie)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와 함께 주최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전신인 ‘하이서 울페스티벌’이 2013년부터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던 ‘거리예술’을 축제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하고자하는 의미에서 변경된 새 명칭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은 양질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 눈여겨 볼 작품이 바로 <내 땅의 땀으로부터(À la Sueur de ma Terre)>다.

프랑스 극단 오스모시스(Osmosis Cie)와 한국 올웨이즈 어웨이크(Always Awake)의 공동창작으로 탄생한 <내 땅의 땀으로부터>는 땅을 발판으로, 그 땅에서 흘린 땀의 가치로 삶을 영위해온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땅의 생명력을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그 본질과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작품이다. 예술감독이자 본 작품의 안무가인 알리 살미(Ali SALMI)는 <내 땅의 땀으로부터>의 작업을 위해 실제로 2015년부터 경상북도 군위와 경상남도 밀양의 농가에 머물면서 직접 농부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농민들의 삶 속에 침투해, 땅과 연대한 그들의 노동에서 안무의 기본 테마를 잡고,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농업, 특히나 이 땅, 대한민국 농민들의 삶을 옅곧이 작품에 투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덕분에 본 작품은 더욱이 공동 작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프랑스 안무가에 의해 구성되고 한국 예술인들에 의해 구현되어 양국의 관객을 만나는 작품. 서로 다른 국적의 예술가들의 협업은 기술적인 조우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극단 오스모시스와 한국 극단 올웨이즈 어웨이크, 양 극단의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술적 감성(Sensitivity)’, ‘현실(Reality)’ 그리고 ‘몸(Body)’을 화두로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이며, 15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공 예술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오스모시스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단체다. 과천한마당페스티벌과 광주국제공연예술제,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대학로거리공연축제(D.Festa) 등 한국 대표 축제에서 공식 초청받으며 한국 방문을 이어온 이래,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력 작업을 시도해 온 극단 오스모시스는 2013년 작품 <철의 대성당(Cathédrale d’acier)>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거리극단체 올에이즈 어웨이크와의 공동 작업을 선보였다. 이들의 첫 협업작품 <철의 대성당>은 프랑스 살롱거리극축제와 한국 과천한마당축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2015년에 안산거리극 축제에 다시 한 번 초청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극단의 두 번째 합작품 <내 땅의 땀으로부터>는 전작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2016년 9월 프랑스 푸앵오(Point H^{UT}) 공식 초청작, 2016년 9월, 10월 한국 서울거리예술 축제 공식 초청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초청 공연작으로 선정되었다.

프랑스 안무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땅의 땀의 가치는 관계자와 관객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기에 충분했다. 한국 전통 타악과 비트박스의 선율 위에서 움직임이

는 전문 댄서들과 실제 농부들의 움직임은 땅의 원시적 생명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신성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었다.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예술축제로, 더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리극축제로 성장해가는 초입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의 조우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공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 예술단체의 협업을 통해 공공예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저변 확대라는 초석을 마련해 준 것이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올웨이즈 어웨이크)



아동청소년 연극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아동극 <달래이야기>, <나무와 아이>¹

2016.01.12-2016.01.23.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 포커스

The 24th ASSITEJ Korea International Summer Festival: French Focus²

2016.07.20-2016.07.31. 대학로예술극장 외

주관기관

한국: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¹²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¹, 아시테지 프랑(ASSITEJ France)²



한국아동극 <달래이야기>, <나무와 아이>

어떤 공연이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에서 상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의 작품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극장에 한국 아동극이 집중 조명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프랑스가 자국의 아동극 외의 다른 나라 아동극을 집중 조명하는 일은 극장 개관 이후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무대 산’의 <달래 이야기>와 ‘더베프’의 <나무와 아이> 공연은 시작 전부터 국내외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예술무대 산의 <달래 이야기>는 2009년 스페인 티티리자이(Titirijai) 세계인형극제 최우수상과 2012년 세계인형극협회(UNIMA) 총회 및 축제에서 최고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공연이다. 작품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담스럽고 단란하게 지내던 가족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럽게 닥친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다. 어린 달래의 눈에 비친 전쟁과 그 안에서 다시 삶을 재건하려는 모습을 ‘예술무대 산’만의 예술형식으로 담아낸 가족극이다. 독특한 예술 형태와 진지한 작품성으로 국내에서 이미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무대 산은 전문 인형극단 중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형극 방식에서부터 인형극의 새로운 문법까지 다채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술무대 산’의 이번 작품 역시 유감없이 그 기량을 발휘하며 프랑스 평단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무와 아이>는 1997년 ‘어린이문화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연극 연구 단체로 출발한 더베프의 작품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극 연구 단체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모든 계층과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만큼 더베프의 작품들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작품 <나무와 아이>역시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세계적인 명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더베프’만의 철학과 예술미를 담아 원작의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제11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금상과 무대미술상을 수상한 수작이다. 같은 해에 태어난 나무와 아이가 사계절의 순환을 함께 겪으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언어보다는 이미지와 생경한 라이브 음악으로 전달해 관객에게 주제를 주입시키기보다 스스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위 두 작품은 양국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공연문화행사 중 유일하게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내 아동극을 전 세계 공연계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데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이하 아시테지)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아시테지는 연극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문화적 권리를



예술무대 산, <달래이야기>



더베프, <나무와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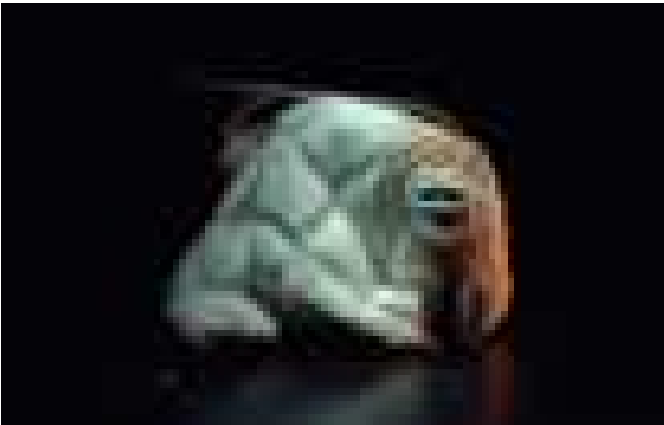
고양시킨다는 취지 하에 1965년 파리에서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관이다. 2016년 24회 국제여름축제, 그리고 12번째 겨울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테지 한국분부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아동극을 집중 조명함과 동시에 두 편의 한국 아동극을 이례적으로 파리시립극장 무대에 올려놓았다. 이는 향후 한국 아동극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신호탄이 기도하다.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 포커스

2016년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특별히 프랑스 아동 청소년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다소 어두운 경향을 해소하고 부대행사를 통해 프랑스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성과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 하에 2016 아시테지 축제는 ‘프랑스 포커스’를 따로 구성하여 총 세 편의 초청 공연과 한편의 합작 공연을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선택된 초청작은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프랑스 현지 문화원의 협조로 모믹스(Momix) 아동극 축제를 비롯하여 여러 극장의 관람을 통해 엄선된, 극단 아

극단 라수프, <비밀의 문>



극단 라벨 브뤼, <몬스터>



르코즘(Companie Arcosm)의 <바운스!(Bounce!)>, 극단 라수프(La Soupe Companie)의 <비밀의 문(Derrière la porte)>, 극단 라벨 브뤼(Collectif Label Brut)의 <몬스터(Mooooooooonstres)>다. 한불 합작작품의 경우는 앵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가 추천한 프랑스 연출, 도로테 사이솜바(Dorothée Saysombat)와 국내 극단 ‘손가락’과의 조우로 이루어진 <더클라우드(The Cloud)>가 국내 관객들을 맞이하였다.

공식 개막작으로 축제의 문을 연, 극단 아르코즘의 <바운스!>는 움직임과 음악을 위주로 한 무용극이다. 서로 다른 예술장르의 조화로운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아동극은 유치하다’는 고정관념을 일시에 날려버릴 만큼 완성도 높은 작

극단 아르코즘, <바운스>



품성으로 국내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더블베이스와 바이올린의 라이브 연주에 강렬한 몸짓의 무용수들이 어우러지며 ‘실패’와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열린 관점으로 제시한다. 이미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동극 축제, 모믹스 페스티벌(Festival Momix)과 독일 파놉티쿰 페스티벌(Festivals panoptikum)을 통해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작품 <비밀의 문>은 극단 라수프가 맡았다. 극단 명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이는 수프처럼 다양한 양식을 사용하는 인형극단이다. 인형술사, 마술사, 의상디자이너, 그리고 다재다능한 배우들이 모여 한편의 마술 같은 공연을 선보인다. 작품 <비밀의 문>은 주인공이 1번방에서 10번방까지 다채로운 오브제로 구성된 방을 모험하는 내용의 공연이다. 방문이 열릴 때 마다 객석은 다채롭게 쏟아지는 빛과 오브제의 향연으로 초대된다.

세 번째 작품 <몬스터>는 전문 오브제 극단 라벨 브뤼의 작품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간다. 잠들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덩그러니 남는 시간, 방의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느끼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친다. 작품명 ‘몬스터’는 두려움의 실체를 괴물로 시각화시켜 공포의 실체를 파헤침과 동시에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변형시킨다. 전문 오브제 극단답게 기발한 오브제들로 형상화한 괴물들의 모습은 객석은 어린 관객들을 사로잡음과 동시에 어른들에게도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지막 작품 <더클라우드>는 한-불 합작작품으로 국내 극단 손가락과 프랑스 극단 콩파니 아(La compagnie à)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심심하고 외로운 고라니가 화창한 어느 날 구름을 발견하고 친구가 되어 조건 없는 우정과 사랑의 감정으로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연출가, 도로테 사이솜바와 비언어적 메소드를 이용해 창의적인 작업을 추구하는 극단 손가락의 숙련된 배우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본 작품은 외로운 고라니의 친구인 구름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흐린 날과 맑은 날이 교차함을 내려티브로 깔고 있다. 어린이들이 보기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어린이를 무언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닌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친구로 인식하는 태도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대개 프랑스 작품은 다소 어두운 철학적 소재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묵직한 무게감이 과연 아동극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번 2016 아시테지 축제 ‘프랑스 포커스’는 공식 초청작과 합작작품의 상연 이외에도 프랑스 아동극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주최해 위와 같은 주제의식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프랑스 아동극에 대한 일반적 선입견을 해소하고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 프랑스 아동극계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예술무대 산, 더베프,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2016 아비뇽 페스티벌 FESTIVAL D'AVIGNON 2016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판소리만들가-자 <이방인의 노래>¹

양손프로젝트 <낮과 밤의 콩트>²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³

2016.07.06-2016.07.29. 테아트르 데 알르(Théâtre des Halles)

극단 맥 <꼭두>, <목이 마르다>⁴

2016.07.07-2016.07.29. 발콩극장(Théâtre du Balcon)

주관기관

한국: 판소리만들가-자¹, 양손프로젝트²,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³, 극단 맥⁴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Festival d'Avignon)^{1,2,3}



판소리만들가-자, <이방인의 노래>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은 프랑스의 남부 지방 아비뇽에서 매년 7월 3주 동안 열리는 세계 최고의 연극 축제다. 인구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도시는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의 연극 팬들이 몰려들어 활기를 띤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그리스 비극, 프랑스 광대극, 모던 댄스,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과 공연이 펼쳐지며, 광장과 거리, 수도원 등이 무대로 변신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의 시작은 프랑스 연극계의 거장인 연출가 겸 배우 장 빌라르(Jean Vilar)가 1947년 연극의 지방화를 내세우며 '아비뇽에서 예술의 주간'이란 주제로 아비뇽의 교황청 뜰에서 1주일 동안 개최한 소규모 지방예술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작품 등 3개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막을 열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주최 측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을 쿠르 도뇌르(Cour d'Honneur)를 비롯한 유서 깊은 아비뇽 시내 공연장과 야외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식(On) 페스티벌과 학교와 교회, 창고, 광장, 카페나 술집 등 일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비공식(Off) 페스티벌로 나뉜다. 한국은 1998년 '아시아의 열망(Désir d'Asie)'이라는 주제로 일본, 대만과 함께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되면서 공연 예술 단체가 유럽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이때 아비뇽 페스티벌이 국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아비뇽 페스티벌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세계 각국의 극단이 1400여 편의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한국 연극들을 테아트르 데 알르(Théâtre des Halles)라는 한 극장에서 주로 공연하는 '한국 연극 특집'이 마련됐다. 최근 아시아 연극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이 특정국을 테마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모파상 단편>, <이방인의 노래>,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꼭두>, <목이 마르다> 등이 세계의 관객들과 만났다(이 중 <꼭두>, <목이 마르다>는 172페이지 참조). 특히 <이방인의 노래>,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모파상 단편> 등 세 작품은 테아트르 데 알르에서 '한국 특집'으로 20여 차례씩 공연됐다. 테아트르 데 알르는 아비뇽 페스티벌의 중심 극장 중 하나로 이곳에서 공연되는 것 자체가 축제 기간 중 관객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최근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연극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번 공연은 한국 연극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 특집'을 맡은 알랭 티마르(Alain Timar) 테아트르 데 알르 극장장 겸 예술감독은 "특히 한국 연극의 에너지, 순수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필리핀·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작품과 비교했을 때 관객 입장에서 한국 연극은 생동감과 힘이 넘치며, 특히 한국 예술가들이 전통을 인식하고 배우면서도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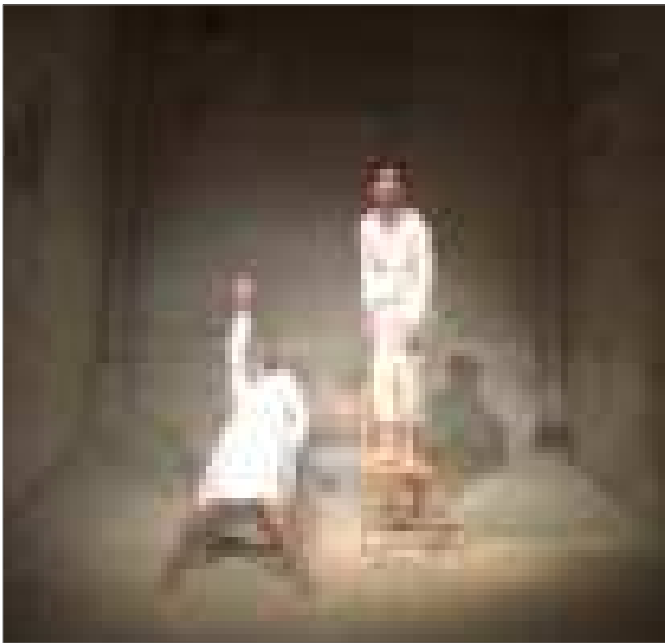
이번 페스티벌에서 <모파상 단편>을 무대에 올린 양손프로젝트는 모파상의 단편 <크리스마스>, <29호침대>, <전원비화>, <목가> 등 4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한 남자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 <29호침대>는 미남자 에피방 대위의 연애담, <전원비화>는 이웃한 두 개의 초가집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목가>는 어느 봄날 기차 안의 평온한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네 작품을 각각의 이야기에 적합한 서로 다른 연극 형식 안에 담아내는 시도를 통해 소설의 색다른 무대화가 돋보였다. 이 작품은 현지에서는 개성 있는 연출로 작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프렌치 유머'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판소리 만들기 자는 <이방인의 노래>로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방인의 노래>는 <백 년 동안의 고독>을 집필한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즈(Gabriel García Márquez)의 알려지지 않은 단편 <봉 부야야주 미스터 프레지던트!(Bon Voyage, Mr.President!)>를 원작으로 한 소리꾼 이자람의 작품이다.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병원 앰블런스 운전과 허드렛일로 근근히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부부에게 어느 날 고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으며, 세 인물 간의 만남과 삶,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들을 다룬 이야기다.



양손프로젝트, <낮과 밤의 콩트>

양손프로젝트, <낮과 밤의 콩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합작 공연이다. 프랑스 작가 아르튀르 아다모브(Arthur Adamov)의 작품으로 알랭 티마르가 연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연극원의 극단 돌곶이 단원들이 출연했다. 아르튀르 아다모브는 부조리 연극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다. 그의 작품은 등장인물을 삶과 죽음 앞에 놓이게 함으로써 극적 긴장감과 스릴러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연극 미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은 가상 국가에서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자 사람들의 분노가 정부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향하는 등 서로를 적대시하다 파국을 맞이하는 내용을 다룬다. 두 달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작품을 준비한 알랭 티마르 감독은 “음악 이면 음악, 무용에 가까운 안무는 물론 한국의 소리까지 주문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배우들에게 감탄했으며 그 덕에 작품이 노래와 움직임이 합쳐진 총체극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불 합작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한국이 유럽과 비슷한 이주 노동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유럽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 이슈로, 사회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비뇽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국 작품들은 다른 아시아 지역 작품들과는 차별을 이루는 개성과 에너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국이 보존하고 있는 전통성을 한국 연극의 커다란 장점으로 꼽았다. 알랭 티마르 감독은 “유럽만 해도 전통은 이제 지역문화에 국한돼 버렸다”며 “그런데 왕가부터 지금까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전통예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대적인 것도 좋지만 전통을 잘 보존하고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진도상장례의 음악이나 표현방식 등 한국은 예술가들의 창작에 영감을 주는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판소리만들가-자, 양손프로젝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극단 맥 & 극단 세르주 바르뷔시아 협업 공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 아비뇽 페스티벌 <꼭두>, <목이 마르다>¹

2016.07.07-2016.07.29. 발콩극장(Théâtre du Balcon)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목이 마르다>²

2016.05.20. 동래문화회관대극장

주관기관

한국: 극단 맥¹²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Festival d'Avignon)¹, 발콩극장(Théâtre du Balcon)²



극단 맥, <꼭두>

매해 5월 부산에는 ‘부산국제공연예술제’와 더불어 ‘부산국제공연예술축제 –Mac Off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된다. 전자가 제법 굵직한 국제공연예술제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후자는 올해 겨우 5회차를 맞는,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축제다. 그런데 이 소규모 축제가 당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올해 ‘Mac-Off 페스티벌’은 부산문화재단, 부산 프랑스문화원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주치가 되고 부산문화재단, 동래문화회관, 그리고 극단 맥이 주관이 되어 일주일간 총 9편의 공연이 상연되었다. 그 중 ‘프랑스 주간 프로그램’에 초청된 극단 세르주 바르뷔시아(Cie Serge Barbuscia, 극단명과 연출가의 이름이 같다)의 <목이 마르다(J’ai soif)>는 독특한 미장센과 구성으로 관객의 호평을 얻어냈다.

작품 <목이 마르다>는 프리모 레비(Primo Levi)의 자전적 이야기 <이것이 인간인가(Se questo è un uomo)>와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의 현악4중주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Seven Last Words)>, 그리고 무대 영상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형태의 다원예술작품이다. 빛에 의해 입체적으로 변화하는 환상적인 무대 위에 아름다운 현악4중주를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무대를 찾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데 공연의 여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즉, 아름다운 무대와 음악만이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소 묵직한, 그러나 근원적인 질문, ‘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가슴으로 쑥 박혀 들어오는 것이다. 연출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프리모 레비의 모습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교차시킨다. 마지막 순간의 모욕과 고통 속에서 이들이 공통으로 내뿜은 말이 이 작품의 제목이 되었다. 본 작품의 연출이자 배우로 출연한 세르주 바르뷔시아는 “목이 마르다”라는 한마디 말 속에 그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상처를 들여다본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수작을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지원과 더불어 극단 맥의 이정남 대표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해외 공연의 성공적인 초청은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좋은 작품을 선별하는 데 달려 있다. 이번 작품은 극단 맥과 프랑스 아비뇽의 발콩극장(Théâtre du Balcon)의 성공적인 문화 교류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이정남 대표는 해외 초청 공연의 중요 요소로 무엇보다 상호 간의 신뢰를 꼽는다. 기본적인 신뢰 속에서 작품의 질적 차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 맥과 극단 세르주 바르뷔시아는 발콩극장을 거점으로 그들의 인연을 시작하였다. 먼저 손을 잡아준 것은 발콩극장의 극장주 세르주 바르뷔시아다. 극단 맥의 <비나라>를 보고 발콩극장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발콩의 <빅토르 위고>가 국내에 초대되었고, 다시 2016년 7월 7~29일 극단 맥의 <꼭두>와 <목이 마르다>가 아비뇽 발콩극장 무대에 올랐다.

<꼭두>는 2008년 부산연극제 대상과 전국 연극제 금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에 참가하는 등 작품성을 이미 인정받았다. <꼭두>는 초시간적인 주제를 전통적인 색채로 각색해 다루며, 이승과 저승, 산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장소에 동시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특이한 내세관을 통해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본 가족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작품이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하며 충돌을 통해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과 관계로 맺어지고 충

돌하며 중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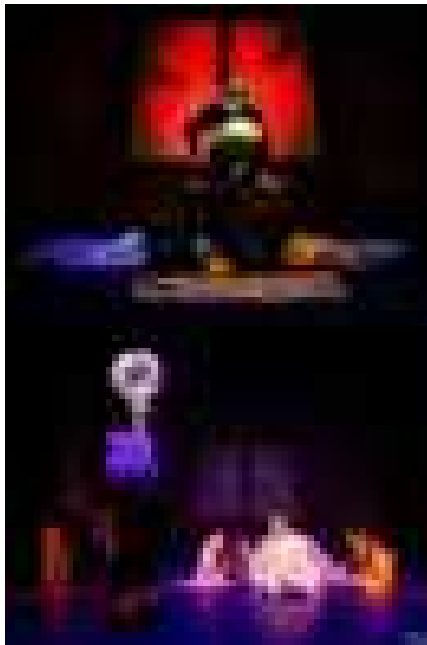
이제 극단 맥과 세르주 바르뷔시아 두 극단은 대관료와 초청비 없이 공연의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의 공동 제작·기획 형태로 협업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도시 부산과 바다 건너 프랑스 아비뇽(Avignon)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극단간의 협업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16 부산국제공연예술축제 –Mac Off 페스티벌이 겨우 5회차를 맞는,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축제다. 그런데 이 소규모 축제가 당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과 중앙에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산 동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방축제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지난 4년간 진행되어 온 Mac-Off 페스티벌의 지난했던 성장과정에 대한 결과이며, 향후 부산 동래의 지역문화 역시 프랑스 아비뇽처럼 세계적인 연극축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신뢰가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부산국제공연예술축제 –Mac Off 페스티벌’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만남은 국제 교류의 좋은 선례를 제시한다. 즉, 프랑스 공연의 국내 소개라는 일차원적인 재정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공연팀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긍정적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 부산, 그곳에서도 작은 동네 동래, 이 작은 마을이 세계 공연계의 메카가 될 그 날을 잠시 꿈꾸어 본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극단 맥)

<꼭두>

세르주 바르뷔시아,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 프랑스 포커스

THE 13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FRENCH FOCU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5.06-2016.05.15. 부산문화회관 외

주관기관

한국: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프랑스: 레 무통 누아르(Les Moutons Noir)

매해 부산의 봄을 알리는 ‘부산국제연극제’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주간’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극단 레 무통 누아르(Les Moutons Noir, 이하 LMN)의 세 작품이 초대되었다.

5년 전, 악셀 드루히(Axel Drhey), 롤랑 부루히(Roland Bruit), 베르트랑 소니에(Bertrand Saunier), 파올라 세크레(Paola Secret), 야니크 로뱅(Yannick Laubin)에 의해 창단된 극단 LMN는 2010년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주의 작가, 몰리에르(Molière)의 작품 <수전노(L'Avare)>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면서 평단과 관객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에서도 LMN의 대표작인 <수전노>를 필두로 안톤 체홉(Anton Chekhov)의 단편을 엮은 소극 <사랑에 관하여(Des Amours)> 그리고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운문극 <루이 블라스(Ruy Blas)>로 연극제의 폐막을 장식했다.

매해 새로운 콘셉트로 공연계의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올해 주제는 ‘근대 작가잔’이다. 현대연극의 시발점을 연 근대작가들의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공연계의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따라서 국제연극제위원회는 ‘프랑스 주간’에 맞춰 다양한 극단의 소개보다는 프랑스 자국의 근대 작가들을 현대적인 리더치로 소개하는 LMN의 작업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LMN는 <프랑스 주간>의 시작을 몰리에르의 <수전노>로 열었다. 몰리에르는 코르네이유(Corneille), 라신느(Racine)와와 더불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주의 작가다. LMN은 이번 한국 공연에서 특유의 즉흥성을 살려 국내 관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예컨대 불어의 ‘무엇’을 뜻하는 ‘꾸아(Quoi)’와 한국어 ‘악과’의 발음을 중의적으로 섞어 국내 관객들과 즉흥적으로 만나려는 시도라든지, 수전노 알파공을 통해 노인 치매와 노령화문제를 다루며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관객들에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유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선보인 작품 <사랑에 관하여>는 체홉의 단막극 <청혼>, <담배의 해악에 관하여>, <곰>을 한데 엮어 만든 30분 분량의 짧은 소극이다. 체홉은 프랑스 작가는 아니지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근대 작가로 체홉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더불러 러시아 작가의 세계를 이 시대 프랑스인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담아낼지가 호기심으로 작용했다.

청혼할 여자와 어이없는 오해로 언쟁이 붙은 남자(청혼), 담배보다 해로운 아내에 대한 한탄을 풀어놓는 또 다른 남자(담배에 해악에 관하여), 그리고 죽은 남편의 빚을 독촉하러온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곰).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 주제 안에서 삶을 관통하는 체홉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루이 블라스>가 연극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과



레 무통 누아르, <루이 블라스>

제는 인생의 미(Sublime)와 추(Grotesque)를 모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가 위고의 운문극이다. 운문극이란 말 그대로 언어의 리듬감과 음악성을 강조하는 극의 형태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운문극으로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파우스트(Faust)>가 있다. LMN 배우들은 불어 특유의 리듬감을 이용해 관객을 그들의 극 안으로 포섭했다. 이때 불어는 단순히 외국어가 아닌 국경을 넘는 하나의 음악으로 인지된다. 여기에 극 중간 중간 삽입되는 라이브 연주는 그 흥을 더욱 고조 시켰다. 아마도 객석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해되지 않는 외국어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의 타문화였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주간’을 맞이하여 선보인 이 세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근대 연극적 유산이 어떻게 이 시대에 통용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성과이자 부산국제연극제의 성과이기도 하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우수한 국내·외 공연들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시민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 시킨다는 취지아래 지난 2003년에 출범 하였다. 그러나 지난 12년간의 부산국제연극제의 결실은 비단 지역문화신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명실 공히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유망 극단들을 해외로 연결시키는 프로모터

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세계적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오프페스티벌(Le Off d'Avignon)과 공식협력협안을 체결, ‘Go World Festival’을 통해 선발된 국내 단체의 공연을 아비뇽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해외 공연예술 축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프랑스 주간’을 빛낸 극단LMN의 초청 역시 다년간 해외 작품을 선발해온 전문위원의 노하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경제적 지원이 ‘프랑스 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레 무통 누아르, <수전노>



로베르토 주코 ROBERTO ZUCCO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23-2016.10.16. 명동예술극장

주관기관

한국: (재)국립극단

프랑스: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 류니옹 극장(Théâtre de l'Union - Centre Dramatique National du Limousin)

<로베르토 주코(Roberto Zucco)>는 극작가 베르나르마리 콜테스(Bernard-Marie Koltès)의 작품으로, 1990년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Schaubühne) 극장에서 연출가 페터 슈타인(Peter Stein)에 의해 처음 상연된 후 전 세계에서 꾸준히 무대화 되고 있는 현대 문제작 중 하나다. 국립극단이 본 작품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신청한 데는 '고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만만치 않은 야심이 담겨 있다.

공연이 상연된 명동예술극장은 1934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민국 근대 문화예술의 선구적 역할을 한 곳이다. 비록 1975년 폐관되었지만, 한국 근대문화를 상징하는 명동예술극장의 복원에 대한 각계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관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국립극단과 통합됨으로써 명동예술극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예술단체로서, 다시 한 번 한국 공연계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명동예술극장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선보일 작품 선정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우선,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가 아닌, 국립단체의 직접적인 국제 교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관 이후 줄곧 '한국 근대작품의 재발견과 더불어 서양 고전작품의 현대화'라는 명동예술극장만의 변별성을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공고히 해야 했다.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은 이번 작업에 관해 "콜테스의 작품 세계와 문화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출을 통해 현대고전에 실험적, 현대적으로 접근하되 고전이 가진 근본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국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되기 일쑤인 세계고전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현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베르나르-마리 콜테스의 작품 세계를 유럽 연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관점을 다시 우리 배우들이 소화해내는 과정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고전'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당당한 야심이었다. 이를 위해 백석광, 김정호, 김정은, 문경희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국내 배우들과 프랑스 스텝들이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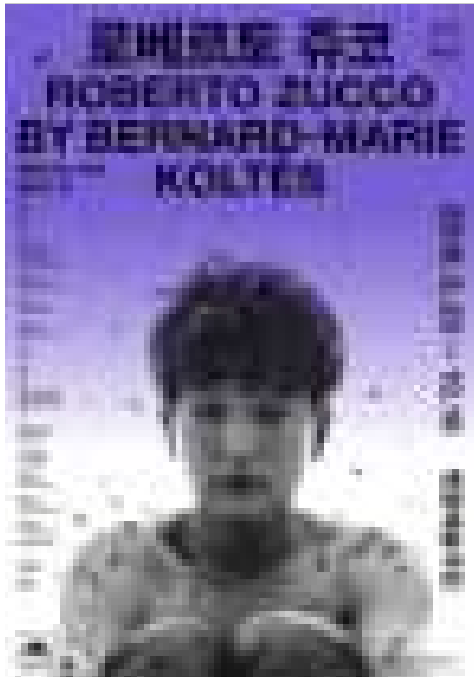
5년 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프랑스 연출가 장 랭베르빌트(Jean Lambert-wild)와 스위스 연출가 로랑조 말라게라(Lorenzo Malaguerra), 두 연출은 35년 전 유럽 사회를 전 대미문의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탈리아의 연쇄살인마 '로베르토 주코'의 무차별성 폭력은 비단 한 개인의 비정상적 일탈이 아닌, 여전히 이 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유언장 같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양부모를 살해하고 정신병동감옥에서 탈출, 적어도 유럽 내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며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주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베르나르-마리 콜테스의 작품 <로베르토 주코>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폭력성이 들어있다. 인간성의 한 축을 형성하는 폭력의 근원을 고발함으로써 현대 고전작가 반열에 이름을 올린, 베르나르-마리 콜테스는 천재적인 연쇄살인자의 충격적 살인 현장 고발에 집중하지 않는다. 살인자와 피살인자 사이의 관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라는, 군중을 향한 살인자의 독백을 통해 전 대미문의 살인마, 로베르토 주코는 바로 우리 자신의 들추고 싶지 않은 어둠임을 밝힌다.

연출을 맡은 장 랭베르빌트와 로랑조 말라게라는 이번 공연에서 "원작에 담겨있는 광기, 폭력, 비극 뿐 아니라 유머, 부드러움, 경쾌함까지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주코는 서양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로 희곡의 배경인 유럽을 벗어난 한국 배우들의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고 이야기했다.

두 연출의 포부와 기대처럼, 공연은 주코 역을 맡은 배우 백석광과 국립극장 시즌단원들의 조화로운 앙상블로 원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수작으로 완성되었다. 프랑스어로 창작된 원본의 뉘앙스는,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연출과 국내 배우들의 협업으로 잘 전달되었다. 이는 원작을 오역 없이 옮김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고전'을 무대화하겠다는 명동예술극장의 새로운 도전의 성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도전은 한-불 양국 간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재)국립극단)



코뿔소 RHINOCÉRO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28-2016.10.30.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주관기관

한국: 국립극장

프랑스: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



국립극장은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2004년 초연 이후 12년 넘게 영국 바비컨센터(Barbican Center), 미국 브루클린 음악원(Brooklyn Academy of Music), 일본 사이타마 예술극장(Saitama Arts Theater) 등 세계 유명 극장과 페스티벌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엠마뉼엘 드마르시모타(Emmanuel Demarcy-Mota)의 <코뿔소(Rhinocéros)>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초청작으로 달오름극장에 올렸다.

에마뉼엘 드마르시 모타는 극장에서 연출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으로 현재 프랑스 공연예술계의 주요 인물로 손꼽힌다. 1988년 고교시절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칼리굴라(Caligula)>로 연극계에 입문한 그는, 이후 <병사 이야기(The Soldier's Tale)>(1993-1994), <사랑의 헛수고(Love's Labour's Lost)>(1998), <마라 사드(Marat-Sade)>(2000), <코뿔소>(2004), <카지미르와 카롤린(Casimir et Caroline)>(2009)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Victor ou les Enfants au Pouvoir)>(2012) 등 내놓는 작품들마다 독보적인 연출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프랑스 스타 연출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코메디 드 랭스(Comédie de Reims)의 예술감독을 지냈고, 2008년부터 현대 공연계의 최전선인 파리시립극장의 극장장으로 활약 중이며 2009년부터는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의 예술감독직을 겸하고 있는 그가 한국 관객들과 연을 맺은 건 지난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서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식 개막작으로 <빅토르 혹은 권좌의 아이들>을 내놓으며 프랑스 연극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3년 만에 <코뿔소>를 가지고 그가 다시 돌아왔다.

<코뿔소>는 현대 연극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외젠 이오네스코(Eugène Ionesco)의 동명 희곡을 극화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이오네스코가 일약 세계적인 극작가

의 대열에 오른 것처럼, 엠마뉼엘 드마르시모타 역시 공연 <코뿔소>로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급 연출가가 되었다. 동시대적 해석과 스타일리시한 연출로 2004년 초연 후 현재까지 파리시립극장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건재하는 <코뿔소>는 꾸준한 해외 투어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평화로운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둘 코뿔소로 변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간으로 살아 남기 위해 투쟁하는 소시민 베랑제(Béranger)의 이야기를 통해 나치즘의 집단성과 광기를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는 엠마뉼엘 드마르시 모타 특유의 감각적인 미장센과 영민한 작품 해석력으로 21세기 관객들과 다시 조우하였다.

엠마뉼엘 드마르시모타의 <코뿔소>는 인간이 코뿔소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각적 묘사보다 그 변이 과정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한다. 예컨대, 여러 단으로 구성된 무대 바닥은 장면별로 상승되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며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코뿔소로 변할 것인지' 고민하는 인간의 심리나 위태로운 상황들을 절묘하게 표현한다. 엠마뉼엘 드마르시모타는 자아정체성을 군중과의 동질성 속에서 찾으려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코뿔소'가 지닌 의미를 찾는다. 따라서 인간성을 상실한 무리에 속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남고자 하는 베랑제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을 인간 실존에 관한 본질적 질문에 직면시키며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12년 전 초연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초청작으로 국립극장을 찾은 <코뿔소>는 다시 한 번 프랑스 연극의 저력을 과시하였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국립극장)



테크노파레이드 :한국주빈국

<서울 밤!> 투어 SEOUL BAM!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17-2015.10.04 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

그랑 리바주(Grand Rivage) 외

주관기관

한국: 페이크버진

프랑스: 테크노폴 - 테크노 파레이드(Technopol-Techno Parad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일환으로 공연전문기획사 페이크버진(Fake Virgin)은 프랑스에서 ‘<서울 밤!(Seoul BAM!)> 투어’를 진행했다. 한국의 일렉트로닉 음악가와 디제이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2015년 9월 19일 파리의 테크노 파레이드(Techno Parade)를 비롯하여 같은 날에 열린 그랑드 리바주(Grand Rivage), 24일 파리 일렉트로닉 위크(Paris Electronic Week), 25일 제2회 거리음식축제(Street Food Temple#2), 26일 릴3000(Lille3000)으로 이어졌다.

‘서울 밤! 투어’를 주관한 페이크버진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0명이 넘는 해외 인디 뮤지션들의 내한공연 기획과 진행을 맡아온 공연전문 기획사이다. 또한 국내 아티스트들의 아시아 및 해외 투어에도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한국의 테크노 디제이이자 사운드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디제이 머쉬(Mushxxx), 수리(Soolee) 등이 참가하여 총 5회의 공연을 4일 동안 선보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공연은 9월 19일에 개최된 테크노 파레이드로, 테크노 음악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디제이하는 부스가 설치된 수십 대의 버스가 파리 시내 곳곳을 행진하며 진행되는 거리축제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던 만큼 ‘서울 밤! 투어’라는 타이틀을 단 버스가 선두를 이끌었으며, 버스가 멈추는 곳에선 음악과 함께하는 파티가 진행되었다. 같은 날 진행된 그랑드 리바주는 버스들이 센 강변 근처에 멈춰 진행되는 애프터 파티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25일의 제2회 거리음식축제, 26일의 릴3000은 음악 외에 음식과 여러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교류하는 페스티벌이었다. 2014년 9월에 첫 문을 연 스트리트푸드 템플은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거리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리 음식과 록 일렉트로닉 음악 등 대중음악이 융합하여 젊은이들이 즐기는 거리 문화로 안착하고 있다. 2015년 제2회 거리음식축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다. 문화공간 카로 뒤 탕플 외부에 1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한국의 전통·퓨전 거리음식이 소개됐다. 또한 실내에는 과일 소주, 과일 막걸리, 주스, 컵테일, 한국 전통차 등을 판매할 주점과 한식 아틀리에, 한국 식료품점이 설치되었다.

2006년에 시작된 릴3000 페스티벌은 3년을 주기로 열리는 페스티벌이다. 인도와 관련된 음악·영화·연극·춤 전시를 첫 해에 선보였던 릴3000은 매 행사마다 특정 국가와 도시를 선정하여 그 나라와 도시를 총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네 번째 시즌이었던 2015년은 ‘서울’을 테마로 했고, 페이크버진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리는 공연을 가졌다.

이번 투어는 2015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프렌치 미라클 투어’(3월 4일·7일)의 기획을 페이크버진 허지영 대표가 도와주면서 생긴 인연으로 진행·확장되었다. ‘프렌치 미라클 투어’는 프랑스에서 한창 떠오르고 있는 팝·락 일렉트로닉 신의 뮤지션을 보여주는 콘서트 투어다. 이것을 주관하는 리바이벌 에이전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찰

스는 프랑스인으로, 한국의 인디 신과도 여러 작업을 함께 해온 이력이 있다. 예전부터 허지영 대표와 친분이 있던 그는 허지영 대표로부터 진행에 필요한 여러 도움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2015년 9월에 열린 테크노 파레이드에 페이크버진 소속의 음악가들을 초청했다고 한다. 또한 찰스는 프랑스의 여러 페스티벌과 인디 신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여 프랑스를 방문한 한국의 음악가들이 파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페이크버진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부터 항공료를 지원 받았고, 한국의 음악가들은 프랑스의 각 공연 주관주체로부터 소정의 연주료를 지급 받았다.

허지영 대표는 “투어를 계기로 한국의 디제이와 뮤지션들이 프랑스와 연결이 잘 되었고, 2016년에도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다”며, “프랑스와 유럽의 뮤지션 국내 초청에도 그 통로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페이크버진)



이디오테이프 투어 IDIOTAP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25.-2016.12.05. 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 외

주관기관

한국: 브이유엔터

프랑스: 디오니시아크 투어(Dionysiac Tour)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로 그룹 이디오테이프의 프랑스 투어가 있었다. 이디오테이프는 2015년 9월 25일 파리 제2회 거리음식축제, 26일 릴3000(Lille3000)과, 같은 해 12월 5일에 레 트렌스뮤지칼(Les Transmusicale)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가졌다. 세 곳의 공연 모두 50-60분 동안 진행되었고, 이디오테이프의 대표곡인 <에어드롬(Airdrome)>, <플루토(Pluto)>, <멜로디(Melodie)>, <이븐플루어(Even Floor)> 등을 선보였다.

이디오테이프는 디구루(신시사이저), 제제(신시사이저), 디알(드럼) 남성 3인으로 구성된 일렉트로니카 그룹이다. 1.2집의 정규음반 외에 4장의 비정규음반을 발매했으며, 2012년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프랑스 투어 전에 이디오테이프는 영국 글레스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네덜란드 문디알 페스티벌(Festival Mundial), 독일 퓨전 페스티벌(Fusion Festival), 세르비아의 엑시트 페스티벌(Exit Festival), 포르투갈 FMM 시네스 페스티벌(Festival Músicas do Mundo)을 투어하며 유럽의 일렉트로닉 음악 시장에서 활약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레 트렌스뮤지칼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이렇듯 유럽의 주요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디오테이프는 프랑스 부킹에이전시 디오니시아크 투어(Dionysiac Tour)로부터 제의를 받았다. 계약 이후 디오니시아크 투어는 그들이 프로모션하는 프랑스 내의 페스티벌에 이디오테이프를 소개했고, 여러 페스티벌들이 이디오테이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이디오테이프는 프랑스의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지원했고, 1차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원래 디오니시아크 투어와 함께 기획한 페스티벌은 4-6곳이었으나 최종 2곳의 페스티벌로 확정되었다. 페스티벌, 공연장 선정은 디오니시아크 투어가 현지에서 조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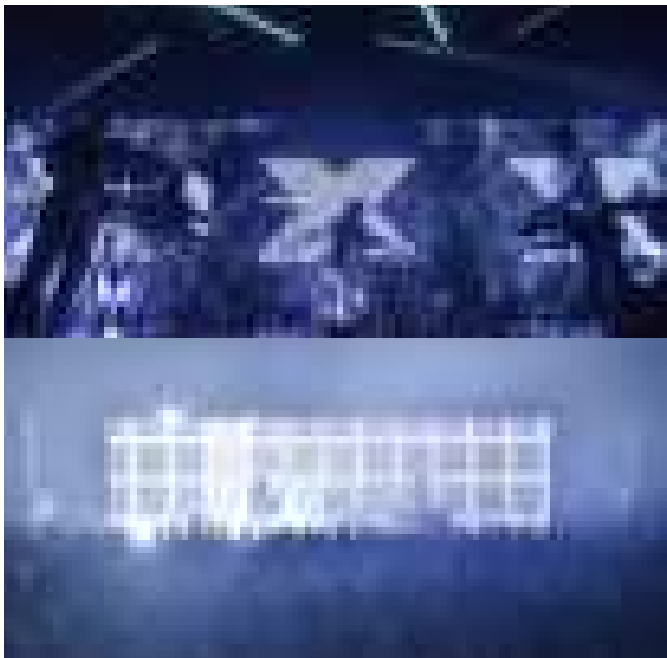
이디오테이프가 참가한 제2회 거리음식축제(9월 25일), 릴3000(9월 26일)은 음악 외에 음식과 여러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적 비중이 큰 페스티벌이었다. 2014년 9월에 첫 문을 연 제2회 거리음식축제는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거리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리 음식과 록 일렉트로닉 음악의 대중음악이 융합하여 젊은이들이 즐기는 거리 문화로 안착하고 있다. 2015년 거리음식축제-카로 뒤 탕플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다. 문화공간 카로 뒤 탕플 외부에 1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한국의 전통 퓨전 거리음식이 소개됐다. 또한 실내에는 막걸리, 주스, 칵테일, 한국전통 차 등을 판매하는 주점과 한식 아틀리에, 한국 식료품점이 설치되었다. 이디오테이프는 9월 25일에 있었던 개막 공연에 초청되었다.

2006년에 시작된 릴3000 페스티벌은 3년을 주기로 열리는 페스티벌이다. 인도와 관련된 음악·영화·연극·춤·전시를 첫 해에 선보였던 릴3000은 매 행사마다 특정 국가와 도시를 선정해 그 나라와 도시를 총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네 번째 시즌이었던 2015년은 ‘서울’을 테마로 했고, 이디오테이프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알리는 공연을 가졌다.

제2회 거리음식축제, 릴3000은 음악보다는 문화 전반의 교류에 중심을 두었다. 이디오테이프의 공연 역시 공연, 전시, 음식 등을 이루는 여러 섹션 중의 하나였다.

반면, 12월 5일 레 트렌스뮤지칼 페스티벌은 촉망 받는 음악가들을 발굴 및 소개하는 성격이 강한 페스티벌로 이디오테이프의 음악성을 보다 진지하게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서의 공연 이후 이디오테이프는 2016년 9월 25일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 6월 9일 라 보빈(La Bobine), 9월 24일 페스티발 칼루 방(Festival Kaloo Bang), 10월 1일 레 실렉스(Les Sillex) 등에서 공연을 펼치는 후속 성과를 거뒀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브이유엔터)



엠-더 엑스트라오디너리 라이브 쇼 M-THE EXTRAORDINARY LIVE SHOW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3.24. 서울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주관기관

한국: 소닉아일랜드(Sonic Islands)

프랑스: 카이구안 컬처(Kaiguan Culture)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 뮤지션 마티유 셰디드(Matthieu Chedid)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을 방문했다. ‘엠(-M-)’이라는 스테이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유 셰디드는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 바 있지만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콘서트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현대카드 큐레이티드(Hyundai Card Curated)’에서 기획한 공연이다. ‘현대카드 큐레이티드’는 잠재력이 큰 신예,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가진 아티스트를 선별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공연은 앞서 현대카드가 2016년 1월 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루 드와이옹(Lou Doillon) 콘서트에 이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으로 개최한 프로그램이었다. <엠-더 엑스트라오디너리 라이브 쇼(M-The Extraordinary Live Show, 이하 엠)>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주간을 기념해 펼쳐진 공연이었다.

‘엠’은 홍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의 아시아 투어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공연도 함께 계획되었다. 이번 공연의 한국 측 주관을 맡은 소닉아일랜드(Sonic Islands)는 2011년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 프로덕션 및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 국내 주요 음악페스티벌에서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 공연을 진행한 바 있다. 프랑스 측 주관을 맡은 카이구안 컬처(Kaiguan Culture)는 2000년 설립되어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문화교류 전문 에이전시로 이번 ‘엠’의 아시아 투어 주관사다. 공연이 진행된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Understage)는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장르를 공연할 수 있는 이태원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밴드인 포에닉스(Phoenix)에서 활동해 온 드럼 연주자로 마티유 셰디드와는 2012년부터 함께해온 로랑스 클레(Lawrence Clais), 기발한 사운드의 샘플러가 붙어있는 독특한 기타와 베이스를 연주하는 브래드 토마스 아클레 (Brad Thomas Ackley), 그리고 미국 힙합의 전설 드 라 소울(De La Soul)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 날 공연의 주인공인 마티유 셰디드는 1990년대 말 혜성같이 등장해 록과 샹송 그리고 펑크가 결합된 독특한 그만의 음악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뮤지션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모든 나라를 음악으로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다. 기타 마스터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탁월한 연주 능력과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프랑스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악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독보적인 음악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영화 음악 작업과 애니메이션 목소리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다.

공연 당일인 3월 24일에는 많은 관객들이 일찌감치 공연장 앞을 메우고 있었다. 입장 대기를 하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불어가 들리는 현장 분위기를 통해 마티유 셰



디드의 프랑스어 권역에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500인 규모의 스탠딩 공연으로 8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연에서는 프랑스인이 삼분의 일 이상 차지했으며, 그들은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했다. 1971년생으로 오십 줄을 내다보는 마티유 셰디드는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관객석으로 몸을 날리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들은 물론 그의 신작 앨범인 <La B.O'-M->, 그리고 이번 투어를 위해서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들려주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노선택과 소울소스(NST & The Soul Sauce)’의 멤버인 베이스리스트 노선택과 키보드리스트 이종민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하였는데, 공연 이틀 전에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마티유 셰디드의 초청으로 이번 무대를 함께하게 되었다. 이날의 깜짝 공연은 프랑스어로 방송하는 글로벌 방송국 ‘TV5몽드(TV5 MONDE)’에도 소개되었다. ‘TV5몽드’ 외에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주간을 즈음하여 해외문화홍보원의 초청으로 8명의 프랑스 언론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프랑스 국영방송 티에프원(TF1)의 뉴스전문 채널 ‘엘시아이(LCI)’, 프랑스 최고의 주간지 중 하나인 <렉스프레스(L'EXPRESS)>, 파리에서 발행되며 프랑스 2대 일간지이자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인 <르 피가로(Le Figaro)>, 프랑스판 시엔엔(CNN)으로 불리며 90여 개국에 전파되는 국제 보도전문채널인 ‘프랑스 24(France 24)’ 등 프랑스어권과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의 언론인들이 개막 행사를 비롯해 한국과 프랑스가 교류 협력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취재하였다.

특히 <렉스프레스>는 24일 콘서트 취재가 예정된 마티유 셰디드와 23일 동행취재를 통해 남대문시장과 화현 지하상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 당시마티유 셰디드는 남대문 재래시장과 신세계백화점이 전혀 다른 이미지를 내뿜는 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으며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의 매력이라고 인터뷰 중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공연 당일인 24일에는 ‘엘시아이’를 비롯해 ‘TV5몽드’, ‘렉스프레스’ 등이 공연이 있기 4시간 전부터 공연장인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 도착해 공연 준비에 한창인 마티유 셰디드와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을 인터뷰하고 공연실황을 담으며 열띤 취재열기를 보였다. 이날 공연은 ‘엘시아이’를 통해 공연 실황이 프랑스 전역에 중계되었다. 특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에서 전시를 열게 된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공연 현장을 찾았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프랑스어 권역의 관객들과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마티유 셰디드의 열정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프랑스 언론의 열띤 취재열기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주간을 기념해 펼쳐진 이날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소닉아일랜드)

리퀴드 사운드 LIQUID SOUND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관계(Relation)〉

2015.11.13-2015.11.23. 파리8대학교 앙피 X(Université Paris 8 Amphi X) 외

〈다섯가지 기억(Cinq Souvenirs)〉

2016.05.09-2016.05.14. 클레르몽페랑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 Clermont-Ferrand) 외

주관기관

한국: 리퀴드 사운드

프랑스: 아쏘시아사옹 도레미(Association DoReMi)



〈다섯가지 기억〉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예술단체 리퀴드 사운드(Liquid Sound)가 파리의 예술가들과 만나 협업 공연을 펼쳤다. 리퀴드 사운드는 한국음악을 전공한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음악, 시각, 연극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을 지향하는 단체다. 2014년 12월 이들이 처음으로 선보인 음악극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프랑스의 ‘사운드 아트’가 함께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에서 시연 무대를 가진 이후 이에 대한 자체 평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이 공연은,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술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데 그 목적과 의의를 뒀다. 한국음악 연주자와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가 만나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과 영상, 무대 미술 작업을 거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소통이 일어나는 등 이 작품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물로서의 공연은 관객의 이해 속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리퀴드 사운드의 이인보 대표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이후 파리 국립 8대학에서 연극과 석사를 마치고 현재 음악과 석사 과정에 있다. 이 대표는 예술의 여러 분야를 전공했고, 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한국 전통 음악과 서구의 음악, 음악과 연극적 퍼포먼스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아우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금연주자 송지윤과 가야금연주자 서정민이 함께했다. 이들과 함께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로는 루카스 오르티즈(Lucas Ortiz)와 알레누 보리스(Allenou Boris)도 무대에 올랐다. 해외

에서 현지 예술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사운드 리퀴드의 작업은 공연의 완성도에 있어서나 추후 장기적인 작업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파리의 바티망 르 프랑스(Batiment Le France)와 파리 국립 제8대학,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라인예술고등학교 등에서 공연했다. 또한 공연과 함께 파리 제8대학의 현대음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악기와 전통음악, 그리고 전자음악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됐다. 파리 제8대학은 음악과 연극, 영화, 철학 등이 모여 있는 예술대학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연구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음악과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았다.

촉각은 손 등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감각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모든 감각을 통칭한다. 우리는 늘 촉각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민하게 감지하여 새롭게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 리퀴드 사운드의 공연은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주시해 관객에게 일상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양한 관객들은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와 모습 속에 자신들을 침잠시키려는 듯 감각의 날을 세우고 숨소리 하나 없이 공연에 임했으며, 삐걱거리는 나무 오브제에 더불어 연주자들이 이동하며 일으키는 고요한 바람의 소리와 함께 끝난 공연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리퀴드 사운드의 공연을 관람한 한 관객은 “관객 스스로 느끼는 감각과 인식을 존중하며 각 곡의 제목이나 주제에 대한 단서는 제시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는 관객에게 더 큰 예술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원소 각각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려는 감각의 촉수를 건드리는 영민한 접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비평가와 평론가가 존재하지만 결국 예술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정과 감동이 오롯이 전달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예술이 말하고자 하는 변화, 가치 그리고 감동의 완성은 관객의 역할이자 몫”이라고 덧붙였다. 리퀴드 사운드는 <관계(Relation)>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6년 클레르몽페랑에서도 <다섯가지 기억(Cinq Souvenirs)>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이어갔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리퀴드 사운드)

〈다섯가지 기억〉



그람 : 코리아 포커스 <통로> GRAMÉ : FOCUS CORÉE <PASSERELL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조주선 <하얀모래 길>¹

2015.11.06-2015.11.18. 릴 오페라(Opéra de Lille) 외

박민희 <가곡 & 크리에이션(Creations)>²

2015.11.19.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Musique et Danse de Lyon) 외

<2015 그람 한국의 날>³

2015.11.06-2015.11.20.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CNSMD de Lyon,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Musique et Danse de Lyon)¹

주관기관

한국: 조주선¹, 박민희², 크리마³

프랑스: 그람(GRAMÉ)¹²



1982년 프랑스 리옹(Lyon)에 설립된 그람(GRAMÉ)은 국립음악창작센터(Grame centre national de création musicale)의 약자다. 이곳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창작음악연구소로, 새로운 음악 작품들을 생산하고 콘서트를 통해 보급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페스티벌을 선보이고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한 2015년에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공연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소리꾼 조주선과 가객 박민희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2015 그람 한국의 날>이라는 공연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현대음악 작곡가와 작품을 교류하는 장도 펼쳐졌다(190페이지 수록).

2015년 11월 6일에는 리옹아틀리에극장(Théâtre Les Ateliers de Lyon)에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일환으로 소리꾼 조주선의 <하얀모래 길> 공연이 있었다. 조주선은 명창 오정숙과 안숙선을 사사했고, 2008년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른 소리꾼들에 비해 해외 공연 경력 많으며, 2013년부터 낭트 ‘한국의 봄’ 축제를 비롯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매년 전통 판소리, 재즈, 현악 4중주 등과 함께 하는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선보여 오고 있다. 현재 한양대 전통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얀모래 길>은 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작곡가 마리-엘렌 베르나르(Marie-Hélène Bernard)와의 만남을 계기로 성사된 작품이다. 마리-엘렌 베르나르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전통음악 등 여러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2013년 메디치 예술가 해외 거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그녀는 조주선, 타악 연주자 프랑소아즈 리발랑(Françoise Rivalland)의 만남을 계기로 <하얀모래 길>을 구상하게 되었다.

박민희, <가곡 & 크리에이션>



조주선, <하얀모래 길>

이 작품은 그람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올랐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전통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가상 여행을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음악은 물론 비디오 영상과 전자음향이 함께했다. 또한 판소리의 연기적 요소와, 연극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 특유의 연극적 요소가 잘 맞물리도록 연출했으며, 가사는 프랑스어로 번역해 선보였다.

조주선은 <하얀모래 길> 공연에 대해 프랑스 현지인들이 “한 시간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판소리의 크고 작은 에너지가 가슴을 파고들었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2015년 11월 19일에는 리옹의 콩플뤼앵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에서 가객 박민희의 <가곡 & 크리에이션(Creations)> 공연이 열렸다. 박민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이며, 본령인 국악을 넘어 현대무용·재즈·클래식 등과 협업하며 활동하는 전통 소리꾼이다. 2010년 오스트리아 슈바츠(Schwaz)에서 개최된 현대음악제에 참가하던 중 위크숍에서 작곡가 박선영을 만났다. 프랑스에 거주하던 박선영은 한국 전통음악을 비롯하여 박민희의 주전공인 가곡과 그 창법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수시로 정보를 교환했고, 2015년 박민희가 베를린에서 아시안아트 앙상블과 함께 하는 공연을 위해 박선영에게 가곡과 함께할 수 있는 곡을 위촉했다. 박민희는 이 공연에서 박선영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초연으로 선보였다.

같은 해 박민희는 프랑스 시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 동안 파리에 체류했다. 당시 박선영 작곡가와 현지에서 자주 만났고, 아시안아트 앙상블과의 공연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작업을 함께 구상했다. 당시 박선영도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의 상주예술가로 활동 중이었다.

2015년 11월 19일, 콩플뤼앵스 박물관에서 선보인 <가곡 & 크리에이션> 공연은 이러한 과정의 결실이다. 박민희는 박선영이 작곡한 <동짓달>을 초연했고, 이 외에 전통 가곡 7곡을 불렀다. 전통가곡을 연주할 때는 음악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 대금·거문고 연주자와 함께 했다. 이 공연을 함께 준비했던 프랑스의 제임스 감독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박민희가 지원 신청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항공료를, 프랑스 측으로부터 출연료, 체류비, 숙박비를 지원 받았다. 박민희는 “박선영 작곡가와 함께한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갈지” 고민이라며, “이번 공연의 발표곡들을 엮어 음악극을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오고갔다”고 밝혔다.

소리꾼 조주선과 가객 박민희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이었던 이번 공연을 계기로 프랑스에 한국의 판소리와 전통 가곡의 원형과 변형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프랑스 및 유럽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박민희는 공연 후 작곡가 마리-엘렌 베르나르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곡에 관심을 보였고, 향후 작업을 함께하자는 약속도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조주선, 박민희)

크리마 CREAMA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그람(GRAME) 코리아 포커스 <통로(Pariserelles)> - <2015 그람 한국의 날>

2015.11.06-2015.11.20.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CNSMD de Lyon,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Musique et Danse de Lyon)¹

마니페스트 2016 - 2016 IRCAM 아카데미 한국전문가 초청

(Manifest 2016 - parcours musique mixte, Arte povera : musique de chambre)

2016.06.20-2016.07.02.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²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프렌치 컬러(French Color)

2016.10.11-2016.10.20. 예술의전당 외³

주관기관

한국: 크리마^{1,23}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CNSMD de Lyon,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Musique et Danse de Lyon)¹, 이르캉(IRCAM)², 그람(GRAME),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³



그람 코리아 포커스 <파스렐>

2015년 11월과 2016년 10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에 현대음악 작곡가와 작품을 교류하는 장이 펼쳐졌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5년에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로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GRAME)와 리옹 고등국립음악원(CNSMDL)이 주최하는 <2015 그람 한국의 날>이 열렸다. 이 공연에서 한양대학교 전자음악연구소, 크리마(Creama)의 작곡가들과 작품이 프랑스에 연주 및 소개되었다.

1982년 프랑스 리옹에 설립된 국립음악창작센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컴퓨터음악연구소이다. 새로운 음악 작품들을 생산하고, 공연을 통해 보급하는 등의 다채로운 활동 및 뉴 테크놀로지, 비디오 아트, 멀티미디어가 혼합된 창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음악창작센터와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이 함께 선보인 <2015 그람 한국의 날>은 공연과 세미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11월 19일 콩플뤼앙스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에선 프랑스의 문화부가 작곡가 임종우에게 위촉한 곡을 세계 초연으로 선보였다. 20일 공연에는 크리마와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의 젊은 작곡가 교류연주회가 있었다. 양측은 본 행사를 조율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음악 관련 작곡가와 작품 외에 각국의 전통음악 및 고음악을 교류하지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그 20일 공연에는 현대음악 외에 한국 전통음악의 밤,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와 프랑스 고(古)음악 연주자 간의 즉흥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6년에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로 크리마가 리옹 고등국립음악원의 교수와 학생을 초청한 ‘프렌치 컬러(French Color)’가 열렸다. 주요 장소는 한양대 백남음악관과 예술의전당이었다.

10월 11일에는 리옹 고등국립음악원 교수이자 타악기 연주자인 장 제오프루아(Jean Geoffroy)의 지휘로 프랑스 작곡가들의 타악기 곡을 연주했다. 16일 ‘창작음악의 밤’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작곡가 교류 음악회였다. 한국의 젊은 작곡가의 두 작품, 리옹 고등국립음악원 작곡가의 두 작품이 발표되었다(2015년 11월 19일에 프랑스에서 세계 초연된 임종우의 작품이 한국 초연으로 오르기도 했다). 18일에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프랑스 고(古)음악이 만나는 공연이 있었다.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리옹 국립음악창작센터의 고음악 단체가 프랑스 국립창작음악연구소의 위촉 작품과 한국의 전통음악들을 연주했다. 19일에는 ‘빛과 음악’ 공연이 있었다. 빛으로 감지된 손의 위치와 동작에 따라 영상과 소리가 생성되고 움직이며 음악이 제어되고 연주되는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작곡가 티에리 드 메이(Thierry de Mey)가 장 제오프루아에게 헌정한 작품이다. 20일에는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가 개발한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보는 워크숍 ‘파우스트 콘셉트 모바일 스마트폰 콘서트’를 진행했다. 양국의 행사는 한양대 음대 교수 및 크리마 소장을 맡고 있는 작곡가 임종우와 리옹 고등국립음악원 교수 및 타악기 연주자 장 제오프루아의 교류 및 협력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임종우는 서울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2000년에 프랑스 리옹 고등국립음악원에서 컴퓨터 음악 및 작곡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유학 중이던 2001년과 2002년에는 프랑스 현대음악연구소(IRCAM)에서 젊은 작곡가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음악 연수 과정에 선발되어 연수에 참가하기도 했다. 임종우와 협력한 장 제오프루아는 서울국제

타악기 페스티벌에 참가하거나 내한 독주회를 수차례 가진 적이 있는, 이른바 친한파 음악가이다.

임종우는 유학 시절 모교의 인연과 그간 크리마를 이끌어오면서 쌓은 인연과 교류 경험을 활용하여 양국의 작곡가와 창작 인력을 교류하는 방향으로 이번 행사의 성격을 설정했다. 평소 간헐적으로 진행해오던 교류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한국과 프랑스의 젊은 작곡가, 작곡 연주에 관한 교육방식, 양국의 작품 등을 폭넓게 교류한 것이었다.

그 외에 임종우는 2016년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프랑스 현대음악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전문가 포럼에 초청되기도 했다. 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2차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프랑스 현대음악연구소와 크리마가 함께 포럼을 진행했던 것을 계기로 두 연구소가 인연을 맺었고, 임종우는 크리마의 작곡가들과 함께 이번 포럼에 참가하여 프랑스 현대음악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종우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한국의 젊은 작곡가와 중견 작곡가가 중심이 되어 한국보다 앞선 프랑스의 현대음악과 전자음악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작곡가, 작품, 연주자 그리고 각국의 전통음악과 고(古)음악이 교류하는 폭 넓은 장이 되었다”고 평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크리마)

그람 코리아 포커스



프렌치 컬러 워크숍



2016 통영국제음악제 : 프랑스 포커스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6: FRENCH FOCU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로베르토 카헨(Roberto Cahen) <거장의 시간>¹

2016.03.25-2016.04.03.

2e2m 앙상블(Ensemble 2e2m)²

2016.03.31-2016.04.01.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 센터(Centre de musique baroque de Versailles)-

샤르팡티에 <성스러운 이야기>³

2016.05.13-2016.05.14.

프렌치 위크(FRENCH WEEK)

반더러 트리오(Trio Wanderer)⁴

2016.06.02.

상젤리제 오케스트라(Orchestre des Champs-Élysées)⁵

2016.06.03-2016.06.04.

에릭 르 사주(Eric Le Sage) 피아노 리사이틀⁶

2016.06.04.

스레드-음악/춤/영상⁷

2016.10.22.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⁸

2016.10.28.

주관기관

한국: (재)통영국제음악재단

프랑스: 로베르토 카헨(Roberto Cahen)¹, 2e2m 앙상블(Ensemble 2e2m)²,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CMBV(Centre de musique baroque de Versailles)³, 트리오 반더러(Trio Wanderer)⁴, 상젤리제 오케스트라(Orchestre des Champs-Élysées)⁵, 에릭 르 사주(Eric Le Sage)⁶, 그람(Grame)⁷,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음악가와 단체를 초청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고향인 경남 통영시에서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음악제이다. 2002~2013년에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이 음악제를 주관했고, 2014년부터는 (재)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동안 통영국제음악당 라운지에는 영상물 <시간의 주인, 피에르 불레즈가 지휘하는 메모리얼>이 설치·전시되었다. 이 영상은 프랑스의 작곡가·지휘자이자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창시자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가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로베르토 카헨(Roberto Cahen)의 영상작품이다. 프랑스문화원은 몇 년 전부터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본 작품의 설치 및 전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2016년에 설치된 이 작품은 2016년 통영국제음악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잘 어울렸다는 평을 받았다. 불레즈가 2016년 1월에 사망하였기에 그를 기리는 영상물의 기념비로 가능했는가 하면, 통영국제음악제와 함께 연동되어 열렸던 세계현대음악제(ISCM, 3월 28일~4월 1일)의 현장 분위기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전시물이었다고 평을 받았다. 또한 이 전시를 통해 10월 28일 통영을 찾은 프랑스 앙상블 앙테르콩탕포랭의 내한 소식을 미리 전할 수 있었다.

세계현대음악제의 일환으로 3월 31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는 2e2m 앙상블(Ensemble 2e2m)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2e2m 앙상블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연주단체로, 지휘자 폴 메파노(Paul Méfano)가 1972년 창단했다. 2e2m

에릭 르 사주



앙상블은 드뷔시(Debussy), 라벨(Ravel)과 프랑스 현대 작곡가 베르나르 카바나(Bernard Cavanna), 프레데릭 베리에르(Frédéric Verrières)의 곡과 김동명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였다. 2e2m 앙상블을 설립한 폴 메파노는 작곡가 윤이상(1917~1995)과 친분이 두텁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통영국제음악제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던 중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통영 측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개진했고, 한국 작곡가를 대상으로 창작곡을 공모해 김동명을 선발했다.

이 외에도 통영국제음악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렌치 위크(French Week)' 통해 다양한 연주회를 선보였다. 5월 13~14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는 올리비에 쉬네벨리(Olivier Schneebeli)가 지휘하는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Centre de musique baroque de Versailles)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실제로 연주됐던 음악을 보전하고 루이 14세 시절 궁정 합창단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장됐던 17~18세기 프랑스 음악 유산을 되살리려는 목적 하에 창립된 단체다. 이들의 내한은 프랑스 연극을 전공한 조화림 교수(전북대 프랑스학과)의 소개와 주선으로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이 프랑스문화원의 도움을 받았다.

6월 2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는 반더러 트리오(Trio Wanderer)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 작곡가 포레(Gabriel Urbain Fauré), 생상스(Camille Saint-Saëns) 등을 연주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팀에 반더러 트리오를 강력히 추천했고, 이를 계기로 강

<거장의 시간-피에르 불레즈>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동석이 이끄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측과 공동으로 초청했다. 공동 주최였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6월 3일과 4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는 프랑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Orchestre des Champs-Élysées)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3일 협연자로는 프랑스 피아니스트 에릭 르 사주(Eric Le Sage)가, 4일에는 2014년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우승자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함께 했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Orchestre des Champs-Élysées)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작곡 당시의 연주 관습을 살려 연주하는 '역사주의 연주' 단체로



유명하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의 장루이 가바토르타(Jean-Louis Gavortorta)는 예전부터 통영국제음악재단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며, 2013년 11월에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로 취임한 플로리안 리ئم(Florian Riem) 대표와도 친분이 두텁다. 2012년, 2013년에 내한으로 국내의 인지도를 높인 상젤리제 오케스트라는 플로리안 리ئم 대표의 공식적인 초청에 부응하여 프렌치 위크 기간 통영에 방문했다. 이번 내한을 성사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부의 담당자들이 2015년 6월에 파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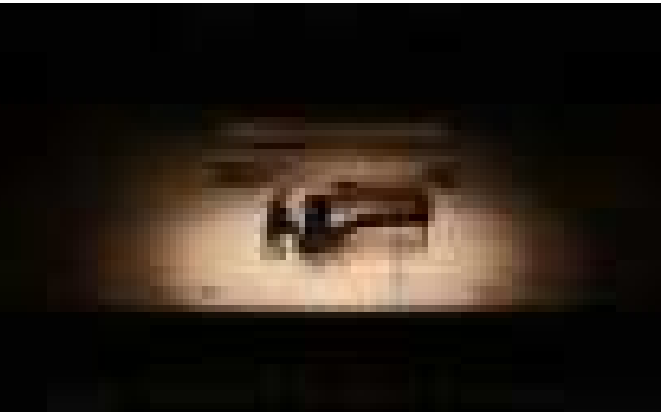
6월 4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에릭 르 사주의 리사이틀이 있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측은 상젤리제 오케스트라를 초청할 때 협연(3일 공연) 외에 독주회(4일 공연)를 따로 요청했다. 그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 외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의 곡을 연주했다.

10월 22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그람(GRAME, 프랑스 국립음악창작센터)의 <스레드(Threads)> 공연이 있었다. 대만 디지털 아트센터와 그람이 공동 창

작한 다원예술 작품 <스레드>는 춤을 추면 소리가 몸짓에 반응하는 형식으로, 통영의 단독 초청 공연이었다.

1982년에 프랑스 리옹(Lyon)에 설립된 그람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컴퓨터음악연구소이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운영하는 TIMF양상블과 공동 작업을 자주 하는 작곡가 임종우(한양대 교수 및 한양대 부설 전자음악연구소 소장)의 소개로 그람 측의 담당자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친분을 유지해왔다. 2013년에는 TIMF양상블과 그람이 서울과 리옹의 교환 공연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인연이 유지되던 가운데 그람의 엔지니어가 통영국제음악당의 다목적 공연장인 블랙박스에 관심을 보였고, 여기에 적합한 공연으로 그람이 보유하고 있는 레퍼토리와 공연을 제안하면서 이번 내한 공연이 성사되었다.

10월 28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는 마티아스 핀처(Matthias Pintscher)가 지휘하는 프랑스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앵테르콩탕포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피에르 볼레즈가 1976년 창단한 현대음악 단체다. 이



에릭 르 사주 피아노리사이틀

번 공연에서 작곡가 리게티(György Ligeti)와 마티아스 핀처, 그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협주적 음형’과 진은숙의 이중협주곡을 연주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05년부터 이 단체를 초청하고 싶어 했고, 2010년 음악제에서 선보인 ‘나이트 스튜디오 II -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솔로이스츠(Night Studio2 - Ensemble InterContemporain Soloists)’ 공연에 바이올리스트 강혜선을 비롯하여 앵테르콩탕포랭의 주요 멤버 3명을 초청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6년 초청 공연을 위해 프랑스문화원의 도움을 요청했고, 내한 공연이 결정되던 2015년에는 앵테르콩탕포랭의 기획자가 통영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17년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측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을 통해 초청하고 개최한 공연들이 2017년 이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2016년 진행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사업들에 대해 평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재)통영국제음악재단)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2e2m 앙상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 재즈 수 레 포미에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 : 한국주빈국¹

2016.04.24-2016.05.15. 재즈 수 레 포미에

앙리 텍시에(Henri Texier) 투어²

2016.10.01-2016.10.03.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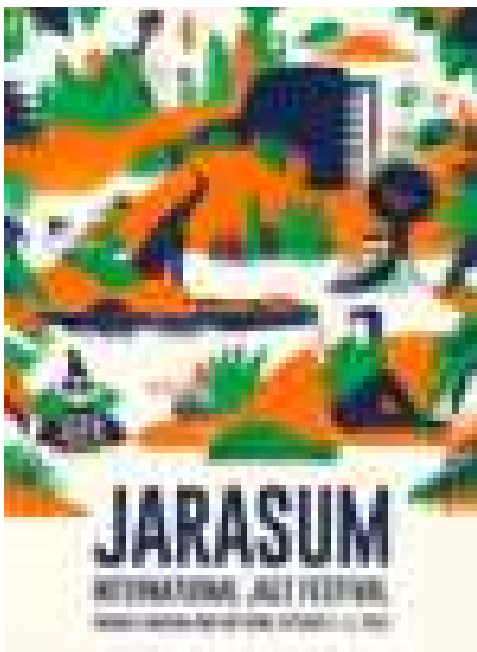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01-2016.10.03.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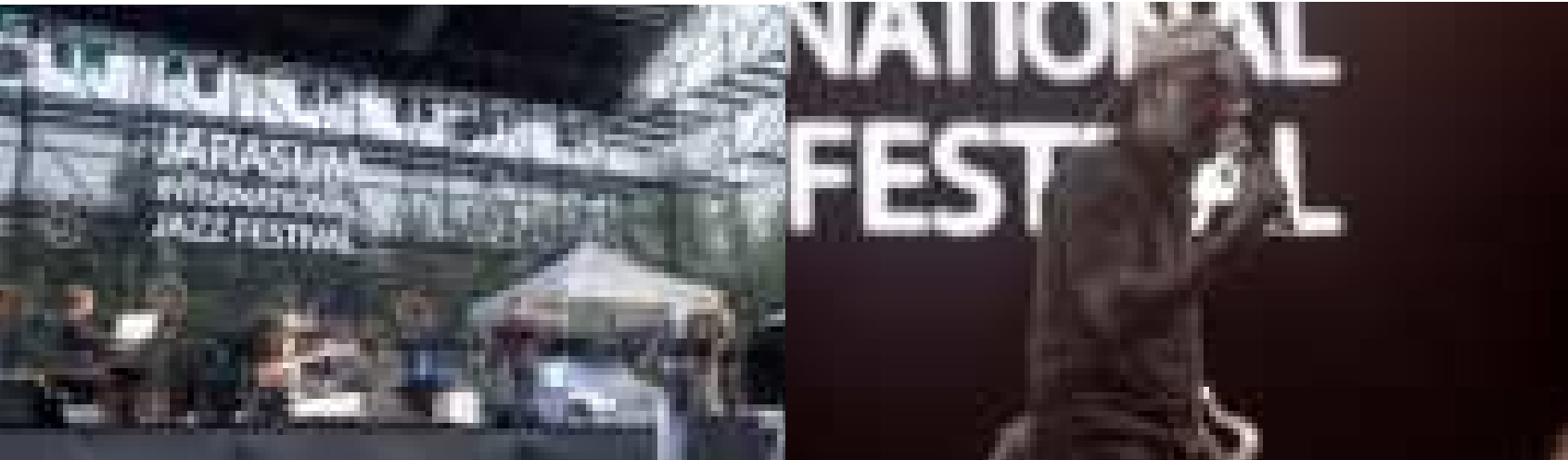
한국: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프랑스: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¹, 앙리 텍시에(Henri Texier)²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Jarasu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이하 자라섬 재즈)은 200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 째를 맞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재즈 축제다. 특히 올해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재즈 축제인 재즈 수 레 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 이하 포미에 재즈)와 양국 간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두 축제의 인연은 ‘자라섬 재즈’를 주최하는 가평군 관계자와 이를 주관하는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이재진 이사장(‘자라섬 재즈’ 총감독 겸임) 등 사무국 관계자들이 2015년 유럽지역 축제 탐방을 위해 처음 방문한 ‘포미에 재즈’에서 상호간 MOU를 맺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포미에 재즈’의 총감독인 드니 르바(Denis Le Bas)가 같은 해 자라섬 재즈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양 축제의 교류가 논의되었고 이번 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재즈 음악 축제 단체가 공동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16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프랑스의 ‘포미에 재즈’에서는 ‘자라섬 재즈’에서 추천한 6개의 한국 단체가 ‘한국 포커스(Focus Corée du Sud)’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현지 무대에 올랐으며, 이번 가을에는 ‘포미에 재즈’로부터 추천 받은 6개 단체의 프랑스 재즈 뮤지션들 무대로 꾸민 ‘프랑스 포커스(French Focus)’가 ‘자라섬 재즈’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에 처음으로 내한한 베이스리스트 앙리 텍시에(Henri Texier)가 이끄는 ‘앙리 텍시에 호프 콰르텟(Henri Texier ‘Hope’ Quartet, 이하 앙리 콰르텟)’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서울, 가평, 인천으로 이어지는 국내 투어를 가졌다.



1945년 파리에서 출생한 베이스 연주자 앙리 텍시에에는 1960~70년대 유럽 재즈와 미국 재즈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음악은 난해한 아방가르드(Avant-garde)에서부터 프랑스적 감수성이 담긴 발라드(Balade)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어느 재즈 사조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 재즈계의 최정상급 뮤지션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앙리 콰르텟’은 그의 아들인 세바스티앙 텍시에(Sébastien Texier, 클라리넷)를 비롯하여 프랑수아 코르넬루프(François corneloup, 바리톤 색소폰), 루이 무탱(Louis Moutin, 드럼)으로 이루어진 4인조 밴드다.

‘앙리 콰르텟’의 이번 국내 투어의 첫 무대는 올해 9월에 정식 개관한 롯데콘서트홀의 개관 기념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자라섬 프렌치 올스타즈(Jarasum French All Stars)’라는 타이틀로 개최되었는데, 롯데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롯데문화재단과 ‘자라섬 재즈’의 협업으로 이번 공연이 성사 되었다. 10월 1일에 열린 이날 공연에서는 ‘앙리 콰르텟’ 외에도 프랑스 문화예술훈장을 수훈한 드럼 연주자 마누 카체(Manu Katché), 가장 촉망받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에렐 베송(Airelle Besson), 그리고 재즈와 즉흥음악의 귀재로 평가 받는 플루트 연주자 조스 미에니엘(Joce Mienniel) 등 이번에 ‘자라섬 재즈’를 위해 내한한 세 명의 프랑스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 롯데콘서트홀 무대에 올랐다.

다음 날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자라섬 내 특설무대인 재즈아일랜드 무대에 오른 ‘앙리 콰르텟’의 공연은 ‘프랑스 포커스’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부터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되었고, 첫 무대인 ‘다이너우스 폴라우스카스 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앙리 콰르텟’은 폭우가 내리는 야외무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급히 준비된 간이 천막 하나에 의지하며 프랑스 재즈의 진수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이날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라섬 재즈’를 방문하여 축제 현장을 돌

러보고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공연에 앞서 열린 프랑스 재즈아티스트 등 해외 인사 환영행사인 ‘프랑스 포커스 리셉션’에도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 등 프랑스 측 관계자들과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우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앙리 콰르텟의 국내 투어 마지막은 10월 3일에 인천광역시 신포동에 위치한 재즈클럽 버텀라인(Bottom Line)에서 열렸는데, 인천 최초의 재즈클럽인 이곳은 해외 뮤지션들이 자주 연주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허정선 버텀라인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곳에서 공연했던 프랑스 재즈 피아니스트 티에리 마이아르(Thierry Mailard)의 소개로 ‘앙리 콰르텟’의 공연이 논의 되었고 ‘자라섬 재즈’ 일정과 연계하여 이번 공연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전문 공연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참석한 관객들은 1시간 30분가량의 공연시간 동안 선 자세로 ‘앙리 콰르텟’이 들려주는 선율에 온 몸을 맡겼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둥근 모자를 쓴 앙리 텍시에에는 음악에 심취해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이며 전체 공연을 이끌었으며, 세바스티앙과 프랑수아의 색소폰 듀엣도 압권이었다. 특히 이날 공연의 숨은 공로자는 드럼을 맡은 루이 무탱인데, 한정된 드럼 세트에도 불구하고 각 곡마다 가장 최적화된 리듬으로 공연의 중심을 잡았다.

이번 ‘앙리 텍시에’ 국내 투어는 ‘자라섬 재즈’에서만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었던 공연이 양국의 축제 관계자들과 국내 공연 기획자들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공연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프랑스 재즈 뮤지션들의 국내 투어가 활성화되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글. 김진근 / 촬영. 안웅철)

뉘 소노르 NUITS SONOR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쿨 코리아(Cool Korea)

2016.04.23-2016.05.08. 콩플뤼앙스 박물관(Musée des confluences)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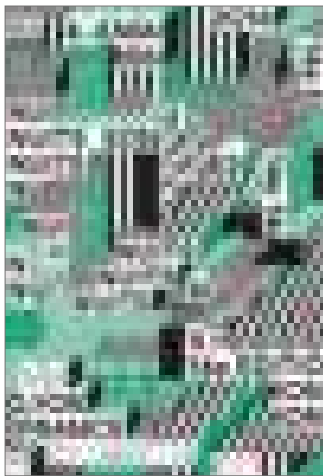
유러피언 랩(European Lab) 서울

2016.12.15-2016.12.17. 문화역서울284 외

주관기관

한국: 이두성

프랑스: 아티파티(ArtY-Farty)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아티파티(ARTY-FARTY)와 한국의 이두성이 만났다. 아티파티는 1999년 프랑스 리옹(Lyon)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독립문화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예술단체다. 특히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중심으로 그래픽, 푸드, 디지털아트 등 현대 예술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독립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003년 인디음악 중심의 축제, ‘뉘 소노르 페스티벌(Festival Nuits Sonores)’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포럼 유러피언 랩(Forum European Lab)’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포럼 유로피안 랩’은 ‘뉘 소노르 페스티벌’의 확장된 개념으로 유럽 내 여러 축제 및 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과 함께 창조적인 문화와 미래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2016년 4월, 아티파티는 리옹의 ‘뉘 소노르 페스티벌’과 ‘유러피언 랩 서울’이라는 양대 행사에 한국의 인디음악과 디지털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름하여 <쿨 코리아(COOL KOREA)> 프로젝트다.

‘뉘 소노르 페스티벌’은 주로 인디펜던트, 일렉트로닉 뮤지션을 위주로 다양한 비주얼 아트와 디지털 문화가 복합된 형태의 뮤직페스티벌이다. 총 5일 동안 전 세계 독립 뮤지션들이 리옹시의 갤러리, 공장, 건물옥상, 수영장 등 다양한 대안공간을 음악으로 채운다. 본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미니 소노르(Mini Sonore)’, 플리마켓 ‘선데이 파크(Sunday Park)’, 새로운 유럽 문화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포럼 프로그램인 ‘위 아 유럽(We are Europe)’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축제의 재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별히 올해 축제는 ‘카르트 블랑슈 서울(Carte Blanche à Séoul)’이라는 축제 내 축제가 추가되었다. 한국 인디음악만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12팀의 뮤지션들을 공식 초청하였다. 전통음악에서부터 펑크, 일렉트로, 하우스, 테크노, 팝 펑크 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채로운 비주얼 아트로 축제기간 내내 리옹의 밤을 하얗게 밝혔다.

다음으로 ‘유러피언 랩 서울’은 매해 예술가들과 관객이 만나 새로운 세대, 즉 미래의 예술에 대해 고찰하는 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 음악 페스티벌이다.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2016년 올해 포럼의 주제, “내일의 문화를 상상하다”역시 독립예술의 가치와 방향성을 고찰하는 기존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쿨 코리아> 프로젝트는 본 포럼에서 한국 독립예술계의 세계와 그 지향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유러피언 랩 서울’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유럽과 유럽예술에 관한 포럼이다. 문화예술 기획자, 창업 관련자 등 새로운 문화주역들과 일반 대

중이 참여하는 포럼이지만 참여자들은 유럽인들로 구성되었다. 2016년 제5회 포럼은 유럽 대륙을 넘어 아시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처럼 상품으로 전락해가는 현대예술의 위기에 맞서 예술본연의 가치를 고수하고자하는 예술가들이 매해 프랑스 리옹을 찾는다. <쿨 코리아> 프로젝트의 한국 측 주관은 맡은 이두성 역시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인디뮤지션들과 공연기획자들과 힘을 모았다. (글. 김은정 / 사진 제공. 이두성)



잠비나이 투어 JAMBINAI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14-2016.08.20. 아트 록 페스티벌(Festival Art Rock) 외

주관기관

한국: 잠비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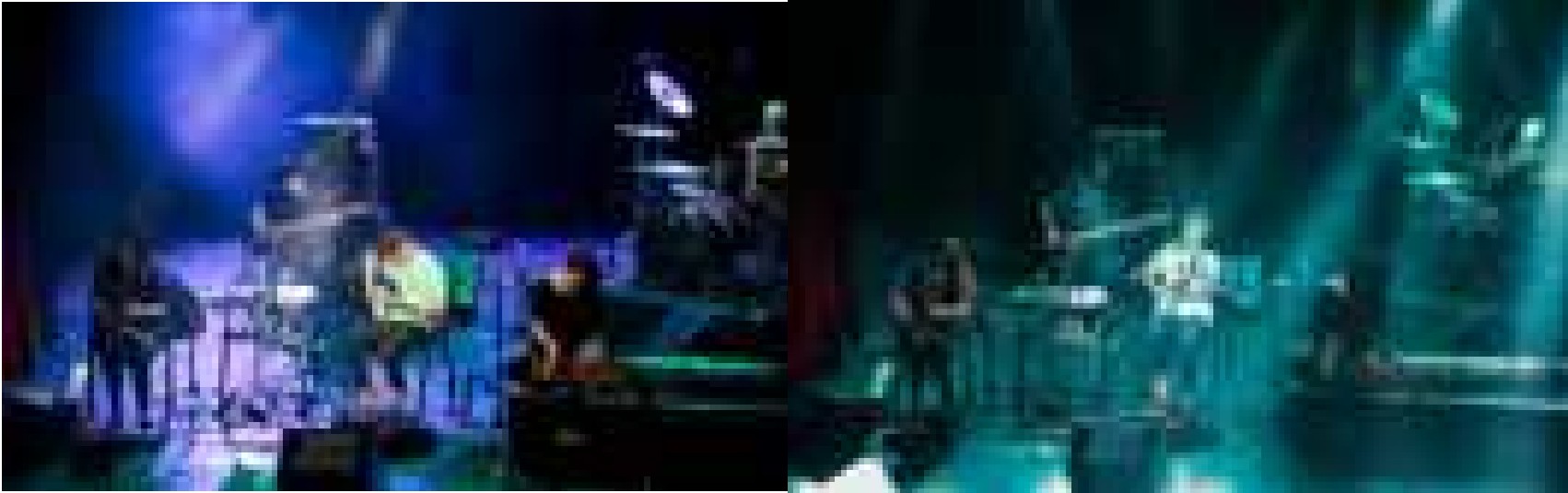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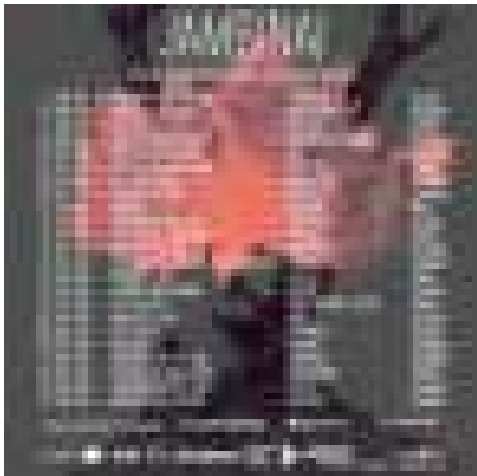
프랑스: 얼스비트&디오니시악 투어(Earthbeat&Dionysiac Tour)



© 김형근

잠비나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 프랑스 투어를 진행했다. 잠비나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001학번 동기인 이일우(기타.피리.태평소), 심은용(거문고), 김보미(해금)가 2009년에 결성한 밴드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두 달간 유럽 14개국을 순회하며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발판 삼아 2016년 전 세계에 발매 예정인 새 음반과 함께 프랑스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프랑스 음악시장에서의 확고한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투어는 5월 6일 프랑스 부르강브레스 페스티벌(Festival de Bourg en Bresse)로 시작했다. 7일에는 리옹 뉘 소노르 페스티벌(Festival Nuits Sonores à Lyon)에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뉘 소노르 페스티벌이란 음악, 디자인, 그래픽 아트, 건축이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축제다. 매년 리옹의 40개 장소에서 행사가 벌어지며 갤러리, 공장, 옥상 테라스, 수영장 등에 이르기까지 250개 장소가 그 무대가 되어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을 주빈으로 한 '쿨 코리아(COOL KOREA)' 행사가 있었다. '카르트 블랑슈 서울(Carte Blanche à Séoul)'이라 이름 붙은 이 행사는 2003년부터 한국의 일렉트로닉 문화와 인디 음악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 뉘 소노르 페스티벌의 일부로, 흥대 인디신과 언더그라운드신을 프랑스에 소개해온 무대이다. 이번 공연에는 잠비나이를 포함하여 DTSQ, 글렌체크, 야마가타 트웍스터, 소울스케이프, 적적해서 그런지 등의 12개 팀이 5월 4일부터 8일까지 '카르트 블랑슈 서울' 무대를 가졌다. 5월 12일에 라로슈쉬르용(La Roche sur Yon)의 공연장 뤼즈용(Fuzz'Yon)에서, 13일에 라디오 프랑스(Radio France)생방송으로 르6파르4(Le6par4)에서, 14일 생브리외(Saint-Brieuc) 아트록 페스티벌(Festival ART ROCK)에서 공연을 가졌다. 프랑스 내의 클럽, 페스티벌, 라디오 생방송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한 셈이다. 그 외에 이번 투어와 관련된 인터뷰를 3회 이상 진행했고, 프랑스 아마존 얼터너티브 차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프랑스 투어를 재차 협의 중이다.



잠비나이는 2009년 결성 이후, 2013년부터 해외시장 진출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2014년 5월부터 두 달간 유럽 14개국을 순회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특정 국가를 시장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대상국은 프랑스였다. 인디,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등의 인디신이 발달한 프랑스 내의 페스티벌과 시장 진입을 위해 2014년 렌스 레 트랜스뮤지칼(Les Transmusicale de Rennes)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당시 투어 에이전시 디오니시악 투어(Dionysiac Tour)가 잠비나이의 음악성과 유럽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높이 샀으며, 잠비나이의 프로모

션을 진행하며 인터뷰, 라이브 실황, 방송 섭외 등을 주선한 바 있다. 프랑스 내의 공연장과 페스티벌 진입에 있어 더 유연하고 안정된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부킹에 이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잠비나이는 디오니시악 투어와 함께하기로 했다.

2016년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이번 투어의 프랑스 측 주관을 맡은 곳도 디오니시악 투어다. 디오니시악 투어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킹 에이전시로, 스페인 가수 체 수다카(Che Sudaka), 프랑스 밴드 고아안디(Goayandi), 한국의 이디오테잎을 비롯하여 여러 음악가들의 프랑스 공연을 주선하고 있다.

잠비나이와 디오니시악 투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잠비나이는 1차 사업공모에 지원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으로 항공료를 지원 받았고, 각 참가했던 페스티벌과 공연장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개런티를 지급받았다.

잠비나이는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중음악 시장에 적극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 프랑스 투어를 바탕으로 음반 발매 및 프로모션에 박차를 가하여 현지 음악시장에 완벽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부킹에이전시인 네덜란드 얼스비트(Earthbeat)와 협업을 통하여 프랑스 전역 및 인근 국가에서 순회공연을 준비 중이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잠비나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콜론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코리안심포니-콜론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지휘: 임헌정)

2016.06.09. 가보 홀(Salle Gaveau)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코리안심포니-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 교류 연주회

<불란서의 아름다운 시절(지휘: 로랑 프티지라르(Laurent Petitgirard))>

2016.05.10. 예술의전당

주관기관

한국: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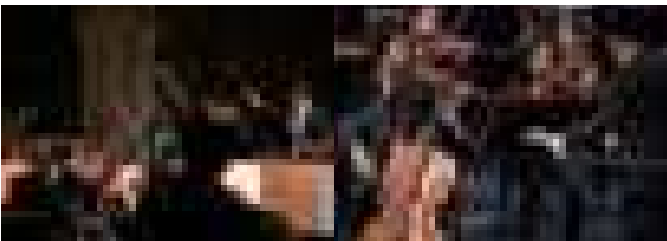
프랑스: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



프랑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두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들이 교류하는 음악회가 2016년 상반기에 열렸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연주회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Korean Symphony Orchestra, 이하 코리안심포니)의 상임지휘자 임헌정과 프랑스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의 음악감독 로랑 프티지라르(Laurent Petitgirard)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자신들이 이끄는 교향악단을 서로 바꾸어 지휘하는 '교류 연주회'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한국에서는 코리안심포니의 제196회 정기연주회에서 '불란서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부제 아래 5월 10일 오후 8시 서울 콘서트홀에서 로랑 프티지라르의 지휘로 공연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임헌정의 지휘와 '콜론오케스트라'의 연주로 6월 9일 저녁 8시에 파리의 가보 홀(Salle Gaveau)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음악회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첼리스트 양성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양성원과 로랑 프티지라르는 25년 지기로 최근에 이미 이 두 음악가는 2012년 11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리안심포니' 183회 정기연주회에서 드보르작(Antonin Dvorak)의 <첼로 협주곡(Concerto for cello)>을 함께 협연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두 단체의 교류음악회가 양국 문화원의 도움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코리안심포니의 지휘를 맡은 로랑 프티지라르는 이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 객원 지휘 등도 맡은 바 있는 한국 무대에 친숙한 지휘자로, 현재 콜론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지휘자뿐만 아니라 관현악곡과 오페라 작곡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가다. 코리안심포니는 2015년 창단 30주년을 맞은 연주단체로,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국내 교향악 공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오케스트라다. '불란서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프랑스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시대에 유럽의 음악을 선도했던 프랑스 작곡가들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음악회였다.

첫 곡은 프랑스 관현악곡 중 손꼽히는 걸작으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동명 발라드(Der Zauberlehrling)를 바탕으로 뒤카(Paul Dukas)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L'Apprenti sorcier)>였다. 우리에게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Fantasia)>에서 마법사의 제자로 등장하는 미키마우스가 물을 끄는 장면으로 인상 깊은 작품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목관, 금관, 현악기 등 각 악기들이 유기적으로 멜로디를 주고받는 가운데 프랑스 관현악 색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연주된 작품은 지휘자 본인이 22년 전 작곡한 첼로 콘체르토(Concerto)를 국내 초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1994년 파리에서 게리 호프만(Gary Hoffman)에 의해 세계 초연 되었으며 미국을 포함한 8개 나라에서 공연된 바 있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와 절친한 첼리스트 양성원이 협연했다. 작곡자 스스로가 "어려운 리듬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이 곡을 양성원은 매우 정교하



고 리드미컬하게 풀어나갔다.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첼로의 레치타티보(Recitativo)는 옛 이야기를 흥얼거리듯 차분하게 때로는 마음 속 깊이 파고든 감정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표현한 명연이었다. 인터미션 후에는 프랑스 음악 융성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작곡가 샤브리에(Alexis Emmanuel Chabrier)가 가족과 함께 떠난 스페인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에스파냐(España)>를 들려 줬다. 스페인의 영향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곡으로 시종일관 화려한 색채의 사운드를 들려줬다. 이 날의 마지막 곡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의 <바다(La Mer)>였는데, 동양적인 색채와 다채로운 음색으로 불타오르는 태양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웅장하면서도 대범하게 표현하였다.

6월 9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가보 홀에서는 '콜론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임헌정의 무대로 펼쳐졌다. 임헌정은 2014년부터 코리안심포니의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주임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다. 그가 이번에 지휘한 콜론오케스트라는 1873년 창단된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음악적 업적과 공헌을 이어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으로, 창단 초기부터 생상을 비롯한 마스네(Jules Massenet), 포레(Gabriel Fauré), 드뷔시, 샤브리에 등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 근대음악 전문악단으로 명망을 쌓았다.

콜론 오케스트라는 매 연주회에서 생존해 있는 현대 작곡가의 작품을 최소한 한 곡은 연주하는데, 이날 첫 곡으로 선정된 스웨덴 출신의 젊은 작곡가 알베르트 슈넬저(Albert Schnelzer)의 <버뱅크의 괴물(A Freak in Burbank)>을 임헌정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지휘로 작품을 이끌었다. 이어서 연주된 자크 이베르(Jacques Ibert)의 <플루트 협주곡(Flute Concerto)>은 1934년 파리에서 마르셀 모이즈(Marcel Moyse)의 협연과 필립 고베르(Philippe Gaubert)의 지휘로 초연된 곡인데, 이날 공연에서는 베를린 필의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유 뒤푸르(Mathieu Dufour)가 협연자로 나와 뛰어난 기량과 음색을 들려주었다.

인터미션 후에 연주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교향곡 7번(Symphony no. 7)>에서는 일반적인 템포 보다 조금 활기찬 빠르기로 지휘자 임헌정 특유의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제스처로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마음껏 펼쳤다. 앙코르곡으로 연주된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의 <무언(c)Liedohne Worte) 중 <봄의 노래(Spring Song)>는 임헌정이 봄 시즌이면 자주 들려주는 대표적인 앙코르 레퍼토리인데,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저녁 파리 시내의 다른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음악회가 열렸지만, 파리의 청중들은 가보 홀의 1000여 석을 가득 채웠고 오랫동안 임헌정과 '콜론오케스트라'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대표하는 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서로 교차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모두 서로의 음악적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이끌어내고 한층 깊은 음악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어 음악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낸 이번 사업은 진정한 양국 우호 협력을 보여주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의미를 되살리는 기회였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촬영: 노승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투어 KOREAN SYMPHONY ORCHESTRA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제24회 페스티발 데 포레(Festival des Forêts) - 코리안심포니

2016.07.07. 콩피예뉴(Compiègne), 앵페리알 극장(Théâtre Impérial)

2016 랭스음악산책페스티발(Flâneries Musicales de Reims 2016) -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2016.07.08. 랭스(Reims), 바질리크 생레미(Basilique Saint-Remi)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198회 정기연주회

2016.10.01. 예술의 전당

주관기관

한국: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1,23}

프랑스: 페스티발 데 포레(Festival des Forêts)¹, 랭스 여름음악산책(Les Flâneries Musicales de Reims)²³



지휘자 임현정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Korean Symphony Orchestra, 이하 코리안심포니)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랭스 음악 산책 페스티발(Flâneries Musicales de Reims, 이하 랭스 페스티발)’과 콩피예뉴(Compiègne)페스티발 데 포레(Festival des forêts)’에 초청받아 프랑스 투어를 다녀왔다. 이번 투어는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음악 활동을 하며 프랑스 예술계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 온 첼리스트 양성원의 주선으로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프랑스 한 국문화원의 예술 심의위원이기도 한 그는 2015년 첫 번째 유럽투어에 이어 계속해서 해외 공연을 모색하던 코리안심포니 측에 ‘랭스 페스티발’을 소개함으로써 이번 프랑스 투어가 성사되게 되었다.

코리안심포니는 2016년 7월 7일 콩피예뉴에 있는 임페리알 극장(Théâtre Impérial), 8일에는 랭스의 생레미 대성당(Basilique Saint-Rémi)에서 잇따라 공연했다. 이번 공연에는 작곡가 박정규의 <아리랑 연곡>,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의 <첼로 협주곡 A단조(Cello and Orchestra in a minor)>, 드보르작(Antonin Dvorak)의 <신세계로부터(Symphonie No. 9 ‘Z nového světa’ Op. 95)가 연주되었다. 또한 10월 1일에는 ‘랭스 페스티발’ 예술 감독이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장 필립 콜라르(Jean Philippe Collard)가 한국을 방문해 코리안심포니의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펼쳤다.

‘랭스 페스티발’과 ‘페스티발 데 포레’는 음악축제 기간이 비슷하고 지역적으로 가까워 이전부터 축제 프로그램 및 연주자들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도 ‘랭스 페스티발’ 측에서 ‘페스티발 데 포레’와 연계하자는 제안을 코리안심포니에 해 옴으로써 연주할 프로그램과 협연자를 공유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페스티발 데 포레’는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70km 떨어진 소도시 콩피예뉴에서 199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역대 프랑스 왕들의 사냥터였던 곳으로 잘 알려진 콩피예뉴 숲과 앵페리알 극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이 올려 진다. 코리안심포니가 공연한 앵페리알 극장은 나폴레옹 3세 시대 조성된 약 700석의 규모를 가진 전통적인 공연장으로 훌륭한 어쿠스틱을 자랑하는 곳이다.

다음날 있었던 ‘랭스 페스티발’ 공연과 똑같은 프로그램과 협연자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특히 박정규의 <아리랑 연곡>이 유럽에서 초연되는 날이었다. 이 곡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여 각 지역의 아리랑을 묶어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국내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기반으로 새롭게 작곡된 곡으로, 한국적 정서를 담으면서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쾌한 리듬으로 흥을 살렸다. 이날 공연에는 모철민 주프랑스한국대사, 콩피예뉴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많은 관객들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다. 또한 콩피예뉴 측에서는 임현정 지휘자와 이원철 코리안심포니 대표에게 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다음날 공연이 열린 ‘랭스 페스티발’은 1991년 시작해 올해로 26주년을 맞는 프랑스에서도 손꼽히는 여름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다. 샴페인의 본고장이자 대성당으로 유명한 랭스에서 매년 여름 열리며, 2012년부터 프랑스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장 필립 콜라르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공연이 펼쳐진 생레미 대성당은 1000년 가량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성당으로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 등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올해 축제에서 마련된 53개 공연 가운데 개 폐막 연주회 등 주요 공연 5개가 이곳에서 펼쳐졌다.

오후 8시가 되자 대성당의 종이 여덟 번 울리고 임현정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의 공연이 800석 대성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펼쳐졌다. 전날과 똑같이 박정규의 <아리랑 연곡>에 이어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 연주 되었는데, 첼리스트로 나선 에드가 모로(Edgar Moreau)는 15세 때인 2009년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Concours International de Violoncelle Rostropovich) 입상을 시작으로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일찍부터 주목받은 신예 연주자이다. 이 연주자는 ‘랭스 페스티발’측에서 추천한 연주자로 코리안심포니와는 이번 프랑스 투어에서 처음 만났다. 전날 공연에서 이미 한 차례 호흡을 맞춰서인지 모로의 명료하면서도 거침없는 첼로 소리와 코리안심포니의

정돈된 선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중간 휴식 없이 이어진 오늘의 메인 곡인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의 기립박수와 세 차례의 커튼콜을 이끌어 낸 이날 공연에서는 앙코르로 브람스(Johannes Brahms)의 <헝가리 무곡 1번(Hungarian Dances Nos.1)>를 선사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보를 외쳤다.

이번 코리안심포니의 프랑스 투어와 더불어 지난 10월 1일에는 ‘랭스 페스티발’의 예술 감독이자 피아니스트인 장 필립 콜라르가 내한하여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8회 정기연주회에서 라벨(Maurice Ravel)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Piano Concerto in G major)를 전해줬다. 이 공연은 7월에 있었던 코리안심포니의 프랑스 투어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기획된 연주였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주요 음악축제에 초청공연의 형태로 공연한 경우는 흔치 않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프랑스 투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코리안심포니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다져진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해외 투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오원 FESTIVAL OWON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 양성원 솔리스트 초청 연주회¹

2016.05.26. 상젤리제 극장(Théâtre de Champs-Élysées)

페스티벌 오원 <한국 클래식음악과 문화축제>¹

2016.05.07-2016.07.22. 콜마르시립극장(Théâtre municipal de Colmar)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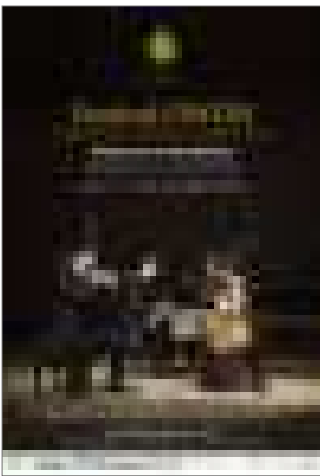
페스티벌 오원 <한-불 연주자가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³

2016.08.25-2016.09.5. 세종문화회관 외

주관기관

한국: (주)컬처비즈 글로벌¹, 페스티벌 오원²³

프랑스: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¹, 콜마르음악협회(Théâtre municipal de Colmar) 외²³



첼리스트 양성원은 2016년 5월 26일 파리 상젤리제 극장(Théâtre de Champs-Élysées)에서 프랑스 콜론오케스트라(Orchestre Colonne)와 협연했고, 5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콜마르시립극장(Théâtre municipal de Colmar), 라부르데지에르 성(Château de la Bourdaisière), 쇼몽 성(Château de Chaumont) 등지에서 페스티벌 오원(Festival Owon)을 진행했다. 공연과 페스티벌 모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였다.

이번 공연은 2015년 세상을 떠난 작곡가 앙리 뒤티외(Henri Dutilleux)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랑스 콜론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였다. 프랑스 작곡가 알베르 루셀(Albert Roussel)의 <바쿠스와 아리안느(Bacchus et Ariane)> 모음곡, 라벨(Maurice Ravel)의 <라 발스(La valse)>가 연주되었고, 양성원은 앙리 뒤티외의 첼로 협주곡 <아득한 전 세계(Tout un monde lointain)>를 협연했다. <아득한 전 세계>는 신비로움에 대한 작품으로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에게 헌정되었던 곡이다.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수학한 양성원은 현재 한국과 프랑스의 음악예술계를 잇는 중요한 음악가로 활약하고 있다. 파리국립음악원(CNSMDP)에서 수학한 그는 2009년 파리국립음악원 동창이자 현재 같은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Olivier Charlier),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스트로세(Emmanuel Strosser)와 '트리오 오완'을 결성해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2011년 프랑스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벵(Les Bons Becs)과 앨범 <Musical Getaway>을 발매했으며, 2012년 파리 살 플레이엘(Salle Pleyel)에서 드보르작(Antonin Dvorak) 협주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그의 프랑스 공연은 프랑스 국영TV와 프랑스 뮤직(France Musique)를 통해 전 유럽에 방영되기도 했다. 현대음악에도 애정을 갖고 있는 양성원은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샤르베(Pierre Charvet)에게 작곡을 위촉하여 2006년 한국과 프랑스에서 초연하였으며, 2010년 프랑스 작곡가 메시앙(Olivier Messiaen)의 작품을 설치미술가 배정완과 함께 한 공연·전시로 호평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그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독주·실내악 협주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연주하는 첼리스트로 정평이 나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뤄진 이번 공연들과 페스티벌은 이처럼 그가 쌓아온 교류와 인연을 밑거름 삼아 성사되고 진행되었다. 콜론오케스트라와는 2015년에 만나 같은 해 5월 연주 계약을 맺었고, 국내 홍보는 2016년 3월부터 진행되었다.

파리를 대표하는 극장들은 해외 음악가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이번 음악회가 상젤리제 극장에 올랐다는 것은 큰 화제가 아닐 수 없다. 1913년에 개관한 상젤리제 극장은 그 해에 있었던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Diaghilev)와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 초연 스캔들이 있었던 곳으로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은 곳이다. 파리의 상징인 상젤리제 광장으로 가는 한편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 수준의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



<한-불 연주자가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



<한국 클래식음악과 문화축제>



〈한국 클래식음악과 문화축제〉



〈한-불 연주자가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

연극 등이 연중 오르고 있는 곳이다.

양성원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페스티벌 오원’ 또한 2016년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라부르데지예르 성과 쇼몽 성 등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2011년에 시작되어 2016년에 제5회를 맞이한 이 페스티벌은 클래식음악과 한국음악 공연을 비롯하여 미술작품, 서예 배우기, 다도(茶道) 등이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다. 보통 페스티벌이 장기간 동안 큰 규모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진행된다면 이 페스티벌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성이 강한 페스티벌로, 시작과 동시에 유럽의 다양한 도시에 진출하고 있다.

프랑스 내의 두 고성(古城)에서 진행된 2016년 페스티벌은 트리오 오원을 중심으로, 임동혁(피아노), 김다미(바이올린), 아벨 콰르텟(윤은솔·이우일·김세준·조형준), 서울 시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함께 참가했다. 또한 신하순(서울대 동양학과 교수)의 미

술 워크숍, 다도 시연과 한과 제작, 재불 서예가 최주영의 서예 체험과 같은 한국의 현대화된 전통문화를 함께 선보임으로써 프랑스 관객이 한국을 보다 가깝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성원은 국내 언론 JTBC와 가진 인터뷰(2016년 8월 19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서서, 앉아서, 잔디밭에 누워 우리 음악을 들었어요. 정가, 궁중음악 등 새로운 음악에 행복해 하더라고요. 대금과 가야금을 새소리가 반주했어요. 저는 천년 노목 아래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켜습니다. 청중이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테러와 반목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술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느꼈습니다.”

‘페스티벌 오원’은 2011년 여름 프랑스 리무쟁 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빌파바르(Villefavard)의 초청과 프랑스문화원·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양성원이 예술감독을 맡아 트리오 오원 공연, 미술가 배병우의 작품 전시,

명원문화재단의 다례의식, 권인호의 서예 퍼포먼스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 회를 시작으로 호평을 받은 ‘페스티벌 오원’은 2012년 영국 노스월에 위치한 아트센터(JDP Music hall)와 애시몰린박물관(Ashmolean Museum)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2013년 프랑스 라 부르데지예르 성, 뮤지컬 랭스(Reims), 오를레앙(Orléans)에 초청 받았다.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이 어우러졌지만 이동성이 강한 페스티벌의 성격이 심분 발휘된 것이다.

이후 2014년 라부르데지예르 성에 다시 초대되었고, 르와르 지역에 10세기에 지어진 고성으로 현재는 문화재로 관리 받고 있는 쇼몽 성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라부르데지예르성에는 당시 이혜민 주프랑스 한국대사가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속에서 커온 ‘페스티벌 오원’은 2016년에도 라부르데지예르 성과 쇼몽 성에서 진행되었다. 라부르데지예르 성은 토마토를 내건 지역 축제와 650여 종의 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고성이며, 성내 작은 가변 홀을 보유하고 있다. 쇼몽 성은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고성으로, 현재는 지

역 소유이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국보급 성이다.

‘페스티벌 오원’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3차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양국 사업으로, 같은 해 8월과 9월에 한국에서도 진행되었다. 라벨, 슈베르트,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 바칼로프(Luis Bacalov), 니노 로타(Nino Rota) 등의 클래식음악과 영화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트리오 오원을 비롯하여 모딜리아니 현악4중주단(Modigliani Quartet), 메조소프라노 마리폴 밀론느(Marie-Paul Milone), 피아노 드니 파스칼(Denis Pascal), 첼로 안느 가스티넬(Anne Gastinel) 등 프랑스의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8월 25~26일), 여수예술마루(8월 26~28일), 부산영화의전당(8월 29~31일), 명동성당(8월 31일), 서울 페리지홀(9월 2일), 서울예술의전당(9월 3~5일)으로 이어졌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주)컬처비즈 글로벌, 페스티벌 오원)

2016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SEOUL SPRING FESTIVAL 2016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17-2016.05.29.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외

주관기관

한국: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2016년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5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 동안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금호아트홀 연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IBK챔버홀, 윤보선 고택에서 총 16회의 무대를 선보였다.

2006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예술감독 연세대 교수)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국내에 실내악이 자리 잡고 많은 음악인들과 대중에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원 하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실내악 작품의 발굴과 연주를 중심으로 봄이 되면 세계 각지의 연주자들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무대에 오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타 지역 실내악 축제의 발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매년 레퍼토리와 출연진들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주제를 내걸고 있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한국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유럽음악을 선도했던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을 되돌아보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2016년에는 '프랑스의 향기'(PARFUMS de FRANCE)'를 주제로 내걸었다.

13일 동안 서울 지역 6개의 공연장과 특색 있는 공간에서 선보인 16개의 음악회에서 라벨(Maurice Ravel), 보차(Eugène Joseph Bozza), 아르방(Jean Baptist Arban), 풀랑크(Francis Jean Marcel Poulenc), 프랑세(Jean Francaix), 생상스(Camille Saint-Saëns), 드뷔시(Claude-Achille Debussy), 메시앙(Olivier Messiaen), 뒤틀외(Henri Dutilleux), 이베르(Jacques Ibert), 마스네(Jules Émile Frédéric Massenet), 쇼송(Ernest Chausson)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레퍼토리가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5월 29일 밤,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폐막공연 '프렌치 서울'은 1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는 공연으로, 서울에서 진한 프랑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프랑세, 드뷔시, 라벨, 쇼송의 곡으로 채워졌고, 강동석 예술감독을 비롯하여 김영호, 최나경, 임효선, 프레디 켐프(Freddy Kempf), 제롬 페르노(Jérôme Pernoo), 로맹 귀요(Romain Guyot), 노뷔스 콰르텟(Novus Quartet)이 출연했다.

프랑스를 주제로 내걸었던 이번 축제에는 프랑스의 저명한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첼리스트 제롬 페르노, 플루티스트 마티유 뒤푸르(Mathieu Dufour), 오보이스트 올리비에 두아즈(Olivier Doise), 클라리네티스트 로맹 귀요, 트럼페터 로맹 를루(Romain Leleu), 소프라노 샹탈 마티아스(Chantal Mathias)가 다양한 무대에 섰다. 이중 파리 국립 오페라, 시카고 심포니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마티유 뒤푸르, 2013년 내한 연주를 펼쳤던 트럼펫 연주자 로맹 를루, 유럽의 주요 페스티벌에서 매년 초청받으면서 활약하고 있는 오보이스트 올리비에 두아즈는 국내 언론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다. 이들은 금관·목관 실내악에 강세를 보이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며 국내 음악계에 새로운 해석과 연주를 들려주었다.



윤보선 고택 음악회

이러한 해외 연주자들의 초청 연주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국내에 실내악 전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한국의 음악계가 관현악 독주에 쏠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했다. 해외 연주자의 내한에 있어서는 강동석 예술감독의 인맥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2009년 제4회부터 주한 프랑스문화원으로부터 내한하는 프랑스 국적의 음악가들의 항공료를 꾸준히 지원 받아왔다. 여기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강동석의 경력도 한몫하고 있다. 1981년 파리 정착 후,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와 협연, 쿠셰빌 등지에서 열리는 뮤직알프 여름음악캠프 예술감독 등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강동석은 2000년 연세대 교수로 부임한 후에도 한국 프랑스를 오가며 교류 및 연주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2015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 기사훈장(Chevalier des Art et des Lettres)을 수여 받기도 했다.

2016년 축제의 성격과 주제에 관한 윤곽이 잡힌 때는 2013년이다. 앙스티튀 프랑세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 예술감독 스테파네 도베르트가 한국을 방문했고,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는 2015년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접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무국은 2014년부터 준비했다. 강동석 예술감독은 프랑스 음악가들을 물색하며 내한 일정을 조정했고, 앙스티튀 프랑세의 니콜라스 도야드 담당자가 강동석,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측과 긴밀히 협조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2006년 제1회부터 다양한 레퍼토리와 연주자들을 섭외하여 실내악 장르가 약한 국내 음악계의 실내악문화를 이끌어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객으로부터 호기심을 끌어나고, 레퍼토리 구성의 이해를 돕는 강력한 주제도 이 축제만의 큰 특징이다. 2006년 제1회 '동서양의 만남', 제4회 'B4+ 베토벤과 함께 시련을 넘어 희망으로...', 제6회 '간판 소리 향기에 취하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2016년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긴 하되 관현악 독주 협주곡 중심으로 연주되는 프랑스 작곡가들의 다양한 실내악을 접한 시간이었다. 한마디로 '프랑스 풍 실내악'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맛 볼 수 있는 축제였다. 향후에도 음악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실내악을 조명하는 주제와 기획력을 기대해본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사)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집행위원회)

케이콘 2016 KCON 2016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6.02. 아코르 호텔(Accor Hotels)

주관기관

한국: 씨제이 이엔엠(CJ E&M)

2016년 6월 2일 세계 문화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의 밤은 온전히 K-pop의 밤이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K-pop 콘서트인 <케이콘(KCON) 2016>이 열린 것이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연일 내리는 폭우에도 수백 명의 K-pop 팬들은 행사장인 아코르 호텔 아레나 주변에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레인코트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 당일 오전부터 1km에 달하는 대기줄에 서서도 K-pop 스타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즐겁기만 하다는 표정으로 “최고 특 엠씨 보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의 화양연화여”, “중현씨 새 앨범 내신 거 축하해요” 등 한글로 쓰인 플래카드를 연신 흔들며 댔다.

그동안 <케이콘>은 동남아시아 및 미국 등에서는 개최됐지만 유럽에서는 파리에 서 처음 열리는 까닭에 유럽의 K팝 팬들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다. <케이콘 2016>은 광고와 프로모션 행사 없이 1만2000석의 좌석이 단 하루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다. K-pop도 이같은 맥락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K팝을 향유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또한 이번 <케이콘 2016>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서의 K-pop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입장권의 60%가 프랑스에서, 나머지 40%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케이콘 2016>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한류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것으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이후 한복을 입은 사회자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무대에 오르고 관객들이 일제히 “이특, 이특”을 외치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특은 중간중간 프랑스어로 관객과 소통하며 능숙한 진행 솜씨를 선보였다. 씨제이 이엔엠(CJ E&M)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샤이니, 방탄소년



소년단, FT 아일랜드, 블랙비, F(x), IOI 등 최고의 K-pop 스타들이 총출동했으며, 전 출연진이 K-pop 버전의 '아리랑 연곡'을 부르는 것으로 공연의 막을 열었다.

블랙비는 에펠탑, 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찍은 뮤직 비디오를 깜짝 선보여 프랑스 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또 'Toy'(토이), 'HER'(허), 'Very Good'(베리 굿) 등을 차례대로 부르자 유럽의 한류팬들은 춤뿐 아니라 한글 가사도 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며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또한 걸 그룹 F(x)의 'Hot Summer'(핫 서머)의 후렴구 '핫 핫 서머, 너무 더위를 '떼창'하는 동시에 손부채로 얼굴을 식히는 가수의 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특히 한류 팬들은 K-pop 가수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칼군무'에 커다란 환호를 보내며, 땀에 흠뻑 젖은 채 퍼포먼스를 선보인 K-pop 아티스트들에게 화답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유럽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한자(防彈少年團) 그룹명

이나 영어 이니셜 'BTS(Bangtan Boys)'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은 소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도 했다.

세 시간 공연 동안 제자리에서 뛰고 소리치느라 탈진한 팬들이 속출했고 의료진이 이들을 공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독일에서 온 딘(16·여성)은 “친구들과 놀 때 주로 K-pop 커버댄스를 춘다”며 “프랑스에서 <케이콘 2016>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가수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거리가 멀지만 파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온 폴린(19·여)도 “BTS의 팬인데 너무나 멋진 무대였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케이콘 2016>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되어 K콘텐츠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성과도 상당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파리 시청 산하기관 파리엔코(Paris&C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업 간 교류 및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공연기업 예술꽃 화랑은 프랑스 극단 카르나비에(Cie Karnavires)와 '2016년 리옹 빛 축제' 등에 공식초청자 참석 확정 MOU를,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콘텐츠기업 고든미디어는 프랑스 기업 JHC 미디어와 VR콘텐츠 공동 개발 프로젝트 MOU를 각각 체결했다. (글. 연승 / 사진 제공. 씨제이 이엔엠)



2016 미뎀 페스티벌 : 한국특집

케이팝 나이트 아웃 K-POP NIGHT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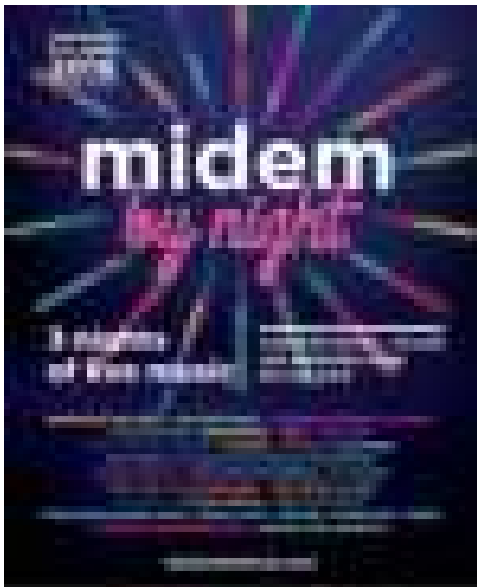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6.03-2016.06.06. 칸느 칼튼 호텔(Carton Hotel Cannes)

주관기관

한국: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랑스: 미뎀(MIDEM)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은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세계 음악마켓에서 K-pop 해외 쇼케이스인 ‘케이팝 나이트 아웃(K-pop Night Out)’을 개최해 왔다. 올 상반기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음악마켓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국내 뮤지션 12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올해 3월 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 지하1층 cel 스테이지에서는 ‘2016 K-pop 해외 쇼케이스’에 참가하는 뮤지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회를 가졌다. 3월과 5월에 각각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이하 SXSW)’를 비롯해 영국의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 이하 TGE)’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미뎀(Marché International du Disque et de l’Edition Musicale, 이하 MIDEM)’에서는 한국 측 주관기관인 KOCCA와 프랑스 측 주관기관이며 미뎀을 운영하는 REDD 미뎀에 의해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케이팝 나이트 아웃’이 개최되었다.

한국이 올해로 다섯 번째 참가하는 미뎀은 미국의 ‘SXSW’, 영국의 ‘TGE’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마켓으로, 1967년 처음 개최되어 50년의 역사를 지닌 B2B 중심의 음악마켓이다. 상업 음악 중심의 세계 최대 음악 산업 마켓으로, 매년 관련 전문가 및 예술가 1만여 명 정도가 참가한다. Pop, Rock, Metal, Jazz, Classical 등 세계 최대 음악 견본시로 음악기획, 제작사, 음악출판사, 음악관련 업체, 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도까지 음악 산업 관계자 위주로 관람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작년부터 쇼케이스에는 미뎀 주최 측과 칸느에서 공식 초청한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참가해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미뎀 쇼케이스에는 록 밴드 ‘국카스텐(Guckkasten)’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장르를 선보인 ‘이디오테잎(Idiotape)’, 감성 힙합의 선두주자 ‘이루펀트(Eluphant)’, 독특한 보컬과 유쾌한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에고펑션에러(Ego Function Error)’ 등 4팀이 참가했다. 이번에도 미뎀의 쇼케이스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 ‘이디오테잎’과 ‘이루펀트’는 지난 2015년 10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Seoul 2015, 이하 뮤콘)’의 공식 쇼케이스 무대에 참가한 팀들 중에서 해외 뮤직 페스티벌 관계자가 참여해 각 마켓에 적합한 국내 뮤지션을 직접 선정하는 프로그램인 ‘페스티벌 디렉터스 초이스’에 선정된 팀들로 프랑스 미뎀 담당자들이 직접 선정하였다.

6월 3일 공식 쇼케이스에 앞서 오전에는 ‘팔레 데 페스티벌 컨벤션 센터(Palais des Festival et des Congrès)’ 내에 있는 네트워크 빌리지(Networking Village)에서 한국 음악 참가사별 바이어와 5분 동안 스피드 미팅 방식의 ‘미트 더 코리안(Meet the Koreans)’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오후에는 미디어 컨퍼런스 ‘올 어바웃 케이팝 나이트 아웃(All About K-pop night out)’이 열렸다. ‘팔레 데 페스티벌 컨벤션 센터’ 내에 있는 리비에라 7홀(Riviera 7)에서 열린 한국 뮤지션들과의 기자 간담회 형태의 이번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는 로컬 미디어와 외신기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취재열기를 보였다. 당일 저녁 8시부터 MIDEM 공식 행사장인 ‘인터컨티넨탈 칼튼 호텔(InterContinental Carlton Cannes)’ 내에 있는 그랑 살롱(Grand Salon)에서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번 ‘케이팝 나이트 아웃’의 첫 무대는 탄탄한 음악성으로 국내 인디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밴드 ‘에고펑션에러’였다. <에고펑쇼>, <아아> 등 다섯 곡을 연달아 부른 ‘에고펑션에러’는 유럽에서도 드문 여성 펑크 그룹이라는 독특한 음악 색깔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일반 관객들과 음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공연 후에는 프랑스, 영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퍼블리셔들로부터 해외 진출에 대한 상담요청이 이어졌다.

이어 다수의 콘테스트 우승과 유명 음악방송 출연으로 전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사이키델릭 밴드 ‘국가스텐’이 무대에 올라 <매니큐어>, <바이올렛 윈드>, <도둑> 등 여섯 곡을 선보였다. 보컬 하현우의 숨 막히는 가창력과 열정적인 공연 모습에 음악 관계자를 포함한 관객들은 ‘국카스텐’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밖에도 베테랑 힙합 듀오 ‘이루펀트’는 <헬로 마이 디어>, <피플 앤드 플레이스>를 포함한 여섯 곡을 선보여 영국, 중국 등에서 온 마켓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디오테잎’은 <에어드롭>, <보일링 포인트> 등 다섯 곡을 공연했으며 무대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의 음악에 매료된 스위스, 프랑스, 홍콩, 중국 등의 에이

전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쇼케이스와 함께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도 마켓 기간인 4일간 함께 열렸는데, ‘팔레 데 페스티벌 컨벤션 센터’ 내에 있는 리비에라 홀에 설치된 한국공동관에서는 K-pop 홍보와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2012년부터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이번 미뎀에서 열린 ‘케이팝 나이트 아웃’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일인 6월 4일을 전후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특별주간(K-culture Week)’과 맞물려 개최돼 그 의미가 더 컸다. 앞으로도 K-pop의 각 장르를 대표하는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써 해외의 음악마켓에서 자주 선보여지길 기대한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롯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LOTTE CONCERT HALL'S OPENING CEREMONY FESTIVAL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장 기유(Jean Guillou) 파이프 오르간 리사이틀〉

2016.09.20. 롯데콘서트홀

〈윌리엄 크리스티&레자르 플로리상(William Christie&Les Arts Florissants)〉

2016.10.25. 롯데콘서트홀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

2016.10.26. 롯데콘서트홀

마티아스 괴르네&윌리엄 켄트리지(Matthias Goerne&William Kentridge)

〈겨울나그네(Winterreise)〉

2016.11.22. 롯데콘서트홀

주관기관

한국·롯데콘서트홀



롯데문화재단의 롯데콘서트홀(대표 한광규)은 개관을 기념해 4개의 공연을 선보였다. 9월 20일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 장 기유(Jean Guillou), 10월 15일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William Christie)와 앙상블 레자르 플로리상(Les Arts Florissants), 10월 26일 프랑스의 현대음악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 그리고 11월 22일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Matthias Goerne)와 현대미술가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영상이 함께 한 <겨울나그네(Winterreise)>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들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공식인증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9월 20일에 리사이틀을 가진 오르가니스트 장 기유는 프랑스의 작곡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와 라벨(Maurice Joseph Ravel)로 이어지는 인상주의, 세자르 프랑크(César Franck), 마르셀 뒤프레(Marcel Dupré),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오르간 음악의 명맥을 이어받은 음악가로 알려져 있다. 원래 2015년 개관을 예정하고 있던 롯데콘서트홀 기획팀은 본 공연장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의 존재와 음악적 성능을 널리 알리고자 이에 걸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오르가니스트를 적극적으로 물색했다. 그 결과 장 기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 기획팀은 프랑스의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당시 재직 중이던 김의준 대표(2014-2016년 재직)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측과 네트워크가 있어 공식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10월 15일 공연을 펼친 레자르 플로리상은 중세음악에 중심을 두고 있는 단체로, 현재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1979년 설립했다. 바로크 시대에 사용되던 악기로 연주하는 바로크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한 공연에서는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의 아리아 <아 스틱스강의 그림자여, 지독한 공포여(Ah! stigit larve, ah! scelerati spettri!)>를 비롯하여 비발디(Antonio Vivaldi), 하이든(Franz Joseph Haydn),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그리고 스트라델라(Alessandro Stradella), 치마로자(Domenico Cimarosa) 등 국내에서 실연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희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10월 26일에는 마티아스 핀처(Mathias Pintscher)의 지휘로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앙테르콩탱포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피에르 볼레즈(Pierre Boulez)가 1976년 창단한 현대음악 단체.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핀처가 직접 작곡한 곡과 진은숙의 곡, 그리고 2016년 초에 타계한 볼레즈가 이 앙상블을 위해 작곡한 <메모리알르(Memorale)>의 초연을 선보였다.

앙테르콩탱포랭의 내한은 주불 프랑스문화원, 통영국제음악재단과의 협업이 큰 힘을 발휘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05년부터 이 단체를 초청하고 싶어 했다. 2010년 음악제의 '나이트 스튜디오 II -앙상블 앙테르콩탱포랭 솔로이스츠(Night Studio2 - Ensemble InterContemporain Soloists)' 공연에 바이올리스트 강혜선을 비롯하여 앙

장 기유, 파이프 오르간 리사이틀

윌리엄 크리스티&레자르 플로리상



테르콩탱포랭의 주요 멤버 3명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6년 초 청 공연을 위해 프랑스문화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프랑스 측으로부터 항공료를 지원 받아 내한할 수 있었다. 현대음악 시장이 거의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원과 통영국제음악재단, 그리고 롯데콘서트홀이 힘을 모아 추진했다. 롯데콘서트홀에서의 공연은 예상과 달리 많은 좌석이 판매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1월 22에는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미술작가 윌리엄 켄트리지가 협업한 <겨울나그네> 공연이 있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Festival Aix-En-Provence) 등 전 세계 9개 페스티벌과 극장이 공동 위촉·제작한 것으로, 성악가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연가곡 <겨울나그네>을 부르는 동안 배경에는 윌리엄 켄트리지가 제작한 미디어아트의 영상이 나오는 식이다.

2013년에 롯데콘서트홀은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측으로부터 이 공연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2014년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의 관계자가 국립오페라단과 미팅을 위해 내한했을 때, 롯데콘서트홀과도 미팅을 가졌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며, 마티아스 괴르네 역시 국내음악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리톤이었기에 롯데콘서트홀의 개관 공연으로 선정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공식인증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4개의 공연에 대해 롯데콘서트홀은 "개관 전부터 음향에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롯데콘서트홀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고 평했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롯데콘서트홀)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 프랑스 포커스

JEONJU INT'L SORI FESTIVAL 2016 : FRENCH FOCU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전주세계소리축제

2016.09.29-216.10.03.

후안 카르모나(Juan Carmona) 투어

2016.09.30-2016.10.0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로조(Lo'Jo) & 들소리 투어 <멜팅팟 하모니(Melting Pot Harmony)>

2016.10.01-2016.10.07. 국립극장 KB하늘극장 외

주관기관

한국: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랑스: 후안 카르모나(Juan Carmona), 로조(Lo'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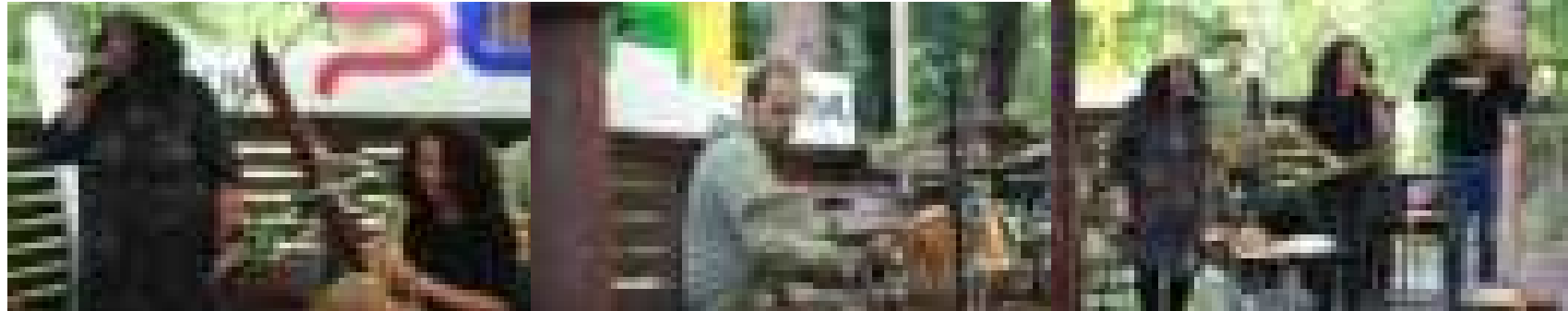
2016년 15회를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이하 JISF)’는 한국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월드뮤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올해는 ‘세상의 모든 소리(Sori from the world)’라는 주제로, 9월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15개국에서 온 음악가들의 개막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10월 3일까지의 일정 동안 전 세계 28개국에서 1300여 명의 국내·외 음악가들이 참여하여 총 160여 회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30년 역사의 월드뮤직그룹 ‘로조(Lo'Jo)’, 관능적인 플라멩코 기타 연주를 선보이는 ‘후안 카르모나(Juan Carmona)’, 재즈 밴드 ‘낭코(NantCo)’, 프랑스 브르타뉴(Bretagne) 지방의 켈틱(Celtic) 음악을 연주하는 ‘안펑슈 케메네르 콰르텟(Yann-Fanch Kemener Quartet)’등 다양한 프랑스 연주단의 공연이 ‘프랑스 포커스’라는 부제로 펼쳐졌다. 이중 두 개 팀은 한국의 음악가들과 협업 무대로 관객들을 만났는데, 프랑스 재즈 뮤지션과 소리꾼 조주선이 결합한 ‘낭코’팀의 공연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국악 공연단체인 ‘들소리(Dulsori)’와 함께 무대에 오른 집시음악과 민속음악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밴드 ‘로조’팀의 공연은 두 나라의 문화를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와 더불어 ‘후안 카르모나’와 ‘로조&들소리’는 이번 내한을 계기로 국내 투어를 함께 진행했다.

‘JISF’에서 마련한 해외 각국 음악인들과 소통하고 관객들과 함께 각 나라의 문화와 음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월드뮤직워크숍’에서는 프랑스 켈틱 음악의 선두주자 ‘안·펑슈 케메네르 콰르텟’(9월 30일), 프랑스 월드뮤직그룹 ‘로조’(10월 2일), 한국의 소리꾼 조주선과 프랑스 재즈 뮤지션이 결합한 팀인 ‘낭코’(10월 3일)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당초 싱그러운 편백나무 숲에서 자연의 향기와 함께 하기로 예정되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로비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였다. ‘JISF’의 초청공연에서는 ‘후안 카르모나’(9월 30일)와 ‘낭코’(10월 3일)가 각각 야외무대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과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행사 기간 중에 비가 내린 관계로 무대 쪽은 간이 천막을 설치한 덕분에 비가 들어차지 않아 공연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관객들에게는 우비를 지급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 뮤지션들의 협업 무대인 ‘낭코’는 지난 봄 프랑스 낭트에서 진행된 ‘한국의 봄’ 축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거문고 연주자인 이정주의 제안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었다. 10월 1일 야외공연장에서는 월드뮤직 특별공연 프로그램인 ‘월드뮤직빅파티’가 진행되었는데, 첫 무대로 ‘로조&들소리’가 프랑스 민요 및 집시풍의 음악과 한국 특유의 한이 서린 보컬을 중심으로 한 한국전통음악을 접목하여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날의 두 번째 무대는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La Maison des Cultures du Monde)의 아와드 에스버(Arwad Esber) 감독의 추천으로 이번 축제에 참가하게 된 ‘안·펑슈’의 무대였는데, 우리에게겐 조금 생소한 프랑스 브르타뉴(Bretagne) 지방의 켈틱 전통음악을 아코디온, 바이올린, 기타, 보컬로 구성된 4중주 앙상블로 재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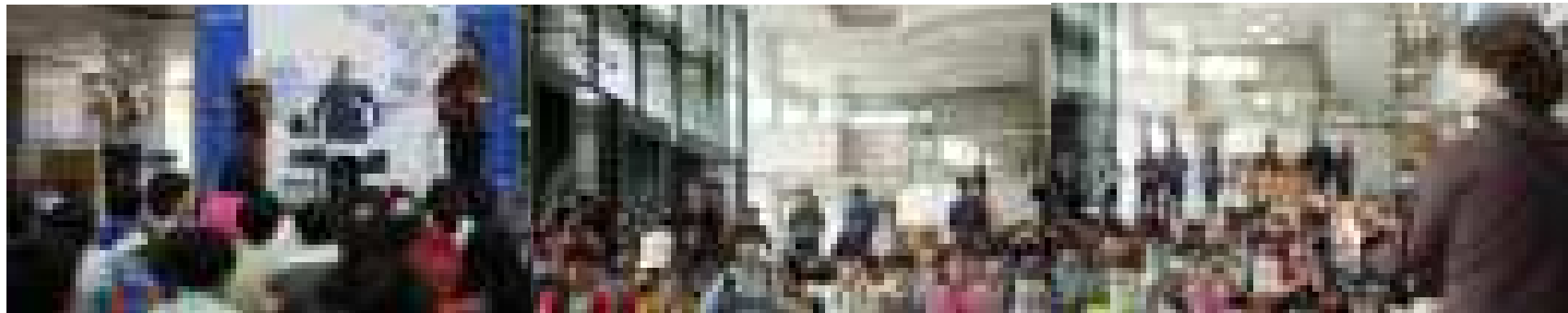
이번에 내한한 ‘후안 카르모나’와 ‘로조&들소리’는 ‘JISF’ 참가 외에도 국내 투어를 함께 진행하였다. ‘후안 카르모나’는 10월 1일 울산 ‘처용월드뮤직페스티벌’(Cheoyong World Music Festival 이하, CWMF)에도 참가했는데, 공연단체 측에서 직접 CWMF에 연락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CWMF’와 ‘JISF’가 공동초청의 형태로 내한하게 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출신의 5명의 아티스트들이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 후안 카르모나를 중심으로 플라멩코 음악과 춤을 선보였다. ‘로조&들소리’ 또한 10월 3일 ‘CWMF’에 참가해 프랑스와 한국의 뮤지션들이 협업으로 만들어진 ‘멜팅팟 하모니’(Melting Pot Harmony)라는 제목의 공연을 펼쳤다. 2005년 호주 워매드(WOMAD)에서 처음 만난 두 단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무대에서 만나자”고 농담 삼아 맺은 약속이 10년 만에 이뤄진 공연이었다.

앞서 참가한 ‘JISF’에서의 ‘월드뮤직빅파티’와 이날의 공연은 ‘들소리’의 문갑현 대표의 공연제안으로 협의가 시작되었다. ‘로조’와 ‘들소리’ 양 단체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 양국의 협업 무대라는 점, 그리고 올해가 한·불 수교 13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로조&들소리’는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서울 공연도 진행하였다. 올해로 창단 35주년이 되는 프랑스 밴드 ‘로조’와 54개국 월드투어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창단 32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대표적인 국악 공연팀 ‘들소리’ 두 그룹의 이날 무대에서는 ‘로조’의 폭 넓은 흡수력과 ‘들소리’의 젊은 감성이 만나는 무대로, 양국의 음악적 교류와 우호협력을 보여주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의미를 되살리는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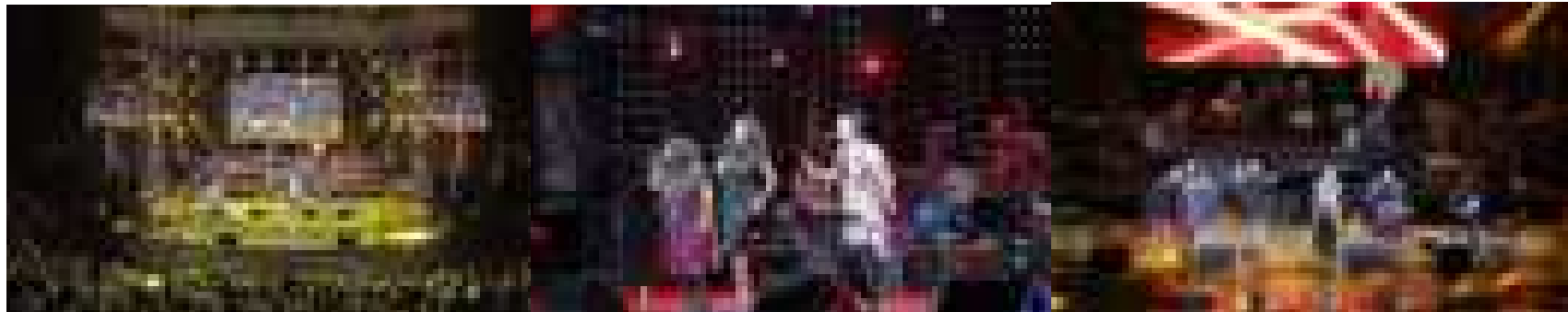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전주세계소리축제)



로조(Lo'Jo) & 들소리 투어, <멜팅팟 하모니(Melting Pot Harmony)>



후안 카르모나(Juan Carmona) 투어



로조(Lo'Jo) & 들소리 투어, <멜팅팟 하모니>

2016 잔다리 페스타 : 프랑스 포커스

에스프리 프랑세 ESPRIT FRANÇAI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 잔다라 페스타

2016.09.30-2016.10.03. Yes24 무브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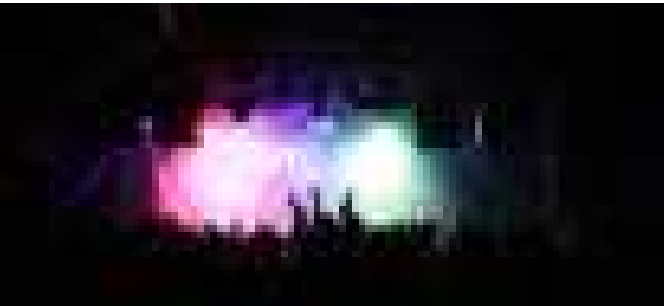
프랑스포커스<에스프리 프랑세(Esprit Français)>

2016.10.02. Yes24 무브홀 외

주관기관

한국: (주)잔다리컬처컴퍼니

프랑스: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



매년 가을이면 전 세계에서 내한한 인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홍대 일대 라이브클럽과 공연장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쇼케이스형 뮤직페스티벌인 ‘잔다리 페스타(Zandari Festa)’가 있다. 이 축제는 미국의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뮤직 페스티벌(South by Southwest Music Festival, SXSW)’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축제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지역 밀착형 페스티벌을 표방한다. 한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로 성장한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메카인 홍대를 거점으로 매년 10월에 열리며 뮤지션과 관객,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축제다.

불굴, 치유, 발광 등 매 해마다 특정한 키워드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벌여왔던 ‘잔다리 페스타’는 축제 5주년을 맞이한 올해의 키워드로 ‘존중(Respect)’을 선정했다. 뮤지션에 대한 존중, 관객에 대한 존중, 그 외에 음악 산업 관계자 모두를 향한 존중 등,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홍대 지역 특유의 젊은 축제를 표방했다. 올해의 행사에는 <잔다리 쇼케이스(Zandari Showcase)>, <잔다리 스페셜 스테이지(Zandari Special Stages)>, <잔다리 아티스트 라운지(Zandari Artist Lounge)>, <잔다리 컨퍼런스(Zandari Conference)>, 잔다리 오픈닝 & 애프터 파티(Zandari Opening & After Party)>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 동안 홍대 일대의 공연장과 라이브클럽 등에서 국내외 163개 팀의 아티스트들과 40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함께 선정한 6개 팀이 내한해 홍대 거리에 위치한 라이브클럽 등지에서 각 팀별로 한 시간 정도 쇼 케이스 형식으로 진행된 <잔다리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와는 별도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잔다리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잔다리 페스타’의 주관사인 ㈜잔다리컬처컴퍼니,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 등의 공동주관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프랑스의 밤 : 에스프리 프랑세(French Night : Esprit Français, 이하 에스프리 프랑세)>이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의 공식 개막행사인 <잔다리 오픈닝 파티>는 개막식과 더불어 특별 게스트들의 공연으로 9월 30일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es24 무브홀(Muv Hall)에서 펼쳐졌다. 국내외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개막식 첫 무대는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렉트로닉 팝 밴드 ‘콜트 실버즈(Colt Silvers)’였는데, 이들의 무대는 개막공연 첫 순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역동성을 보여줬다. 10월 2일 열린 이 축제의 스페셜 스테이지인 ‘에스프리 프랑세’를 전후하여 6개의 프랑스 밴드들이 홍대 일원의 다양한 장소에서 <잔다리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잔다리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써, 공연기획에서 홍보까지 참가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쇼케이스다. 에반스 라운지(Evans Lounge)에서 ‘텔레페릭(Teleferik)’의 쇼케이스가, 고고스2(Gogos2)에서는 ‘콜트 실버즈’, 상삼마당(KT&G Sangsangmadang) 라이브 홀에서는 ‘컬러즈 인 더 스트리트(Colours in the Street)’, 클럽 FF(CLUB FF)에서는 ‘코코모(KO KO MO)’등 10월 1일 하루 동안 4개의 프랑스 밴드들이 <잔다리 쇼케이스>에서 한국의 관객들을 만났다. 10월 2일에는 상삼마당에서 ‘차이니스 맨(Chinese Man)’의 쇼케이스가 열렸으며, 10월 3일에는 클럽 FF에서 ‘더 디지 브레인즈(The Dizzy Brains)’의 쇼케이스가 진행되었다. 여섯 밴드 모두 팀 당 한 시간씩 진행되었으며 한국 관객은 물론 한국의 뮤지션, 음악 관계자들이 프랑스 인디 밴드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잔다리 쇼케이스>와는 별도로, ‘잔다리 페스타’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단체나 브랜드, 아티스트 그룹에서 기획한 공연 무대인 <잔다리 스페셜 스테이지>가 10월 2일 서울 Yes24 무브홀에서 ‘에스프리 프랑세’라는 타이틀로 개최되었다. 이날 출연진으로는 락, 소울, 펑크, 일렉트로닉 등의 장르에 영향을 받은 팀으로 화려한 탄테이블 스킨을 자랑하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Marseille) 출신의 3인조 밴드 ‘차이니스 맨’, 90

년대 이후 영국의 모던 록인 브릿-팝(Brit-Pop)을 기반으로 프랑스 팝을 구사하는 4인조 밴드 ‘컬러즈 인 더 스트리트’, 록음악의 리프를 써서 팝 멜로디와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표현 하는 ‘콜트 실버즈’, 70년대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탄생 시키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듀엣 ‘코코모’, 70년대 소울과 록에서 영감을 얻은 파리출신의 밴드 ‘텔레페릭’, 독특한 기타 리프와 통렬한 사회 비판이 인상적인 ‘더 디지 브레인즈’였다. 특히 이날 공연의 주인공은 ‘더 디지 브레인즈’였는데,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출신의 4인조 밴드로 “마다가스카르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세계를 기록한 진정한 밴드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밤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연에서 ‘더 디지 브레인즈’는 다섯 번째 출연진으로 12시 50분경에 무대에 올랐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그들은 가난과 부패, 정치인의 모순 등 마다가스카르의 현실을 록 음악을 기반으로 표현했다. 이들의 공연을 본 국내 음악관계자들은 “이미 로큰롤을 하고 있는데 로큰롤을 더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고 평했다.

이번 ‘잔다리 페스타’에 참가한 6개 프랑스 인디밴드들에 대한 선정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주관하였으며,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학 교육 협력과의 시청각영상교류담당관 기욤 고베르(Guillaume Gaubert)와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니콜라 도야르(Nicolas Doyard)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정부단체가 자국의 뮤지션을 한국에 알리는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에스프리 프랑세’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 뷰로 엑스포트(Bureau Export),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가 주최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가 직접 참관하였으며, 한국 내에서 프랑스 인디음악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글: 김진근 / 사진 제공: (주)잔다리컬처컴퍼니)

콜트 실버즈



다니엘 하딩&파리 오케스트라 DANIEL HARDING & ORCHESTRE DE PARI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1.15-2016.11.16. 예술의전당 외

주관기관

한국: 빈체로

프랑스: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

2016년 11월 15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11월 16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Orchestre de Paris) 내한 공연이 있었다. 파리 오케스트라의 이번 내한은 1985년 첫 내한 공연 이후 2007년, 2011년에 이어 5년 만에 가진 네 번째 공연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무대에서 파리 오케스트라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Pelléas et Mélisande)> 모음곡, 베를리오즈(Louis Hector Berlioz)의 <로미오와 줄리엣(Roméo et Juliette)> 모음곡으로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선보였고, 멘델스존의(Felix Mendelssohn)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Joshua Bell)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었다.

파리 오케스트라는 1967년 창단 이후 뮌슈(Charles Munch),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솔티(Georg Solti), 바렌보임(Daniel Barenboim) 등의 지휘자들을 음악감독으로 기용하면서 세계 최고의 메이저 오케스트라 반열에 올랐다. 특히, 21세기 들어 정명훈 휘하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adio France Philharmonic Orchestra)와 건강한 경쟁 관계를 이루며 프랑스 관현악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도 했다.

파리 오케스트라의 이번 내한 공연은 기존의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쌓은 신뢰를 지닌 지휘자와 협연자가 함께했다. 지휘는 다니엘 하딩이 맡았다. 2016년 9월 파리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그는 2006년,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Mahler Chamber Orchestra)와 첫 내한 공연을 가진 후, 2014년에 수석 객원 지휘자 신분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ondon Symphony Orchestra)와 두 번째 내한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세 번째 내한이었다. 협연을 맡은 조슈아 벨은 이번 공연이 일곱 번째 내한으로 국내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클래식 전문 기획사 빈체로(Vincero Arts Management & Entertainment)가 주최했다. 빈체로는 1995년에 설립된 공연기획사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10개 이상의 히트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Frederic Desaphi



© Nicolas Lo Calzo

빈체로가 해외음악가들을 초청하는 방식 중 하나는 일본이나 아시아 순회 공연을 앞둔 음악가나 오케스트라를 섭외해 한국에 내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파리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도 빈체로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의 공연기획사 가지모토를 통해 내한 공연으로 이끌 수 있었다.

클래식 시장이 큰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순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오케스트라는 대개 1-2년 전 방문국과의 순회 공연을 일정을 조율한다. 빈체로의 파리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은 2015년에 계획되어 그해 7월부터 파리 오케스트라와 본격적으로 교섭했다. 업무상 파리 오케스트라 측과 직결되어 소통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서 말한 일본 기획사 가지모토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파리 오케스트라가 프랑스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이를 한국 측과 함께 한국-프랑스 양국이 지원해 2015년 12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3차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다.

내한 공연이 확정된 당시에는 협연자가 미정이었는데, 조율을 통해 조슈아 벨로 확정했다. 또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자 파리 오케스트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프랑스'나 '파리'라고 했을 때 떠오르거나 혹은 프랑스의 음악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국 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베를리오즈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을 선보이게 되었다.

2016년의 라인업이 확정된 2015년 후반부터 파리 오케스트라의 내한은 국내 클래식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여러 공연들 중에 대표적 기념공연으로 손꼽혔다. 이번 내한 공연은 국내 언론으로부터 "프랑스 작품이라도 서로 다른 색깔을 풍길 수 있다는 가능성"(아시아경제 2016년 11월 18일자), "명쾌한 지휘, 감각적 음색"(연합뉴스 2016년 11월 17일) 등의 호평을 받았다.

(글: 송현민 / 사진 제공: 빈체로)

한불수교 130주년의 기원은

1886년(고종 23년)에서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에서

비롯한다. 이로부터 현대사의 절곡을 지내면서

양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가 적지 않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시각예술 분야(미술)의

교류는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이뤄져왔다.

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행사가 수적으로(문화예술

분야 332건 행사 중 114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각

228 천경우, 정연두 X MAC/VAL 레지던시 및 전시

230 국립현대미술관 &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교류 사업

234 이배 전 Lee Bae

236 코리아 나우! Korea Now!

238 배병우 전 Bae Bien-U

240 서울, 빨리 빨리! Seoul, Vite Vite!

242 서울-파라-서울 Seoul-Paris-Seoul

244 이블, 새벽의 노래III Aubade III

246 정글 슈즈 Jungle Shoes

248 김수자 <투 브리스> To Breathe

250 한묵 & 이응노 : 파리의 두 한국 현대작가

252 서울사립미술관 & 팔레 드 도쿄 교류 사업

254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 Staring at you staring at me

256 오브제 활성화 Objets Activés

258 한미사진미술관

260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스크랩북 Henri Cartier-Bresson

262 KM9346 : 한국-모비앙 Korea-Morbihan : KM9346

264 무브! 무브! 무브! Move! Move! Move!

266 통의동보안여관 &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교류 사업

268 프랑스와즈 위기에 사진전 Françoise Huguier

270 장 폴 고티에 전 Jean Paul Gaultier

272 정현 <서 있는 사람> L'Homme debout

274 2016 아트파리 아트페어 : 한국주민국

Art Paris Art Fair 2016: La Corée á l'honneur

276 보이지않는 가족 The Family of the Invisibles

278 한국의 도시성 Urbanités Coréennes

280 이응노 전 Lee Ungno

282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Lascaus Exposition Internationale

284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 파사주 Jean-Pierre Brigaudiotd : Passages

286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 La terre, le feu, l'esprit

288 파라다이스 X 홍티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290 2016 어린왕자 전 Le Petit Prince 2016

292 터블런트 트랜지션 : 포토그래픽 메시지 프롬 코리아

Turbulent Transition : Photographic Messages from Korea

294 러브송 : 한국→프랑스 Love Song, From Seoul to Paris

296 ACC 프로젝트 & 라 빌 아 데 아르 교류 사업

298 샤를 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 Charles Perrault

300 음식을 입다 Textifood

302 한국 전통 목조각, 꼭두의 아름다움 Kokdu, Compagnons de l'âme

304 홈 시네마 Home Cinema

306 이천시 & 리모주 자매결연도시 사업

308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 ORLAN TechnoBody

310 발로리스 국제비엔날레 : 한국주민국

Biennale Internationale de Vallauris : La Corée á l'honneur

312 팔로우 미, 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여행

Follow me, voyage d'architecture en Corée

314 울림 Résonance

316 서래마을 한-불 공공미술 프로젝트 Projet d'art public à Seorae

318 듣는 나라의 엘리스 Through the Listening Glass

320 코리아 온/오프 Korea On/Off

322 2016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Busan Biennale 2016 <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

324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 한국주민국 Révélations La Corée á l'honneur

326 무한에서 중심으로 De l'infini au Centre

328 상탈 아커만 그 이후 D'après Chantal Akerman

330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전 L'exposition Musée d'Orsay

332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 파리국제예술공동체 교류 사업

334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 Lingering Nous

336 르 코르뷔지에 전 Le Corbusier

한국과 프랑스, 서로에게 ‘스며들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각예술 분야(미술)에서 프랑스가 이룩한 공적은 결코 적지 않다. 이는 서구 미술사(史)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현대미술의 시작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상주의(L'Expressisme)가 발현한 곳이 바로 프랑스다. 현대미술의 시작이 프랑스에서 발현된 이유를 살펴보면 아시아와의 교류가 그 계기 중 하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마네(Edouard Manet), 모네(Claude Monet),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르누아르(Auguste Renoir), 드가(Edgar De Gas) 등으로 대표되는 인상주의는 평면성이 강조되는 현대미술의 표현적 특성을 담고 있는 19세기 후반 발현된 미술사조다. 당시 프랑스가 수입하던 일본의 차(Thé) 포장지에 판화 형식으로 새겨진 우키요에(うき-よえ, 浮世絵)를 접한 일련의 작가들이 인상주의를 출범시킬 때 이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 현대미술은 서구와 동양의 표현의 교류가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광복 이후 꾸준히 작가의 유학과 창작의 장소로서 프랑스와 교류했다.

이러한 교류를 재정립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 것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번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면 한국의 우수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가 ‘프랑스 내 한국의 해’라는 명목으로 대거 참여해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그간 프랑스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가 참여한 전시가 한국에서 ‘한국 내 프랑스의 해’라는 명목으로 열렸다.

우선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를 살펴보자. <이불, 새벽의 노래 Ⅲ(Aubade Ⅲ)>, <미래는 지금이다!(The Future is Now!)>, <흙, 불, 혼(La terre, le feu, l'esprit)>한국도자명품전, 배병우<

숲 속으로(D'une forêt l'autre)>, <이배 전(Lee Bae)>, <천경우, 정연두 X MAC/VAL 레지던시 및 전시>(두 작가는 시차를 두고 MAC/VAL이 주관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코리아 나우!(Korea Now!)>, <서울, 빨리 빨리!(Seoul, Vite Vite!)>, 김수자, <투 브리스(To Breathe)>,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Lingering Nous)> 등을 굵직한 전시행사로 꼽을 수 있겠다. 그간 프랑스에서 열린 우리의 미술문화를 알리는 전시는 대부분 고미술을 소개한 전시였다. 그러나 위 전시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 동시에 한국미술에 대한 전시가 대거 소개됐다. 이는 한국 작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번 프랑스 현지 전시는 그러한 양상에 주마가편(走馬加鞭) 격이 된 셈이다.

다음으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 중 저명한 작가나 인사와 연계된 전시를 보면 <보이지 않는 가족(The Family of the Invisibles)>, <오를랑 테크노바디(ORLAN TechnoBody)1966-2016>,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스크랩북>,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니콜라스 쉐퍼(Nicolas Schöffer) <LUX_10-Busan>, <2016 어린왕자전(Le Petit Prince 2016)>,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르누아르의 여인> 등이 있다. 그 면면을 보면 전시장을 자주 찾지 않은 이라도 학교 교육을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들이다. 그런 격에 맞추듯 그 준비 과정은 엄격했지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라는 전제가 행사 준비에 있어 윤택유 역할을 했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교류전도 마련됐다. <난지X과 비웅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도시괴담>, <하늘의 마법사

(Magiciens du ciel)>/<0상실록(Annales de 0-SANG)>이 그것이다. 한국과 프랑스 현지에서 현역으로 작업하는 양국의 동시대 작가들이 자신에게 있어 서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좀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특징과 의의는 앞서 살펴본 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양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는 점이다. 문화 분야만 놓고 따졌을 때, 한국은 프랑스보다 국제예술 분야에서 덜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의 차이로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류는 양국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한 양국의 대표적인 국립기관의 참여는 교류 상대국에 대한 예우이자 질적 수준을 높이는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이는 바로 두 번째 의의로 양국의 대표 작가가 참여하고 대표 국공립미술관, 박물관에서 교차 전시가 개최된 점이다. 일방적이거나 하향식의 문화 흐름을 지양하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세 번째 의의는 향후 ‘지속적 문화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점이다. 행사를 위한 행사,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양국 공·사립 기관과 개인 간 향후 추가 전시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의를 살펴보면 일련의 전시가 양국의 특징, 대표 도시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닌 양국 각지에서 개최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울과 파리로 한정되던 문화중심주의를 타개하고 지역도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여 의의를 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양국의 다양한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의의로 덧붙이고자 한다.

문화는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우호적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바로 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류’로 진행됐다.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접목이 현대미술의 출발이라는 큰 사건을 야기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국과 프랑스의 이번 수교행사가 미래 미술사의 굵직한 일대 사건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글. 황석권)

천경우, 정연두 x MAC/VAL 레지던시 및 전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정연두 <디씨 에 다이외르(D'ici et d'ailleurs)>

2015.10.24-2016.04.03.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MAC/VAL,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 de Marne)

천경우 <더 모스트 뷰티풀 웨이트(The Most Beautiful Weight)>

2016.04.16-2017.04.09.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MAC/VAL,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 de Marne)

주관기관

한국: 천경우, 정연두

프랑스: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MAC/VAL,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 de Marne)

프랑스 파리 남쪽의 비트리 쉬르 센느(Vitry-sur-Seine)에 있는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MAC/VAL, Musée d'art contemporain du Val de Marne)에서 한국의 동시대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가 열렸다. 주인공은 정연두와 천경우. 사진을 기반으로 둔 복합 설치 작품과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작가는 MAC/VAL의 초청으로 각각 2-3개월간 이곳에 거주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작품을 제작했다.

2005년 설립된 MAC/VAL은 2000여 점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펼치고 있다. MAC/VAL은 미술을 통해 대중의 창의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들을 작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일을 미술관의 주된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미술관의 이러한 대안적 비전은 그 위치와 관련 깊은데, 이곳이 이민자와 노동자 계층이 주를 이루는 파리 외곽의 문화 소외지역이기 때문이다. 미술관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정연두와 천경우 작가가 초청된 레지던시다.

일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세계 각지의 여러 작가를 특정 기간 동안 함께 초청해 미술계의 내적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MAC/VAL은 단 한 명의 작가에게만 기회를 준다. 레지던시에 초청된 작가는 사전 리서치 기간을 포함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미술관에서 생활하며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들은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고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이들을 작품에 직접 참여케 해 장소 특정한 신작을 제작하는 것이다. 2007년 인도의 실파 굽타(Shilpa Gupta)를 시작으로, 한국의 김수자, 모나 하툼(Mona Hatoum), 마인 흥 응우옌(Nguyen Manh Hung), 카를로스 아모랄레스(Carlos Amorales) 등 국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이 MAC/VAL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2015년 여름, MAC/VAL을 찾은 정연두는 프랑스 이민자의 경험을 다룬 신작 시리즈 <디씨 에 다이외르(D'ici et d'ailleurs)>를 제작했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로 사람들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탐구해 온 작가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강제로 파리 도시 외곽 변두리에 거주하게 된 베트남 이민자의 삶을 다룬 책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작가는 미술관 주변 지역에 사는 콩고, 튀니지, 인도, 코트디부아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3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본국을 떠나기 전 품은 '프랑스 드림(Dream)', 이민을 온 이후의 겪은 경험에 대해 질문했고, 최종적으로 8명을 선정해 그 이야기를 작업으로 형상화했다. 최종 작품은 이민 경험의 재현과 재구성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사진을 11겹으로 잘라 입체화한 이미지, 작가가 인터뷰한 이민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로 구성됐다. 전시 개막에는 약 2000명의 관객이 방문하며 화제를 모았다.



정연두

천경우



정연두에 이어 2015년 겨울 MAC/VAL의 레지던시에 참여한 천경우는 미술관 지역에 관한 두 신작 프로젝트<더 웨이트(Weight)>와 <더 모스트 뷰티풀 웨이트(The Most Beautiful Weight)>를 선보였다. 사진 작업 <더 웨이트>는 이민을 와서 프랑스어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 18명을 작품에 초대해 완성했다. 작가는 학생들에게 서로를 엮은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장시간 노출로 그들의 변화하는 움직임을 촬영했다. 흐릿한 이미지로 남은 초상은 프랑스에 이민과 그들이 겪는 신체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를 시적으로 암시했다. <더 모스트 뷰티풀>은 지역의 청소년 근로자 49명과 협업한 퍼포먼스 설치 작업. 작가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청소년 근로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갔다. 작품은 장갑으로 덮인 손 사진과 귀여운 드로잉이라는 두 장의 묶음 이미지들로 완성됐는데, 이 드로잉은 "당신이 일을 할 때 가장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작가의 질문에 장갑 사진의 주인공이 눈을 감고 직접 그린 이미지이다. 공공영역에서 알하는 근로자의 감성이 녹아 있는 이 작품은 그들의 직업에 관한 인식과 작업을 통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정연두와 천경우 작가의 레지던시와 이 과정에서 제작된 신작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가 작가의 작품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성공적인 교류 사례로 손꼽을 만하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천경우, 정연두)

천경우



국립현대미술관 &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미래는 지금이다!(The Future is Now!)〉

2015.08.28-2015.11.29.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Friche de la Belle de Mai)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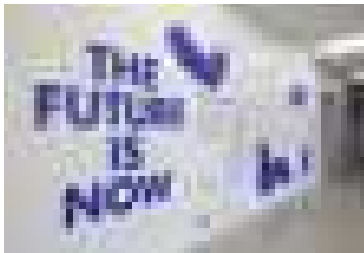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Echo System : Gilles Barbier)〉

2016.04.13-2016.07.31. 국립현대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Friche de la Belle de M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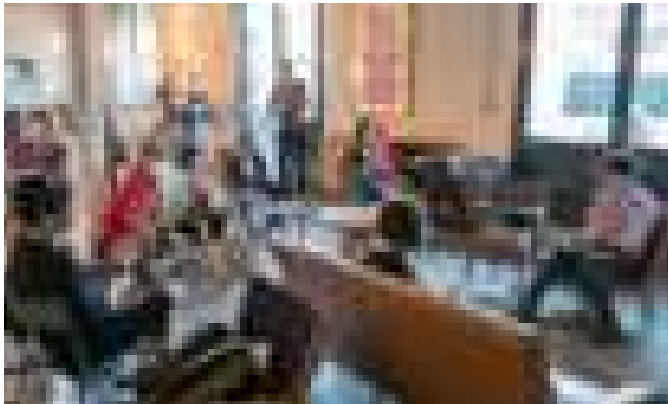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과 프랑스 마르세유(Marseille)의 복합문화예술공간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Friche de la Belle de Mai)는 교류를 통해 양국에서 각각 〈미래는 지금이다!(The Future is Now!)〉와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Echo System Gilles Barbier)〉전을 선보였다. 먼저 2015년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에서 국립현대 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인 〈미래는 지금이다!〉전을 열었고, 201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르세유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가 질 바비에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는 프랑스 남부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에 위치한 대규모 창작 단지이다. 70개의 레지던스에서는 400여 명의 예술가와 프로듀서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600여 개의 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것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르를 초월한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과 혁신을 원동력으로 돌리는 거대한 발전소와도 같다. 더불어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이곳의 총 면적은10만㎡로 5개의 공연장, 2400㎡ 규모의 전시 공간, 8000㎡의 테라스 옥상, 교육 시설, 체육관, 서점, 레스토랑, 정원은 물론 탁아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과거 대규모 담배 공장이 1990년 문을 닫아 침체되었던 공간을 1992년부터 마르세유에서 부지를 매입해 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오늘의 대규모 예술 창작 및 관람 단지로 거듭난 것이다.

〈미래는 지금이다!〉

〈미래는 지금이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중 '미래'라는 주제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멀티미디어 장르의 작품 40여 점을 엄선하여 선보인 전시이다. 이번에 소개된 작가들은, 백남준, 곽덕준, 박현기, 공성훈, 김해민, 김창경, 김범수, 육태진, 정정주, 정은영, 함양아, 김수자, 김승영, 임흥순, 진기중, 유비호, 정연두, 김홍석, 이기일, 안정주, 김세진, 박혜수, 고승욱, 임민욱, 오용석, 박준범, 안세권, 문경원+전준호, 방&리, 에브리웨어, 박제성, 문준으로 세대를 초월한 작가 구성을 통해 한국 뉴미디어 아트 of 흐름을 개괄할 수 있다. 특히 비디오



정연두, <Documentary Nostalgia>

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의 작품이 소개되어 현지 관계자 및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이번 전시의 제목인 〈미래는 지금이다!〉는 미래에 대한 백남준의 정의이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1987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뉴미디어 아트와 관련해 만들어 온 '미래'를 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기존 전시에서 선보였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뉴미디어 작품에 14점을 추가하여 총 33명 작가의 41개 작품을 로마 국립 21세기 현대미술관(MAXXI, National Museum of XXI Century Arts in Rome)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전시했다. 이어서 피렌체의 현대미술센터인 르 무라트(Le Murate)에서 〈뉴미디어 아트 프롬 코리아(New Media Art from Korea)〉라는 전시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헝가리의 한국문화원에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순회 전시가 있었다. 이렇게 유럽 순회 전시에서 이어진 마르세유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 전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관계자들은 평한다.

로마에서 이번 전시를 사전에 관람한 마르세유 프리슈 측의 대표단들은 이번 전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에 참여했다. 이후 한국을 방문해 기관 간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전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고려되었다. 첫째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간 중 개최하는 것, 둘째는 마르세유 현지 사정이다. 회계 연도가 가을에 시작되는 프랑스의 경우 주요 행사가 9~10월에 편중되어 있다. 파리와 리옹 등 타 도시의 주요 현대미술 행사가 9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여, 마르세유 시에서는 매년 현대미술 행사를 다소 이른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전략으로 활기를 극대화해 왔다. 남프랑스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뒤늦은 피서를 즐기는 관광객 층을 흡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술계 관계자들의 참여율을 높여 마르세유의 현대미술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미래는 지금이다!〉를 마르세유 연간 주요 미술행사로 주목하기 위해 8월 28일에 개막하도록 전시 기간을 선정하였다.



오프닝은 프리슈 시설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약 4000명이 참여해 축제를 방불케 했다. 몇몇 작가들은 설치부터 오프닝까지 현지에서 체류하며 진행에 참여했다. 프랑스 측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높은 프로 정신과 신속한 대응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유럽 순회전의 노하우로 작품 설치 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도 민첩하게 진행되었다. (글. 이화행)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

질 바비에에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공화국(Republic of Vanuatu) 태생이다. 이곳에서 청년기까지를 보낸 뒤 20세에 프랑스로 건너가 마르세유 국립미술학교(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Marseille)를 졸업하였고, 이후 마르세유를 근거지로 해 활동해왔다. 작가는 언어(문학)와 과학, 해부학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드로잉·회화·조각 및 설치 등을 선보여 왔다.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이하 <에코시스템>전)은 그런 작품 세계를 ‘언어(문자)’, ‘생명계임’ ‘인간주사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언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 생활 초기 시도하였던 ‘백과사전 베끼기’다. 종이에 잉크와 과슈를 사용해 프랑스의 대중적 백과사전을 ‘모사’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 작업의 근원을 바누아투에서의 기억에서 찾는다. 바누아투는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차례로 겪으며 공용어가 3개나 되며 사투리도 다양하다. 그런 환경에서 겪었던 언어적 정체성 혼란이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변증>은 작가를 닮은 두상의 입 부분에서 말풍선을 형상화한 흰색 국수 다발 같은 것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형상을 한 조각 작품이다. 전시 담당 큐레이터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관람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던 기분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의 상당수 작품이 예술가와 대중의 소통 문제를 위트 있게 다룬다. 특히 분홍색, 연두색,

검은색 등 원색을 사용한 두상 시리즈가 그러하다. 야구방망이로 두상을 내리치는 형상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작가 자신에게 내리는 경고 같다. 머리에 ‘뿔어뻥’을 집어넣은 형상, 입을 길게 일그러뜨려 놓은 형상 등은 고리타분한 미술평론가들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에 다름 아니다.

언어와 관련한 작품이 수월하게 읽히는 것과 달리 <생명계임>, <인간주사위>는 난해하다. 드로잉 작품 <생명계임>은 1970년 수학자 존 콘웨이(John Conway)가 고안한 ‘세포자동자(細胞自動子)’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고 한다. 임의로 배열된 세포들이 인접한 세포들의 변화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 소멸하면서 삶과 죽음, 증식의 퍼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인간주사위>는 프랑스 소설가 루크 라인하르트(Luke Rhinehart)의 동명 소설에서 따온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이 주사위를 굴러 나오는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체스판의 ‘폰(장기의 줄)’을 의인화한 난장이 인형들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작가의 그런 의도가 서울 전시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각각 2~3차례씩 상대 국가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품 분량이 한국으로 옮겨오면서 대폭 축소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마르세유 전시에서 선보였던 400여 점 중 100여 점만이 건너왔다.

<세포자동자> 같은 어려운 원리를 반영한 작품 세계를 드로잉 몇 점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인간주사위> 인형들은 마르세유 전시에서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폰’을 옮기듯 진열돼 있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전시에서는 슈퍼맨 복장, 연미복, 광대옷 등 다양한 차림의 난쟁이 인형만이 생뚱맞게 진열되어 있었을 뿐이다. 자신의 작업 방식이 에코시스템처럼 서로 물리고 물려 있다는 작가의 주장을 한국 전시에서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작품 수가 축소되면 그에 맞춰 새롭게 큐레이팅해야 하나, 현지에서의 전시 제목과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 상대 측이 비영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국제교류 경험이 적다보니 작품 도착이 늦었고, 새롭게 기획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프랑스 지방의 비영리기관 간의 교환 전시가 격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차 중견 작가 후원 시리즈인 이불 작가의 <새벽의 노래 III>를 파리의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전시했다. 우리 소장품 전인 <미래는 지금이다!>전이 마르세유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에서 열렸고, 같은 기관에서 열렸던 <에코 시스템전>을 화답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질 바비에에는 프랑스 측에서도 대표작가로 강하게 추천했던 작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질 바비에(Gilles Barbier), <나골 6(nagol 6)>

이배 전 LEE BA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카르트 블랑슈 아 이배(Carte Blanche à Lee Bae)>¹

2015.09.18-2016.01.25.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이슈 뒤 푸(Issu du feu)>²

2016.04.01-2016.11.02. 쇼몽성(Chaumont-sur-Loire)

주관기관

한국: 현대회랑^{1,2}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¹, 쇼몽성(Chaumont-sur-Loire)²



이배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재불 작가이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대구현대미술관과 프랑스의 페르네 브랑카(Fernet Branca) 재단의 개인전과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단색화전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단색화 2세대 작가인 이배는 서체적 추상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평면 회화와 '숯'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장인 소피 마카리우(Sophie Macariou)의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5년간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 이슬람 예술부 책임자로 근무 후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되면서 매년 현대미술 기획전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본래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리옹 출신의 사업가인 에밀 기메(Emile Guimet, 1836-1918)가 이집트, 그리스, 일본, 중국 등을 여행하면서 모은 소장품을 1879년 리옹에서 선보인 것이 기원이 되었다. 이후 1889년 파리로 소장품을 이전하면서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이후 에밀 기메는 아시아미술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소개하였다.

1927년부터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프랑스국립박물관에 속하게 되었고, 1945년에는 루브르박물관의 아시아미술품이 국립기메동양박물관으로 이전되고 반면 기메의 이집트미술품은 루브르박물관으로 이전되었다. 1993년에는 재건축을 비롯한 프로그램의 혁신이 결정되면서 유럽 소재 대표적인 아시아박물관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인도, 중국, 일본, 한국관 외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히말라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미술품, 도자기, 공예품 등 고미술을 소장하고 있다. 더불어 고미술 중심의 기획전 및 학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고미술 전문 박물관이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고 이를 소개하게 된 것은 최근 관장의 경영 방침에 따른 변화 덕분이다. 그 결과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은 인도 작가 라나 바네르지

<달집 태우기>



(Rina Banerjee), 중국작가 첸젠(陳真), 최근 일본의 사진작가 아라키에리카(あらき えりか)까지 현대 미술을 소개하며 고미술품과의 교차와 소통을 추구해 왔다. 한국의 현대미술작가로는 이번 이배 작가의 전시가 처음이다.

소피 마카리우 관장은 프랑스의 한 평론가로부터 이배 작가를 추천 받은 후, 수차례 작업실 방문과 논의를 거친 끝에 전시의 결실을 맺었다. 마카리우 관장은 박물관 4층에 위치한 돔 구조의 홀을 전시 공간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카르트 블랑슈(Carte Blanche)', 한국어로 번역하면 '백색 카드'를 부여했다. 이는 모든 선택권을 작가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이다. 이배 작가는 개성이 강한 이 공간을 지혜롭게 풀어냈다. 천장과 바닥을 비롯, 전체적으로 원형 구조를 지닌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작가는 특별한 장소 해석이 필요했다. 바닥을 한지로 배접하고 채광을 조절하기 위해 몇 개의 창문을 가렸다. 관람객이 박물관 4층의 좁은 목재 계단을 올라 전시장 안으로 진입한 뒤 자연 채광을 통한 이상적인 조도의 원형 공간에서 작품을 관람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는 모든 작품을 새롭게 제작했다. 여러 개의 숯 덩어리를 설치하고, 3점의 회화 작품과 비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간과의 조화를 위해 수백 장의 스케치를 했다. 작가는 특히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상설 컬렉션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영적인 '에스프리(Esprit)', 즉 숭고함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번 전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인 작업, 즉 장소를 의식적으로 인지해 작품을 구상하고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십 년 간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현지에서 작업 및 전시 활동을 해 온 작가의 노하우가 심분 발휘되었다.

이번 숯덩이 설치 작업은 작가가 프랑스의 브르타뉴(Bretagne) 반도 가브리니(Gavrinnis) 섬의 거석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인간이 운반했다고 믿기 어려운 압도적인 규모의 돌덩이에서 어떤 기호나 상징을 초월한 절대적인 추상을 보고, 작가는 숯덩이들을 끈으로 묶음으로써 개별적 형태를 상실한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추상화하였다. 숯은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공수해왔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숯을 제작하고 운반하는 과정 모두 작업의 일부였다. 전통적인 황토 가마 안에서 보름 동안 통나무를 굽고 또 보름 간 열기를 식히는 과정은 도공의 작업 과정을 닮았다.

전시장 한 편에서는 청도에서 촬영한 영상 작품 <달집 태우기>를 상영했다. 이 또한 작가의 우리 문화의 기원에 대한 탐구의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것이며, 강한 샤머니즘을 보여준다. 그는 동양 미술을 서양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서구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의 평면 작품의 흰색 바탕은 여백이 아니다. 여백처럼 보이는 흰색 바탕은 물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작가가 입장을 서양과 동양의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채 통로를 연상시키는 소통의 의지가 담겨 있다. 본 전시 이후 2016년 4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쇼몽성(Chaumont-sur-Loire)에서 <이슈 뒤 푸(Issu du feu)>이 다시 열려 한국 미술에 대한 조명이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현대회랑)



<이슈 뒤 푸(Issu du feu)> © Lee Bae / photographe Andr'e Maurin



<이슈 뒤 푸(Issu du feu)> © Lee Bae / photographe Andr'e Maurin

코리아 나우! KOREA NOW!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19-2016.01.03.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주관기관

한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코리아 나우!(Korea Now!)>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리고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공동주체로 기획된 한국의 현대 공예·패션·그래픽 디자인을 총망라한 대규모 전시였다. 2015년 9월 19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박물관의 상설전시관을 제외한 여러 개의 기획전 시장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된 예외적인 사업이었다.

프랑스 국립 국립장식미술박물관은 루브르 궁전(Palais du Louvre) 내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과 함께 위치해 있으나, 내부적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1882년 민국박람회 때 탄생했으며, 1905년 루브르 궁전에서 개관하였다. 이후 1996년 그랑 루브르 프로젝트(Grand Louvre Project) 당시 재조성되었고, 1997년 의상과 섬유관이 새로이 문을 연 뒤, 1999년 광고 및 홍보관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중세부터 오늘날의 첨단 디자인까지 프랑스의 장식미술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컬렉션을 총망라해 소장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연간 60만여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의 주요 명소이다.

<코리아 나우!> 전시에서는 한국 공예·패션·그래픽디자인 등 3개 분야 총 151명의 작가가 1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 공예전은 임미선 전 클레이아크미술관장이 예술감독을 맡아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박물관의 보존 담당인 카린 라크망(Karine Lacquemant)과 협업하였다. 이들은 '애정 (Affection)'을 주제로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한국 공예가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총 105명 작가의 890여 점의 작품이 세 개의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전통(오마주 : 한국공예 원형을 보존 계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작품), 현재(공명 : 옷칠나전·한지·유기·도자·가구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현대공예가의 작품), 그리고 전통과 현재의 융합(혼성 : 젊은 디자이너와 숙련된 장인 간의 협업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나전의 정해조 작품과 그 옆에 젊은 작가인 이광호의 작품을 소개하고, 한지의 이영순과 강성희 작품, 김동현과 김형주의 금속 소재 식기류, 그리고 권술기, 문준선, 김희주, 민복기 등이 참여한 장신구 전시까지 다양한 한국의 공예와 장인 기술을 선보였으며 인간문화재의 작품도 소개되었다.

공예 및 디자인전은 천정이 높은 국립장식미술박물관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테두리처럼 형성된 전시공간에 설치되었다. 전시장 내부는 장순각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가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공간의 중첩, 전통 창호의 문양과 빛의 농담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연출하였다. 이 공간에 양병용의 소반을 비롯한 몇 작품들을 통해 우리의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였다. 한옥의 내부를 연상케 하는 전시장 조성은 프랑스 관람객들로 하여금 한국의 공예 및 디자인을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여백이 깃든 한국적인 분위기를 실감하는데 효과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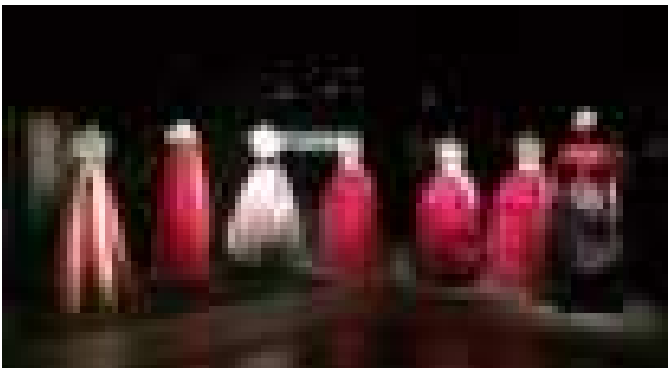
패션 전시는 한국의 역사와 생활문화, 철학에 본질을 둔 한국의 전통·현대 대표작품들을 '오방색'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오방색은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가운데는 황색이다. 김영석, 이영희 등 한복디자이너와 앙드레 김, 진태욱 등 현대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을 비롯해

스티브제이&요니피, 정욱준 등 차세대 디자이너 24명의 전통한복, 현대한복, 현대복식 등 총 270여 작품이 전시되었다. 우리의 전통 의상부터 현재의 트렌드를 담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프랑스 관람객들은 한국의 복식사는 물론 패션 강국의 위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패션 전시는 서영희 한복진흥센터 예술감독과 프랑스 측의 패션전문 큐레이터인 에릭 뤼잘레가 총괄하였다.

그래픽디자인 전시는 '한글과 대중문화의 수렴과 발산'을 주제로 최범 예술감독이 프랑스 측의 그래픽 전문 큐레이터인 아멜리 가스토와 협업하여 기획하였다. 한글을 모티브로 한국 현대 그래픽디자인을 조명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준 이번 전시에는 안상수, 박금준, 슬기워민 등 22명 작가의 포스터, 서적 등 다양한 작품은 물론 전시장 내부에 작가들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근 프랑스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동양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과 지원자가 급증하는 현지의 크고 작은 변화와 더불어 한글에 초점을 둔 이번 기획은 관계자들 및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미술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올리비에 가베(Olivier Gabet) 프랑스 국립 국립장식미술박물관장의 사회로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더불어, 248페이지의 영불 전시도록이 출판되어 45유로에 판매되었다. 전시를 기념하여 최병훈 작가가 디자인한 자연 소재의 벤치를 미술관에 기증하였다.

이번 프랑스 국립장식미술박물관에서의 한국특별전은 3년에 걸쳐 추진한, 진정한 의미의 한-불 협업 프로젝트였다. 프랑스 측 보고에 따르면, <코리아 나우!>는 918,000유로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공동 주최측 외에도 하바스 기업과 LG전자가 후원하였다. 총 8만8000명이 <코리아 나우!> 전시를 관람하였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인사들이 방문하였다. 전시 초기부터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나, 파리 테러사건 이후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미술관 측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테러사건이 전시 기간과 겹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훌륭한 전시가 더 많이 홍보되지 못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배병우 전 BAE BIEN-U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풍경 속으로(Dans le Paysage)>

2015.09.19-2016.01.31.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aint-Étienne Métrop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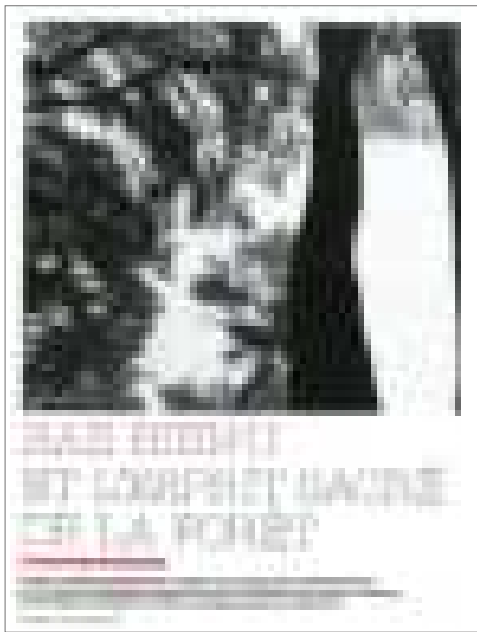
<숲 속으로(D'une forêt l'autre)>

2015.09.26-2016.06.12.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

주관기관

한국: 비비유아트¹²

프랑스: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aint-Étienne Métropole)¹,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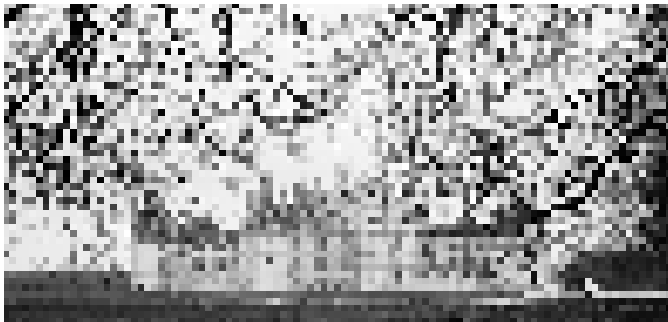


‘소나무 작가’로 통하는 배병우. 1950년 여수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응용미술과 공예도안을 공부한 그는 1970년대부터 독학으로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나무 작업은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배병우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한국의 소나무는 예로부터 한국인이 겪는 생로병사의 동반자로 여겨져 왔다. 작가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나무는 한국인의 영혼을 상징”한다는 작가의 표현대로, 그의 소나무 사진에는 서양 작가는 쉽사리 포착할 수 없는 특유의 한국적 서정이 넘쳐흐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서구 예술계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자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그의 사진전이 프랑스의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aint-Étienne Métropole)과 상보르국립공원의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에서 개최되었다. 두 장소가 프랑스적인 특징을 대변하는 역사적 장소라는 점은 배병우의 사진과 드라마틱하게 대비되며 또한 절묘하게 어울리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프랑스 언론은 한국사진계 거장의 개인전을 크게 주목했다.

먼저 문화예술, 그리고 디자인 도시인 생테티엔에 1987년 문을 연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은 모네(Claude Monet), 마넬리(Alberto Magnelli), 피카소(Pablo Picasso), 레제(Fernand Léger) 등과 같은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2만 여 점 이 넘는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검은 세라믹 판으로 뒤덮인 건물의 파사드가 특징적인 이곳에서는 파리 외곽에서 거의 처음으로 동시대 미술을 선보인 미술관에 속한다. 프랑스의 작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활동을 펼치는 작가를 선별해 1년에 10여 회 정도의 완성도 높은 전시를 꾸준히 열고 있다. 배병우의 개인전에는 그가 주제이자 소재로 탐구하는 소나무, 해변, 숲속 등의 자연 풍경을 담은 흑백 사진이 초기작부터 가장 최근 작업을 골고루 아우르며 소개되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객에게 여백과 채워짐, 존재와 부재, 검정색과 흰색, 선명함과 흐릿함 등 배병우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주요 특징을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숲 속으로>



<숲 속으로> © Le-onard de Serres

한편 파리에서 두 시간 내, 블루아(Blois)에서 15km 떨어진 상보르국립공원에 있는 상보르성에서 열린 개인전은 상보르 숲을 주제로 제작한 신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했다. 프랑수아 1세가 사냥터로 이용하기도 한 상보르국립공원은 유럽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연간 약 2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1947년부터 국립수렵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수많은 원시동물과 딱갈나무 숲, 소나무 숲, 황야지대와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보르성은 1519년부터 1539년까지 프랑수아 1세의 명에 따라 건축되었다. 그리스 십자가 형태로 설계된 성에는 400실 이상이 마련되어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고안했다고 알려진 이중 나선 계단은 성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음악과 조형예술 부문에 공을 들여온 상보르성은 2011년부터 문예와 음악, 예술 부문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프랑스와 세계 저명 작가의 시 낭독회가 개최되거나 클래식 페스티벌이 열리며 이번 배병우의 전시처럼 미술가의 개인전도 개최해 왔다. 그동안 자멜 타타(Djamel Tatah), 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 마물로 발데스(Manolo Valdes)등의 작가가 상보르성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였다.

주최 측은 전시를 위해 배병우 작가를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청했다. 작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회 정도 이곳에 체류하면서 상보르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사진 이미지로 담아냈다. 한국의 자연 풍경을 집요하게 탐미한 배병우에게는 한국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또 다른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남다른 기회인 셈이었다. 상보르성 3층의 넓이 600㎡ 전시장에는 한 폭의 수목화처럼 그의 카메라에 담긴 상보르국립공원의 자연 풍경 사진과 함께 그가 진행 중인 경주의 소나무 숲 프로젝트의 신작도 함께 소개되었다.

“죽어있는 자연 또는 풍경 등, 배병우의 사진은 시간성이 완전히 배제된 보편성을 향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상보르의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인 야닉 메르코이롤(Yannick Mercoyrol)의 평론처럼, 한국 경주와 프랑스 상보르 숲의 사계절을 담은 50여 점의 사진은 자연을 코드로 서로 다른 문화가 교감하는 침묵의 시간을 만들었다. 전시 기간 중에는 컨퍼런스와 대학생과의 마스터클래스 이벤트도 열려 작가의 작품을 알렸으며,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작된 카탈로그도 출판되었다. 전시에 관한 반응이 좋아 애초에 계획된 기간보다 2달여 동안 연장된 일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비비유아트)

서울, 빨리 빨리! SEOUL, VITE, V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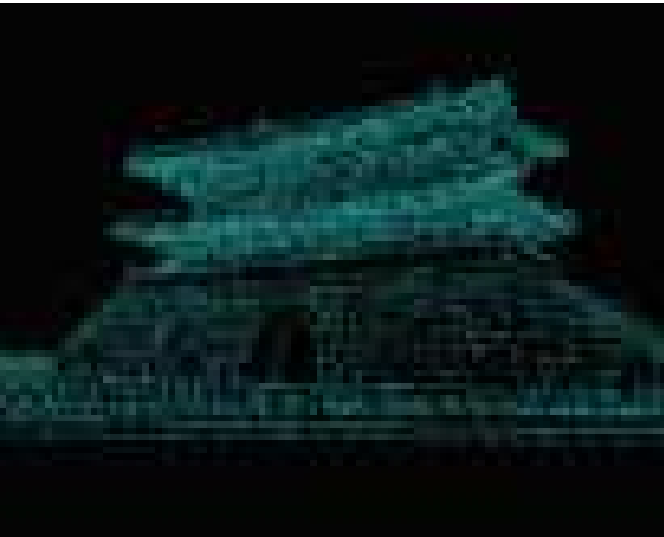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26-2016.01.17. 트리포스탈(Tripostal)

주관기관

한국: 아트선재

프랑스: 릴3000(Lille 3000)



<송례문 Sungnyemun III>

<서울, 빨리 빨리!(SÉOUL, Vite, Vite!)>가 2015년 9월 26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릴(Lille)의 트리포스탈(Tripostal) 미술관에서 소개되었다.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릴 3000(Lille 3000) : 르네상스(RENAISSANCE)'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아트선재와 프랑스의 릴 3000이 함께 주관했다. 큐레이터 장 막스 콜라르(Jean Max Colard)와 릴 3000 문화협회의 디렉터 디디에 푸실리에(Didier Fusillier)가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서울'을 주제로 한국의 현대미술과 한국 예술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전시가 개최된 릴은 프랑스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런던행 유로스타의 경로이다. 보수적인 성격의 여느 프랑스 도시와 달리 릴은 보다 진취적이며 열린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4년도 유럽 문화의 수도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릴 2004(Lille 2004)>를 통해 시는 문화와 예술의 활기로 거듭났다. 이후 '릴 3000'이라는 비영리 문화협회가 주관해 시를 주축으로 몇 차례 다시 한 번 도시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다. 페스티벌이나 비엔날레와는 성격이 다르며, 시에서 기획한 문화예술의 열린 장으로서, 행사의 취지는 동시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발견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문화, 예술로 제한하지 않고 경제 및 뉴 테크놀로지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2006년에는 인도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했으며 2009년에는 <유럽 XXL(Europe XXL)>이라는 명칭 하에 유럽 문화를, 2012년에는 4개월간 판타스틱(Fantastic)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이어왔다.

전시 개막식에서 릴 시장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 여사는 '릴3000'이 4회째 테마전을 기획했으며 이번에 <르네상스(Renaissance)>란 테마로 5개의 도시를 집중 조명했다고 발표했다. 리오, 디트로이트, 서울, 프놈펜, 그리고 에인트 호번이다. 이 도시들은 각각 상처의 역사를 밟고 부활한 도시들이다.



문경원, 전준호, <q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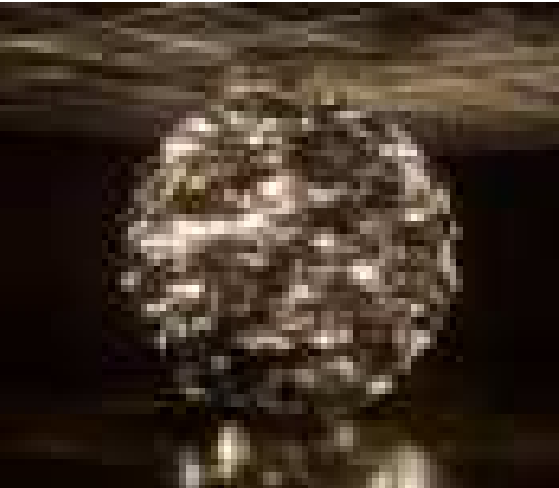
서도호, <High School Uni-Form>



오승열, <Ramen (long)>



이불, <Civitas Solis II>



최우람, <URC-1>

이번 <서울, 빨리 빨리> 전시가 왜 서울이란 도시 이름을 전면에 부각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장 막스 콜라르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시 제목에 포함된 "빨리, 빨리"는 한국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표현이며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역동적인 서울의 활력과 빠른 성장 뒤에 지나친 고도성장이 낳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30여 명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박찬경, 백승우, 함경아, 정연두, 이불, 서도호, 이지연, 최정화, 최우람, 정소영 등 동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으며 국제 도시 서울의 성격을 반영해 프랑스, 중국 등 몇몇 외국 작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만큼 작품들이 다양하고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 미술을 처음 접한 관람객들에게 난해하지 않으면서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한국인의 일상을 담은 모습에서 프랑스인들은 흥미를 느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프랑스 관람객들은 자동차, 비디오방, 아파트, 라면과 음식 배달부를 소재로 한 일상을 담은 작품들에 큰 호기심을 보였고 경탄

을 자아내기도 했다.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스민 작품들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트리포스탈 전시는 기간 내내 많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어린이단체 관람도 이어졌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아트선재센터는 1998년 설립된 이래 젊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해온 대표적 사립 미술관으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건축, 무용, 패션 등 인접 예술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 주관을 맡은 릴 3000은 비영리 문화협회로서 국내외 예술가들과의 다양한 협업 및 네트워크를 통해 릴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리포스탈 미술관은 과거 우편물을 분류하던 건물이 2004년부터 전시장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현대미술 전용 미술관으로 6000㎡ 면적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아트선재)

서울-파리-서울

SEOUL-PARIS-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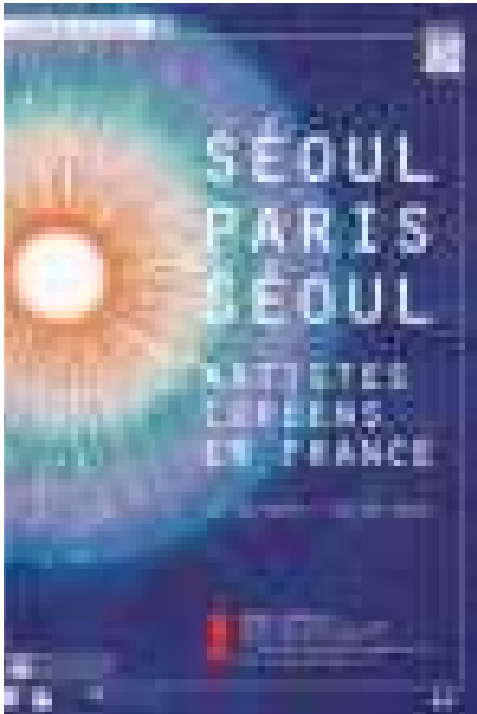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16-2016.02.07. 세르누치 박물관(Musée Cernuschi)

주관기관

한국: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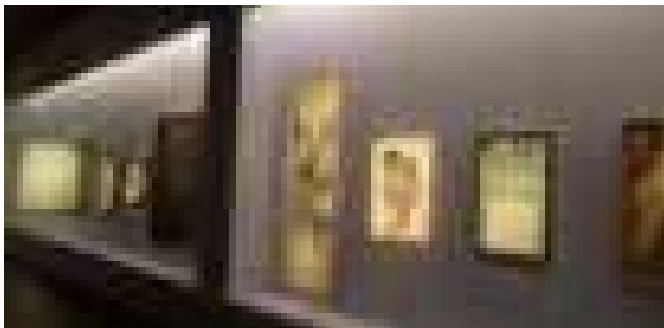
프랑스: 세르누치 박물관(Musée Cernuschi)



파리 몽소 공원(Parc Monceau) 근처에 있는 세르누치박물관(Musée Cernuschi)은 유럽의 5대 중급 예술품 소장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극동 예술 전문 기관이다. 은행가 앙리 세르누치(Henri Cernuschi)가 설립해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동양 예술품과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서 서로 다른 작가군으로 열린 <서울-파리-서울(Seoul-Paris-Seoul): 프랑스의 한국 작가들>전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펼쳤거나 현재까지 그 곳에서 작가로 살아가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프랑스의 현대미술이 한국의 근현대미술과 어떻게 상호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적 전시이자 학술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전시는 두 장소로 나뉘어 열렸다. 먼저 2015년 10월 16일부터 이듬해 2월 7일까지 세르누치박물관에서 열린 <프랑스의 한국 작가들(ARTISTES CORÉENS EN FRANCE)>에는 과거 프랑스에 체류했거나 현재 머물며 활동하고 있는 재불 한인작가들을 소개했다. 파리가 서구 미술의 중심지였던 1950년대 이래, 한국의 많은 작가는 서구 미술의 현장을 체험하고 학습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았다. 그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지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이들의 작업은, 한국 미술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한국 화단이 유럽 미술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전시는 한국 근현대 화가들을 대상으로 1950년부터 1990대까지 시대를 정하고, 작가들이 정착한 연대순으로 3세대를 나누어 이를 또 각각의 테마별로 나누어 소개했다. 배운성, 김환기, 박서보, 김창열, 방혜자, 이응노, 이성자, 한복, 문신, 남관, 정상화, 김기린, 박인경, 심경자, 이우환, 이진우, 윤형근, 이불, 홍인숙, 윤희, 원수열, 채성필 등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22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프랑스에서의 작업'이라는 공통점 아래 한 장소에서 함께 소개되는 몽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파리 세르누치박물관을 비롯해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대전 이응노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총 60여 점이 전시되었다. 이들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이며, 한편으로는 프랑스 현대미술이 어떻게 시기를 달리 한국 미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것과 프랑스적인 것의 차이와 공통점을 질문하고 성찰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박인경, <The older sister>

© Mme inkyung Lee, musée Ungo Lee, Daejeon : rrozz@hanmail.net (en français)

2015년 10월 16일부터 이듬해 11월 7일까지 계속된 두 번째 전시 <한국의 형상화(Figurations coréennes)>는 세르누치 박물관이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입체적 이미지를 선사하는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파리 8구 구청에 별도로 마련한 전시장에서 선보였다. 이 전시에는 한국이라는 동양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술을 향한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는 한국의 작가 손석, 이명림, 진유영, 유혜숙, 문창돈, 황호섭, 정현, 곽수영, 권순철, 민정연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들 또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나 살고 있지만, 첫 번째 전시에 등장하는 이전 세대의 작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적인 것(동양)과 프랑스적인 것(서양) 사이를 오간다. 이들의 작품은 재료 선정부터 스타일까지, 자신들만의 감각과 내면으로 완성된 독창적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물감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화면을 구축하며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손석, 구리 망을 구부리고 두드려 얼굴을 형상화한 부조작업을 주로 선보이는 황호섭 등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화법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한국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이 한 자리에 모여 프랑스의 관객과 만났다.

이 전시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을 프랑스와의 영향 관계 속에서 살폈다는 점에 그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화 이외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작가도 함께 소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 <Poème de Yulgok et poème de Sim Saimdang>

© Mme inkyung Lee, musée Ungo Lee, Daejeon : rrozz@hanmail.net (en français)

이불, 새벽의 노래 III

AUBADE III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19-2016.01.10.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주관기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프랑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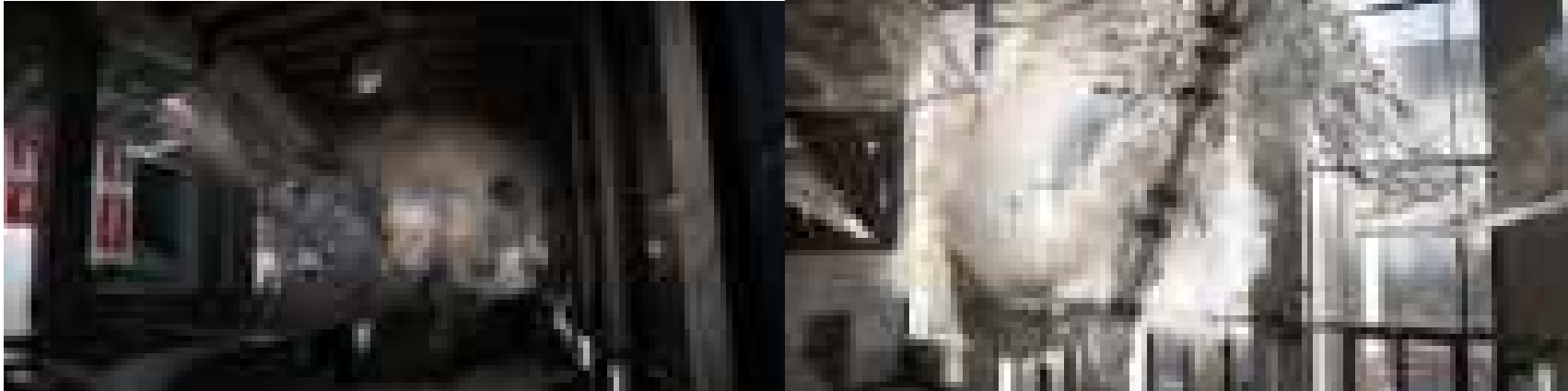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은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와 공동 주최로 <이불, 새벽의 노래 III(Aubade III)> 전시를 개최했다. 2002년 개관한 팔레 드 도쿄는 ‘안티 뮤지엄(Anti-museum)’의 미술관으로 작품을 단 한 점도 소장하지 않는다. 2012년 재개관 후 내부 면적을 확장해 총 22,000m²가 넘는 대규모 전시 공간으로, 파리에서 다른 전시관보다 가장 진취적이며 실험적인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새벽의 노래 III>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선보였던 전시로,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중진 작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첫 번째 해외전이다. 전시는 팔레 드 도쿄의 전시공간 중 ‘명예의 계단(PALIER D'HONNEUR)’에 설치되어 공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구현할 최적화된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불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현대미술관,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뉴 뮤지엄(New Museum), 구겐하임 미술관(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 주요 해외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며 국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현대미술 작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인류의 역사적 사건들과 결합시키고, 성찰과 비판의 시각을 제시하는 대규모 설치작업인 <나의 거대서사>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작 <새벽의 노래 III>는 <나의 거대서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그간 지속해온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은유적이고 진보된 사유와 성찰을 한층 발전시켜 확장된 형태로 제시했다. <새벽의 노래 III>는 독일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의 <새로운 법령을 위한 기념비(Monument des Neuen Gesetzes)>와 20세기 초 힌덴부르크 비행선 등 모더니즘 상징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를 서로 결합시켜 조명탑 구조로 발전시킨 형태의 대형 설치작업이다. 작품명인 <새벽의 노래 III>는 유럽 중세 때 유행했던 연시의 현대적 재해석을 담고 있으며, 삶의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의미와 성찰을 포괄하고 있다.

이 구조물에는 점멸하는 LED 조명과 전시실 전체를 주기적으로 채웠다 사라지는 증기가 시각적 효과를 더한다. 설치물과 공간에 스며든 빛과 증기는 드러냄과 사라짐을 통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생성하며 작품에 무게와 깊이를 더한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작가는 관람객들이 직접 작품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기를 유도하였다. 전시 기획자인 팔레 드 도쿄 카이 호리(Khai Hori) 부 관장은 “이불은 지적 사고의 전개와 예술적 창조 모두에 있어 극도로 정확한 예술가이다. 그녀의 모든 작품은 깊은 내적 성찰의 매개와도 같다”고 작가에 대해 평했다. (글. 이화행,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촬영. 김성재)



정글 슈즈 JUNGLE SHO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23-12.06. 하우스(HAUS) 외

주관기관

한국: 킴킴갤러리

프랑스: 트리포드(Tripode)

<정글 슈즈(Jungle Shoes)>는 오늘날 점차 전형화되고 있는 미술 스타일과 고정적인 작가 정신의 개념에 도전하는 프랑스와 한국의 작가 20명의 작품을 낭트 시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선보인 프로젝트였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은 1960~70년대 프랑스에서 출발한 '상황주의자(Situationist)'적인 태도와 가치를 계승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의 여러 공간에 엉뚱하게 혹은 대담하게 개입하면서 국가와 세대, 매체 사이의 관계에 전복을 시도하고, 기존의 전시나 퍼포먼스와는 다른 개념을 실험하였다. 이런 차별화된 기획 의도는 작가인 김서영과 그레고리 마스(Gregory S. Maass)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의 킴킴갤러리와 프랑스 낭트에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공간 트리포드(Tripode)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이러한 기획의도에 따라 작품이 이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시 장소와 형식을 찾고, 이를 몇 개의 키워드와 주제로 엮으면서 현대미술의 구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시 방법과 미술의 경제 구조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였으며, 각 전시나 이벤트마다 독립성과 효율성을 지향했다.

<정글 슈즈>의 전시는 크게 세 곳에서 나뉘어 열렸다. 먼저 하우스(Haus)에서 열린 전시에서는 역사, 건축, 비공간성, 비시간성, 비물질성, 프로파간다(Propaganda) 등을 주제와 키워드로 삼고 이완, 김상돈, 정서영, 이수성, 매튜 클랑샤드(Matthieu Clainchard)의 작품을 선보였다. 하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방지용으로 건축된 기념비적인 규모의 콘크리트 벙커로 주변의 세련된 프랑스식 건축물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한다. 현재 이곳은 인디음악을 소개하거나, 전시와 다양



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문화적인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인 벨아미콘셉트르(Bel Ami concept store)는 디자인 그룹이 운영하는 매장 형태의 프로젝트 스페이스이다. 미술과 공예, 디자인과 패션 등의 경계가 점차 와해되는 시점에서 현대 미술 작가와 작품에 유토피아적인 환경을 제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경제, 미술과 디자인, 유토피아, 곤란한 전략 등을 키워드 삼고 주재환, 강서경, 박수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잉그리드 루체(Ingrid Luche)가 참여했다. 전시는 이곳의 운영자인 뷔로 알르망(Buro Allemand)과 킴킴갤러리가 함께 기획했다. 상품과 작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곳에서 소개된 작품은 하나의 상품처럼 전시돼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했다.



세 번째 장소인 라 스위스(La Suisse)는 프랑스 현지의 협력 기관인 트리포드가 운영하는 전시실이다. 장소의 이름에서 등장하는 '스위스'라는 명제는 순박한 시골스러움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정결함 혹은 정확함 등 스위스가 드러내는 특징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드러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킴킴갤러리와 트리포드는 장소가 지닌 이런 아이러니한 개념을 포착해 문화적인 오역, 키치(Kitsch), 시대착오, 유머 따위를 주제로 삼아 주재환, 강서경,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잉그리드 루체, 대니 스티브(Danny Steve), 아제딘 살렉(Azzedine Saleck)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개별적인 전시 이외에도 실험적인 이벤트가 전시 기간 내내 열려 화제를 모았다. 오스에서는 권병준 작가의 퍼포먼스 <This is ME>가 전시 개막일에 프랑스의 관객에게 소개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장에서 만드는 음악을 배경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얼굴에 쉴 새 없이 다른 얼굴이 입혀지는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다. 프랑스 낭트 시내 중심의 역사적인 장소인 타렌삭(Talensac) 옆에 위치한 타렌살(Talensal)에서는 역사, 거시적인 오역, 프로파간다를 주제로 프랑스와 한국의 작가 6명의 비디오 영상 작품 10점을 상영했다. 이곳은 건축가, 실내 디자인 그룹이 운영하는 특별한 장소로 과거에는 시장의 중요한 육류 가공 장소였다. 현재는 영화 상영관, 콘서트 홀 등의 이벤트를 사적으로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여는데 사용되고 있다. 낭트 교외의 공업 지역에 있는 모스퀴토 코스트 팩토리(Mosquito Coast Factory)에서는 4개의 퍼포먼스 작품이 현장에서 초연되었다. 이곳은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유명 건축물로, 작품을 선보이는 장소와 환경에 개입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브누아마리 모리소(Benoit-Marie Moriceau)가 설립한 아트센터다. 베노이트-마리 모리소를 비롯해 이슬기, 테오도르 피벨(Théodore Fivel), 그레고와르 모테(Grégoire Motte), 아제딘 살렉 등의 작품이 상황주의, 곤란한 전략, 건축 등의 주제를 담은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이밖에 낭트 시내 여러 장소에서 정서영이 제작한 포스터를 만날 수 있었다. 프랑스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판넬이 있는데, 작가는 이곳에 이 공간을 위해 만든 <2번째 계곡>이라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정글 슈즈>는 그동안 한국에 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낭트의 문화 공간에 한국 작가를 톡톡 튀는 개념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였다. 다만, 새로운 문화적 해석, 상황주의적 개입,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적 교류, 장소를 뛰어넘는 작가들의 정치적 발언 등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소화된 인상을 남겼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킴킴갤러리)

김수자, 〈투 브리스〉 TO BREA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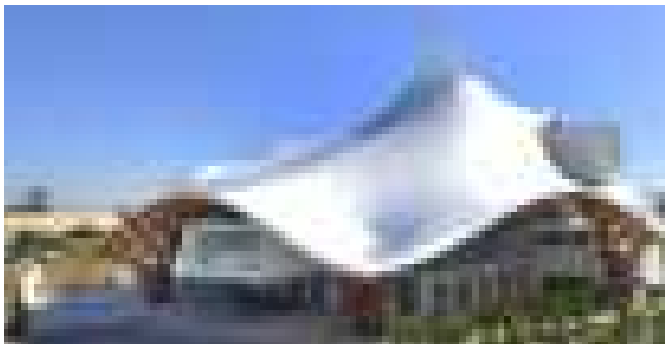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26-2016.01.04. 메츠 폰피두센터(Centre Pompidou-Metz)

주관기관

한국: 국제갤러리

프랑스: 메츠 폰피두센터(Centre Pompidou-Metz)



메츠 폰피두센터 전경

프랑스 동북부 메츠 시에 있는 메츠 폰피두센터(Centre Pompidou-Metz)에서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김수자의 개인전 김수자, 〈투 브리스(To Breathe)〉가 열렸다. 김수자는 천과 바늘을 매개로 한 ‘보따리’ 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평면 및 입체 설치,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간과 공간, 삶과 여행의 의미를 탐구해왔다. 뉴욕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비엔날레와 국제 전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는 2013년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대표작가로 참여했으며, 2015년에는 제25회 호암상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김수자, 〈투 브리스〉전은 건축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보여주고자 한 메츠 폰피두센터의 희망이 적극 반영된 결실이었다. 무엇보다 김수자의 기존 작품을 옮겨 전시하는 상투적인 방식이 아니라, 작가가 메츠 폰피두센터의 건축과 공간에 대해 충분히 사색하고 그를 기반으로 둔 해석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0년 개관한 메츠 폰피두센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문화센터인 폰피두센터가 예술의 지방 분산화 정책에 따라 30년 만에 지방에 설립한 첫 분관이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메츠 시, 폰피두센터, 프랑스 문화예술기관의 협력 속에 공공예술축제와 전시를 개최하면서 메츠 시의 문화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건축가 시게루 반(Shigeru Ban)과 장 드 가스틴(Jean de Gastines)이 설계한 유연하고 환상적인 건축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지역과 공간성이 예술가의 감수성과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전시가 열린 메츠라는 도시는 김수자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여행’이나 ‘유랑’의 이미지와 적절하게 호응했다. 메츠 폰피두센터가 있는 프랑스 동부 지역은 150여 년 전부터 유동적인 국경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지역이다. 혼란의 역사 속에서 이곳의 주민들은 실향민이 되기도 하고, 훗날에는 유럽 전역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기도 했던 것. 수거한 천을 가지고 천과 천을 꿰매어 꾸러미처럼 묶은 다채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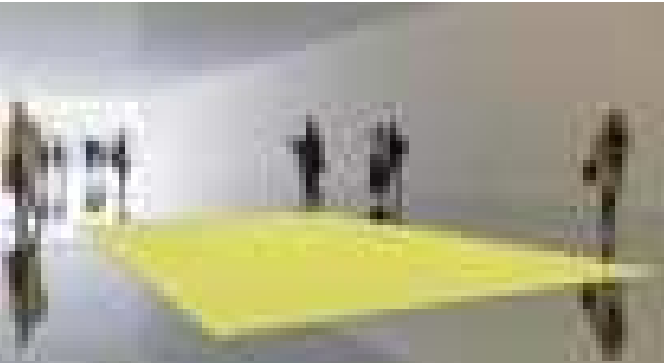


색깔의 ‘보따리’ 작업과 지구상의 모든 상징적인 길들과 순례, 유랑 등의 주제를 다룬 비디오 작업을 통해 길과 떠남, 순례와 정착 등의 개념을 공간 속에 펼쳐 놓는 김수자의 작업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나에게 있어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상의 것인 다른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김수자의 말처럼, 작가는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을 위해 고안한 자신의 설치작품인 김수자, 〈투 브리스〉를 메츠 폰피두센터의 건물 전체를 사용해 새롭게 선보였다. 안과 밖의 공간 사이가 투명한 유리로 된 넓은 공간들에 설치된 작품은 관객을 알록달록한 비현실적 세계 안으로 이끌며 강렬한 빛의 성찰을 하도록 유도했다. 메츠 시를 향해 열려있는 넓은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채로운 빛의 스펙트럼으로 관람객의 몸과 정신은 수많은 빛의 반영을 만났다.

메츠 폰피두센터를 설계한 시게루 반이 이번 전시를 건축과 가장 잘 조응한 작품이라 극찬한 것처럼, 김수자의 이번 전시는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했다. 작가는 메츠 폰피두센터의 건물에 조금씩 자신의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건축물은 작가와 관객의 몸과 합체되어 ‘들숨’과 ‘날숨’을 쉬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메츠 폰피두센터를 살아있는 거대한 ‘보따리’로 변화시킨 것이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한묵 & 이응노 : 파리의 두 한국 현대작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0.30-2016.01.24. 르 콩소르시움(Le Consortium)

주관기관

한국: 갤러리 현대

프랑스: 르 콩소르시움(Le Consortium)

프랑스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의 주도 디종(Dijon)에 있는 르 콩소르시움 아트센터(Le Consortium - Centre d'art)에서 파리와 특별히 인연이 깊은 두 한국의 화가, 이응노와 한묵의 2인전이 열렸다. 이응노와 한묵은 한국 현대미술을 이끈 제1세대 화가들이자 오래 전부터 파리에 뿌리를 두고 예술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번 전시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탄생한 그들의 추상적인 조형언어를 프랑스 관객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출품작 대부분은 한국의 공공미술기관, 작가 그리고 작가 유족들의 소장품으로 구성됐다. 아직까지 외부에 선보이지 않았던 파리 근교 아틀리에에 수장된 이응노의 작품이 공개됐고, 1980~90년대에 제작된 한묵의 대작 시리즈와 50점의 미공개 드로잉도 함께 관객과 만났다. 이 역사적 전시를 위해 르 콩소르시움과 갤러리현대가 파트너로서 협력해 전시를 준비했다.

2000년 이래 김수자, 김홍석, 이불, 최정화 등 한국 작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관계를 이어 온 르 콩소르시움은 작은 책방에서 시작해 현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컨템퍼러리 아트센터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전시 공간 뿐만 아니라 출판사인 레프레스 뒤 레알(Le Presses du Real)과 칸 영화제 월계수상을 수상한 영화사 아나 산더스(Anna Sanders)를 함께 운영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현대예술과 대중의 다양한 만남을 주도하고 있다. 2013년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커미셔너를 맡은 김승덕 큐레이터가 이곳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한국 측 주관을 맡은 갤러리현대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현장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랑 중 하나다. 1970년 현대화랑으로 개관한 이래 한국 근현대미술의 원로와 중진 작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획전을 개최해왔으며, 국제적 작가의 전시와 국제 아트페어 참가 등을 통해 세계 미술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1세대 작가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의 현대미술과 유럽 미술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기회였다. 주최 측이 전시의 콘셉트로 강조한 '트랜스 모더니즘/모더니즘을 넘어서'의 정신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개념적인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며 강렬한 예술적 정열로 파리의 미술계에 정착한 두 작가들의 파란만장한 삶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의미를 지녔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된 한국의 상황은 삶의 기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론 미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작가들은 책이나 잡지에 실린 도판을 통해 서구의 모더니즘 미술에 접근하며 새로운 미술을 갈망하게 되었다. 1904년에 태어난 이응노는 1957년 처음으로 파리를 방문해 1959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 파리를 생을 마감했다. 그는 북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967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에서 수감생활하기도 했다. 1914



년에 태어난 한묵은 1961년 이래 지금까지 파리에 거주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3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한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을 바탕으로 탄생한 두 작가의 작품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전통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탄생한 독특한 테크닉과 혁신적인 조형언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이응노는 한지와 수묵 등 아시아의 전통적인 재료와 그 뿌리를 항상 고수하는 동시에 서양의 앵포르멜과 그 시대성을 작품에 반영해 작가만의 힘 있는 고유한 미술언어로 유럽 미술계를 매료시켰다. 한편 한묵은 화려한 색채에 매듭 형태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시적인 공간 창조에 전념했다. 그는 매듭을 열어놓은 여운의 미학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동양의 정서를 표현한 작가로 평가 받았다.

한국 현대미술의 1세대 작가로서 조국을 떠나 당시 현대미술의 중심지이자 예술가들의 꿈의 도시였던 파리에서 작품 활동의 전성기를 맞은 두 작가의 공동 전시는 미술과 작가의 삶을 둘러싼 비밀스럽고 감동적인 순간들, 미술에 있어서 국제적 상호 교류의 그 의미와 영향력, 서구 중심의 편협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갤러리 현대)



서울시립미술관 & 팔레 드 도쿄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난지 × 파비옹(Pavillon)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

김아영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In this vessel We Shall Be Kept)>

2016.6.23-2016.8.29. 팔레 드 도쿄 - 파비옹 뇌플리즈 OBC(Pavillon Neuflyze OBC - Palais de Tokyo)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도시괴담>

2016.04.05-2016.05.29. 서울시립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서울시립미술관(전시기획: (주)에드칸)

프랑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5 오픈스튜디오

2. 올리 파머, <그물망/연결(Network/intersect)>

서울시립미술관의 여러 장소 중에서 서소문본관의 프로젝트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의 동시대적 작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장이다. 이곳에서 열린 <도시괴담>전은 파리에서 2002년 개관하여 프랑스의 현대미술관 중에서 가장 젊은 성향을 띠는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와 함께 진행한 교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시를 준비하는 프로세스 전반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 창작스튜디오와 팔레 드 도쿄의 파비옹이라는 양 기관 산하 레지던시의 협업으로 2015년 4월 참여 작가 선정 작업을 시작하여, 2015년 11월 파리에서의 리서치, 2016년 3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김아영(2012년 난지미술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을 포함하여 루 림(Lou Lim), 알렉시 기예르(Alexis Guillier), 앙주 레치아(Ange Leccia), 오엘 뒤레(Hoël Duret), 올리 파머(Ollie Palmer), 장알랭 코르(Jean-Alain Corre) 등 7명의 참여 작가들이 약 5개월 동안 조사하고 실험한 결과를 서울시립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이다.

팔레 드 도쿄 파비옹의 디렉터 앙주 레치아를 위시하여, 이번 전시의 공동 기획자인 파비앙 다네시(Fabien Danesi)와 작품 프로덕션을 맡은 클로에 프리쿠(Chloé Fricout),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의 학예사 박가희는 파리와 서울이라는 거리와 언어의 장벽이 빚어내는 기운에 발생하는 오역에 주목했다. 기획 초기 '작가들은 과연 서울에서 3주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

여, 단순히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낯선 도시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저마다의 방식에 기인하여 다른 해답을 찾게 되었다. 특히 기획자들은 생경한 도시를 바라보며 생기는 오해와 단절로 이뤄진 창작 활동의 결실을 허황된 이야기의 이면에 현실을 투영하는 '괴담'에 비유하여 오히려 제한된 조건과 환경이 낳은 엇나간 해석과 오해, 단절을 생산적 오독으로 통찰하며 유쾌하고 환상적인 자신만의 괴담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시 주제로 잡았다.

예를 들어 도시괴담의 전형인 미국의 공포물 <캔디맨>의 원작을 중심으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여러 도시에 등장하는 캔디맨을 연구해 온 알렉시 기예르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최근 서울에서 파지기 시작한 캔디맨 괴담과 출몰 소식을 접하게 됐고, 이번 전시를 맞아 지금까지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내고 강연을 진행했다. 미술관 밖에서는 강연 전 상영관 이벤트와 전화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또한 낭트와 파리를 오가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작업을 하고 있는 오엘 뒤레는 이번에 서울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에서 접한 한국의 급격한 성장과 디지털 정보에 둘러싸여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을 비유하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야기의 주인공 해파리가 인터넷 데이터를 전달하는 심해 속 광섬유 케이블에 갇혀 정보를 왜곡하고 전달을 방해한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비물질적이고 유동적인 정보에 둘러싸여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속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한국 작가로는 단독으로 참여한 김아영은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재난의 원형을 탐구하는 요소로써 인류 공통의 고대 대홍수 서사와 파리 오페라 극장인 팔레 가르

니에의 건축 역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범람하는 물, 그리고 방수를 위해 사용하는 '역청'에 주목했다. 김아영은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했고,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베를린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작가 레지던시에 입주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프랑스 작가 외에 또 다른 국가의 작가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1989년 필리핀에서 출생한 루 림은 이번 전시의 최연소 작가이며, 현재 파비옹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영국 작가 올리 파머(Ollie Palmer)는 디자인 작업을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아마존 밀림에서 IT를 가르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간혹 게임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펼치기도 했으며 이번 전시에는 <그물망/연결>을 출품했다.

팔레 드 도쿄 산하의 파비옹 프로그램은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이자 기획자인 앙주 레치아가 고안하여 이끌어 온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약 8개월간 지원한다. 매년 10명의 작가를 지원해오다, 2014년부터는 인원을 대폭 줄여 6명의 작가를 추천 받아 선발하고 있다. 팔레 드 도쿄뿐 아니라 뉴욕 PS1(2013),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박물관(2013), 리옹비엔날레(2013/2015), 아트바젤 홍콩(2015), 싱가포르 아트스테이지(2015) 등 전세계 권위 있는 기관과 공동으로 전시를 유치한 바 있다. 파비옹은 서울시립미술관 외에도 올해 프랑스 국립 시청각기관(INA),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해 서울시립미술관과 협력해 진행된 <도시괴담>전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일시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우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김아영,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기름을 드립니다, 쉘 3(Zepheth, Whale Oil from the Hanging Gardens to You, Shell 3)>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 STARING AT YOU STARING AT M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2.04-2016.02.27. 키아스마(Khiasma) 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3.01-2016.03.25. 아마도예술공간

주관기관

한국: 유진상

프랑스: 키아스마이그렉(Khiasma-Ygrec)

프랑스의 키아스마(Khiasma),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이그렉(Ygrec), 레 그랑 부와쟁(Les Grands Voisins), 한국의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Staring At You Staring At Me)>라는 워크숍 및 전시 프로젝트가 열렸다. 이 전시 프로젝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 교육 기관인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의 교수이자, 작가, 큐레이터인 에릭 마이예(Eric Maillet)와 미술 평론가이자 큐레이터, 계원예술대학교의 교수인 유진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는 2013년 2월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인 이그렉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이후 동일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갖고 2014년 3월 상암동 DMC 홍보관에서 이루어진 전시 <Score>전이 열렸으며, 2015년에는 '토탈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및 연구토론이 이뤄졌고, 갤러리 27에서는 전시도 개최했다. 이렇게 꾸준히 진행된 전시와 행사의 후속 프로젝트답게, 이번 전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을 예술적 창작의 내용으로 풍성하게 다루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계원예술대학교, ENSAPC가 공동 협력했으며, 한국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과 프랑스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가 후원하였다.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는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제반 동영상 웹캠, 스트리밍 비디오, 감시 카메라 등이 어떻게 동시대미술의 맥락에서 차용 및 비평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재까지 많은 작가들이 여러

최호영, <Taken>



장-클로드 루지렐로, <Fade>

안 부가레 & 아르노 미르망, <Obsolète surveillance>

신제현, <Streaming dance>

동영상 장치와 그 소스들을 이용하여 특정한 동시대미술의 역사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국과 프랑스의 작가도 이러한 장치를 형식적으로 공유하면서도 미디어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단순한 전시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 장소도 실험적인 장소로 선택했다. 키아스마는 2004년에 작가들의 작품과 사회적 활동을 후원하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시 이외에도 영상 작품 상영과 퍼포먼스, 컨템포러리 강연,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으로 명성이 높다. 이그렉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가 마련한 전시 공간이며, 레스그랜즈비전은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상상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만들어진 이색적인 문화 공간이다.

프랑스의 세 전시 장소에서 소개된 작품은 모두 다양한 장치들(카메라, 컴퓨터, 인터넷, 디스플레이, 저장장치 등)과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적 응용을 발상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시는 웹캠, 스트리트 비디오, 감시 카메라, 스카이프, 내시경, 구글링, 음향감지장치, 비디오 게임 등 현대의 일상에서 익숙하게 자리한 이러한 동영상 장치들이 어떻게 예술적 언어와 조우할 수 있는가를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시의 한국 버전이 열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마도예술공간의 전시는 한국작가 홍성민, 한요한, 신제현, 유병서, 유목연 등 5명을 비롯해 프랑스 작가 장-마르크 샤푸이외(Jean-Marc Chapouille), 플뢰리 폰텐느(Fleury Fontaine), 프레드 포레스트(Fred Forest), 제르맹 위비(Germain Huby), 에릭 마이예(Eric Maillet), 장-클로드 루지렐로(Jean-Claude Ruggirello), 카뮈신느 베베르(Capucine Vever), 제롬 조이(Jerome Joy), 제프 게스(Jeff Guess), 루카스 드리가스(Lukasz Drygas), 안 부가레(Yann Bougaret) & 아르노 미르망(Arnaud Mirman) 등 11명(팀)이 참여해 프랑스의 전시와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개최됐다. 2013년 개관한 아마도예술공간은 미술 비평과 큐레이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을 후원하는 비영리 예술기관이다. 3층 구

조의 주택을 개조한 공간은 기존의 전시장과는 다른 대안적이며 창조적이며 실험적인 전시기획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네 공간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대 사회의 기술적 조건을 미술이 어떻게 관찰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는 점에서 신선한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양국의 두 미술 교육자이자 전문가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로 완성된 집중적인 큐레이팅도 성공적이었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유진상)

장-마르크 샤푸이외, <Mister Google...>



오브제 활성화 OBJETS ACTIVÉ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1.03-2016.09.30. 린 고등예술학교(HEAR, Haute École Arts du Rhin)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30-2016.10.11.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 이앙

주관기관

한국: 남서울대학교

프랑스: 린 고등예술학교(HEAR, Haute École Arts du Rhin)



<오브제 활성화(Objets activés)>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예술 학교 간의 워크숍을 통한 학술 교류 프로젝트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소재의 린고등예술학교 HEAR(Haute École Arts du Rhin, 이하 HEAR)와 한국 천안의 남서울대학교는 2002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교환 학생을 파견하고 학술적 협력을 지속해 왔다. 1980년 이래 상당수의 한국 학생들이 HEAR 학교의 유리공예학과, 북 아트 외 오브제학과, 무대설치학과 등에서 유학 후 한국 및 유럽 등지에서 예술가 또는 예술대학의 교단에서 활동하는 것에 기반해 양국 간 교류를 긴밀히 하고자 했던 의도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온 것이다. 이처럼 꾸준한 교류관계를 맺어온 두 학교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해 평소보다 강화된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다. 3주간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양국을 이동하며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안에서 연구와 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의 남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프랑스의 HEAR 학교 학생, 교수진들과의 교류는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단순한 기술 또는 테크닉의 학습의 교류를 넘어서 문화, 지리, 역사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교육 교류의 영향을 바탕으로 단순한 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무대 예술과 조형 예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도 노력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학술적 연구 성과는 HEAR 학교를 비롯한 프랑스 예술 분야에 있어 다각적인 국제적 시야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학생들과의 오랜 교류는 프랑스의 창의적 예술 교육 방법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4년 9월 편종필 교수가 교환 교수로 HEAR에 근무하던 중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공모 소식을 접하고 남서울대학교의 승인과 교수 회의 끝에 제안을 신청, <오브제 활성화> 프로젝트는 2015년 1월 공식 행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4월경 프랑스 HEAR의 교수 2명과 국제 교류 담당자 1명이 한국을 방문해 3곳의 전시 장소를 현장 답사하고, 전시 조건과 전시장 구조를 파악했으며 남서울대학교에 방문해 총장과 학교 교수진과 만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이 있었다.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브제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양교에서 학생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각 15명의 참여자와 교수진 3명, 초대 작가 1명이 한국 팀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국 남서울대학교 팀원 18명이 프랑스 린고등예술학교를 방문해 프랑스 팀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워크숍을 3주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교의 학생들은 예술이라는 공통적 언어로 융화되어 프랑스 학생과 한국 학생을 인위적으로 혼합해 2회의 팀 프로젝트, 3회의 이론 수업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밤 9시에 비평회를 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이러한 시도는 유럽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한국의 교육의 강점을 잘 활용해 현대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였다.



1. 2차 프로젝트-가면
2. 이다혜, <스프레드(Spread)>



3주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팀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총 6개의 팀이 구성되었다. 3주간 함께 지내면서 소통이 잘 되는 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해 실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용된 <오브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한국으로 귀국 후 학생들은 SNS를 통해 각 팀원들과 소통하며 양교에서 각자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다. 2016년 9월17일, 프랑스 팀이 한국에 도착해 남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다시 만나 작업에 몰두했다. 약 10일 동안 학생들은 협동 작업을 진행했는데 새로운 예술적 실험이 도출되었다. 각 영역의 교수들에게 지원을 받아 학생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완성된 작업을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 이앙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시했다.

양교가 협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 소통이었다. HEAR에 3명의 한국인 교수와, 남서울대학교 유리세라믹디자인과의 HEAR를 졸업한 교수가 협력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았다. 더불어 수차례의 교수 회의를 통해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전 계획을 철저히 협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프랑스 측과의 협업 중 휴일, 방학 등의 일정이 달라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는 급한 용무로 연락을 취할 경우 답변이 늦거나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실무적으로 문화의 차이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답답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며 학술적 교류는 물론 우정을 쌓고 서로의 다른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큰 결실을 거뒀다. 향후 양교는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교환 학생을 꾸준히 활성화할 방침이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남서울대학교)

한미사진미술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1.16-2016.04.16. <매그넬 콘택트 시트(Magnum Contact Sheets)>¹

2016.08.27-2016.12.03.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스크랩북>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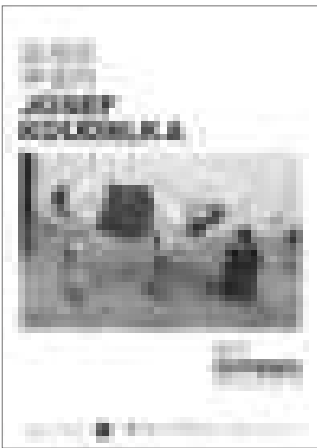
2016.12.10-2017.01.21. <아녜스 데르베(Agnès Dherbeys) <#K76-3613>>³

2016.12.17-2017.04.15. 요세프 쿠델카(Josef Koudelka) <집사>⁴

주관기관

한국: 한미사진미술관

프랑스: 매그넬 포토(Magnum Photos)^{1,3,4}, 카르티에브레송 재단(Fondation Henri Cartier-Bresson)²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2016년 1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그넬 콘택트 시트(Magnum Contact Sheets)>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미술 분야 공식인증사업으로는 첫 테이프를 끊었다.

<매그넬 콘택트 시트>전은 국제적인 보도사진가 단체인 매그넬 포토스(Magnum Photos)가 기획한 대형 순회전이다. 매그넬 포토스 소속 대표 작가 65명의 밀착인 화자(콘택트 시트) 70여 점과 이 가운데 세상에 공개된 최종 완성 사진 94점을 소개한다.

밀착인화지란 화가의 스케치북에 비견되는데, 사진가가 한 롤의 필름을 빛을 통해 직접 인화하거나 여러 장의 네거티브 필름을 순서대로 인화해 놓은 것을 말한다. 세계가 주목한 그 결정적인 한 장이 나오기까지의 시행착오를 포함해 작가가 찍은 무수한 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문학 작가로 치자면 휴지통에 구겨서 버린 초고 원고까지 다림질해 최종 작품과 함께 전시장에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밀착인화지 전시는 민낯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작업 과정 중의 실수, 선택되지 않는 B컷들 뿐 아니라, 사진가가 어떻게 주제에 접근했는지, 우리가 순간의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 때로는 작가와 편집자의 의도에 따른 편집의 산물이라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낸다.

프랑스 사진작가 마크 리부(Marc Riboud)의 1953년 작 <에펠탑 페인트공(Eiffel Tower Painter)>이 그런 예이다. 이 작품은 사진작가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대표적 작품으로 회자된다. 고공 에펠탑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 페인트공의 동작이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고 날렵하기 그지없어 묘한 감동을 자아낸다. 하지만 밀착인화지를 보면 이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 작가의 요구에 따라 페인트공은 골조에 걸터앉아 쉬기도 하고,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기도 하는 등 온갖 포즈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에는 로버트 카파(Robert Capa)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폴 푸스코(Paul Fusco)의 <로버트 케네디 장례식>, 필립 존스 그리피스(Philip Jones Griffiths) <베트남 전쟁>, 그리고 토마스 홉커(Thomas Hoepker)의 <9·11테러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동 카메라만 사용하던 1930년대부터 디지털시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지난 한 세기의 궤적을 담았다.

이 전시 내용을 담은 사진집이 2011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시 출간된 바 있지만, 전시를 통해 한국 대중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사진과 함께 현장 노트, 동시대 잡지, 엽서, 전단지 등 인쇄물 30여 점도 함께 전시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매그넬 콘택트 시트>

한국에서 매그넬 관련 전시는 과거에도 많았다. 기존 전시가 스티브 맥커리(Steve McCurry),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등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스타 작가들의 개인전 위주였다면 이번 전시는 매그넬 포토스 사진가들의 작품 활동을 현대 사진사의 맥락 안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미사진미술관에서 매그넬 포토스와 협력해 이 전시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전의 아주 우연한 만남 덕분이다. 2014년 초여름,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을 비롯한 일행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장을 갔다. 일정 중 여유 시간을 활용해 그곳에서 부다페스트 태생의 대표적인 보도사진가이자 매그넬 포토스의 창립자인 로버트 카파를 기리는 ‘로버트 카파 센터’에 들르게 됐다. 로버트 카파 센터에서는 마침 국내에도 책으로 소개된 바 있는 <매그넬 콘택트 시트>전을 하고 있었다. 이와 연계해 마이 마노 하츠(Mai Manó Ház) 사진 갤러리에서는 <매그넬 퍼스트>전을 열고 있었다. 두 전시는 진실을 찍는 것으로 알려진, 다큐 사진가들의 유명했던 사진 작업 이면에 어떤 창의적인 과정이 숨어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사진이 예술의 장르로 편입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한미사진미술관이 이 전시를 국내에 선보이고자 애썼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사진미술관은 이후 두 전시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매그넬 본부가 있는 매그넬 파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접촉했다. 그 결과 2015년 <매그넬 퍼스트

(Magnum's First)>전을 연 데 이어 2016년 <매그넬 콘택트 시트>전을 열게 된 것이다. 매그넬 콘택트 시트전도 3년 전부터 준비해왔지만, 마침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일정과 맞아떨어져 수혜를 본 셈이다. 그렇다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타이틀의 효과는 어떠했을까.

한미사진미술관 김지현 큐레이터는 “다른 전시 때에 비해 외국인 관람객들이 늘었고, 전시 홍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개막 행사에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 말했다. 1월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장, 주한 프랑스문화원 문정관을 비롯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최준호 예술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전시는 외국인 관람객도 평소에 비해 3~4배 늘었다고 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한미사진미술관은 매그넬 콘택트 시트 외에도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 2016년 8월 27일-12월 3일에는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스크랩북>(260 페이지 참조)전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016년 12월 10일-2017년 1월 21일 아녜스 데르베(Agnès Dherbeys) 전과 이어 12월 17일-2017년 4월 15일까지 요세프 쿠델카(Josef Koudelka)의 전시를 열어 보다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한미사진미술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스크랩북 HENRI CARTIER-BRESSON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8.27-2016.12.03. 한미사진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한미사진미술관

프랑스: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재단(Fondation Henri Cartier-Bresson)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스크랩북〉전은 서울 송파구 한미사진미술관의 두 번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이다. 포토저널리즘의 대명사인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전시는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형 전시로 여러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작가가 직접 만든 ‘스크랩북’을 토대로 작가의 30대, 40대 초창기 작가주의 사진 미학을 보여주는 콘셉트로 기존의 전시들과 차별화하였다.

본 전시가 기획된 것은 한미사진미술관 측에서 다른 전시를 준비하여 가졌던 궁극함에서 출발했다. 2016년 초 개최된 〈매그넘 콘택트 시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술관 학예실은 브레송도 ‘콘택트 시트(밀착인화지·contact sheet)’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밀착인화지란 사진가가 찍은 한 롤의 필름을 순서대로 인화해 놓은 것으로, 최종의 결정적 한 장면을 찾기까지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드러낸다. 따라서 콘택트 시트의 존재는 그가 트리밍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결정적 순간’만을 포착하는 작가라는 신화를 뒤집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에 한미사진미술관 측은 2010년 7월 파리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재단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재단의 디렉터인 아녜스 시르(Agnès Sire)는 “생전에 작가가 자신의 밀착인화지를 외부에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하면서 대신 재단의 소장품들로 이뤄진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스크랩북〉 전시를 제안해 왔다.

2014년 11월, 미술관 학예실 직원들은 파리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재단에서 재단 측 큐레이터들과 첫 미팅을 갖고 전시 예정작 원본 작품들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전시 준비에 들어갔다.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2016년 8월 한국에서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이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에 공모해 선정돼 로고를 쓸 수 있는 로고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예산 후원은 받지 못했지만, 양 정부 기관이 뜻을 모은 교류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공신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은 1947년 창립한 ‘매그넘 포토스(Magum Photos)’의 창립 멤버다. 그를 비롯해 헝가리의 로버트 카파(Robert Capa), 폴란드의 데이비드 시무어(David Seymour), 영국의 조지 로저(George Rodger) 등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함께 창립한 국제자유보도사진작가그룹이다.

이처럼 브레송은 포토저널리즘의 대명사이지만,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화가 지망생이었다. 그림에 흥미를 잃을 때쯤 순간을 담는 사진의 매력에 눈을 떴고 1932년 처음 라이카 카메라를 구입한 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등지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 당시의 사진에는 그의 예술적 감각이 도드라진다. 특히 당시 화단을 지배하던 초현실주의 분위기가 배어 있다. 저널리즘 사진이 크게 유행할 때도 그는 “나는 기자가 아니다” “초현실주의가 좋다”라고 공공연히 밝혀 로버트 카파의 우려를 살 정도였다. 1932년부터 1946년까지의 사진 행적이 담긴 이



FRENCH ART DEALER PIERRE COLLE, PARIS, 1932
© Henri Cartier-Bresson/Magnum Photos

스크랩북은 1947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기획한 자신의 회고전을 위해 브레송이 직접 준비한 300장이 넘는 작품이 담긴 포트폴리오이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전쟁 포로로 잡혔다 3년 만에 탈출하는 극한의 경험을 겪고 인간적 깊이가 더욱 원숙한 상태에서 과거 작업을 선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크랩북에 포함된 사진들은 암실 작업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가 직접 인화한 유일무이한 작품이기도 하다. 뉴욕에 도착한 작가는 스크랩북을 한 권 구매해 직접 인화한 346점을 연대순으로 부착한 것이다. 그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이번 한미사진미술관 전시에서는 스크랩북 속 이미지 중 163점이 최종 선별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미사진미술관의 자체 소장품 43점도 함께 나왔다. 프랑스에서 온 ‘스크랩북’이 브레송의 30, 40대 초창기 시절에 한정하는 것을 보완하여 작



FRANCE. Paris. Place de l'Europe. Gare Saint Lazare. 1932.
© Henri Cartier-Bresson/Magnum Photos

가 인생 전체에 걸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재단과 한미사진미술관이라는 한-불 두 기관의 교류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이번 교류 사업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에 전시라는 가시화된 형태의 협업은 현재 계획된 바는 없다. 그러나 전시 개막일에 맞춰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재단의 소장품 담당자 오드 랭볼트(Aude Raimbault)가 방한하는 등 상호 관계가 긴밀해졌고, 서로 상대국 작가를 추천하거나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스크랩북 전시는 2006년에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재단에서 기획해 뉴욕, 영국에서 2007년 전시된데 이어 10년 만에 한국에 소개됐다. 1940년대에 찍은 원본들의 보존 문제 때문에 재단 측이 더 이상 외부에 노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이번 한국 전시가 마지막 해외전이 될 공산이 크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한미사진미술관)

KM9346 : 한국-모비앙

KOREA-MORBIHAN : KM9346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3.06-2016.06.05. 케르게넵미술관(Domaine de Kerguéhennec)

주관기관

한국: 경기도미술관

프랑스: 케르게넵미술관(Domaine de Kerguéhennec)

모비앙에 소속된 케르게넵미술관(Domaine de Kerguéhennec), 라 코위 반느 미술관(La Cohue, musée des Beaux-Arts de Vannes), 라 가실리 사진 갤러리(Maison de la photographie de La Gacilly), 아틀리에 에티엔느-로리앙 현대미술공간(Atelier d'Estienne-Espace Contemporain du Pays de Lorient) 등 4곳의 미술관은 총 5명의 한국 작가가 펼치는 개인전을 통합해 <KM9346:한국-모비앙(Morbihan) 9346km>이라는 총칭으로 '한국의 봄' 전시를 개최했다.

<한국 단색화 -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전



케르게넵미술관 올리비에 들라발라드(Olivier Delavallad) 관장은 2012년 한국을 방문해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미술기관 관계자 및 컬렉터들을 만났다. 당시 알게 된 P&C 갤러리의 이지원에게 공동 기획을 제안하여 약 3년간 본 사업을 함께 준비했다. 심문섭 개인전을 기획한 것을 시작으로 분관 전시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프랑스 관객에게 좀 더 다양한 한국미술을 보여 주자는 취지였다. 2014년부터는 모비앙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기 전시가 아닌 1년 동안 순차적으로 한국 문화와 미술을 모비앙의 여러 장소에서 선보이는 일종의 페스티벌 형식의 전시 기획이 이루어졌다.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2015년 선정되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된 전시는 케르게넵미술관에서 201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린 <한국 단색화 -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였다. 전시는 경기도미술관과 케르게넵미술관이 2015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했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단색화 전에 책임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은주 관장이 적극 참여했다. 작품 구성은 경기도미술관 소장품과 작가 소유의 작품 대여로 이루어졌다. 박서보, 하종현, 정상화, 정창섭, 최병소, 이동엽, 이강소, 윤형근의 작품이 소개되

었다. 또한, 개막식에는 평론가 윤진섭이 단색화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은 물론 해외 미술시장에서 단색화가 급부상하는 시점에서, 프랑스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 단색화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올리비에 들라발라드 관장은 한국의 해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향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단색화의 정신'을 비로소 이해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시작된 두 기관의 교류는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2018년에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케르게넵미술관과 공동주최로 '프랑스미술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꾸준히 작가 교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7년 4월 경기창작센터의 양정욱 작가가 케르게넵미술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경기도미술관)

이수경, <Deep gris>



무브! 무브! 무브! Move! Move! Mov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3.10-2016.03.30. 에스파스29(ESPACE29)

주관기관
한국: 워벤드 공
프랑스: 에스파스29(ESPACE29)

<무브! 무브! 무브!(Move! Move! Move!)> 는 프랑스의 에스파스29(ESPACE29)와 한국의 워벤드 공의 협업전시다. 모태격의 전시가 2015년 4월 서울 공아트홀에서 열렸고, 2016년 3월에 프랑스의 에스파스29에서, 그리고 2016년 4월 다시 공아트홀에서 프랑스 전시의 후속편인 에필로그전시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대안공간이 만나 양국의 젊은 작가들이 지닌 예술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그들의 진지하면서도 실험적인 창작혼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했다.

보르도(Bordeaux) 소재의 에스파스29를 설립한 것은 A5BIS라는 예술가협회다. 1995년 창설된 A5BIS협회는 10년 후인 2005년 그들의 뜻을 담아 보르도 중심가에 800m² 상당의 공간을 에스파스29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에스파스29는 작가 스튜디오 400 m²과 160 m²의 전시공간 외에 작가 레지던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르도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현대미술의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도시로 알려져있다. 에스파스29는 2015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제 교류와 실험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며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 아지트로 자리매김했다. <무브! 무브! 무브!>를 담당한 에스파스29의 공동디렉터인 피에르앙투안느 이라스크는 (Pierre-Antoine Irasque)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수 개월간 체류하며 한국과의 예술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 LEE WOO CHANG



<무브 ! 무브 ! 무브 !> 는 2014년 4월 16일 움직이지 말라는 한 마디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난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무브!’는 소리, 두 번째 ‘무브!’는 몸, 세 번째 ‘무브!’는 의식을 상징한다. 각각의 움직임은 공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되어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과 열정을 전달한다. 이 전시는 이미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그려내고 있는 (Drawing)’ 행위에 의미를 두고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었다. 사운드, 영상, 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움직임은 즉흥성과 어우러져 새롭고 실험적인 장을 펼쳤다.

전시에는 박철호, 오재우, 전유진 등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박철호는 세월호, 사이버종교, 아해로 표상되는 자본, 종교, 예술이 유병언이라는 하나의 개인으로 접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자본의 은폐된 움직임과 욕망에 대한 가볍고 연속적인 접근을 통해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자본의 출현을 다뤘다. 오재우는 국제 테러가 만들어내는 파국적 이미지의 풍경을 작업의 주제로 작

업했다. 전유진은 채집한 소리와 전시장에 놓인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소리를 설치된 오브제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전환시켰다. 뒤바뀐 소리와 움직임의 관계는 생과 죽음, 강함과 여림의 순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본 전시의 다양한 면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번 교류 전시는 양국의 예술가협회(Association)가 힘을 합해 이룬 성과이다. 부족한 재정과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젊은 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으로 향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갈 방법을 적극 모색중이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워벤드공)

통의동보안여관 &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

2016. 03.20-06.19. 메이막 현대미술센터(Centre d'Art Contemporain Meymac)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프렌치 터치(French Touch)>

2016.12.07-2017.01.08. 통의동보안여관

주관기관

한국: 통의동보안여관

프랑스: 메이막 현대미술센터(Centre d'Art Contemporain Meymac)

프랑스 중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메이막 현대미술센터(Centre d'Art Contemporain Meymac)에서 열린 한국 현대미술전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과 한국 서울의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통의동보안여관(Artspace Boan 1942)에서 열린 프랑스 현대미술전 <프렌치 터치(French Touch)>는 2015년 6월 체결된 두 기관의 전시 협약에서 출발했다. 두 기관은 서로의 문화적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자며 의기투합했다. 메이막 현대미술센터와 통의동보안여관은 각 지역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장소를 현대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센터로 알려진 메이막 현대미술센터는 1979년 카롤린 비시에르(Caroline Bissière)와 장폴 블랑쉼(Jean-Paul Blanchet)가 설립했다. 메이막 현대미술센터가 자리 잡은 생앙드레 수도원(Abbaye Saint-André)은 12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프랑스의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도원의 일부를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수리해 지난 36년 동안 질 높은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프랑스 중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기관으로 성장했다. 한편 통의동보안여관은 1936년 만들어진 목조 건물로 2004년까지 여관으로 활용된 곳으로, 서정주 등의 문학인들이 거주하며 한국 최초의 문학동인지 <시인부락>이 만들어진 유서 깊은 장소다. 2007년부터 예술과 일상을 넘나들며 생활과 가까운 예술을 지향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도시와 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두 기관의 정체성은 <메이드 인 서울>과 <프렌치 터치>라는 국제 교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증폭됐다. 3월 19일 메이막 현대

미술센터에서 개막한 <메이드 인 서울>전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주제로 삼았다.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시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작품에 녹아내는 한국 작가 23명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프랑스 미술계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이 프랑스 메이막 시라는 다른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순간이었다. 전시는 총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생성과 소멸의 이항대립'에는 김주리, 노충현, 안성석, 염중호, 이재, 최대진, 홍순명 등의 작품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 특징을 살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생명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성장 과정을 겪는 도시의 본질을 질문했다. '도시의 마술사' 섹션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의 속성을 다각도로 다룬 강상훈, 김형관, 권하윤, 김도희, 믹스라이스, 서고운, 선무, 오용석, 양진우, 여다함, 이피 등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채웠다. 세 번째 섹션 '해체와 재상상의 군도지대'에는 박찬국, 종범X종연, 유목연, 이웃상화(이미화), 조혜진, 호상근 등의 작품으로 도시를 능동적으로 다시 상상하는 작가들의 행동주의적 실천을 소개했다. 현실과 허구, 무거움과 가벼움을 넘나들며 도시에서 발생한 기묘한 아름다움을 탐색한 작품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의 낯선 내부와 외부의 민낯을 살폈다.

전시 이외에도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박경근의 <철의꿈>, 임흥순의 <위로공단>, 박찬경의 <안산>을 상영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부대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스에 <메이드 인 서울>전의 참여 작가인 김형관, 김주리, 여다함, 김형관이 3개월 동안 레지던스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었다. 프랑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스는 1965년에 설립되어 프랑스에서 작품을 제작하려는 전 세계의 작가들에게 2개월에서 1년 동안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단순한 전시 프로그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의 협력으로 서로의 도시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작가들에게 주어진 셈이다.

12월 8일 통의동보안여관에서 열린 두 번째 전시 <프렌치 터치>는 프랑스 작가 27명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와 프랑스인을 규정짓는 특성을 현대미술을 프리즘 삼아 소개한 전시다. 서울의 근대 역사가 숨 쉬는 공간에 프랑스의 젊은 현대미술이 소개되면서 또 다른 해석의 관점을 제시했다. 전시 제목 <프렌치 터치>는 어딘지 모르게 낮익으면서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은 '프랑스'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 프랑스 작가의 '손길'을 통해 막연하게만 다가오던 프랑스적 행동과 정신, 취향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전시에는 프랑스 현대미술을 이끌고 있는 로낭 바로(Ronan Barrot), 세실 보(Cécile Beau), 릴리앙 부르고(Lilian Bourgeaut), 기욤 브레송(Guillaume Bresson), 마리엘 샤발(Marielle Chabal), 니콜라 샤르동(Nicolas Chardon), 줄리앙 크레피(Julien Crépieux), 장 드낭(Jean Denant), 다미앙 드루베(Damien Deroubaix), 로랑 드로베르(Laurent Derobert), 발레리 뒤 셰니(Valérie du Chéné), 시프리아 가이아르(Cyprien Gaillard), 노에미 구달(Noémie Goudal), 로랑 그라스(Laurent Grasso), 로라 헨노(Laura Henno), 기욤 르블롱(Guillaume Leblon), 로랑 르 뒤프(Laurent Le Deunff) 등이 참여했다. 작품 전시와 더불어 라운드테이블, 강연 등을 통해 프랑스 현대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을 이끌었다. 한국과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각 도시에 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시 장소에서 함께 작품을 놓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였다면 두 기관 협약의 목적인 '상호 간의 이해'가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통의동보안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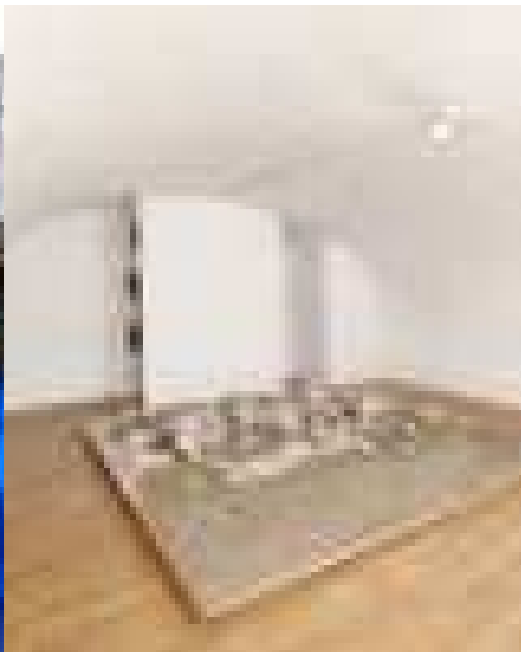
<메이드 인 서울>



<프렌치 터치>



<메이드 인 서울>



프랑소와즈 위기에 사진전

FRANÇOISE HUGUIER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프랑소와즈 위기에(Françoise Huguier) 초청 상영 및 토론회

<오투르 드 프랑소와즈 위기에(Autour de Françoise Huguier)>¹

2016.05.11. 파리건축문화재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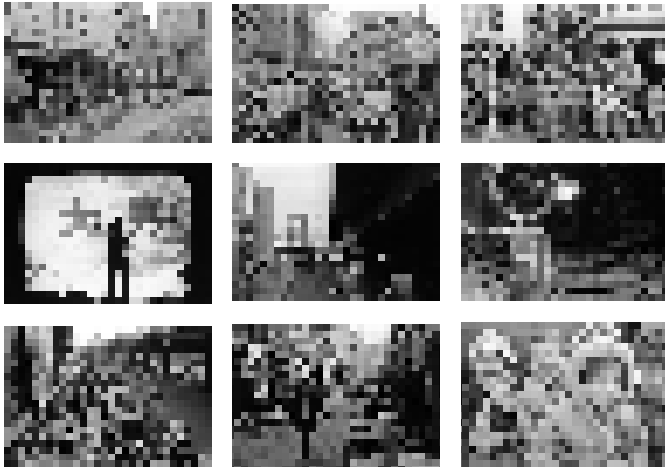
<서울엘레지>²

2016.03.23-2016.05.29. 서울역사박물관

주관기관

한국: 서울역사박물관^{1,2}

프랑스: 파리건축문화재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¹,앵스티튜 프랑세(Institut Français)²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랑소와즈 위기에 (Françoise Huguier) 사진전 <서울 엘레지>는 프랑스 작가와 박물관 측의 협조가 긴밀하게 작동해 거둔 성공적인 전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선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프랑소와즈 위기에는 1976년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데뷔, 1983년에는 프랑스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 (Liberation)>에서 월드 시네마, 정치, 패션 및 문화 사진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32세 때인 1975년부터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유년의 기억이 엮힌 동남아를 찾는다.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89년에는 아프리카,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 등으로 작업 무대를 넓혔다. 특히 2000년부터 7년에 걸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etersburg)에 있는 공동주거 아파트에서 작업하였고, 그 결과물을 <콤무날카(Kommunalka)>라는 작품집으로 발표했다.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2009년 크레테이여성영화제(Festival de Films de Femmes de Créteil)에서 안나 폴리트콥스카야(Anna Politkovskaïa)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21세기 여명의 동남아시아의 중간계층’에 대한 사진 작업으로 프랑스 미술아카데미(Académie des Beaux Arts)의 마르크 드 샤리에르 사진 상(Marc De Lacharrière)을 수상했다.

그녀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일본에 건너가 작품 활동을 하던 중 잠깐 한국을 찾았다. 그때 한 달여 체류하며 고가도로가 자리 잡은 서울의 중심가 모습, 콘크리트 건물의 건설 현장, 군복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정치적 독재와 경제 개발이 공존하는 개도국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로부터 30년 후. 그녀는 엉뚱한 곳에서 한국에 대한 기억을 소환한다. 201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싱가포르(Singapore),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Jakarta), 태국의 방콕(Bangkok) 등 동남아의 대표 도시를 돌며 중산층 가족에 대한 사진 작업을 하던 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류(韓流)를 보았다. 현지에서 체감한 한

국의 위상은 30년 전 88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찾았던 서울의 그것과는 천양지차였다. 동남아의 중산층은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여성들의 화장, 패션, 인테리어까지 따라했다. 서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녀는 지금의 한국을 다시 카메라에 담고 싶은 맹렬한 욕구를 느꼈다.

그녀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교류전을 앞두고 2014년 프랑스 문화부가 선정하는 창작지원 대상에 뽑혀 서울에 대한 르포르타주 사진 작업을 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 위기에는 방한 전에 사전 조사를 했다. 그때 만났던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 한국학센터장인 발레리 줄레쥔(Valérie Gelézeau) 교수가 서울역사박물관에 위기에 작가의 서울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이 한국학센터와 2010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해오던 터였다.

위기에게 2014년부터 찍은 작업은 ‘지금, 서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강홍빈 당시 관장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제안했고, 결국 가장 맞춤형 장소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기에는 서울 사진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의 모습이다. 서구라는 타자의 시선은 서구 우월적 태도가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가 당연하게, 혹은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기분이야말로 성찰적 응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노인 콜라텍 문화를 다룬 것은 흥미롭다. 콜라텍은 젊음의 거리 흥대의 문화였다. 한국인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성인 콜라텍 문화가 서울을 탐험하던 이방인의 시선에 포착됐던 것이다. K팝이 큰 관심사였지만 아이돌의 연습 장면을 찍는 것은 연예기획사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대신 종로구의 숙소 주변 풍경이 들어왔다. 성인 콜라텍도 그때 알게 됐다. 화사한 꽃무늬 옷의 환갑을 넘긴 어르신들이 짝을 지어 스텝을 밟는 ‘꽁짜꽁짜’의 무대 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만났다. 한국전쟁의 잔해를 딛고 억척스레 살아왔지만 여전히 남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주름진 얼굴의 그들을 보며 “지금 세대는, 국가는 노인세대를 기억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로의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사람들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가 본 서울은 광고가 넘쳐났다. 잔상이 남아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삼성역의 광고판 풍경이 대표적이다. 흥대 인근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들이 양계장 닭처럼 들어왔을 모습은 위태하고 불안하게 다가온 오늘의 서울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걸그룹 ‘라붐’, 알록달록 옷을 입은 팬들의 모습도 있다. 세계 각국에서 찍은 중산층 가족 시리즈의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아파트 사람들도 담았다. 위기에는 눈에 비친 서울은 그렇게 우리가 지나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는 서울의 그늘진 표정이다. 어둡고 남루하거나 혹은 불안한.

전시에 나온 ‘서울 사진’은 빈민촌, 낮과 밤의 풍경, K-pop, 가족, 콜라텍 등 현재의 모습과 함께 1982년을 주제로 작업한 사진 등 126점이다. 그녀의 대표작인 다른 나라의 중산층 시리즈도 함께 선보였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서울역사박물관)



장 폴 고티에 전 JEAN PAUL GAULTIER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3.26-06.3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전시관

주관기관

한국: (주)에듀씨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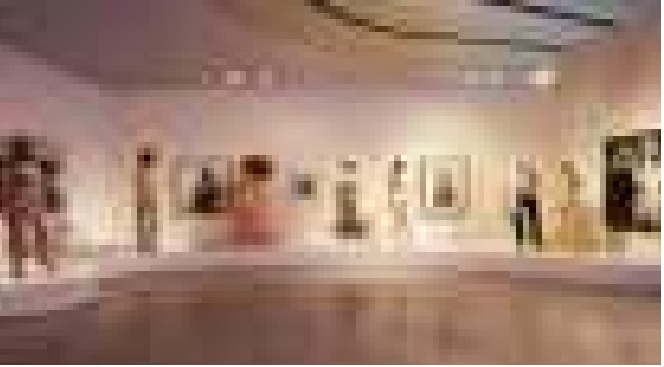
프랑스: 장 폴 고티에 하우스(Maison Jean Paul Gaultier)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전시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The Fashion World of Jean Paul Gaultier - From the Sidewalk to Catwalk> 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번 전시는 이번 전시는 그의 40여 년에 걸친 작품 세계를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의상을 중심으로 살피는 기획전이었다.

전시는 한국의 전시 전문기획사인 (주)에듀씨에스와 캐나다 퀘벡 주에 있는 몬트리올 미술관(Montreal Museum of Fine Arts), 파리의 장 폴 고티에 하우스(Maison Jean Paul Gaultier)가 함께 준비했다. 전시의 출발은 몬트리올미술관과 장 폴 고티에 하우스의 2년여에 걸친 협업에 있다. 이렇게 탄생한 <장 폴 고티에>전은 뉴욕, 런던, 파리, 샌프란시스코, 마드리드, 멜버른, 뮌헨 등 전 세계 8개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누적 관람객 2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한국에서의 전시는 아시아 최초이자 글로벌 투어의 대미를 장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95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장 폴 고티에는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패션계에서 ‘악동(Enfant terrible)’으로 불리며 매 컬렉션마다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정식 디자인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덴(Pierre Cardin)에게 발탁돼 그의 어시스턴트로 패션계에 입문한 이후 장 파투(Jean Patou) 등의 쿠티르 하우스를 거쳐 1976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첫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시작했고, 1996년 자신의 하우스를 열게 된다. 그의 의상은 패션을 둘러싼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남성용 스커트와 남녀 구분이 없는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정형화된 성(性) 개념을 타파했고, 천이 아닌 비닐이나 주방기구 등을 사용해 소재의 한계를 뛰어 넘었으며, 런웨이에 수퍼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체형, 나이의 모델을 세워 아름다움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1990년



마돈나가 ‘블론드 앰비션 월드 투어(Blond Ambition World Tour)’에서 입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원뿔형 브라(Con Bra)’는 강인한 여성상을 지향한 그의 작품 세계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장 폴 고티에의 파격적인 면모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전시장 전체에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 135점을 비롯해 의상 스케치, 사진 등의 평면 작품 72점, 오브제 20점 등 총 220여 점이 한국의 관객과 만났다. 주요 작품은 장 폴 고티에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받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살롱(Salon)’, ‘오디세이(Odysee)’,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스킨딥(Skin Deep)’, ‘어반정글(Urban Jungle)’ 등 7개의 섹션으로 나눠 소개됐다. 각 섹션은 새로운 여성상, 오트쿠튀르의 전통과 기술, 인간의 신체와 피부, 소재의 혁신을 향한 탐구, 결혼 등 그가 평생 동안 물두했던 주제를 집약해 드러냈다. 정숙하고 우아한 의상만을 추구하던 오트쿠튀르 패션계에 코르셋, 펑크룩 스타일, 동물무늬 등을 도입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의 40여 년의 여정을 살피는 특별한 기회였다. 그는 현재 기성복 사업을 접고 현재 발레와 오페라 의상 제작과 전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트쿠튀르 패션쇼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장 폴 고티에>전은 1차원적인 의상 작품 전시에서 벗어나, 영화 의상 제작에 꾸준히 참여해 온 그를 대변하듯 다양한 조명과 영상, 무대장치를 활용해 일반 관객의 패션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였다. 무빙 워크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마네킹은 런웨이를 미술관에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했으며, 멀티미디어 페이스 마네킹의 표정 연출을 통해 마네킹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시 개막 행사로 전 세계 전시 투어 중 처음으로 열린 그의 오트쿠튀르 패션쇼와 한국 전시를 위해 한복과 그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스트라이프와 ‘원뿔형 브라’를 결합한 새로운 의상은 그의 패션 철학과 예술적 감각을 확인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주)에듀씨에스)

정현 <서 있는 사람> L’HOMME DEBOUT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3.30-2016.10.08. 팔레 루와알 정원(Jardin du Palais Royal)

주관기관

한국: 학교재갤러리

프랑스: 이부 갤러리(IBU Gallery)



정현 <서 있는 사람(L’homme debout)>은 야외 조형물 전시로, 루이 14세가 거주했던 곳으로, 프랑스 국립문화재로 지정된 팔레 루와알 정원(Jardin des Palais Royal)에서 파리지앵들을 만났다. 애초 일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10월 8일까지 연장 전시되었다. 이후 프랑스 문화부의 요청으로 파리 근교의 생-클루(Saint-Cloud) 국립공원에서 10월 18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의 전시가 추가로 성사되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 관객을 만나게 된다.

정현의 작품 50여 점을 야외 정원에 설치한 <서 있는 사람> 전시는 프랑스국립문화재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의 승인 하에 파리 이부(IBU) 갤러리와 학교재갤러리가 함께 진행했다. 기하학적으로 다듬어진 프랑스식 정원의 나무숲 사이에 설치된 정현의 작품은 멀리서 얼핏 보면 마치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나무들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면 침묵을 알기설기 불인, 인체의 형상을 지극히 단순화시킨 작품들이다.

정현은 현대 사회에서 낡고 버려져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침묵, 석탄, 아스팔트 콘크리트, 잡석, 파쇄공 등의 재료로 작품을 만들며 그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침묵을 중요소재로 자주 사용했다. 오랜 시간 동안 철도의 무게를 지탱하며 거친 비바람을 맞은 이 재료를 전기톱과 도끼로 자르고 짚어내어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작가는 가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색상과 거친 표면을 그대로 두었다. 시간과 외풍으로 손상된 침묵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찌면 현대 사회를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 있다.

국립문화재센터는 전시물을 설치할 때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전시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공장소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 설계도면에서 작품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부분을 강화했다고 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지점마다 사각으로 땅을 깊이 파 두께 15cm의 철재 사각판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여기에 인체형 조각품을 고정하고 이를 다시 흙으로 묻어 비바람이나 다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정현 <서 있는 사람> 의 인체 형상 작품들은 한눈에 보면 몇 개의 일직선상에 규칙 없이 죽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상공에서 작품들을 바라보았다면 이들이 몇 개의 원형을 그리며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여러 점의 작품이 모여 하나의 원을 이루는데, 어떤 원은 인체의 형상들이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다른 원은 반대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내적 화합과 더불어 외부로 열린 마음과 평화를 표현한다. 프랑스국립문화재센터 측은 이번 전시가 테러사건으로 얼룩진 프랑스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작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학교재갤러리)



2016 아트파리 아트페어 : 한국주빈국 ART PARIS ART FAIR 2016 : LA CORÉE À L’HONNEUR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3.31-2016.04.03. 그랑팔레(Grand Palais)

주관기관

한국: 한국화랑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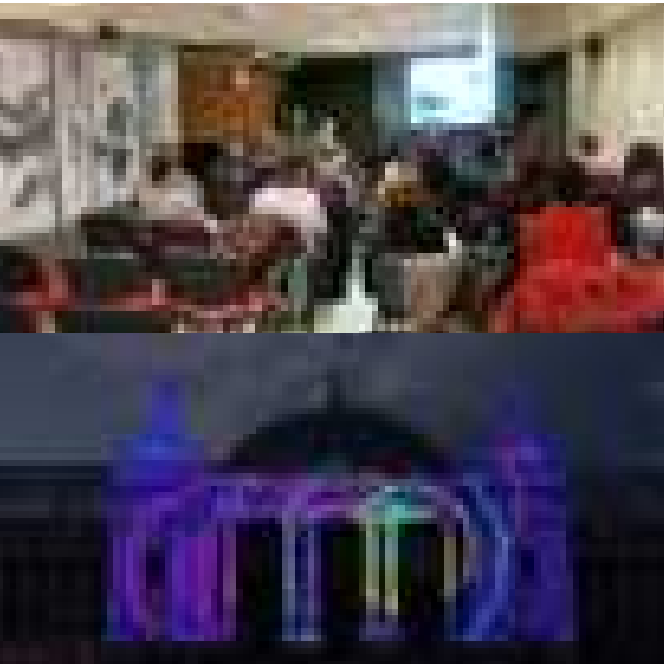
프랑스: 아트파리 아트페어(Art Paris Art Fair)

프랑스 미술시장의 상반기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아트파리 아트페어(Art Paris Art Fair, 이하 아트파리)’에 한국이 2016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다.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이번 페어에는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총 143개의 갤러리가 참가해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선보였다.

2012년 창설 당시 ‘아트파리’의 CEO인 줄리앙 르세트르(Julien Lecêtre)는 ‘파리 포토(Paris Photo)’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는 기욤 피앵(Guillaume Piens)을 커미셔너로, ‘피아크(FIAC)’에서 다년간 근무한 카트린느 보셀(Catherine Vauselle)을 홍보 책임자로 임명했다. ‘아트파리’를 프랑스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 페어인 ‘피아크(FIAC)’과 비교해 보면 우선 시기적으로 전자는 봄에, 후자는 가을에 개최 시기를 편성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피아크’이 고가의 작품 위주로 거래되는 반면 아트파리는 아마추어들을 포함한 폭넓은 컬렉터 층을 배려한 접근성이 용이한 가격대의 작품 거래가 더 활발하다.

‘아트파리’는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중불수교 50주년을 맞아 중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한 바 있으며, 2015년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2016년 한국에 이어 2017년에는 아프리카를 초청한다. 또한, 해외 갤러리 유치에 있어서 개방적이라 참가를 원하는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접수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이 때문에 만약 파리의 미술 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업 갤러리라면 ‘아트파리’를 통해 데뷔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2016년 ‘아트파리’에는 총 8개의 한국 갤러리가 참가했다. 주빈국 갤러리 플랫폼에는 한국화랑협회 후원으로 서울의 가나아트갤러리, 박여숙갤러리, 백해영갤러리, 갤



www.artparis.com © Emmanuel Nguyen Ngoc/enn2004@free.fr

러리시몬, 유엠갤러리, 대구의 신라갤러리, 파주의 갤러리소소가 참가했으며 일반 섹션에는 313 아트 프로젝트가 참가했다. 313 아트 프로젝트는 몇 년째 꾸준히 아트파리에 참가해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미술을 소개해 왔다. 한국의 갤러리들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들은 물론, 국제 시장에 알려진 최정화, 김준, 노상균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폭넓게 선보였다. 참가 갤러리들의 매출 실적은 양극화 경향을 띠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갤러리들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다작 선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갤러리에서 총 90여 명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이번 페어에 소개했다고 한다. 파리의 테사 에롤드 갤러리(Galerie Thessa Herold)는 몇 년째 고암 이응노의 작품을 꾸준히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이응노 화백의 아들인 화가 이영세 씨가 직접 컬렉터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파리의 리비네 갤러리(Galerie Françoise Livinec)는 재불 화가 원수열, 방혜자, 장광범의 작품을 선보였다. 파리의 갤러리RX는 재불 화가 이배와 배병우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다. 헝가리의 칼만 마클라리 갤러리(Kálmán Maklár Fine Arts)는 몇 년째 임동락, 허경애, 김일화, 서정민 등 한국 작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선다람타고르 갤러리(Sundaram Tagore Gallery)는 국제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전광영 작품을 여러 작 선보였다. 특히 한국의 KIAF에도 수차례 참가한 파리의 보두앙 르봉 갤러리(Galerie Baudouin Lebon)와 마리아 룬드 갤러리(Galerie Maria Lund)는 각각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중

점적으로 선보이며 한국과의 강한 유대감을 표했다. 한편 보두앙 르봉 갤러리는 2016년 서울에 분관을 오픈했다. 보드앙르봉은 재불 화가 김창열, 신성희에 이어 최근 채성필까지 10여 년 이상을 한국 작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전상아 큐레이터가 기획했으며 부대행사는 네이버 후원으로 ‘리추얼(Rituals)’이라는 테마로 이수경의 <When I become You>와 홍영인의 <Let Us Dance>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 VIP 라운지에 슬기와 민의 비디오 영상 작품이 설치되었다. 한편, 한국문화원에서는 대전 이응노 미술관의 이지호 관장, 서울과학기술대학 조형예술학과 김성원 교수, 프랑스 세르지 미술대학 교수인 베르나르 마카데, 케르케넬미술관 올리비에 들라 발라드(Olivier Delavallad) 관장이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2016년 아트파리 아트페어’의 전반적 성향을 요약하면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가의 대작보다는 소작을 선보인 갤러리들이 활약한 페어였다. 3,000유로 이하의 작품들의 경우 페어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판매되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아트파리 아트페어가 아시아 및 중동 등 먼 대륙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 미술의 파리 미술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한국화랑협회)

보이지 않는 가족

THE FAMILY OF THE INVISIBLE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4.05-2016.05.29. 서울시립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주)에드칸

프랑스: 프랑스 국립예술기금(CNAP), 아키텐느 지역예술기금(FRAC)

<보이지 않는 가족(The Family of the Invisibles)>전은 서울시립미술관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 기관인 프랑스국립예술기금(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이하 CNAP)과 아키텐느 지역예술기금(Frac Aquitaine)의 협력으로 열린 전시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탄생 100주년을 동시에 기념한 대형 전시를 위해 CNAP와 아키텐느 지역예술기금을 대표하는 소장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CNAP는 1982년 프랑스 문화교류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됐으며, 현대미술을 위한 국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수집 및 소장하는 곳이다. 또한 예술가, 갤러리 등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CNAP와 같은 해 보르도(Bordeaux)에 만들어진 아키텐느 지역예술기금의 10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미술의 인프라가 지닌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출품작 리스트도 쟁쟁했다.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 워커 에반스(Walker Evans),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로버트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 신디 셔먼(Cindy Sherman), 듀안 마이클스(Duan Michals), 베르나르 포콩(Bernard Faucon), 잔 그루버(Jan Groover), 리 프리들랜더(Lee Friedlander), 로만 오팔카(Roman Opalka), 제프 쿤스(Jeff Koons), 토마스 루프(Thomas Ruff) 등 현대사진과 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의 작품 200여 점이 한국의 관객과 만났다.

<보이지 않는 가족>전은 롤랑 바르트 연구가인 프랑스 파리13 소르본 대학 교수 마갈리 내처겔(Magali Nachtergaele), CNAP의 사진 부서 큐레이터인 클레르 자케(Claire Jacquet), 파스칼 보스(Pascal Beausse) 등 프랑스 미술계를 대표하는 세 전문가가 큐레이터를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들은 두 기관을 상징하는 주요 소장품을 바르트의 예술론과 접목한 이색적인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의 출발점은 현대사진과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롤랑 바르트의 독창적인 예술론. 그는 파리에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세계 순회 전시 <인간 가족>을 관람한 후 이 전시가 제시한 '인류'라는 개념을 비판하며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들에 주목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는 약자, 개인, 일화 등에 관심을 표하며 통념화된 사회적 규범과 신화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잘 담겨 있다. 전시 제목 <보이지 않는 가족>은 바로 바르트가 예술을 통해 성찰한 가시성(Visibility)에 관한 의미를 재탐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공공예술기관이 소장한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일상과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롤랑 바르트의 예술론에 새롭게 다가가는 기회인 셈이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는 총 다섯 개의 섹션으로 세분화되어 꾸러졌다. '신화의 해체'는 근대사회를 이룬 신화들과 지배적 표상을 해체하려한 바르트의 방법론의 영향 관계를 살폈다. 기존의 위계질서를 뒤엎으며 지배적인 표상의 실체를 폭로한 로



베르 두아노(Robert Doisneau), 패트릭 페이건바움(Patrick Faigenbaum), 랄프 깁슨(Ralph Gibson), 로렌 크로프(Laurent Kropf), 카렌 크노르(Karen Knorr), 에두아르 르베(Edouard Leve),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두 번째 섹션인 '중립지대 속으로'에서 '중립'은 역사와 분쟁의 영역 밖에서 현실을 다시 상하하려고 한 예술의 영역을 의미한다. 마르셀 브로타에스(Marcel Broodthaers), 다니카 다키치(Danica Dakić), 토마스 데만트(Thomas Demand), 에릭 보들레르(Eric Baudelaire), 히로시 스기모토(Hiroshi Sugimoto) 등의 작품으로 사진 이미지에서 시각 고찰의 가능성을 발견한 바르트의 시각을 잘 드러냈다.



세 번째 섹션인 '보이지 않는 이들'에서는 소수자들(거리의 아이들, 유랑자, 지적 장애인, 노예였던 사람들, 사형수, 동성애자, 예술가의 어머니, 여성 시인을 조명하며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질문한 바르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필립 바쟁(Philippe Bazin),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 소피 칼(Sophie Calle), 래리 클락(Larry Clark), 존 코플란스(John Coplans) 등의 작품을 선별했다. 네 번째 섹션 '자아의 허구'는 개인적 신화와 정체성의 허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길버트&조지(Gilbert & George), 디터 아펠트(Dieter Appelt), 아라키 노부요시(Araki Nobuyoshi), 아네트 메사제(Annette Messager), 오를랑(ORLAN), 빅터 버긴(Victor Burgin),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듀안 마이클(Duane Michals), 피에르&질(Pierre et Gilles) 등의 작품을 모았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와 박평중, 심세광, 박상우, 신정훈, 김홍기, 이영준 등 한국 사진계를 대표하는 이론가가 함께 모여 롤랑 바르트의 사상이 현대 사회의 이미지, (비)시각성, 그리고 예술 작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 <롤랑 바르트 세우기/허물기>가 열려 학술적 교류도 강화했다. 바르트의 철학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소장품을 연결지는 흥미로운 전시였지만, 출품작 대부분이 지나치게 사진 중심이라는 점, 전시 큐레이터의 바르트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국제교류 전시가 던진 숙제로 남았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주)서울시립미술관)

한국의 도시성

URBANITÉS CORÉENNE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3.30-2016.04.16. 파리건축문화재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외

주관기관

한국: (재)서울연구원

프랑스: 파리건축문화재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 의 도시성(Urbanités Coréennes)’ 포럼은 학술행사임에도, 작품성 있는 영상물을 상 영하며 예술과 결합시킨 통섭적 시도가 신선했다.

포럼은 한국의 서울연구원과 프랑스의 파리건축문화재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의 공동 주관 하에 2016년 3월 30일~4월 16일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한국이 오늘날 아시아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 은 프랑스 대중에게는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한국의 도시들에 대한 학술·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이와 함께 양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건축문화 유산박물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내 한국연구센터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 함으로써 추후 건축, 도시설계, 교육 등 양국 간의 보다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기 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추진되었다.

포럼은 2010년부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 관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당시 서울역사박물관의 강홍빈 관장이 서울연구 원에 참여를 제안한 것이 출발이었다. 이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 식인증사업 3차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한국의 도시를 주제로 열린 4일간의 포럼은 알랭 델리상(Alain Delissen,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 원), 박현찬(서울연구원), 조훈희(서울연구원), 뱅자맹 주아노(Benjamin Joinau, 홍익대)가 공동으로 구상한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서울의 근대화 과정’, ‘거대 한 상상, 미래의 건축가’, ‘수직 도시의 이면’ ‘비밀의 정원과 소외계층’이 그것이다. 행사 진행 방식이 특히 참신했는데, 각각의 테마에 해당하는 영상물(영화와 다큐 멘터리)을 상영하고, 이후 건축가, 도시계획가, 연구자,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 참가자(총 8명)와 프랑스 참가자(총 11명)가 서로 대담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영상물로는 김동원 작 <상계동 올림픽>, 오민욱 작 <범전>, 박찬욱·박찬경 작 <고진감래>, 강유기람 작 <모래>, 김진아 작 <서울의 얼굴> 등 총 11편이 각 각의 소주제에 맞춰 상영되었다.

이처럼 예술적이면서 학술적인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포럼이 개최된 장소 의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프랑스 측 학술 책임자인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발레리 줄레조(Valérie Gelézeau)는 “이번 포럼은 과거 ‘시네마테크 프랑스즈(Cinémathèque Française)’의 상영관이었고, 현재는 컨퍼런스나 심포지엄을 위한 영상물 상영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문화유산박물관인 파리건축문화재단지 강당에서 열렸다. 그래



서 기존 학술 행사와는 다른 열린 포럼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열린 파리건축문화재단지는 전 세계 건축박물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예산 문제로 모든 영상물의 감독을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도시의 소외된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다큐멘터리 <범전> 을 제작한 오민욱 감독이 초대받아 포럼의 의의를 살렸다.

서울연구원은 한국의 도시성 포럼과 관련해 “프랑스에서는 개봉되지 않았던 영상 물 상영을 통해 전문가 및 프랑스 대중들과 한국 도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점, 이런 토론을 통해 한국 도시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이 의 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행사와 연계해 건축문화유산박물관에서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프랑소와즈 위기에(Françoise Huguier)의 전시 <강남역>전이 함께 열렸다. <강남역>전은 서

울의 지하철역 공간을 해석한 사진전이다. 사진과 함께 영상과 음향이 지속적으 로 나오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시공간을 한국의 지하철역처럼 입체적 으로 시각화하였다. 또 파리의 아시아관에서는 아시아 도시 연구에 대한 주요 연 구기관인 국립극동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아시아 도시 아카이브전(Archivilles d'Asie)>도 3월 30일부터 열렸다.

파리 행사와 연계해 서울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 지 열린 프랑소와즈 위기에의 <서울 엘레지> 사진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의 교류는 많았지만 학술적 교류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는 크다. 내용면에서도 구체적으로 한국 도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짚어 보며, 물리적인 도시계획뿐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적인 삶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 내용을 담은 불문과 국문 으로 작성된 책자도 발간되었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재)서울연구원)

이응노 전 LEE UNGNO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레티나(Rétina), 움직이는 이미지>¹

2016.04.15-2016.06.26. 이응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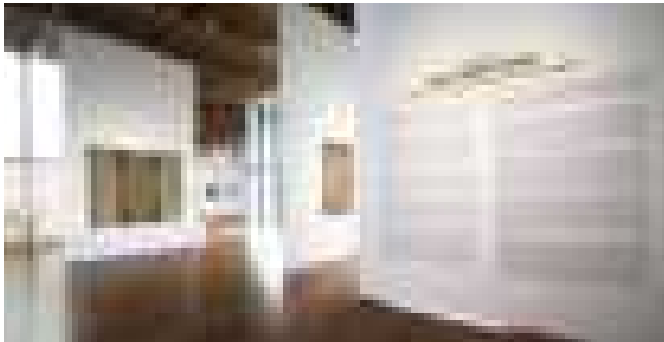
<이응노와 유럽의 서체추상>²

2016.10.04-2016.12.18. 이응노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¹, 이응노미술관²

프랑스: 푸앵돔(PoinTDOM)¹, 세르누치박물관(Musée Cernuschi)²



<이응노와 유럽의 서체추상>전

고암 이응노는 한국 현대미술을 이끈 제1세대 화가다. 그는 1958년 프랑스로 떠나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프랑스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기법을 전개해 나갔다. 그의 활동은 그 자체로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 교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응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대전에 설립된 이응노미술관의 설계를 프랑스 건축가인 로랑 보두앵(Laurent Beudouin)에게 맡긴 이유도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기법을 아우른 작가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절제된 건축 언어로 찬사를 받은 로랑 보두앵은 이응노 작품에 내재된 조형적 구조를 통해 그의 예술세계를 상징화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보였다. 현재 이응노미술관은 이응노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연구 수집하면서 학술, 출판,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응노미술관에서 프랑스의 2인조 작가 르네 쉴트라(René Sultra)와 마리아 바르텔레미(Maria Barthélémy)의 뉴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RetinA>를 이응노가 제작한 추상화와 함께 조명한 실험적인 전시 <레티나: 움직이는 이미지[RétinA: Moving Image]>를 열었다. 르네 쉴트라와 마리아 바르텔레미는 1990년 이후로 함께 작업해 온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그들은 섬유와 컴퓨터 공학 등 과학기술을 사용해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 창작에 앞장서고 있다. 전시를 위해 이응노미술관과 프랑스의 세르누치박물관(Musée Cernuschi) 및 푸앵돔(PoinTDom)이 긴밀하게 협력했다. 세르누치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 지역의 예술품 1만 여 점을 소장한 극동예술 전문 박물관이다. 푸앵돔은 2005년 툴루즈에 설립된 창작지원 공간으로, 전시기획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응노미술관의 전관을 사용한 <레티나: 움직이는 이미지>전은 시각, 기억, 기호, 이미지를 탐구하는 르네 쉴트라와 마리아 바르텔레미의 작품을 이응노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며 이론적, 양식적 대화를 시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기호로서 이응노의 문자추상이 어떻게 '상호소통성'을 통해 현대회화의 구성 원리를 실현해냈는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인지작용과 기호-이미지가 갖는 속성은 어떤 것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전시는 '무한의 기호'와 '기억, 이미지, 텍스트'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무한의 기호'에는 우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방식과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을 소개했다. 이곳에 소개된 대표작 <Sentimental Journey>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직조된 거대한 직물로 사이언, 마젠타, 황색, 흑색, 백색의 기본색을 조합해 직물을 짜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 프로그래밍은 최소 형태의 기본 모듈이 단순한 규칙을 통해 증식발전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는 패턴 방식인 세포자동자(Cellular Automata)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작가는 세포자동자 이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적용해 직물 위에 '무한 패턴'을 생성해냈다. 두 작가가 사용한 '세포자동자' 이론을 이응노가 시도한 1960~70년대 모던 페인팅 담론과 연결해 해석의 여지를 제공했다. 초기 표면에 깜빡이는 셀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서로 반응하며 작동하도록 제작된 르네 쉴트라와 마리아 바르텔레미의 <BEL Horizon>는 각 개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끌어낸 이응노의 <군상> 연작과 조화로운 장면을 연출해 냈다.

두 번째 섹션 '기억, 이미지, 텍스트'에서는 기억과 이미지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르네 쉴트라와 마리아 바르텔레미는 프랑스 영화감독 알랭 레네(Alain Resnais)의 <자난해 마리앵바드에서>를 텍스틸로스코프(Textiloscope)라는 스크린용 직물 위에

투영하며 새로운 유형의 '포토그램' 영상을 창조했다. 두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기억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현실 인식의 차이를 다룬 이 작품은 모호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모호성은 픽셀의 선명도를 달리하며 움직이는 영화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영상은 종결부에 이르러 LADAM(L'Année dernière à Marienbad)이라는 포토그램(Photogram) 형상으로 변화하며 끝을 맺었으며, 영화 이미지가 문자로 그리고 이어서 표의문자로 변형되는 순간이었다. 작품의 포토그램은 한자의 특성을 회화적으로 조합해 문자추상이라는 독특한 미적 영역을 개척한 이응노의 대표적 작업들과 공명했다. 이응노가 제작한 수많은 타피스트리와 상형문자를 바탕으로 한 꼴라주 작품, 기호적 의미를 지닌 도장의 문양, 상형문자를 도해한 수많은 드로잉 습작들은 '회화적 문자'를 향한 그의 험 없는 실험을 잘 드러냈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 매체인 이응노의 회화와 르네 쉴트라와 마리아 바르텔레미의 뉴미디어 아트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한국의 모더니스트와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스트와의 시공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전시였다. 이번 전시에 이어 2016년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응노와 유럽의 서체추상>전이 다시 이응노미술관에서 열려 관객들을 만났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이응노미술관)

<레티나: 움직이는 이미지>전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LASCAUX EXPOSITION INTERNATIONAL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4.16-2016.09.04. 광명동굴

주관기관

한국: 광명시

프랑스: 라스코(Lascaux)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이 2016년 4월 16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동굴테마파크 광명동굴에서 열렸다. 프랑스 남서쪽 도르도뉴(Dordogne)주 몽티냐크(Montignac)에 위치한 라스코 동굴은 BC15000~14500년 전 인류의 주거지로 추정되며,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동굴 벽 곳곳에 검은 소, 노루, 고양이, 코뿔소, 늑대, 곰, 새, 인물상과 집 모양의 그림 600점이 그려져 있다. 그 밖에도 암각화 1500여 점과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를 거쳐 한국 광명시에서 개최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행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세계적인 전시를 문화유산 분야 공식인증사업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도르도뉴와 아키텐(Aquitaine) 지방의 관광유산, 문화유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전의 취지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장 누벨(Jean Nouvel)이 설계를 맡아 오픈 전부터 눈길을 끈 전시관은 지상 1층, 연면적 862.99㎡ 규모를 자랑했다. 버려진 폐광에서 문화관광명소로 재탄생한 광명동굴의 정체성과 개념을 이어가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컨테이너 62개를 활용해 축조했으며 특히 건물 외관을 덮고 있는 검은색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며 라스코 동굴의 고고학적 자취를 물씬 느끼게 했다.

전시는 총 9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2만 년 전 구석기시대 인류의 대표적 동굴벽화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라스코 동굴벽화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우선 라스코 동굴이 발견되고 폐쇄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다. 이어서 첨단팩시밀리

기술을 활용해 실물 크기로 제작한 라스코벽화, 10분의 1크기 모형으로 제작한 동굴 내부, 라스코 동굴벽화가 그려진 당시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실물 크기로 재현한 벽화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밖에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선사시대의 유물과 조각가 엘리자베스 다이네스(Elisabeth Daynes)가 복원한 크로마농인 가족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봐야 했던 것은 장 누벨의 미디어아트 작품이었다. 빔프로젝트 130대가 영상하는 라스코 동굴벽화 발견지의 강, 밤나무, 이끼, 바위 등의 사진자료들이 확대, 축소, 분할, 겹침 등 불규칙하고 무한반복으로 움직이며 카모플라주 패턴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빔프로젝트 빛에 투과된 관람객의 그림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어 전시장 전체가 베제르 계곡(Vézère Valley) 유역 어느 곳에 와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을 광명시와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전시’ 공공지역협회(이하 SPL)가 공동주최하기까지는 양측의 수많은 회의와 긴밀한 신뢰, 교류가 있었다. 해당 전시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유산 분야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한 다니엘 올리비에(Daniel Ollivier) 프랑스문화원장으로부터 제의받은 지난 2013년 8월 이후, 두 기관은 2015년 2월 의향서 체결, 3월 13일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 문화유산 전시 분야 공식인증사업 선정, 9월 19일 해당 전시 조직위원회 발족과 함께 양기대 광명시장이 프랑스 라스코 동굴을 방문

해 프랑스 라스코 SPL 회장 등과 정식 계약 체결 등 전시 준비기간만 무려 4년이 걸릴 만큼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42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2016년 9월 4일 막을 내린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은 17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광명시에 따르면 전국 도시벽지 문화 소외 청소년을 109회에 걸쳐 초청하여 총 4000명에게 전시 관람과 함께 교육·문화체험을 제공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만 년 전 선사시대 인류와 현대 인류가 ‘동굴’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광명동굴에서 해후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국제 순회전시 개최는 일반에 공개되었다 벽화훼손 등으로 일반 관람을 금지한 1963년 이후, 선사시대 유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접하고 구석기시대의 크로마농인들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곳도 아닌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에서 펼쳐졌다는 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인류학, 인문학, 교육,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나아가 경기도민과 광명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광명시)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 파사주

JEAN-PIERRE BRIGAUDIOT : PASSAGE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4.22-2016.05.22. 도로시살롱

주관기관

한국: 도로시살롱

프랑스: 장피에르 브리고디오(Jean-Pierre Brigaudiot)



서울 도로시살롱에서 프랑스의 조형작가 장피에르 브리고디오(Jean-Pierre Brigaudiot)의 개인전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 파사주(Passages)>가 열렸다. 전시의 주인공 장피에르 브리고디오는 프랑스 추상미술의 명맥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가다. 브리고디오는 프랑스 낭시 보자르(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cy) 미술학교와 파리1 팜테옹 소르본대학교(Université Panthéon-Sorbonne) 조형예술학 석사 출신으로 파리1 팜테옹-소르본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와 한국은 물론 미국, 이란, 불가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해 왔다. 2003년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초빙 교환 교수로 한국에서도 활동해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을 지니고 있다.

도로시살롱이 개관 이래 1년여 동안 작가와 밀도 있게 협업하며 마련한 이번 프로젝트 전시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교류의 본질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모든 문화 현상과 예술 작품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과연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교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미술 언어로 성찰한 것. 전시장에는 장피에르 브리고디오가 미술과 문학적 글쓰기 작업을 결합한 <시(詩)조형(造形)> 연작이 소개됐다. <시조형> 작품은 시인이기도 한 작



<시, 언제나 2015-16>

가가 그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창작한 시 작업을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다른 언어의 사용자에게 재해석하도록 하고, 이를 작가가 다시 회화, 사진, 디지털 프린팅, 비디오 등의 여러 매체로 조형화 하는 과정을 거치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2012년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개인전 <교차(Traverses)>를 위해 제작한 비디오 작업에서 본인이 프랑스어로 창작한 4편의 시를 페르시아어로 재해석했고, 이를 역동적인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하기도 했다.

한국 전시에서는 시 조형 작품의 한국어 버전이 새롭게 제작돼 한국의 관객과 만났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교차, 두 언어 문화권의 만남과 이해 그리고 오해, 그 과정에서 비롯된 모순과 조화 등의 복잡미묘한 감정과 흔적이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프랑스어가 한국어로, 한국어가 미술의 형식으로 점차 확장된 이같은 재해석 과정은 그의 전시 제목인 '파사주(Passages)'가 지닌 통로라는 의미처럼, 그 자체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만나고 헤어지며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통로가 된 셈이다. 작가와 전시를 함께 준비한 큐레이터 박지은은 그의 작품에 대해 “작가의 작업에는 나의 일상이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며 비일상이 되는 과정, 일상의 소소함과 동시에 근접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함이 되는 별과 시간과 같은, 어떤 맞닿은 두 개념에 대한 성찰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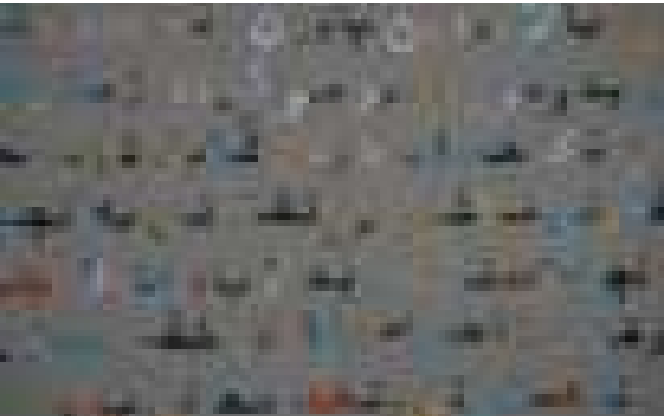
그의 최신작 이외에도 1990년대에 발표한 <에어포트(Airport)> 연작, <별헤는 밤> 연작 등도 함께 소개되어 한국 관객이 브리고디오의 작품 세계를 개괄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 말부터 벽화, 건조물, 조각, 설치, 사진 등 여러 매체를 실험하며 현대적인 의미에서 풍경이란 무엇일까를 탐구한 그는 <에어포트> 연작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과 교차라는 주제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끌어 왔다. 미술대학의 학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대학과 교류하기 위해 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타게 된 비행기가 그에게 영감을 제공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활주로 지면, 주차장, 포장도로 위의 표지를 추상미술의 형식으로 조합한 것이다. 이전 대표작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 이외에도 전시 기간 중 한국의 미술가, 문학가 등 관련 예술가와 한불 문화계 인사가 작가와 만나 작품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아티스트 토크' 자리도 진행해 작품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시장에 소개된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이 여전히 어렵고 낯설거나 프랑스어를 모르는 관객에게는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이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다시 글이 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천천히 음미해본 관객이라면 분명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인 시각적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이미 완성된 작품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해 전시하는 전통적 형태의 미술 교류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의미의 교류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도로시살롱)

<시, 2013>(부분)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 LA TERRE, LE FEU, L'ESPRIT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4.27-2016.06.20. 그랑팔레(Grand Palais)

주관기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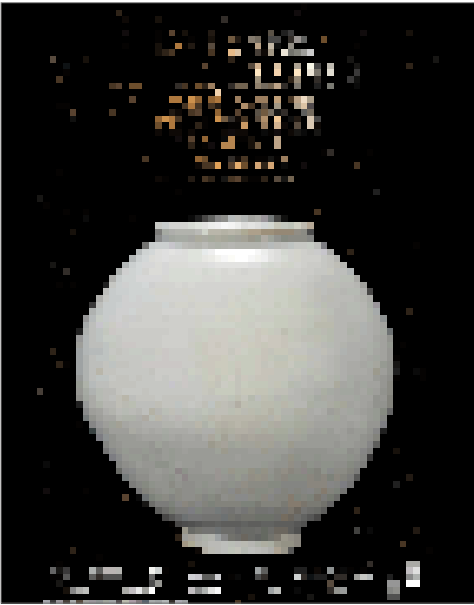
프랑스: 그랑팔레(Grand Palais)

국립중앙박물관과 그랑팔레(Grand Palais)가 공동 주최로 한국 도자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한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은 2016년 4월 27일부터 6월20일까지 그랑팔레에서 관람객을 만났다. 그랑팔레가 도자기를 대규모 기획전으로 선보인 것은 이번이 최초였다. 전시에는 국보 제96호 <청자 귀룽형 주전자>, 보물 제1437호 <백자 달항아리> 등 지정문화재 11건을 포함한 전통 도자 300여 점과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작한 현대 작품 30여 점 등 총 216건 344점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도자기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선을 보인 것은 1889년 파리 트로카데로(Trocadéro)에 위치한 인류학박물관(Musée d'Ethnographie du Trocadéro)에서였다. 이어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프랑스 외교관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한국 도자기 및 장신구를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기박물관(Sèvres, musée national de Céramique)과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에 소개하고 기증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 <코레 마니아>라는 도자기 전시가 2015년 1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세브르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은 시작 전부터 파리 시내 곳곳에 설치된 우리의 달항아리를 담은 포스터로 관심을 끌었다. 기존의 해외 전시들이 대부분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홍보되었기에 이와 차별된 전략이 도자기 마니아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한국도자기하면 일반적으로 '셀라돈(Céladon, 청자)'을 떠올린다.

이번 전시를 함께 준비한 프랑스 측 큐레이터 스테파니 브루이에(Stephanie Brouillet)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그랑팔레라는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전시



는 마니아가 아닌 대중을 상대로 했음을 강조하였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넓은 관람객층에게 소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도자기를 모던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청자, 분청사기 등은 고미술임에도 현대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것. 브루이에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들과 작은 것부터 함께 조율하고 소통하며 준비했다. 세브르국립도자기박물관에 근무하는 그녀는 수장고에서 260여 개의 한국 도자기를 발견한 뒤 한국 도자기에 반해 2014년 개인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덕분에 10일 동안 방문 기회를 얻어 한국에서 도자기를 공부하였고 자연스럽게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전시장은 입구에서부터 복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로, 들어간 입구를 통해 다시 나오는 동선으로 조성되었다.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까지가 시대순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전시장의 내부는 일직선으로 조성했으나, 파티션으로 시대가 구분되도록 간격을 두어 한 시대의 분

위기와 당대 한국의 도자기 문화를 개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시장 벽면에 연표는 물론 각각의 시대적 특성과 도자기에 대하여 소상히 소개해 교육적인 성격을 더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도자사의 명품들과 함께,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예술가들의 작품도 소개되었다. 도예, 영상, 회화, 사진, 조각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 11명(이우환, 박영숙, 김수자, 이수경 외)의 작품이 전시되어 도자문화가 현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어떠한 영감을 주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문경원, 전준호 팀은 이 전시를 위해 달항아리가 자닌 미완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동경하는 완전함에 대한 의문을 주제로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영상작품을 창작하였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파라다이스 X 홍티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5.01-2016.06.30. 파라다이스(Paradis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7.31-2016.10.21. 홍티아트센터

주관기관

한국: 부산문화재단

프랑스: 파라다이스(Paradise)

부산문화재단과 파라다이스(Paradise)의 공동주관으로, 부산의 홍티아트센터와 낭트(Nantes)의 갤러리 파라다이스 두 곳에 양국의 예술가들을 파견, 교환 레지던시를 진행하며 이곳에서 창작한 작품을 모아 전시 형태로 소개했다. 예술가들을 초청 지원할 수 있는 레지던시와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양 기관은 두 도시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자 부산과 낭트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상호 초청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 초대된 한국 작가는 문진욱이다. 문진욱은 홍티아트센터의 4기 레지던시 입주작가이다. 그는 언어 및 소통 기호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레지던시 전시 때 전시장의 여러 벽면을 마치 백지처럼 활용하여 자신이 고안한 상형문자와 유사한 기호체계로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오브제를 그대로 부착하기도 했으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직접 작품을 해석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시는 오프닝을 낭트의 IT행사 ‘웹투데이(Web2day)’ 기간에 맞춰, 본 전시회를 낭트의 주요 여름예술축제인 낭트로의 여행(LVAN, Le Voyage à Nantes) 중 일부로 편성해 더 많은 프랑스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알릴 수 있었다.

한국의 홍티아트센터는 언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낭트 출신의 프랑스 작가인 위그 르와나르(Hugues Loinard)와 에바 제르송(Eva Gerson)을 초청하였다. 두 작가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글이라는 언어를 오브제, 영상, 소리, 그림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그 르와나르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번역과 오역에서 발견되는 해프닝을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에바 제르송은 대기업 삼성에 빚대어 첨단 기술의 양면성을 둘러싼 문제를 작품화하였다. 전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홍티아트센터에서는 창작에 필요한 물품 및 작업 공간을 적극 지원하였다.



파라다이스는 2013년 낭트 중심에 설립된 프랑스 및 해외 아티스트 레지던시 전용공간이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낭트의 주요 현대미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파라다이스는 현재까지 30명 이상의 아티스트를 맞이했고, 다른 기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낭트는 낭트 한국학발전협회(ADECAN,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es études coréennes à Nantes)의 활동을 비롯하여 한국문화행사가 활발히 열리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홍티아트센터는 2013년 부산문화재단이 설립한 창작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와 창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작가들의 연구, 전시,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설치미술 전문 창

작공간으로서 국내외 설치작가들의 레지던시 등 창작자원은 물론, 이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외 교류 레지던스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나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점차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장기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에서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언어와 생활방식이 다른 작업환경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을 창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대받은 작가들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던 동료 작가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활발히 협업하는 것을 보고 교류 프로그램을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부산문화재단)



2016 어린왕자 전 LE PETIT PRINCE 2016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02-2016.09.18. 경기도박물관

주관기관

한국: 경기도박물관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Fondation Antoine de Saint-Exupéry)



한국에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4)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것은 아마도 <어린왕자(Le Petit Prince)>일 것이다. 전 세계 270여 개 언어로 출간된 <어린왕자>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명세를 증명이라도 하듯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논문의 주제로 삼은 작품도 <어린왕자>이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예쁘게 그려진 <어린왕자>의 삽화는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 쉽게 쓰인 문체지만 이 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철학적이고 심오하다. 인간이 태어나 세상과 어떻게 교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길들여지는가가 <어린왕자>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 어린왕자(Le Petit Prince 2016)> 전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박물관과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Fondation Antoine de Saint-Exupéry)의 공동기획으로 이뤄졌다. 2008년 생텍쥐페리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이 재단은 프랑스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특히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를 필두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순회로 열렸는데, 경기도박물관과 생텍쥐페리재단은 이번 전시를 위해 2016년 1월 1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보삼 경기박물관장과 재단 전속 작가 아르노 나자르아가(Arnaud Nazare-Aga) 등 10여 명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생텍쥐페리의 증조카이자 재단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올리비에 다게(Olivier d’Agay)는 “그동안의 어떤 전시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2016 어린왕자 전>을 한국에서 개최

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시는 크게 3파트로 구성됐다. ‘생텍쥐페리의 삶과 도전’, ‘우주 속 어린왕자’, ‘어린왕자 아트컬렉션’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생텍쥐페리의 삶과 도전’은 생텍쥐페리 재단과 라테코에르재단(Fondation Latécoère)이 소장한 생텍쥐페리의 다양한 유품과 사진을 소개했다. 이 전시실에는 생텍쥐페리의 수첩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린왕자>의 삽화를 직접 그렸던 작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불의의 비행기 추락 사고 후 불귀의 객이 된 그가 착용했던 팔찌도 함께 전시되었다. 무엇보다 이 전시가 열릴 수 있었던 매개체가 된 <어린왕자>의 초판본과 각국의 언어로 출간된 <어린왕자>를 직접 볼 수 있었다. 원래 <어린왕자>는 영어로 초판본이 먼저 발행(1943)됐는데, 그가 비행 중 실종된 지 2년 후 발행된 프랑스어 초판본(1945)은 삽화와 내용 등의 차이가 있다. <어린왕자>의 영문 초판본에는 어린왕자가 녹색 코트를 입고 있지만, 프랑스어판에는 남색을, 그리고 소행성 325(권위와 복종을 상징하는 왕이 살고 있는)가 소행성 3251로 잘못 표기된 점 등이 그것이다. 알려졌다시피 생텍쥐페리는 문학가임과 동시에 비행기 조종사로서도 활약했는데, 그가 마지막 조종간을 잡았던 P-38 라이트닝 모형과 알랭 에르놀트가 촬영한 P-38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파트 2에서는 ‘우주 속 어린왕자’로 아르노 나자르아가의 작업을 통해 마치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어린왕자를 만날 수 있었다. 물론 원작에서 어린왕자가 존재하는 B612는 우주에 존재하는 가상의 행성이라는 점이 이 전시실이 꾸며진 이유

가 됐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생텍쥐페리재단은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아르노 나자르아가는 시각장애아동을 위해 작품을 직접 만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실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클로드 가랑데(Claud Garrandes)가 제작한 어린왕자 점자책이 전시되어 그 의의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파트 3은 어린왕자 아트 컬렉션으로 <어린왕자>의 원작 삽화에 등장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조각작품으로 표현했다. 역시 아르노 나자르아가가 참여했고 부드러운 곡선과 밝고 다채로운 색을 입히는 그만의 감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작품과 함께 해당 작품이 등장하는 <어린왕자>의 텍스트도 함께 구성해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6년 7월 22일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가 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생텍쥐페리가 <어린왕자>를 집필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코드룽 시문(Caudron Simoun)’ 비행기도 세계 최초로 전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이 전시를 많은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갖가지 이벤트도 마련되었다. 8월 12일에는 용인시민에 한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박물관 내 실내강당에서 퍼포먼스 공연팀 ‘MAR’의 미술, 마임, 저글링 공연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경기도박물관)

터블런트 트랜지션 :
포토그래픽 메시지 프롬 코리아
TURBULENT TRANSITION :
PHOTOGRAPHIC MESSAGES FROM KOREA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3.02-2016.05.04. 라 상브르(La Chambre) 외

주관기관

한국: 아시아문화원

프랑스: 라 상브르(La Chambre)



김태동, <Day Break-033>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사진 전문 기관인 라 상브르(La Chambre)와 마
이옹(Maillon Théâtre de Strasbourg)에서 한국의 현대사진을 알리는 <터블런트 트랜
지션 : 포토그래픽 메시지 프롬 코리아>(Turbulent Transition : Photographic Messages
from Korea)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사진을 대규
모로 소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전시의 출발은 한국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라이브러리파크 주제
전문관에서 진행하는 '아시아의 사진'이라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다.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과 박물관, 아카이브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간
으로 근현대 아시아의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물과 자료를 수집·전시하
고 있다. 사진 이외에도 아시아의 전시, 비디오 아트, 실험영화, 퍼포먼스 아트, 소리
와 음악, 디자인, 건축, 도시, 이주, 전자상가, 크리에이터 등 13개의 주제로 전문관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진은 아시아가 근현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와 문화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 이곳에 소장된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등 근대
의 격변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라이브러리파크는 사진 수집
이외에도 원로 사진가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한 영상 작업을 진행해 사진만으로 알
수 없던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도시화와 전 지구화 현상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
경 변화와 이에 따른 일상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6명의 한국 작가의 작품은 장르적으로 인물사진, 건축사진, 스
냅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등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작가마다 사진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 상황과 도시화 과정, 이에 따른 환경과 정체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사
진가는 여기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대적인 현상과 사건들을 기록하는 한편,
한국 시각문화의 역사를 증언하고, 사회 안의 관찰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한국 사진만의 특징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진 기관에
서 전시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전시는 장소별로 원로 작가와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로 나뉘 열렸다. 마이옹
에서는 '#1'로 5명의 사진 작가 김한용, 김기찬, 안옥현, 김태동, 안세권의 작품을 소
개했다. 전시가 열린 마이옹은 600석과 150석의 좌석을 갖춘 공연 전시장이다. 전시
이외에도 연극, 음악, 서커스, 댄스 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예술가가 모여 작품
을 선보이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전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지금 한
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에 주목했다. 선배 세대인 김한용과 김기찬의 사진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노스텔지어를 자극했
다. 김한용은 1950년 국제보도 사진기자로 시작하여 1970년대 한국 광고사진의 개
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사진은 한국의 근대화, 도시화 연구의 귀중한 자
료인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기록으로,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한편
김기찬은 TBC TV 영상기사로 시작해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
림동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을 골목길의 풍경으로 기록하였다. 두 작가
의 작품은 한국인은 물론 프랑스인에게는 더욱 낯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간접 체
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과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안옥현은 사진과 영상을 다루며 인간의 기본적 감
성을 인물의 초상사진, 미디어에서 비춰진 이미지, 그리고 소설의 한 장면과 같은 이
미지로 들춰내고 있다. 김태동은 도시의 감춰진 시간을 인물 사진과 같이 제시했다.

안옥현, <Jungjin On The Pink Wal>



낮과 밤의 시간의 대조와 인물, 건축, 그리고 파편적인 일상을 사진적 스펙타클과 함
께 제시했다. 안세권은 서울의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의 도시화 문제를 2005
년부터 현재까지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프랑스 관객들에게 한국
과 프랑스라는 시간과 장소의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전 지구화 현상으
로 어느 곳에서나 경험하고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의 문제를 잘 드러내었다.

두 번째 전시 '#2'가 열린 라 상브르에서는 사진이 지닌 '기록'과 '예술'로서의 가능
성에 초점을 맞춘 기관답게 오형근의 작품 세계를 더욱 내밀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라 상브르는 전시 장소이자 이미지 제작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젊은
작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와 성인 등 일반 시민도 사진 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오형근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시작
해 사회적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아줌마, 소녀, 군인 등 한국 사회 특정 집단의
인물 사진을 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근대화 과정 안에서의 구성원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사진으로 탐구한다.

전시 이외에도 스트라스부르의 주요 관객과 학생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이옹에서 열려 전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의 대
표적인 사진 전문 기관에서 한국의 주요 세대 작가를 대규모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주제전문관의 아카이
브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지만, 더욱 많은 한국 작가를 세대별 주제별로 다양하게 소
개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아시아문화원)

세권, <Lights of Weolgok-dong>



러브송: 한국 → 프랑스 LOVE SONG, FROM SEOUL TO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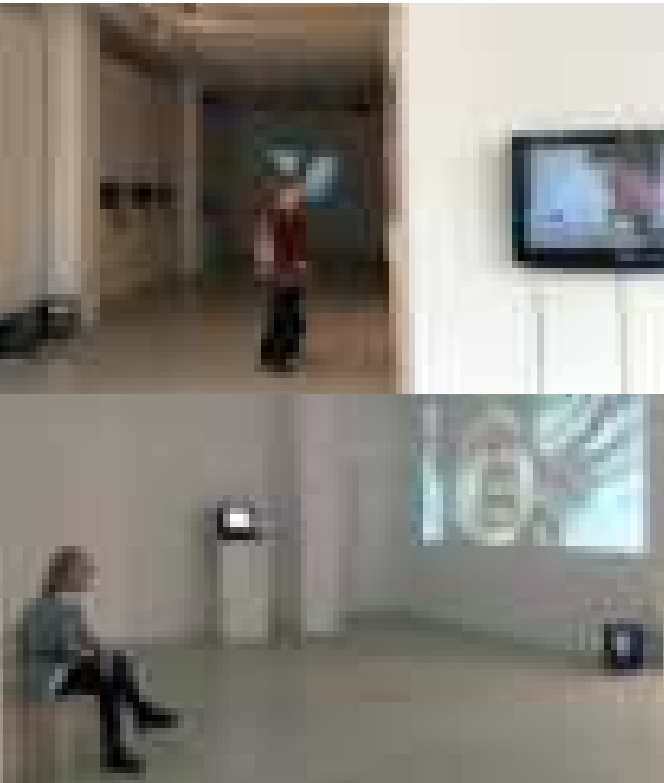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5.04-2016.05.13. 뮐시 갤러리(Dulcie galerie)

주관기관

한국: 낭트 한국학 발전협회 아데캉(ADECAN)

프랑스 : 낭트보자르(ESBANM,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tes Métropole)



프랑스 내 한국 유학생들의 삶을 소재로 한 <러브송: 한국→프랑스(Love Song, From Seoul To Paris)>전시가 낭트 보자르(ESBANM,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tes Métropole) 뮐시 갤러리(Dulcie galerie)에서 2016년 5월 4일부터 13일까지 소개되었다. 전시는 프랑스를 찾는 유학생들의 꿈과 목표, 그리고 실제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좌절에 관심을 갖고 기획되었고, 이러한 소재를 이야기로 푸는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라는 매개를 활용하였다. 한국 드라마와 프랑스 유학과의 연관성을 찾아 전시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해외유학에 대한 판타지와 실제 외국 생활 사이의 간극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드라마라는 소재를 선택한 배경에는 프랑스에 형성된 한국 드라마 마니아층의 영향도 있었다. 본 전시는 낭트 한국학발전협회인 아데캉(ADECAN)이 참여하였다.

<러브송: 한국→프랑스>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편에서는 프랑스에 관한 판타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드라마 세 편(<내 이름은 김삼순>, <운명처럼 널 사랑해>, <청담동 앨리스>)이 상영되고, 다른 편에서는 프랑스로 건너온 뒤 실제 삶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양국의 언어 및 문화 사이에서 충돌하는 정체성 혼란을 다룬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는 최근 5년 이내에 프랑스 미술학교를 졸업한 신진 작가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김희정, 신미정, 이지연, 이인림 프로젝트(LEENLIM PROJECT), 이은선, 안소정, 김주리, 오빛나, 김혜미, 방지숙, 임현정 등 10여 명의 작가가 초대되었다.



안소정, <L'île-Passerelle>

기획자 김희정은 이중문화, 정체성, 언어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바, 낭트 보자르의 교수이자 前 리유 유니크(Lieu unique) 커미셔너인 파트리시아 솔리니(Patricia Solini)에게 전시를 설명하였다. 이후 대외협력 및 전시 담당자인 로젠 르메레르(Rozenn LE MERRER)를 만나 설득하여 뮐시 갤러리에서의 전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주요 프랑스 미술학교에서 5년 이내에 수학한 한국 졸업생들을 찾기 위해 작가 협회나 활동작가들을 검색하고 수소문하여 작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관련 주제로 작업한 작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처음 계획보다 작가 수를 늘려 10명 가량의 작가로 구성되었다. 섭외된 작가들과는 이후 직접 만나거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전시를 준비했다.

한편, 외국인 작가들도 같은 주제로 작업을 하지만 한국 작가들과 구별되는 점은 '드라마'라고 판단해, 파트리시아 솔리니 교수와 호젠 르메레르와 함께 드라마를 전시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산과 공간에 제약으로 드라마와 호응하는 장르인 비디오 작업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드라마 중 프랑스 관련 영상에 대한 상영판권을 소지한 드라마 파시옹(Drama passion)의 협조로 해당 영상물이 전시장에서 상영될 수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며 낭트 보자르학교와 연간 일정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젊은 작가들에게 교류의 장을 열어준 뜻깊은 전시였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뮐시 갤러리)

ACC 프로젝트 & 라 빌 아 데 아르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하늘의 마법사(Magiciens du ciel)>¹

2016.05.15-2016.06.04. 라 빌 아 데 아르(La Ville A des Art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0상실록(Annales de 0-SANG)>²

2016.08.23-2016.09.13. 섬 박물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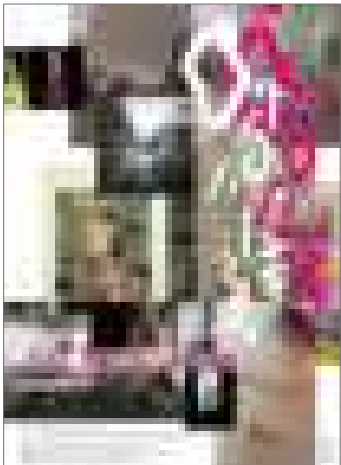
니콜라스 쉐퍼(Nicolas Schöffer) <LUX 10-Busan>³

2016.12.17. 부산시 수영구 수영강변

주관기관

한국: ACC 프로젝트^{1,2}, 부산시³

프랑스: 라 빌 아 데 아르(La Ville A des Arts)²³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같은 주제와 작가가 참여한 전시를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전시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의미는 이번 수교 기념행사에서 ‘교류’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교류는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간 꾸준한 상호활동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만큼 교류는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야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의 ACC(Art&Cinema Communication)프로젝트와 프랑스의 라 빌 아 데 아르(La Ville A des Arts)가 주최한 <하늘의 마법사>와 <0상실록>은 바로 절대적인 시간과 그 사이에 쌓인 신뢰에서 발생한 ‘교류’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부각시켜 열린 전시다. 두 단체가 주최한 <하늘의 마법사>와 <0상실록>은 프랑스와 한국 양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열리지만 주제의 맥락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전시명도 각각 달랐다. 이를 두고 기획의 변에서 서익진 ACC프로젝트 대표와 하효선 에스빠스 리죐 대표는 “서양과 동양의 성격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살펴볼수록 두 문화 간의 상호 보완성과 매력적인 요소가 도처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서로의 문화와 예술세계가 극명한 대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의 결여된 틈새를 메울만한 점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 명의 프랑스 작가인 자비에 루체시(Xavier Lucchesi), 마르시알 베르디에(Martial Verdier), 다프네 난 르 세르장(Daphné Le Sergeant)과, 세 명의 한국 작가 정재규, 김형기, 백정기 이렇게 총 6명이 참여했고, 다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드나들면서 양국 예술 교류에 관심을 기울인 기획자(심은록, 장-루이 포와트뱅(Jean-Louis POITEVIN))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이 전시가 열린 전시장도 다년간 양국과의 교류를 이어왔던 곳이다.

<하늘의 마법사>, <0상실록>은 정재규, 마르샬 베르디에, 김형기, 자비에 루체시, 백정기, 다프네 난 르 세르장 작가가 참여해 ‘0상’ 작업을 펼쳐놓은 전시다. 전시제목 ‘공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현실적이 아니거나 실현될 기망성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0상’이라는 한국어 차음을 이용해 말 그대로 ‘공상’과 ‘영상(映像)’이라는 전시의 내용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이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의미를 새겨 보다 넓은 층이 본 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함에 있었다. 양국 현대미술의 지금을 이해하는데 그야말로 양 공간을 넘나들며 교류한 것이다.

먼저 프랑스에서 열린 <하늘의 마법사>는 슈트트가르트 소재 프랑스연구소의 前 소장이자 <Ligne TK-1> 편집장 장-루이 포와트뱅이 기획한 전시로 30여 점 작품이 선보였다.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된 이 작업은 사회를 바라보는 각 작가의 시선이 담겼다. 또한 전시 오픈에 맞춰 장물 외 2인의 작가가 참여한 퍼포먼스 <시각적 비보이>가 공연됐다. 출품작가 자비에 루체시와 마르시알 베르디, 그리고 ENJMIN 공예학교 총장 스테판 나킨(Stephane Natkin) 등이 참여한 강연과 컨퍼런스, 작가와의 대화 가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0상실록>전

이어 열린 한국에서의 전시 <0상실록>은 프랑스 거주 한국인 기획자 심은록 박사가 기획했으며 역시 <하늘의 마법사>에 출품한 6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한국에서의 전시가 차별점을 갖는 이유는 메인 전시가 창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상업적 작품이 대거 출품됐고, 전시장인 에스파스 리죐(Espace Rhizome)이 예술영화전용관이기에 기존 문화교류가 주류중심적이고 전형성을 띠는 데 비해 이 전시는 탈중심적이고 기존 문법에 반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출품 작가들은 제1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과 제7회 광주아트페어, 그리고 부산비엔날레 2016에도 초대되어 광범위한 교류전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각지에서 열린 굵직한 전시로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전형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폭넓은 교류의 장이었음을 증명한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와 출품 작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양국과 인연을 맺고 있었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그 연결고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우선 전시를 기획한 심은록 박사는 프랑스 유학을 거쳐 현재 그곳에 거주하며 양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또 다른 기획자 장-루이 포와트뱅은 10년 전부터 한국을 매해 방문, 이불을 비롯한 한국 작가에 대한 논문을 썼던 이다. 작가도 마찬가지. 정재규는 1977년 파리비엔날레 참여를 계기로 이듬해 파리로 와서 작업활동을 이어갔으며 재불한국작가 모임인 소나무회 창립(1991년)멤버이기도 하다. 김형기는 파리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현재는 한국 중앙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마르시알 베르디에는 2008년 대구아트페어에 참여한 이래 한국에서 열린 사진관련 기획전엔 출품한 이력이 있다.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출생 작가로 그녀 자신이 한국과 프랑스의 정서와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안고 살아가는 작가다. 그자비에 루체시는 이번 전시 외에도 부산비엔날레에도 초대되어 행사와 연계하여 파급되는 효과를 가능하게 했다.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보자. 니콜라스 쉐퍼(Nicolas Schöffer, 1921~1992)는 모홀로-나기(Laszlo Moholy-Nagy) 이후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미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작가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바탕한 미술이 인류의 궁극적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은 그의 작업 <LUX 10-Busan>이 부산 수영강변에 설치됐다.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임동락)는 2016년 12월 17일 쉐퍼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 수영구의 수영강변에서 ‘수영강변 일원 문화예술환경 조성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그의 작품과 국내의 작가의 작품이 한데 설치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가리 출신의 프랑스 작가 니콜라스 쉐퍼는 우리에게 백남준으로 대표되는 ‘비디오 아트’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의 자기제어의 원리를 기계장치에 적용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수학자 위너(N. Wiener)에 의해 창시된 학문 분야다. 쉐퍼는 미술의 역사상 사이버네틱스를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쉐퍼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비디오 아트와 공연 예술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시대를 앞서는 실험적 작업을 펼쳤다.

이번에 선보인 <LUX 10-Busan>은 니콜라스 쉐퍼의 ‘LUX’ 연작 중 하나로, 금속을 주재료로 높이 14m에 이르는 키네틱(Kinetic) 작품이다.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전제로 한 조형방식을 도입한 미술의 한 사조로 이번에 그의 작품은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금속을 통해 투과되는 빛의 움직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통한 빛의 변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 사물과 공간, 빛과 그림자 등 각 요소 사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2016년 12월 17일에 열린 쉐퍼 작품 제막식에는 작가의 부인을 비롯, 서병수 부산시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페논 대사는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 관계의 중심에 있는 부산에 쉐퍼의 작품이 기증된 점은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작품은 야외에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일반인 누구나 작품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라는 사업의 취지를 일부 소수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ACC프로젝트)

샤를 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

CHARLES PERRAULT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5.21-2016.10.16. 피노키오뮤지엄

주관기관

한국: 피노키오뮤지엄

프랑스: 키탕그 크프리네(Quentin Queffrègne)

지금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대부분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많다. 이러한 동화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의 이면에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정리한 ‘누군가’가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 ‘누군가’인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는 17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비평가로 구전되어 왔던 동화를 시적인 문체로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장화신은 고양이>, <빨간망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문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읽어 봤음직한 매우 친숙한 동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동화를 모티프로 현대미술 작가가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샤를 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전이 바로 그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시는 작가에게나 관람객에게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거나 익숙하지만 몰랐던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한 전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전시에는 드롤(Dröhl), 엘자 기욤(Elsa Guillaume), 레오 도프너(Léo Dofner), 로마릭 하디(Romarc Hardy), 김다솜, 김도훈, 김민형, 김범수, 김지희, 도로시 엠윤, 변대용, 이기호, 이동철, 이용제, 이재호, 장리라, 조은필, 한슬, 허우중이 출품했다. 이들 작가는 샤를 페로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대표작을 나름 해석한 작품을 전시장 두 곳에 펼쳤다.

제1특별전시장에는 <장화신은 고양이>(Le Maître chat ou le chat botté)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La Belle au bois dormant)가 등장했다. 알려졌듯 <장화신은 고양이>에서 고양이는 주인을 위해 헌신하며 결국 귀족과 결혼하게 하여 권력과 부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애묘(愛猫) 문화를 상기하니 주제가 달리 보이면서 시의성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변대용 작가는 <고양이들>이

조은필, <일렁이는 궁전>



란 작품을 선보였다. 변 작가는 팝적인 요소가 다분한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로 섬유강화플라스틱에 채색을 하는 조각을 한다.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대형 고양이 조각 주변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작은 고양이를 배치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작업한 고양이를 선보인 김도훈 작가도 <Cat>을 출품했다. 또 다른 참여 작가 그룹인 드롤은 그래피티 작업의 프로세스를 거친 <친애하는 고양이 주인 프로젝트>를 등장시켰다.

제1특별전시장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모티프로 한 작업도 만나볼 수 있었다. 알려진 바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전 세계에 약 410종의 버전이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월트 디즈니의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기획자는 익히 알려졌듯 해피엔딩을 전달하려 하지 않고 동화를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필의 <일렁이는 궁전>을 보면 견고함이 배제된 외연의 파란색(城)이 등장한다. 조각은 본래 흐트러지지 않은 외형을 보여줌으로써 완성되는 바, 그러한 질감의 완벽함을 벗고 물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말 그대로 견고함을 벗어던진 ‘부드러운 조각’에 대한 또 하나의 제시인 것이다.

<신데렐라>와 <빨간망토>(Le petit chaperon rouge)는 제2전시장에 펼쳐졌다. 두루 널리 알려졌다든 이유일까? <신데렐라>는 가장 많은 작가가 참여했다. 특히 느닷없는 신분상승과 권력의 소유라는 욕망을 상징하는 클리셰(Cliché)로 기능하는 구두를 표현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하지만 로마릭 하디(Romarc Hardy)의 ‘Dream to born’이라는 문구를 새긴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작업만큼 ‘욕망’이라는 문구에 다가서지는 못한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용제의 <Bubbles(fairy tale)>

김민형, <또각또각-하이힐이 말이 돼>



Cinderella story>도 거품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직접적 표현에 가장 잘 다가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빨간망토>를 모티프로 한 작업 중 도로시 엠윤의 작업이 눈에 띈다. 이제까지 서구의 구전동화에 대한 나름의 추억을 바탕으로 한 기억의 확인이었다면, 도로시 엠윤의 작업은 그러한 서구 중심의 사고에 대한 근원을 묻는 작업이니 말이다. 동양화(적)의 요소 가득한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 전시에서 아무 의심없이 지나치는 서구적 사고에 대한 나름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 이 전시의 의의를 종합하는 나름의 시도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것은 동양이나 서구나 인식의 혼합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프랑스 작가는 국제적으로 꽤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전시 주최인 피노키오뮤지엄은 이번 전시를 위해 리서치를 기반으로 현지 코디네이터를 동원해 작가를 섭외했다고 밝혔는데 그래피티 작가 드롤과 엘자 기욤, 레오 도프너가 그들이다. 드롤은 전시 개막 이후에도 한국에서 그래피티 작업을 선보이며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엘자 기욤은 미술전문지 <아트 프레스> 등에 리뷰가 실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레오 도프너도 작가로서 활동과 동시에 <Branded>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비교적 한국에서 소개의 기회가 드물었던 프랑스 현대미술작가를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소형 사립미술관을 통해 이뤄진 것도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됐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피노키오뮤지엄)

변대용, <고양이들>



음식을 입다 TEXTIFOOD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28-2016.07.31. DTC섬유박물관

주관기관

한국: DTC섬유박물관

프랑스: 릴 3000(Lille 3000)

섬유·패션산업은 단일산업 최초로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효자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대구는 그동안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의 주축을 담당해 온 도시로, 한국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인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aegu Textile Complex, 이하 DTC)섬유박물관이 있다. 2015년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에 개관한 DTC섬유박물관은 비즈니스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신개념의 문화공간이다.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 등으로 구성된 각 전시실에서는 한국 섬유와 패션의 역사를 신선한 시각에서 조망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 기관이 모여 전문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DTC섬유박물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층 기획전시실에서 <음식을 입다(Textifood)>전이 열렸다. 환경과 인간에 관한 고민을 담은 친환경 미래지향 섬유 패션산업 프로젝트를 표방한 이 전시는, 프랑스 북부 도시 릴(Lille)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3년마다 개최하는 '릴 3000'이 공동 주관했다. 릴은 대구와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플랑드르 평야에 위치해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며, 유럽의 주요 도시가 반경 350km 이내에 있어서 일찍이 유럽의 유통 및 도·소매 중심 도시 역할을 맡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구처럼 옛날부터 유럽 직물 생산의 본거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매년 유로벳(Eurobet)의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 직물전시회 <티슈 프르미에(Tissu Premier)>로 이어지고 있다. <릴 3000>의 큐레이터 카롤린 다비드(Caroline David)가 기획한 <음식을 입다>가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세계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인 후, 프랑스 릴을 거쳐 아시아 최초로 대구의 DTC섬유박물관에서 열린 것이다.

Christel Sasso, SOL JACKET, 커피



Gary Cass, Donna Franklin, MICRO'BE' FERMENTED FASHION, 포도와인



Ditta Sandico, MIRA WRAP, 바나나

전시 제목에서 'Textifood'는 직물을 의미하는 'textile'과 음식을 의미하는 'food'를 합성한 용어로, 식품과 섬유 산업의 접목으로 탄생한 바이오 섬유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시에는 대량 생산된 농작물과 식재료의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섬유와 이를 활용한 패션 의류, 세계 각국의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를 응용한 제품, 다채로운 소품 등을 소개했다. 코라이 마라벨(Coralie Marabelle), 크리스티앙 본 포르셀르(Kristian Von Forselles) 등 10여 개국의 30여 명의 작가를 비롯해 LENZING 등 10여 개국 30여 개 기업 및 연구소가 전시에 참여했다. 작품 이외에도 섬유 샘플과 각종 시청각 체험 자료를 소개해 섬유와 패션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전시에는 섬유의 종류를 크게 자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눠 소개했다. 먼저 자연 섬유에는 전통적으로 면이나 마를 활용한 천연섬유를 포함해, 연꽃 줄기, 파인에 풀이나 바나나의 잎, 쉼기풀, 바오밥 나무, 케이폭 열매 등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섬유소를 찾아내어 섬유직물로 가공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합성섬유로는 다양한 식물 소재(유칼립투스, 대나무 등)를 소재로 한 셀룰로오스 섬유 계통과 갑

각류, 우유나 와인 및 맥주의 발효 과정에 나타나는 박테리아를 변성에 활용한 비(非)셀룰로오스 섬유 등 단독으로 섬유를 제작할 수 없는 재료에 사람의 힘을 더해 가공하고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음식을 입는다'는 개념을 재치 있게 시각화한 프랑스 '옹 오라 투 뷔(ON AURA TOUT VU)'의 독특한 오토 쿠티르(Haute Couture) 컬렉션,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한국 작가 최정화의 대형 연꽃 작품도 전시장에 함께 소개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구와 프랑스 릴이 공유하는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특징과 각 도시의 전통을 비교·교차하는 내용이 전시에 추가 되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글. 호경윤 / 사진 제공. DTC 섬유박물관)

한국 전통 목조각, 꼭두의 아름다움

KOKDU, COMPAGNONS DE L'ÂM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5.30-2017.04.23.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Musée des Arts Asiatiques de Nice)

주관기관

한국: 동숭아트센터 꼭두박물관

프랑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Musée des Arts Asiatiques de Nice)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Musée des Arts Asiatiques de Nice)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 '한국 특별 시즌'을 마련했다. <꼭두, 영혼의 동반자(Kokdu, compagnons de l'âme)>, <손인숙 자수전>, <이성자 개인전>과 더불어, 컨퍼런스, 체험 교실 및 한국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다. <꼭두, 영혼의 동반자>는 서울 꼭두박물관과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의 공동 기획으로 100여 점의 작품을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5개월간 선보였다. <꼭두, 영혼의 동반자>의 개막 행사는 2016년 6월 2일 서울 꼭두박물관의 김옥량 관장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들과 프랑스 알프-마리팀(Alpes-Maritimes)의 정계 및 문화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은 남프랑스 알프-마리팀의 도립박물관으로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 고미술 소장품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및 다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6년부터 1990년 동안 장기 역임했던 니스 시장 자크 메드생(Jacques Médecin)의 아이디어에서 박물관 건립이 시작되어 1998년 개관했다. 녹색지대인 포에닉스공원(Phoenix Park)의 호수 위에 위치한 원형 미술관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프랑스에는 아시아박물관이 세 개 있는데 파리에 소재한 국립기메도양 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과 세르누치시립아시아박물관(Musée Cernuschi), 그리고 남프랑스에 위치한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이다.

꼭두는 '비일상적인 존재', '환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이며, 나무를 조각해 만들었다는 의미로 '목우(木偶)'라 불리기도 한다. 전통상례에서 망자를 묘지까지 옮기는 상여를 장식했던 조각품이 바로 꼭두다. 우리 조상은 이승을 떠나는 고인의 영혼을 달래고자 마치 서양의 수호천사처럼 꼭두를 만들어 고인의 운구에 설치했다. 나무를 조각해 인체 또는 전설 속의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 위에 생생한 색감을 입혔다. 주로 조선 후기 이후에 제작되었으나, 가장 오래된 것은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서민문화의 일환인 꼭두는 옛 선조들의 사생관과 예절, 그리고 미학을 담은 특별한 유물이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사무국인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로부터 2014년 10월 처음으로 '꼭두'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이후 2015년 10월 한국의 꼭두박물관은 니스를 방문하여 장소를 확인하고, 서로 간의 업무분담을 협의했다. 이어 2016년 1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본격적인 전시 준비에 착수했다. 전시의 구성 및 운송은 전적으로 꼭두박물관에서 담당했고, 전시장 구성은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담당했다. 꼭두박물관의 관계자들도 설치 기간 중에 니스에 도착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앙스티튀 프랑세의 지원으로 80여 페이지의 도록이 제작되었는데, 특히 이번 도록은 꼭두를 소개한 최초의 프랑스어 책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예술성과 영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독특하고 생경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꼭두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만큼 개막전부터 현지의 기대가 컸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참여도를 높이고자 전시장에 태블릿을 설치하여 게임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가족 단위로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녀 교육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였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은 이번 '한국 특별 시즌'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알프-마리팀의 학교 단체관람요청을 수용하고자 11월 7일로 예정되었던 전시 폐막을 2017년 4월 23일로 연장하였다. 이번 전시의 행정 및 운영을 담당했던 엘렌느 코르도니에(Hélène Cordonnier)는 니스에서 좀처럼 한국의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남프랑스의 아시아예술 애호가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관람객들은 처음 접한 꼭두의 해학적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했으며, 함께 소개된 손인숙의 자수전시에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은 향후 한국과 또 다른 전시를 협력추진하기를 희망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동숭아트센터 꼭두박물관)



홈 시네마 HOME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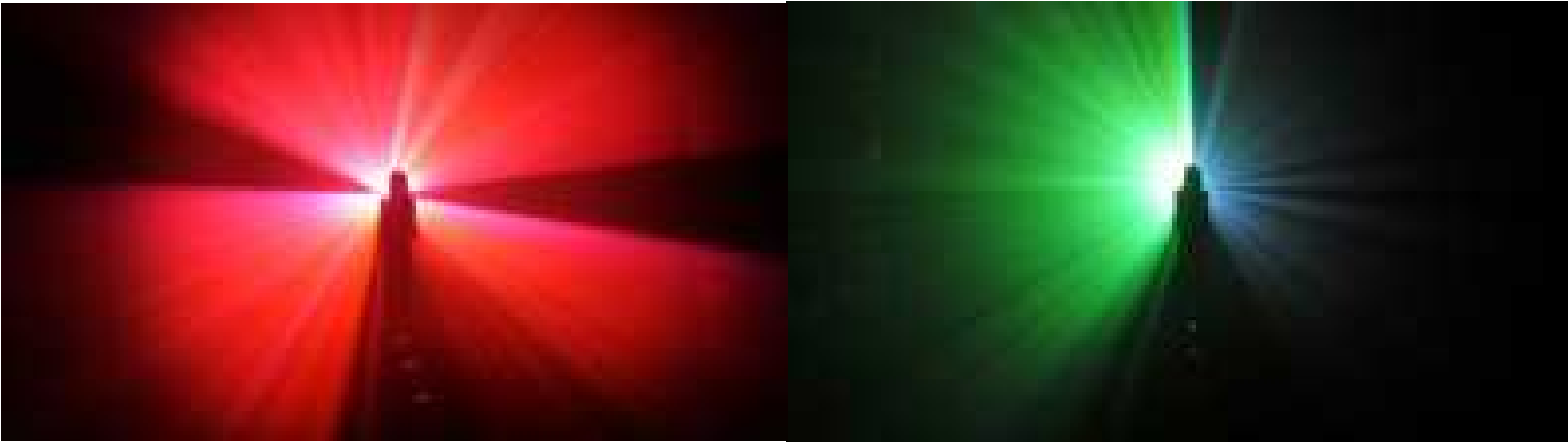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6.11-2016.10.16. 대구시립미술관 어미홀

주관기관

한국: 대구시립미술관

프랑스: 크레테이 예술가의 집(Maison des arts Creteil)



<홈 시네마(Home Cinema)>전은 대구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시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프랑스 대사관에서 대구시립미술관 측으로 먼저 전시 제의를 해왔다. 대구시립미술관 측에서는 기존에 미디어아트 전시가 기획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면서 전시가 성사되었다.

<홈 시네마>전은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한국의 특성에 맞게 각색한 전시라는 점에서 여타 시각 교류전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대구시립미술관 측은 프랑스 전시를 그대로 가져와 한국에서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홈 시네마>전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재해석하는 협업 전시를 제안하였다.

<홈 시네마>전은 프랑스에서도 순회전을 가질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2015년 모비주(Maubeuge, 3월 12~22일), 크레테이(Creteil, 3월 26일~4월 5일)에 이어, 2016년 릴(Lillie, 4월 27일~8월 28일)에서 전시가 이어졌다. 프랑스 <홈 시네마>전의 경우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아르헨티나 등 무려 12개국 작가가 참여한 전시였다. 한국 버전은 자국 작가인 한국 작가의 비중을 전체의 40%로 대폭 늘렸다. '홈 시네마'라는 큰 주제 하에 서구의 시선과 한국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 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 준비를 위해 양국 관계자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상호 방문했다. 2015년 9월 초 프랑스 측 큐레이터와 기술 담당 매니저가 미술관을 방문해 전시 공간에 따른 필요

한 영상 기자재 등 작품 설치를 위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했다. 같은 달에는 한국 측에서도 담당 큐레이터와 당시 대구시립미술관장이 프랑스를 방문했다. 예산을 조율하고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기념행사 참석도 겸하는 자리였다.

교류는 2016년에도 이어져 담당 큐레이터는 지난 4월에 다시 프랑스를 찾았다. 당시 릴에서 개최되던 <홈 시네마>전을 관람하며 프랑스 측이 추천한 작가와 미팅하고 그들의 출품작을 둘러보았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립미술관에 맞는 전시 구성안과 설치안이 도출됐고, 한국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6월 11일의 대구미술관 <홈 시네마>전 개막을 돕기 위해 프랑스 측 큐레이터 및 기술 담당 매니저들이 6월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홈 시네마>전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프랑스 측 협력 큐레이터 샤를 카르코피노(Charles CARCOPIN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 비디오게임의 발전, 와이드 스크린 TV의 보급 확산 등 홈 엔터테인먼트 장비가 혁명적으로 바뀌며 제7의 예술(영화)이 거실로 들어오는 이른바 '홈 시네마' 시대가 도래했다. 홈 시네마 시대의 화면(Screen)은 다양성(Multi-format), 촉각성, 쌍방향성, 이동성(Mobile)을 특성으로 발전해왔다. 또 모든 소통 수단(인터넷, 사진, 카메라, 방송 등)을 단 하나의 장치로 흡수한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이 기기에 연결된 모든 이들을 '하이퍼 관객'으로 만들었다. 소형화된 모바일 제작 스튜디오는 우리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홈 시네마>전은 이 같은 현상을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설치작품을 통해 탐색하는 시도다.

대구시립미술관의 <홈 시네마>전에서는 해외 작가로는 앙투안 슈미트(Antoine Schmitt) 같은 프랑스 작가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의 짐 캠펠(Jim Campbell), 호주의 로렌 모팻트(Lauren Moffat) 같은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등 총 9명(팀)이 참여하였다. 국내 작가는 원, 오용석, 진기종, 정연두, 유비호, 유희수 등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6명(팀)들로 구성되었다.

국의 작가들은 첨단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바탕이 된 미디어 아트 위주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반면에 국내 작가들은 보다 서정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오용석의 <삼 몽타주 넘버 1-3>은 작가가 고안한 쌍안경 같은 광학장치를 통해 영화와 일상이 한 공간에 있는 듯한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정연두의 <B-카메라 상영시간>은 다큐멘터리와 영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버린다. 유비호의 <안개잠>은 한국의 망부석 설화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도상을 빌려와 동서의 동시대인이 공감하는 영상을 만들어 눈길을 끈다. 담당 큐레이터에 따르면 <홈 시네마> 한국 버전은 프랑스 측 큐레이터의 요청으로 다른 나라로 전시 투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대구시립미술관)

이천시 & 리모주 자매결연도시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한국현대도예전시(Céramique contemporaine coréenne)〉¹

2016.6.17-2016.11.5 베르나르도재단(La Fondation Bernardaud)

〈여행자의 로맨스(Roman d'un Voyageur)〉²

2016.6.18-2016.10.17. 아드리앙 뒤부셰(Adrien Dubouché)국립박물관

〈리모주의 한국(La Corée à Limoges)〉³

2016.06.17-2016.12.16. 호스피스갤러리

세계도예의 길(WCR) 컨퍼런스⁴

2016.11.03. 리모주시청

주관기관

한국: M.A.P¹, 이천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²

프랑스: 베르나르도재단(La Fondation Bernardaud)^{1, 2}, 아드리앙 뒤부셰국립박물관(Musée national

Adrien Dubouché)^{3, 4}



2015년 이천시와 리모주시는 <엔사리모주(Ensa Limoges)>전, 제76회 리모주박람회 아이세라관 교차 전시를 비롯하여, 이천시와 리모주시의 교류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2016년 6월 17일부터 베르나르도재단(La Fondation Bernardaud)에서 <한국현대도예전시>가, 호스피스갤러리(Galerie des Hospices)에서는 <리모주의 한국(La Corée à Limoges)> 전시가 열렸다. 또한 11월 3일에는 리모주시청에서 <세계도예의 길(Route Mondiale de la Céramique, world ceramic road)>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및 포럼을 개최하였다. 더불어 아드리앙 뒤부셰(Adrien Dubouché) 국립도자기 박물관에서는 프랑스 외교관의 조선 체류를 테마로 한 <여행자의 로맨스(Roman d'un Voyageur)>도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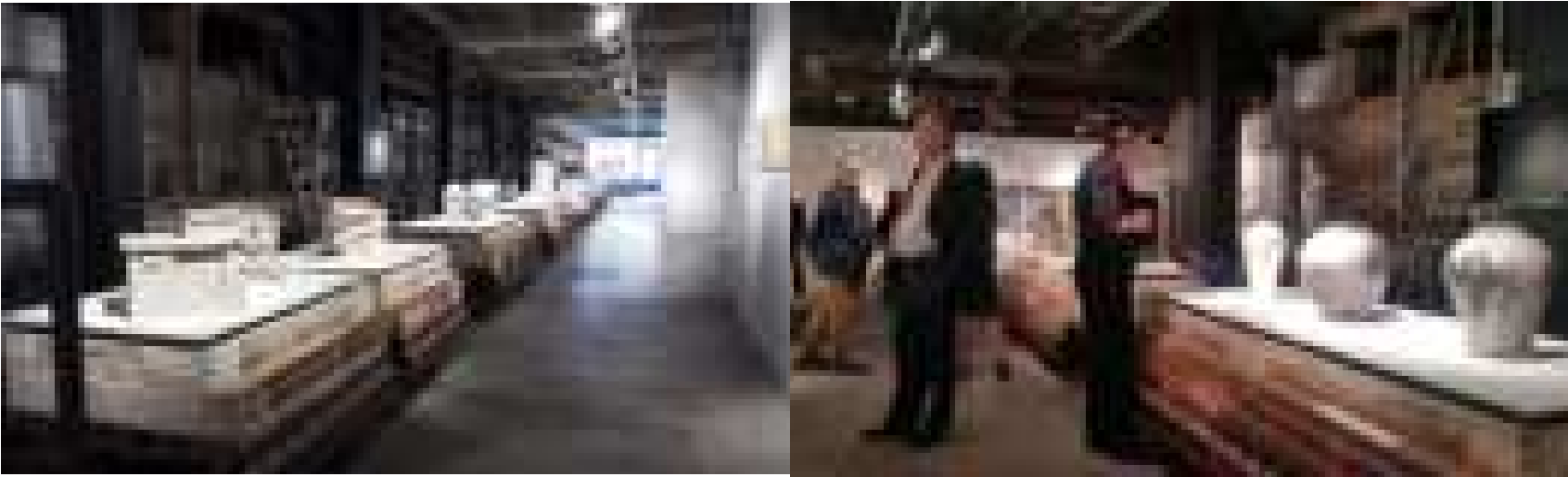
2010년 6월에 출범한 <세계도예의 길>이라는 행사를 통해리모주시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 12개 도시를 초청하여 과거 도자기의 전성기를 재조명하고, 도자기의 현대화와 미래 시장 개척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한국의 이천, 이탈리아의 파엔자(Faenza), 스페인의 카스텔론(Castellon), 포르투갈의 아베이로(Aveiro), 영국의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 일본의 세토(Séto) 등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 시들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자국의 도자 문화를 홍보했다.

〈리모주의 한국〉

프랑스 중서부의 리무쟁(Limousin) 지역에 위치한 인구 약 30만 명의 리모주(Limoges)시는 1700년대 후반부터 도자기 생산을 시작한 곳으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자기 생산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시의 콘셉트는 이천시와 리모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공통주제인 미래 도자의 발전 방향으로 하였다. 이천시는 '이천도자트렌드공모전'의 수상작을 통해 도자의 실용적 영역에 대한 실험과 확대에 관련한 시도를 보여주고자 했다. 리모주시는 콘셉트 중심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도자공예의 영역을 넘어선 예술 영역의 도자 전시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교류 전시를 통해, 유럽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리모주와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이천이 관계를 긴밀히 하여 향후 양 도시의 도자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리모주의 한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천시와 리모주시는 큰 어려움없이 성공적으로 협업하였다. 이미 이천시와 리모주시는 자매도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존의 전시 진행한 경험과, WCR(world ceramic road) 회원국 간의 도자발전에 대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이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색 사례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식인증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천시와 리모주시는 도자의 역사를 바탕으로 성장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도자사업을 위한 기술센터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분야, 작가 및 학생 교환(엔사 리모주와 한국도예고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리모주시에서 자매도시간 음악교류도 진행했다.

〈한국현대도예전시〉

〈한국현대도예전시〉는 프랑스 자기 명품 브랜드인 베르나르도가 2002년 설립한 베르나르도 재단에서 2016년 6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어졌다. 베르나르도 재단에서는 매년 관람객이 집중되는 여름 시즌을 겨냥해 테마전을 발표하는데,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한국현대도예전시>에는 강익중, 김주리, 구본창, 이강호, 이승희, 박소영, 서대균, 신미경, 유익정, 윤술, 유상덕, 윤수연, 조신현, 주세균 등 총 14명 작가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도자기를 공통분모로 회화, 사진, 비디오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을 각자 서너 점씩 선보였다. 입구에서부터 세로형으로 길게 조성된 전시장에는 가장 먼저 신미경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비누로 제작된 그녀의 도자기들은 조명에 표면이 반사되자 빛을 머금은 듯 보였다. 맞은편 벽에는 16세기 청화백자를 회화처럼 변모시킨 이승희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캔버스 속에 도자기를 그려넣은 것 같은 작품은 실제로는 전체를 도자기로 제작했는데 유약을 부분적으로 발라 착시 효과를 냈다. 그 밖에도 작가들은 '도자기'를 주제로 하되, 결코 일반적인 도자기의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는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다.

전시기획자인 조혜영 큐레이터는 '달항아리'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번 전시의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에 실제 달항아리는 없었지만 이를 사진으로 섬세하게

재해석한 구본창의 작품과 목판에 혼합재료를 활용한 강익중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베르나르도 재단측에서도 작품 구성에 있어서 현대적 감각과 개성이 돋보이는 동시대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를 위하여 베르나르도 재단과 조혜영 큐레이터는 1년 이상을 함께 구상하고 준비했다. 엘렌느 위레(Hélène Huret) 관장은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하여 한국의 도자기를 이해하고 작가를 발굴하였다. 작품 선정은 이천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시 구성 단계에서 기획자가 30명이 넘는 작가들 먼저 추천했고 재단측에서는 최종적으로 14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작가 선정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과 완성도에 비중을 두었다고 한다. 더불어, 대형 도자기 화로 및 작업실의 모습을 보존한 독특한 전시공간에 14명 작가의 작품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전시하기 위해 베르나르도재단의 디자이너들과도 긴밀한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전시장 입구와 포스터를 비롯, 다양한 홍보물은 '한국현대도예'의 프랑스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CCC'로 디자인하였는데, 컬러는 한국의 오방색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오방색의 아름다움을 절제감 있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은은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는데, 그야말로 한국과 프랑스의 조화가 고스란히 담긴 창작물이라 눈길을 끌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M.A.P)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

ORLAN TECHNO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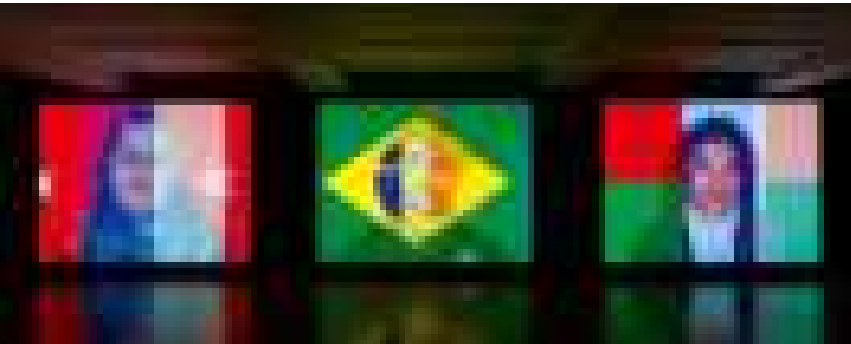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6.17-2016.10.30. 성곡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성곡미술관

프랑스: 오를랑(ORLAN)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성곡미술관에서는 50년 이상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 행위예술가 오를랑(ORLAN)의 회고전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과 별도로 서울시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도록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또한 파나소닉코리아로부터 색 재현력이 뛰어난 프로젝터 8대를 무상 대여 받았는데, 이런 여러 기관의 후원 덕분에 사립미술관으로서는 야심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오를랑 전시가 완성될 수 있었다.

전시 기획은 성곡미술관이 지난해 현대미술사에 획을 그을 만한 대가의 전시를 구상한 것이 출발이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 문화원은 물론 해외 미술관, 갤러리, 스튜디오 등과 접촉하였다. 마침 주한 프랑스문화원으로부터 오를랑 작가를 소개받았고, 여기에 미술관 측의 기획과 추진력이 작동해 전시로 이어졌다.

당초 프랑스문화원이 제안한 오를랑 전시는 작품 운송비가 그리 들지 않는 비디오 영상 작품 위주였다. 작가의 작품 활동 시기도 최근작에 국한하였다. 하지만 작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듭하며 오를랑이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감탄하게 되었고, 특히 초기 신체예술에서 출발해 후기로 갈수록 예술에 테크닉을 접목시키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성형 만능의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고, 디지털 문화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성곡미술관 측의 설명이다. 그래서 작가 생활 초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술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회고전 형태로 확대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곡미술관은 처음엔 프랑스문화원과 접촉하였으나 본격적으로는 전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오를랑의 파리 작업실을 방문해 작가와 전시 기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출판 작품을 선정하였다. 지난해 오를랑의 전시를 기획했던 퐁피두센터의 큐레이터를 오를랑의 작업실로 초대해 전시 기획 의도를 듣기도 하였다. 이수균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오를랑 개인전의 콘셉트를 신체예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체+테크놀로지 = 테크노바디'로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에는 프랑스문화성의 담당자들을 만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오를랑은 자신의 신체를 예술 도구 삼아 과거의 정치, 사회, 종교가 우리 몸과 정신에 가해온 정체성에 유머, 패러디, 과기스러운 등이 뒤섞인 도발적인 작업으로 맞서온 문제적 작가이다. 그동안 소규모 개인전 혹은 부산비엔날레(2008) 등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기는 했으나 회고전 형식으로 50년 작가 인생 전체를 보여준 것은 처음이다.

작가는 본명을 거부하고 스스로에게 '금지'와 '느리다'는 뜻이 포함된 '오를랑'이라는 중성적인 새 이름을 부여하였고 정규 미술 교육을 박차고 나왔다. 오를랑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등장하였던 신체예술의 선구자이다. 근대이성주의는 생각을 우위에 두고 몸을 경시했고 포스트모던은 그런 몸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다른 작가들이 이론으로만 주장했던 것과 달리, 오를랑은 1960년대 '느리게 걷기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이래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도구삼아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작품을 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성형수술을 중계하는 퍼포먼스를 9차레나 벌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시에는 남자 얼굴의 가면을 쓴 누드 여성이 정면을 향해 포즈를 취한 1960년대의 가면 누드 시리즈, 성녀-창녀 이분법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반기를 들고 자신을 '키스 자판기'로 둔갑시킨 1970년대의 퍼포먼스, 천으로 몸을 둘러 성녀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가 점차 천을 벗으며 요염한 포즈의 창녀 이미지로 표변하는 1980년대의 퍼포먼스 등 시대를 달리하며 진화해온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사진과 영상을 선보였다. 트레이드 마크가 된 성형수술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더 이상 성형수술이 어려워진 이후 작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실험해 오고 있다. 경극의 가면 속 얼굴이 오를랑으로 돼 있는 '경극 가면 시리즈'는 3D 증강 현실을 사용했고, 오를랑의 아바타가 인간이 되기 위해 여러 미션을 수행하는 비디오 게임도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벌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게 예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시도들이다. 작가는 2003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공로훈장 표창을 받았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성곡미술관)



발로리스 국제비엔날레 : 한국주빈국 BIENNALE INTERNATIONALE DE VALLAURIS : LA CORÉE A L'HONNEUR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7.02-2016.10.31. 마그넬리 박물관(Musée Magnelli)

주관기관

한국: 박여숙 화랑

프랑스: 발로리스 골프주앙(Vallauris Golfe-Juan)

발로리스(Vallauris)는 관광지로서 잘 알려진 남부 프랑스 해안가 지역인 코트다쥐르(Côte d'Azur)에 소재한 도시이다. 니스(Nice)와 칸느(Cannes) 중간에 위치한 발로리스는 인구 27000명의 소도시로 이미 16세기부터 도예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수세기 동안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토기의 생산사업이 지속되었으며 20세기 초반부터 예술품 도자기 생산이 시작되었다. 발로리스에서 도예작업을 한 대표적인 예술가로서 피카소를 빼 놓을 수 없다. 피카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발로리스에서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이곳에 머물며 도자기 작업에 몰두했다. 1959년 피카소가 발로리스 성 교회당 천정과 벽면에 <전쟁과 평화>를 작업한 것이 기원이 되어 오늘날 발로리스 피카소미술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예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인 발로리스는 국제 도자기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발로리스 국제 비엔날레(Biennale Internationale de Vallauris)'는 발로리스 골프주앙(Vallauris Golfe-Juan)시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데, 2016년 24회를 맞았다. 반 세기를 지나면서 도예의 풍토와 유행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비엔날레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였다. 이에 '발로리스 국제 비엔날레'는 도자기라는 다소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예를 매개로 하지만 전통 공예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예술적 재해석이 담긴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소개하고 있다.

2016년 발로리스 국제 비엔날레는 총 14개 국가에서 65명의 작가들이 출품하였으며, 6개 전시장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첫눈에 도자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을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작품이 대거 소개되었다. 비엔날레 대상은 발로리스에서 활동하는 마크 알베르가나(Marc Alberghina)가 수상하였다. 더불어 극사실주의적 작품을 선보인 이탈리아출신의 두 작가인 베르토지(Bertozzi)와 카소니(Casoni)가 관심을 받았다.

한국은 2016년 24회 비엔날레의 주빈국으로 초청받았다. 주빈국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김준 작가의 개인전이고, 다른 하나는 역동적인 한국 현대 도예를 보여주는 단체전이였다. 이번 비엔날레의 프로그램을 맡은 셀린느 그라지아니(Céline Graziani)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완성도를 볼 수 있었다며, 마치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량과도 같다고 평했다. 프랑스 문화매거진인 <컬처 박스(Culture Box)>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롭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김준 작가의 개인전은 마넬리 도자미술관(Musée Magnelli, musée de la Céramique)에서 개최되었는데,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현실을 무대로, 몸의 다양한 변형과 조합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현해냈다. 그는 '도자 시리즈'를 통해 사랑과 종교 및 술에 쉽게 현혹되는 나약한 인간 존재를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포슬린(유약을 바른 흰색 자기



김준, <Ferrari>

위에 그림을 그려넣는 예술)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에 대해 관람객들은 전통적인 포슬린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반응이었다.

한편, 에덴 홀에서 열린 단체전에는 총 12명(배세진, 백진, 정혜숙, 김민주, 김명주, 이은영, 이경민, 이승희, 이윤희, 맹육재, 신동원, 여선구)의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소개되었다. 그 중 수많은 흰 쥐를 포슬린으로 재현한 맹육재, 바비인형을 유머와 위트로 재해석한 김민주, 블록으로 집 시리즈를 제작한 신동원 등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다. 에덴 홀은 오래 된 극장 건물을 프랑스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개조한 공간이다.

이번 전시의 한국 측 주관은 박여숙 화랑이 담당했다. 2015년 6월 '발로리스 비엔날레' 주최측으로부터 김준, 이승희 작가의 출품 의뢰를 받은 후,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준비했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비엔날레 측에 소개해 한국의 해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주최측에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오로지 사진 자료에 의존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준, 이승희 작가는 전시 오픈 이틀 전에 도착해 전시 설치를 감독하고 기자 간담회 및 개막식에 참석해 현지 기자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박여숙 화랑)

김준, <Versace>



팔로우 마-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여행 FOLLOW ME, VOYAGE D'ARCHITECTURE EN CORÉ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7.12-2016.09.18. 일드프랑스 메종 드 라수텍튀르(Maison de l'Architecture en Île-de-France)

주관기관

한국: 디자인밴드 요얏

프랑스: 프랑스건축가협회 일드프랑스 지부(Maison de l'Architecture en Île-de-France)



© Cheong-ahn



© Cheong-ahn



<팔로우 마-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여행(Follow me, voyage d'architecture en Corée)>은 한국과 프랑스의 건축가 3인이 만들어낸 전시이다. 안정, 강민희, 그리고 제납 차히드(Zenab Chahid)가 역할을 분담해 콘셉트부터 전시 설치 및 홍보까지 협업하였다. 안정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을 담당해 전시 분야에 주력했고, 제납 차히드는 비디오 작업 외에 프랑스 현지의 행정, 운영 및 홍보 등 폭넓은 영역을 맡았다. 그리고 강민희는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및 운영 사항을 담당했다. 이 세 사람은 과거 프랑스 건축대학(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chitecture de Paris-Val-de-Seine)동기들이다. 학교 졸업 이후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그들이, 서로의 뜻을 모아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한 것이다.

전시 기획은 2013년 그들이 참여했던 한국의 건축기행에서 시작되었다. 건축 학도들에게 해외답사는 의례적인 행사이지만, 2013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25인의 프랑스 건축인들에게는 특별했다. 그들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국 전역을 누비며 문화재에서 현대 건축물까지 몸소 생생히 체험했다. 당시의 건축기행은 이번 전시가 개최된 프랑스건축가협회 일드프랑스 지부(Maison de l'architecture en Île-de-France)에서 기획하였으며, 한국인 건축인 강민희가 그들과 동반하며 현지 안내를

담당했다. 그녀는 한국이 다수의 프랑스인들에게 미지의 땅처럼 낯설게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행 후 제납 차히드, 안정과 함께 건축답사의 기억을 비디오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기록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실 그들이 구상했던 전시가 구체화 될 수 있기까지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도움이 컸다. 건축기행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전시라는 형태로 구체화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공식 인증사업으로 채택된 뒤 전시 개막일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6개월. 이 짧은 기간 동안 전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일을 분담했다. 사진을 비롯한 출력 작업은 한국에서 진행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비디오 작업의 경우, 프랑스에서 6인의 프랑스 건축가 인터뷰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제작했다. 전시 공간이 초대전 형태로 확보되면서 진행도 수월해졌다.

전시는 제납 차히드의 비디오 작품 3점과 안정의 사진 84장, 일러스트레이션 32점으로 구성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관람객이 건축이라는 분야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했다.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은 30개의 판에

부착되어 전시장에 설치되었으며, 비디오 작품은 2개의 프로젝터로 상영되었다.

2016년 7월 13일, <팔로우 마-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여행> 개막일에는 120여 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했고, 전시 기간 동안 1700여 명이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한국을 방문을 희망했다. 성공적인 전시 결과에 기획자들은 이번 전시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도시 또는 국가에서 후속 전시를 열고자 추진 중이다. 또한, 프랑스 건축가협회는 '제2회 한국 건축기행'을 공지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디자인밴드 요얏)

올림

RÉSONANC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7.15-2016.07.22. 주프랑스한국문화원(Centre Culturel Coréen à Pari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1.02-2016.11.22. 금산갤러리

주관기관

프랑스: 장줄리앙 푸스(Jean-Julien Pous)

과거, 그래봤자 20여 년 전까지도 ‘단일민족국가’의 가치를 중시했던 한국은 이제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3.4%(2016년 11월 기준, 약 170만 명) 넘게 차지하게 됐다. 꾸준히 유입된 외국인과 그들의 정착은 다양한 문화의 결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제 다민족국가 시대를 준비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스펙트럼이 발현되는 것은 넓게 봐서 한국이 포용해야할 가치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과거 외국인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었던 프랑스의 기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산갤러리에서 <올림(Résonances)>전을 열었던 장줄리앙 푸스(Jean-Julien Pous)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는 2014년 금산갤러리에서 <동방견문록(The Cacophonous Beauty of Asian Cities)>이라는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5년에는 아트스페이스 휴(Art Space Hue)에서 2016년 전시와 동명의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가 아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중국 무한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오가며 보낸 유년기의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영상 작업을 작업의 근간으로 하는 그는 한국의 국민대 교수(애니메이션 디자인학과)로 재직하면서 한국적 내용을 프랑스와 대비하거나 병치한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에서 한국 발견하기, 한국에서 프랑스 발견하기라는 사업의 취지와 가장 맞닿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Brume, Fresque>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제주 해녀와 피레네 산맥에서 생활하며 염소를 키워내는 목동들의 조합이 사진과 영상 작품 20여 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 번도 조우하지 않았을 그들의 몸짓은 마치 수도자를 연상시킨다. 누군가의 눈에는 대단하지 않을 그 일상적이면서 그러나 치열한 삶의 현상이 너무나 닮아있다.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보기에 그들의 행위는 마치 정지되었거나 너무나 느리다. 흑백으로 표현된 그 모습은 서구(프랑스)와 동양(한국), 산과 바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비가 노동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놓여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삶은 작가가 촬영하는 순간 이뤄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이어온 흐름에 있는 바, 작가의 말대로 “서로 다른 문화의 컨텍스트에서 재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시 제목 <올림>을 바로 자연에 대한 경외, 동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기는 면모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인 이 전시는 사실 작가가 4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며 이뤄진 것으로, 양국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접한 작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작은 ‘수교사업’으로 불릴 만하다. 작가는 프랑스의 북부 도시 발랑시엔(Valenciennes)에서 3D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영화 제작자 겸 미디어 아트 작가로 아시아의 낯선 도시들을 ‘에트랑제(이방인)’로 마주하며 느낀 점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그는 2015년 <물 밑에서(Sous l'Eau)>라는 작품을 통해 서울에 대한 이방인이 느낀 객관적인 느낌들을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한 영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가 느끼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어떻게? 그는 솔직하게 “한국이 한류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고 말하며 “그러나 한국에서 프랑스는 관심을 넘어 환상에 가까운 이미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명품이나 음식문화 등에 국한해 다른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일면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나름의 진단을 펼쳤다. 이는 반대로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 프랑스가 그리고 반대로 프랑스에서 한국이 제대로 이해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읽힌다. 그래서 그는 “서로 문화를 통해 교류하는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여러 사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이 지구의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그는 ‘운명적으로’ 한국을 만나고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아트 에디션(Art Edition)’을 통해 작품을 출품했다. 이 작품을 본 금산갤러리 큐레이터의 연락이 그가 한국에서 2014년 전시를 열게된 계기가 됐다.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한 프랑스 작가가 한국에서 작업하면서 일갈하는 면도 현재 한국과 프랑스가 처한 상황에 비추보면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다. “저는 전통 농부의 생활양식을 존경합니다. <올림>은 산업화된 농수산업의 양태를 벗어나 자신이 수확할 수 있는 규모를 한정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연과 어울리기를 노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행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라는 장줄리앙 푸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소통’이자 ‘교류’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장 줄리앙 푸스)

서래마을 한-불 공공미술프로젝트 PROJECT D'ART PUBLIC À SEORA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8.10-2016.11.12.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외

주관기관

한국: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은 알려졌다시피 '한국 내 작은 프랑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동 일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서울프랑스학교를 중심으로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 집중해 거주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절반이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한국 내 대표적인 부촌(富人) 중 하나이며, 간접적으로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음식점과 각종 문화시설이 즐비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이곳에서 벽화 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서초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 활동을 위해 2016년 2월 서래마을 한-불 공공미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 7월부터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했고, 10월 그림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학교 학생들이 작업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제는 한불부인회 등 외국인 공동체가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했다. 벽화 설치 는 11월 16일 준공식을 열어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프랑스 대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프랑스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장소로 선정된 곳은 서초구 반포4동 구 은행나무공원(마을마당)으로 불리던 곳인데,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15구와 문화교류협력 MOU를 통해 '파리 15구 공원'으로 명명했다. 또한 인근 도로를 '파리 15길'로 명명하는 등 양국 교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파리 15구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서래마을 곳곳에 축구스타 지네딘 지단(Zinedine Zidane),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 등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프랑스 유명인사 20명의 이름을 새긴 현판을 제작·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서초구의 '한불 음악축제'와 파리 15구의 '브루타뉴 축제'에 양국의 공연단을 파견하는 등 양구(兩區)간 문화 교류도 물꼬를 틀었다.

파리 15구 공원은 그간 한국과 프랑스 문화 교류를 위한 문화행사가 수차례 열렸던 곳으로 한-불 수교를 기념하는 데 있어 뜻 깊은 곳이라 하겠다. 그간 이곳에서 열렸던 행사는 프랑스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마을 공동체에 알리는 내용의 행사 등이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즈음해 열리는 '크리스마스 프랑스 전통 장터'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IS가 벌인 다발적 테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그렇게 보면 이곳에 한-불 수교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들어설 지역적, 문화적 조건과 이유는 충족하는 셈이다.

공공조형물 설치하는 그간 호혜적인 시선에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의 생태와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공공조형물은 지역민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흉물이 되거나 철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서래마을에 설치된 조형물은 위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충분조건으로 갖추고 있다.

이번 조형물 제작에 참가 자격은 서초구민, 서울시민 및 9세 이상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로 제시해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형물은 타일을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의 태극기와 프랑스 국기 라 트리콜로르(La Tricolore)의 공통 색상인 백·청·적을 바탕으로 각 색이 갖는 주제를 세분화하여 진행됐다. 이에 백색은 '한-불 수교 캘리그래피', 붉은색과 파란색은 '서래마을'과 '한불 하이브리드', '자유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연인원 448명으로 각 주제에 따라 투입 인원을 달리 했다. 디자인의 콘셉트는 '하모니(Hamonie)', '한국과 프랑스(France-Corée)', 그리고 '상호교류(Echange mutual)'로 설정됐다. 이에 3층 형식의 조형물은 아래에서부터 각각 16.95m×75cm, 11.55m×41cm, 11.55m×41cm의 규모로 이어졌다. 이 작업은 10×10cm, 또는 20×20cm 규격의 타일 1620장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632개의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그림, 시 등을 망라했다. 프랑스와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양국의 상호교류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11회에 걸쳐 참여 인원이 모였고, 9월에도 총3회에 걸쳐 제작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단순히 조형물 제작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프랑스학교 증축공사가 착수되기도 했고, 10월에는 8번째를 맞는 반포서래 한불음악회에 프랑스 인기 락 밴드 '레 이노상(Les innocents)'이 공연하는 등 다양한 교류의 폭이 확대됐다.

이번 한-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교류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해 정점을 찍으며 새로운 교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교류의 장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 차별화된 의의를 가진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듣는 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ISTENING GLAS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8.25-2016.10.23. 토탈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토탈미술관

프랑스: 그람(GRAME)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토탈미술관은 비탈진 지형을 잘 살린 독특한 건축물이다. 미술관의 입구가 제일 꼭대기 층에 있고 이어 층층이 내려가면서 전시실이 자리 잡고 있다. 암벽의 일부를 내부에 그대로 끌어안은 전시공간도 있다. <듣는 나라의 앨리스 (Through the Listening Glass)> 전이 2016년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곳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무엇보다 미디어 아트에 강점이 있는 토탈미술관을 위한 맞춤형 교류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리옹의 국립음악창작센터 그람(GRAME) 측이 한국에서의 전시를 기획하며 전시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4년 봄 프랑스문화원으로부터 토탈미술관을 소개받은 데서 출발했다. 프랑스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 그람은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기치로 현대음악 창작을 지원하는 등 사운드가 중심이 되는 창작지원공간이자 동시에 디지털 아트 같은 시각예술 창작자를 위한 레지던시도 운영한다.

토탈미술관은 그람의 제안을 크게 반겼으나 예산 마련이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차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됐고, 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창작공간지원사업을 통해서 전시장 공사비, 장비임대 및 설치 인건비 등도 지원받았다.

그람의 제임스 지루동(James Giroudon) 대표는 “2년 전 이 미술관을 처음 보았을 때 건축적 특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 미술관이 외부 풍경에 스며들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공간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 형식에 놀랐다”며 “이런 공간적 특성은 전시 방식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작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드니 방장, <찰나와 공간(D,ore et d'espace)>



맷 코코, <판톴(Fantôme)>

드니 방장, <악보들(Scores)>



도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도전 앞에서 그가 찾아낸 답은 ‘소리의 시각화’이며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주제는 ‘투명성’이다. 예컨대 유리잔과 유리잔이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는 청각임에도 투명하다고 느껴진다.

‘듣는 나라의 앨리스’로 번역되는 전시 제목 ‘Through the Listening Glass’는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Glass and What Alice Found There)>에서 차용했다. 보는 것(Looking)보다는 듣는 것(Listening)에 방점이 찍혔다. 지르동은 “소실에서 앨리스는 거울을 가로질러 믿을 수 없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며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청각에 대해 색을 느끼는 식의 환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그람 소속 작가 10명이 제작한, 빛의 파장과 사운드의 떨림을 활용하는 미디어아트 작품 20여 점이 나왔다. 드니 방장(Denys Vinzant)의 <찰나와 공간>은 유리판 위에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듯 금으로 악보를 그려 넣은 설치작품이다. 크기가 다른 금빛 무늬 유리판이 만들어내는 ‘화음’은 장중해 마치 바로크 음악을 듣는 기분을 준다. 미셸 프랑수아(Michel François)의 <유지된 물>은 물이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봉지다발을 천장에 매단 것인데, 떨어지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소리가 느껴진다. 소리를 추가하거나 음량을 조절하는 등 적극적인 듣기를 경험하게 하는 맷 코코(Matt Coco)의 <춤추기 전 어딘가에>, 음향 사이를 걸어가는 느낌을 주는 트라픽-안 오를레리(Trafik & Yann Ortarey)의 <72임펄스> 등 테크니컬한 작품도 많다.

전시가 이뤄지기까지 토탈미술관 측의 리옹 방문은 없었고 지르동 대표를 비롯한 그람 테크니션들이 전시 준비를 위해 두 차례 한국을 찾았다. <소리의 투명성(Sound Transparences)>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에서 개최되었던 전시를 바탕으로 토탈미술관의 공간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 전시이다. 유사한 주제로 대만에서의 첫 전시에 이은 것이다.

토탈미술관의 전시 공간이 다른 화이트큐브 미술관과 달리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많아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큰 변형을 가했다기보다는 작품 설치 과정에서는 빛 조절 등의 이유로 작품 위치가 바뀌거나 출품작이 바뀌는 식이었다. 신보슬 큐레이터는 “전체적으로 토탈미술관을 위한 작품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노그래피(전시장 구성) 측면에서 토탈미술관 전체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상상하고 소리, 침묵, 투명성의 변주를 구현하려 한 전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향후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져 순회 전시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탈미술관은 그람과의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 한국 작가들의 그람 레지던시 입주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7년 상반기쯤 그람을 방문하여, 여러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토탈미술관)

코리아 온 / 오프 KOREA ON / OFF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8.30-2016.09.25.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Cité International des Art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2.17-2017.02.22. 고은사진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고은사진미술관

프랑스: 탕당스 플루(Tendance Flou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의 중견 사진작가들이 각각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류 사진전을 갖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바로 프랑스 사진작가 그룹인 탕당스 플루(Tendance Floue) 소속 작가와 한국의 고은사진미술관의 연례 기획전인 <부산참견록>에 참여하는 작가 간의 교류전이다.

먼저 파리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Cité International des Arts)에서는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5일까지 탕당스 플루 소속 작가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온/오프(Korea On/Off)> 전과 함께 고은사진미술관의 연례 기획전 <부산참견록> 참여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민 <아름다움과 은은함>전이 동시에 열렸다. 이어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2일까지 부산의 고은사진미술관에서는 탕당스 플루 작가들만의 <코리아 온/오프> 전이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 사진창작집단인 탕당스 플루는 매그넘(Magnum, 국제 자유보도 사진작가 그룹)과 함께 세계 사진계의 쌍두마차로 꼽힌다. 매그넘은 1947년 헝가리의 로버트 카파(Robert Capa), 프랑스의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폴란드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영국의 조지 로저(George Rodger) 등 유럽 각국 출신의 사진가들이 창립한 다큐멘터리 사진 전문 그룹이다.

탕당스 플루는 기록 사진 중심의 매그넬에 반기를 들고 프랑스 작가들이 주축이 돼 1991년 창설했다. 현대 사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다큐멘터리와 예술 사진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작업을 해온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탕당스 플루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으로 프랑스문화원이 공모한 작가 프로젝트에 당선된 데서 출발했다. 탕당스 플루는 파스칼 에마르(Pascal Aimar), 티에리 아르두앵(Thierry Ardouin) 등 소속 사진가 12명 전원이 창작 작업에 참여해 3년에 걸쳐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방한 끝에 건져낸 각자의 이야기를 사진과 비디오 작업을 통해 조화롭게 보여줬다. 이들의 작품은 시적이면서 참여적이고, 개별적이면서 공유적이며, 확정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이중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라는 평가다.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에서는 또 고은사진미술관의 연례 기획전인 <부산참견록> 참여 작가 5인의 작품을 <아름다움과 은은함>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였다. 강홍구, 최광호, 이갑철, 강용석, 정주하 작가가 참여했다.

<부산참견록>은 고은사진미술관이 2012년부터 매년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사진작가 1인을 선정해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기록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로 보여주는 10년 장기프로젝트이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서울의 한미사진미술관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문을 연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2007년 개관 이래 <중간보고서>, <사진미래색色> 등 다양한 기획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고은사진미술관이 이번 교류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형수 고은문화재단 이사장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했다. 프랑스 명예영사인 김 이사장은 탕당스 플루 소속 작가들이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할 때 전국을 돌며 자유롭게 사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을 했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차량 지원을 하면서 파리에서 <부산참견록> 참여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할 것, 탕당스 플루 소속 작가들의 <코리아 온/오프>전을 고은사진미술관에서 개최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부산에서 열린 <코리아 온/오프>전은 파리 전시보다 확장된 규모로 진행됐다. 사진이 미디어예술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히 동영상 설치 작품의 비중을 4점에서 18점 정도로 높였다. 부산에서의 전시는 ‘안상수체’로 널리 알려진 안상수 파주 타이포그래피학교장이 전시 디자인과 도록 및 웹(디지털 도록) 디자인을 맡았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앞으로 탕당스 플루와 교류를 지속해 한국 전체가 아니라 부산에만 포커스를 맞춘 사진전을 연다는 계획이다. 탕당스 플루판 <부산참견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류전은 유럽 최대 규모의 레지던시(80여 명)를 갖춘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에서 한국 사진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열림으로써 한국 사진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진 탕당스 플루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들의 장르 융합적인 작품 경향이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 간 경계 구분이 강한 한국의 사진계에 자극과 활력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교류전을 계기로 한국의 젊은 사진작가들이 유럽 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고은미술관 이상일 관장은 “향후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와의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한국의 젊은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유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7일의 부산 전시 개막식에 베네딕트 알리오(Bénédicte Alliot) 시테인터내셔널 데자르 관장, 탕당스 플루의 <코리아 온/오프> 기획자 겸 사진작가인 티에리 아르두앵을 비롯한 작가 3명을 초청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고은사진미술관)



알랭 빌롬(Alain Willaume), <위/아래(Above/Below)>

메이에(Meyer), <더 보이드(The Void)>



티에리 아르두앵, <투 스탠드 업(To Stand Up)>



2016 부산비엔날레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BUSAN BIENNALE 2016 〈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03-2016.11.30. 부산시립미술관 외

주관기관

한국: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16 부산비엔날레는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을 내세워 윤재갑(중국 하우아트뮤지엄 관장) 전시감독이 진행했다. 3개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부산시립미술관과 고려제강 수영공장을 리모델링한 F1963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23개국 121명(팀)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그간 부산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으로 사용되었기에 익숙한 반면, 고려제강 수영공장은 부산의 철강기업인 고려제강이 100억여 원을 들여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을 전시장으로 개조해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본전시를 맡았던 기존 대회의 물을 탈피, 하나의 주제로 통합된 전시가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다.

전시를 프로젝트 별로 살펴보자.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출현하고 진행되었던 한 중 일 아방가르드를 정리하는 전시가, 그리고 F1963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전지구적인 비엔날레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다룬 작품이 출품됐다. 그리고 참여 작가와 관람객, 그리고 학자들이 모인 학술대회가 이번 비엔날레의 주요한 프로젝트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는 2명의 프랑스 작가가 참여했다. 모두 F1963에서 열린 ‘project 2’에 출품했다. 우선 전위미술의 살아있는 전설 오를랑(ORLAN_오를랑은 자신의 이름을 항상 대문자로 표기하기를 주문한다), 자비에 루체시(Xavier Lucchesi)가 그들이다. 오를랑은 필자가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매체의 취재진이 참여한 인터뷰였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어투와 태도로 자신의 예술관을 설명했다. 그 인터뷰에서 오를랑이 줄곧 주장하던 바는 “(정해진) 틀과 구속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다”였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 오를랑은 포피두센터가 지정한 현대미술작가 100명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여성작가로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현대미술사에서 굵직한 이름을 남기며 그야말로 전위미술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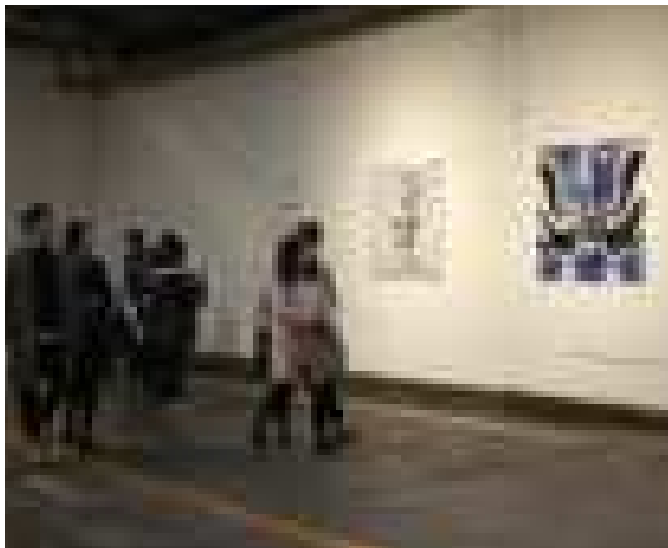


오를랑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표현한다. 그녀 스스로가 “몸을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를랑은 자신의 신체를 표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정의하며 작업한다. 부산비엔날레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5>(2016.6.17~2016.10.30)전을 열어 한국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

오를랑이 이번 부산비엔날레에 출품한 작업은 <베이징 오페라 가면 no6> 연작이다. 중국의 번검이나 경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신체를 재료와 매체로 삼아 표현하는 바와 닿아있는 것이다. 또한 관람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 앱을 다운로드하면 3D로 표현된 아바타(AVATA: 가상 공간에서 유저를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출품작가 자비에 루체시는 의학용 스캐너를 이용해 신체를 표현한 디지털 사진 작업을 선보였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미술이 이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닿아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표현기법을 갈구하고 그것이 갖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루체시의 작업은 그가 밝혔듯 “카메라 없이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엑스레이 기계와 스캐너를 이용하는 그는 외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광선이 통과하여 남는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미술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비분질적이라고 정의했던 ‘환영(illusion)’을 제거하려 한다. 환영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른바 ‘거짓’의 모습이다. 우리가 접하는 세계는 입체이다. 입체를 표현한 캔버스는 본질적으로 평면일 수밖에 없는 바, 평면에 표현된 입체는 결국 환영일 수밖에 없어 눈을 속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면의 캔버스에는 평면성을 담은 대상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대미술이 몰입했던 바다. 이것은 현대미술(세(世))가 증명하고 있다. 자비에의 작업은 이와 같은 현대미술의 맥락과 함께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상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환원된다. 그가 표현하는 실체는 내부가 훤히 드러나는 인체의 모습이다. 마치 종합병원에서 신체 내부의 질환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는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의 전개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프랑스 작가의 참여의 의의는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주제와 연결지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다중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오를랑과 자비에 루체시의 작업은 매체의 다양한 응용과 그것으로 야기되는 미술의 외연의 확장을 추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자비에 루체시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 한국주빈국
RÉVÉLATIONS : LA CORÉE À L'HONNEUR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9. 10-2016.9.13. 그랑팔레(Grand Palais)

주관기관

한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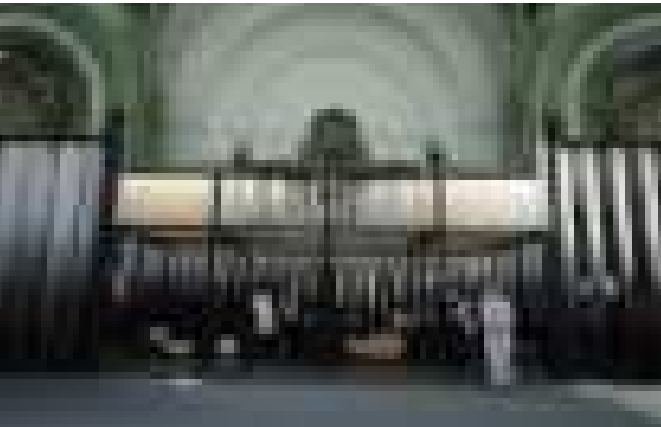
프랑스 : 아틀리에 다르 드 프랑스(Ateliers d'Art de France)

프랑스어로 ‘새로운 발견’을 뜻하는 ‘레벨라시옹(Révélation)’은 대규모 공예예술 비엔날레이다.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개 국가에서 총 340개 단체 및 공예인, 가구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참가했다. 2016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되어 그랑팔레 정중앙에150㎡ 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4년 6월 18일 프랑스에서 공예인에 관한 법률이 신설된 쾌거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여서 업계의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시 기간 내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럼을 통해 공예예술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국제 공예예술영화제 수상작들도 상영됐다.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주최기관은 프랑스의 아틀리에 다르(Ateliers d’art)이다. 아틀리에 다르는1868년에 설립된 공예예술인조합으로, 현재 60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조합은 1949년 첫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1995년 ‘메종&오브제(Maison & Objet)’ 전시회 공동 주최 및 계간지 발행, 2009년 국제문화재전시회 설립, 2011년 아틀리에 다르 재단 설립, 2013년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설립 외에도 2015년 대형 콘셉트스토어 설립 및 출판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적을 일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아틀리에 다르와 2010년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 2010년부터 프랑스 아틀리에 다르는 한국의 공예트렌드페어에 꾸



준히 참가했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제 문화재 전시 및 ‘메종 & 오브제’에 참가하는 등 긴밀히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레벨라시옹 비엔날레’가 한국을 주빈국으로 적극 초청해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이를 수락하였다.

한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최로 한국관을 설치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현대 공예작품 가운데 그 동안 해외에서 호평 받은 도자, 금속, 섬유, 유리 등

6개 분야, 22명 작가의 180여 작품을 선보였다. 도자에는 이강호, 윤주철, 배세진, 권진희, 금속에 정영관, 류연희, 김현주, 가구에 이재효, 강우림, 섬유에 전경화, 이준을 비롯하여 장신구에 이정규, 김지민 등이 참여하였다. 전시장 조성은 강신재·최희영·보이드플래닝 대표가 연출했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사용하여 작품이 돋보이도록 했다.

전시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양국 예술가가 함께 전체 휴식 공간을 ‘한국적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와 조각보 작가인 강금성의 협업 작품도 선보였다.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한국공예 어린이 워크숍’을 운영해 관람 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예품 색칠 놀이와 보자기 만들기 체험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무한에서 중심으로 DE L'INFINI AU CENTR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07-2016.10.26. KF 갤러리

주관기관

한국: 티엔컨설팅

프랑스: 조슬랭 아크와바마티농(Jocelyn Akwaba-Matignon)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함께 조슬랭 아크와바마티농(Jocelyn Akwaba-Matignon)의 개인전 <무한에서 중심으로(De l'infini au Centre)>를 개최했다. 작가의 국내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나 파리의 전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프랑스의 또 다른 문화'를 소개한다는 취지다.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다문화적 정체성과 현실을 다루는 이번 전시를 통해 특정 문화와 민족만의 전통과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인 우주관을 이야기하고,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시 서문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KF 갤러리에서 열린 <무한에서 중심으로>에는 <미스터리的大가(Le Maîtres des mystères)>, <연구적 존재(Les chercheurs de l'existence)> 제하의 회화 42점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자>, <조슬랭> 등 영상작업 5점, 혼합재료 설치작업 <치유의 바퀴(Medicine Wheel)> 등을 선보였다. 4점을 제외한 모든 작품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으로 인증 받은 후 제작된 작품이다.

마티농의 작업 주제는 '지구의 영혼', 다시 말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범우주적 존재에 대한 탐구이다. 다소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어들로 조합된 이 주제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선 그가 태어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국가 중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 프랑스령 서인도제도(캐리비안)의 과들루프(Guadeloupe) 태생이다. 아프리카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가 혼재돼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 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그의 예술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즉,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의 조합이라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겠으나, 작가는 복잡한 현실을 뛰어넘어 모든 만물을 포용하는 자연, 아메리칸 인디언의 지혜와 마야 우주관에서 작업적 영감을 받는다. 낭트(Nantes)의 숲에서 채취한 흙과 자연물을 재료로 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영역을 확장해갔다.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캔버스 화면에서 뿜어내는 빨강, 파랑, 노랑, 검정색의 강렬한 아우라다. 전시장 전체를 뒤덮은 원색의 색감은 마티농 작품 전반에 흐르는 특징으로, 그는 이 색들을 통해 문화, 땅, 견고함, 여성성, 하늘, 영원 등 마야문화에서 색채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관객이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하는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원과 곡선 등의 기하학적 형태 역시 우주를 상징한다. 단적인 예로 설치작업 <치유의 바퀴>를 들 수 있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는 한국의 산과 들에서 직접 채집한 돌과 나뭇가지가 원형으로 놓여 있고, 그 안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맞춰 태양의 붉은색, 저무는 태양의 검정색, 남쪽 태양의 노란색, 북쪽 태양의 흰색으로 이뤄진 치유의 바퀴가 자리했다. 땅과 달아 있는 뱀을 뜻하는 바닥 정중앙에 놓인 돌 위로 깃털 달린 뱀이 매달려 있는데 이는 깃털을 단 뱀이 하늘로 가면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게 되면서 침묵을 통해 영

혼을 치유 받는다는 인디언 사머니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마티농은 마야 문화와 메소아메리카 문화가 융합된 작품을 통해 아메리칸인디언을 뜻하는 아메리디안(Ameridian)의 지혜를 부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외형상의 차이, 문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것의 통합, 즉 태초엔 모두가 하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시명 <무한에서 중심으로>를 이해하게 하는 지점 또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의 의미가 더욱 뜻 깊은 이유는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마티농 작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밭바 숲>과 <태양의 춤>에서 작가는 신윤복의 작품을 배경부에 차용하였는데 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프랑스와 한국이란 국적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국가, 민족, 인종 등의 사회적 기제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근원적 토대'가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 셈이다.

그 동안 접하기 힘든 프랑스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번 <무한에서 중심으로> 전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지향하는 다문화의 공존, 나아가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티엔컨설팅)



<태양 아래(Sous le soleil)>



상탈 아커만 그 이후 D'APRÈS CHANTAL AKER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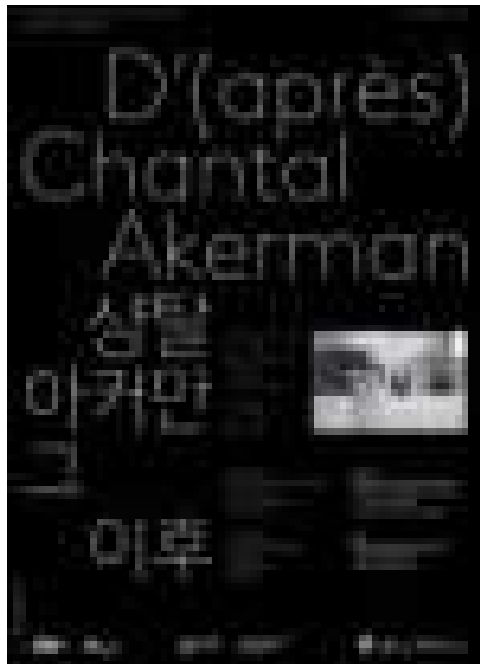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19-2016.10.23.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주관기관

한국: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Art Plastique)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박만우 관장)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루이까뜨즈’를 인수한 태진인터내셔널(대표 전용준)이 미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며 2016년 5월 개관한 신생 복합문화공간이다.

플랫폼-엘에서 201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마련한 <상탈 아커만 그 이후 (D'après Chantal Akerman)> 상영회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 증사업으로 플랫폼-엘과 함께 프랑스 문화부 소속의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Art Plastique, CNAP)와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CNAP 비디오 컬렉션을 통해 본 상탈 아커만 그 이후>는 2015년 10월에 타계한 벨기에 출신 영화감독 상탈 아커만(Chantal Anne Akerman)과 그의 영향을 받은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을 함께 상영함으로써 아커만의 예술적 유산과 그것이 끼친 문화적 세례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아커만은 누벨바그 영화로부터 시작해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에세이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영화사에 족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비디오와 설치미술을 통해서도 동시대 미술 작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화 마니아들에게는 특히 현대 페미니스트 영화의 개척자이자, 전설적 영화감독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 아커만의 작품과 함께 그의 영향을 받은 비디오 아티스트, 영화감독 등 동시대 미술인들의 영화를 함께 상영함으로써 아커만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5일 동안의 상영회 행사 기간 동안에는 아커만의 개막작 <노 홈 무비(No Home Movie)>(2015)를 비롯해 <국경 저편에서(From the other side)>(2011) 등 대표작 5편을 선보였다. <노 홈 무비>는 그가 숨을 거두기 몇 달 전,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소개했던 마지막 작품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비극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울러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 대런 아몬드(Darren Almond),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Dominique Gonzalez Foerster), 앙주 레치아(Ange Leccia), 로맹 크로넨버그(Romain Kronenberg) 등 5명의 동시대의 미술 작가의 작품이 함께 상영되었다. 이들은 번 프로젝트의 커미셔너로 CNAP 뉴미디어와 오디오 비주얼 부분 책임자인 파스칼 카사노(Pascale Cassagnau)가 엄선한 작가들이다. 이들의 작품을 아커만의 영화 문법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번 상영회는 예술에서 탈 경계, 장르 해체가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현대미술과 영화의 접점을 모색하고, 미술의 영화적 실천을 탐구한 자리로 평가되었다.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Ipanema Theory>

대런 아몬드, <Bearing>



한국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임흥순, 박찬경, 박경근 등의 작가들이 예술영화, 즉 미술의 영화적 실천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번 상영회는 대중보다는 작가들에게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상영회는 2016년 5월 문을 연 신생 공간, 그것도 민간의 미술관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공공예술기관 CNAP와 공동 주최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립형예술센터는 1982년 현대 예술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프랑스 국공립 기관이다. 회화, 퍼포먼스, 조각, 사진, 설치, 미디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후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6년 현재 자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약 10만 개 작품을 소장하는 등 공공컬렉션으로 유명하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인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취임한 박만우 플랫폼-엘 초대 관장이 국립형예술센터에 제안하면서 성사가 됐다. 박 관장은 프랑스 유학파로서, 부산 광주 비엔날레 전시 책임자, 경기창작센터·프랑스 팔레 드 도쿄 국제교류 프로젝트 책임자,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등을 지내며 국제적인 교류를 해왔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국제무대에서의 신뢰가 전시 성사의 바탕이 됐을 것이다. 박 관장은 “국립형예술센터와 장기적인 교류 프로젝트를 갖기로 협약을 맺었다”면서 “그 첫 번째로 약간 가벼운 장르로, 영상 전시를 하기로 한 것인데, 2015년 9월에 이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립형예술센터와의 협력 전시가 한국에서 열린 것이다.

공동 주최인 만큼 5명의 동시대 작가의 작품은 국립형예술센터의 소장품으로 꾸러졌지만, 아커만의 영화 작품은 플랫폼-엘 측에서 배급사를 통해 빌려왔다. 때마침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공식인증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행사 진행을 위해 박 관장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가 수차례 국립형예술센터를 방문했고, 2016년 4월에는 개관을 한 달 앞두고 국립형예술센터의 이브 로베르(Yves Robert) 관장이 한국을 찾기도 했다. 로베르 관장은 플랫폼-엘의 미적인 외관과 음향 및 조명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흠족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관장은 “이번 상영회는 양측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발판이 될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쯤 후속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손영옥 / 사진 제공: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전 L'EXPOSITION EXPOSITION DU MUSÉE D'ORSAY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29-2017.03.05.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지엔씨 미디어

프랑스: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몇몇 건물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그러하다. 그랑 팔레(Grand Palais),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파리에 있고 한국 여행객들이 즐겨찾는다. 그중 현대미술의 발원지로 평가받는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은 많은 한국 여행객의 단골 방문지로 첫 손에 꼽히는 곳이다. 오르세미술관은 철도역으로 사용되던 곳을 개조해 1986년 개관한 미술관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에드가 드가(Edgar Degas), 폴 세잔(Paul Cézanne), 장 프랑수아 밀레(Jean François Millet)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한 곳으로 유명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전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작품을 파리에 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오르세미술관 개관 30주년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과 맞물려 파격적으로 작품 반출을 결정,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전시 작품 수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130여 점으로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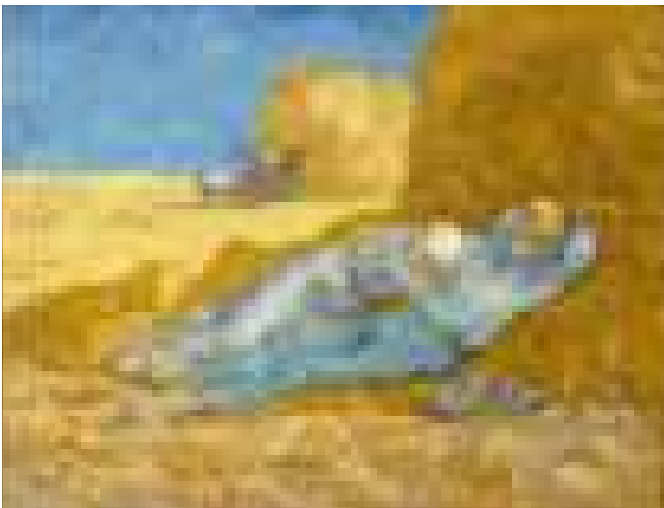
전시는 크게 5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아카데미즘과 사실주의' '인상주의와 자연주의' '상징주의와 절충주의' '20세기 현대 예술의 다양한 원천'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보면 19세기 이후부터 야수파 등장 이전까지 현대미술의 전조로 여겨진 유럽미술사를 일견할 수 있는 전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출품작과 작가는 서구미술사에서 굵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채워졌다.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던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로 대변되는 낭만주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작품의 소재로 끌고 들어와 사실주의를 발현했던 쿠르베(Gustave Courbet), 작가가 바라본 세상을 온전히 작가적 시점으로 구현하기 시작한 인상주의의 모네(Claude Oscar Monet)와 피사로(Camille Pissaro), 시슬레(Alfred Sisley), 신화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을 특징으로 하는 상징주의의 뤼비 드 샤브느(Puvis de Chavannes) 등이 그렇다. 마치 서양미술사 책의 한 챕터를 뜯어서 전시장으로 옮겨왔다고나 할까?

이러한 전시를 개최하는데 있어 상호신뢰는 당연하다. 특히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소장품이 대거 반출된 데다 오르세미술관을 직접 찾아도 볼 수 없는 데생작품 60여 점이 출품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원본 그림의 주제 구현, 작가의 심적 상태 등을 살펴보는 단서로서 데생은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를 마치게 되면 오르세미술관의 수장고로 들어가 향후 그 작품을 다시 볼 수 있을 기회를 기억할 수 없다. 그러한 데생 작품이 대거 한국으로 왔다는 사실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더욱 빛나게 한다. 레일라 자르부예(Leila Jarbouai) 오르세미술관 데생부 학예관은 개막식에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이번에 전시한 데생 작품들은 그 누구도 향후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작품"이라며 "1850년대 이후부터 데생은 점차 입지를 구축해

습작의 반열을 넘어 독자적인 작품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번 전시에선 이를 보여주는 데생 작품 60여 점을 선별했다"고 설명할 정도였다. 이 데생 작품 중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은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밀레의 <이삭줍기>(1857) 데생이다. 원화와 더불어 출품된 이 작품을 통해 작품의 제작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 코즈발(Guy Cogeval) 오르세미술관장은 오르세미술관이 좀처럼 반출하지 않았던 미공개작이 대거 한국에 왔다는 점을 역시 강조한다. 그는 "선을 다루는 기법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의 규범과도 같은 데생 작업을 전시할 수 있어 이번 전시의 의미가 각별하다"며 데생 작품 전시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코즈발 관장은 이러한 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관장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오르세미술관의 소장품이 파리 시민이나 파리를 여행하는 관광객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오르세미술관까지 올 수 없는 이들이 오르세미술관의 보물들을 감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문을 좀 더 개방하는 대규모 전시 정책을 개발하려 했다"고 밝혀 이 전시가 오르세미술관이 전 세계 미술애호가를 향한 화답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프랑스와 한국 간 친목 도모와 교류의 장이 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매듭짓는 중대한 문화 행사이자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이라며 전시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점도 밝혔다.

빈센트 반 고흐, <낮잠>



이러한 미술관의 전향적인 정책은 앞서 언급했던 데생 작업의 이례적인 반출 외에도 한국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밀레의 <이삭줍기>의 특별한 한국행, 빈센트 반 고흐의 <정오의 휴식>(1889-1890)의 첫 유럽 이외 지역 반출, 그리고 좀처럼 관람하기 힘들었던 상징주의 작가들의 작업이 전시된 것으로 증명됐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지엔씨 미디어)

폴 고갱(Paul Gauguin), <브르타뉴의 여인들>



장 프랑수아 밀레, <이삭줍기>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 파리국제예술공동체 교류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2016.02.19-2016.03.08.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 des Art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세상만들기(Faire des Mondes)〉

2016.11.17-2017.04.16. 경북대학교 미술관 외

주관기관

한국: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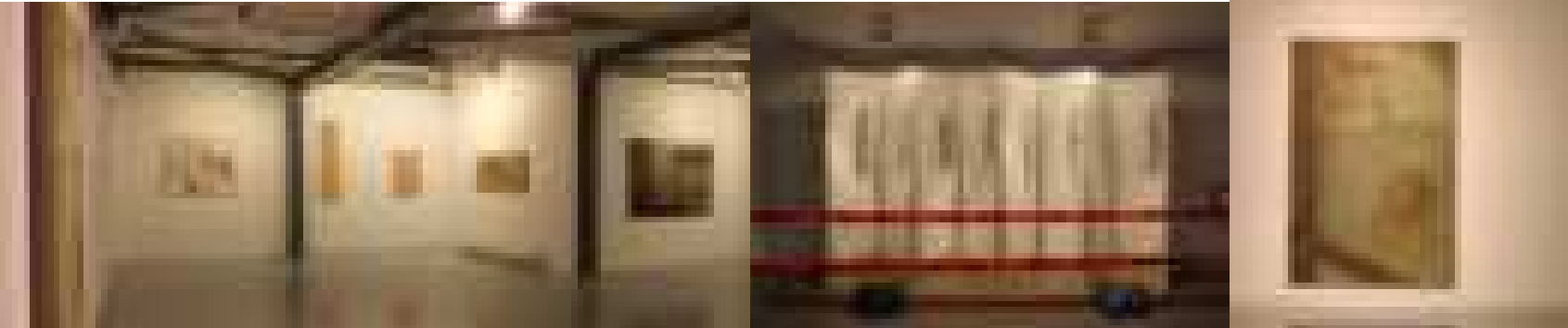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와 한국의 '누스페어 동시대미술 연구소'가 협력해 두 개의 전시 프로젝트인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와 <세상만들기(Faire des Mondes)>를 양국에서 선보였다. 전자는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으로, 2016년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공동체에서 한국 작가 4인(임현락, 김영섭, 박윤영, 이은실)의 작품을 전시했고, 후자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먼저 경북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이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4월 16일까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세상만들기> 전시에는 프랑스 작가 4인(베르티 박, 에리카 헤다이야, 로맹 베르니니, 레미 아단)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번 교류전시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현 미술계의 동향과 변화상을 체감함으로써 서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공동 협력 기획 형태로 한국과 프랑스의 기획자가 두 개의 전시를 함께 기획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완성된 전시를 상대 국가에 보내는 형태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작가 구성과 전시 장소를 안배해 각각의 실정에 맞게 공동작업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프랑스에 소개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최근 20~30년간 변화해 온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색다른 감각으로 풀어낸 전시다. 제품을 구입하면 라벨에서 볼 수 있는 문구를 전시 제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한국적인 정서를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는 작가들을 선정했다. 임현락, 박윤영, 이은실은 한국화를 전공한 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입체적인 한국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통과 현대 미술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다. 독일에서 유학한 김영섭은 한국의 전통 소리인 농악, 민요 등과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작품에 접목시켜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운드 아트 작업을 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전시는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의 강효연을 중심으로 파리1대학 조형예술과 부학장인 프랑소와즈 독키에(Françoise Docquie) 교수와 독립큐레이터 마리안느 데리앙(Marianne Derrien)이 협력하여 공동 기획하였다.

한국에서 소개된 프랑스 전시인 <세상만들기>는 '인간과 동물'을 중심으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시대적 담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이다. 베르티 박(Bertille Bak)은 평소 지역공동체와 접하면서 관찰한 제레 의식이나 오브제들을 소재로 작업한다. 로맹 베르니니(Romain Bernini)는 큰 화폭의 유화작품 안에 동물들을 인간의 가면으로 그리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다룬다. 엘리카 헤다이야(Elika Hedayat)는 이란 출신 작가로 프랑스와 이란을 오가며 작업한다. 그녀는 자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반인반수와 같은 그로테스크한 방식을 선택했다. 레미 아단(Rémy Yadan)은 비디오 아



티스트로 프랑스 시골에서 인간들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동물을 재물처럼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소재로 작업하였다. 네 명의 프랑스 작가는 모두 30대로 드로잉, 필름, 유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용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관람객 및 미술학도들은 최근 프랑스 동시대미술의 경향을 파악하고 감각적으로 체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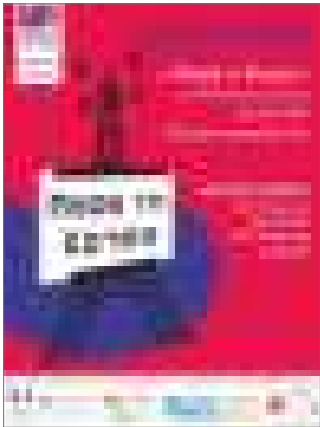
한국 측 기획자인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의 강효연은 프랑스 유학 시절, 한국 미술계가 지나치게 서양 미술사, 서양 이론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우리의 문화가 다양성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채 서양의 문화에 편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한국 작가들의 창작 및 계승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 파리1대학 조형예술학과 프랑소와즈 독키에 교수에 교류전을 제안하게 되었다. 유학 시절 담당 교수였던 독키에 교수는 이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이후 두 기획자는 각자의 기획안을 구상한 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전개해 나갔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 측 협력기획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전시 공간인 프랑스의 국제예술공동체를 섭외하여 강효연 큐레이터에게 소개하였고, 공간 대여료를 파리1대학에서 지급하였다. 이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으로 작품을 운송하고, 전시 설치를 위하여 작가들과 기획자가 파리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파리

1대학 측에서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전시홍보물인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초대장 제작을 지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만들기>의 전시 추진을 위해 한국측에서 장소 섭외 등을 적극 지원하여 프랑스 기획자들과 작가들이 성공적으로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두 개의 교류 전시를 통해, 양국의 기획자와 기관이 협업하고, 양국의 작가들이 상대 국가를 방문해 새로운 환경에서 전시가 가능했다. 더불어 교육기관과 연계해 미술학도들의 참여와 관람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상대 국가 현대미술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의 관심과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의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효연 큐레이터는 <메이드 인 코리아>전을 신호탄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며,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의 형태로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고자 한다. 더불어 파리1대학의 조형예술학과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이화행 / 사진 제공: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 LINGERING NOU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07.06-2016.09.05.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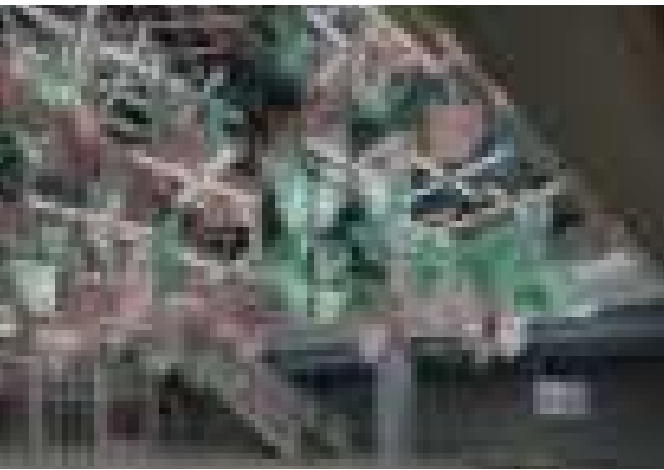
주관기관

한국: 양혜규스튜디오

프랑스: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양혜규의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Lingering Nous)> 전시가 파리의 퐁피두센(Centre Pompidou)터에서 열렸다. 현대미술의 메카로 대변되는 퐁피두센터 파리 본관에서 한국 작가의 전시가 열린 것은 2004년 구정아 전시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쾌거이다. 파리의 레알 지구와 마레 지구를 연결하는 보부르에 위치한 퐁피두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근현대미술관, 공공도서관, 음향연구소, 극장, 어린이 체험관, 서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내부 구조를 밖으로 고집어낸 혁신적인 건축물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가 설계하여, 1977년 준공되었다. 조르주 퐁피두(Georges Pompidou) 당시 대통령은 파리가 뉴욕에 대항하여 국제 예술의 중심지 기능을 활발히 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준공 당시 하루 관람객 5000명을 예상하고 설계되었으나 개관 초기부터 하루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들어 개관 20년 만에 임시 폐관 후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거쳐 2000년 재개관하였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퐁피두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제로 퐁피두센터는 뉴욕의 모마(MoMA),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과 함께 세계의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 많은 관람객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미술의 중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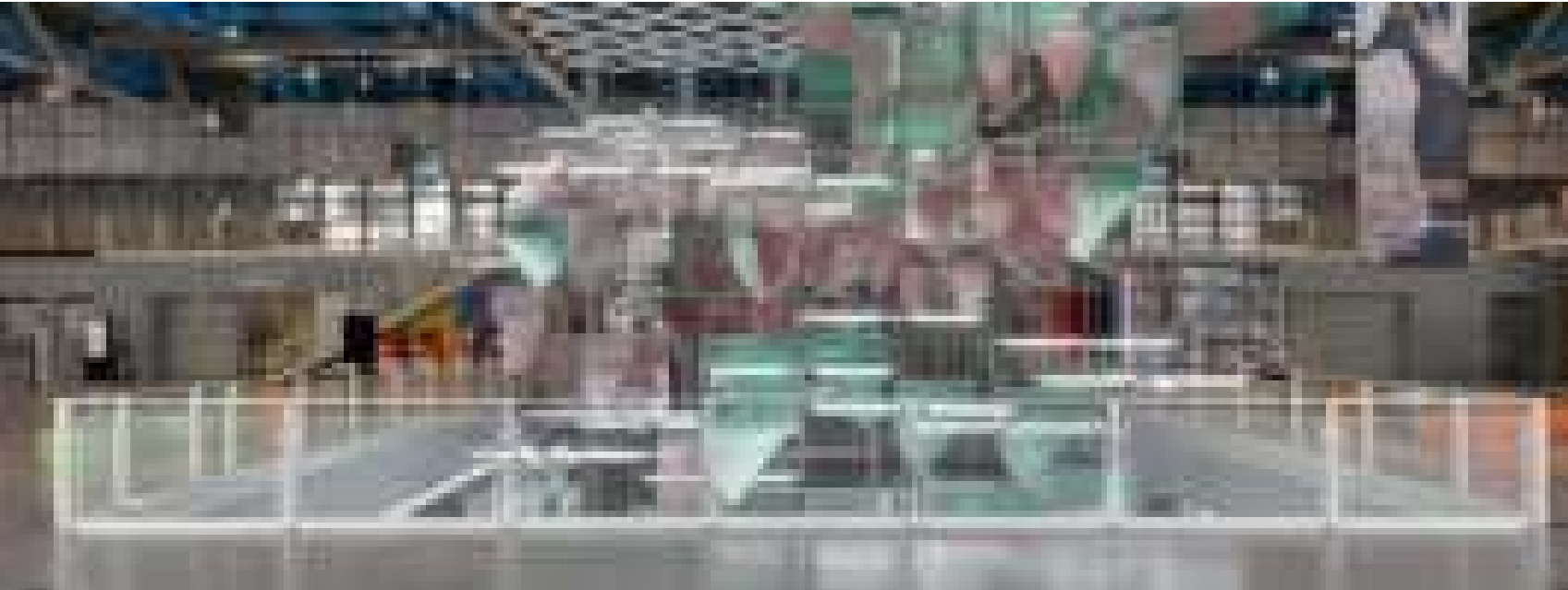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는 양혜규의 <솔르윗 뒤집기> 시리즈로 이성, 지성, 영혼을 뜻하는 ‘누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용어를 사용했다. 퐁피두 큐레이터인 니콜라 리우치-구트니코프(Nicolas Liucci-Goutnikov)와의 대담에서 양혜규는 ‘누스’는 범세계적인 표현으로 이를 대체할 용어를 찾지 못했라며, 유토피아적 염원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위하여 작품이 특별 제작되었다. 2015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이미 제작된 작품을 설치하려하였으나, 해당 작품의 규모가 공간에 비하여 너무 커서 새로이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설치 책임자인 질 카를르(Gilles Carle)에 따르면 2016년 5월초 양혜규 스튜디오로부터 첫번째 설계도를 받은 이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수톤이 넘는 작품 설치를 위하여, 천정에 삼각구조의 지지골조를 설치하여 모터와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작품을 바닥에서 설치하면서 모터의 버튼을 눌러 단계적으로 올렸다.

작품의 높이는 건물 3층 높이이며, 총 166개의 블라인드가 사용되었다. 사각형 또는 부채꼴 형태의 분홍색과 옥색의 블라인드를 반복적으로 설치하였다. 마르셀 뒤샹의 레디 메이드(Ready-Made)의 일환으로 작가는 이미 제작된 블라인드를 소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색상 중에서 보색이 되는 두 가지 색상을 고르다 보니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색을 선택했다. 원색으로 채색된 건축물의 내부 골조 및 시설 안내 표지판과 시각적으로 차별화하고자 고른 색상이다. 블라인드와 더불어 광원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작가는 공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차가운 조명을 오래전부터 선호해왔으며 작품의 기하학적 형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치 작품 하단부인 포럼의 지하 1층에서 구작인 영상 에세이 4편이 함께 상영되었다.

양혜규는 처음 퐁피두센터로부터 전시 제안을 받고 선뜻 수락하지 못했다. 이유는 작품을 설치할 장소가 화이트큐브의 전형적인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포럼(Forum)이라는 공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10월 21일 소강당에서 열



르 코르뷔지에 전 LE CORBUS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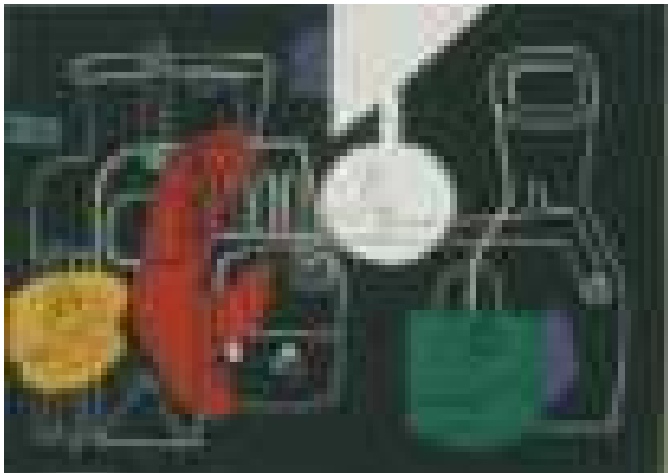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2.06-2017.03.2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주관기관

한국: 코바나컨텐츠

프랑스: 르 코르뷔지에 재단(Fondation Le Corbusier)



〈정물화〉

현대 건축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를 빼고서는 논할 수 없다. 스타인 주택(Villa Stein), 롱샹(Ronchamp) 성당,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 등 현대건축의 모태가 되었던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한 그다. 이러한 그를 조망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4평의 저작>이 바로 그것이다. 르 코르뷔지에 재단이 주최하고 코바나컨텐츠와 위키트리가 주관하는 이 전시는 그의 이름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에 걸맞게 대한민국 외교부,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한 프랑스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양국의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 주한 스위스, 주한 아르헨티나, 주한 벨기에, 주한 인도, 주한 독일대사관 등 주요 대사관이 후원에 나설 정도로 대규모로 기획됐다. 르 코르뷔지에의 500여 점 작품이 소개된 이 전시는 그간 열린 르 코르뷔지에 전시 중 세계 최대 규모로 140여 점에 다다른 미공개작도 선보였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안도 타다오(Ando Tadao)가 제작한 르 코르뷔지에 건축 모형 50점도 함께 공개됐다.

알려졌다면 르 코르뷔지에는 <타임(TIME)>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100인 중 유일한 건축가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17점이 한 번에 등재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그의 건축가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그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미술적 소양을 갖춘 작가로서의 면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생소한 그의 드로잉을 포함한 회화 작업도 일견할 수 있다.

전시는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르 코르뷔지에는 누구인가?' '화가를 꿈꾸던 소년 '건축과 인간'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품다, 넓고 큰 세상으로' '피카소와 르 코르뷔지에: 입체파를 대항한 순수주의' '건축으로 세상을 혁명하다. 현대적 아파트를 창시하다' '내 인생의 꿈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 '건축



〈롱샹의 남쪽 벽〉



〈책 읽는 누드 여성〉

가는 '생각'을 남기는 사람' '통나무집 특별관, 안도 타다오 특별관'이 그것이다. 각 전시 섹션의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인생과 건축, 그의 사상과 주변인 등 그의 알려진 면모 외에 인간적인 면모를 그의 일상과 인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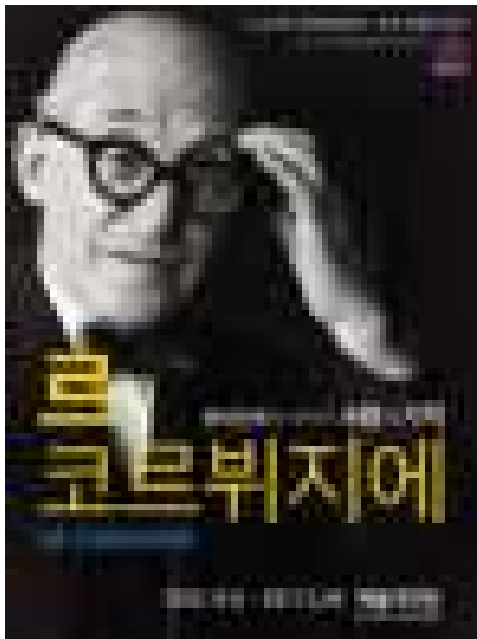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공식적인 한국 첫 전시로, 재단의 다니엘 폴리(Danièle Pauly), 장 루이 코헨(Jean Louis Cohen) 등이 특별 디렉터를 맡아 수고했으며 재단이 소장한 작품도 대거 방출했다. 여기에 <마크 로스코전> 등을 기획한 주관기관인 코바나컨텐츠가 그간 벌였던 다수의 블록버스터 전시 노하우를 결합해 내용과 외연이 충실하다. 특히 르 코르뷔지에 전문가들은 그의 '회화 작품'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실제 건축물에서 어떻게 공간 연출을 실현하게끔 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흔하지 않은 전시 내용을 이끌어냈다.

전시는 3년 전부터 준비됐다. 다수의 작품이 공개되는 전시 때문이기도 했지만, 르 코르뷔지에의 면모를 한 전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체험프로그램은 '통나무집 특별관'이다. 르 코르뷔지에가 여생을 보냈던 니스의 휴양지 카프 마르탱(Cap Martin)에 소재한 통나무집, 카바논(Cabanon)을 그대로 전시장에 재현한 것이다. 4평이라는 다소 협소

한 면적이지만 르 코르뷔지에는 그의 모듈러 이론을 바탕으로 카바논을 설계, 건립했다. 알려졌다면 니스 현지의 카바논은 하루에 2팀만 관람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 전시를 위해 카바논을 찾았던 전시기획팀은 재단 미셀 관장의 협력을 얻어 관람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시장에 그 카바논을 설치할 것을 협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뜻밖의 낭보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바로 7개국에 세워진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17점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물론 재단 측은 몇 년간 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드디어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르 코르뷔지에의 현대 건축물이 세계 인류문화에 공헌한 것을 인정하고 그의 건축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건축언어의 발명"으로 들었다. 이에 이번 전시의 의미가 더할 수 있었는데 재단 측은 한국 측 전시주관 기관을 등재 기념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문화부장관을 비롯, 건축물이 세워진 7개국 대표와 르 코르뷔지에 재단의 앙투안느 피콩(Antoine Picon)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전시와 연계해 전시 기간 중 세계 3대 건축가로 추앙받는 마리오 보타(Mario Botta) 강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롱샹 성당 VR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 다. (글. 황석권 / 사진 제공. 코바나컨텐츠)



영화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은 분야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프랑스 전 문화부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젊은 예술가와 젊은 세대가 양국 교류를 확대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영화는 양국이 가장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특히 강조했다.

영화

- 342 매혹의 서울 Séoul Hypnotique
- 344 크레타이어성영화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교류 특별전
- 348 201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프랑스 특별전 2016 Seoul International Food Film Festival : French Focus
- 350 애니메이션 교류전
- 354 임권택 회고전 Rétrospective Im Kwon-taek
- 356 프랑스 영화감독 회고전
- 360 프랑스 영화 특별전
- 364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La Corée du Sud, Pays aux multiples miracles

젊은 세대가 이어갈 양국의 영화 교류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총감독을 맡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의 말처럼 이번 사업은 “교류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가들의 만남”에 주력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수원 프로그래머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영화·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 결과 영화 행사는 모두 33건. 이를 통해 총 924편의 영화가 상영됐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영화 행사가 16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는 17건이었다.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열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는 수도 파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한국 고전 및 우수 영화 상영을 통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프랑스 관객에게 알렸다. 특히 <임권택 회고전>과 파리에서 한국영화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다채롭게 소개한 <매혹의 서울>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임권택 회고전>은 1962년 데뷔해 2015년 발표한 <화장(REVIVRE)>까지 102편의 영화를 만들어온 임권택 감독의 해외 첫 전작전으로, 준비에만 1년여에 걸쳐 공을 들였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낭트 3대륙 영화제가 공동 주관했다. 2015년 11월, 프랑스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를 내칠 있게 소개해온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 25편이 먼저 선보였고, 이어 12월부터 파리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3개월간 74편이 상영됐다. 한국 영화감독의 전작전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개최된 건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회고전 기간 임권택 감독과 부인 채령 여사, 배우 강수연, 류재립 한국영상자료원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현 이사장) 등이 프랑스 현지 관객을 만나 한국영화사의 생생한 증언을 남겼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는 9500여 명의 관객이,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는 마스터클래스에서 현지 대학생 관객들이 진도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등 6500명의 관객이 모여 열띤 반응을 자아냈다.

이에 앞서 9월 파리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에서 열린 영화제 <매혹의 서울>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의 풍경과 여성, 청소년, 성 문제 등을 담은 한국영화 76편을 통해 65년에 걸친 서울의 삶과 영화의 자장을 파리 관객에게 폭 넓게 소개했다. 프로그래머 뮈리엘 드레퓔스(Muriel Dreyfus)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8개월마다 세계 도시 한 곳을 조명해온 포럼 데 이마쥬의 이 영화제에서 한국의 도시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만 명 넘는 압도적인 관객 수를 기록한 이번 영화제는 봉준호, 홍상수 등 프랑스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감독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거장과 신인 감독의 영화가 고루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총 상영작 74편 중 48편은 프랑스에서 처음 공개된 것. 코미디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장진 감독과 독립영화계 큰손 김일권 프로듀서, 쿼어 영화감독 이송희일, 친 프랑스파 배우로 유명한 한 예지원 등도 현지 관객과 만남을 가졌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열린 프랑스 영화 행사는 한층 다양한 경로로 성사됐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프랑스영화 특별전 <고몽, 영화와 함께한 120년>은 영화제 측이 먼저 프랑스 대표 영화사 고몽 측에 행사를 제안한 후 주한프랑스 문화원의 도움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지원을 받았다. 2015년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프랑스 전 문화부장관과 CJ그룹의 우호적인 만남이 이듬해 CJ 예술영화관 CGV아트하우스에서 프랑스 최신 영화를 소개하는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Dupont 2016’의 개최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접목한 제2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 : 프랑스 특별전>, 파리 각 구역들의 각기 다른 풍경과 삶의 방식을 영화를 통해 소개한 서울역사박물관 프랑스 영화제 <사랑의 파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예술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업영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등 프랑스 영화를 다채롭게 선보이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클로드 를루슈(Claude Lelouch) 감독, 레오 카락스(Leos Carax) 감독,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 등 많은 프랑스 영화계 스타들이 대거 내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성과는 이전까지 양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서로의 영화와 문화가 각국에서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는 데 있다. 특히 앞으로 교류를 주도해야 할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각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들은 이를 토대로 영화가 양국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에서 한국영화가 일상적으로 상영되는 일이, 또 그 반대의 풍경이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다. (글. 나원정)

매혹의 서울 SÉOUL HYPNO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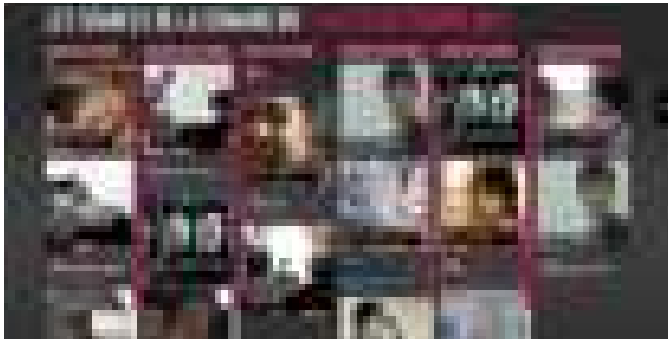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09.15-2015.11.01.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

주관기관

한국: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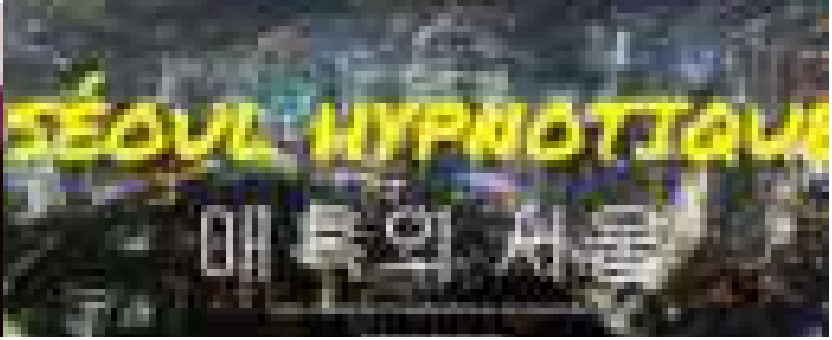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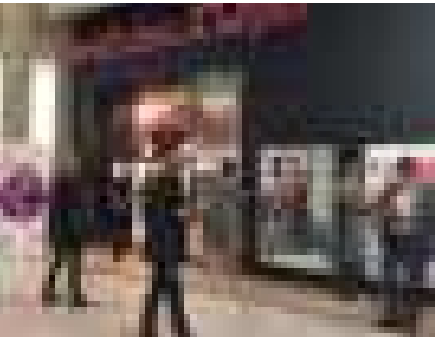
매혹의 서울 프로그램

도시의 풍경을 포착해 보여주는 ‘포럼 데 이마쥬(Forum des Images)’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서울의 모습이 담긴 한국 영화를 <매혹의 서울(Séoul hypnotique)>라는 주제 아래 프랑스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2015년 9월 15일부터 48일 간 이어진 <매혹의 서울>에서는 총 76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됐다. 포럼 데 이마쥬는 파리에서 운영하는 영상문화센터로, 매년 20개의 필름 페스티벌과 이벤트를 통해 2000회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매혹의 서울>이 프랑스 현지에서 개최되기까지 포럼 데 이마쥬와 한국영상자료원(KOFA)은 끊임없는 자료 교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양국 영화 관련 기관의 협력 강화, 향후 프로그램 교류 기회 등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포럼 데 이마쥬는 <매혹의 서울>에서 상영할 영화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선정 기준을 세웠다. 거장의 영화, 신예 감독의 영화, ‘서울’과 ‘도시의 풍경’,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명, ‘한’에 대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자 포럼 데 이마쥬는 영화 선정을 위해 150편의 한국 영화를 감상했다.

150편의 목록 중 선정된 영화는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인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1961)을 비롯해 1990년대 이후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홍상수, 박찬욱 감독 등의 대표작과 촉망 받는 신예 감독들의 장단편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선택이었다. 또한, 사회상을 담아낸 문제작과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등이 상영작 목록에 올랐고 이 중 48편은 프랑스 내에서 최초로 공개되어 프랑스 내의 한국 영화 팬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선정된 상영작들을 테마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혹의 서울>의 주테마인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는 장진과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큰 관심이 모였다. 천재 감독이라 불리는 장진 감독의 영화로는 <킬러들의 수다>(2001),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 <하이힐>(2013) 등이 상영되었고,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오! 수정>(2000), <생활의 발견>(2002),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극장전>(2005), <북촌방향>(2011), <우리 선화>(2013) 등이 소개됐다.



확고한 주제 의식을 가진 문제작들은 사회상의 흐름을 볼 수 있게끔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영화를 선보였다. 1950년대의 현실을 담아낸 영화로는 항형모 감독의 <자유부인>(1956), <청춘 쌍곡선>(1956),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1958) 등이 있었다. 1960년대의 영화로는 강대진 감독의 <마부>(1961)가 목록에 올랐으며 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의 영화로는 이장호 감독의 <어둠의 자식들>(1981), <바보 선언>(1983), 배장호 감독의 <꼬방동네 사람들>(1982)가 상영됐다.

지난 2010년 칸느 영화제에서 영화 <사>로 각본상을 수상했던 이창동 감독의 작품 중에서 프랑스 현지의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은 <초록물고기>(1997), <오아시스>(2002)가 있다.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 <바람난 가족>(2003) 또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해 낸 작품으로 평가됐다. 2014년 개봉한 부지영 감독의 <카트>까지 선보이며 한국 사회의 변화상과 문제적 시각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이힐>



영화 교류뿐만 아니라 배우를 통한 색다른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대표 감독 장진과 독립영화계의 거목 이송희일, 프로듀서 김일권, 20여 년간 한국 영화의 거장들과 함께 작업해 온 연기파 배우 예지원이 직접 관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프랑스 내에서의 한국 영화를 통한 한류를 선도하기도 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매혹의 서울>은 총 관람객 1만 1118명을 기록하며 한국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영화 관계자, 관객 모두가 한국 영화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매혹의 서울>에 대한 프랑스 관객들의 반응은 현지에서도 놀랄 정도였다. 이에 해 포럼 데 이마쥬 관계자는 관람객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괴물>(2006), <국제시장>(2014)같은 한국 내 흥행작들은 프랑스 관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고 전했다. 연령대별 선호 영화 장르도 두드러졌는데 중장년층은 <청춘 쌍곡선>과 같은 고전 영화를, 젊은 관객은 <무산일기>(2010)와 같은 문제작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혹의 서울>을 성공적으로 이끈 포럼 데 이마쥬는 앞으로도 한국 영화 소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포럼 데 이마쥬의 로랑스 에르즈베르(Laurence Herszberg) 대표는 “포럼 데 이마쥬는 늘 테마를 가지고 영화를 소개하는데 대부분 인간 군상에 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빠지지 않고 소개될 것”이라며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만의 위치가 있다. 한꺼번에 여러 편이 소개된 것이 이례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랑스 에르즈베르 대표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 프로그램을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열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 최재욱 / 사진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크레테이여성영화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교류 특별전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제38회 크레테이여성영화제(Festival de Films de Femmes de Creteil):

한국 특별전

2016.03.18-2016.03.27. 메종 데 아르(Maison des Art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랑스 특별전

2016.06.02-2016.06.08. 메가박스 신촌

주관기관

한국: 서울국제여성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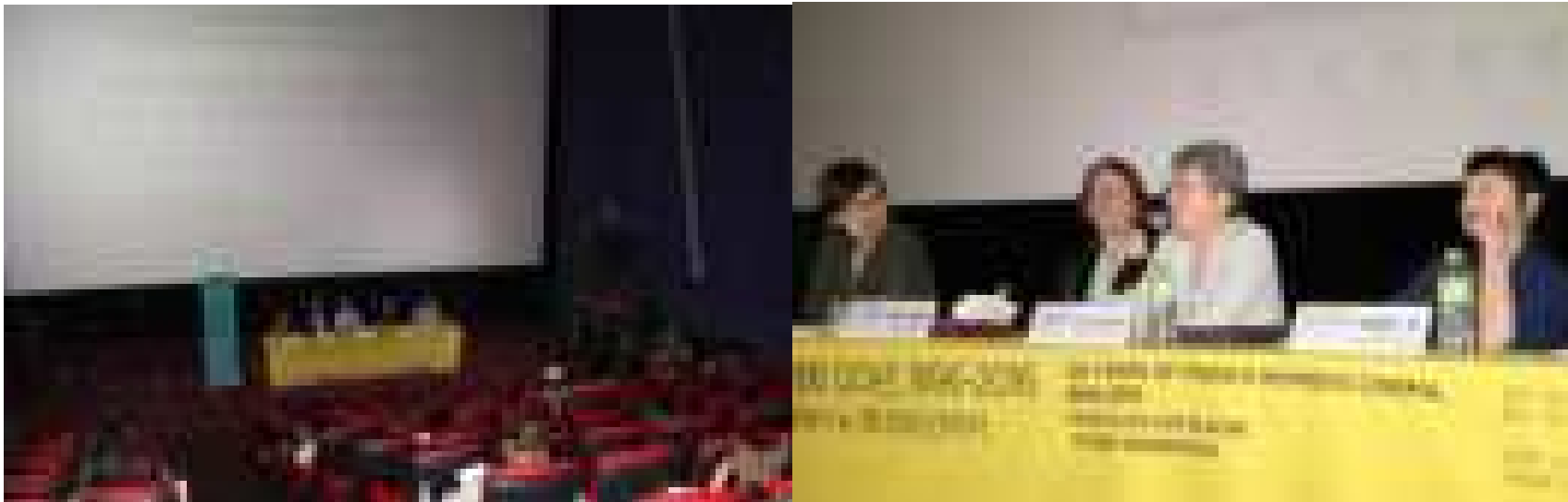
프랑스: 크레테이여성영화제(Festival de Films de Femmes de Creteil)

프랑스 '크레테이여성영화제(Festival de Films de Femmes de Creteil)'는 유럽의 여성 영화제 중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해외의 선배격인 크레테이여성영화제에게서 여러 조언을 듣고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 1990년대 후반 크레테이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마침 그때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시리즈가 완성되었고, 크레테이여성영화제는 <낮은 목소리>를 초청작으로 선정했다. 그 리하여 변영주 감독을 비롯해 당시 한국의 여성영화제 관계자들이 함께 크레테이를 방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랜 우애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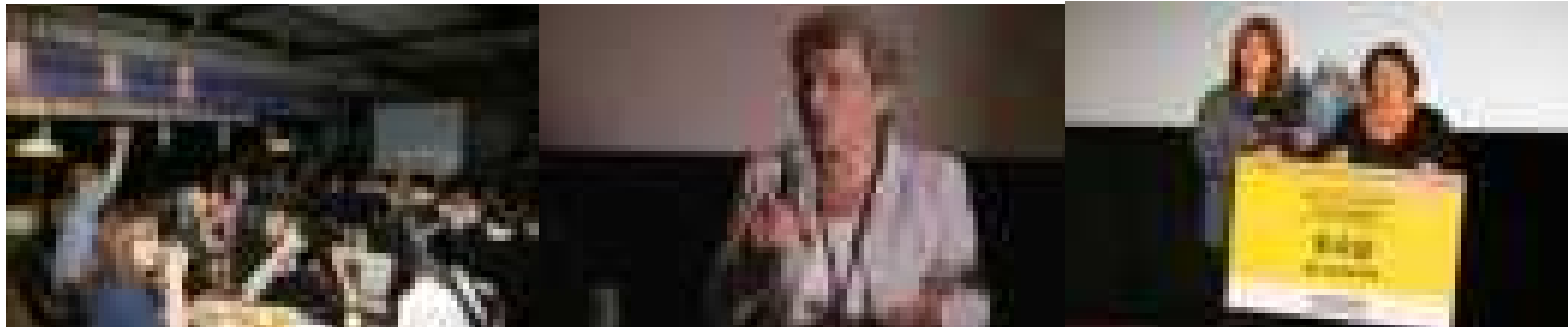
2014년 가을, 프랑스 크레테이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재키 뷔에(Jackie Buet)가 서울에 왔다. 평범한 교사였던 그녀는 1979년 당대의 페미니즘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교사직을 그만두고 친한 친구와 함께 소규모의 여성영화제를 시작한다. 그렇게 프랑스의 한 지방 도시에서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지향했던 영화제는 이제 유럽의 여성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닌 영화제가 되었다. 재키 뷔에는 201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세계여성영화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Network) 미팅에서부터 논의해오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크레테이여성영화제간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재키 뷔에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이전에 베를린에서 만나 논의했던 영화 프로그램을 문서로 정리해 두 영화제가 준비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했고, 이후 자국 영화 초청에 있어 실질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서울에서는 최초의 여성감독인 알리스 가-블라쎈(Alice Guy-Blaché) 감독의 무성영화를 피아노 연주와 더불어 상영하는 등 프랑스 여성영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프랑스 특별전 및 관련 행사를 기획했다. 한편 크레테이에서는 상업 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 진영에서 영화 작업을 하는 한국 여성감독의 영화에 주목했다. 기존의 주류 영화에 대한 도전과 진보로서의 여성영화에 충실하며 그러한 뚜렷한 정체성이 약 40년 동안 여성영화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험적이며 비상업적인 영화를 여성영화로 놓다보니 여성감독이 다룬 여성의 현실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영화' 개념보다는 여성감독(약간의 남성감독 쿼터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이 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 급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를 주로 초청한다. 여성에 의한 여성의 사회적 현실을 다룬 전통적인 여성영화 개념에 충실한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는 영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두 영화제는 영화제가 놓여 있는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각기 다르게 여성 영화를 이해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영화에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색깔을 입히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2014년의 만남 이후 두 영화제는 이메일과 화상전화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했다. 양국은 수많은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통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계속 다듬어 나갔으며,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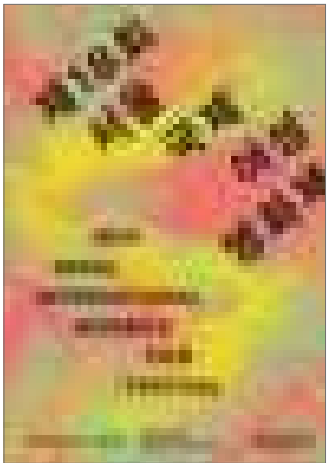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영화인의 밤'

쥘비에브 셀리에 교수

아시아 단편 경선 시상

2015년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 세계여성영화제 네트워크 미팅에서 크레테이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인 노르마 게바라(Norma Guevara)를 다시 만나 프로그램을 확정지었다. 사실 2015년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약 4년 동안의 공동 프로젝트 관계 속에서 이뤄졌던 서울에서의 프랑스 특별전은 이들 크레테이여성영화제 인사들만이 아니라 프랑스 칸느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프로그램 위원인 벤자맹 일로(Benjamin Illos), 보르도 몽테뉴 대학 영화학과 교수 쥘비에브 셀리에(Geneviève Sellier),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프로그래머인 이리스 브레(Iris Brey), 영화연구자 브리짓 롤레(Brigitte Rollet)와 스테판느 제라르(Stéphane Gérard), 르 집티스 극장(Cinema Le Gyptis) 프로그래머 줄리에트 그리몽(Juliette Grimont), 프랑스 여성영화인 모임,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의 비평가 샤를로트 가르송(Charlotte Garçons) 등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새롭게 맺은 네트워크이며 이렇듯 많은 프랑스 현지 영화인들의 도움에 의해서 프랑스 특별전은 완성되었다.

특히 제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자신의 연출작인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I'm not Feminist, but...)>(2015)을 상영하고 초청 방문한 바 있는 플로랑스 티소(Florence Tissot)의 도움이 지대했다. 프랑스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프랑스 특별전 관련 포럼 초청인사에서 프랑스 여성영화 관련 출판물인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1896-2016: 알리스 가-블라쎈에서 뉴 제너레이션까지>의 필자를 소개하는 등 크레테이여성영화제 인사들과 더불어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 프랑스 특별전에 커넥터 역할로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영화제 초청감독에서 나아가 기념사업 덕분에 이어진 티소와의 인연은 크레테이여성영화제 한국 영화 특별전 때 직접 만남으로 크레테이여성영화제에서 나아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도 공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 더 큰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든든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이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또 다른 프랑스 여성영화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



약 4년에 걸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크레테이여성영화제가 준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기념사업은 2016년 3월 19-29일 제38회 크레테이여성영화제에 서 처음 선을 보였다. 한국 여성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은 크레테이 측은 한국 여성독립영화 특별전 형식으로 우니 르콩트(Unie Lecomte) 감독의 <여행자>(Une Vie Toute Neuve)>(2008)를 비롯해 <탐욕의 제국>(The Empire of Shame)>(홍리경, 2013), <거미의 땅>(Tour of Duty)>(김동령, 박경태, 2013), <파스카>(Pascha)>(안선경, 2013) 등 총 네 작품을 초청하고 홍리경, 김동령, 안선경, 그리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인 필자 및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최진아 등 총 5명을 한국에서 초청했다.

크레테이여성영화제 측은 영화제 소개 트레일러를 가아금 소리와 해서 한복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추는 화면으로 만들어 한국 독립여성영화 특별전을 축하해 주었다. 크레테이유에 이어 6월 2일에 개막했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알리스 기블라쉴의 영화에 맞춰 강현주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한 것은 크레테이여성영화제의 한국 여성독립영화에 대한 존중에 대한 화답이자 상호교류의 하모니였다.

한국 초청작 중 첫 상영작인 <거미의 땅> 상영에 앞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무대 인사를 하며 한국 영화 특별전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일환임을 알렸다. 프랑스 관객들은 한국의 현실과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경청했고, '한국영화'가 아니라 '여성(감독의) 영화'라는 데에서 이들 영화의 독자성을 찾았다. 며칠 후에 열린 한국 독립여성영화 포럼에서는 두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파리한국영화제 프로그래머, 크레테이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인 노마 게바라, 그리고 세 명의 한국 여성감독이 함께 자리해서 한국독립영화와 여성 감독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6월 2일 시작된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개막식에서부터 무성영화 상영과 피아노 연주 이벤트를, 공식 행사인 여성영화인의 밤 행사의 부제를 '프렌치 나잇'으로 해서 한국에서 방송 활동 중인 이다 도시(Ida Daussy)를 사회자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 영화인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많은 여성영화인들이 국내 영화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네트워크를 맺었다. 총 28편의 프랑스 여성감독의 영화 상영과 GV(관객과의 대화), 파티 등에 이어 '프랑스 여성영화 120년, 1896-2016: 알리스 기블라쉴에서 뉴 제너레이션까지' 포럼을 진행하여 프랑스에서 초청된 주느비에브 셀리에, 재키 뷔에, 노마 게바라, 자클린느 코(Jacqueline Caux, <내 머리 속에 숨겨둔 당산> 감독) 등 총 네 명의 여성영화인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프랑스 영화사를 읽고, 동시대의 프랑스 여성 영화의 산업 현황 및 정책 전반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예술영화 국가로만 알려진 프랑스 영화를 여성영화 국가로 알렸을뿐 아니라, 여성영화제라는 장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화와 담론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우니 르콩트 감독, <여행자>
김동령, 박경태 감독, <거미의 땅>

말로만 들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이번 상호교류 사업을 통해 처음 초청 방문하게 된 재키 뷔에는 데일리 인터뷰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미라클'이라고 한 바 있다. 상호교류 사업은 그만큼 유럽과 아시아를 '여성'과 '여성'로 연결하여 공통 감각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영화제에 참여했던 전 세계 여성영화인들은 더 가깝고 더 협조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보다 나은 여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김선아 / 사진 제공.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 프랑스 특별전

2016 SEOUL INTERNATIONAL FOOD FILM FESTIVAL : FRENCH FOCU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5.26-2016.05.31. 메가박스 코엑스촌

주관기관

한국: 메타플레이

프랑스: 알리망타시옹 제네랄(Alimentation Generale)



2016년 제2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음식영화제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특별전 2016: 프랑스의 맛(In Focus 2016: Taste of France)’을 선보였다. 서울 국제음식영화제 황해림 프로그래머는 특별전 국가로 프랑스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영화의 나라이자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와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며 “특별전을 기획한 것은 이번 2회가 처음이다. 영화제 콘셉트를 기획하면서 특별전으로 먼저 프랑스를 생각했다. 국가별로 포커싱해 한 국가의 음식, 영화, 문화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영화제를 주관한 메타플레이는 제1회 서울국제음식영화제(2015년 7월 9일-12일)를 마친 후, 2회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먼저 프랑스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이미 1회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프랑스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의 밤 행사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1회 때, 프랑스 영화 <브라썬 부자의 맛있는 가업 잇기(Step Up to the Plate)>, <포도밭의 후계자(You will be my son)>를 상영했고, 프랑스문화원 측에서 일반 관객을 초대하는 리셉션을 후원했다. 이런 협력 관계를 계기로, 영화제 측에서 2회 때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특별전’을 준비해보자고 제안했다. 1회 행사에 만족한 프랑스문화원 측도 다시 특별전에 후원을 약속했다. 영화제 측은 프랑스 음식 관련 영화를 리스트업해서 문화원에 전달한 후, 어떤 영화를 상영할 것인지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 고전부터 최신작까지, 영화사 100년을 아우를 수 있는 9편의 장단편을 선정했다. 클래식 단편 무성영화를 상영하는 개막작 섹션 ‘영화가 음식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루미에르 형제,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éliès) 영화가 상영되었다. 장편은 프랑스 고유의 음식 문화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코미디인 <맛있게 드십시오(L'ail ou la cuisine)>,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여성 셰프의 이야기 <엘리제궁의 요리사(Haute Cuisine)> 등이 소개되었다. 영화제 전체 상영작 58편 중 프랑스의 영화는 9편으로 비중이 꽤 높았다.

또한 프랑스문화원에서는 영화제 측에 프랑스 파트너로 식문화 플랫폼(매체)인 ‘알리망타시옹 제네랄(Alimentation générale, AG)’의 대표 피에르 이베르나(Pierre Hivernat)를 연결시켜 주었다. ‘알리망타시옹 제네랄’은 프랑스의 식문화 관련 전문가들로, 영화제 파트너로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알리망타시옹 제네랄’은 영화제의 주요 부대행사인 ‘시네푸드 이벤트’를 직접 진행했다. ‘알리망타시옹 제네랄’은 프랑스에서 <씨네푸드(Cinéfoo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화 상영 후, 음식을 먹고 프랑스 영화의 명장면을 보면서 문제를 맞추는 일종의 음식 영화 퀴즈다. 이번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서는 ‘씨네푸드 프로그램’을 영화제에서 소개해, 와인바 ‘오 그랑베르’ 대표이자 <생장고를 부탁해> 등의 방송 활동을 하는 박준우 작가가 같이 행사를 진행했다. 기존의 영화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음식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벤트, 시네마 푸드
맛있는 토크

프랑스의 밤



프랑스 특별전의 공식 리셉션인 ‘프랑스의 밤-보나페티’는 <엘리제궁의 요리사> 상영 후 진행되었다. 프랑스 구르메의 샤퀴테리, 르 꼬르동 블루-숙명아카데미 케이터링 등의 지원으로 다양한 프랑스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찬사를 받았다. 프랑스 대사관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대사가 참석해 “한국-프랑스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계속되길 바라며, 더욱 다양한 프랑스의 음식과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내 셀러브리티들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리셉션에 참여했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단순히 음식영화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이 큰 특징이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의 얼굴이자 대표 프로그램인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Dining Cinema)’에서도 프랑스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메가박스의 부티크M이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으로 활용되면서 1회 ‘치맥 영화관’보다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보는 ‘디너타임@스위트’에서 <브라썬 부자의 맛있는 가업 잇기>, 다양한 주류를 즐기는 ‘해피아워@스위트’에서 <초콜릿 로맨스(Romantics Anonymous)>, <포도밭의 후계자>가 상영되었다. 또 주요 상영작들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감독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맛있는 토크’가 진행되었다. <브라썬 부자의 맛있는 가업 잇기>의 폴 라코스테(Paul Lacoste) 감독, <상상속의 만찬(Imaginary Feasts)>의 안 조르제(Anne Georget)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포도밭의 후계자>는 박준우 작가와 이수정 식음료문화산업연구소 소장이 대화를 나누었다.

1, 2회를 진행하며 프랑스문화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서울국제음식영화제는 다시 3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프랑스 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영화제 측은 프랑스 영화사의 걸작들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하는 토크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면서 영화제의 색깔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영화제와 문화원의 긴밀한 협업 관계로 프랑스 특별전이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음식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았지만, 앞으로 영화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객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이나 프랑스 예술 및 문화 유산을 선호하는 관객층과의 소통이 영화제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제는 프랑스문화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에도 영화를 통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글: 전종혁 / 사진제공: 메타플레이)

애니메이션 교류전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 한국특별전¹

2016.06.13-2016.06.18.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랑스 특별전_더 프렌치 이어²

2016.10.21-2016.10.25. 한국만화박물관 외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의 미래, 2030>³

2016.07.27-2016.08.21. 한국만화박물관

주관기관

한국: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¹²,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³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¹²,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드 라 방드 데쎬네 에 드 리마쥬(Cité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³

문화강국 프랑스는 칸느 영화제와 클레르몽 페랑 국제단편영화제, 그리고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각각 상업영화와 단편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각 분야에 서 세계 최고 수준과 규모의 영화제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일 대 도약을 꿈꾸고 있는 한국이 프랑스 애니메이션 업계의 노하우를 한 발 더 깊이 배 우고 교류의 장도 보다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를 기념해 준비된 일련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전은 의미가 크다.

2016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 한국특별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애니메이션영화제는 프랑스 안시 지 역에서 매년 6월 열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에서 먼저 시작됐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는 디즈니, 픽 사 등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매해 자사의 신작을 가장 먼 저 소개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은 영화제다. 장편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TV 영 화나 시리즈, 교육 프로그램, 신인 작가들의 단편 애니메이션 등 상업, 비상업 애니 메이션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는 프로젝트 마켓, 필름 마켓도 함께 운영하며 시너지를 높이고 있어 세계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한국과의 인연은 1999년 이성강 감독의 단편 <덤불 속 의 재>를 초청한 것으로 처음 시작했다. 안시는 이성강 감독의 후속작 <마리 이야기 >와 <카이 : 겨울 호수의 전설> 등을 상영작 목록에 차례로 올리며 한국의 아티스트 를 프랑스 및 전 세계 관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돼 지의 왕>, <사이버> 등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애니메이션에 담아내곤 하는 연상호 감독과 2014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단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다희 감 독 등도 영화제를 통해 프랑스가 사랑하는 한국 작가로 발돋움했다. 안시국제애니 메이션영화제는 성백엽 감독의 <오세암>에 장편부문 최고상을 수여하던 2004년, '한 국특별전'을 개최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장편 경쟁 부문 초 청작이었던 <오세암>을 비롯해 <왕후심창>, <망차>, <마리아 이야기>, <원더풀데이즈> 등 최신작 5 편을 초청하면서 한국의 젊은 애니메이터들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그리고 2016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두 번째 한국특별전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한국특별전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점으로 한 것이라 더욱 무 게가 실렸다. 2014년 1월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조직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대표 영화제들을 매칭하자는 기획이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영화, 애니메이션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부산국제영화제 이수원 프로그래머의 주도로 칸느 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 제,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클레르몽 페랑 국 제단편영화제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가 파트너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특별전이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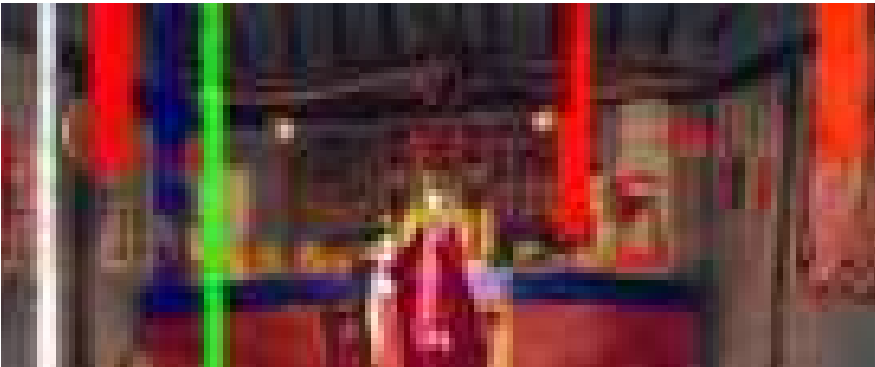
양국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표들은 2015년 1월, 인도에서 만나 안시에서 열릴 한 국특별전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안시는 연상호 감 독의 독립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다다쇼'에 포커스를 맞춰 연상호 감독 의 신작 <서울역>을 상영하고 '엔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가 제작한 안재훈, 한혜진 감독의 <무녀도>의 워크 인 프로그램을 여는 등 18편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초청 하는 것으로 두 번째 한국영화 특별전의 일개를 찼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더불어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기간 동안 '한국 애니메이 션의 밤' 행사를 주관해 아티스트들의 교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연상 호, 정다희, 이성강 감독 등 한-불 애니메이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랑스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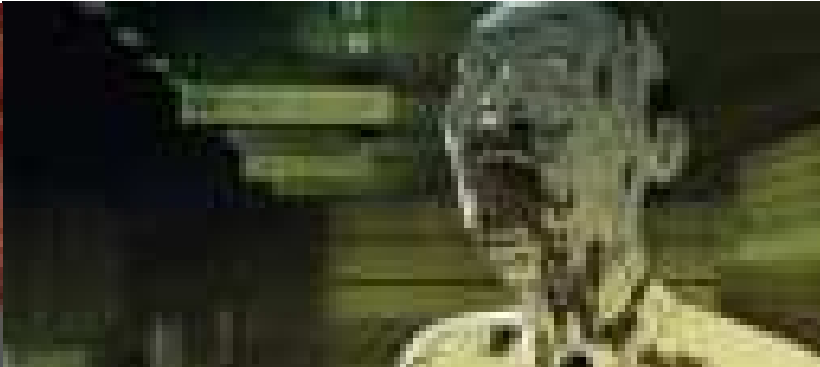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역시 프랑스 특별전을 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발 빠르게 시작했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이미 2005년 에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MOU를 체결하고 2015년에는 세바스티앙 스페러 (Sebastien Sperer)프로그래머를 장편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프랑스 의 우수한 작품들이 모이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제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쳐왔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먼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을 받은 2016년의 특별전 이름을 '더 프렌치 이어'로 정하고 그동안 영화제와 오랜 인

연을 맺고 있던 감독과 PD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프랑스 특별전을 본격화했다. 부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설국열차>의 원작자 뱅자맹 르그랑(Benjamin Legrand), 애니메이션 연출가이자 제작자, 각본가,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리마쥬 (Folimage)' 스튜디오 대표 자크 레미 지레르(Jacque-Remy Girerd), '2015-2016 한- 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은 부산국제영화제 이수원 프로 그래머를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안시를 통해 프랑스에 잘 알려진 이성강 감독,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사라 사이단(Sarah Saidan) 감독도 기타 부문 심사위원으로 초청했다(뱅크맨 르그랑은 건강 악화 문제 로 결국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영화제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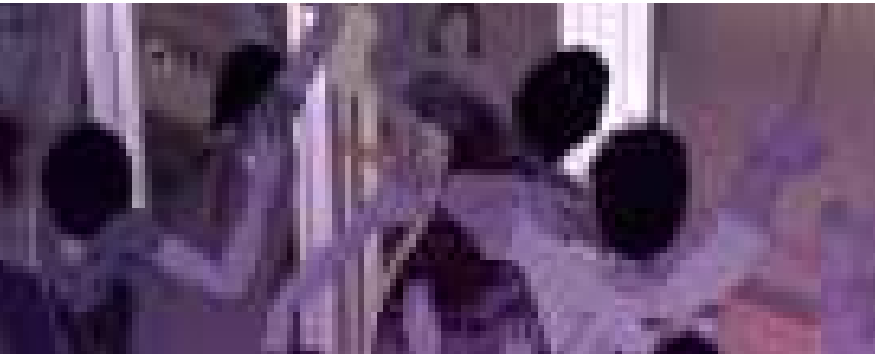
특별전에서는 '화이트/레드/블루 3색'과 '프랑스 시(時) 애니메이션', '실뱅 쇼메 (Sylvain Chomet) 전작전' 등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 1994년부터 2016년까 지의 프랑스 애니메이션 56편을 상영하고 이들 작품에 참여한 프랑스 감독과 프로 듀서들을 초청해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화이트/레드/블루 3색'전은 프랑스의 애 니메이션 스튜디오 세 곳, JSBC(Je Suis Bien Content) 프로덕션, 폴리마쥬 스튜디오, 세크르블루(Sacrebleu)를 각각 화이트, 레드, 블루에 대입해 집중 조명하는 자리였 다. 1996년 마크 주셋(Marc Jousset)과 프랑크 에킨시(Franck Ekinci)가 설립한 JSBC 는 <페르세폴리스(Persepolis)>로 2007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비롯해 세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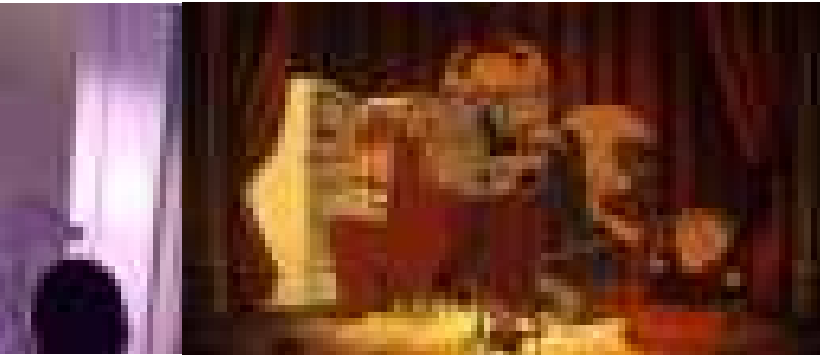
제18회 2016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무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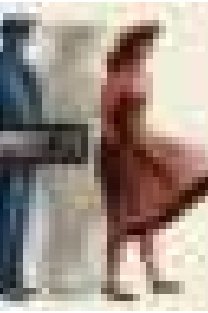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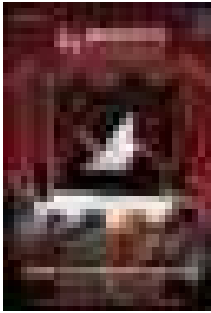
<서울역>



<서울역>



<벨빌의 세상둥이>





제40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참석한 <서울역> 이동하PD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스페셜 토크



화제에서 12개의 상을 휩쓴 프랑스의 대표 스튜디오이다.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35m 필름 상영을 시도한 장편 <페르세폴리스>와 함께 <레이징 블루스(Raging Blues)>(2004)부터 <스마트 몽키(Smart Monkey)>(2014)까지 JSBC 프로덕션의 단편 6편을 소개했다. 또 1981년 설립돼 장편 및 단편 애니메이션과 TV 시리즈도 만들고 있는 폴리마주 스튜디오의 단편 8편과 1999년 설립된 이후 칸영화제와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꾸준히 작품이 선정되고 있는 세크르블루의 첫 애니메이션 장편 <사샤의 북극대모험(Long way North)>(2015)과 단편 8편도 상영작 리스트에 올랐다.

‘프랑스 시 애니메이션’에서는 <고엽>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Jacques Prevert)의 시를 형상화한 <새의 슬픔>, <줄업>, <무성한 숲> 등 13편과 <미라보 다리>를 쓴 모더니즘 작가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모서라>, <미라보 다리> 등 13편을 관객에게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전은 민음사와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앙투안느 코폴라(Antoine Coppola) 교수에게 도움을 받은 해설을 곁들여 전문성을 더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의 애니메이터 실뱅 쇼메 감독에 포커스를 맞춘 ‘실뱅 쇼메 전작전’도 올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이었다. 실뱅 쇼메 감독의 데뷔작인 <노부인과 비둘기>(1997)부터 국내에서 극장 개봉한 <벨빌의 세 쌍둥이>(2003)와 <일루셔널리스트>(2010), 그리고 실사영화도 전작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2013) 등 6편을 상영하고 관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 클래스 ‘실뱅 쇼메의 비밀정원’을 진행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했다. 10월 22일에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서 실뱅 쇼메 감독은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가 기술적, 예술적으로 조화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를 밝히며 현재 작업 중인 신작 <1000마일>의 아트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파트너 영화제인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 10편을 모아 특별전을 선보였다.

영화제 초청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했다. 개막식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이 참석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축하했으며 실뱅 쇼메 감독, <페르세폴리스>의 프로듀서이자 아트디렉터인 마크 주셋, 세크르블루의 설립자이자 프로듀서인 론 다인스(Ron Dyens) 등이 내한해 관객들과의 스페셜 토크와 무대인사에 참석했다. <손 없는 소녀>의 세바스티앙 로덴바흐(Sébastien Laudenbach), <내 이름은 꾸제트>의 클로드 바라스(Claude Barras), <윈도 호스>의 앤 마리 플레밍(Ann Marie Fleming) 등 국제경쟁 장편 부문 감독들도 빠짐없이 한국을 찾았으며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미카엘 마린(Mickaël Marin) 운영위원장과 세바스티앙 스페러 프로그래머도 프랑스 특별전을 축하하기 위해 내한했다. 2016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랑스특별전은 김성일 프로그래머와 세바스티앙 스페러 프로그래머, 앙투안느 코폴라 교수 등이 필자로 참여한 한 권의 책 <일루셔널리스트>로 엮여 2016년 10월 한정판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6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의 미래, 2030>

한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된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도 지난 7월 27일부터 5일간 열렸다.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만화축제인 프랑스의 앙굴렘국제만화축제(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d’Angoulême)에 지속적으로 참가, 관계를 이어오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만화 산업과 콘텐츠 교류의 방법을 고민해 왔다. 올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사업으로 인증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펼칠 수 있게 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한국과 프랑스 만화가 22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만화의 미래, 2030>을 핵심 행사로 내세웠다. 한상정 디렉터가 앞장선 <만화의 미래, 2030>은 프랑스의 국립만화진

2016 부천국제만화축제, 글로벌만화도시 네트워크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페르세폴리스>



흥기관인 ‘시테 엔테르나시오날 드 라 방드 데씨네 에 드 리마쥬(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와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공동 기획으로 꾸러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만화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고 그것을 예측해 본다는 기획의도 아래 국립과학관과의 도움을 얻어 만화와 과학, 미래라는 키워드를 조합해내는 행사였다. 만화가들의 상상력을 담아낸 <만화의 미래, 2030>은 책으로 엮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행사 기간 중 열린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 간의 MOU 체결일 것이다. 만화와 관련된 조직 및 활동에 대한 파트너십을 약속한 이번 MOU 체결은 만화자료 교환을 구체화하고 양국 만화도서 실문자료와 관련 정보를 서로 제공하며 전시물 공동생산, 전문가의 포럼과 컨퍼런스 개최 등을 함께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7월 29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희재 이사장, <만화의 미래, 2030>의 한상정 전시디렉터, CIBDI 피에르 룬게리티(Pierre Lungheretti) 관장, 카트린느 페레이롤(Catherine Ferreyrolle) 도서관관장 등이 참석해 향후 보다 활발한 교류를 기대케 했다. 웹툰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만화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더욱 단단히 했다는 점 역시 올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일군 성과다.

(글: 송순진 / 사진 제공: 각 주관기관)

임권택 회고전

RÉTROSPECTIVE IM KWON-TAEK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11.24-2015.12.01. 낭트 3대륙 영화제(Festival des 3 Continents)

2015.12.02-2016.02.29.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

주관기관

한국: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 낭트 3대륙 영화제(Festival des 3 Continents),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영화계에서 준비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임권택 회고전(RÉTROSPECTIVE IM KWON-TAEK)이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한국 측 주관자로 참여했고, 프랑스에서는 낭트 3대륙 영화제(Festival Des 3 Continents)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가 참여하여 3개월 여에 걸친 대규모 회고전을 진행했다. 그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영화들을 프랑스에 소개해 온, 작지만 내실 있는 낭트 3대륙 영화제가 먼저 임권택 감독의 영화 25편을 선정하여 영화제 기간 동안 특별 상영을 진행했고, 그 뒤를 이어 세계 영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임권택 감독의 전작전이 개최되었다.

임권택 감독(1935~)은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한 뒤 2015년 <화장>까지 102편의 영화를 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데뷔 초기 액션 영화를 비롯한 장르 영화를 다수 만들었던 임권택 감독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2002년 칸영화제에서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수상했고, 2007년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Légion d'honneur Chevalier) 훈장을 받는 등 프랑스와 임권택 감독의 인연도 상당히 깊은 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10년 최초로 임권택 감독의 전작전을 진행한 바 있다.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전작전에 이어 이번 프랑스에서의 전작전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해외에서의 첫 전작전으로,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체계적인 복원 작업을 통해 프랑스에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과 그의 영화를 70편 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이 행사를 위해 2014년 가을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장프랑수아 로제(Jean-François Rauger) 프로그래머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용관 위원장이 부산에서 만났다. 같은 해 겨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전작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낭트 3대륙 영화제가 프랑스 측의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의 복원뿐 아니라 30여 명에 가까운 제작자들과 접촉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저작권자 미상 영화들의 법정 허락 승인 등 법적 문제를 담당했다. 또한, 기존 번역이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번역상 주의를 요하는 작품들에 대해 새로운 번역을 진행하고 마스터 클래스를 위한 동영상 클립을 제작했다.

2015년 11월과 12월, 임권택 감독과 부인 채령 여사, 류재림 한국영상자료원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배우 강수연 그리고 영화평론가 겸 감독 정성일 등이 낭트 3대륙 영화제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행사에 참석했다.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임권택 감독은 자신의 영화 인생을 돌아보며 “영화는 감독이 살아온 만큼 짙을 수 있는 것이었더라”고 회고했으며, 평론가들 및 관객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어와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는 낭트대학교 학생들은 서편제 클립이 상영되는 동안 진도아리랑을 따라 부르기도 했으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마스터 클래스 이후에 한동안 기립 박수를 쳤다.

12월 2일 파리의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의 개막식에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프레지던트이자 유명 감독인 코스타 가브라스(Costa Gavras), 디렉터 세르주 투비아나(Serge Toubiana), 프로그램 디렉터 장프랑수아 로제를 비롯하여 칸느 영화제의 ‘비평주간’ 예술감독인 샤를 테송(Charles Tesson), 주불 한국대사인 모철민 대사 등이 참석했고, 개막작으로 <짜코>가 상영되었다. 테러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파리의 시네마테크에는 400석이 넘는 관객석 거의 대부분을 메운 관객들이 임권택 감독과 그의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립 박수로 환영했다. 12월 3일에는 장 프랑수아 로제의 사회로 임권택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다. 임권택 감독 영화에 대한 진지한 질문 그리고 임권택 감독 영화가 표상하는 한국 영화와 한국 사회 및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오고 간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낭트 3대륙 영화제에서는 기간 중 6,500여 명의 관객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는 9,500여 명의 관객이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프랑스에 아시아 영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온 낭트 3대륙 영화제와 세계 영화의 시작점이자 도착점이라 할 수 있는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영화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글. 박선영 / 사진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 영화감독 회고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클레르 드니(Claire Denis) 회고전¹

2016.04.12-2016.05.08. 서울아트시네마

자크 리베트(Jacques Rivette) 회고전²

2016.06.30-2016.07.04. 서울아트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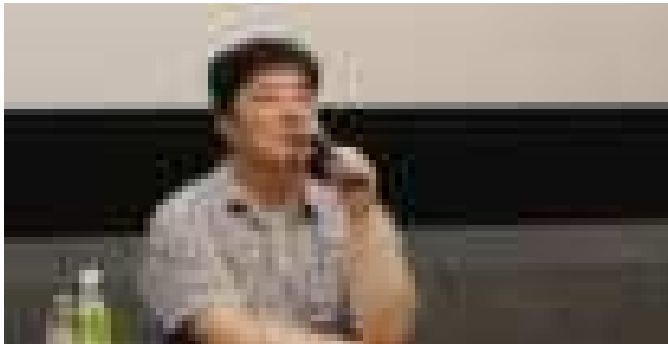
프랑수아 트뤼포 특별전(François Truffaut)³

2016.07.12-2016.07.31. 시네마테크

주관기관

한국: (사)한국시네마테크협회^{1,2}, 한국영상자료원³

프랑스: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¹,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³



자크 리베트 회고전 시네토크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영화의 형식과 관념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남긴 감독들의 역사를 자부하는 영화중주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열린 클레르 드니(Claire Denis)와 자크 리베트(Jacques Rivette),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의 회고전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 영화계와 한국의 시네필들이 진정한 영화의 역사를 대면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클레르 드니(Claire Denis) 회고전

2016년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종로 서울극장에 자리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프랑스 출신 감독 클레르 드니의 연출작들을 돌아보는 회고전이 열렸다. 2016년 만70세를 맞은 클레르 드니는 현존하는 여성감독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으로서 자신의 영화를 통해 국가나 민족, 성별에 관한 사회적인 관습과 주류적인 가치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 서울영상위원회 그리고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문화원, 유니프랑스에서 후원한 이번 회고전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해 더욱 뜻 깊은 행사로 거듭났다.

이번 회고전에선 감독 데뷔작인 <초콜렛 (Chocolat)>과 이주민들의 삶을 조명한 <죽음은 두렵지 않다(S'en fout la mort)>와 <35 럼 샷(35 Rhums)> 같은 작품들과 소외 계층의 삶에 주목한 <네네트와 보니(Nenette Et Boni)>를 비롯해 총 16편의 작품을 상영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봉된 이력이 있는 문제작 <돌이킬 수 없는(Les Salauds)> 또한 다시 한 번 관객을 찾았다. 더불어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의 디지털 단편 연출 프로젝트 '디지털 삼인삼색'에 참여한 <어느 여행자의 기억: 디지털 삼인삼색(Jeonju Digital Project 2011)>도 상영작에 포함됐다. 회고전 상영작들은 모두 59회 상영됐으며 949명의 관객이 상영관을 찾았다.

클레르 드니는 200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

는데, 이번 회고전을 위해 직접 서울을 찾으며 다시 한 번 특별한 인연을 이어나갔다. 클레르 드니의 방한과 함께 회고전에서 감독과 관객의 만남을 주선하는 부대행사를 마련했는데, 4월 15일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영 이후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성욱의 진행으로 클레르 드니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4월 16일에도 김성욱 디렉터의 진행으로 <백인의 것(White Material)> 상영 이후에 클레르 드니로부터 직접 작품 제작 과정과 연출의 노하우 등을 듣는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금요일 밤(Vendredi Soir)>의 상영 후 허문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대담을 마련했으며 4월 24일에는 <좋은 직업(Beau Travail)> 상영 이후 파리3대학 영화학 박사인 여금미가 클레르 드니와 함께 영화에 대한 여담을 나누는 시네토크 행사를 진행했다. 클레르 드니 감독이 직접 자신의 회고전에서 자신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행사였다.

이번 회고전은 동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 받는 세계적인 여성감독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넘어, 직접 관객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한국과 프랑스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클레르 드니 역시 회고전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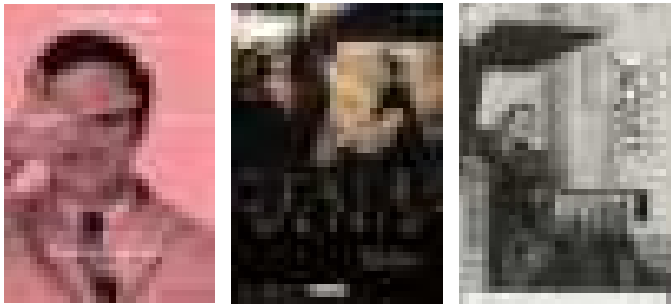
지키며 자신의 말에 경청하는 한국의 관객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클레르 드니 회고전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어울리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크 리베트(Jacques Rivette)의 회고전

2016년 1월 29일 파리의 지택에서 타계한 감독 자크 리베트의 회고전이 한국에서 열렸다.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자크 리베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장 뤽 고다르, 프랑수아 트뤼포, 에릭 로메르(Eric Rohmer) 등 프랑스 누벨바그(Nouvelle Vague)를 이끈 감독 중 하나로, 실험적인 영화 연출 방식을 시도한 감독이었으며 영화비평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 무려 12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지닌 영화를 제작하거나 별도의 사나리오 없이 촬영 현장의 즉흥성을 바탕으로 둔 영화 연출을 시도하며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 주최한 자크 리베트 회고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 서울영상위원회와 함께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의 후원을 통해 개최

클레르 드니 회고전, 시네토크



될 수 있었다. 자크 리베트는 감독으로서 총 29편의 작품을 연출했는데 이번 회고전에서는 데뷔작인 <파리는 우리의 것(Paris Nous Appartient)>부터 유작인 <작은 산 주변에서(36 Vues Du Pic Saint-Loup)>까지, 15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상영작 중에는 1997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누드모델(Le Belle Noiseuse)>을 비롯해 자크 리베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셀린느와 줄리 배 타러 가다(Céline Et Julie Vont En Bateau)>도 포함되었으며 상영 시간만 무려 12시간 30분에 이르는 대작인 <아웃 원(Out 1)>도 포함돼 있다. 8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 작품은 2015년에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한 바 있는데 이번 회고전에서는 그 당시 복원된 디지털 버전을 상영할 수 있었고, 상영시간을 고려해 4회차로 나눠 상영했다.

영화 상영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부대행사들도 마련됐다. 7월 2일에는 <셀린느와 줄리 배 타러 가다>의 상영이 끝나고 영화평론가 이용철과 함께 '이상한 나라의 자크 리베트'라는 주제로 시네토크가 진행됐는데, 자크 리베트의 세계관과 그의 영화 연출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7월 10일에는 <누드모델> 상영 후 영화평론가 한창호가 '로셀리나와 리얼리티'라는 주제로 자크 리베트의 영화를 통해 전통적인 영화적 리얼리즘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네토크가 진행됐다. 또한 7월 1일과 9일, 14일, 15일, 17일에는 각각 <파리는 우리의 것>과 <마리와 줄리앙 이야기(Histoire De Marie Et Julien)>,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 <작은 산 주변에서> 그리고 <아웃 원>의 7,8번째 에피소드 상영이 끝나고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 디렉터인 김성욱을 통해 영화 해설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회고전에서 상영된 15편의 영화는 각각 두 번에 걸쳐 상영됐는데 1456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프랑스 거장의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의 시네필들에게 프랑스 영화의 오랜 전통과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회고전이 더욱 큰 의미를 얻게 됐다.

프랑스어 트뤼포(François Truffaut) 특별전

자크 리베트 회고전이 진행되는 동안 1960년대 프랑스 누벨바그 시네마의 가수이자 세계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감독 프랑스어 트뤼포 특별전도 개최됐다. 이번 특별전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영상자료원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의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 간,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테크KOFA 1,2관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에선 프랑스어 트뤼포가 제작한 28편의 영화 중 22편의 작품이 상영됐으며 트뤼포에 관한 다큐멘터리 1편을 포함, 총 23편의 작품이 관객에게 무료로 공개됐다.

특별전에서 상영된 작품들은 누벨바그의 신호탄으로 꼽히는 <400번의 쿠타(Les 400 Coups)>와 <피아니스트를 쏘라(Tirez Sur Le Pianiste)>, <쥘 앤 짐(Jules Et Jim)>과 같이 프랑스어 트뤼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은 물론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됐다. 특히 영화 촬영의 고뇌와 열정이 반영된 자전적인 영화 <아메리카의 밤(La Nuit Americaine)>과 트뤼포 감독의 페르소나라 할 수 있는 배우 장 피에르 레오(Jean Pierre Leaud)>와 함께 작업한 <앙투안느와 콜레트(Antoine et Colette)>, <도둑 맞은 키스(Baisers Voles)> 등 소위 '앙투안느 드와넬 시리즈'라 일컫는 작품들을 포함해 총 22편에 달하는 트뤼포의 작품들이 상영됐다. 또한 영화감독이기 전에 뛰어난 영화평론가였던 트뤼포가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과 일주일간 나눈 대화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히치콕 트뤼포(Hitchcock/Truffaut)>도 특별상영 형식으로 상영 목록에 포함됐다.

세계적인 거장인 트뤼포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만큼 그의 세계관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마련됐다. <비련의 신부(La Mariée Etait En Noir)>가

상영된 7월 23일에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프랑스어 트뤼포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상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고, 7월 31일 <두 명의 영국 여인과 유럽 대륙(Les Deux Anglaises Et Le Continent)> 상영 이후에는 영화평론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행보를 이어나가며 트뤼포를 연상시키는 정성일 영화평론가의 대담이 있었다. 영화감독이기 전에 영화평론가로서 영화에 대한 애정을 아낌 없이 언급해온 프랑스어 트뤼포와 그의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 차원 더해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편 이번 특별전에선 23편의 영화가 총 43회 상영됐는데 회당 평균 관객수가 154명에 달하며 총 6639명의 관객이 상영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어 트뤼포라는 세계적인 거장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프랑스 영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나 주한 프랑스문화원과 같은 프랑스 문화 및 영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글. 민용준 / 사진 제공. (사)한국시네마테크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프랑스어 트뤼포, <나처럼애뿐여자>

프랑스어 트뤼포, <마지막지하철 : 프랑스어 트뤼포(François Truffaut)>



프랑스어 트뤼포, <피아니스트를 쏘라>



프랑스 영화 특별전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랑의 파리(Amour de Paris)¹

2016.06.11-2016.07.02. 서울역사박물관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랑스특별전²

2016.07.21-2016.07.31. 부천시청 외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프랑스특별전³

2016.09.29-2016.10.03. 아트나인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⁴

2016.11.10-2016.11.23. CGV압구정 외

주관기관

한국: 서울역사박물관¹,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²,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³, CGV⁴

프랑스: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¹⁴, 고몽S.A(GAUMONT S.A)²,

클레르몽페랑 단편 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Court Métrage à Clermont-Ferrand)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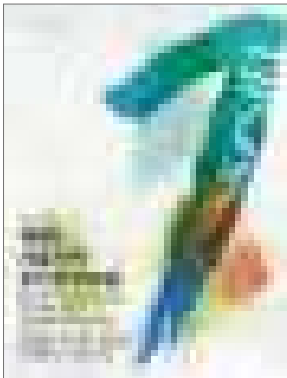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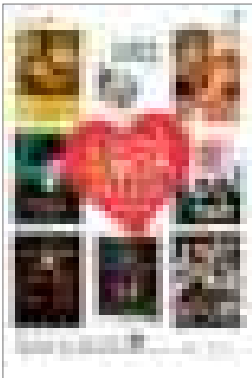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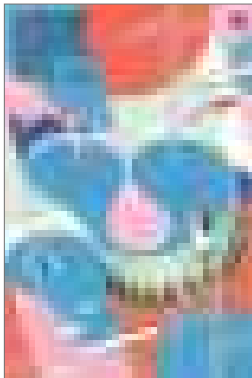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랑스 영화가 국내 관객에게 소개되었다. 한국에 꾸준히 유럽 영화를 소개해온 영화제들과 극장 브랜드, 박물관 등이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라는 이름 아래 힘을 모은 결과였다.

사랑의 파리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이 2016년 가장 먼저 프랑스문화원과 프랑스 영화제 ‘사랑의 파리(Amour de Paris)’를 공동 주최했다. 6월 11일부터 7월 2일 까지 매주 토요일 하루 두 번 파리 배경 영화 8편을 선정해 상영했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였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프랑소와즈 위기에(Françoise Huguier)가 촬영한 포스트 모던 서울을 주제로, <서울 엘레지: 프랑소와즈 위기에 사진전>을 개최한 경험이다. 이 사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영화제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 프랑스문화원과 협의했다.

기획 당시 도시역사박물관이라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반영해, 프랑스 수도 파리 구역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선정해 각 구마다 다른 풍경과 삶의 방식을 소개하기로 했다. 프랑스문화원이 <마지막 지하철(Le Dernier Metro)>을 시작으로, <파리의 연인들(Fauteuils d’orchestre)>, <북호텔(Hôtel Du Nord)>, <파리에서(Dans Paris)>, <라비앙 로즈(La Môme)>, <천국의 아이들(Les Enfants du Paradis)>, <퐁네프의 연인들(Les Amants du Pont-Neuf)>, <아멜리에(Le Fabuleux Destin d’Amélie Poulain)>를 추천했고, 이 영화들을 관통하는 주제 ‘사랑’에서 특별전의 제목을 따왔다.

영화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영과 함께 강연자를 섭외해 파리에 대한 설명과 영화 소개를 접목한 짧은 해설을 곁들였다. 영화 제공과 강연자 섭외는 주한 프랑스문화원 영상교류과가, 홍보물과 강연 자료 및 장소와 기술 지원은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가 맡았다.



‘사랑의 파리’ 매 상영 평균 관객은 175명으로, 모두 1394명의 관객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가장 흥행한 상영작은 <아멜리에>다. 영화제 가장 마지막에 상영했는데, 272석 규모 대강당에 보조 의자를 놓았을 만큼 성황을 이뤘다. 파리 10구에 지금도 남아있는 동명 호텔을 무대로 한 <북호텔>은 노동자 계급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자 현재 이민자들이 모여 살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파리 10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더욱 호응을 얻었다.

기념으로 제공한 프랑스식 영화티켓도 인기를 끌었다. 본래 관객 수를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 티켓을 모으기 위해 8편을 전부 본 마니아까지 생겼다. 프랑스인 관객의 관람 열기도 높았다. 다만, 영어 자막이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이외 타 언어권 관객들은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사랑의 파리’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영화제를 공동주최하자는 여러 기관의 제안이 쇄도했다.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영화제도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5년부터 유럽연합국가문화원(EUNIC Kora) 소속 기관과 ‘유니크(EUNIC) 영화제’를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프랑스 영화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사랑의 파리, <네온 데몬>

사랑의 파리, <아멜리에>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랑스특별전

2016년 20주년을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BiFan)에서는 한 해 앞서 120주년을 맞은 프랑스 대표 영화사 고몽(Gaumont)의 장르 영화를 재조명한 특별전 ‘고몽, 영화와 함께한 120년’이 진행됐다. 판타지·액션·호러 등의 장르색 짙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마니아층을 확보한 BiFan만의 시선으로, 한국에서 예술영화로 분류됐던 프랑스 영화를 대중적인 측면에서 재발견한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특별전의 총책임은 BiFan 강성규 전 전문위원이 맡았다. 그는 2015년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고몽 측에 먼저 특별전을 제안했고, 이후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도움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몽은 루미에르 형제가 1895년 발명한 영화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한 영화사다. 1000편에 육박하는 그 라이브러리는 장 르누아르(Jean Renoir)부터 퓌 베큐(Luc Besson)까지 전 세계에 사랑받은 프랑스 흥행작들의 보고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특별전의 상영작 선정을 BiFan에 일임했다.

특별전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감독 퓌 베큐의 대표작 <그랑블루(Le Grand Bleu)> <니키타(La Femme Nikita)>와 숨은 수작 <서브웨이(Subway)>를 비롯해, 오페라 형식의 <카르멘(Bizet’s Carmen)>,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흑백 장르 영화 <뷰티 오브 더 데빌(La Beauté du Diable)>, 프랑스 국민 코미디 <판토마 위기탈출(Fantômas)>, 프랑스 시골 무대의 성장담 <마르셀의 여름(La Gloire De Mon Père)>, 최신 화제작 <사랑은 부엉부엉(Hibou)>, <네온 데몬(The Neon Demon)>(2016) 등 11편이 다채롭게 선보였다. 고몽과 한국 측 수입사가 상영작 수급을 지원했다.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영화는 같은 해 칸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니콜라스 윈딩 레프(Nicolas Winding Refn)감독의 <네온 데몬>으로, 두 차례 상영이 사전 예매 오픈 당일 전석 매진됐다. 주연을 맡은 추억의 스타 안느 파리요(Anne Parillaud)가 내한해 상영 후 ‘메가토크’를 진행한 <니키타>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BiFan의 주관객층이 20-30대인데 반해 <니키타> 상영관엔 50-60대 중장년층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행사 후에는 사인을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다. 한국에서 드물게 소개된 흑백 호러 영화 <얼굴없는 눈(Les Yeux Sans Visage)>은 상영관을 75% 가까이 메우며 예상 외의 반향을 얻었다. 강성규 전 전문위원은 “더 많은 프랑스 스타를 초청하는 길이 열린다면, 프랑스 영화 특별전이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한불컨퍼런스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프랑스특별전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프랑스와 한국 단편 영화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한 자리였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계의 칸국제영화제로 손꼽히는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Court Métrage à Clermont-Ferrand)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준비하던 이수원 프로그래머의 제안으로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와 교차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 2015년 2월 먼저 클레르몽 페랑에서 연 한국 단편영화 특별전은 프랑스 현지 관객들의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한국 단편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특별전의 형태로 소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 9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는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가 선정한 프랑스 단편영화들이 한국 관객을 만났다. 개막작에는 프랑스 일간지에서 영감을 받은 초단편 애니메이션 <신문이 살아있다(Journal animé)>, 시각특수효과를 이용해 유대인 학살을 판타지적이면서도 가슴 아프게 그려낸 <사자의 서(Le Livre des Morts)>, 한국적 색체가 담긴 동화 <줄줄이 켜 호랑이(Tigres à la queue leu leu)>등 프랑스 단편영화가 선정됐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손광수 프로그래머는 “특히 <사자의 서>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가족 영화 단편선 ‘클레르몽 페랑에서 온 동화’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상영됐고,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의 뮤직비디오 섹션 ‘데시벨’에 선보였던 단편 영화들도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비경쟁초청 부문에서 소개됐다. ‘오투르 드 미뉴트(Autour de Minute) 특별전’에서는 프랑스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사 오투르 드 미뉴트의 미학적인 혁신을 느낄 수 있는 10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됐다. 개막 다음날 진행된 ‘한-불 단편영화 온라인 사업 컨퍼런스’는 온라인 단편영화 시장이 자리잡은 프랑스와 온라인 단편영화 불모지인 한국 간의 정책 비교와 실질적인 시장 분석이 이뤄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칼맹 보렐(Calmin Borel)과 오투르 드 미뉴트 온라인 배급 담당자 폴린 지노(Pauline Ginot), 영화진흥위원회 김홍천 신사업개발팀장이 참석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 단편영화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주한프랑스문화원과 프랑스 대사관, 유니프랑스가 행사를 도왔다.

프랑스 단편영화 기획전과 컨퍼런스를 찾은 총 관객은 300여 명. ‘클레르몽 페랑에서 온 동화’는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꾸준히 호평 받으며 관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손광수 프로그래머는 “앞으로도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와 교류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프랑스의 관람 문화도 도입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

한국에서 개봉되지 않은 프랑스 영화 최신작 10편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는 CGV아트하우스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유니프랑스가 공동 주최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대사관 측에서 먼저 기획한 뒤 CGV아트하우스에 제안하며 성사됐다.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는 주로 서울로 한정됐던 다른 프랑스영화 특별전과 달리, 한국 최대 예술 영화 극장 체인을 가진 CGV아트하우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CGV압구정·서면·대구·광주터미널 지점, 17일부터 23일까지는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오리·대전·천안펜타포트 지점 등 서울 2개관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상영됐다.

상영작 선정은 CGV아트하우스와 주한 프랑스문화원이 함께했다. 한국에서 인지도 높은 감독과 배우의 신작, 해외 주요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예술영화를 비롯해 코미디·애니메이션·스릴러 등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는 데에 주력했다. 모두 한국에서 정식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어서, 수입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카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의 브루노 뒤몽(Bruno Dumont) 감독과 배우 줄리엣 비노쉬(Juliette Binoche)가 재회한 <슬랙베아·바닷가 마을의 비밀(Ma loute)>,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Clouds of Sils Maria)>의 올리비에 아사야스(Olivier Assayas) 감독과 크리스틴 스투어트(Kristen Stewart)의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 등은 전작에서 좋은 성과를 낸 감독과 배우가 다시 만나 관심을 모았다. 트란 안 흥(Anh Hung Tran) 감독의 신작 <이터니티(Eternité)>는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 오드리 토투(Audrey Tautou)와 멜라니 로랑(Melanie Laurent)의 연기 앙상블이 주목받았다. 한국 박스오피스 히트작 <언터처블: 1%의 우정(Intouchables)>의 배우 오마르 시(Omar Sy)가 프랑스 최초 흑인 광대의 실화

를 연기한 <쇼콜라(Chocolat)>, 아르노 데스플레생(Arnaud Desplechin) 감독의 복고 로맨스 <마이 골든 데이즈(Trois Souvenirs de ma Jeunesse)>, 프랑스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한 코미디 <페니 핀처(Radin!)> 등은 대중적인 재미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프랑스 영화감독과 배우들이 대거 내한한 것도 이례적이다.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설국열차>의 프랑스 원작자 뱅자맹 르그랑(Benjamin Legrand)이 시나리오를 쓴 애니메이션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Avril et le monde truqué)>의 크리스티앙 데마르(Christian Desmares) 감독, <라붐(La Boum)>, <여왕 마고(La Reine Margot)> 각본가이자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Cézanne et moi)>을 연출한 다니엘르 톰슨(Daniele Thompson) 감독, <예언자(Un Prophète)>를 비롯, 무수한 히트작을 쓴 각본가이자, 연출 데뷔작 <카우보이(Les cowboys)>로 평단에 호평 받은 토마 비드갱(Thomas Bidegain) 감독, <마이 골든 데이즈>의 배우 루 르와 르콜리네(Lou Roy Lecollinet), <마지막 레슨(La dernière leçon)>의 파스칼 푸자두(Pascal Pouzadoux)감독과 배우 마르트 빌라롱가(Marthe Villalonga) 등이 한국을 찾았다.

봉준호 감독이 ‘프렌치 시네마 투어’ 개막식에서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장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에게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것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프랑스 정부가 관장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창작성을 발휘하거나 프랑스 및 전 세계 문화 분야에 공헌이 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이다. 과거 수상자로는 팀 버튼(Tim Burton), 짐 자무쉬(Jim Jarmusch), 엘튼 존(Elton John), 양조위와 국내 배우 윤정희 등이 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 측은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Dupont 2016’이 한국의 젊은 관객에게 프랑스 영화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보고 있다”고 낙관했다. (글. 나원정 / 사진 제공. 서울역사박물관,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CGV)

제20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메가토크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Dupont 2016, <이터니티>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Dupont 2016, <퍼스널 쇼퍼>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LA CORÉE DU SUD, PAYS AUX MULTIPLES MIRACLE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10.25.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주관기관

한국: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프랑스: 자크 뎡스(Jacques Debs)

태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유럽 페미니즘 영화계의 대모 상탈 아커만(Chantal Anne Akerman)의 상영작을 모은 <상탈 아커만 그 이후(D'après Chantal Akerman)>와 다큐멘터리스트 자크 뎡스(Jacques Debs) 감독의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La Corée du Sud, Pays aux multiples miracles)> 상영회가 그것이다. 이 중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는 자크 뎡스 감독이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촬영한 5부작 다큐멘터리이다. 문학과 사진, 전통예술, 미술 등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접촉해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풍경과 예술세계를 카메라에 담아내는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대를 모았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플랫폼-엘 컨템포러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더욱 깊은 의미를 남겼다.

레바는 출신의 프랑스인인 자크 뎡스 감독은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췄다. 대표작인 <동양의 작은 불(L'Orient à petit feu)>(1999)은 음식과 환대에 대한 동양적 의미를 여섯 출연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했고, <베케트의 죄수(Les prisonniers de Beckett)>(2005)는 스웨덴 최대의 교도소를 무대로 젊은 배우가 다섯 명의 죄수와 함께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담아냈다. 그러던 그는 불어로 번역된 한국의 시, 소설, 영화 등을 접하며 한국의 예술과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TV용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를 기획하게 됐다고 한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예술계와 예술작품에 비친

한국의 지역 곳곳을 들여다보고 사회 풍속을 담아낸다는 것이 이번 작품의 목표였다. 프랑스 제작사(Les Films d'ici)가 제작에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기적의 나라>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협조를 얻어 2014년부터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촬영이 시작됐다.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시리즈의 구성은 이렇다. 먼저 자크 뎡스 감독이 한국 문학을 통해 서울을 바라보는 <서울, 그 소설 같은 이야기(Séoul, c'est tout un roman)>, 문학 속의 제주도와 완도를 찾아가는 <완도 그리고 제주, 그 섬들의 아픔과 아름다움(Les îles Jeju et Wando)>, 불교 사원들을 돌아보는 <불교사찰, 해탈을 향한 순례(Les temples bouddhistes)>, '내가 본 중세 도시'라는 뜻의 <Une cité médiévale Je l'ai vu>,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남한의 경제 성장을 다룬 <Un miracle économique Je l'ai vu>가 그것이다.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짙은 음색과 함께 시작하는 도입부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5부작 시리즈는 프랑스의 예술 전문 TV 채널(ARTE)에서 2015년 방영됐고, 2016년 티브이파이프 몽드(TV5MONDE)를 통해 일부 재방영, 그리고 현재 일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크 뎡스 감독의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상영회를 개최하면서 다섯 편 가운데 1편인 <서울,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본 시사회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타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특수성을 깊은 통찰로 담아낸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를 관객 및 작

품에 출연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자크 뎡스 감독과 함께 감상하며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에서였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조명한 <서울, 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시각예술, 음악, 무용,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 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젊은 여성 사진작가 안준이 아찔한 고층빌딩 옥상에서 작업하는 모습으로 시작해 소설가 황석영과 서울 시내의 궁들을 누비는 모습을 비롯, 현대와 전통문화가 한 곳에 자리한 서울을 비추는 것으로 라깅타임 50분을 채운다. 이 밖에도 시인 문정희, 소설가 성석제, 은희경, 국악인 안숙선, 사진작가 김중만 등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근한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스크린에 등장한다.

상영회를 마친 뒤, 자크 뎡스 감독은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 느꼈던 감상과 완성작을 한국에서 처음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만났던 예술가들 중 사진작가 김중만, 안준, 국악연주단 노름마치예술단의 김주홍 대표, 소설가 임철우, 굿놀이 배우 김종홍 등은 리셉션까지 자리를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중 세 번째 이야기인 <불교사찰, 해탈을 향한 순례>가 상영됐다. 이번 상영회를 계기로 또 한 번 이어진 자크 뎡스 감독과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인연은 향후 민간 차원의 한-불 문화 교류에 있어 단단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송순진 / 사진 제공: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한국-해외 국가 수교
기념행사로서는 역대 최다 분야에
걸쳐 진행된 만큼 분야별 행사
건수보다 사업 분야의 다양성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문학
스포츠
미식

- 370 세계문학축제 “13회 미팅”- 삶을 표현하다
Rencontres Littéraires Internationales “MEETING n°13” - Traduire la Vie
- 372 파리도서전 &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 초청
- 376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 France-Corée : Import-Export
- 378 제1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The 12th Seoul Wow Book Festival
- 380 미식축제
- 382 롤랑가로스 Roland Garros
- 384 투르 드 프랑스 레타پ 코리아 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교류

총 행사 건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과 공연 분야 그리고 많은 프랑스 관객의 관심을 받았던 영화 분야 외에도 음악, 관광, 건축, 미식, 학술, 스포츠, 문학, 디자인, 교육, 과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불 양국 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사업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들 분야 중에 문학과 스포츠는 오히려 굵직한 행사들이 집중력 있게 진행되어 큰 조명을 받았다.

문학 분야에서 진행된 사업의 수는 총 9건으로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가 7건, 한국 내 프랑스의 행사가 2건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진행된 문학 행사 중 다수가 주빈국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 포커스 사업으로서,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문학과 작가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파리 시내 도서관 한국특집 - 빨리 빨리 한국> 사업은 연령과 사회 계층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매체를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100여 가지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남녀노소 프랑스 일반 대중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스포츠 분야는 총 9건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가 3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가 6건이며 당구, 골프, 테니스, 사이클, 태권도, 승마 등 종목이 6개나 된다. 양국 현지에서 진행된 사업 수에서도 알 수 있듯 문학 분야의 경우 사업들은 한국의 문학을 유럽에 진출시키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스포츠 분야의 경우 프랑스의 선진 스포츠 기술과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운영을 위한 노하우 도입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양국 주최 측과 협력 기관의 긴밀한 교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2015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는 그간 어렵게만 바라보던 불어권 출판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문화부 장관, 출판협회 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20만 명 이상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한국의 우수한 출판 콘텐츠를 선보이고, 한국 작가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도서전에 참가한 수많은 독자와 한국 출판 콘텐츠가 서로 소통하게 된 것과 실질적으로는 한국 도서의 저작권 수출 증가와 프랑스 내 한국 작가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성과라 하겠다.

이 외에도 양국 문학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양국의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들도 다수 진행되었다.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문학 인프라 활용에 적극적이었던 한국문학번역원은 한-불 양측의 대표 시인들이 그들의 작품을 함께 번역함으로써 서로의 작품 세계를 교류하는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France-Corée : Import-Export)>,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이나 해외 현지 전문가(문학평론가 등)의 한국 문학 평

론 등을 문예지에 특집호 형식으로 발간하는 <프랑스 주요문예지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세계 문학인들과 다양한 형태로 문학을 교류하는 <세계문학축제 “13회 미팅(MEETING n°13)” - 삶을 표현하다>, 한-불 신진 번역가가 전문 번역가들에게 번역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2015 한-불 젊은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간 다져왔던 프랑스 언론·출판 관련 기관들과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전문적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종목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내에서는 <세계 당구 선수권대회>, <롤랑가로스(Roland-Garros) 토너먼트 한국선수 출전>, <화랑 태권도의 날(Korean Tour)>이, 한국 내에서는 <한-불 골프 친선대회>, <롤랑가로스 인 더 시티(Roland-Garros in the City)>,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말산업 심포지움>, <2016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2016 KLPGA 액티비아·백제CC Dream Tour> 행사가 열렸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거나 친선의 성격으로 치러진 사업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양국 간 상호 교류의 장으로서 축제처럼 흥겨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특히 한국 내 프랑스의 해에 열린 두 개의 ‘롤랑가로스’ 관련 사업과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한국에 처음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롤랑가로스>와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서 이들 관련 사업은 일반인과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본 대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실제로 <롤랑가로스 토너먼트 한국선수 출전> 대회의 우승자는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롤랑가로스 본선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아시아 최초로 열린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 대회의 우승자는 2017년에 열리는 프랑스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 행사에서 우승한 국내 두 스포츠 마니아들은 물론 아마추어 선수, 각종 영향력 있는 매체들도 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 사업은 테니스·사이클 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양국 간 협력이 낳은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프랑스테니스협회와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도자와 선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교환, 클레이 코트 건설 및 유지보수의 노하우 공유, 테니스 박물관 전시물 교환 전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맺고 미래 관계를 확고히 했으며, <투르 드 프랑스 레타프 코리아>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서울-평창 코스 대회는 물론 이후에도 프랑스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 <레타프 코리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테니스와 사이클이 한 뼘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글. 최진희)

세계문학축제 "13회 미팅 - 삶을 표현하다

RENCONTRES LITTÉRAIRES INTERNATIONALES "MEETING n°13" - TRADUIRE LA VI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세계문학축제 “13회 미팅(MEETING n°13)” - 삶을 표현하다¹⁾

2015.11.19-2015.11.27. 생나제르 바즈 수마린 라이프(Base Sous-Marine Life de Saint-Nazaire) 외

프랑스 주요문예지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²⁾

2015.11.01-2016.08.31.

주관기관

한국: 한국문학번역원¹²⁾

프랑스: 작가/문학번역가의 집(Maison des Écrivains et des Traducteurs)¹⁾, 르 몽드(Le Monde)²⁾, 르 몽드 데 리브르 (Le Monde des Livres)³⁾, 트란스퓨쥬(Transfuge)²⁾, 르 마가진 리테레르 (Le Magazine littéraire)²⁾



2015년 11월, 세계 문학 작가들이 프랑스 북서부의 작은 해안도시, 생 나제르 (St. Nazaire)에 모였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예 축제, ‘미팅(Meeting, Maison des Écrivains Étrangers et des Traducteurs, 이하 Meeting)’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Meeting 은 <페스트와 콜레라 Pest & Cholera>(2012)로 프랑스 유력 문학상인 페마나(Femina)상과 프낙(Fnac) 소설상을 수상한 파트리크 드벨(Patrick Deville)이 1996년에 창설했는데 프랑스 문학계에서 그 위상이 높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승우, 성석제, 편혜영, 김언수 작가와 함께 19일부터 25일까지 엿새 간 생 나제르와 파리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해 세계 문acin들과 다양한 형태로 문학을 교류했다. 특히 이번 축제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문학 교류 행사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한국이 축제의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996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교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 사업(번역 전문 인력 육성과 발굴, 번역연구 및 정책 수립)은 물론 출판 지원, 해외 교류,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지원 등 한국 문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그러나 5-6년 전부터는 해외 교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회적이고 소비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한국 문학이 세계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을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은 ‘홍보와 독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외 문학 인프라-해외 주요 국제 도서전, 해외 문학 축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해외 언론인 및 출판인 초청, 해외 문예지 지원 등 사업을 다변화했다.

이런 중에 맞게 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한국문학번역원에 있어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014년 1월, 한불 양국 문화 교류 행사 협의자 방한한 프랑스 측 집행조직위원장 앙리 루와레트(Henri Loyrette)는 간담회에서 “문화를 단순히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느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요구했다. 그가 세운 “양측이 함께 생각하고 제작하고 논의해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자는 원칙” 하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양측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관계’, ‘미래’, ‘공동’, ‘유대’ 등을 키워드로 한 의제에 집중됐다.

Meeting 참가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관 대 기관끼리 협업을 통해 하나하나 맞춰 나간 사업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0여 년 넘게 세계 여러 나라의 역량 있고 내실 있는 문예 축제에 참가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 작가/문학번역가의 집(MEET)측과 유대감을 쌓아 왔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두 기관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한국이 ‘Meeting-삶을 표현하다’의 주빈국으로 초대된 만큼 초청된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빛날지, 어떻게 하면 본 행사가 부각될지에 대해 양측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협의해 나갔다. 예민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양보하고 도왔다. 어느 쪽이건 서로 예산이 있으면 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하고 원



칙은 함께 만들어 나갔다. ‘Meeting-삶을 표현하다’ 행사는 한국 작가 대담회, 한국의 현대 문학에 대한 작가 토론회, 낭독회, 사인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해마다 몇 번이나 참가하는 해외 문예 축제지만 이번 Meeting 참가가 한국문학번역원에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제시된 여러 비전들에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행사에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르지 못했을지라도 한국문학번역원은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찾는다.

프랑스 주요 문예지 한국 문학 특집호 발간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의 주요 문예지에 한국 문학 특집호 발간 사업도 추진했다. 해외 문예지 지원 사업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오랜 사업 중 하나로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이나 해외 현지 전문개문학평론가 등)의 한국 문학 평론 등을 문예지에 특집호 형식으로 발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 독자 수용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해외 문예지 지원 사업 자체는 대중적인 홍보 파급력이 크진 않다. 그러나 현지의 출판인, 언론인, 작가, 한국학 연구자들이 문예지를 많이 구독하므로 이러한 전문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자세히 전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집호 발간 후 한국 작가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언론이 서평 기사를 내면서 파급력이 커지는 것이다. 느리지만 강렬하게 한국 문학을 어필하는 홍보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은 5-6년 전부터 매년 프랑스 주요 문예지인 르 피가로(Le Figaro), 르 몽드(Le Monde), 리베라시옹(Libération) 등의 문학 담당 기자들을 한두 명씩 초청해 한국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있다. 작가들이 작품을 낼 때마다 특집 기사나 서평이 그들을 통해 문예지에 실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4-5월에는 프랑스 문화예술채널, 아르테(Arte)의 주요 문학 프로그램 진행자를 초청해 한국 문학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랑스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한국 문학과 작가를 깊이 있게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프랑스 언론 매체들의 달라진 태도에 적잖이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간 특집호 발간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 문예지들이 언제부턴가 기사 단가를 높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중에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한국문학번역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맞아 다양한 문예지 관계자들이 한국 문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파리 도서전 즈음 많은 언론에 한국 문학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특집호는 2015년 11월호 트란스퓨쥬(Transfuge)와 2016년 3월호 르 몽드 데 리브르(Le Monde des Livres) 그리고 2016년 4월호 르 마가진 리테레르(Le Magazine Littéraire)에 실렸다. 세 개의 특집호 중 르 몽드 데 리브르는 예산 집행 없이 기자 초청만으로 진행되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수혜를 본 셈이다.

초청된 기자들은 공지영, 김애란, 김영하, 오정희, 은희경, 이승우, 이인성, 천명관, 황석영 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만신 김금화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문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문학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특집호 발간을 통해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까지 해외 언론인들의 눈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할 수 있었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한국문학번역원)



파리도서전 &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 초청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 파리도서전: 한국주빈국¹

2016.03.17-2017.03.20. 파리 엑스포 포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한국 내 프랑스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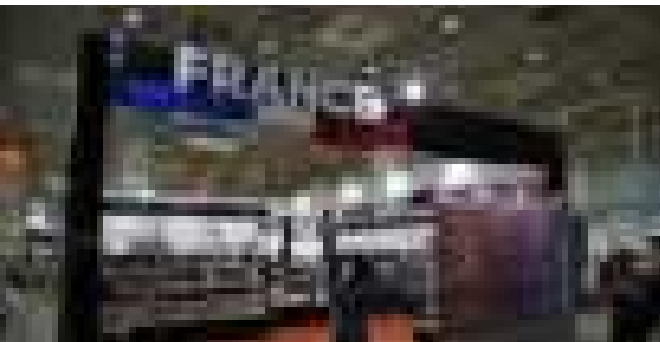
2016 서울국제도서전: 프랑스 포커스²

2016.06.15-2016.06.19. 서울 코엑스관

주관기관

한국: 대한출판문화협회¹, 프랑스 국제도서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²

프랑스: 리드 엑스포지션스(Reed Expositions)¹, 프랑스 국제도서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²



“한국관, 아름답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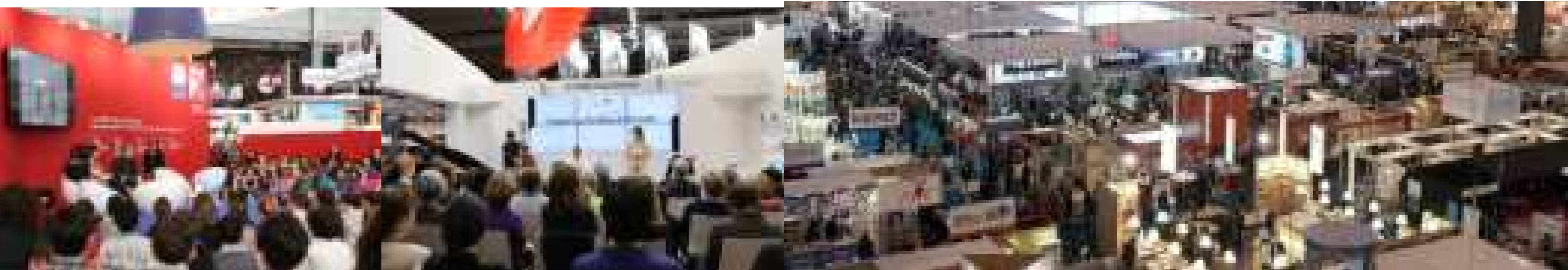
2016년 3월 16일 저녁, 제36회 파리도서전 개막식에서 한국관을 찾은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찬사다. 한국은 2016 파리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세계 언론과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출판인 그리고 독자들에게 가능성을 가진 출판문화 강국으로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1981년에 시작된 파리도서전은 매해 1,2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도서전으로, 출판인들의 비즈니스 장이 아닌 독자와 '책'이 만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에는 3,000명 이상의 작가, 2,000여 명의 저널리스트, 1,200여 개의 출판사, 20만 명의 방문객이 파리도서전을 찾아 다양한 출판문화를 경험, 교류했다. 2016 파리도서전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한 데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도서전 주최사인리드 전시 회사(Reed Exposition France)는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전시장 중앙, 역대 가장 큰 규모(506㎡)의 부스를 할애했다. 그간 여러 번 국제 도서전에서 주빈국관을 운영하며 세계 무대에 한국 출판의 발판을 다져 온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 사업을 주최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주빈국 표어는 '새로운 지평(Un Nouvel Horizon)'. 이 사업이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 나아가 유럽에 K-BOOK 확산의 도화선이 되어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출판 문화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표어 아래, 주빈국관은 한국 전통의 멋을 한껏 살린 디자인으로 방문객들의 사진 세례를 받았다. 많은 프랑스 독자 및 한국 교민 등이 한국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전시 공간은 크게, 한국 참가 출판사 전시 공간(비즈니스관), 특별전 공간, 이벤트 공간, 서점 공간, 응대 공간으로 나뉘었다. 비즈니스관에서는 한국 각 분야의 신간 도서와 작가, 웹소설 및 아동 애니메이션, 만화 등 e-book, 웹툰, 그라폴리오 작가 홍보에 주력했다. 초청 작가의 드로잉 쇼가 매일 개최되어 프랑스 독자와 방송의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그림 등 이미지만으로 스토리를 생산해 낸 그라폴리오관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는 등 IT 기술을 접목시킨 한국 그림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밖에 작가-한국 그림책-고전/추리문학 특별전을 진행해 한국 아동





그림책의 우수성과 고전·추리 문학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아동 그림책의 진면목을 살려 진행한 ‘한국 그림책 130권의 7가지 감정(화·노·애·락·애·오·욕)’이라는 특별전에는 연일 관람객이 북적여 한국 그림책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 외에도 한·불 출판전문 라운드 테이블, 낭송회, 사인회, 한·불 작가 대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정희, 이승우, 정유정, 한강, 황석영 등 30여 명의 초청 작가 불어 번역본 및 한국어 발행 도서 판매와 사인회는 한국관에서 가장 주목 받는 코너였다. 한국 작가와 기념사진을 찍고 구입한 도서에 사인을 받으려는 프랑스 독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1만2,000여 권의 한국 도서가 프랑스 독자들에게 판매되었다. 또한 양국의 출판인, 작가, 학자들이 한국과 프랑스 간 출판문화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등 출판문화 교류는 출판사 관계자는 물론 독자, 학계까지 그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관 참가로서 이제 한국 문학은 그간 높게만 보였던 불어권 출판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만 명 이상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한국 출판문화가 프랑스 속에 더욱 깊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K-BOOK의 외형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무엇보다 130년 동안 지속된 한·불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 주빈국 표어처럼 한국 출판문화를 통해 향후 유럽에 번져 나갈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해 본다.

2016 서울국제도서전 프랑스 포커스

2016년 스물두 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프랑스 국제도서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이하 BIEF)은 컬처 포커스(Culture Focus)에 참가해 유익하고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서울국제도서전은 19회부터 ‘컬처 포커스’라는 특별 섹션을 운영하며 특정 국가의 문화를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된 양국의 ‘주빈국’ 교차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가 이 섹션에 참여하게 되었다. 3개월 전에는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2016 파리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했다.

이번 2016 서울국제도서전 프랑스 포커스는 양국 네 개 기관의 절묘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도서전의 주최 측인 (사)대한출판문화협회와 프랑스 포커스를 주관한 BIEF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이 그 주체다. 특히 BIEF와 프랑스 문화원과의 협력 체계는 각별하다.

우선, (사)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앞서 열린 2016 파리국제도서전에서 주빈국 참가 주최 기관으로서 도서전 전반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이후 있을 서울국제도서전의 운영에 대비했다. 또한 파리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에 대응하도록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프랑스를 초청했는데 프랑스는 이미 2010년에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므로 컬처 포커스에 참가하겠다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BIEF는 1873년, 출판물을 활용한 프랑스 문화 홍보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자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국제회의에 참가해

자국 출판사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국제 도서전 참가, 해외 출판인 관계 형성, 해외 출판인·서점 관계자 참여하는 세미나 주최, 해외 출판 시장 분석 등의 활동으로 세분화되는데 2010년 16회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 참가 역시 BIEF에서 주관했다. 당시, BIEF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문화원과의 협력 체제가 구축 강화되었고 이는 2016년까지 이어졌다.

BIEF와 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 포커스를 위해 다시 한 번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상의·공유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분장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했다. 부스 디자인, 부스 내 판매 도서 선정, 세미나 기획, 프랑스 측 출판사 주선 등은 BIEF가, 문화 프로그램 및 부스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작가 전담 및 일부 방한 프랑스 출판인 재정 지원, 통역사 섭외 및 현장 진행 스태프 등 인력 지원과 행사 전반 홍보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이 맡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



2016 서울국제도서전 프랑스 포커스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1,000여 권의 프랑스 도서 전시, 세미나, 강연회, 작가 사인회, 동화 구연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이를 위해 프랑스국제출판사무국 대표를 포함한 15여 명의 출판 관계자와 프랑스 문학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신세대 작가들 세 명이 방한했다. 소설 분야의 앙투안느 로랭(Antoine Laurain), 수필 분야의 세바스티앙 팔레티(Sebastien Faletti), 요리 분야의 앙투안느 셰페르스(Antoine Schaeffers)가 그들이다.

프랑스 포커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은 강연이다. <열한 살의 유사>에서 김은선의 탈북 여정을 생생하게 그린 세바스티앙 팔레티를 포함한 네 명의 프랑스 작가와 김은선, 정수복 작가가 참여한 강연회는 도서전 내 이벤트 홀에서 한 번, 프랑스문화원 내에서 한 이루어졌는데 작가를 잘 아는 한국 에디터가 사회를 맡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측 대담자가 조금 부족했던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2016 서울국제도서전은 양국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속에 닷새 동안의 짧지만 인상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간 다져온 양국 기관 더 나아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프랑스 국제도서사무국)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 FRANCE-CORÉE : IMPORT-EXPORT



프랑스 내 한국의 해

1차_2016.05.09-2015.05.13.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CIPM, 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

2차_2016.10.10-2016.10.14 한국문학번역원

주관기관

한국: 한국문학번역원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CIPM, Centre International de Poesie Marseille)

한국문학번역원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 전문 기관인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Poésie Marseille)와 함께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 교류행사(Import / Export_Marseille, Seoul)’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불 양측의 대표 시인들이 그들의 작품을 함께 번역하는 아틀리에에 참여해 서로의 작품 세계를 교류했다. 2016년 봄에는 마르세유에서, 가을에는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양측 시인들은 상호 우의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불 교류의 발판을 만들었다.

마르세유 국제 시 센터(CIPM)는 마르세유 시가 1990년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대 시 창작, 출판, 세미나, 번역 작업을 총괄해 오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CIPM과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뿌린 씨앗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라는 호기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그간 지속적으로 벌여 온 해외 교류 사업의 결실인 것. 한국문학번역원은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5-6년 전부터 해외 문학 유관 기관과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넓혀 왔다. CIPM 또한 그러한 활동으로써 인연을 맺게 된 기관이다. <피가로(Le Figaro)> 기자의 소개로 CIPM을 알게 된 한국문학번역원은 2-3년 전부터 그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시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며 현지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확대해 왔다. 그러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우리 측에서 공식 행사를 제안, CIPM이 흔쾌히 받아들여 마르세유국제 시 센터 교류행사에 한국이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는 매년 해외 도시를 선정해 마르세유와 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르세유와 선정 도시에서 각각 일주일 간 진행된다.

이번 한-불 시인 공동 번역 아틀리에에 참여한 양측 작가는 모두 여섯 명이다. 한국 측에서는 박상준, 이기성, 강정 시인이, 프랑스 측에서는 안느 포르투갈(Anne Portugal), 피에르 파를랑(Pierre Parlant), 기욤 파야르(Guillaume Fayard) 시인이 참여해 상대측의 작품을 함께 번역했다. 작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밀도 있게 진행됐다. 초벌 번역한 텍스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끝없이 이어졌다. 양측 시인들은 작품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며 의미를 차근차근 파악해 나가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번역으로 인한 의미 변질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원작자의 낭독을 직접 들으며 원작의 리듬과 음운까지 살리려 애썼다. ‘시 번역이 이 이상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미, 라임, 뉘앙스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관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고르는 이른 바, ‘살아 있는 번역’을 통해 한국 시 14편, 프랑스 시 14편 번역을 완성했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에는 독자를 초청한 가운데 번역 작품 낭독회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사의 결실은 즉각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이었다. 1차 행사를 마친 CIPM 측 사무총장은 “여러 해 마르세유국제 시 센터 교류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에디션이 정말 최고였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기는 팀은 멤버를 바꾸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있을 2차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시인들 또한 이번 작업을 통해 상대 측 시의 강렬한 이미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일부 시인은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작가의 작품 번역을 자원하기도 했다. 교류의 결실이 된 것이다. 이것이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이 행사가 큰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다.

한-불 양국 문화 교류 행사를 진두지휘했던 前프랑스 측 사무총장, 스테판느 도베르(Stephane Dovern)는 사업 진행에 앞서 행사의 방향성을 간결한 언어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양측은 크고 장황한 것보다는 작지만 오래 가고, 관계를 깊게 하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공동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미래를 향한 교류에 합의하고 이것을 가시화하는 내용에 집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한-불 시인 공동 번역 아틀리에에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공동 번역 작업을 통해 양국 작가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공유하고 이것이 발전해 다시 다른 번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작가들과의 관계는 지속, 발전해 인적 인프라가 확장됐으며 유관 기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서로에게 녹아들고 진짜 교류하는 것 그리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한국문학번역원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지향하는 바이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한국문학번역원)

제1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THE 12TH SEOUL WOW BOOK FESTIVAL



한국 내 프랑스의 해

2016.09.29-2016.10.03. 홍대 주차장 거리 일대

주관기관

한국: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와우책 문화예술센터는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닷새 간 홍대 주차장 거리 일대에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하 와우북축제)을 진행했다. 주최 측인 (사)와우책 문화예술센터(이하 와우책 센터)는 이번 축제가 이제까지 열린 열한 번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의미 있었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바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이다.

와우북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친화적인 책 축제이다. 시민이 거리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책과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2005년 홍대를 근거지로 하는 문화·예술 기획자, 출판사 관계자 그리고 이들과 소통하는 출판문화협의회가 뜻을 합해 책을 매개로 한 작은 축제를 열었던 것이 와우북축제의 시초다. 그렇기에 와우북축제는 참여자가 출판사 관계자이고 대부분의 공간이 마케팅 현장인 북 페어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민이 참여하고 완성하는 축제이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찾는 방문객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와우북축제는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규모와 국내외 인지도가 커져 2016년, 열두 번째 축제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주최 측인 와우책 센터는 축제의 콘텐츠를 국내 작가, 국내 책, 국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축제가 벌써 햇수로 10년을 넘기다 보니 국외 작가 및 출판사 등이 관심을 보이며 '연대'를 제안하곤 했다. 예산상 한계로 와우책 센터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국내'의 콘텐츠로 한정하고 제안이 들어온 해외 작가들을 초청해 개별적 강연을 배치하는 정도로 운영해 왔다. 와우책 센터는 주도로 국외 색션을 꾸리고 싶은 포부를 갖기도 했지만 진행은 노하우가 필요했고 예산 투입도 많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던 와중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제안은 와우책 센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공식인증사업으로 선정되면 여러 기관이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와우책 센터는 축제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아트 투어를 기획하고 사업을 제안, 사업이 선정된 직후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프랑스문화원에 협력을 제안했다. 문화원은 흔쾌히 나서주었고 이로써 두 기관은 다른 공식 파트너들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두 기관은 2015년부터 행사 규모,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조심스럽게 의논하며 축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와우책 센터 내부에서도 준비는 분주하게 이어졌다. 사내 스튜디오 그룹을 만들고 프랑스 작가 연구와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스캔하며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갔다. 하지만 행사 3개월 전이 되어서야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산이 확보되어 기획의 수정은 불가피했다. 가장 선결할 문제는 초청 작가 확정. 이 문제를 놓고 프랑스문화원과 많은 협의가 있었고 극적으로 플로랑스 오브나(Florence Aubenas)가 초청되었다. 플로랑스 오브나는 시사 주간지 <누



© 주용성

© 주용성

벨 옵세르바퇴르(Nouvelle Observateur)>의 대 기자(Grand Reporter)이자 르포 소설 작가이다. 최근 발간된 <위스트르앙 부두(Le quai de Ouistreham)>에서 그녀는 2005년 이라크 저항 세력에 피랍됐다 석방된 후 실업자에서 시급 8유로를 받는 청소부가 되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었다.

와우북축제에서 국제 교류 사업으로 진행된 프랑스 아트 투어는 크게 북 토크, 강연, 낭독, 전시 네 파트로 구성되었다. 북 토크에는 초청 작가인 플로랑스 오브나와 <88만원 세대>의 작가 우석훈 박사가 참여했으며 강연은 SF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쥘 베른(Jules Verne)을 주제로 전총식 SF&판타지 도서관 관장이 진행했다. '극짓는사람들 작은별'이 몰리에르(Molière)의 고전 희곡, <상상병 환자(Le Malade Imaginaire)>를 낭독했고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원서와 예술 디자인·패션 잡지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도서전을 진행했다. 와우북 센터가 의도한 이번 특집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처음 진행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기도 할뿐더러 문학적 콘텐츠가 방대한 프

랑스를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축제 동안 선보인 콘텐츠는 적었지만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대중에 알리는 데 주제와 장르 안배가 탁월했다는 평가다.

열두 번째 와우북축제는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관객이 강연장을 채웠다. 30여 개가 넘는 강연장은 모두 70% 이상 객석이 차는 성황을 누렸다. 와우북축제의 콘텐츠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더불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하게 된 특집 프로그램은 와우북 센터에 있어 특별한 행사 그 이상이었다. 프랑스문화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관련자들과의 절묘한 파트너십, 여러 기관과 교류하면서 익힌 운영 노하우, 축제 콘텐츠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기획력 등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와우북 센터는 이후 조금 더 국제적인 콘텐츠로 시민 참여자들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미식축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 프랑스 미식 축제²

2016.03.25-2016.03.26. 광화문 광장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제2회 거리음식축제(Street Food Temple#2) : 한국주민국국¹

2015.09.25-2015.09.27. 카로 뒤 탕플(Carreau de Temple)

주관기관

한국: 주불한국문화원²

프랑스: 카로 뒤 탕플(Carreau de Temple)¹,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²

프랑스 파리 3구에 위치한 카로 뒤 탕플(Carreau du Temple)에서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제2회 거리음식축제 (Street Food Temple#2)’가 진행됐다. 카로 뒤 탕플은 파리에서도 가장 세련된 구역인 마레 지구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스포츠와 공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19세기 말, 의류·직물 시장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나 1982년 프랑스 역사 유물로 공식 지정된 후 개보수를 통해 2014년 재탄생했다. 곡선의 철제 구조와 넓은 창으로 뒤덮인 클래식한 외관 속에서 현대적인 문화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2회 거리음식축제(Street Food Temple#2) : 한국주민국국

거리음식축제는 2014년 9월 카로 뒤 탕플에서 처음 개최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세계 각국의 거리 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다양한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축제라는 코드와 결합시켜 새로운 거리 문화를 만들어냈다. 2015년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한국의 거리 음식과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파리에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영향이 크다. 카로 뒤 탕플 측은 2015년 스트리트 푸드 축제 & 2015년 프랑스 미식 주간 기간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하는 축제 기획서 초안을 주불한국문화원에 먼저 전달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주체 한·불 수교 행사로 ‘푸드 트랙’을 통한 한식 홍보 행사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의 중이었기에 카로 뒤 탕플의 초안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이에 2015년 4월부터 양측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상을 논의해 나갔다.

제2회 거리음식축제(Street Food Temple#2) : 한국주민국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카로 뒤 탕플 측은 공간과 공연 장비 제공, 한국 부스 기자재 대여 및 설치, 프랑스 언론 홍보를, 주불 한국문화원 측은 부스 및 음식 선정, 한국 공간 디자인 선정, 공연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진행, 한국 언론 홍보를 맡기로 합의하고 약 6개월 간 활발한 교류 속에 주빈국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재불 한국 식당과 협회들도 참여했다.

주최 측인 주불한국문화원은 이번 행사에서 거리 음식 판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해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다채롭게 소개했다. 건물 외부에 마련된 한국 거리(La rue Coréenne)에는 빨강·파랑의 청사초롱이 방문객을 반겼다. 10여 개의 부스를 설치, 떡볶이, 닭강정, 호떡 등의 거리 음식을, 실내에는 주점을 열어 소주, 막걸리 각테일 주스 등을 선보였다. 유료 프로그램인 <한식 아틀리에>는 실내에서 조리할 수 있는 김밥 등의 메뉴를 시연하면서 참가자들이 직접 조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개막식에는 한국 일렉트로닉 음악 그룹인 이디오테잎(Idiotape)과 제17회 파리 테크노 파레이드(Paris Techno Parade)의 주빈국 대표로 참여한 디제이 머쉬(DJ MUSHXXX, 수리(SOOLÉE)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져 축제에 열기를 더했다. 또한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TV 인기 프로그램인 <탑 셰프(Top Chef)> 출신 스타 셰프, 피에르 상(Pierre Sang)이 기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불 퓨전 음식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덕에 간소한 푸드 트랙이 아닌 주빈국으로서 거리음식 축제에 참여한 결과는 ‘신선했고 성공적’이었다. 한국의 대표 거리 음식인 떡볶이, 어묵, 만두 등을 맛본 외국인 참여자들은 맵고 달달한 한국 음식을 신선해했다. 모든 거리 음식을 2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을 만큼 참여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반면 준비한 음식이 순식간에 동이나 한국 가리를 찾은 참여자들의 아쉬움도 컸다. 당초 한국 문화원에서 예상한 참여자 수는 3만 명이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5만 명이 축제를 찾아 흥겨운 분위기 속에 한국과 한국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행사였다.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 프랑스 미식 축제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 프랑스 미식 축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미식 행사로 거리음식축제가 있다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기간에는 길거리 음식 행사로 프랑스 미식 축제가 있었다. 이 행사는 ‘소 프렌치 델리스(So French Délices)’라는 프랑스의 유명 셰프 단체와 SPC그룹의 파리바케트 그리고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주최로 진행됐다.

파리의 ‘제2회 거리음식축제’처럼 프랑스 미식 축제도 광화문 광장에 음료, 빵,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해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 콘셉트로 꾸며졌다. 이에 광장을 찾았던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레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보기에도 예쁜 프랑스 음식을 즐기기 위해 긴 줄을 만들기도 했다.

특별히 크리스토프 도베르뉴(Christophe Dovern), 필립 위라카(Phillipe Urraca), 에릭 트로송(Eric Trochon) 등 프랑스의 스타 셰프들이 대거 참여해 프랑스 요리의 향연을 펼쳤다. 이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음식이 아닌 축제 콘셉트에 맞추어 크로크 무슈, 에클레어, 슈크림 등과 같이 길거리에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불고기 샌드위치, 한국식 알자스 샐러드 같은 퓨전 음식도 선보여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쿠킹 쇼 형태로 진행된 이들 명장들의 코너는 대중들과의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꾸며져 참가자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프랑스 요리를 친숙하고 쉽게 접하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프랑스 미식 축제는 프랑스 음식을 한국에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음식을 통한 양국 문화 교류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짧은 시간, 한정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대중들이 프랑스 문화를 접하고, 서로의 문화가 만나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게 이러한 행사의 작지만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엘리제궁 수석 셰프, 기욤 고메즈(Guillaume Gomez)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불 양국이 협력해 문화적 수출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롤랑가로스 ROLAND GARROS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롤랑가로스 토너먼트 한국선수 출전

2016.05.20-2016.05.21. 롤랑가로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롤랑가로스 인 더 시티

2016.04.21-2016.06.05. 육군사관학교, 서울시청광장

주관기관

한국: 대한테니스협회

프랑스: 프랑스테니스협회



2016년 봄, 서울에서 2016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테니스협회가 손잡고 ‘랑데부 롤랑가로스 (Rendez-Vous à Roland-Garros, 이하 RDV)’와 ‘롤랑가로스 인 더 시티 (Roland-Garros in the City, 이하 RGIN)’를 진행한 것. ‘롤랑가로스’는 4대 그랜드 슬램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의 공식 명칭이며, 두 행사는 롤랑가로스의 클레이 코트를 홍보함은 물론 경기를 즐길 수 없는 선수와 일반인에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프랑스테니스협회(Fédération Française de Tennis, 이하 FFT)가 개최하는 이벤트다. RGIN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두 행사를 한국에서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덕분이었다. 1980년대 원정 경기로 프랑스 테니스와 인연을 맺기는 했지만 한국 테니스는 그간 ‘Home and Away’ 국가 대항전을 제외하곤 프랑스와 활발한 교류가 없던 터였다. 2010년대 들어 대한테니스협회(Korea Tennis Association, 이하 KTA)는 매년 프랑스 오픈을 관전하고 FFT 관계자들과 조금씩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FFT 쪽에서 먼저 RDV, RGIN 두 프로그램을 가지고 KTA를 찾은 것이다.

2015년 2월 나흘 일정으로 방한한 FFT 임원단은 두 행사를 위한 장소 섭외와 코트 물색, 후원사 섭외 등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곳과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일정을 일사천리로 정리할 수 있었고, 자연스러운 협업으로 쌓인 신뢰는 6개월 뒤 양국 ‘업무 협약(MOU)’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1945년 KTA(당시 대한테니스회)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 테니스계에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었다. 각종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 협약을 반겼다.

양 협회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교환, 클레이 코트의 건설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볼 보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교환 등 테니스 관련 기술뿐 아니라 테니스 박물관 전시

물 교환, 한국 팬들을 위한 롤랑가로스 패키지 상품 기획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화 교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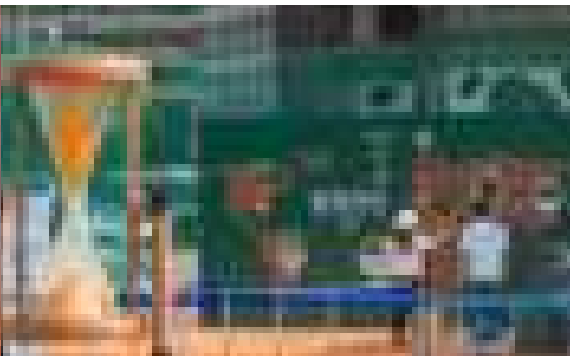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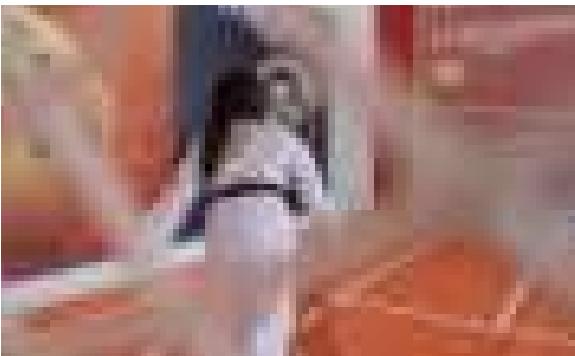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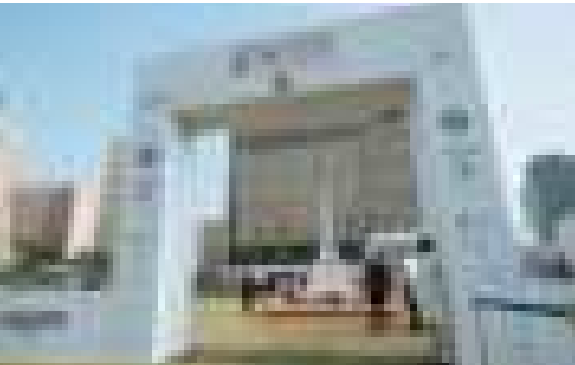
먼저 RDV가 2016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에서 진행됐다. RDV는 낮은 랭킹의 선수들에게 롤랑가로스 주니어부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총 5개 국가에서 열리는데 남자부에서는 임민섭(용인고)이, 여자부에서는 이은혜(중앙여고)가 대회 정상에 오르며 파리행 티켓을 획득했다. 이들은 5월 20일부터 파리에서 중국, 브라질, 인도, 일본 우승자와 본선 진출 와일드카드를 두고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아쉽게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RGIN은 현지 롤랑가로스 일정에 맞춰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됐다. RGIN은 이름 그대로 경기장이 아닌 도심에서 롤랑가로스를 즐기는 행사로, 2008년 파리 시청 앞에서 시작된 이래 베이징, 상하이, 리우데자네이루 등을 거쳤다. 양측 협회는 롤랑가로스의 상징인 클레이 코트를 광장 한 편에 깔고 레슨 이벤트를 진행하고, 현지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 주요 경기를 생중계했다. 이외에도 롤랑가로스 스타디움 가상 체험관, 스크린 테니스 존, 롤랑가로스의 공식 후원사인 등의 부스도 마련해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를 이끌



어냈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최초의 테니스 행사인데다 한국에서 프랑스 오픈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로 전국에서 테니스 마니아가 모여들었다. 성황 속에 방문객 수 2만5000명을 기록했으며 한국 테니스 문화를 고양시켰다는 평가다.

KTA는 두 행사를 통해 한국 테니스 발전의 토대를 다지게 됨과 동시에 FFT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선진 테니스의 노하우와 기술을 배우는 한편 FFT와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테니스가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양국 협회는 이를 위해 더욱 견고히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글, 최진희 / 사진 제공, 대한테니스협회)



투르 드 프랑스 레타پ 코리아 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6.11.05-2016.11.06. 올림픽공원

주관기관

한국: 왁티(WAG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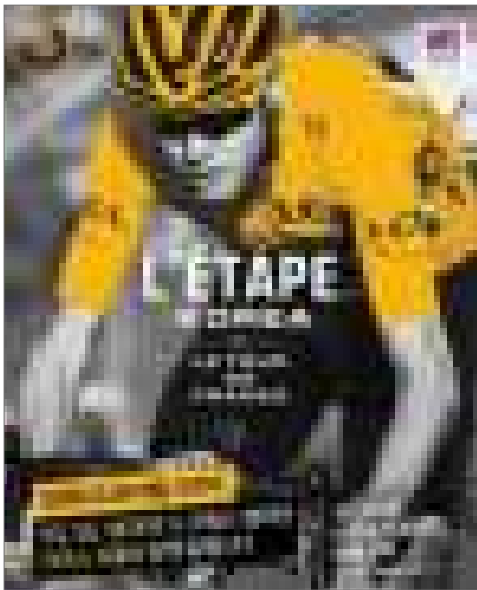
프랑스: 투르 드 프랑스 레타پ 코리아(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

2016년 봄에 있었던 ‘롤랑가로스(Roland-Garros)’에 이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의 스포츠 분야 중 주목할 만한 행사가 ‘투르 드 프랑스 레타پ 코리아(L'Étape Korea by le Tour de France)’다. 이 둘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로서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투르 드 프랑스’는 매년 여름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로 1903년부터 시작됐다.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3주 동안 알프스 몽블랑의 고지를 오르고 노르망디 해변을 지나는 등 프랑스와 인접 국가의 약 3500km의 대장정을 달린다. 장기 레이스일 뿐만 아니라 난코스가 악명 높아 ‘지옥의 레이스’라 불리기도 한다.

‘투르 드 프랑스-레타پ 뒤 투르(Tour de France-L'Étape du Tour)’는 투르 드 프랑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고의 아마추어 사이클 이벤트다. 프랑스어로 ‘레타پ’은 ‘무대’라는 뜻인데 사이클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투르 드 프랑스라는 무대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참가자에게 본 대회의 실제 코스를 달리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이 행사의 특징이다. 1993년을 시작으로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을 코스로 하는 대회가 매년 진행되었는데 2016-2017년에는 6개 대륙에서 호주,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 11개 나라가 참가한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투르 드 프랑스와 레타п 뒤 투르 모두를 주관하는 프랑스의 A.S.O.(Amaury Sport Organisation)가 한국을 찾은 데서 시작했다. A.S.O.는 20여 개 국가에서 70개의 행사들을 연중 270일 이상 주관하는 회사로, 행사 조직은 물론 언론 및 판매 등에 관한 자체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A.S.O.는 이 행사를 함



께 진행할 국내 공식 파트너 기관을 찾기 위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프랑스 대사관은 즉각 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A.S.O.의 참가 아래 최종 비딩을 통해 파트너인 왁티(WAGTI)가 A.S.O.의 손을 잡게 되었다. 왁티는 스포츠 및 문화 사업 전문 회사로서 다수의 올림픽에서 마케팅 및 홍보 경험을 쌓은 기업이다.

이렇게 만난 두 기관은 이후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조직적이고 스피디하게 행사를 준비해 나갔다. 경주 운영, 발리지 운영, 마케팅 그리고 지자체 협조까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왁티는 레이스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스터디를 진행했다. 자문위원 컨설팅은 물론 전문 레이스 운영 업체와의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8월에는 투르 드 프랑스 본 대회를 답사해 A.S.O.측과의 워크샵 등을 통해 레타п 이벤트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후 왁티와 A.S.O.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라인과 유선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A.S.O.는 8월 프랑스 현지에서 왁티를 맞아 하루 동안 동행하며 행사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같은 목적으로 방불한 세계 여러 레타п 운영국들과의 카넥션도 주선했다. 왁티는 덕분에 대만 팀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해외 인적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사이클링 대회 주관사답게 A.S.O.는 경주 운영과 브랜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레타п 코리아의 코스가 투르 드 프랑스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왁티와 함께 한국 현지 코스를 답사하며 코스 설계와 개발을 도왔다. 또한 사진과 기타 자료를 제공해 국내 미디어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SNS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자국에 레타п 코리아를 홍보하는 등 A.S.O.는 시종일관 적극적이었다. 행사 이틀 전에는 A.S.O. 회장과 실무진이 미리 방한해 행사 전반의 진행 과정을 검토했다.

두 주관사가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은 협조 공문을 발송, 스폰서 제안과 같은 국내 업무뿐 아니라 레타п 코리아의 부대 행사를 위한 프랑스 현지 학교 연결 등 프랑스 관련 업무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된 ‘투르 드 프랑스 레타п 코리아’는 2016년 11월 5-6일 이틀간 서울 올림

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레이스 전체 코스는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을 기점으로, 경기도 팔당, 양수리, 중미산, 분원리 등을 통과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서울 및 경기권 사이클리스트들에게 익숙한 구간으로 구성됐다. 약 1500명의 사이클리스트를 비롯해 본 대회 개최를 기념해 투르 드 프랑스의 3관왕인 크리스 프룸(Christopher Froome)과 프랑스 대사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A.S.O. 대표 장에티엔느 아모리(Jean-Etienne Amaury),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조양호 위원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 등의 내빈과 가수 선 그리고 많은 사이클 팬들이 참가했다. 사이클 또는 프랑스 문화를 알리는 ‘빌리지 문화 축제’ 행사도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자전거 엑스포 및 ‘투르 드 프랑스’ 특별 전시, 스타 선수와의 만남, 프랑스 문화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풍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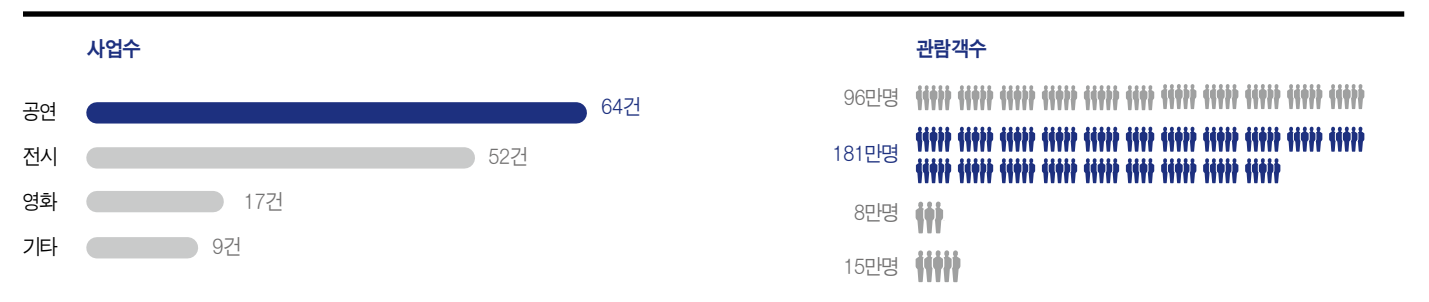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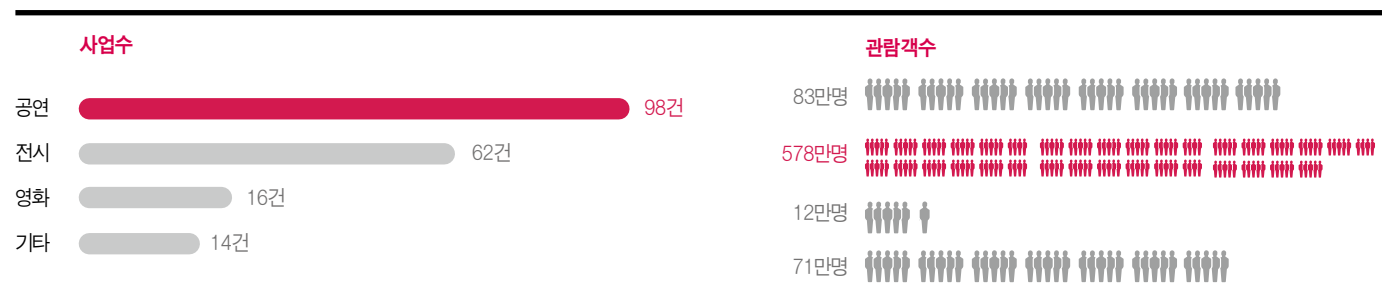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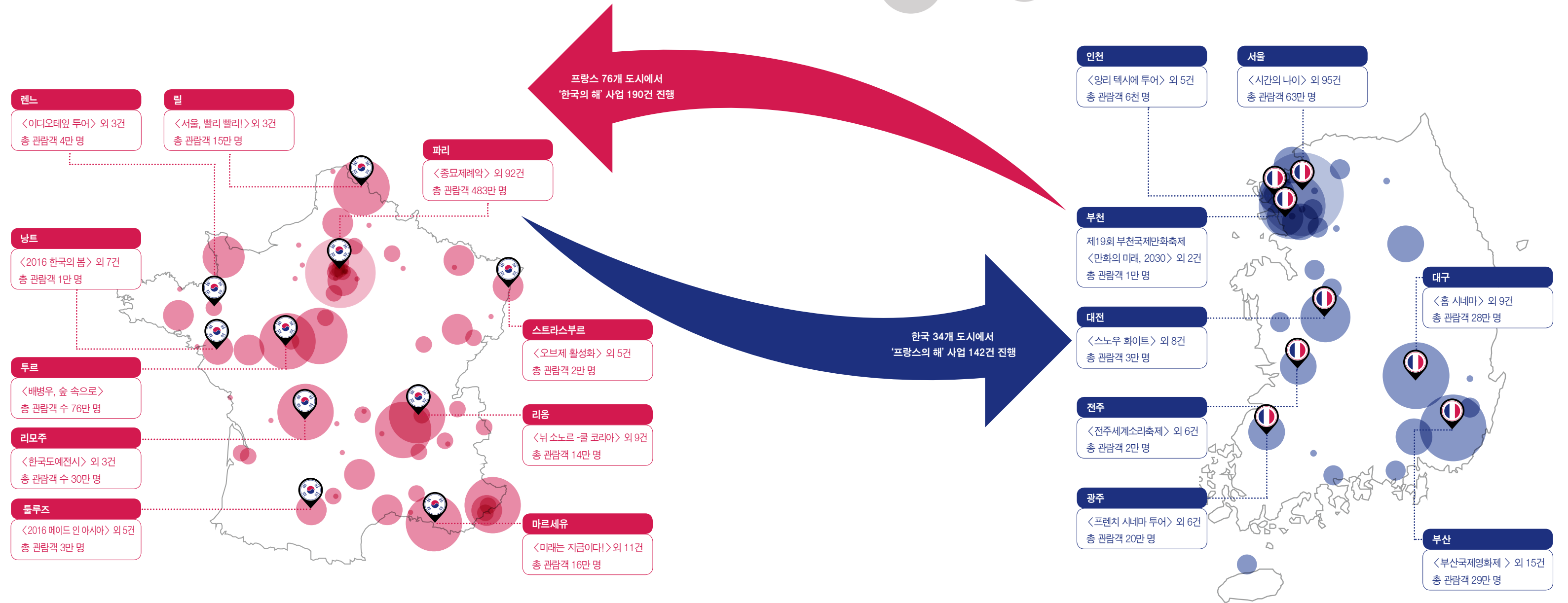
투르 드 프랑스-레타п 뒤 투르의 취지대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사이클 팬들은 세계적인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더불어 국내 아마추어 사이클 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는 모두 A.S.O.와 왁티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의 긴밀한 공조 덕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성과라 할 수 있다. 준비 과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A.S.O.와 왁티는 함께 걷고 함께 호흡하며 행사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협력 행사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과 프랑스는 더욱 깊고 넓게 우정을 다지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서울-평창 코스 대회는 물론 다년간 진행될 투르 드 프랑스 레타п 코리아도 계속해서 프랑스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미래 100년 우정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최진희 / 촬영, 안유진)

III

제 3장 소통



한눈에 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이루어 낸 결실

문화/예술분야 공식인증사업		399건
프랑스 내 한국 해 227건		
한국 내 프랑스 해 172건		
사업기간		1년 4개월
2015년 9월 ~ 2016년 12월		
프랑스 내 한국 행사: 2015. 09 ~ 2016. 08월(1년)		
한국 내 프랑스 행사: 2016. 01 ~ 2016. 12월(1년)		
개최도시		110개 지역
프랑스 76개 도시		
한국 34개 도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2010년 11월 12일 한-불 정상회담에서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의 새로운 미래 협력 비전을 조망하기 위해 추진키로 합의한 국제교류 사업이다. 1886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여러 방면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 간의 더 나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했으며, 양국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2011년부터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단순히 수교기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랑스 전역에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지속해서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프랑스의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느낄 기회를 제공했다.

2015년 9월 18일 파리의 샤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개막작으로 공연된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폐막행사로 진행한 ‘감사의 밤’까지 1년 4개월에 달하는 사업 일정이 완결되었다. 이번 사업을 준비하는 데 5년이 걸렸으며,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공식인증사업만 492건(문화/예술분야 399건, 일반분야 93건), 양국의 사업추진 장소는 파리 외 75개 도시, 서울 외 33개 도시로 이번 사업은 110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제 교류 사업으로 최장 기간, 최다 분야,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한편, 양국에서 진행된 분야별 공식인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업을 통한 양국별 중점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측의 분야별 공식인증사업 건수가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측은 상대적으로 일반 분야의 교육/학술/과학/경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백서가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짚어가고 있기에 일반 분야에 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얻은 문화예술 분야 위주로 그 성과를 짚어고자 한다.

분야별 공식인증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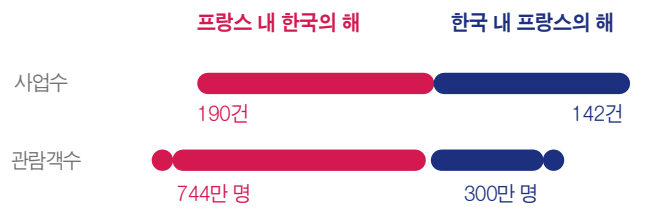
구분	계	문화/예술분야						일반분야					
		시각	공연	영화	문학	기타	소계	교육/학술	과학	경제	미식	기타	소계
총계	492	143	178	45	11	22	399	41	10	15	13	14	93
한국의 해	247	74	108	24	9	12	227	8	2	1	1	8	20
프랑스의 해	245	69	70	21	2	10	172	33	8	14	12	6	73

숫자로 보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¹⁾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기간 내 양국 간에 진행된 전체 사업 수는 332건²⁾으로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190건, 전체 관람자 수는 744만 명이며,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142건, 전체 관람자 수는 300만 명이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건수가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 건수보다 48건이 많으나 관람자 수는 2배 이상 많다. 한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양국 내 사업 참가자수³⁾는 2만5천여 명이다.

양국에서 진행된 분야별 사업 건수는 공연, 전시, 영화, 기타 순으로 많다. 양국 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분야별 현황은 공연 분야 98건, 전시 분야 62건, 영화 분야 16건, 기타 14건이다. 분야별 관람객 수는 전시 분야가 578만 명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공연보다 전시 기간이 길고 관람 시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의 경우, 공연 분야 64건, 전시 분야 52건, 영화 분야 17건, 기타 분야가 9건이며, 마찬가지로 분야별 관람객 수는 전시 분야가 제일 많아 181만 명에 달한다.

사업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예산지원 사업 수는 106건, 비예산 사업은 84건이다. 비예산 사업의 경우 공식인증 로고만을 부여하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이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예산지원 사업은 53건, 비예산 사업은 89건이다. 양측 전체 사업을 놓고 보면, 예산지원 사업 비율이 48%(159건)이며, 전체 사업 대비 공연, 전시 분야의 예산 지원 비율이 51%로 동일하며, 영화 분야는 36%, 기타 분야가 2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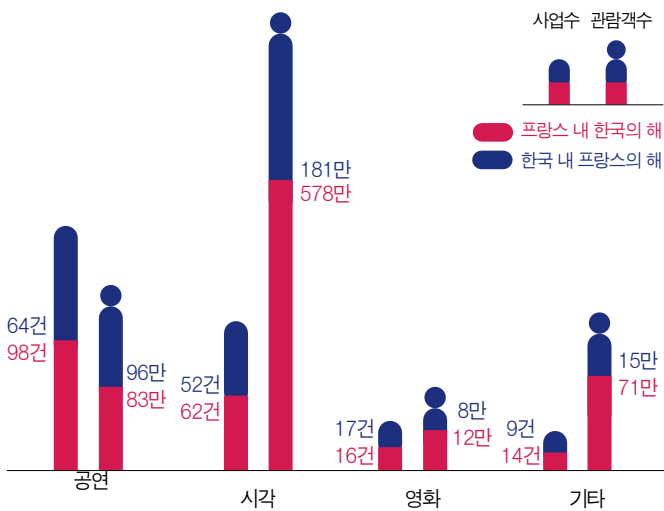


1) 해당 지표와 통계 자료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 측 사무국이 집계한 수치와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등을 통한 리서치(주)글로벌리서치)를 근거로 한 내용이다.

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 공동회의를 통해 승인된 공식인증사업은 모두 399건이었으나 기간 내 사업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 332건을 기준으로 해당 장에서는 성과 지표와 통계를 소개한다. 인증사업의 취소는 단체나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3) 예술가, 스태프, 기획자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한 전문 인력 수를 의미한다.

분야별 사업수 및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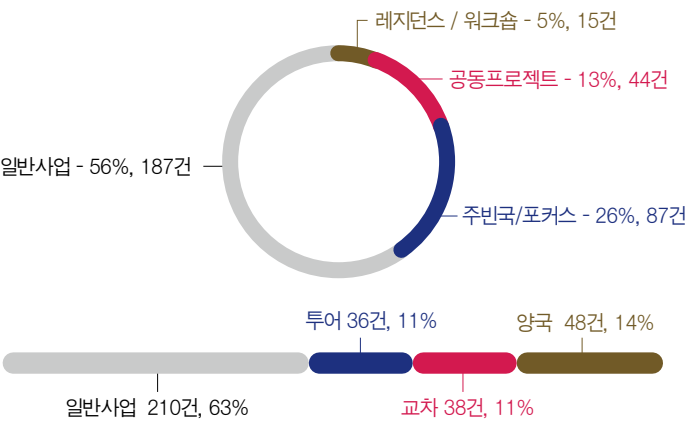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다수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교류 방식과 협력 프로젝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포커스나 주빈국 형태는 87건, 공동제작 44건, 레지던스 및 워크숍 15건⁴⁾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양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된 사업은 48건이며, 파트너십을 공유한 양측 기관이 상대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차 사업은 38건에 이른다. 또한, 사업 기간 순회공연을 진행한 사업은 39건이다.

한국 포커스 추진 기관 / 50건
파리가을축제(5건), 사이오국립극장 코리아 포커스(5건), 아비뇽 페스티벌(4건), 포럼 데 이마주 <매혹의 서울>(74편), 랑콩트르 코레그라피 드 센 생 드니(5건), 파리상상축제(5건) 등

프랑스포커스 추진 기관 / 25건
통영국제음악제(8건), 롯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4건), 자라섬제즈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세계무용축제 등

주빈국으로 초청한 사업 / 11건
아트페어 아트퍼리, 2016 파리국제도서전,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테크노 페레이드, 메이드 인 아시아, 사르셀 국제관화비엔날레, 재즈 수레포미에, 제5회 세계사진비엔날레-포토케, 발로리스 국제비엔날레, 거리음식축제, 2016 서울국제도서전



4) 전체 332건 사업 가운데 주빈국이나 포커스 형태, 공동제작과 레지던스 및 워크숍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144건에 달한다. 나머지 186건은 보통 공동기획이나 공동주관의 형태로 사업이 이뤄졌는데, 기타 분야의 교육·학술·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부 초청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공동제작 형태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공연 분야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연 분야의 경우 양국에서 진행된 전체 사업 건수는 162건이며, 소개된 작품 수는 648개로 한 개의 사업에 평균적으로 4편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전체 공연 횟수는 1,350여 회이며, 관람객 수는 179만 명이다. 공연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교류 방식은 공동제작 형태로 양국에서 진행한 사업이 41개이며, 주빈국/포커스 사업은 49개이다. 또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의 공연 관람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 전통,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순위에 올랐고,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음악 장르에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공연 분야의 경우 프랑스 공연예술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주요 공연장과 축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장르의 사업이 소개되었다. 샤이오국립극장이나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을 위시해 파리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등에서 한국의 공연 예술이 프랑스 관객과 만났다.

진행사업 114건

평균 전시 기간 109일

총 작품 수 9040여 작품

한편, 미술 분야에서도 프랑스 미술계를 대표하는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등 주요 미술관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랑팔레(Grand Palais),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 릴 트리포스탈(Lille Tripostal) 등 다양한 거점 공간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관람객과의 접촉 경로를 다변화하고 공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진행사업 162건

공동제작 사업 41건

공연횟수 1350여 회

주빈국/포커스 사업 49건

평균 전시 기간 109일, 관람객수가 769만 명에 이르는 전시 분야

전시 분야의 사업 건수는 114건이며, 사업을 통해 양국에서 소개된 작품 수는 9천여 개이며, 전시 기간은 평균적으로 109일, 관람객 수는 769만 명에 이른다. 양국에서 집계된 상위 관람객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가 두드러진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으며, 공동기획에 따른 전시 프로그램 외에도 레지던스에 의한 긴밀한 인적 교류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한편, 미술 분야에서도 프랑스 미술계를 대표하는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국립장식미술박물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등 주요 미술관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랑팔레(Grand Palais), 상보르성(Château de Chambord), 릴 트리포스탈(Lille Tripostal) 등 다양한 거점 공간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관람객과의 접촉 경로를 다변화하고 공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상연횡수 1,400여 회, 200여 편의 작품이 소개된 영화 분야

영화 분야의 사업 건수는 33건이며, 소개된 영화 편수는 200여 편이다. 하나의 영화제를 통해 평균적으로 6편의 영화가 소개되었고 37일 간의 상연 일정이 진행되었다. 관람객 수는 약 20만 명이다. 프랑스 영화계의 주요 거점 공간인 시네마테크 프랑스(Cinémathèque Française), 포럼 데 이미지주(Forum des Images)를 비롯해 확실한 콘텐츠 플랫폼을 갖춘 남트 3대륙 영화제 등을 통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이 진행되었고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은 국내 영화제를 통한 포커스나 특별전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22개의 사업
기타 분야

기타 분야의 경우 사업 건수는 22건이며 관람객 수는 86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Salon du Livre de Paris)>는 프랑스출판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도서 전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작가들의 인터뷰, 국제학술행사, 출판인과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5) 사업의 참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계기로 후속 성과를 얻었다고 답한 사업 건수는 94건이며, 이번 사업 이후 초청공연이나 순회공연을 추진하거나 음반 발매 결정, 전시 기간 연장, 새로운 프로젝트 연계 등의 후속 조치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 해당 사업을 전담한 한국 측 사무국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관계로 사업 종료 이후 이번 사업을 통한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준호 예술감독은 사업의 사전 준비 과정이나 사무국 운영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술가나 관련 종사자들의 인적 교류에서도 이를 지원해줄 매개 인력(코디네이터, 커미셔너, 프로듀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예술가나 작가가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연계 프로젝트들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영역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매개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사업	33건
관람객 수	200,900여명
작품수	200여편

4. 그리고 전망

로 이뤄지고 있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수처
는 어려운 상황이다. 참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

나 해양 사업의 종료와 맞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⁶⁾ 무엇보다 네트워크 확산이나 인적 교류 등의 성과는

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사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의 파트너십을 다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는 것은

통해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성과나 현지 반응을

블루포단, 단식 —음— 네 단각기 에 개각각—포 음단단

〈종묘제례악〉은 2회 모두 매진되었고,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파리시립극장에서 4회 전회가 매진되었으며 해당 공연을 통해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는 창극이 처음 소개되었다는 의의 또한 더해졌다. 이외에도 프랑스 주요 극장에서 공연된 상당수 작품이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⁷⁾

또한, 10만 명 이상의 관람자 수를 기록한 사업은 25개(프랑스 내 한국의 해 15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10개)로, 파리에서 진행된 테크노 파레이드 <서울 밤!> 투어, 아트

주변국 참가), 팔레 드 도쿄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기획한 이불의 신작 <새벽의 노

오가 공동기획한 전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Lingering Nous)>이다.

내 프랑스의 해 30개)로, 한국을 주빈국으로 삼은 프랑스 공예아트비엔날레 <레벨라시옹(Révélation)>, 국립기예동양박물관과 갤러리현대가 공동기획한 전시 <

Breathe〉 등의 전시와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포럼 데 이마쥬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기획한 영화제 <매혹의 서울〉 등이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지에서의 성원을 통해 발생한 후속 조치의 사례로는 상보
르스 재단과 배병우 작가의 사진전 <숲 속으로>가 2016년 4월로 계획된 전시 일

31일), 칸느 메르박물관(Musée de la Mer)(2016년 6월 11일 ~ 10월 16일)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되었다. 국립기대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

정되었다. 한국을 주빈국 플랫폼으로 선정해 한국 작품과 작가를 비롯해 갤러리 10여 곳을 초청해 프랑스 미술 시장에 소개한 <2016 아트파리 아트페어(Art Paris

안은미컴퍼니의 ‘댄스 3부작’은 프랑스 전역에서 순회공연이 이어졌으며 독일에서

리스 랑베르와 한국의 무용수 김남진이 만나 공연한 <안티포드(Antipode)>는 2017년 파리시립극장에서 추가 공연될 예정이다. 2016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테

4.2.1.3. *Phylogenetic relationships*

이외에도 프랑스 주요 공연장과 축제 등에서 매년 사례를 기록한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협회의 '댄스 3부작' 및 순회공연, 파리 가를 축제에서 소개된 김금희의 <만수대박>, 안숙선의 <수궁가>, 작곡가 진문숙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오늘의 음악, 진문숙>을 비롯하여 <가리를식숙>, 파리 한국영화제 <베레타>, 재즈스쿨 피아니스트들인 신대호, 김민준의 <국악교양외의 취미>

신종악기 기능적 꽃 기쁨공연, 연조&세미의 공연, 국립무용단 <회오리>, 국립극단 <빛의 제국>, 브르나뉴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등이다.

아닌 전편이 거의 온전하게 구성되어 해외에서 공연된 첫 사례이다. 국립국악원의 정악단 83명, 무용단 등 전체 115명의 예술가가 참가하였고 자막 화면을 곁들여 작품의 이해를 높였다. 따라서 프랑스 공연을 앞둔 때는 윌베스 코 무하운사이자 하구 정복사에

본의 강우도 급이던 <응교세계적>을 강릉 기록물도 남겼다.

단 돌꽃이의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은 2017년에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되어 한국 디제잉을 소개한 <서울 밤!> 투어는 추가 공연 2건이 추가되었으며, 일렉트로닉 음악 밴드인 이디오테잎은 카로 뒤 탕골과 릴 3000 등에서 순회공연

중심 공연예술 단체 리퀴드 사운드와 프랑스 사운드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관계〉(2015년 11월 13일 ~ 23일 파리8대학교 앙파X 등)를 기반으로 해서

몽페랑 문화의 집>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들의 시나위 합주', '철현금 산조', 오코라(OCORA) 라디오 프랑스 컬렉션으로 유지숙 민요 등이 음반으로 발매되었으며, 사이오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종

촬영했다.⁸⁾ 문학 장르에서는 황석영의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줬는가?』(르 몽드(Le Monde)), 『한국, 그 정신을 간직하다』(데 리브르-르 몽드(Des

10만 명 이상 관람객 기록 사업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분야	사업명	도시	장소	관람객 수
전시	이불, 새벽의 노래 III	파리	팔레 드 도쿄	21만
전시	코리아나우! 한국공예전	파리	국립장식미술박물관	18만
전시	배병우 사진전 <숲 속으로>, <풍경 속으로>	투르, 생테티엔	상보르성,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	114만
전시	한국 전통 목조각, 꼭두의 아름다움	니스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	12만
전시	서울, 빨리 빨리!	릴	트리포스탈	15만
전시	한국현대도예전시	리모주	베르나르도재단	30만
전시	정현 <서 있는 사람>	파리	팔레 로와알 정원	150만
전시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Nous)>	파리	퐁피두센터	120만
전시	이배 <이슈 뒤 푸>	파리, 상트르 발 드 루아르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쇼몽성	19만
공연	테크노 퍼레이드 : 한국주민국 <서울 밤!> 투어	파리	카로 뒤탕플, 그랑 리바주 외	30만
공연	뉴 소노르 - 쿨 코리아	리옹	콩플뤼앙스 박물관 외	13만
문학	2016 파리도서전 : 한국주민국	파리	파리 엑스포 포트 드 베르사유	15만
기타	롤랑가로스 토너먼트 한국선수 출전	파리	롤랑 가로스	50만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분야	사업명	도시	장소	관람객 수
전시	보이지 않는 가족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12만
전시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광명	광명동굴	17만
전시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11만
전시	흙 시네마	대구	대구시립미술관	25만
전시	장 폴 고티에 전	서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0만
전시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광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26만
전시	2016 부산비엔날레 <흔들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	부산	부산시립미술관 외	21만
공연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프랑스 포커스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0만
공연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서울	서울시청광장 외	34만
문학	2016 서울국제도서전 : 프랑스 포커스	서울	코엑스	12만

도시별 상황으로 살펴보는 사업의 이모저모

양국 사업별로 진행된 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 내 한국의 해’는 76개 도시, ‘한국 내 프랑스의 해’는 34개 도시로 전체 110개의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실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양국별 거점 도시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했다. 물론, 파리와 서울에서 진행된 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 건수 대비 각각 49%(92건), 68%(96건)이며, 전체 관람자 수 대비 각각 65%(4,832,990명), 55%(1,638,836명)에 달하는 것은 양국의 두 도시가 지닌 위상과 문화적 파급력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파리와 서울 외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별 특성과 호응하여 이뤄진 사업의 다채로움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지역별 주요 축제나 기관 간의 교류 사업을 통해 순회공연이나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프랑스에서 파리 외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된 곳은 마르세유(12건), 리옹(10건), 낭트(8건), 툴루즈(6건), 스트라스부르(5건) 등이며, 한국은 부산(16건), 대구(10건), 대전(9건), 광주(7건), 인천(6건) 등이다.

무용에서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가 마르세유에서

도시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마르세유의 경우 공연, 전시,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마르세유거리예술지구와의 거리극 공동기획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과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의 <미래는 지금이다!>는 전시 등을 통해 관람객 수 16만 명에 달한다. 리옹에서는 공연 분야가 주를 이뤘는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음악창작센터 그람에서 진행하는 축제의 코리아 포커스 <통로(Passerelles)>을 통해 전통음악과 가곡 등이 소개되었으며, 국립무용단의 <목향>도 레 뉘 드 푸비에르 축제(Les Nuits de Fourvière)에 참여해 4천여 석의 로마식 야외 원형극장에서 공연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낭트와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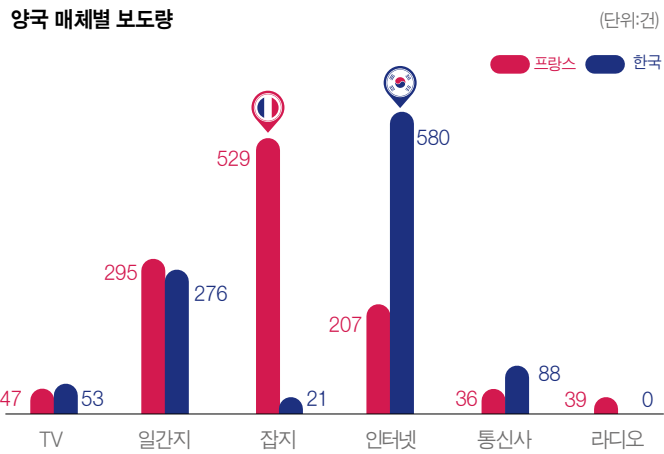
낭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노리단의 워크숍 기반의 공연과 낭트 시민들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과 파라다이스 재단이 지원해 부산의 홍티아트센터와 낭트의 갤러리 파라다이스가 공동기획한 레지던시 사업이 이뤄졌다. 낭트는 일찍부터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낭트 한국학발견협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부산과 낭트 두 도시의 예술가 네트워크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도시 간의 협업이나 교류 방식이 더욱 긴밀하고 심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거리극 축제로 연결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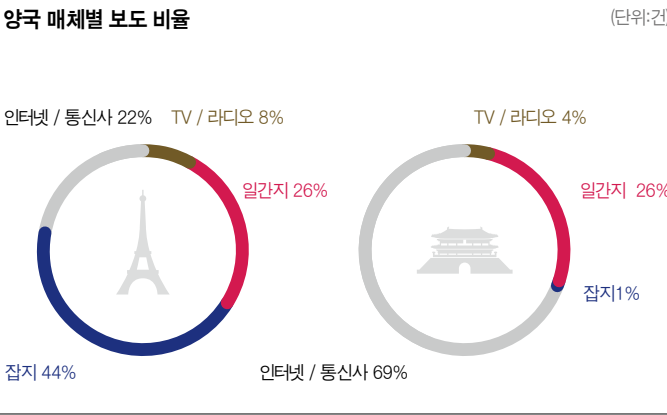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 개최된 ‘2016 메이드 인 아시아’라는 축제에서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주로 전통예술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와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가 공동기획한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리극 축제인 ‘스트라스부르 거리예술축제’와 ‘오리악 국제거리극축제’를 통해 한국의 거리극 단체가 소개되었다. 한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무용제 등의 프랑스 포커스나 주빈국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낭트와 부산 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교차 진행되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립미술관과 크레테유 예술의 집과 공동기획한 <흙 시네마>, DTC섬유박물관과 릴 3000의 공동기획한 <음식을 입다> 등의 전시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대전에서는 이응노 미술관 등의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으로 살펴보는 사업에 관한 이슈⁹⁾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양국에서 드러난 언론 매체의 보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도건수는 4,480건으로 한국 언론보도는 3,242건, 프랑스 언론보도는 1,238건이다. 전체 보도건수에 관한 매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2,023건, 일간지 1,255건, 잡지 604건, 통신사 477건, TV 170건, 라디오 52건 순으로 집계된다.

한국 언론보도의 경우 통신사 428건, 인터넷 1,799건으로, 프랑스 통신사와 인터넷 매체 428건, 224건보다 보도량이 8배가량 많았고, 프랑스의 경우 잡지 549건, 라디오 47건으로, 한국 잡지와 라디오 매체는 55건, 5건보다 보도량이 10배 가량 많았다. 일간지 보도의 경우, 한국은 837건, 프랑스는 318건으로 한국의 일간지 보도량이 2배가량 많았다. 또한, TV 매체의 경우도 한국은 119건, 프랑스는 51건으로 한국의 TV 보도량이 2배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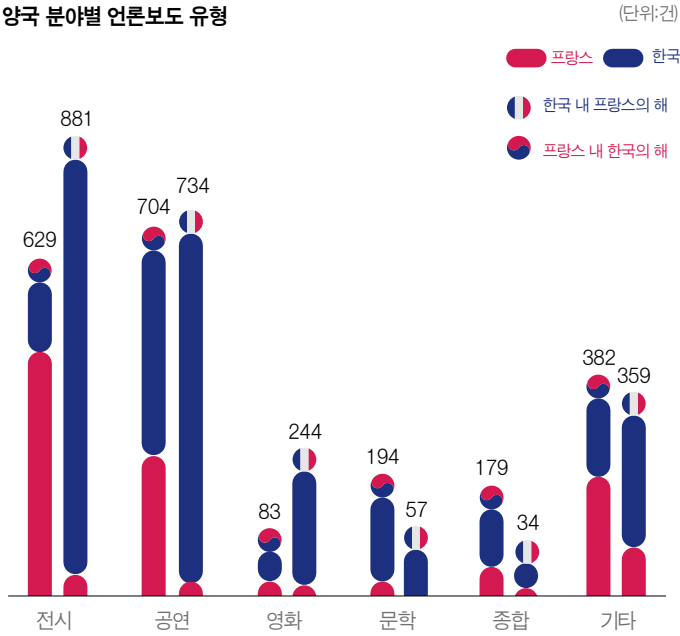
분야별로는 전시 1,514건, 공연 1,438건으로 전체 보도량의 65%를 차지하며, 기타 741건, 영화 327건, 문학 251건, 종합분야 213건으로 집계된다. 양국에서 진행된 전체 사업 기간의 월별 매체 보도량을 살펴보면,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보도건수가 660건, 567건, 439건, 603건으로 많았고, 이 시기의 매체 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6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 프로그램과 2016년 5월 공식인증사업이 최다(112건)로 진행되었고, 2016년 6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특별주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면서 이 시기의 보도량이 많았다.

양국의 매체 환경을 반영하는 보도 현황

한국과 프랑스의 매체별 보도 현황의 차이는 각국의 서로 다른 매체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인쇄 매체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인쇄매체별 가구당 구독률을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구독률이 높은 편이다.¹⁰⁾ 따라서 프랑스 보도량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전문지가 강세로 드러나며, 반면 인터넷 보도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보도가 가장 많으며 전문지 비율은 프랑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기간의 전체 보도건수는 2,171건이며 프랑스 매체는 1,153건, 한국 매체는 1,018건이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전체 보도건수는 2,309건이며 프랑스 매체 85건, 한국 매체 2,224건으로 한국의 언론보도가 우세했다.

해당 사업의 분야별 보도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기간에 프랑스는 전시 분야에 관한 보도 건수가 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분야는



225건, 영화 70건, 문학 23건이며 여러 개의 장르와 사업을 종합 보도한 건수는 55건에 달한다. 한국은 공연 분야가 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1건, 기타 157건, 전시 140건, 종합 124건, 영화 13건에 달한다. 프랑스 매체는 전시 분야에 관심을 높였던 반면, 한국 매체는 공연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 기간에 한국은 전시 866건, 공연 721건, 기타 313건, 영화 242건, 문학 57건, 종합 25건에 보도건수가 집계되었고, 프랑스는 기타 46건, 전시 15건, 공연 13건, 종합 9건, 영화 2건 순으로 집계된다.

양국별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별 보도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 동안 프랑스는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2015년 9월에 보도건수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특별주간’과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 사업이 진행된 2016년 6월과 3월이 각각 289건, 213건으로 보도건수가 많다. 평균적으로 월평균 보도건수는 127건이며, 월별 보도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 건수와 비례하여 매체 보도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사업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사업의 경우, 한국은 2016년 4월과 3월에 보도건수가 426건, 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보도건수는 135건에 달한다.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는 보도 내용

프랑스 언론 매체가 주목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사업은 프랑스 장식미술관에 서 특별 전시 형태로 진행된 한국공예전 〈코리아 나우!(Korea Now!)〉, 파리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 케이팝 공연과 종합 한류문화 체험장으로 열린 〈케이콘

(KCON) 2016〉, 〈파리가을축제〉,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종합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릴 3000과 아트선재센터가 공동기획한 전시 〈서울, 빨리 빨리!〉, 〈종묘제례악〉,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축제인 ‘테크노 퍼레이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한국 디제잉을 소개한 〈서울 밤!〉 투어 등이었다. 특히, 〈코리아 나우!〉와 〈케이콘 2016 프랑스〉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케이팝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었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성이 결합하면서 발휘되는 케이뷰티(K-BEAUTY)를 다루는가 하면 한국의 소프트파워인 케이팝을 통해 한국 문화가 부상하는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 매체가 주목한 사업은 〈케이콘 2016 프랑스〉, 〈2016 파리도서전 주빈국 참가〉, 〈종묘제례악〉,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특별 전시로 진행한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 〈코리아 나우!〉 등이었다. 주로 현지에서의 반응이나 성과 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양국 언론 매체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보도기사의 내용은 사업 소개나 예술가나 사업 관계자 중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종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한 것이 많았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후속조치 등에 관한 보도는 아쉬운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방송 매체에서 개별 사업 소개에서 벗어나 한국의 종교, 문화, 경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화를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타리를 제작해 반영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한국 문화의 배경을 소개했다.

프랑스 언론에서 주목한 사업

사업명	주요기사
케이콘	“케이콘 2016 아르코 호텔에서 열리다” 르 피가로 외 92건
코리아 나우!	“이것이 한국 마니아” 엘르 외 66건
파리가을축제	“사면에서 춤추는 할머니까지, 프랑스에 온 한국” 르몽드 외 28건
테크노퍼레이드	“파리를 점령한 테크노 열풍” AFP통신 외 16건
종묘제례악	“한국의 전통문화유산 〈종묘제례악〉” 텔레라마 외 9건

한국 언론에서 주목한 사업

사업명	주요기사
케이콘	“한류 행사 ‘케이콘 2016’ 파리서 성황리 막 내려” 연합뉴스 외 253건
라스코 동굴벽화 전	“세계문화유산 라스코 동굴벽화 전시회, 광명서 4월 개막” 한국일보 외 219건
파리도서전	“파리도서전 주빈국 한국..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일보 외 170건
롤랑 가로스 인더 시티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프랑스오피콘… ‘롤랑가로스 인더 시티’ 개최” SBS 외 103건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내한공연	“루이 14세 佛 바로크음악” 전주에 우아함을 선사한다” 연합뉴스 외 75건

9) 관련 집계 및 보도 기사 내용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보도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했다. 해당 보도자료집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양국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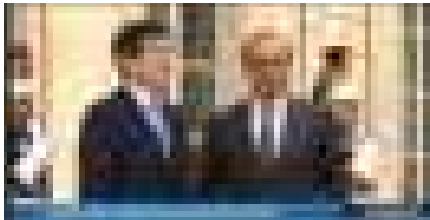
10) 프랑스는 전국 종합 일간지 11개, 지역 종합 일간지 53개, 일간지 주말판 45개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역주간지와 잡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전 국민의 65%가 매일 인쇄 매체를 읽고 연평균 구독 매체 수는 6종에 달한다. (2013년 기준) ‘프랑스 인쇄 매체 환경 및 이용행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정책홍보 전략 연구」 (썬커뮤니케이션웍스, 2015, p.74-75)

프랑스 주요 언론 매체별 보도 이슈

TV5몽드(TV5MONDE, 2015.9.18)

64'지구촌 뉴스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개막을 위해 방불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맞은 것을 소개한 뒤,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 <미래는 지금이다!> 등의 행사와 개막공연 <중요제약>에 대해 자세히 보도



르 피가로(LE FIGARO, 2015.9.16)

“아름다운의 기준, 한국어성들”

한국이 뷰티 트렌드에 있어 부정할 수 없는 허브가 되었다. 파리의 장식미술관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의 개막을 계기로 한국의 뷰티를 포괄적으로 살펴봤다. (….) 파리 장식미술관 올리비에 가베는 “한국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전시 준비 과정에서 큰 화두였다. 그러나 특정 상표나 대우 혹은 삼성 등으로 대표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을 소개하는 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프랑스2(FRANCE2, 2015.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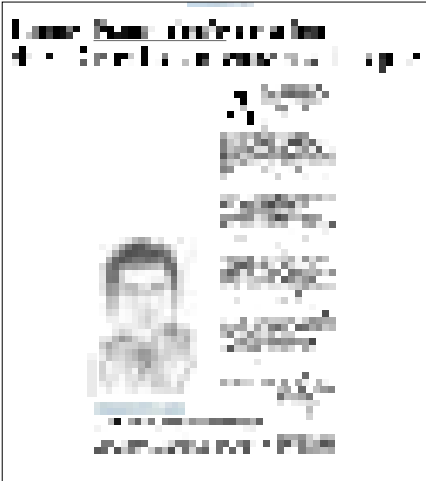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김치 조리법 소개



르 피가로(LE FIGARO, 2015.09.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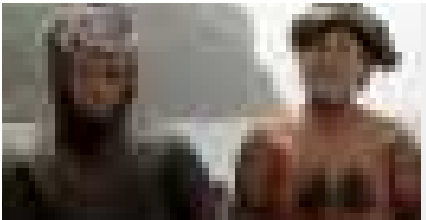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130년 전부터 이어온 양국 우호관계 강화의 시작점으로 양국이 같은 경제비전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이테크와 고등교육,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양자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래에 맞닥뜨릴 과제에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르테 TV(ARTE TV, 2015.11.2-2015.11.6)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를 제작, 서울, 제주, 안동, 부산 등 국내 다양한 도시들을 방문해 한국의 종교,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



르 몽드(LE MONDE, 2015.9.19)

“사면에서 춤추는 할머니까지, 프랑스에 온 한국”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 중 <파리가을축제>,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 <서울, 빨리 빨리!> 와 같이 놓쳐서는 안 되는 행사들을 소개



르 파리지영(LE PARISIEN, 2015.9.18)

“한국의 실재를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전시장에서 만나다”

소피 마카리우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 한국예술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해학적 요소에 부족함이 없고 색채가 화려하면서도 시적이다, 기메에서 위대한 한국문화를 소개한다”라고 표현



엘르(ELLE, 9/10월호)

“이것이 코리아 마니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현대미술, 무용공연, 음악공연, 전통회화, 영화계 행사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



파리마치(Paris-Match, 10월호)

“안은미, 전 세대를 춤추게 하다”

오랫동안 아시아예술시장은 중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면서 예술은 새로 태어났고, 198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이 얼굴을 내밀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웃 나라들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은 이제 기발한 창작력과 함께 아시아 문화의 리더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텔레라마(TÉLÉRAMA, 10/11월호)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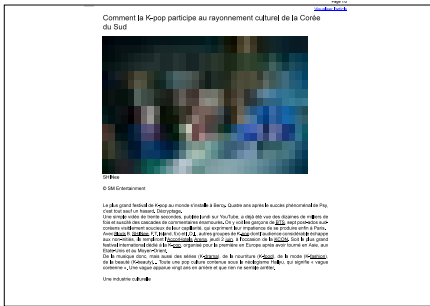
서양 관람객들은 50년 전 일본의 전시회에서도 이런 전율을 맞본 적이 있다. 이토록 창조성이 넘칠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나라에서 배울거리가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는 순간의 느낌.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보인 흥미로운 도정은 단지 그림의 일부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텔레라마(TÉLÉRAMA, 2016.6.2)

“한국 문화의 부상에 K-pop이 어떤 역할을 할까?”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2012년 절정을 이룬 한류는 한국을 소프트파워(문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개념)를 앞세워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 한국은 K-pop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한국 주요 언론 매체별 보도 이슈

KBS1(2015.12.5)

특집다큐 ‘K-Arts, 파리를 매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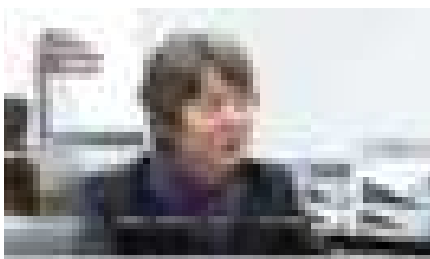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과 함께 한
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현지 반응 소개



EBS(2016.12.25)

‘특집다큐 9000KM를 넘어서, 한불 130년의 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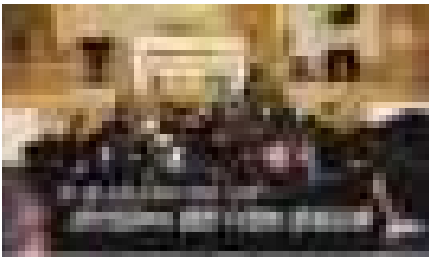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130년
넘게 수교를 맺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 알
아보고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 서울에 있는 파리공
원, 서울의 서래마을, 파리의 한민타운 등 양국의 연
결고리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



채널A(2016.6.11)

특별기획 ‘130년의 만남, 프랑스를 사로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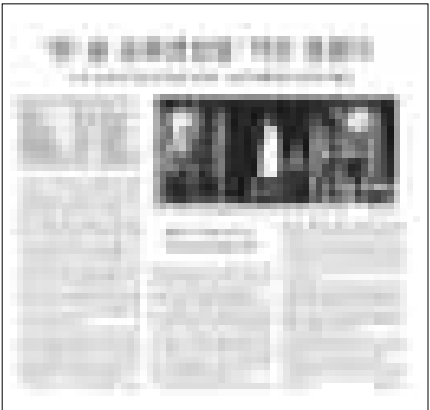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문화를 조명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협업
사례 소개



매일경제(2016.3.24)

‘한-불 문화양상불’ 커튼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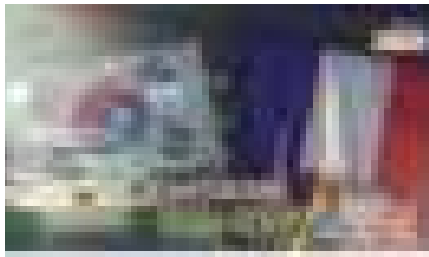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개막을 알리
고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 내 프랑스의 해’의
다양한 행사들을 상세하게 소개



KBS2(2016.10.24)

‘생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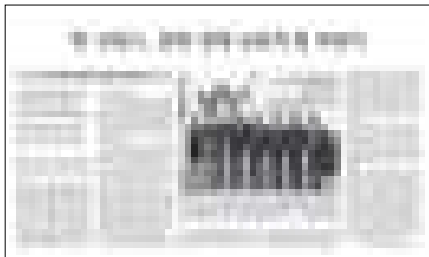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프랑스 특별
전〉, 〈7가지 마음의 모양〉 등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현장과 가족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10월 행사 소개



국민일보(2016.3.24)

“한-프랑스, 문화·경제 교류의 꽃 피운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5-2016
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을 소개하고 조양호 한
국 측 조직위원장, 앙리 루아레트 프랑스 측 조직위
원장, 양국 예술감독의 인사말과 행사 전반에 대해
보도



동아일보(2016.06.01)

“태극 물결 에펠탑”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현지 성과와 특별주간에 대해
4페이지에 걸쳐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최준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의 인터
뷰 기사화. “정부 주도의 이벤트성, 일회성 해외 행사
는 그간 많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이뤄
지는, 준비 기간이 충분했던 행사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쌓은 양국 각 분야의 ‘인맥’은 이후에도 문
화협업을 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객석(2016.5월호)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한국의 전통 요소들이 해외 안
무가에 의해 새롭게 해체되고, 무용수들이 안무가에
의해 큰 폭으로 변신하는, 독창성과 보편성이 공존한
무대(춤비평가 장광렬)



헤럴드경제(2016.6.1)

“시각예술·공연·영화···韓·佛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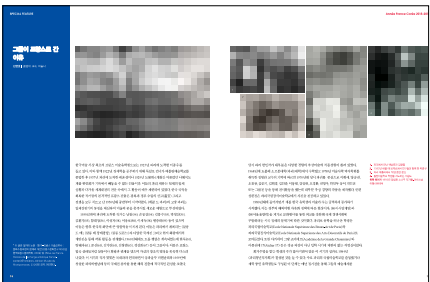
한· 불수교 130주년 기념한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문화 교류 행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하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



월간미술(2016.7월호)

“한국과 프랑스, 미술로 만나다, 교류하다, 나아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특집으로 20
페이지에 걸쳐 한-불 미술교류 역사부터 ‘2015-
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전시 프로그램까지 집
중 조명.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정리는 곧 프랑스
와의 교류사와 다름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중
략)....한국과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서로의 거울이 되
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화의 우열을
따지기 위한 경쟁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에 달린 것 같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



국제 문화교류의 의의와 개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활동이 지닌 고유한 의의 때문일 것이다. 국제 문화교류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풍요롭게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계의 수많은 국제 문화교류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국제 문화교류 현황을 짚어 보자.

타국의 우수 국제 문화교류 사례

국제 문화교류(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활동은 예술가나 종교 수행자가 홀로 고뇌하고 결단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소한 국적별로 문화정체성이 다른 두 명 이상이 서로 문화콘텐츠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상호 영향을 받는 행위다. 이때 ‘두 명 이상’이라는 교류 주체는 개인, 집단, 기관, 국제기구 등 모든 차원에서 가능하다.

국제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문화정체성’과 ‘상호성’, ‘문화콘텐츠’, ‘접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각각 교류의 주체, 이념, 소재, 방식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하므로 시작 전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들(교류 목표, 교류 대상, 교류 콘텐츠, 교류 주역, 교류 일정, 교류 예산, 교류 성과, 사후 관리)이 많기에 우연한 국제 문화교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단계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과 전체’의 통찰이 수차례 반복되므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응할 탄력적 회복(resilience)이 가능한 정서 혹은 심리자본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만, 비용면에서 단기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제 문화교류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제 문화교류 활동이 지닌 고유한 의의 때문일 것이다. 국제 문화교류는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풍요롭게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문화가 생성·전파·확산·혼합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이 국제 문화교류에서 출발되고, 또한 그 모든 과정은 국제 문화교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제문화교류의 이러한 의의는 현장에서 교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주체들만이 아니라 그 경험과 성과를 교류 사후 어떠한 형태로라도 전달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파생된다.

한편 ‘국제교류’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국가 간 교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일반화된 시기는 ‘국가’의 성립기 이후이며, 국제문화교류는 근대 이후의 문화교류활동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근대 이전 모든 개인과 상인 집단, 정치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다. 전쟁과 같은 특정 시기의 교류 단절을 제외하면 이렇듯 축적된 교류의 역사로 인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 문화교류의 주체 및 문화콘텐츠와 접촉의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다각화되고 있는 국제 문화교류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국제 문화교류의 개념은 앞서 제시한 국제 문화교류의 속성인 ‘문화정체성과 상호성, 문화콘텐츠와 접촉’이라는 교류의 주체, 이념,

소재, 방식을 고려하여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국제 문화교류의 개념은 일반적인 교류 개념과 차별되는 지점이 ‘국제’적이되, ‘문화’적인 교류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속성에 좀 더 주목하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규정된다.

이때 국가 즉,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므로 반드시 교류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국제 문화교류는 ‘개인 차원에서는 타 문화 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발전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목적을 포함해 그 개념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문화교류의 필요성 및 최근의 경향

국제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은 국제 문화교류의 의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한 의의를 국가의 실용적 측면과 국가 구성원, 즉 인간의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가 국제 문화교류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이라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실존적 차원에서 국민의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 발전이란 국제 문화교류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창작 수준은 물론 문화상품 생산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이를 향유하는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사실 실용적 차원에서 국가의 대외 이미지 고양은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대 성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는 우리가 설파한다 해서 고양되는 것이 아니며, 타국 시민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 이익을 철저히 계산한 전략적 외교나 상품 수출로 성취된다기보다 완성도 높은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는 문화이해 추구형 교류활동을 통할 때 우리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 작품을 통한 정서적 공감과 유대감은 작품 창작자와 창작자의 국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는 국제 문화교류의 경험들이 용해되어 있다. 즉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문화와 의례문화, 그리고 문화예술이 생성·전파되고 확산되며, 혼합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에 국제 문화교류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국제 문화교류는 직접 교류 현장에서 활동을 경험하는 주체들만이 아니라 그 경험과 성과를 교류 사후 어떤 형태로든 전달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파생되고, 다시 피드백되어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화콘텐츠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교류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느 시대에도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지속되어 왔다.

지속적인 국제 문화교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최근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내전이나 테러 등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교류의 대상국이라고 하겠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유네스코에서 국가들의 문화자원과 활동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구분한 문화영역-문화유산, 시각예술, 공연예술, 도서, 방송, 미디어, 디자인과 창조서비스-콘텐츠 외에도 복합적인 콘텐츠들이 교류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 문화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나 21세기의 현대 시점은 국제 문화교류가

국제 문화교류의 개념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는 활동이며, 그 결과 개인 차원에서는 타문화 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작품과 문화산업상품의 주고받음을 통해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

이 장에서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장밋빛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불안 요소들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2010년의 아이티와 칠레의 지진, 2011년의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그리고 2016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난 사상 최악의 폭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지진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소들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환경적 불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기회를 다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난민 문제와 테러,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기조와 정치의 보수화 등 국가 내부의 갈등 및 국가 간 경제마찰 등이 우려되는 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 문화교류는 저성장 기조와 비례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와 맞물려 지속됨으로써 사회복지 재정의 확대가 요망되고, 상대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예산의 지원이 축소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불안요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국제 문화교류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국제문화교류의 소재인 문화콘텐츠 장르별 경향 파악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집약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류 시스템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교류주체를 중심으로 경향을 파악한다.

첫째, 국가와 국가 간, 양자 사이에 전개되던 전통적인 기존의 국제문화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역 간 국제기구들의 다자 간 국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국가들의 연대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도 한편 자신들의 블록 연대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권역과의 소통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¹⁾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양대 권역 간 문화교류 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둘째, 한편 여전히 권역 내 국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 내의 정체성이 약하고 연합국가 내 시민들 간 이해가 증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2011년 EU 소비자시장점수계시판 조사 결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유럽인 중 13%만이 타국가의 콘서트를, 4%만이 타국가의 연극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남²⁾. 하여 번역 지원 등 국제문화교류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정치적 연합체에서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변화하면서 내부의 협력 경향 못지않게 역사에 기인한 갈등과 오해가 팽배해 있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국제 문화교류가 직접 접촉을 통한 초청과 파견 등의 방식이었다면 초고속 인터넷망의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의 상호연결성이

이 장에서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1)	‘아시아유럽재단(ASEF)’은 1996년 방콕에서 열린 ASEM(Asia Europe Summit Meeting)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기구 설립이 결정되어 1997년에 만들어진 재단으로, 현재까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650개 이상 추진해온 기구임
2)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p.83
3)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국제예술문화협회)는 2000년 12월 문화와 예술의 세계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해 캐나다예술협회, 영국예술협회 그리고 유네스코의 합작으로 발족되었다. IFACCA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와 지식교류를 위해 연구, 회의, 행사 등의 개최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위원회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강화되고 국제문화교류의 방식이 다각화되어가고 있다.

넷째, 국가는 경제적 지원만 하되 어떠한 간섭이나 개입도 하지 않는 문화 활동과 문화정책연구 관련 국제회의체가 상설화되고 있다. 예술기관과 학계 등 민간 문화기관들의 연합체인 국제예술문화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IFACCA)³⁾는 온라인 플랫폼과 비교연구를 위한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문화 사업이나 문화 교류, 문화 협력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비람직한 교류와 협력 방안을 공동 모색해가고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2014~2021년까지의 유네스코 중장기 전략 리포트 <UNESCO 37 C/4 2014-2021 MEDIUM-TERM STRATEGY>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최근의 문화적 과제와 그에 대한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포용적 사회발전과 문화 간 회복을 위한 대화 증진 및 윤리적 원칙을 촉구한다. 둘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한다. 셋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유네스코에 가입한 195개의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 문화교류와 앞으로의 국제 문화교류는 이 세 가지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개별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들이 보호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은 결국 195개국 모든 회원국, 모든 인류의 공동자산이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촉진은 세계 시민 모두의 건강한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다각적인 국제 문화교류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국제 문화교류의 현황 진단을 위한 비교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국제 문화교류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대상국가와 어떤 방식에 편중되어 있는지 혹은 균형잡혀 있는지를 진단해볼 수 있고, 어떤 문화콘텐츠 유형이 국제적 교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비교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즉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우수사례가 보여주는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의 철학과 시스템과 방식, 성과를 참고하되 우리 현실에 맞게 소화하여 지금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더 나은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모델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선정 기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독립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척 용이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들을 종합하여, 국제 문화교류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측량이나 판단이 가능한 선정 기준을 체계성 있게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한 후에야 다양한 선정기준을 융합한 가장 대표성이 높은 기준과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div> <div>타 국가</div> <div>국제 문화교류</div> <div>우수 사례</div> <div>선정기준의 예시</div> </div>	<div> <div>1. 교류 속성 1-교류 주제</div> <div>교류 주제의 참여 규모 극대화, 교류 주제의 높은 전문성</div> </div> <div> <div>2. 교류 속성 2-교류 대상</div> <div>교류 대상의 다각화, 교류 대상과의 관계심화</div> </div> <div> <div>3. 교류속성 3-교류 콘텐츠</div> <div>콘텐츠의 다양화,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div> </div> <div> <div>4. 교류 속성 4-교류 방식</div> <div>높은 접촉빈도, 지속적인 접촉</div> </div> <div> <div>5. 교류성과-개인, 국가, 세계</div> <div>상호이해, 창의성 자극, 문화발전, 문화다양성 증진</div> </div> <div> <div>6. 교류사례 지명도</div> <div>종합적, 다자간 교류의 모델 - 권역별 연대형 교류, 축제, 도서전, 아트마켓, 박람회 등</div> </div> <div> <div>7. 문화콘텐츠별</div> <div>장르(문화예술진흥법의 13개 장르 혹은 공연과 전시)별 대표 사례</div> </div> <div> <div>8. 권역, 국가별</div> <div>세계 각 권역, 주요 선진국별 대표 사례</div> </div>
--	---

^{[1)} ‘타국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례’의 내용은 우수 사례의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 및 일본의 교류동향을 제외하고 타국의 교류정책동향과 교류정책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연구용역 결과물인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연구』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며,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인용을 허가받았음

이 장에서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과 문화교류의 실행을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우수한 국제 문화교류 사례는 국제 문화교류의 네 가지 속성–국적별 문화정체성, 상호성, 문화콘텐츠, 접촉-과 관련해 각각 바람직한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지명도를 얻은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거나, 국제 문화교류의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할 수도 있으며, 편의적으로 권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한 두 개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거나, 교류 소재인 문화콘텐츠의 구체적인 장르별로 한 두 개씩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듯 선정 기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독립적으로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척 용이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기준들을 종합하여, 국제 문화교류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측량이나 판단이 가능한 선정 기준을 체계성 있게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한 후에야 다양한 선정기준을 융합한 가장 대표성이 높은 기준과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나 정책 개발의 경우 제안된 다수의 아이디어를 여과하여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급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국제 문화교류의 경우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상호이해의 확산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인 만큼 시급도의 기준보다는 중요도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고, 이 중요도는 교류의 대상이나 문화콘텐츠의 장르, 접촉 방식 등에 따라 서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확정 자체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각국 국제 문화교류 실무자들과 연구전문가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속성별 혹은 통합적 선정기준에 대한 고려를 과제로 남겨두고,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본 책서의 미래지향적 목적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선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과 독일, 세계 문화시장을 좌우하는 대 중문화 강국인 미국, 세계의 문화확일성 비판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운동과 협약 성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캐나다, 비서구지역이면서 문화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일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고대문화가 아닌 현대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지는 못해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문화행사를 잘 치러냈고 현재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포함시킨다.

영국 UNITED KINGDOM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영국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부처가 관할은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예술위원회 모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로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때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하고자 예술에 비즈니스개념을 도입하여, 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치 중국과 같이 ‘21세기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Creative Industry)’ 국가 전략에 입각하여, 철저히 비즈니스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도 영국 내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연관성 및 수요 창출을 고려해 기획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국의 국제 문화교류 창구인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중 언어와 관련된 어학 프로그램으로 지명도가 높다. 국제 문화교류의 일차적 문화콘텐츠를 언어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중점을 언어 흥

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문화교류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하기에 의구심이 들지만, 이러한 언어 중심의 국제문화교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2012년 기준, 영국문화원은 전 세계 54개국 127개 도시에서 영연방 교사자격증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 어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어 학습과 관련해 영어교사, 청소년, 성인층 등 대상별 맞춤 커리큘럼의 개발로 세계 언어교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신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학 박람회, 영국 대학 교수 초빙 강연, 유학 설명회, 주제국 교육 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영국 대학 동문들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동문 활동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철저히 지역파를 양성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는 국제 문화교류 패턴이다.

영국문화원을 통해 예술가와 창조산업 전문가들의 문화교류도 이루어져 창작과 발표의 기회 및 새로운 시장 창출도 나타나고 있다. 에딘버러 쇼케이스(Edinburgh Showcase)를 통해 중소 공연단들의 작품 공개 기회를 주고, 2013년 런던 북페어에서는 터키의 문학과 출판이 소개되었고, 난민이 되어 산재해 있는 75명의 시리아 예술

가들에 대한 활동이 지원되었다. 더불어 영국문화원 자체 컬렉션으로 영국의 현대미술을 각 국가에서 공유하게 하는 교류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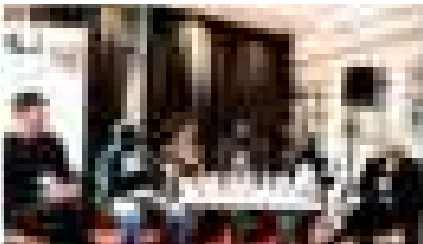
2014년부터 진행해온 ‘GREAT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4월, 정부 기관들의 정확한 영국 내·외 문화행사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통합 문화행사정보 웹사이트인 ‘Culture Diary(www.theculturediary.com)’를 구축했으며, 공공 및 민간 창조·문화 관련 기관과 정부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대외 홍보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자국 문화예술의 영향과 가치를 해외에서도 지속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해외 주요국과 ‘문화의 해’를 지정하여 영국의 주요 문화예술 기간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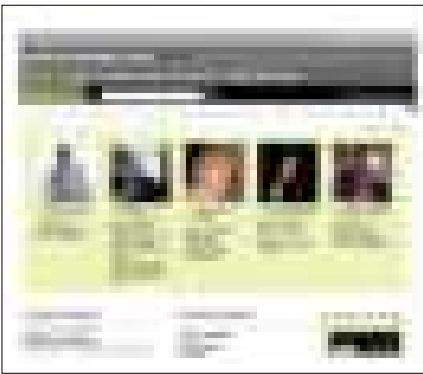
이미 앞에서 영국의 문화교류 동향의 주체로 영국문화원의 위상을 밝혔다. 1934년에 ‘영국의 교육 및 문화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직’으로 설립된 비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이지만, 법·정책·국내외 사업수행의 측면에서는 외무성의 지원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정책의 해외홍보를 위한 공공외교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영국문화원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영국의 문화전파 전략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현재 전 세계에 196개소가 설립되어 있고, 대외 진출 교류를 담당하는 반면, 자매기관인 비지팅아츠(Visiting Arts)는 영국 내로 유입되는 문화 교류를 책임진다.

비지팅아츠는 문화예술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각국 예술의 영국 유입을 증진하고 외국과의 긍정적인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1977년에 설립되어 영국문화원, 예술위원회, 외무성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관련 예술 기관과 예술가에게 자문,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이 영국 전역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장르 간,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술인 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 세계의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인 ‘컬처 베이스(Culturebase)’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문화원과 비지팅아츠 외에도 영국예술위원회, 영국 공예청, 예술 창조기술진흥재단, 영화텔레비전예술협회 등이 국제문화교류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공예청은 국제관계 설립과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자국의 현대 공예를 중국 및 아랍 지역에 전시하기도 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e-retail) 브랜드를 개발하여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⁵⁾



WCC(World Cultures Connect, www.worldculturesconnect.com)
비지팅 아츠(Visiting Arts)의 주력 프로젝트로 전 세계 예술인들과 문화예술기관들을 연결



컬처 베이스(Culturebase.net)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럽의 혁신적 문화기관(폴란드,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영국(Visiting Arts)의 문화예술교류 전담기관)들이 주도하여 구축한 전 세계 예술인 정보 제공 플랫폼

5)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p.89

프랑스 FRANCE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1960년대에 앙드레 말로(Georges Andre Malraux)가 문화예술부 장관을 역임할 때, 이미 프랑스는 문화의 분산화, 문화의 민주화, 프랑스 문화의 확대와 보급 정책이 시작되었다. 국제 문화교류 관련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 문화의 해외 전파 및 외국 문화의 프랑스 내 보급으로 쌍방향의 문화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을 정부 산하에 두고 있다.

국제 문화교류는 프랑스어, 교육기관 및 체제의 전파, 외국 아티스트를 포함한 프랑스에서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타국과의 직접적 문화교류와 행사 유치 등을 통한 ‘문화외교’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고 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류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예술가에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은 앙스튀티 프랑세(Institut français)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금 외에도 주거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앙스튀티 프랑세 소유의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국가가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수립과 운영의 모델이 되어온 프랑스는 최근 문화주체의 다양성, 전문성, 정부 영향력의 감소, 문화의 세계화 증대 등으로 인해 문화교류나 문화정책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 증진이 문화정책의 주요 아젠다 되고 있다. 외국 문화의 진흥은 프랑스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 하에 프랑스는 특성화된 다양한 기관을 설립하여, 프랑스 문화의 해외로의 전파는 물론 외국 문화의 프랑스로의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주로 예술가에게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은 앙스튀티 프랑세의 심사 아래 다양한 방식의 지원 형태로 존재한다. 글로벌 미디어빌라(Villa medias Hors les murs)는 앙스튀티 프랑세가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프랑스 국적의 소유자 혹은 프랑스 5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5,000~15,000유로 범위에서 나이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투조야마 빌라(Villa tujoyama)도 앙스튀티 프랑세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프랑스나 일본 국적의 소유자로 프랑스나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경력자로서 나이에 제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매월 200~300유로로 심사에 따라 4달 혹은 2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사한 많은 지원 사업이 예술가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지속적 재정 적자에 의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문화부 및 외교부의 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나 예술교육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의 경우, 3,900만 유로가 예술과 문화 교육 부분에 할당되어 2013년 대비 15%가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예술과 문화 교육에 407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2014년 대비 6.5%나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화 후원이 촉진되고 있다. 2013년 국회 회의에서는 현 프랑스가 문화 교류가 가지는 난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줄어드는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각 기관별 자급력을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4년 12월, 플뢰르 펠르렝(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은 ‘모두가 자선사업으로’라는 구호를 내 건 ‘문화 후원의 헌장’을 소개했고, 국가 재정부와 연계된 이 헌장은 문화 동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후원과 법률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의 이익과 후원자의 특권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는 목적이 있었다. 2003년 문화후원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세무 혜택이 부여되어 후원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프랑스 내 국제 문화교류는 외교부와 문화부 및 주요 수행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문화교류정책의 기본 방침은 1)국제 문화교류 관련 조직의 설립 및 운영, 2)타 문화와의 교류 증진 및 문화다양성 촉진, 3)분야별 전문가 및 해외 예술가 초청, 4)문화예술 분야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강화이다. 2013년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협력 사안은 약 800개에 이르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는 6700개에 달한다. 프로젝트 수의 양적 규모만으로도 문화선진국으로서 압도적인 수준을 말해준다.

앵스티튀 프랑세는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2011년 활동 지역 확장과 문화 교류 수단 강화를 목적으로 <Culturesfrance>로 대체하여 설립되고 있다. 설립 목적은 프랑스 문화 및 언어의 전파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 다양성의 촉진이다. 따라

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업무는 국제 예술 교류의 촉진, 프랑스적 문화의 공유 및 확산, 프랑스어 진흥, 프랑스와 관련된 국제적 페스티벌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촉진, 아티스트들의 거주 지원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215여 개의 앵스티튀 프랑세가 있는데, 대부분, 유럽권에 치우쳐 있으며 아시아 대륙에는 약 30곳이 있고, 각 지부는 알리앙스프랑스즈 등의 문화조직망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앵스티튀 프랑세의 주력 사업 분야는 프랑스 내의 지역권 및 대도시와 해외 프랑스 문화망과 연계를 통한 문화사업의 수행, 국내외 공공단체의 중심지적 역할이다. 세 부적 업무 사항으로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프랑스 활동 및 자국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 시 거주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문화사업 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조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계절별 시즌으로 운영되는 국내외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국제 문화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그리고 문학 창작 활동과 해외에서의 프랑스어 지식의 확산을 지원한다. 특히 2011년 앵스티튀로 개

프랑스 국제 문화교류 관련 조직 체계



*자료원: Source : graphique réalisé d'après les données du 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DPT) «Action extérieure de l'État », annexé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3, et le rapport de la Cour des comptes.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편되면서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 한 가지로 프랑스 문화망의 혁신으로 전산화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선정되었다. 2013년 9월에는 개발과 확산의 수단으로서 따로 부서를 신설하고, 새로운 협업의 목표로서 전산화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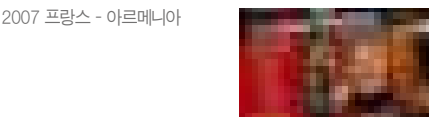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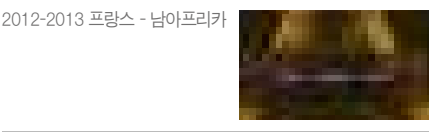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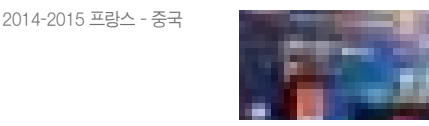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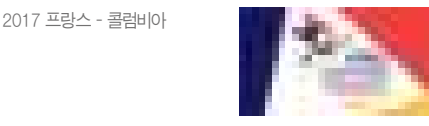
‘예술전파를 위한 국가기구(ONDA, Office National de Diffusion Artistique)’는 문화통신부(Ministere Culture et Communication)의 수하기관인 예술창작국(DGAA, 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 Artistique)에 속해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1975년 예술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존폐의 위기에 있는 현대예술의 창작 진흥 및 공연 장려와 공연예술 분야의 국제 문화교류이며, 분야는 프랑스 창작연극, 무용, 음악, 서커스, 인형극 등이다. 1200여 개의 공연이 ONDA 팀에 의해 매년 제작되고 있다. 예술팀과 편성팀의 조연은 매년 700개의 개별 회의와 매년 50회의 만남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ONDA는 또한 공공기관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ONDA는 일 년 내내 일련의 회의를 편성하며 1900개의 조직과 2300명의 전문가가 매년 50여 개의 ONDA 가 주체하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분야에 따른 지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연극 45.3%, 무용 24.2%, 음악 14.4%, 서커스 12.9% 순이며, 장소 지원이 3.3% 순이다. 프랑스에서 외국 공연 개최 시에는 공연에 대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예술가에 대하여도 별개의 지원방안을 두고 있고,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거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예술 활동과 관련한 재정보증, 공연 장비 지원, 자막 구현, 컨설턴트 등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부나 앙스티튀 프랑세를 대신하여 매년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초청회, 회견 등을 조직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생활예술의 공연, 정보원의 체계적 조직망 구축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문화재의 연구와 개척은 이 조직망에 근거하여 민족음악가, 인류학자, 연극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에 대한 조사와 그 예술가들이 국제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세계 문화의 집(La Maison des Cultures du Monde)’은 1982년에 파리에 모든 예술의 장르(문학, 상업 및 비상업적 예술 전반, 현대 및 고전예술 등)와 국적을 초월하는 외국 문화의 수용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대표적인 기획 공연으로는 매년 문화부와 협력하여 주최하는 상상축제(Festival de l’imaginaire)가 있으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에 대한 공로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많은 수상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및 예술 보급 활동에 대한 ‘한불문화상(Culturel France-Corée)’, 대만 문화 보급에 대한 ‘2004 프랑스-대만 문화 재단(Fondation culturelle franco-taiwanaise) 상’ 등이 있다.

앵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

프랑스 외교부와 동시에 문화통신부에 소속된 프랑스의 해외 문화활동 수행기관으로 1985년부터 60여개의 국가들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동안 국제교류사업(Saison)을 진행



독일 GERMANY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독일은 1960년대부터 대외 문화정책을 안보정책, 경제정책과 함께 3대 외교정책의 축으로 설정했다. 1998년에는 문화 분야에 대한 효율적 정책결정 및 집행의 필요성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정되어 총리실 내에 연방 문화 및 미디어정책담당 부처가 설립되었다. 2009년에는 문화 관련 정부 전체 예산 중 대외 문화정책의 예산 비율이 1/3을 초과할 정도이다.⁶⁾

국제 문화교류 사업은 총리실 내의 문화 및 미디어정책담당관실 보다 먼저 외무부의 ‘대외문화·교육정책’으로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었다. ‘액션 아프리카(남아프리카와의 문화협력 강화), ‘독일과 중국의 공동보조, 공동행사 시리즈’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었다.

최근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이슈로는 아시아 및 이슬람 국가와의 상호 문화적 대화(Intercultural Dialogue)이며, 유럽권역 차원의 문화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유럽연합 문화부 및 유네스코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한편, 괴테 인스티튜트(Goethe-Institut)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것이라 밝히고, 유럽의 중요한 이슈인 이주 및 망명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빈번한 지역과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독일 문화위원회는 대외문화교육정책으로,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대화 방식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위해 교류를 촉진하되, 각국의 문화 정책의 개별성,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대외문화 교육 정책의 여섯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1)문화 정책과 대외 문화교육 정책이 상호 보완함으로써 해외의 문화예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국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2)예술가협회, 청소년문화협회, 문화경영협회 등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대외문화교류에 참여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고, 시민단체 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예술관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3)지속 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접근한다. 4)유럽 청소년 문화 교류 및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해 창의력을 기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문화를 통해 공감한다. 5)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형성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류 기회 증대시킨다. 6)기존의 교육과 문화를 접목한 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전환기 사회의 발전 및 교육시스템에 기여하도록 한다.

독일 문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관점과 사업 추진 방향에 입각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외무부와 유네스코 독일위원회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문화 저 멀리(kulturweit)’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문화 간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화 간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다.

‘문화 저 멀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18세부터 26세 이하의 지원자 중 선발하여 2015년부터 6-12개월을 국외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기관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교류 대상국은 개발도상국들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 중앙유럽지역의 국가들이었고, 이들 국가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독일청년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위원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학술교류처, 독일 인류학연구소, 괴테 앙스티튀, 교육교류처, 유네스코 독일 위원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두고 협업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 5)의 글, p.198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외무부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정책은 ‘대외문화·교육정책’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 정책의 목표는 국제 사회에서의 독일의 교육 및 학술적 위상의 제고, 독일어 및 현대 독일 문화의 보급, 독일의 문화예술의 보급 및 교류라고 명시되어 있다. 외무부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외교부의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주요한 국제문화교류 담당 기관은 괴테 인스티튜트, 대외관계연구소, 독일학술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Alexander Humboldt Stiftung),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등이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국내의 독일어 보급을 진흥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페스티벌을 통하여 영화, 무용, 음악, 연극, 전시, 문학 및 번역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1925년에 출범한 독일아카데미를 계승하여 1951년 독립적 비영리 문화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독일어 보급 및 독일어 교사 지원·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이었다가 점차 문화교류 분야를 확대하여 1976년에는 외무부와 국제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독일어 보급에 관한 사항 전반 및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되었다. 예산은 대부분 외무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독립 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 괴테 인스티튜트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크게 3항목으로 분류되는데, 1)독일어 지식의 보급, 2)국제적 문화협력의 진흥, 3)독일의 사회·문화·정치적 정보의 세계적 확산이다.

괴테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 94개국에 160개소가 있고, 권역(12개)마다 본부를 두는 구조이며, 괴테 인스티튜트의 주력 사업은 위에서 언급된 3항목의 주요 임무에 따른 독일어 교육을 비롯하여 조형예술, 방송과 영화, 음악, 연극무용, 문학, 학술, 도서관 정보, 방문프로그램들이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또한 저명한 학자들의 교류를 전문으로 하고, 대외관계 연구소(ifa)는 문화교류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잡지 발간. 독일 예술가들의 순회 전

시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그밖에 외무부가 주력하는 교류 분야에는 개발도상국 예술가와의 교류 및 참여 증진이 있는데, 이를 위해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의 전시, 연극, 음악회, 낭독회 등의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총리실 문화미디어담당관은 국제문화교류를 비롯한 모든 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실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문화미디어부의 전체 예산 중 국제 문화교류에 관한 지원금이 약 30%에 해당할 만큼 국제 문화교류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외관계연구소는 1917년 슈투트가르트에 독일외국연구소로 설립되어 해외에서의 독일 관련 전시 및 언론 등을 담당하였는데, 1949년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했고, 국외문화정책 및 국제 문화교류 관련 네트워크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담당 업무는 문화교류 및 문화 간 대화 증진, 국제 문화교류 정책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 시민들 간 분쟁 예방 등이 있다. 설립 당시에는 독일 예술가의 해외 진출 지원이 주요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롭고 개방적인 공동체 삶과 언어와 문화 장벽의 극복을 목표로 전시, 토론, 학술회의 등을 통한 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1957년 미국이 선정한 국제회의장을 재건축하여 세계문화의 집으로 재생시킨 공간이고, 현재 총리실 내 문화미디어담당관이 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비유럽권 현대 미술을 소개함과 동시에 세계 상호문화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특히 경계를 초월하는 분야들의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 세계 주요이슈 논의의 장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전시 및 무대 공간은 조형예술,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영화 및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들로 꾸며지고, 매년 평균적으로 400개 이상의 전시에 1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 공간이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미국의 전국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총괄하는 중앙 기구인 국립예술기금(NEA)은 국제 문화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문화참여(International Cultural Engagement)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고,⁷⁾ 국제 문화교류보다는 국내의 탁월한 예술가와 소외된 지역의 공동체 예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다. 국내의 탁월한 예술가가 곧 세계의 예술 판도를 탁월하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신념이 배경에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문화교류도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기구들에 의해, 문화계보다는 교육계에 의해 적극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에 교류프로그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미 국무부가 다른 국가의 정부들과 협정을 맺고 미국이 전쟁을 통해 얻은 외환 수익을 이용해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ECA)이 교류의 영역으로 포함한 영역은 인적 교류, 전시, 문화유산, 공연 예술, 도서관 및 아카이브, 문학 및 번역, 디자인, 패션, 광고, 건축 등이며, 포함하지 않는 영역은 비디오 게임, 언론, 출판, TV 및 라디오 방송 등이다. 즉 문화산업 부문은 철저히 민간에 맡긴 셈이다. 현재 교육문화국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은 ‘아메리칸 뮤직 어브로드(American Music Abroad)’, ‘아트 엔보이(Arts Envoy)’,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Engagement through the Arts)’, ‘댄스모션 USA(DanceMotion USA)’ 등이 있다. 창조적인 문화계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 부문에서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적 성격이 강하다.

‘아메리칸 뮤직 어브로드’는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새로운 세대의 음악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해외의 뮤지션이나 시민과 상호작용을 하며 10명의 뮤지션

7)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pp.246-247

이 40여 국가에서 대중을 위한 공연, 강의,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트 엔보이’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인 예술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워크숍과 공연을 개최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청소년 및 예술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벽화예술을 통해 사회통합과 연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댄스모션 USA’는 댄스컴퍼니들이 해외에서 미국의 춤에 관한 워크숍, 강의 및 공연,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현대무용단의 세계 투어를 통해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문화유산관광 교류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문화와 역사와 천연자원이 미국을 성립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리려는 시도였다고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가 간 우호 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외의 여론 주도층, 청소년, 종교 지도자, 교육 담당자, 미디어, NGO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슬림에 대한 전략조정위원회(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on Muslim Outreach)가 신설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국무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무슬림 관련 이해와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9.11 전략조정 위원회는 아랍, 무슬림과 학술, 문화교류, 도서관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8월에는 국무부내 교류 프로그램 예산의 25%가 중동과 남아시아에 투입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방문자 등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슬람권의 종교적 관용, 민족 다양성, 독립 매체의 가치,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선거와 교육개혁 등의 주제가 우선시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기에 미국의 예술과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가 재조명되어 각종 연구소 및 기관에서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국제 문화교류가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는 소프트 파워 및 문화교류를 통한 미국의 공공외교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 차원의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현재 미국의 문화교류 혹은 외교는 국무부 내 교육문화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등 폭 넓은 학술교류, ‘국제방문자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Program)’ 등 전문가 교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교육, 해외 대학에서의 미국 연구, 교육 자문 서비스, 대학 간 협력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교류관련 사업 기구로는 국무부 내 국제정보사업국(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이 있어, 해외 정보자료센터와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가 미국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여해 해외의 대사관자에 전시하는 ‘대사관 내 미술품 전시(Art-in-Embassies Program)’ 및 문화자산자문위원회(Cultur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의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적 교류 사업으로 꼽히는 폴브라이트 프로그램은 세계의 51개국과 양국 간 폴브라이트위원회, 또는 양국 간 폴브라이트 협약이 없는 지역에서는 미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에 의해 운영된다. 이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술 전문가 교류는 일부에 불과하나, 학술 교류도 넓은 의미로 문화교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정부의 국제 문화교류 사업은 상당부분 민간 전문 서비스 기관의 업무 대행 또는 지원금 교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민간외교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미국 전체에 약 260개 정도 존재한다.

국립예술기금(NEA)은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미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65년에 창설되었다. 미국 국립예술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국가 재정 출연에 의해 기금을 받지만 그 구성과 운용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수민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나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관의 설립취지는 인간의 창조성, 공동체 정신, 국가의 예술적 다양성과 탁월성을 원조, 고무, 증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다양한 예술지원 활동과 국가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부문 코디네이터가 국제 문화교류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예술인 연합회(AFTA, Americans for the Arts)는 1960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문화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공공 및 인간의 사회참여, 그를 통한 사회의 치유와 변화 및 발전, 공공미술, 문예기관의 재난대처방법 등의 주제를 포괄하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내외 문예기관의 네트워킹과 펀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예술인들에게 프로모션과 트레이닝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CANADA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캐나다는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간 연대를 선도한 국가로서 현재 국제사회의 문화 이슈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국제 문화교류 및 협력 활동에 있어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였는데,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 있어서 핵심 국가로 작용을 하였으며, 세계문화장관회의(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INCP)⁸⁾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1)국제적 전략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Strategic Framework) 구축, 2)문화산업 수출입 활성화 지원, 3)문화 다양성 지속지원, 4) 국제 박람회 유치라는 4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⁹⁾

국제적 전략 프레임워크는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전략적인 국제 문화교류를 위해 다양한 부처들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외교통상무역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이민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및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제적 차

원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사회통합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 산업 수출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캐나다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적극 지원에 주력하는 것인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WTO의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와 같은 경제 관련 다자간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지속과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부와 외교통상무역부는 국내 외 다양한 민간 시민단체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제 1회 문화 다양성 범정부회의(Intergovernmental Committee) 개최국 및 의장국으로 선

8) 세계문화장관회의는 1998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의 ‘발전을 위한 정부간 문화정책회의’ 직후 설립되었다. 문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인간에 대해 각국 장관들의 관점을 나누고 논의하는 정부간 비공식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가입했고, 2003년 당시 5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었다.

9) 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p.284

정되기도 하였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세계 유수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속적 노력 및 협력을 진행하고있는데,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 박람회에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Better City, Better Life)’ 주제로 참가한 바 있다.

캐나다는 주로 캐나다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국제 문화교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는 1)양국기술 교류 지원, 2)모범사례 교환, 3)국제 스포츠·문화행사 참가, 4)국제 공동제작 협정, 5)다자간 포럼 등이 있다. 특히 약 53개국의 국가와 시청각 분야 공동 제작 협정을 맺고 62개의 영상을 공동제작 하고 있는데, 35%는 영화산업에 65%는 TV 방송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영상 공동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고, 정부는 매 3년 간 국제 공동제작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캐나다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노력과 국제적 담화에 참여하고 사회 통합 및 시민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G8의 회원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과도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국제문화교류의 특징은 캐나다의 국가 존재 자체가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이자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접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제나 강조해 왔고,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선도할 수 있는 심층적인 심리적, 내부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캐나다 문화유산부의 주요 업무는 문화, 예술, 미디어, 통신 네트워크, 공식 언어, 여성, 스포츠 및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영국에 국가유산부가 설립되자 캐나다에서도 이듬해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설립되었고, 이때부터 캐나다 역시 연방정부 내에 문화정책 전담 부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유산부의 설립 이후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캐나다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특히 해외에서의 자국 문화 홍보에 주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및 공동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57년 ‘캐나다예술위원회 법’에 의해 창설된 위원회는 예술의 연구와 향유 및 창작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비전은 국내·국제적 무대에서 캐나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특색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미션은 예술의 연구와 향유 및 예술작품 생산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것이다.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비전과 미션에 따른 주요 10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문화교류의 비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0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다양한 레지던시 및 전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2)펠로우십/총독상과 같은 예술인 복지 사업, 3)오퍼레이션 펀딩과 같은 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사업, 4)‘Flying Squad’와 같은 예술단체 조직개발 및 컨설팅 사업, 5)세계 투어 및 예술축제 참가 지원이나 외교부와외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 6)관객개발 및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연예술 보조금 및 그랜드 사업, 7) AtrsSmarts 재단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8)지역공동체 및 생활 문화 지원을 위한 예술가 및 커뮤니티 컬레버레이션 사업, 9)연구 및 자료보존을 통한예술 전반 지원 사업, 10)유네스코 캐나다 위원회 운영 및 미술은행 운영 등 기타 제반 사업이 위원회가 추진하는 핵심 10대 사업이다.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10대 사업은 5번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사업들은 아닐지라도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국내 예술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캐나다 위원회를 예술 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인간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캐나다의 국제문화교류의 가장 중요한 거점 조직은 캐나다 예술위원회이다.

일본 JAPAN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일본은 국제 문화교류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움직임과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여 선도해 온 역사가 계속 얹치락뒤치락하며 반복되어온 특징과 경향이 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한 근대에 정치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발전을 이끌어 낸 ‘가려기 국가’라는 별명이 있는 국가답게 일본의 모든 부분의 발전은 국가의 유학생 파견 등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의 문명을 수용하고 학습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습만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일본 에도 시기부터 발달해온 서민층의 회화인 우키요에(浮世繪)가 유럽의 인상파 화가인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와 모네(Claude Monet) 등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역사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국제문화교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한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미국에게 7년간 점령통치를 당했고, 이때는 미국의 철학과 문명을 수용하게 되어, 승전국인 미국이 지니고 있던 민간 자율성의 이념을 행정과 교육과 산업과 생활문화에 접목시켰다. 특히 정신적인 창작물과 관련한 문화정책은 최대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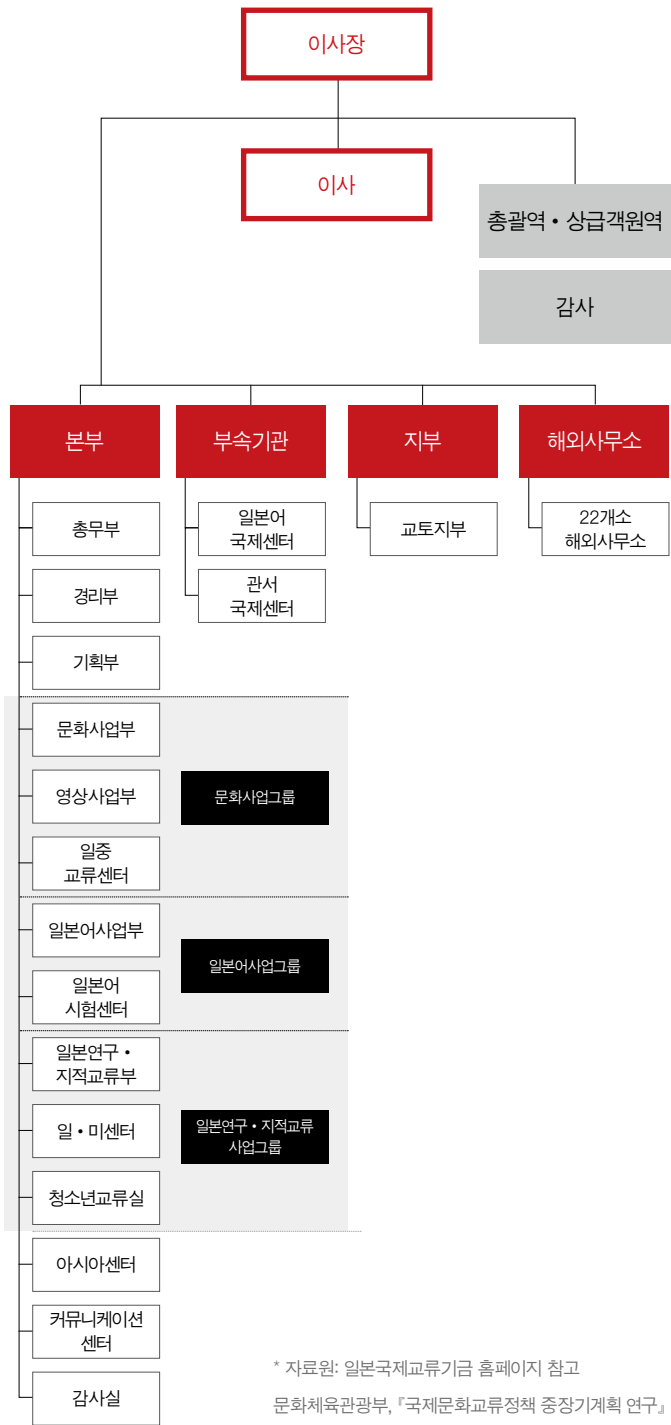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를 이식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정부가 관여된 국제문화교류보다는 민간 레벨의 상인그룹으로서의 문화산업 주체들이 문화교류를 주도했고, 국가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호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벗어나고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전쟁 전의 상태로 복귀하면서 다시 국가의 개입이 적극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2000년대까지는 타 분야에 비해 문화 분야는 그나마 국민들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가 강화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부처로 승격하지 않고, 문화청이라는 하위단위 기구로서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한류가 발생하고, ‘문화예술진흥법(1972년)’과 같은 법적 제도에 근거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일본은 2000년 이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다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서구추종형 정책과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일본과 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상호이해의 아시아’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안에 ‘아시아센터’가 부설되기도 했다. 쌍방향 예술교류와 일본어 학습에 약 300억 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 못지않게 일본의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자율적으로 일본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시설 건립과 시설 유지에 연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컨대 미국의 LA에 정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신들과 기업들의 힘으로 공연장과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자국의 영상관에 공간을 임대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문화원의 대규모 공연을 위한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정원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키 공연을 위해 활용되는 아와 정원인데, 이 정원도 정부예산이 아닌 일본 이민자들 중 조경 전문가들이 2명씩조를 편성해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문화를 발산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연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조직도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현재의 일본은 국가의 아시아 전략에 입각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탓에 문화적인 이미지가 취약하다는 판단 하에 대외이미지 상승을 위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발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실제 아웃바운드형 국제문화교류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청의 아웃바운드형 국제문화교류 예산은 2008년 약 4억 엔이었는데 2014년에 이르러서는 약 11억 엔으로 거의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인 문화청의 예산이며, 일본의 경우 문화청보다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특별법인과 민간기구가 다수 존재한다.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세계인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제 상호 이해 증진 및 일본의 조화로운 대외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활동 거점으로 21개국에 22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문화 예술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일본 연구 및 지적 교류의 세 가지 분야이다.

국제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이지만 외무성 산하 기구로서, 일본의 대외정책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한다. 조직체계 안에 아시아센터 외에도 이미 일중센터, 일미센터가 별도로 있어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특별한 국제문화교류를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센터들은 센터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일본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대사관 내의 공보문화원도 대부분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원 내에 일본 정보 광장(Square, Japan Information Square), 일본관련 전시회 공간인 갤러리, 공연·강연회·심포지엄·영화 상영에 활용되는 홀, 일본음악 정보센터 등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CHINA



개 조성 목표·와 공자학원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기도 하다. 시설뿐 아니라 ‘문화 중국’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문화페스티벌 등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형 브랜드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중화문화 번역 사업 등을 통해 중국의 우수문화작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단체 등의 레벨에서의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다. 한중문화예술교류 등도 수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작은 행사에도 10~50명 수준의 많은 인력들이 방문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간에 수행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중국이 그 제안을 받아 문화장관회의에서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성사될 정도로 다양한 수준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정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도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예술페스티벌, 실크로드 국제예술페스티벌 등의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문화교류 전담기관의 구조, 기능 및 역할

중국에는 모든 문화예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부가 대외적 국제문화교류 및 국제문화협정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부 안에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대외 문화연락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직속 사업부서로 중국대외문화집단공사, 중국문화교류센터가 있다. 대외문화연락국은 부서 안에 세계권역별 담당부서를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개입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문화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구의 국가들이나 일본이 문화협정을 중시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문화협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 교육부의 직속 사업부서에서는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인들이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외활동 기구인데, 2004년부터 설치되어 2012년 기준 100개 국가와 지역에 400개의 공자아카데미와 500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자학원은 언어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문화홍보형 교류의 최적의 기구로 인정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의 조직 안에 문화교류원이 있어, 문화포럼, 문화연구 및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국제 문화교류 특징 및 동향

중국이 다른 국가 체제 및 국경 밖과 원할한 국제 문화교류를 시작한 것은 문화를 산업적 가치와 효과가 있는 산업분야로 인식하게 된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WTO에 가입한 이후 문화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007년 17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는 문화가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점과 중화문화의 국제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문화예술로서 타 국민과의 접촉과 공유라는 문화 이해의 관점보다는 중국의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송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일방적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게 되어, 국제 문화교류의 타 문화 이해라는 진정한 의미나 성과의 차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전통적인 국제 문화교류라기보다는 ‘문화무역’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방과 함께 타 국가와의 급속한 관계 개선 및 자국 이미지 강화가 국가의 대외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화중국’의 이미지를 수립하여 전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외의 중국문화센터·2014년 시점에서 20개 조성, 2020년까지 50

타국을 통해 본 우리의 국제 문화교류 지향점

6개국의 국제 문화교류 동향과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구의 역할 등에 주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제 문화교류의 비전의 차원에서 볼 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 문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와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교류를 ‘홍보나 무역’과 동일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국가는 적었고, 대부분 이 양분된 비전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문화원이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가 자국의 언어를 교류의 주된 소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예술가 교류 등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문화무역과 같은 비전이 강한 편이다.

둘째, 국제 문화교류의 비전으로 상호 문화 이해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제 문화교류의 콘텐츠의 내용은 자기국가의 우월한 문화를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젊은 예술가들을 해외로 파견하는데 있어서도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강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국제 문화교류의 대상과 예산에 있어서는 비전과 미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 대상과의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슬람문화와의 교류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넷째, 국제 문화교류의 대상국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고, 근거리 국가들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주된 국제 문화교류 대상으로 삼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근린 국가들과의 관계 밀도를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독해되었다.

다섯째, 문화프로그램들은 현지 국민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교류 대상별 맞춤형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 문화교류 사업은 단독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대외 정책을 수립한 연후에 그에 맞추어 발표되었다. 이는 대외정책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수요와 공급 자원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그에 따라 국제 문화교류 정책과 사업이 개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제 문화교류는 한 두 개의 전담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과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협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곱째, 해외의 문화교류 거점 시설들은 주로 자국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출발했고, 서서히 현지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다각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공통점의 모든 항목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며, 우리 현실에 부합하고 우리의 국제 문화교류 비전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공유하거나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 문화교류는 현대사가 시작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가의 정통성을 국외에 알리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홍보형 혹은 국가 문화홍보형 교류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결과, 이제 신흥공여국으로서 경제적인 선진국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문화를 선호하는 마니아그룹도 비록 소수지만 전 세계에 걸쳐 확보되어 있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문화콘텐츠나 전통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우리가 수용해서 재탄생시킨 다양한 문화들이 국제문화교류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국가 간 교류 행사와 다자 간 정례적인 국제회의, 민간부문의 문화콘텐츠별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웃바운드형과 인바운드형 국제문화교류 방식의 증진과 함께 온-오프라인의 국제 문화교류 정보도 적극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 관리될 필요는 없다. 통합 관리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자율적인 구조와 방식은 좀 더 뿌리내려야 한다.

다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간 국제 문화교류의 경우 그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성과관리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발표회 등으로 공유될 뿐 아니라 추후 교류를 기획하는 신진 교류기획자들에게 유익한 창구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영국처럼 구축해야 한다. 국내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에 준해서 국제문화교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 문화교류 중장기계획과 같은 연구가 몇 년 만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국가 국제 문화교류 정책과 기구에 접근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꾸준히 관찰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제 문화교류 연구팀이 조성되어야 한다. 각 국가의 바람직한 국제 문화교류 사업의 사례들을 잘 관찰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에피소드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과 국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정례적인 워크숍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제 문화교류 담당자들은 홀로 전문적인 짐을 지고 가는 형국에 놓여있다. 교류의 성과는 기관의 것, 국가의 것일 뿐이다. 전담 기관을 두고, 정례적인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의 애환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해소해주는 길을 여는 것 뿐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외 수요와 공급의 괴리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국제 문화교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학습과 공유의 기초가 축적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제문화교류는 일회성 잔치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다. (글. 정정숙)

참고문헌

한국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한국 국제 문화교류의 오늘과 내일

01.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

0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경험하며

03. 한국 국제 문화교류 정책 현황 및 지향점

04. 향후 국제 문화교류의 전망 및 방향

최장 기간, 최다 사업 개최 등 유례없는 국제 문화교류의 선례가 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국제 문화교류를 어떻게 이어 가야 할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경험하고, 지켜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국제 문화교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시: 2016년 11월 24일

장소: 창선당

사회

최준호(‘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예술감독)

주최/주관

하현봉(해외문화홍보원 과장)

김선영(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참석자

김형군(잠비나이 대표)

김혜인(문화관광연구원 국제교류센터장)

손영주(한미사진미술관 학예실장)

이수원(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이지현(무용평론가)

조동희(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팀장)

최은주(경기도미술관 관장)

최준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시작은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G20이 열렸을 때, 한국과 프랑스 양국 대통령께서 프랑스에서 1983년부터 진행된 국가 간 문화교류 대상을 한국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현봉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일을 해 오신 분들의 생생하고 객관적인 사례들을 나누는 자리로, 향후 수교 및 교류 사업 등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선영

장장 2년 동안 본 사업이 무난하고 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신경써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잘했던 점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이를 백서에 담아 후에 좋은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1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

최준호

가장 먼저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국가 간 교류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최장 기간, 최다 사업들이 양국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이런 교류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부터 김혜인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혜인

그동안 문화부에서 각종 수교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 수교행사들 대부분은 한국과 상대국의 수교 ‘몇 주년’을 기념해 치러졌습니다. 이 행사들은 사실 단기 간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우리 측 행사 몇 건과 상대국 행사 몇 건을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경우 매우 긴 기간,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까 하는 계획 하에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많은 교류를 맺어 왔습니다. 공공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교류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관대관인 경우가 많아 민간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교류 형태를 키운다거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그런 점에서 이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시카고문화원에서 온 참가자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류나 행사를 추진할 때 국가 주도로 기획된 사업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퍼져나간 행사의 시간 차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니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행한 행사가 확산되기까지 14~15년이 걸리는 반면 국가 주도 기획 하에 이루어진 행사는 4년 안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 주도의 국가 간 교류행사는 단기간에 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 간 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를 할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현봉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된 국가 간 교류로서 대규모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프랑스가 문화적 기초가 튼튼한 강국이었던 점과 수년 전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최준호 예술감독처럼 교류의 기초를 닦아준 문화예술 현장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점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에 대한 프랑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가능했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혜인

사실 프랑스 문화정책이 특이합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프랑스의 문화 정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타 부처에서 나가는 문화 분야 예산이 다가 아니고, 문화부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도 하고 사업을 아예 같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는 사실 타국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문화부의 예산이 깎였다고 해도 전체 문화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깎였다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의 질이나 양이 지방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방의 문화교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수교사업 건수로 평가받는 구조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0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경험하며

최준호

실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현장에서 경험하시면서 느끼신 소감들, 도움이 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주시고 또 영화 분야에 프랑스 내에서 개최된 여러 사업들을 코디네이션 해주셨던 이수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혜인

정부 주도의 국가 간 교류행사는 단기간에 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국가 간 교류 또는 다자간 교류를 할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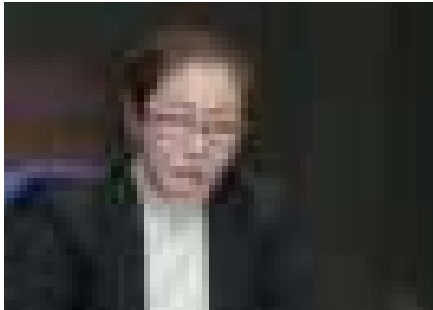
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영화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고 한-불 공동회의에 참석하면서 영화 분야를 주로 코디네이션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부산영화제에서 프랑스 특별전을 추진했는데 사실 2013년 이미 주한프랑스대사관 측에서 먼저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등 2013년 말부터 프랑스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영화 분야는 사람의 실제 이동이 적고, 공간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 교류의 기반이 다른 분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 등 여러 곳에서 한국 영화 특집 상영회 등이 이루어졌고 지금 한국에 있는 각종 국제영화제나 많은 기관에서 프랑스 영화를 많이 상영해왔기 때문에 이미 좀 기반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산영화제의 경우에는 프랑스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소피 마르소(Sophie Marceau)같이 저희가 부르기 힘든 스타급 배우의 방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사업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임권택 감독님 특별전과 포럼 데 이마주(Forum des Images)에서 열린 70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이라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 측면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최준호

사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준비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준 것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사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잠비나이도 2013년 서울아트마켓 기간에 개최된 ‘저니 투 코리안 뮤직(Journey to Korean Music)’에 홍대에서 진행된 연주회에 10명 이상의 프랑스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서 가장 빛났던 팀 중 하나가 잠비나이입니다. 20곳 이상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잠비나이 얘기가 나왔으니 잠비나이 김형군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부산영화제의 경우에는 프랑스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소피 마르소같이 저희가 부르기 힘든 스타급 배우의 방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사업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임권택 감독님 특별전과 포럼 데 이마주에서 열린 70편 이상의 한국 영화 상영이라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상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 측면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김형군

저희는 잠비나이는 시작할 때부터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해외 진출의 첫 번째 타겟이 유럽이었습니다. 2014년 연말 프랑스 렌느에서 트랑스뮤지칼(Transmusicales de Rennes)이라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프랑스 공연, 음악 분야에 있어 그 다음 해의 트렌드를 판가름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트랑스뮤지칼에 참가하면 그 다음 해 공연 규모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에 트랑스뮤지칼에 이어 바로 그 다음 해에 열린 또 다른 주요 음악 마켓 중의 하나인 2015년 바벨 메드 뮤직(Babel Med Music)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고 이후 2015년 여름 3개 의 프랑스 페스티벌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공연을 관장하는 네덜란드 얼스비트(Earthbeat)라는 회사와 협력하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매우 큰 규모의 자체 시장을 위해 로컬 회사와도 일을 하게 되었고 2015년 9~10월에 이미 프랑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투어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관계자들에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 중 하나로 잠비나이 투어를 다시 진행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고, 이런 부분들이 2016년 투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안에서 저희가 얻었던 가장 큰 성과는 프랑스에서, 보다 대중적인 페스티벌에서 공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한국과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창구는 대부분 월드 뮤직페스티벌이었습니다. 반면 저희가 갔던 곳들은 조금 더 대중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말하면 지산밸리락페스티벌 같은 규모의 락페스티벌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비뮤직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 들어가 투어를 마감할 때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던 잠비나이 1집 앨범이 프랑스 지역에서 아마존 얼터너티브 차트에서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월에 전 세계 동시 발매했던 2집 앨범도 스트리밍 사이트에 추이를 분석해보고 있는데, 톱 3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프랑스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이미 10회 가량의 프랑스 공연이 부킹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같이 일했던 에이전시보다 더 큰 규모의 에이전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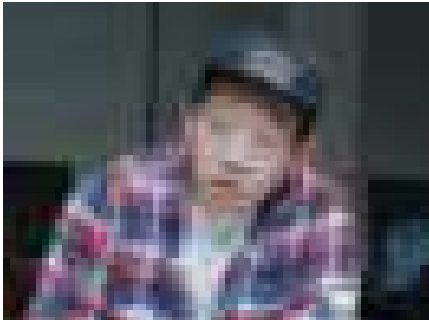
저희 아티스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봤을 때,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름 앞에 국적이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적을 초월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국가 간의 타이틀이 걸린 사업으로 인해 그 다음 단계인 국적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잠비나이에 있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준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준호

‘국가사업이다’라고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문 문화예술기관을 통해 좋은 사업들을 지원하여 좋은 환경을 만든 경우에는 관객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국가는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말을 듣게 되죠. 잠비나이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아니어도 해외 진출을 잘 진행해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힘을 받고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동희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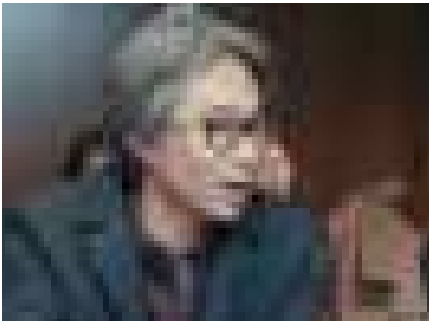
김형군

저희는 국적을 초월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국가 간의 타이틀이 걸린 사업으로 인해 그 다음 단계인 국적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잠비나이에 있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준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동희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의미를 찾자면 기존의 교류했던 방식은 거리예술, 서커스 분야의 경우 축제나 단발성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사업들은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보자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워크숍, 레지던시, 교육, 공동제작 등 다양 형태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희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중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거리예술과 서커스라는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가 흔히 얘기하는 비주류, 예술장르로 인식되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는 작품보다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예술가들의 교류나 양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에 많이 집중한 것입니다.

국내에 ‘거리예술’이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2000년대 초쯤입니다. 교류 사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계기가 한-불수교 120주년, 2006년이죠.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와 같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이 벌어지고, 방식이 다양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은 작년 4월 문을 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라는 공간입니다. 사실 이 시기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시기와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서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예술분야를 프랑스와 교류할 때 중요한 프랑스 측의 거점이 마르세유에 있는 거리예술지구입니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는 1995년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2013년 오픈했습니다. 마르세유 시가 당시 유럽문화도시수도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중 일한이 거리예술지구를 오픈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저희가 그쪽을 방문했고, 그 전부터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쪽도 공간을 열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이해관계가 맞았던 부분들이 진행 됐습니다.

작품 공동 제작도 진행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육입니다.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는 비교적 최근에 교류가 시작되었고 신진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거리예술, 서커스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마르세유에 ‘페아르(FAI-AR)’라는 거리예술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의 교육 시스템을 많이 차용하고, 그쪽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서커스 쪽은 코낙(CNAC)이라고 하는, 국립서커스예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커스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그곳과 저희가 많은 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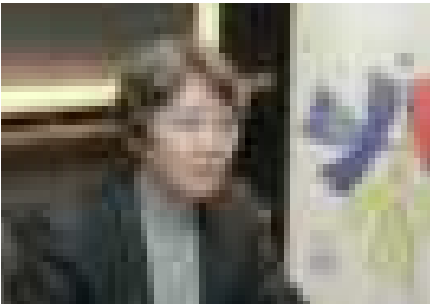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의미를 찾자면 기존의 교류했던 방식은 거리예술, 서커스 분야의 경우 축제나 단발성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의 사업들은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보자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 두 장르가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젊은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워크숍, 레지던시, 교육, 공동제작 등 다양 형태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규적인 교류 과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현재로선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최준호

그럼 분야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최은주 관장님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계실 때부터 일을 꼭 같이 하시다가 경기도미술관으로 옮기시고 많은 일을 진행하셨지요?

최준호

‘국가사업이다’라고 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문 문화예술기관을 통해 좋은 사업들을 지원하여 좋은 환경을 만든 경우에는 관객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국가는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말을 듣게 되죠.



최은주

저는 몇 년 동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매우 깊숙이 관련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있었던 〈이불 전〉, 마르세유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Friche de la Belle de Mai)에서 열린 〈미래는 지금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온 〈에코 시스템 : 질 바비에(Echo System : Gilles Barbier)〉전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미술관에서 이배 작가와 파리에서 기차로 세 시간 반 떨어진 모비앙이라는 도시에서 〈KM9346: 한국-모비앙〉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다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니다.

처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실장이었는데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로 퐁피두센터를 뺏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인데, 적어도 퐁피두센터 정도는 파트너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퐁피두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의 입장은 국가 간 교류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 기획 자체가 퐁피두센터의 역사와 퐁피두의 아이덴티티(Identity), 그리고 퐁피두를 벗어나 프랑스, 혹은 현대미술의 어떤 미학적, 미술사학적, 예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입장은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고 더 시기를 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퐁피두센터 같은 곳은 적어도 5년 정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걸 먼저 파악해야 하고, 같이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해가며 전시를 큐레이팅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만이 아니고 독일, 영국 등 문화 선진국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퐁피두센터는 실패했지만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파리에서, 또 다른 지방 도시에서 소개되었으므로 퐁피두센터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문화 예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퐁피두센터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주제, 혹은 정말 좋은 작가를 불러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한 〈KM9346: 한국-모비앙〉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갖고 있는 미술관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기획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영역들까지도 한 번 해볼만 하다는 점을 깨닫는

최은주

저는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한 〈KM9346: 한국-모비앙〉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갖고 있는 미술관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기획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단색화로 추상미술을 전시했으니, 프랑스의 현대미술, 추상화가들을 발굴하고 싶고 상호 교환 리서치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키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봅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8년에는 그쪽 전시를 들여놓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단색화로 추상미술을 전시했으니, 프랑스의 현대미술, 추상화가들을 발굴하고 싶고 상호 교환 리서치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키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이번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

관장님이 제 바람 중 하나를 풀어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의 지역에 있는 문화 예술 공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관객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간 미술관에서 많은 사업을 훌륭하게 해주신 한미사진미술관의 손영주 학예실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03

한국 국제 문화교류 정책 현황 및 지향점

손영주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첫 사업을 저희 미술관에서 시작해 많은 인사들이 방문을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매우 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국립기예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등 그동안 미팅조차 성사가 안 되고 조용히 가서 보기만 하고 왔던 곳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점점과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점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보기 힘든 프랑스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저희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사업들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서울에서, 중심지에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기는 해도 다소 외곽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을까 했는데,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해서 비슷한 관점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들과 달리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민간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경기도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과는 다르게 보험료, 운송료, 재수출보험 같은 것이 크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3000만 원 정도 작품 가격에 대해 저희가 써야 하는 돈,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솔직히 지원금을 받았으나 그것이 예산에 비례해,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힘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든 상황이라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해주신다면 민간에서 좀 더 좋은 작품, 오리지널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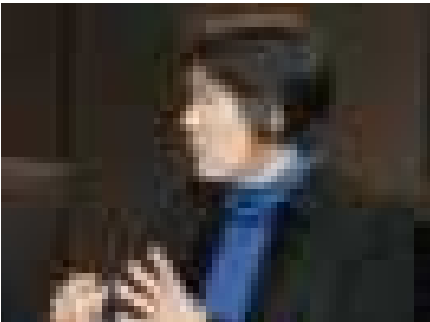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스크랩북〉같은 경우 지원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받겠다했습니다. 몇천 만 원을 받으나, 몇백 만 원을 받으나 해야 되는 행정서식, 절차들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따로 행정 담당이 없고 큐레이터들이 모든 일을 맡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브레송 같은 전시에는 보험료만 100원 억이 넘습니다. 이를 담보를 하러니 에어프랑스에서 사고 발생 시 본인들은 책임질 수 없다. 그래도 그냥 실패느냐 아니면 한국 항공을 이용하겠냐고 했습니다. 저희도 대한항공을 이

용 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보험사와 연결되어 해준다고 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가 세계에서 4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본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본은 몇 년 전부터 50억 원 정도는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같은 사업을 준비하실 때 행정적 절차들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해 주신다면 보험, 통관, 세금 등 부수적이지만 필수적인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문화부에서 선정되었지만, 예를 들면 세관에 가서는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사진의 경우에 작품으로 인정이 안돼 관세법 자체에 명목을 솔직하게 기록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전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보다 수월하게 작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저희가 다른 작품을 해외에 보낼 때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영주

이번 같은 사업을 준비하실 때 행정적 절차들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해 주신다면 보험, 통관, 세금 등의 부수적이지만 필수적인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보다 수월하게 작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저희가 다른 작품을 해외에 보낼 때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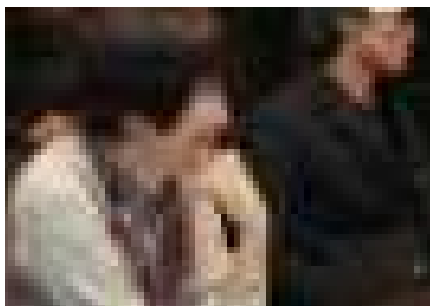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현장, 민간에서의 어려움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향후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할 때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지현 선생님은 백서 필자로 사업을 지켜보시며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지현

저는 백서 집필 작업 덕분에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무용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 프랑스 국립극장과 한국 국립극장 간의 협업, 공동제작이었습니다. <시간의 나이>의 경우 국립무용단으로서 해외 극장과 공동 작업이라는 일 자체가 처음이었기에,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 하는 것이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재료로 프랑스 안무가가 프랑스적 감각으로 만든 작품이었기에 한국 관객들은 매우 신선하다는 입장과, 낯설다는 반응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현장에서 큰 공부거리였습니다.

이지현

이번에 사이오국립극장과 공동 제작, 유명 축제 참가 등의 성과 덕분에 우리 무용단의 레벨이 한층 올라가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단번에 계단을 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민간이 하면 14~15년, 국가 차원에서 하는 4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랄까요.



반면 제가 6월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관객은 오히려 해외 공동제작 작품에 익숙해서인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본인들 감각으로 포장하고 해석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해야 할지에 대해 훈련된 관객들을 보면서 “아, 문화교류를 한다는 의미는 낯선 작품에 대해 새로운 감각들을 일깨우는 것이구나”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주목했던 또 하나의 상황은, 무용 쪽에서는 안은미 안무가의 작품이 프랑스에서 많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팔려가고, 그것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성과가 이번에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안은미는 프랑스에 진출하기 위해 20년을 준비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큰 국가적인 차원, 개인 무용가, 그리고 그쪽의 페스티벌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이렇게 교류의 여러 가지의 타입 등 그야말로 골고루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프로듀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사이오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과 공동 제작, 유명 축제 참가 등의 성과 덕분에 우리 무용단의 레벨이 한층 올라가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단번에 계단을 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민간이 하면 14~15년, 국가 차원에서 하는 4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랄까요.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온 프랑스 사업이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시댄스에서 ‘프랑스 포커스’라는 테마로 프랑스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으나, 올해 ‘스페인 포커스’와 겹쳐 별로 부각되지 못했고, 프랑스에서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이 오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었으나 프랑스 것이 우리 들어오는 것에서는 좀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최준호

양국의 약간 불균형한 프로그램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 우리 기반시설 환경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프랑스 측은 초청할 수 있는 예산은 늘 확보하고 1년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곳이 몇 곳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제 향후 국제교류를 위한 정책적 지향점들, 국제 문화교류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향후 국제 문화교류의 전망 및 방향****이수원**

프랑스는 질적인 이익이 없는 사업은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저는 프랑스 앙스티투(Institut français) 체제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원이 교체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즌 프로그램을 계속 하실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 역시 전담 기관이나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현봉

그 부분(전담조직)이 사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숙련된 인력, 상시 조직이 있었으면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불 사무국 조직이 임시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국가 간 교류를 위해서 프랑스의 앙스티투 같은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지현**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반응은 사업 전체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돈 걱정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하는 것은 본인들의 역량이지만,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라도 지속가능한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컸습니다. 물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해주고 있긴 한데요, 프랑스 쪽과 교류할 때 이번처럼 크게 도움을 받다 갑자기 사라진다면, 아마 현장에서 제일 큰 결핍을 느낄 것 같습니다.

손영주

이번 사업을 통해 기본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사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번 교류의 경험이 타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면 국가 간 교류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현봉

이번 사업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교류사업으로 진행되었기에, 향후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투입해 이러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기관(예정)이 향후 교류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이 백서에 잘 담겨야 하겠지만 안정된 조직과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국가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봅니다.

최준호

사실은 맨 처음 사무국을 만들기 이전에 국제문화과와 ‘국제문화교류지원법’이라는 법안 제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충돌이 있어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지다 예술경영지원센터를 국제문화 교류 전담기구로 만들어 준비하고 다음 국회에서 현실성을 조금 더 키우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팀 안으로 들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제교류를 늘 해오던 인력이 예술경영지원센터 안의 네트워크가 되고, 여기에 참가한 코디네이터들이 자연스럽게 투입되고 그 기구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그즈음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요.

김혜인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늘 좌초되었죠. 특히 문화교류 파트는 외교부와 여러 가지 중첩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문화외교라고 하는 정책들이 있고, 또 KF라는 아주 오래된 조직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교류 파트에서 ‘복지문화교류진흥법안’이 제정이 이야기되었고, 그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국회 때 결국 통과가 안 되었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 연말 내 통과는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통과된다면 저희가 계속 외쳐오던 전담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과 교류를 하려고 할 때 어느 기관과 어떤 단체와 어떤 파트너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다 보니 박물관, 미술관 파트들에서 해외 교류기관들이 어떻게 교류를 해왔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대상기관들이 “한국에서 이메일을 받는 것이 1년에 몇 번인지 아느냐”며 굉장히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늘 특정 기관이 비슷비슷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반면 어떤 곳들은 어렵사리 찾아 문의하면 가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온갖 자료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대부분 특정 기관,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 단체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준비 중인 법안 안에는 후에 통계청에서 발행되는 승인통계로 내보낼 수 있는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지표조사 개발 등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계속 좌초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현봉

이번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된 국가 간 교류라서 대규모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프랑스가 문화적 기초가 튼튼한 강국이었던 점과 수년 전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최준호 예술감독처럼 교류의 기초를 닦아준 문화예술 현장의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던 점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에 대한 프랑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가능했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교류할 때 정보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우 좋은 교류들을 해놓고 자료는 다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부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그 추진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최은주

문화예술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예술을, 또 국제 교류적인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 사업을 담는 그릇 자체가 더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부 주도로 해 나가는데 사실 민간단체의 고민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의 사무국인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 노력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어도 저희가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과 벽을 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을 브랜드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그런 문화적 벽을 넘는 그런 중요한 브랜드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 브랜드를 계기로 우리가 프랑스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최준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는 일반 분야까지 포함하면 양국에서 거의 500개 정도의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굳이 행사가 아닌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행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사업은 ‘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예술이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김선영

요즘을 브랜드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가 그런 문화적 벽을 넘는 그런 중요한 브랜드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 브랜드를 계기로 우리가 프랑스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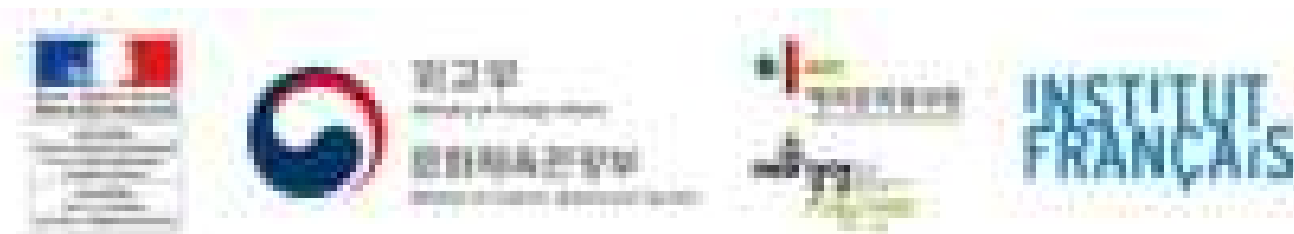
홍보물제작
온라인 홍보
전체 사업목록
사진저작권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부록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엠블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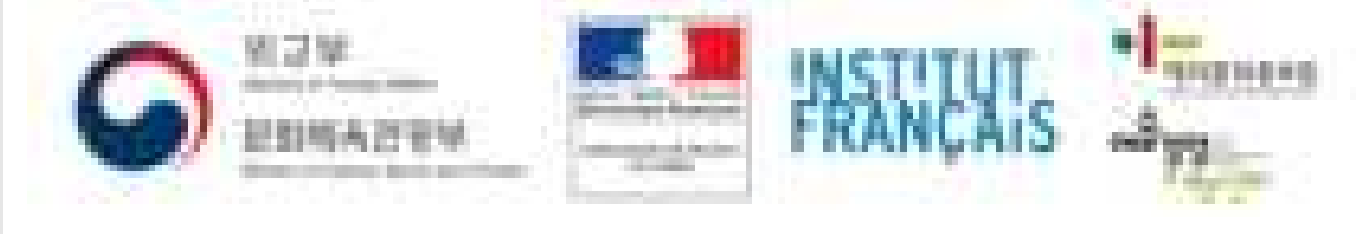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블락로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엠블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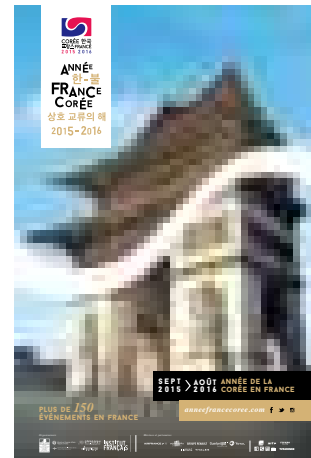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블락로고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키비주얼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프랑스 내 한국의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프로그램북



‘프랑스 내 한국의 해’ 상반기
프로그램북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하반기
프로그램북



‘한국 내 프랑스의 해’ 상반기
프로그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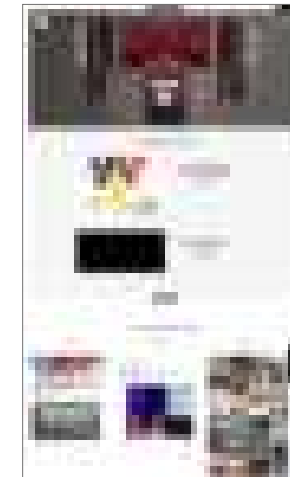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하반기
프로그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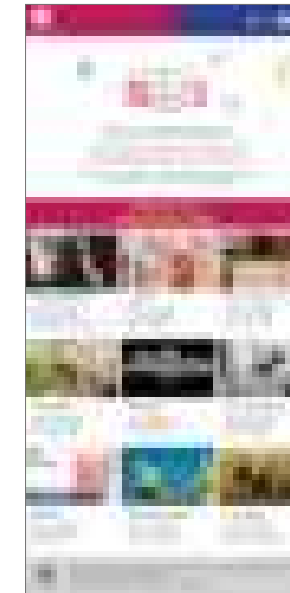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온라인 홍보



한국 홈페이지
<http://anneefrancecoree.kr>
개설일자: 2016.3.21
게시물 수: 2,130건
이용자 수: 172,819명
페이지뷰: 60만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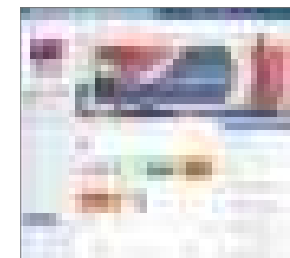
프랑스 홈페이지
<http://anneefrancecoree.com>
개설일자: 2015.9.7
페이지뷰: 13만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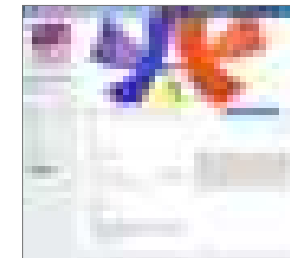
뉴스레터 제작
‘문화가 있는 날’, 특집방송 안내 등
(총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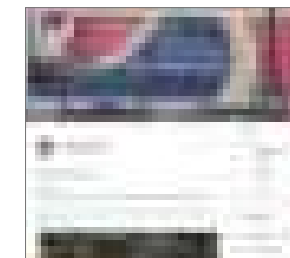
이벤트 진행
퀴즈, 기대평 등 댓글·공유
이벤트 진행
(총 14회, 4,83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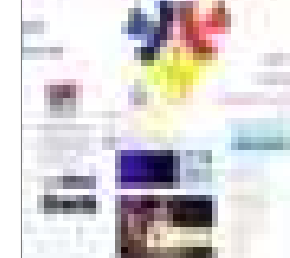
한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neecoreefrance>
개설일자: 2015.9.10
게시물 수: 390건
이용자 수: 8,814명



프랑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nneeFranceCoreee>
개설일자: 2015.9.18
이용자 수: 22,614명



한국 카카오톡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oreefrance>
개설일자: 2016.3.7
게시물 수: 275건
이용자 수: 6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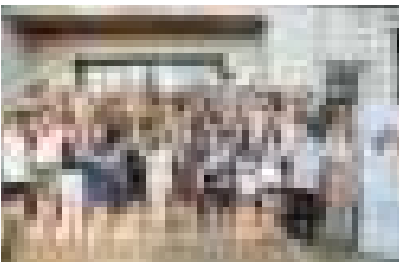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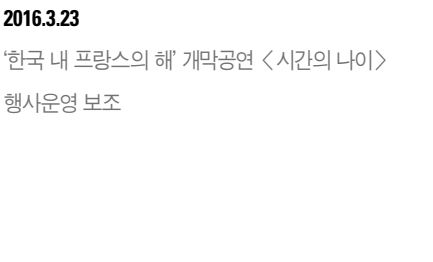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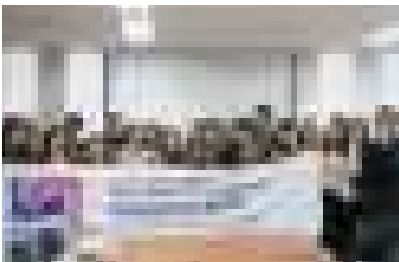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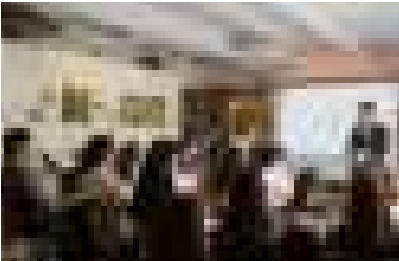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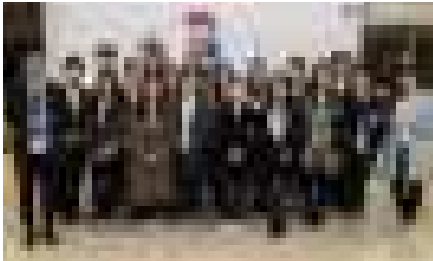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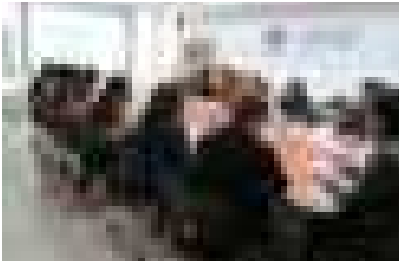


프랑스 트위터
<https://twitter.com/FranceCoreee>
개설일자: 2015.7.22
게시물 수: 1,464건
이용자 수: 1,938명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민간홍보사절 <프랑코아미>

활동개요	민간홍보사절 프랑코아미
활동기간	2016년 3월~12월, 총 10개월
활동인원	총 78명(1기 35명, 2기 4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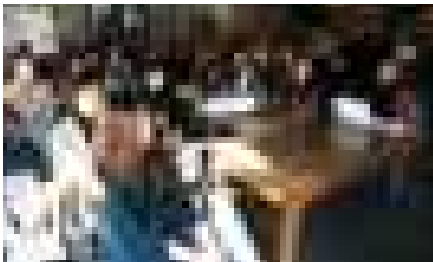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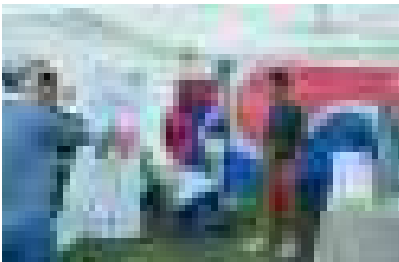
활동내용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한-불 상호교류의 해’ SNS 콘텐츠 확산 활동(공유, 댓글)	4,747건
공식인증사업 참여 후 개인 SNS 콘텐츠 생산 활동(후기)	255건
주요 행사 홍보 스태프 활동(부스운영 및 지원 등)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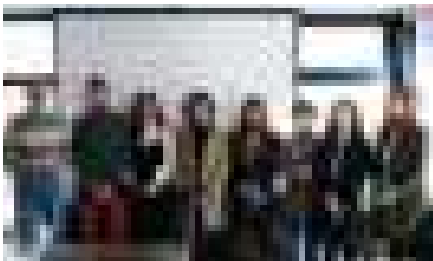
2016.3.17
민간홍보사절 프랑코아미 1기 발대식

2016.3.23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공연 <시간의 나이>
행사운영 보조

2016.8.5
민간홍보사절 프랑코아미 2기 발대식



2016.10.1-2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홍보부스 운영



2017.1.13
민간홍보사절 프랑코아미 해단식

프랑스 내 한국 의 해

공연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OCORA 라디오 프랑스 컬렉션 - 유지숙 민요 음반 발매		-	2015.09.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계문화의 집
테크노퍼레이드 : 한국주빈국 <서울 밤! > 투어		카로 뒤 탕플 외	2015.09.17~2015.10.04	페이크 바진	테크노폴-테크노 퍼레이드
종묘제례악		사이오국립극장	2015.09.18~2015.09.1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이오국립극장
콩페티		앙드레말로 홀	2015.09.18~2015.09.19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市
2015 파리 가을축제	김금화 <만수대택국>	파리시립극장	2015.09.20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파리가을축제
	안숙선 <수궁가>	부프 뒤 노르	2015.09.21	2015 파리가을축제	
	판소리 입문과정 아틀리에	파리시내 초등학교	2015.09.22~2015.10.16	최하늘	
	안은미 댄스 3부작	파리시립극장	2015.09.23~2015.09.29	안은미컴퍼니	
	오늘의 음악, 진은숙	시테 드 라 뮤지크	2015.10.09~2015.11.27	박정규	
이디오테잎 투어		카로 뒤 탕플 외	2015.09.25~2016.12.05	브이유엔터	디오니시악 투어
임마성 켄텍		선셋 선사이드	2015.09.26	임마성 켄텍	선셋 선사이드
라이트 버드		사이오국립극장	2015.10.02~2016.03.06	LG아트센터	르 게퇴르-뤽 페통 무용단
한국 가면 워크숍 및 바나리 공연		아스포델르 극장 외	2015.10.03~2015.10.14	극단 맥	아스포델르 극장
예술과 과학 프로젝트 <랑콩트르.！>		레그자곤 극장	2015.10.08~2015.10.10	대전문화재단	레그자곤 극장, 그르노블 CEA
철현금 산조 음반 발매			2015.1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계문화의 집
제8회 한-불 친선연주회 <메무아르>		마들렌느 교회	2015.10.09		에코 드 라 코레
바나리, 어머니 회상		테아트르 포뮬레르 베로놀리앙	2015.10.10~2015.10.22 (공연일 : 2015.10.03)	극단 맥	오리자나브르 / 테아트르 포뮬레르 베르노리앙
2015 알리앙스 랑 레조낭스 : 파리에 온 한국		알리앙스 프랑스제 극장	2015.10.14~2015.10.17	극단 맥	알리앙스 프랑세즈
잠바나이 투어		아트 록 페스티벌 외	2015.10.14~2016.08.20	잠바나이	얼스비트&디오니시악 투어
공공공간 예술창작 - 한국의 봄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2015.10.19~2016.05.06 (공연 : 2016.05.03)	서울문화재단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가양성기관
제20회 파리 상상축제	전통음악명인들의 산조 & 사나위	국립가메동양박물관	2015.10.23~2015.10.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계문화의 집
	최승희 트리뷰트	케브랑리 박물관	2015.11.22~2015.1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파리 난장 - 김덕수, 김리혜 그리고 사물놀이 한울림	태양극장	2015.12.07~2015.12.20	사물놀이 한울림	
	이명국 판소리	렌느 오페라	2016.03.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스트뮤직	
	진도씻김굿	세계문화의 집 외	2016.04.08~2016.04.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스트뮤직	
서커스전문가양성과정 : 점핑 업		국립서커스예술센터	2015.10.26~2016.06.04	서울문화재단	국립서커스예술센터
오늘날의 한국공연		메종 데 시앙스 드 롬므 파리 노르 외	2015.10~2016.08	-	에트노세노로지 연구소, 학제공연실험극단
한국 전통음악명인들의 사나위 합주 음반 발매			2015.11.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계문화의 집
조선과 빛		렌느 오페라 외	2015.11.06~2015.11.14	앙상블오푸스	브르타뉴심포니오케스트라
그람 코리아 포커스 <통로>	하안모래 길	릴 오페라 외	2015.11.05~2015.1.18	조주선	그람
	2015 그람 한국의 날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	2015.11.06~2015.11.20	크리마	
	가곡 & 크리에이션	리옹 국립고등음악무용원 외	2015.11.19	박민희	
K-Arts 무용단 초청공연		콩세르바투아르 드 파리	2015.11.12~2015.11.13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
코레디씨 페스티벌		장 빌라르 극장 외	2015.11.12~2015.11.27	난장컬처스	코레디씨 페스티벌
리퀴드 사운드<관계>		파리8대학교 앙피 X 외	2015.11.13~2015.11.23	리퀴드 사운드	아쏘시아시옹 도레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투어		릴 3000 외	2015.11.15~2016.03.26	안은미컴퍼니	메종 드 라 당스

공연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2015 칸느댄스페스티벌 - 회오리		칸느 팔레 데 페스티발 에 데 콩그레	2015.11.20	국립중앙극장진흥재단 (국립무용단)	칸느 댄스 페스티벌
한국 전통악기 기증식 및 공연		필하모니 드 파리-음악박물관	2015.11.26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필하모니 드 파리-음악박물관
벗어난 원리들		가론느 극장 외	2015.11.26~2015.12.04	무브먼트 당당	넥스트 페스티벌
코리안 사운드		파리 국립음악원	2015.11.28	(사)TIF양상블	2e2m 앙상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콘서트(지휘 : 정명훈)		메종 드 라 라디오	2015.11.06 / 2016.04.01	-	라디오프랑스
한국과 프랑스의 창작음악을 바라보는 시선		시테 드 라 뮤지크	2015.12.01~2016.02.10	-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
이은결 <디렉션>		아베스 극장	2016.01.11~2016.01.15	(사)페스티벌 북	파리시립극장
한국아동극 <달래이야가>, <나무와 아이>		파리시립극장	2016.01.12~2016.01.23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파리시립극장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아베스 극장	2016.01.19~2016.01.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리시립극장
안티포드		아베스 극장	2016.01.19~2016.01.23	댄스씨어터 창	파리시립극장
쇼 합합- 모닝 오브 아울<하모나이즈>		메종 드 라 당스 외	2016.01.28~2016.02.06	모닝오브아울	쉬렌극장, 메종 드 라 당스
무쉬 XXX, 소울스케이프 투어		페스티벌 트레블링 렌느 외	2016.02.04~2016.02.06	-	리바이벌 에이전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통과 현대 사이의 한국 여성음악인들>		사르셀음악원 오디토리움	2016.03.08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市
2016 바벨 메드 뮤직 코리아 필큐션 듀오 버드		카바레 알레아투아르	2016.03.19	-	라타너시모
2016 메이드 인 아시아	배일동 <심청가>	샤펠 데 카르멜리트 외	2016.04.05~2016.04.09	배일동, 김동원	메이드 인 아시아 페스티벌
	노름마치 콘서트	라 포즈 뮤지칼	2016.04.07~2016.04.10	(사)노름마치예술단	
	경연의 밤	에스파스 본느포이	2016.04.14	사나브로 가슴에	
변강쇠 점 찍고 옹녀		파리시립극장	2016.04.14~2016.04.17	국립중앙극장진흥재단 (국립창극단)	파리시립극장
뉴 소노르 - 콜 코리아		콩플뤼앙스 박물관 외	2016.04.23~2016.05.08	이두성	아티파티
재즈 수 레 포미에 : 한국주빈국		재즈 수 레 포미에	2016.04.24~2016.05.15	재즈 수 레 포미에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한 감정 메모리		오리악 극장	2016.04.27	-	고무신무용단
2K, 김차.까망베르		코르니옹 사립극장	2016.04.29	호모루덴스컴퍼니	라 불가
글렌체크 투어		라 플레쉬 도르 외	2016.05.01~2016.05.31	글렌체크	링 뮤직
역 - Station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 외	2016.05.03~2016.05.04	창작그룹노니	리유 휘블릭
페스티벌 오원, 한국 클래식음악과 문화축제		콜마르 사립극장 외	2016.05.07~2016.07.22	페스티벌오원	콜마르음악협회
다섯가지 기억		클레르몽페랑 문화의 집 외	2016.05.09~2016.05.14	리퀴드 사운드	아쏘시아시옹 도레미
빛의 제국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	2016.05.17~2016.05.21	(재)국립극단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
빅토르 위고 집에서의 음악회		빅토르 위고의 집	2016.05.20	-	빅토르 위고의 집
콜론오케스트라 양성원 솔리스트 초청 연주회		상젤리제 극장	2016.05.26	(주)컬처비즈 글로벌	콜론오케스트라
프랑스-한국 : 아르크 뮤지칼		앙드레말로 홀	2016.05.28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市
센생드니 무용축제 코리아 포커스	김요셉 <곰뱅이 댄스>	라 코윈느-오베르빌리에	2016.05.28~2016.05.29	김요셉	랑콩트르 코레그라피크 드 센생드니
	리케이댄스 <마음도깨비>	라 코윈느-오베르빌리에	2016.05.28~2016.05.29	리케이댄스	
	박상미 <인 마이 룸>, 아트프로젝트 보라 <소무>	라 코윈느-오베르빌리에	2016.05.28~2016.05.29	아트 프로젝트 보라	
	걸립프로젝트	라 파롤르 에랑트	2016.06.04~2016.06.06	이희문컴퍼니	
	박박 <가곡실격>	라 파롤르 에랑트	2016.06.04~2016.06.06	박박	

공연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2016 한국의 봄 축제		한국빌리지 외	2016.06.01~2016.06.05	노리단	낭트市
케이콘 2016		아코르 호텔	2016.06.02	씨제이 이엔엠	한국 측 일방사업
2016 미뎀 페스티벌 : 한국특집 - 케이팝 나이트 아웃		칸느 칼튼 호텔	2016.06.03~2016.06.06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뎀
레 뉴 드 푸비에르 축제 <묵향>		리옹 대극장	2016.06.08~2016.06.09	국립무용단	레 뉴 드 푸비에르
사이오 국립극장 코리아 포커스	모던 필링, OWN MHz, 혼합, 한국 아티스트의 날	사이오국립극장	2016.06.08~2016.06.18	국제무용협회	사이오국립극장
	이미아직	사이오국립극장	2016.06.09~2016.06.11	국립현대무용단	
	시간의 나이	사이오국립극장	2016.06.16~2016.06.24	국립중앙극장진흥재단 (국립무용단)	
코리안 심포니 투어	콜론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지휘 : 임현정)	가보 홀	2016.06.09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콜론오케스트라
	제24회 페스티발 데 포레	임페리알 극장	2016.07.07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페스티발 데 포레
	2016 랭스음악산책페스티벌	바질리크 생레미 외	2016.07.08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랭스<여름음악산책>
댄스 엘라지		파리시립극장	2016.06.18~2016.06.19	LG아트센터	파리시립극장
종이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외	2016.06.18~2016.06.21	경계없는 예술센터	콩파니 인-센소
화랑-카르나비르 예술공연 협업<갈-PASSAGE>		비바시테페스티벌 외	2016.06.19~2016.06.30	예술꽃화랑	카르나비르
마니페스트 2016 - 2016 IRCAM 아카데미 한국전문가 초청		퐁피두센터	2016.06.20~2016.07.02	크리마	이르캉
제43회 가나페스티벌 - 강릉단오제		가나페스티벌 광장	2016.06.20~2016.08.01	강릉단오제	가나페스티벌
레 시에스트 엘렉트로니크 2016		케 브랑리 박물관 외	2016.06.26~2016.07.17	레스앤레스	레 시에스트 엘렉트로니크
2016 아비뇽 페스티벌 Off	낮과 밤의 콩트	테아트르 데 알르	2016.07.06~2016.07.27	양손프로젝트	아비뇽 페스티벌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테아트르 데 알르	2016.07.06~2016.07.27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이방인의 노래	테아트르 데 알르	2016.07.06~2016.07.27	판소리만들가.자	
	꼭두, 목아마르다	발콩 극장	2016.07.07~2016.07.29	극단 맥	
한국과 프랑스의 소리		셀쉬르벨 수도원	2016.07.11~2016.07.18	이승동	카튀오르 엘립소스
2016 파리여름축제 - 위 아 코리안, 허니!		카로 뒤 탕플	2016.07.20~2016.07.24	안은미컴파니	파리여름축제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사업		오리악 시내	2016.08.12~2016.08.20	서울문화재단	스트라스부르그市, 오리악 에클라협회
제50회 라 세즈디유 페스티벌 - 비바 베르디!		라 세즈디유	2016.08.26~2016.08.28	라보라 예술기획	로렌국립오케스트라
내 땅의 땅으로부터		푸앵 오	2016.08.28~2016.09.23	올웨이즈 어웨이크	극단 오스모시스
한국전 참전 용사와 함께하는 평화음악회		살 가보	2016.09.27	호국위원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프랑스지회

시각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김익영, 김윤경 레지던스 및 전시 <여행자의 로망>	세브르 시테 드 라 세라믹	2015.01.21~2015.07.20	-	세브르 시테 드 라 세라믹
천경우, 정연두 x MAC / VAL 레지던시 및 전시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	2015.07.01~2017.04.09	천경우, 정연두	발 드 마른느 현대미술관
미래는 지금이다!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	2015.08.28~2015.11.29	국립현대미술관	프리슈 드 라 벨 드 메
레벨라시옹 비엔날레 : 한국주빈국	그랑팔레	2015.09.10~2015.09.1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틀리에 다르 드 프랑스
아베전	국립기메동양박물관	2015.09.18~2016.01.25	현대화랑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여인의 장신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2015.09.18~2016.03.14	예원실그림문화재단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코리아 나우! 한국공예전	국립장식미술박물관	2015.09.19~2016.01.0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장식미술박물관
배병우, 동경숙으로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	2015.09.19~2016.01.31	비비유아트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
포토케 2015 <위 아 페달라>	케 브랑리 박물관	2015.09.22~2015.11.22	-	케 브랑리 박물관
서울, 빨리 빨리!	트리포스탈	2015.09.26~2016.01.17	아트선재	릴 3000
배병우, 숲 속으로	상보르 성	2015.09.26~2016.06.12	비비유아트	상보르성
회집 위의 호랑이	국립기메동양박물관	2015.10.14~2016.02.22	-	국립기메동양박물관
A.I.R.발로리스 한국작품 컬렉션	A.I.R.(아티스트 레지던스) 발로리스	2015.10.09~2015.12.19	-	A.I.R.(아티스트 레지던스) 발로리스
감각교류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	2015.10.14~2015.10.31	-	파리소나무협회
서울-파리-서울	세르누치 박물관	2015.10.16~2016.02.07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세르누치 박물관
이불, 새벽의 노래 III	팔레 드 도쿄	2015.10.19~2016.01.10	국립현대미술관	팔레 드 도쿄
정글 슈즈	하우스 외	2015.10.23~2015.12.06	김림갤러리	트리포드
김수자, 투 브리스	메츠 퐁피두센터	2015.10.26~2016.01.04	국제갤러리	메츠 퐁피두센터
한묵 & 이응노 : 파리의 두 한국 현대작가	르 콩소르시움	2015.10.30~2016.01.24	갤러리현대	르 콩소르시움
마크 망장 <국경의 남쪽에서>	이미앙 문화의 집	2015.11.03~2016.01.03	-	이미앵 문화의 집
제17회 사르셀국제판화비엔날레 : 한국특별전	자닌아다드예술학교 판화마을	2015.11.21~2015.12.06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사르셀市
오브제 활성화	린 고등예술학교	2016.01.03~2016.09.30	남서울대학교	린 고등예술학교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	키아스마 외	2016.02.04~2016.02.27	유진상	키아스마이그렉
상관 III	메종 데 아르 솔랑주보두 외	2016.02.13~2016.05.21	국제 시각 문화예술협회	상관
메이드 인 코리아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	2016.02.19~2016.03.08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터블런트 트랜지션 : 포토그래픽 메시지 프롬 코리아	마이옹, 라 상브르	2016.03.02~2016.05.04	아시아문화원	라 상브르
KM9346 : 한국-모비앙 9346km	케르게넬미술관	2016.03.06~2016.06.05	경기도미술관	케르게넬미술관
무브! 무브! 무브!	에스파스 29	2016.03.10~2016.03.30	왓밴드 공	에스파스 29
한국예술, 현대미술의 근원	폴란드도서관	2016.03.14~2016.03.31	헬리오아트	아담 미키에비치 박물관
나우 와칭 : 스트라스부르그그/서울 2005-2015	유럽현대미술센터	2016.03.19~2016.05.22	-	유럽현대미술센터
메이드 인 서울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2016.03.20~2016.06.19	통의동보안여관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이아남 전	포토12	2016.03.30~2016.05.30	갤러리불촉일방사업	포토12
정현 <서 있는 사람>	팔레 로와알 정원	2016.03.30~2016.10.08	학교재 갤러리	이부 갤러리
한국의 도시성	파리건축문화재단지	2016.03.30~2016.04.16	(재)서울연구원	파리건축문화재단지
2016 아트파리 아트페어 : 한국주빈국	그랑팔레	2016.03.31~2016.04.03	한국화랑협회	아트파리 아트페어
바다사진축제 - 김현 <해녀, 바다여자>	바다사진축제	2016.04.01~2016.05.01	-	반느市
아베 <아슈 뒤 푸>	쇼몽성	2016.04.01~2016.11.02	현대화랑	쇼몽성
코디 최, 컬쳐 컷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2016.04.08~2016.08.28	피케이엠 갤러리 서울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	그랑팔레	2016.04.27~2016.06.20	국립중앙박물관	그랑팔레

시각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파라다이스X와 홍타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파라다이스	2016.05.01~2016.06.30	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
러브송 : 한국→프랑스	틸시 갤러리	2016.05.04~2016.05.13	아데칸(낭트 한국학 발전 협회)	낭트 보자르
현대예술의 봄 : 한국특별전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외	2016.05.04~2016.05.29	스페이스 포 컨템포러리 아트(주)	마르세유 엑스포
프랑스와의 위기에 초청 상영 및 토론회 〈오투르 드 프랑스와의 위기에〉	파리건축문화재단지	2016.05.11	서울역사박물관	파리건축문화재단지
하늘의 마법사	라 빌 아 데 아르	2016.05.15~2016.06.05	ACC 프로젝트	라 빌 아 데 아르
프로스펙티프 시네마 · 임흥순, 조해준, 김성환	퐁피두센터	2016.05.26	반달	퐁피두센터
정상에서의 물	시테 드 레스파스	2016.05.30	스페이스 사이언스 뮤지엄/ 나로 스페이스 센터	세메셀 시테 드 레스파스
한국 전통 목조각, 꼭두의 아름다움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	2016.05.30~2017.04.23	동송아트센터 꼭두박물관	니스 아시아예술박물관
박신영 전	르푸앙포르 갤러리	2016.06.05~2016.07.31	-	르푸앙포르 갤러리
한국현대도에전시	베르나르도재단	2016.06.17~2016.11.05	엠에이피(M.A.P)	베르나르도재단
리모주의 한국	호스피스 갤러리	2016.06.17~2016.12.16	이천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리모주市(베르나르도 재단과 아드리앙 뒤부레 국립박물관)
여행자의 로맨스	아드리앙 뒤부레 국립박물관	2016.06.18~2016.10.17	불촉일방사업	리모주市
정도준 <더 스피릿 오브 라인즈>	위트윌로발라동 미술관	2016.06.19~2016.07.17	정도준	사누아市
난지x파비옹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	팔레 드 도쿄 - 파비옹 뇌플리 즈 OBC	2016.06.23~2016.08.29	(주)에드칸	팔레 드 도쿄
발로리스국제비엔날레 : 한국주빈국	마그넬리 박물관	2016.07.02~2016.10.31	박여숙 화랑	발로리스 골프 주앙
오경환 <스트리트>	생 시몽 호텔	2016.07.04~2016.08.04	동덕여자대학교	에에앤다협회(AND협회)
양혜규 <좀처럼 가시지 않는 누스>	퐁피두센터	2016.07.06~2016.09.05	양혜규스튜디오	퐁피두센터
팔로우 미, 프랑스 건축가의 한국 여행일드프랑스	메종 드 라쉬텍튀르	2016.07.12~2016.09.18	디자인밴드 요얏	프랑스건축가협회 일드프랑스 지부
울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016.07.15~2016.07.22	-	장줄리앙 푸스
디자인잉 크리에이티브 넥스트 디자이너스	생테티엔느 고등예술디자인학교	2016.08.20~2016.08.2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	생테티엔느 고등예술디자인학교
코리아 온/오프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	2016.08.30~09.25	고은사진미술관	탕당스 플루
세계도예의 길(WCR) 컨퍼런스	리모주 시청	2016.11.03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리모주 시 외
한국 아티스트·보두앙 르봉 교류 20주년 기념 전시 〈오세열〉, 〈채성필〉, 〈신성희〉	갤러리 보두앙 르봉	2016.10.10~2016.10.19	한국화랑협회	갤러리 보두앙 르봉

영화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단편영화진흥협회 한국특집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영화축제 외	2015.09.01~2016.08.01	-	단편영화제작소
매혹의 서울	포럼 데 이마쥬	2015.09.15~2015.11.01	한국영상자료원	포럼 데 이마쥬
제3회 한-불 공동제작 아틀리에	프랑스국립영화센터	2015.09.23~2015.09.24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국립영화센터
한국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 : 이론, 미학, 배급	루이뤼미에르 국립고등영상원	2015.10.22~2015.10.23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루이뤼미에르 국립고등영상원
제10회 파리한국영화제	시네마 뤼블리시스	2015.10.27~2015.11.03	주불한국문화원	아소시아시옹 1886
제 15회 로셀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 한국특별전	로셀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2015.11.10~2015.11.15	-	에스칼 도큐앙테르
스트라스부르그 한국영화제	시네마 오디세이	2015.11.11~2015.12.08	-	스트라스부르그市
3대륙 영화제 · 임권택 회고전	낭트 3대륙 영화제	2015.11.24~2015.12.01	한국영상자료원	낭트3대륙 영화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임권택 회고전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2015.12.02~2016.02.29	한국영상자료원	낭트3대륙 영화제,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2016 트레블링페스티벌 · 서울	브르타뉴 FRAC 오디토리움	2016.02.02~2016.02.09	-	클레르 옴스퀴르
파리 이미지 시네마 · 꿈의 산업 <제16회 한국초청 예술가 기술의 만남>	세계문화의 집 외	2016.02.03~2016.02.05	-	꿈의 산업 페스티벌
제22회 브줄국제아시아영화제 <한국 : 문학과 영화 1949-2015>	마제스틱 극장	2016.02.03~2016.02.10	목선재	브줄국제아시아영화제
제38회 크레테이여성영화제 : 한국특별전	메종 데 아르	2016.03.18~2016.03.2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크레테이여성영화제
한국 김동의 증폭	폴리곤느 에투알레	2016.04.16~2016.04.19	(주)엠씨엠씨	필름폴람
2016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 한국특별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2016.06.13~2016.06.18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홍상수 회고전	마르세유국제영화제 외	2016.07.12~2016.07.18	-	FID 마르세유

기타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2015 한-불 젊은 번역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CITL(국제문학번역가협회) 외	2015.09.01~2015.11.11, 2015.11.07(낭독회)	한국문학번역원	국제문학번역가협회
제2회 거리음식축제 : 한국주빈국	카로 뒤 탕폴	2015.09.25~2015.09.27	주불한국문화원	카로 뒤 탕폴
동서양의 인쇄술	그라블린느 소묘관화박물관	2015.10.30~2015.10.31	한국국학진흥원	그라블린느 소묘관화박물관
프랑스 주요문예지 한국문학 특집호 발간	-	2015.11.01~2016.08.31	한국문학번역원	르 몽드 외 3개
세계문학축제 “13회 미팅(MEETING n°13)” · 삶을 표현하다	생 나제르 바즈 수마린 라이프	2015.11.19~2015.11.27	한국문학번역원	작가/문학번역가의 집
세계 당구 선수권대회	보르도 팔레 데 콩그레	2015.12.01~2016.11.19	코쥔 코리아	코쥔 그룹
파리시내 도서관 한국특집 · 빨리빨리 한국	파리시내 72개 도서관	2016.01.09~2016.04.30	주불한국문화원	파리시내 도서관
2016 파리도서전 : 한국주빈국	파리 엑스포 포트 드 베르사유	2016.03.17~2016.03.20	대한출판문화협회	리드 엑스포지션스
화랑 태권도의 날	그랑 돔 드 빌봉 외	2016.04.~2016.06	세계무도아카데미	프랑스태권도연맹 에손지역 위원회
한국 독립운동과 프랑스	파리 1구청 외	2016.04.04~2016.04.16	국민대학교	파리1구청, 파리 디드로대학교
한-불 시인 공동번역 아틀리에	마르세유 국제시센터	2016.05.09~2016.05.13	한국문학번역원	마르세유 국제시센터
롤랑가로스 토너먼트 한국선수 출전	롤랑 가로스	2016.07.12~2016.09.18	대한테니스협회	프랑스테니스협회
ARTE 다큐멘터리 < 한국, 다양한 기적의 나라>	-	2016.05.20~2016.05.21	한국문학번역원	레 필름 디써 2
레 카이에 데 코레 · 크레에 아이외르, 비브르 아이외르	-	2016.09/12	살림출판사	아틀리에 데 카이에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공연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내한공연		한양대학교 SK아트rium 외	2016.05.12~2016.05.17 2016.01.04~2016.05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빛의 제국		명동예술극장	2016.03.04~2016.03.27	(재)국립극단	오를레앙 국립연극센터
루브르 그르노블 뮤지션 투어 - 한화클래식2016 : 마크 민 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			2016.03.05~2016.03.08	제이에스바쉬 프로덕션	뮤지션 뒤 루브르 그르노블
뮤지컬 아마데우스		세종문화회관	2016.03.11~2016.04.24	마스트 엔터테인먼트	WAM 프로덕션
두 코리아의 통일		미마지아트센터	2016.03.16~2016.10.02	극단 프랑코포니	-
프랑소와 뒤몽&앙상블 오푸스 <프랑스에서 온 편지>		예술의전당	2016.03.20	오푸스앙상블	프랑수아 뒤몽
시간의 나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016.03.23~2016.03.27	국립중앙극장진흥재단 (국립무용단)	사이오국립극장
M, 더 엑스트라오디너리 라이브 쇼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2016.03.24	소닉아일랜즈	카이구안 컬처
2016 통영국제 음악제	2016 통영국제음악제 : 프랑스 포커스	통영국제음악당	2016.03.25~2016.10.28	(재)통영국제음악재단	로베르토 카헨,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트리오 반더러, 상젤리제오케스트라, 에릭 르 사주, 그람,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
	2e2m 앙상블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2016.03.31~2016.04.01	(재)통영국제음악재단	2e2m 앙상블
제1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 엠마뉴엘 그라베 무용단		아르코예술극장 외	2016.04.04~2016.04.18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콩파니 엠마뉴엘 그라베
세이셋 <미라자>		문화역 서울284	2016.04.06	애교기획연구소 영기획	메테오르 뮤직
임수연 피아노 독주회 <앙리 뒤티유를 기리며>		페리지홀	2016.04.11	페리지홀/ 주한프랑스문화원	-
트리오 티에리 멜라르 투어		EBS스페이스극감 외	2016.04.15~2016.04.30	-	드라리암
프렌치 미라클 투어		문화역 서울284	2016.05.04	케이피크리에이티브에이전시	아이러브크리에이티브뮤직 (I LOVE CREATIVE MUSIC)
화랑-카르나비르 예술공연 협업<길-PASSAGE>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외	2016.05.06~2016.05.07	예술불꽃화랑	카르나비르
제13회 부산국제연극제: 프랑스 포커스		부산문화회관	2016.05.06~2016.05.15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레 무통 누아르
코리안심포니-콜론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불란서의 아름다운 시절(지휘 : 로랑 프티지라르)>		예술의전당	2016.05.1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콜론오케스트라
콩페티		이천아트홀	2016.05.14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사르셀市
2016 서울스프링살내악축제		세종문화회관 외	2016.05.17~2016.05.29	(사)서울스프링살내악축제 집행위원회	-
(부산)크레옹의 안티고네, (부산,광주)목이 마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외	2016.05.18~2016.05.24	극단 맥	아스포델르 극장
목이 마르다		동래문화회관대극장	2016.05.19	극단 맥	발공 극장
2K, 김차.까망베르		아르코예술극장 외	2016.05.20~2016.05.22	호모루멘스컴파니	라 불가
종이달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2016.05.25~2016.06.04	경계없는예술센터	콩파니 인-센소
파리 콩세르바투아르 무용단 초청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2016.05.26~2016.05.27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
제12회 부산국제무용제-윅 페통 <오스카>		해운대 해변특설별무대	2016.06.03~2016.06.04	부산국제무용제	윅 페통 컴파니
댄스 엘라지		LG아트센터	2016.06.11~2016.06.12	LG아트센터	파리시립극장
막심 제카니&다비드 비스위크 <한 손부터 네 손까지의 피아노 연주>		광주극장 외	2016.06.15~2016.06.24	알리앙스 프랑스	막심 제카니, 다비드 뷔스미크
아카데미 앵테르나시오날		송인아트센터	2016.06.20~2016.06.28	아카데미 앵테르나시오날 데테 드 니스	아카데미 앵테르나시오날 데테 드 니스
프렐조카주 발레단 <스노우 화이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2016.06.24~2016.06.25	대전예술의전당	프렐조카주 발레단
제24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프랑스 포커스		대학로예술극장 외	2016.07.20~2016.07.31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아시테지 프랑스

공연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페스티벌 오원, 한-불 연주자가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 외	2016.08.25~2016.09.05	페스티벌오원	콜미르음악협회 외
롯데콘서트홀 개관 페스티벌		롯데콘서트홀	2016.09.20~11.22	롯데콘서트홀	-
레 시에스트 엘렉트로니크		플래툰 시크릿 베이스먼트 외	2016.09.22~2016.09.24	레스앤레스	레 시에스트 엘렉트로니크
로베르토 주코		명동예술극장	2016.09.23~2016.10.16	(재)국립극단	리무쟁 국립연극센터 류니옹 극장
제1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프랑스 포커스		예술의전당 외	2016.09.24~2016.10.13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카롤린 칼송, 맨 드레이크X토메오 베르제, 브로바잡 프루, 프렐조카주 발레단, 고무신무용단, 콩파니 안 뢰뢰
프랑스의 가을	한국-프랑스 거리예술을 통한 협력 및 교류사업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외	2016.09.28~2016.10.02	서울문화재단	페아르 거리예술전문기양성기관
	공공공간 예술창작 및 공연예술분야 구조물 제작 기획/전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6.10.04~2016.11.05		
2016 서울거리예술축제 : 프랑스 포커스		서울광장	2016.10.01~2016.10.04	올웨이즈 아웨이크	극단 오스모시스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랑스 포커스		서울 시청광장 외	2016.09.28~2016.10.02	서울문화재단	-
페스트노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6.09.29~2016.10.03	전주세계소리축제	로조, 후안 카르모나
실크로드 몽타주-프랑스 낭트 한국의 봄 콘서트		현대카드언더스테이지 외	2016.09.30~2016.10.08	유형유산진흥과	-
후안 카르모나 투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6.09.30~2016.10.01	전주세계소리축제	후안 카르모나
2016 잔다리 페스타 : 프랑스 포커스 <에스프리 프랑 세>		yes24 무브홀 외	2016.09.30~2016.10.08	(주)잔다리컬처컴페니	앵스티튀 프랑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198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2016.10.01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랭스 여름음악산책
제8회 반포서재 한불음악축제-레 이노상		반포동 몽마르트 공원	2016.10.01	반포4동주민자치위원회	MUSIHK
로조 & 들소리 투어 <엘팅팟 하모나>		국립극장 하늘극장 외	2016.10.01~2016.10.07	들소리	로조
앙리 텍시에 투어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외	2016.10.01~2016.10.03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앙리 텍시에
텔레페릭		클럽 타 외	2016.10.01~2016.10.28	칠리뮤직코리아	텔레페릭
붉은 원		예술의전당 외	2016.10.08~2016.10.15	한국예술종합학교	얀 뢰뢰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프랑스 포커스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2016.10.01~2016.10.03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재즈 수 레 포미에
프렌치 컬러		예술의전당 외	2016.10.11~2016.10.20	크리마	그람, 리옹고등국립음악원
프랑스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외	2016.10.19~2016.10.23	라보라 예술기획	로렌국립오케스트라
제7회 대전국제소극장연극축제-어둠의 시간		대전상상아트홀	2016.10.20~2016.10.22	(사)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벨 비아조 극단
아킨 재즈 콘서트		광주극장 외	2016.10.21~2016.10.31	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 위원회	아킨 그름, La Famille Arbossens 협회
소프라노 황수미&앙상블 마테우스 내한공연		롯데콘서트홀 외	2016.10.23~2016.10.30	(주)아트앤아티스트	앙상블 마테우스
코벨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2016.10.28~2016.10.30	국립극장	파리시립극장
필립 드쿠플레 <콘택트>		LG아트센터 외	2016.11.11~2016.11.17	LG아트센터	콩파니 데세아·필립드쿠플레
다니엘 하딩&파리 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외	2016.11.15~2016.11.16	빈체로	파리오케스트라
한국과 프랑스를 노래하다		고양어울림누리 외	2016.11.20~2016.11.26	이승동	카튀오르 드 엘립소스
뉘 소노르 - 유라피언 램 서울		TBC 언더스테이지 외	2016.12.15~2016.12.17	이두성	아티파티
프랑스 사르셀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엘림아트센터	2016.12.16	스마트 프로덕션	사르셀市

시각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매그넬 콘택트 시트	한미사진미술관	2016.01.30~2016.04.16	가현문화재단 한미사진미술관	매그넬포토 파리
진유영 개인전 <엔드리스>	초이스 갤러리	2016.02.04~2016.04.22	초이스 갤러리	한국 측 일방사업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본다	아마도 예술공간	2016.03.01~2016.03.25	유진상	키아스마이그렉
프랑소와즈 위기에 사진전 <서울 엘레지>	서울역사박물관	2016.03.23~2016.05.29	서울역사박물관	프랑스문화원
세종대왕상 점등식 <킹 오브 사인스>	광화문 세종대왕상	2016.03.24~2016.04.14	서울시	장사를 드 카스텔바작
장 폴 고티에 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6.03.26~2016.06.30	(주)에듀씨에스	장 폴 고티에 하우스
보이지 않는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2016.04.05~2016.05.29	(주)에드칸	프랑스국립예술기금(CNAP) & 아키텐느 지역예술기금(FRAC)
난자-파비옹 레지던시 교류 프로젝트-도시괴담	서울시립미술관	2016.04.05~2016.05.29(그림전)	(주)에드칸	팔레 드 도쿄
एको 시스템 : 질 비비에	국립현대미술관	2016.04.13~2016.07.31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프리슈 도 라 벨 드 메
레티나, 움직이는 이미지	이응노 미술관	2016.04.15~2016.06.26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푸앵돔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	광명동굴	2016.04.16~2016.09.04	광명시	라스코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파사주	도로시살롱	2016.04.22~2016.05.22	도로시살롱	장피에르 브리고디오
마이야 플로르<이미진 프랑스>	신세계백화점	2016.04.25~2016.06.30	신세계백화점	프랑스 관광청
2016 어린왕자 전	경기도박물관	2016.05.02~2016.09.18	경기도박물관	생텍쥐페리재단
사단 아피프<무엇을? 영원을>	에르메스	2016.05.10~2016.07.10	서울 에르메스	사단아피프
브뤼노 레끼아르<형태의 사>	고은사진미술관	2016.05.14~2016.08.10	고은사진미술관	죄 드 폼 국립미술관
샤를페로에게 현대미술을 묻다 전	피노키오뮤지엄	2016.05.21~2016.10.16	피노키오뮤지엄	캥탕 크프라넥
음식을 입다	대구 DTC섬유박물관	2016.05.28~2016.07.31	DTC섬유박물관	릴 3000
흙 시네마	대구미술관	2016.06.11~2016.10.16	대구시립미술관	크레타이 예술의 집
오를랑 테크노바디 1966-2016	성곡미술관	2016.06.17~2016.10.30	성곡미술관	오를랑
7가지 마음의 모양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16.07.19~2016.10.30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파라다이스X홍티아트센터 교환 레지던시	홍티아트센터	2016.07.31~2016.10.21	부산문화재단	파라다이스
서래마을 한-불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외	2016.08.10~2016.11.12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
0상실록	섬 박물관 외	2016.08.23~2016.09.13	ACC 프로젝트	라 빌 아 데 아르
듣는 나라의 앨리스	토탈미술관	2016.08.25~2016.10.23	토탈미술관	그람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스크랩북	한미사진미술관	2016.08.27~2016.12.03	한미사진미술관	카르티에브레송 재단
2016 광주비엔날레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 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2016.09.02~2016.11.06	광주비엔날레	-
2016 부산비엔날레 <흔들의 자궁, 다중자성의 공론장>	부산시립미술관 외	2016.09.03~2016.11.30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
드라이브인	서교예술실험센터	2016.09.04~2016.09.11	서교예술실험센터	엘레노르 파노자바로니, 김나영 독립큐레이터
코로그램 신진 기획자 밀어주기 프로젝트 <아는)사람> 전	코로그램 갤러리	2016.09.08~2016.09.24	하민	소피큐피아
을지로 f--fête!!	북한문화공간 신도시	2016.09.24	에이지아이 코리아	-
오브제 활성화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이앙	2016.09.30~2016.10.11	남서울대학교	린 고등예술학교
이응노와 유럽의 서체추상	이응노 미술관	2016.10.04~2016.12.18	이응노 미술관	세르누치 박물관
무한에서 중심으로	KF갤러리	2016.10.06~2016.10.26	티엔컨설팅	조슬랭 아크와바마티봉
한글, 미래를 쓰다	송도씨티	2016.10.07~2016.11.30	제이에이알비아트	n+n 코르시노
2017 S/S 패션코드	남산 J-GRAN HOUSE	2016.10.18~2016.10.20	이상봉	루시 브로샤르

시각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상탈 아커만 그 이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6.10.19~2016.10.23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국립조형예술센터
이진우 전 <비움과 채움>	조선일보 미술관	2016.10.19~2016.10.24	이진우	세르누치 박물관
대전국제포토제널리즘 전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2016.10.20~2017.01.20	대전일보	뉴 에비던스
아트 오브 클립	신세계본점 반클리프아펠 부티크	2016.10.28~2016.11.13	리치몬드코리아	-
오르세미술관 <이삭줍기> 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6.10.29~2017.03.05	지엔씨 미디어	오르세미술관
울림	금산갤러리	2016.11.02~2016.11.22	-	장줄리앙 푸스
소나무, 파리_서울	아트스페이스 세움	2016.11.09~2016.11.25	한국소나무협회	파리소나무협회
세상만들기	경북대학교 미술관 외	2016.11.17~2017.04.16	뉴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	시테 앙테르나시오날 데 아르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 프랑스에서 온 세계현대미술가 전	서울올림픽기념관	2016.12.01~2016.12.20	EBS미디어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현대작가전 추진위원회
르 코르뷔지에 전	예술의전당	2016.12.06~2017.03.26	코바나컨텐츠	르 코르뷔지에 재단
프렌치 터치	통의동보안여관	2016.12.08~2017.01.08	통의동보안여관	메이막 현대미술센터
아녜스 데르비 #K76-3613	한미사진미술관	2016.12.10~2017.01.21	한미사진미술관	매그넬포토
르누아르의 여인	서울시립미술관	2016.12.16~2017.03.26	뮤지시앙 뒤 루브르 그르노블 투어	지시앙 뒤 루브르 그르노블 투어
니콜라스 웨파<LUX 10-Busan>	부산 수영강변	2016.12.17~	부산시	라 빌 아 데 아르
코리아 온/오프	고은사진미술관	2016.12.17~2017.02.22	고은사진미술관	탕당스 플루
요세프 쿠멜카<집사>	한미사진미술관	2016.12.17~2017.04.15	한미사진미술관	매그넬포토

영화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2015 부산국제영화제 : 프랑스특별전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2015.10.01~2015.10.10	2015 부산국제영화제	앵스티튀 프랑세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	국립현대미술관	2015.11.25~2016.02.28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필립 가렐
클레르 드니 회고전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2016.04.12~2016.05.08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앵스티튀 프랑세
201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 프랑스특별전	메가박스 코엑스	2016.05.26~2016.05.31	메타플레이	알리망타시옹 제네랄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프랑스특별전	메가박스 신촌	2016.06.02~2016.06.0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크레데이 여성영화제
프랑스 영화 특별전 <사랑의 파리>	서울역사박물관	2016.06.11~2016.07.02	서울역사박물관	앵스티튀 프랑세
자크 리베트 회고전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2016.06.30~2016.07.04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영상아카이브와 역사연구-경험과 방법론의 교류>	고려대학교 외	2016.07.11~2016.07.12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프랑스국립사적각연구소
프랑수아 트뤼포 특별전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2016.07.12~2016.07.31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프랑스특별전	부천시청 외	2016.07.21~2016.07.31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고몽 S.A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의 미래, 2030>	한국만화박물관	2016.07.27~2016.08.21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시테 앵테르나시오날 드 라 방드 데씨 네 에 드 리마쥬
제8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 프랑스특별전	아트나인	2016.09.29~2016.10.03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
한국 영화와 프랑스 영화에 대한 시선의 교차-형식, 재현, 제작, 교육	성균관대학교 외	2016.10.12~2016.10.13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 루이뤼미에르 고등영상원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랑스특별전	한국만화박물관 외	2016.10.21~2016.10.25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한국, 무수한 기적의 나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6.10.25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자크 뎡스
제7회 제주 프랑스 영화제	메가박스 제주 외	2016.11.03~2016.11.06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
프렌치 시네마 투어 S.T. Dupont 2016	CGV압구정 외	2016.11.10~2016.11.23	씨지브이	앵스티튀 프랑세

기타

제목	장소	기간	한국주관기관	프랑스주관기관
프랑스 관광 홍보를 위한 네이버 디지털광고		2016.03.14~2016.12.31	-	앵스티튀 프랑세
롤랑가로스 인 더 시티	육군사관학교 외	2016.04.21~2016.06.05	대한테니스협회	프랑스테니스협회
말산업 심포지움	렛츠런파크	2016.04.30	한국마사회	프랑스말산업협회(IFCE)
한-불 곱핀 친선대회	소노펠리체 CC 비발디파크	2016.05.27	한불상공회의소	프랑스 관광청
2016 서울국제도서전: 프랑스 포커스	서울 코엑스	2016.06.15~2016.06.19	프랑스 국제도서 사무국	프랑스 국제도서 사무국
2016 KLPGA 액티비아백제CC 드림 투어	백제 컨트리클럽	2016.07.27~2016.08.23	다논-폴무원	에비앙
2016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안양종합운동장 외	2016.09.03~2016.09.11	비엔피 파리바카디프 생명보험	-
제12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홍대주차장거리 일대	2016.09.29~2016.10.03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정보없음(프랑스 주관기관 없음)
투르 드 프랑스 레탑 코리아	올림픽공원	2016.11.05~2016.11.06	악티	투르 드 프랑스

사진 저작권

1장.

- P.10
- 1, 2. 연합뉴스
3. ambafrance.kr.org
4. 대한항공

- P.11
5. diplomatie.gouv.fr

- P.12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13
- 2, 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14
1. 안은미컴퍼니
2. 박정규

- P. 15
3.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4. 랑커뮤니케이션

- P.16
1. CJ E&M
2. 페이크버진

- P.17
- 3, 4. 르부아스튜디오, 황승택

- P.18
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2. 비비유아트

- P.19
- 3, 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P.20
1. 양혜규 스튜디오

- P.21
2. 국립현대미술관
3. 국제갤러리
- P.33
5. ㈜에듀씨에스
6.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 P.22
- 1, 2. 한국영상자료원
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23
- 4, 5. 대한출판문화협회
6. 한국영상자료원
- P.34
1. 한미사진미술관
2. 성곡미술관

- P.24
1.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35
- 3, 4. 서울시립미술관

- P.25
- 2, 3, 4, 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36
1. 롤랑가로스
- 2, 3. 씨지브이

- P.26
- 1, 2, 3.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37
4. 왓티
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27
4. 국립무용단
5.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38-39
- 1, 3, 4, 5. 안유진
2.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 P.28
- 1, 2, 3. 서울문화재단
- P. 43
- 상. <http://m.blog.daum.net/simjy/11989032?categoryId=89504>
- 하. 김종성

- P. 44
- 상. http://bookseum.hwabong.com/jsp/show40/showList_n.jsp?page=11&ms_id=32&mc_no=237
- 중. 국립중앙도서관
- 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liberum&folder=22&list_id=6319288

- P. 45
- 상. parisconsortium.org
- 중. <https://parisconsortium.hypotheses.org/128>
- 하. <http://www.bulac.fr/decouvrir-les-collections/collections-par-aire-geographique/asie/domaine-coreen/>

P. 46	P.54
상. http://bookseum.hwabong.com/jsp/show0/showList_n.jsp?page=6&ms_id=8&mc_no=22	상. SM TOWN LIVE in Paris http://www.betulo.co.kr/1805
중. 위키백과	
하. http://www.imagnet.com/story/detail/406	하. 싸이 트로카데로 공연 https://www.youtube.com/watch?v=crKibij4Tms
P. 47	P.70
http://versatile4u.blogfa.com/category/23	상. 국립국악원
P. 48	중.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SC_7199-Theatre-de-la-vil.jpg
상.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pwz&articleno=3346&categoryId=35&regdt=20150614122815	하. 이현주
하. http://www.zannavi.com/madang/blog.php?table=2&category=2 ,	P.71
Copyright (C) 2000-2017 손상길	상좌. 안유진
P. 49	상우.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usee-de-la-musique-3.jpg
상. 주한프랑스문화원	중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alais_de_Tokyo_@_Paris_(31361278606).jpg
하.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중우. 서울아트시네마
P. 50	하우.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us%C3%A9_des_Arts_D%C3%A9coratifs_2009_001.jpg
상. 네이버 영화	
하. http://cafe.naver.com/dodohi0607/72806	P. 72
P. 51	상. 국제갤러리
상. http://rateyourmusic.com/release/album/georges_bizet/carmen_suite___larlesienne_suites___jeux_denfants___orchestre_de_la_bastille___myung_whun_chung_/	중.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Lille_tri_postal.jpg
하. www.3continents.com	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C3%A2teau_de_Chambord_-_19-08-2015_-_Arnaud_Scherer.jpg
P. 52	
상. https://www.amazon.fr/Cin%C3%A9ma-cor%C3%A9en-Sous-direction-dAdriano/dp/2858507287	
하. www.cinematheque.fr	
P. 53	
상. 연합뉴스	
하. http://www.ac-rouen.fr/academie/politiques-educatives/des-ateliers-coreens-au-lycee-camille-saint-saens-49560.kjsp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

< 한국 측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부위원장

유동훈(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총기(외교부 2차관)

준비기획단장

오영우(해외문화홍보원장) 최영삼(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예술감독

최준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한국 주최 측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최재원 기획운영과장 하현봉

해외문화홍보사업과 권영태 기획운영과 박수향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유정희 기획운영과 한승희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장 최광진

공공외교총괄과 변현정

공공외교총괄과 안지영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

문화예술분야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선영

팀장 김유정

홍보담당 신지은

홍보담당 이승희

시각예술담당 박수경

공연/음악/무용담당 최해인

문화유산/문학/영화담당 홍이지

홍보지원 김정연

사업지원 김소라

일반분야: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사무국장 박혜윤

코디네이터 제선영

< 프랑스 측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Henri Loyrette

후원위원회장

Stéphane Israël

예술감독

Agnès Benayer

< 프랑스 주최 측 >

Institut Français

Institut Français 원장 Bruno Foucher

Pôle des saisons 부서장 Nicolas Ruyssen

홍보담당 Henri-Pierre Godey

홍보담당 Perrine Thibault

교육/연구/도서/스포츠담당 Catherine Vinay

문화유산담당 Marie Claude Vaysse

공연예술/문화사업담당 Charles Vix

경제/미식/관광담당 Pierre Mancini

영화담당 Pierre Triapkin

시각예술담당 Flora Boillot

음악담당 Nicolas Doyard